지구촌에 새긴

KOICA의 발자국

1991~2009

푸른세상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지구촌에 새긴 KOICA의 발자국 : 1991-2009 / 김진오 외 28명 지음. — 서울 : 푸른세상, 2009
p. ; cm

ISBN 978-89-92953-14-6 13330 : ₩30000

한국 국제 협력단[韓國國際協力團]

322.8306-KDC4
338.91-DDC21 CIP2009002693

지구촌에 새긴
KOICA의 발자국
1991~2009

초판 1쇄 인쇄 2009년 9월10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9월20일
지은이 김진오 외 28명

기획 · 진행 박준
펴낸이 김원섭
펴낸곳 도서출판 푸른세상
주소 서울 중구 필동 2가 84-10 정품 103호
전화(02)2264-3646 **팩스**(02)2261-3115
등록 제21-0371호

ISBN 978-89-92953-14-6 13330

값 30,000원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Laos
Mongolia
Bangladesh
Vietnam
Sri Lanka
Indonesia
Cambodia
Philippines
Nigeria
Senegal
Ethiopia
Egypt
Tanzania
Guatemala
Paraguay
Peru
Iraq
Uzbekistan
Kazakhstan
Nepal
Ukraina
East Timor
Myanmar
Afghanistan
China
Papua-
New Guinea



Pakistan
Fiji
Ghana
Morocco
Sudan
Angola
Algeria
Zambia
Zimbabwe
DRC
Côte D'ivoire
Kenya
Tunisia
Nicaragua

Dominica(R)
Bolivia
El Salvador
Ecuador
Honduras
Jamaica
Colombia
Yemen
Jordan
Iran
Palestine
Azerbaijan
Ukraine
Thailand

South-
Africa
Rwanda
Chad
Congo
Mexico
Belize
Uruguay
Costa Rica
Panama
Lebanon
Libya
Syria
Solomon Islands
Romania
Bulgaria
Montenegro
Serbia

1991~2009

김진오 외 28명 지음

푸른세상

KOICA의 해외 무상 원조는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지구촌에 심은 KOICA의 발자국 : 1991~2009〉를 펴내며

개도국 사업 현장에 가보면
그들은 언제나 묻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한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였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잘살게 됐나요?"
그들은 과거 가난하고 비참했던
한국의 모습에 자기 나라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자마자 민족이 둘로 쪼개지고 전쟁을 치러야 했던 불행하고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 나라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해외 언론은 이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었던 그 나라는 몇십 년 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뒤바뀌었습니다. 세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를 보고 세계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에 가보면 한국이 이렇게 잘살게 된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노력과 열정, 희생이 이루어낸 찬란한 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른 나라들의 적극적인 원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



후 몇 년 전까지도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 24개 선진국과 다양한 국제기구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6·25전쟁 후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해외 원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 규모는 약 128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한국은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굶주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가난한 그들의 모습이 과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KOICA 시니어 단원으로 파견되어 봉사를 하는 분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이 옛날에 그랬어요. 전쟁 후 한국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지원한 해외 무상 원조 규모는 약 48억 달러에 그칩니다. 아직은 우리의 해외 무상 원조가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우리는 다른 나라의 지원을 목말라하던 그 시절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우리는 국제 사회에 8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도국 사업 현장에 가보면 그들은 언제나 묻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한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였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잘살게 됐나요?" 그들은 과거 가난하고 비참했던 한국의 모습에 자기 나라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한국처럼 그들도 단기간에 잘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무상 원조를 담당하는 KOICA가 창립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업을 한 권의 책에 정리했습니다. 1천 쪽이 넘는 분량만으로도 지구촌에 남긴 KOICA의 대장정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KOICA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KOICA가 지구촌 이웃의 꿈과 희망을 위해 걸어온 여정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KOICA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KOICA의 모든 사업은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인으로서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교육, 보건의료, 행정 제도, 농촌 개발, 정보 통신, 산업 에너지, 환경 등의 7개 분야는 KOICA의 주요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8년간 쌓인 그 수많은 사연을 어떻게 책 한 권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딱딱한 사업 이야기만을 담았는지도 모릅니다. 고작 한 권의 책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까지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하나하나에 배어 있을 KOICA의 여정을 미루어 짐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KOICA로서는 이 책의 발간을 통해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적은 인원이 수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차분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년 KOICA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은 점점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18년이란 연륜이 쌓인 KOICA가 꼼꼼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가 되었습



세계에는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KOICA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KOICA는 국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니다. KOICA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3년 동안 외교관으로서 일해 왔기 때문에 KOICA가 전 세계에서 보여준 존재감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KOICA의 사명은 사랑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외교이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현지의 환경 아래서도 직접 사업을 수행해 준 우리 기업의 헌신,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지구촌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KOICA 직원들의 열정에 경의를 보냅니다.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의 밀림에서까지도 자신을 불사르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자원 봉사자들에게 파이팅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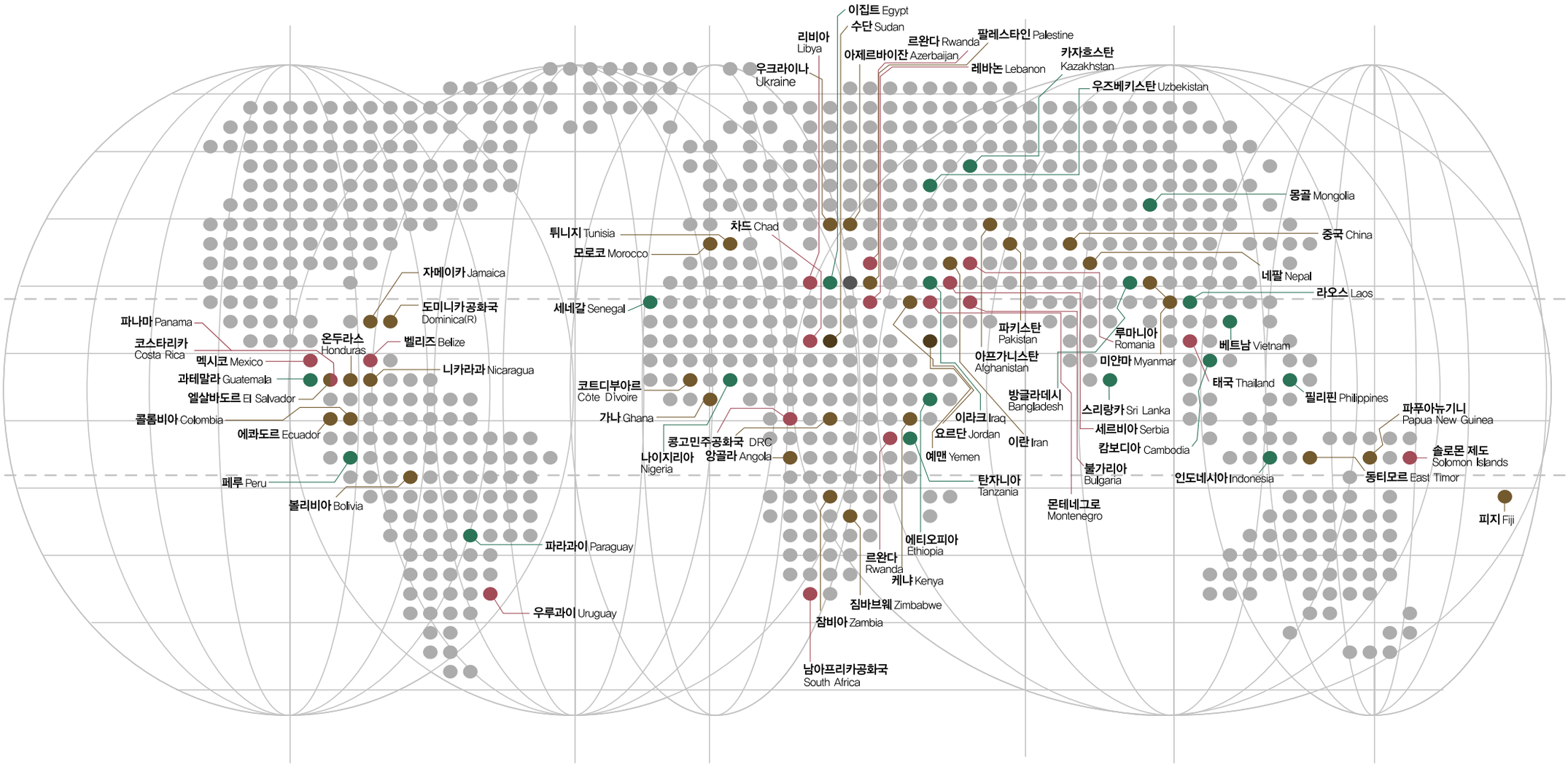
독자 여러분, 저희들의 사업을 지켜봐 주시고 적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OICA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혈세를 한 푼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KOICA는 국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2009년 9월

KOICA(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차大元

KOICA

지난 18년간 KOICA는 전 세계 70개국을 지원해 왔습니다



| KOICA 소개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전담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함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 KOICA 총재 발간사 | ····· 04
| KOICA 지원국 | ····· 10

01 KOICA 리포트 1부 지구촌의 가난과 배고픔을 함께 한다

| 아시아 |
라오스 Laos ··· 16
몽골 Mongolia ··· 50
방글라데시 Bangladesh ··· 90
베트남 Vietnam ··· 112
스리랑카 Sri Lanka ··· 194
인도네시아 Indonesia ··· 228
캄보디아 Cambodia ··· 278
필리핀 Philippines ··· 316

|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Nigeria ··· 354
세네갈 Senegal ··· 364
에티오피아 Ethiopia ··· 380
이집트 Egypt ··· 396
탄자니아 Tanzania ··· 428

| 중남미 |
과테말라 Guatemala ··· 446
파라과이 Paraguay ··· 470
페루 Peru ··· 492

| 중동 |
이라크 Iraq ··· 516

| CIS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 546
카자흐스탄 Kazakhstan ··· 562

02 KOICA 리포트 2부 지구촌의 절망에서 희망을 꽃피운다

| 아시아 |
네팔 Nepal ··· 580
동티모르 East Timor ··· 604
미얀마 Myanmar ··· 614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 636
중국 China ··· 652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 696
파키스탄 Pakistan ··· 704
피지 Fiji ··· 712

| 아프리카 |
가나 Ghana ··· 720
모로코 Morocco ··· 730
수단 Sudan ··· 746
앙골라 Angola ··· 756
알제리 Algeria ··· 760
잠비아 Zambia ··· 772
짐바브웨 Zimbabwe ··· 778
콩고민주공화국 DRC ··· 786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 ··· 792
케냐 Kenya ··· 800
튀니지 Tunisia ··· 818

| 중남미 |
니카라과 Nicaragua ··· 838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R) ··· 848
볼리비아 Bolivia ··· 858
엘살바도르 El Salvador ··· 868
에콰도르 Ecuador ··· 882
온두라스 Honduras ··· 890
자메이카 Jamaica ··· 896
콜롬비아 Colombia ··· 902

| 중동 |
예멘 Yemen ··· 908
요르단 Jordan ··· 912
이란 Iran ··· 922
팔레스타인 Palestine ··· 926

| CIS |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 942
우크라이나 Ukranine ··· 954

03 KOICA 리포트 3부 지구촌 곳곳에 미치는 KOICA의 손길

태국 Thailand ··· 966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 973
르완다 Rwanda ··· 974
차드 Chad ··· 977
콩고 Congo ··· 978
멕시코 Mexico ··· 980
벨리즈 Belize ··· 981
우루과이 Uruguay ··· 982
코스타리카 Costa Rica ··· 985
파나마 Panama ··· 990
레바논 Lebanon ··· 995
리비아 Libya ··· 996
시리아 Syria ··· 998
솔로몬 제도 Solomon Islands ··· 1000
루마니아 Romania ··· 1001
불가리아 Bulgaria ··· 1003
몬테네그로 Montenegro ··· 1005
세르비아 Serbia ··· 1007

KOICA

지구촌의 가난과 배고픔을 함께 한다

Asia





- Laos
- Mongolia
- Bangladesh
- Vietnam
- Sri Lanka
- Indonesia
- Cambodia
- Philippines





LAOS

라오스는 1860년대 인도차이나 반도를 침략한 프랑스로부터 1954년 독립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격렬한 대립으로 내전에 시달렸으며 1975년 공산주의 혁명으로 지금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었다. 라오스의 경제 규모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빈약하며 지금까지 인구의 약 30%가 빈곤에 시달릴 정도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글 · 안지희

라오스

영토는 1860년대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하면서 확립되었다. 라오스 면적은 남한의 3배가 넘지만 2006년 국내 총생산 GDP이 2천2백 달러로 동남아 국가 중 경제 규모가 가장 빈약하다. 라오스의 가난은 장기간의 내전으로 인해 피폐해진 국내 상황과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대로 교통망이 극히 미비하고, 인구 밀도가 희박한 것이 그 이유다. 라오스 인민혁명당은 1986년 4차 전당대회에서 '찐타나칸 마이(신사고)' 와 '라봅푸 마이(신제도)' 라 불리는 개혁 개방 노선을 표방하고 신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연평균 6.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경제정책에는 고정 가격 제도 폐지를 비롯해 일부 국영 기업을 해체하고, 사기업 참여 확대와 대외 무역을 장려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라오스의 농업 생산성은 국내 총생산의 5% 정도로 취업 인구의 약 8%를 차지한다. 라오스 경제는 대부분 농업 생산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최근 라오스는 외적인 경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을 비롯한 곡물, 유가 인상 등으로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오스는 우리나라 대외 원조 사업의 중점 협력 국가로서 지난 18년 동안(1991~2008년) 모두 3천3백17만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지원됐다.

국명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정체** 사회주의 공화제 **기후** 열대 몬순 기후 **인구** 6백10만 명(2007년 기준) **면적** 236,800㎢(한반도의 약 1.1배) **1인당 국민소득** 6백89달러(2007년 기준)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민족** 라오인(68%), 기타 소수 민족 **문자 해독률** 73%(2007년 기준) **종교** 불교(95%), 가톨릭, 개신교 등 **공용어** 라오어



| 라오스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6백10만 명) 중 1일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1993년 45%에서 2003년 33%로 줄었으며,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도 55.7%에서 44%로 감소 • **5세 미만의 체중 미달 아동** 1993년 44%에서 2000년 40%로 소폭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률** 1991년 61.9%에서 2006년 83.7%로 증가 • **초등 학력 이수율** 1999년 70.2%에서 2006년 75%로 개선 • **15세 이상 성인의 문자 해독률** 1995년 71.1%에서 2007년 82.5%로 개선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기초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1년 79%에서 2006년 89%로 개선 • **중등 교육 과정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62%에서 78%로 개선 • 고등 교육 과정에서도 1999년 49%에서 2006년 68%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사망률** 1990년 신생아 1천 명 중 1백63명 사망에서 2007년 약 75명으로 감소 • 2015년까지 5세 이하 신생아 사망률을 1천 명 중 50명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
모성 보건 증진	• **모성 사망률** 2005년 10만 명 중 6백60명 수준(1995~2005년까지의 모성 사망률 통계 없음). 2005년 기준으로 2015년까지 1백65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 **2001년 기준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출산 비율** 19.4%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HIV 보균자 비율** 2001년 0.1% 이하 수준에서 2002년 0.2%로 증가 • **결핵 발병률** 인구 10만 명당 1990년 1백79명에서 2006년 1백52명으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안전 식수 이용률** 1995년 41%에서 2006년 60%로 개선(도시 인구 86%, 농촌 인구 53%)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country data 참조

01 LAOS 주민들의 소망은 전깃불을 갖는 것

타드살렌 소수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

Feasibility Study on the Tad Salen Small-Scale Hydropower Project

라오스의 사바나켓 주 세폰 지역 주민들은 항상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가동 중이던 디젤 발전소마저 얼마 전부터 발전 시간을 하루 2~3시간으로 줄였다.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달러 부족이 그 원인이다. 이제 세폰 주민들에게는 밤을 밝히는 일마저 쉽지 않게 되었다. 생활수준이 더욱 열악한 소수민족들은 전기를 대체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화전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기 부족으로 세폰 지역 전체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라오스 정부는 세폰 주민들에게 전기 공급을 위해 타드살렌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해 작은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7년까지 18만3천 달러를 투자해 타드살렌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용 가치가 있는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연간 28GWh의 전력 공급을 위한 소규모 댐을 건설해 5mW급 수력 발전소의 이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KOICA는 수문과 기상 조사, 사회 경제 및 환경 조사, 지형 · 지질 · 전력 조사 등을 실시하고 대안별 기본 설계와 공사비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라오스 정부에 전달했다. KOICA는 1996년 당시 짧은 대외 무상 원조 역사 속에서도 라오스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량에 신뢰감을 갖게 할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업명 라오스 타드살렌 소수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18만3천 달러 | **지원 내역** 발전소 건립 조사를 위한 전문가 파견

02 LAOS 라오스 정보통신의 꽃을 피우다

외무부 전산망 1차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Computerizat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뉴욕 타임스는 2008년 '올해에 가면 좋은 세계 53개 여행지'를 발표했다. 그중 1등을 차지한 것은 바로 라오스였다. 1995년 10월 25일 체결된 한 · 라오스 수교 이후 경제, 과학, 기술 분야의 교류와 투자 보장 등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라오스 외무부 전산망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수교 직후 우리나라의 협력 조사단이 라오스를 방문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어 1996년 KOICA의 지원으로 본격화되었다. KOICA는 원활한 대외 협력 사업을 위해 라오스 외무부 시스템을 전산화하기로 결정하고, 1996년 2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외교부 내 전산망을 구축했다. KOICA는 컴퓨터 중앙시스템 서버, 노트북 4대, 컴퓨터 15대, 프린터 15대 등 기자재를 제공하고 전산망을 설치했으며, 전문가 2인을 한 달간 현지에 파견해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원 기자재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라오스 공무원 5명을 한 달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가 전산망 구축 사업을 진행할 당시 라오스의 전산 환경은 매우 열악해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라오스 정부는 자국 내 원거리 통신망과 인터넷 서비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고, 관련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선진 기술 이전 등의 노력을 시작했다. 라오스 내 KOICA의 전산화 사업은 비록 소규모 지원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라오스 정보통신 분야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명 라오스 외무부 전산망 1차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1996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3 LAOS 메콩 강 홍수가 사라졌다

메콩 강 제방 축조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Mekong River Bank Protection





인도차이나 반도의 젖줄 메콩 강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걸쳐 태국과의 국경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는 풍경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하지만 우기가 시작되면 메콩 강의 물살은 평상시의 잔잔함을 뒤로한 채 무섭게 돌변해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비엔티안의 왓솝 지역은 특히 피해가 심각하다. 라오스 정부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메콩 강변에 제방을 축조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 시공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제방 축조에 필요한 공사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원조의 효과를 상승시켰다. 1997년 3월 KOICA는 라오스로부터 사업 계획서와 공사 계약서를 접수받아 공사 진척 정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사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자칫 지원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현금 지원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1998년 10월 36만 달러를 지원해 마침내 총 길이 320m의 제방이 준공됨에 따라 우기 때마다 메콩 강의 범람으로 홍수를 두려워하던 비엔티안 시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게 되었다. KOICA의 메콩 강 제방 축조 사업은 한 · 라오스 수교 후 점진적으로 진행된 여러 협력 사업 중에서도 중차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공사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명 메콩강 제방 축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8년 | **사업 규모** 36만 달러 | **지원 내역** 시공 및 감리

04 LAOS 한국의 IT 지원 없이는 외교 전략도 없다

외무부 전산망 2차 구축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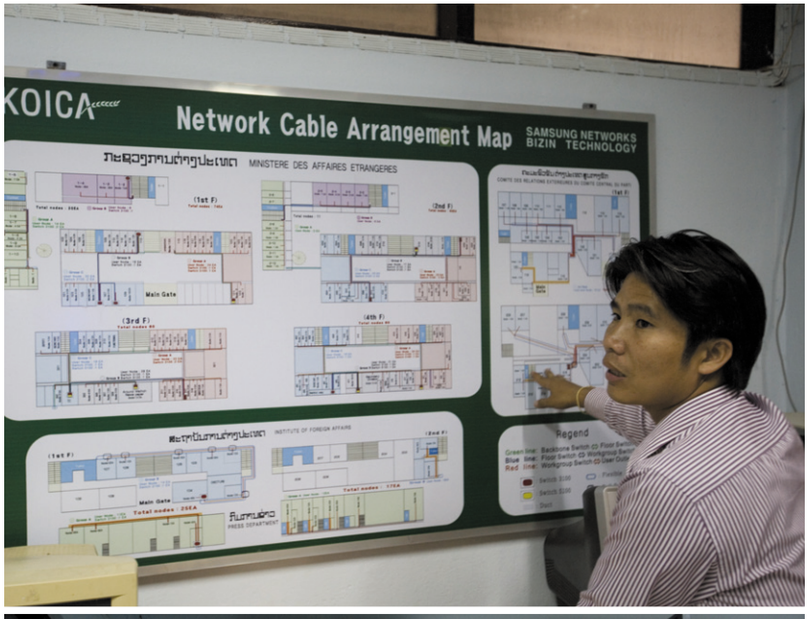
The 2nd phase of the Project for Computerizat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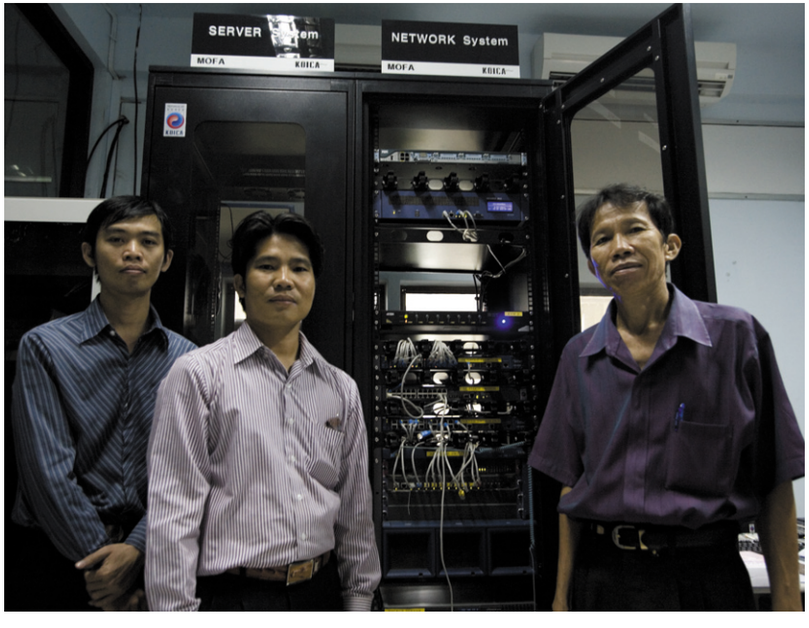
KOICA는 1996년 처음으로 라오스의 외무부 전산망 구축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라오스 외무부는 여전히 예산과 전문 인력, 전산 장비 부족 및 재외 공관과의 전산망 미비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97년 당시 라오스는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외 창구로서 외무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 갔고, 2차 전산망 구축 사업이 시급했다.

KOICA는 라오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7~1998년까지 50만 달러를 지원해 외무부와 아센ASEAN 회원국 주재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2차 전산망을 구축했다. KOICA는 구내 정보 통신망 랜LAN과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 서버, 백본 스위치, 네트웨어, 허브 등의 장비를 비롯하여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 20대, 노트북 4대, 복사기 6대 등의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관리자 5명을 국내로 초청해 한 달간 연수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전문가 2인을 한 달간 현지에 파견해 장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KOICA는 2차 전산망 구축 사업을 통해 라오스 개혁 정책의 창구인 외무부의 역할에 힘을 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된 정보 기술력의 필요성을 더욱 확실히 인식시켰다.

사업명 라오스 외무부 전산망 2차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8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5 LAOS 농업의 선진화로 배고픈 주민이 없어야죠

볍씨 증산 사업

The Project for Rice Seed Multiplication

"당장 끼니를 해결할 쌀도 부족한데 종자로 쌀을 사용하다니요? 이곳 사람들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98년 라오스에 파견된 우리나라 농업 전문가들이 그곳 주민들로부터 종종 들었던 얘기다. 라오스는 전체 인구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며 국내 총생산 GDP의 50% 이상이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라오스의 볍씨 생산량은 연간 수요량 6천2백50톤의 18%에 불과해 식량 증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라오스 정부는 볍씨를 증산하기 위해 세계은행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았지만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1998년 라오스는 농업 분야에 파견된 KOICA 전문가의 도움으로 볍씨 증산과 영농 사업 및 종자 관리 등의 기술 분야에 눈뜨기 시작했다.

KOICA는 2001~2003년까지 50만 달러를 라오스에 지원, 볍씨 증산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갔다. 우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근교에 영농 센터를 짓고, 트랙터와 논에 모를 심을 때 필요한 이양기 등 기계화 장비를 제공했다.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 볍씨 종자 관리를 비롯하여 영농 기자재 사용과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연수를 2주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농업 전문가를 1년간 현지에 파견해 볍씨 생산과 보급체계, 선진 영농 기술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농기계 분야의 전문 인력도 파견해 영농 센터의 농기계 관리 및 정비에도 신경을 썼다.

KOICA의 농업 기술 지원이 시작되기 전 라오스의 볍씨 공급량은 7백 톤 수준









이었지만 사업 후에는 56% 증가한 1천2백40톤으로 늘어났다. 우량 볍씨가 농가에 보급되면서 라오스의 벼 생산량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KOICA의 라오스 볍씨 증산 사업은 우리나라가 1970년대 종자 관리 시스템을 선진국으로부터 전수받아 정착시킨 것과 같은 모범적인 사례다.

사업명 라오스 볍씨 증산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3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영농 센터 건립,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06 LAOS

각광받는 한 · 라오스 직업훈련원 출신들

한 ·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he Korea-Lao Vocational Training Center

"직업훈련원 출신 대부분이 라오스 도시 근로자보다 두세 배 많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한 · 라오스 직업훈련원 전자과 본숙Bon Suk 공과장은, KOICA의 지원이 라오스 산업 인력 개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위와 같이 답했다. 2002년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과 지방 주요 도시에는 15개의 국립 직업훈련원과 10개의 기술학교가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이 낙후하고 뒤떨어진 교육 과정으로 직업 훈련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라오스 정부는 2001년 아센 + 3회의를 계기로 한 · 라오스 정상회의에서 직업훈련원 건립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2~2005년까지 200만 달러를 지원해 비엔티안의 찬타보리 지역에 한 · 라오스 직업훈련원을 건립했다. 총면적 4,500㎡의 훈련원 건축과 함께 컴퓨터 · 자동차 정비 · 전자 제품 수리 · 목공 · 봉제 등 5개 공과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했다. 훈련원 교사 10명을 37일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공과별 전문가와 자문 위원을 현지에 파견해 훈련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2005년 4월 19일 마침내 제1기 신입생 1백18명이 훈련원에 입학했으며 그 후 지원자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이 직업훈련원은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사업명 한 ·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5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직업훈련원 건립,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7 LAOS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Elementary schools

















예능 교육 같은 것은 없다. 미술 수업을 한다고 해도 도화지와 크레용조차 없다. 체육 수업을 하려고 해도 축구공이 없다. 음악 수업을 하려고 해도 오르간 하나 없다. 라오스의 시골 아이들은 멜로디언도 실로폰도, 리코더도 모른다.

라오스 비엔티안 낙삽 마을과 루앙프라방의 솝치아 마을에는 KOICA의 지원으로 세운 초등학교가 있다. 오늘도 이곳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로 활기가 넘친다.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2003년 학교가 세워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2002년 라오스의 문맹률은 42%에 달했다. 헌법에 의무 교육으로 명시되어 있는 초등교육 진학률은 75%, 이수율은 40% 정도에 그쳤다. 라오스 정부가 기초교육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일이 절실한 시기였다.

KOICA는 2003년 한 해 동안 10만 달러를 지원해 비엔티안 외곽의 낙삽 마을과, 비엔티안에서 약 400km 떨어진 루앙프라방의 솝치아 마을에 교실 5개와 교무실을 갖춘 316㎡ 규모의 초등학교를 세웠다. 학생과 교사를 위한 책걸상, 회의용 테이블, 캐비닛도 제공했다.

KOICA는 라오스 교육부의 표준 설계도를 이용해 설계비를 줄이고, 현지 실정에 맞는 건축 자재를 활용했으며, 공사 감리 역시 라오스 공무원을 활용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었다. 그 결과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학년당 1개씩 교실을 갖추어 아이들의 기초 교육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었다. KOICA는 이 사업으로 라오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라오스 교육부는 앞으로 이 두 학교를 라오스 내 초등학교 건축의 모델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명 라오스 초등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3년 | **사업 규모** 1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기자재 지원

08
LAOS

IT 안에서 세계는 하나

전자정부 구축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e-Government Plan

오늘날 전 세계는 정보통신 시스템 안에서 급속히 통합되어 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사회 발전을 위해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2004년 당시 라오스에는 전자정부 구축이 가능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수도 비엔티안을 중심으로 인터넷과 통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부의 내부 정보화, 공무원과 기업, 국민의 정보화 수준은 미비한 상태였기에 행정기관의 정보화를 통한 체계적 전자정부의 청사진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라오스 수상 산하 과학기술환경청STEFA은 전자정부 센터 설립과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95만 달러를 제공해 총면적 660㎡ 규모의 전자정부 센터를 건립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등 기자재를 제공했다. 전자정부 정책과 시스템 운영에 대해 자문할 우리나라 전문가 2명을 2개월간 현지에 파견하고, 관련 분야 고위 공무원 10명과 실무 담당자 6명을 국내로 초청해 전자정부 정책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교육도 실시했다.

KOICA는 아센ASEAN 국가 중 미얀마와 함께 IT 발전이 가장 저조한 라오스에 전자정부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상승시켰다. 아울러 빈곤 퇴치, 경제 성장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선진 원조 기관으로서 KOICA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사업명 라오스 전자정부 구축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95만 달러 | **지원 내역** 전자정부 센터 건립,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9 LAOS 유 · 무상 원조 간 연계가 돋보인 친환경 사업

비엔티안 메콩 강변 제방 보수 및 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사업
Feasibility Study on Riverbank Protection and Construction of Riverside Park along the Mekong River in Vientiane

"서울의 한강처럼 메콩 강도 말끔히 정비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라오스 건설부 솜폰 국장의 말이다. 태국과 국경을 이루는 메콩 강은 그 명성만큼이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그러나 잦은 홍수로 제방이 계속 떠내려가고 있어 우기 때마다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라오스 정부는 메콩 강 제방을 보수해 비엔티안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관광 자원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왔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80만 달러를 투입해 메콩 강의 까올리오~타카오에 이르는 10km 구간의 제방을 보수했다. 한편 빠빠오~타카오 2km 구간 안에 강변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 확장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KOICA는 사면 보강 공법을 통해 급경사 제방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기존의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공원을 조성했다. 한편 강변 공원이 개발되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도로 확장 조사를 실시해 차량과 오토바이가 뒤섞이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감소 방안을 제시했다. KOICA는 이 사업을 위해 11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라오스 공무원 4명을 15일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메콩 강 제방 침식에 따른 붕괴 위험을 해소시켜 주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공원 조성으로 관광 사업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통한 빈곤 감소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술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친환경 하천 개발 분야의 기술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 정부는 KOICA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7년 11월 3천7백만 달러의 유상 원조를 받아 친환경 하천 개발 사업에 착공했다. 이 사업은 무상 · 유상 원조 간의 연계가 돋보이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업명 라오스 비엔티안 메콩 강변 제방 보수 및 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80만 달러 | **지원 내역** 제방 보수, 친환경 공원 조성,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0 LAOS

최초의 그룹웨어 시스템을 정착시키다

외교부 전산망 3차 구축 사업

The 3rd Phase of the Project for Computerizat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Lao PDR

"하루에도 몇 번씩 팩스가 말썽입니다. 외교부에 인트라넷을 설치할 수 있다면 직원들이 지금보다 수십 배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2006년 8월 KOICA 조사단이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 솜펫 외교부 차관은 자국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라오스 외교부에서는 재외 공관에 자료를 보내기 위해 팩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통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다.

KOICA는 1996~1998년 2차례에 걸쳐 외교부 전산망 구축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2006년, 10년 전의 시스템으로는 라오스 외교부가 꿈꾸는 인트라넷 구축이 불가능했다. 라오스 정부는 ICT를 이용한 그룹웨어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외교부 전산망 3차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또다시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120만 달러를 투입해 그룹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 서버 등 IT 관련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실무 담당자와 관리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기술을 전수했다.

KOICA는 사업의 사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전문가 12명을 투입해 라오스 외교부의 요구를 분석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라오스 최초의 그룹웨어 시스템은 전자정부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



어 현재 타 부처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다.

그룹웨어 시스템은 라오스 외교부 IT 부서 직원들의 신기술 습득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기자재와 시스템 활용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사업명 라오스 외교부 전산망 3차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12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시스템 개발, 국내 초청 연수

11 LAOS

설립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는 더 중요하죠

한 · 라오스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The Project for the Upgrading of the Korea-Lao Vocational Training Center

"기본 운영 체계는 잘 갖춰졌으나 시설 운영과 유지에 대한 KOICA의 자문 기간이 충분치 않아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 라오스 직업훈련원에 파견된 우리나라 자문관은 당시 라오스 훈련원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와 같이 보고해 왔다. KOICA는 2002~2005년까지 200만 달러를 제공, 한 · 라오스 직업훈련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훈련원은 2005년 4월 개교 이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KOICA는 사후 관리와 지속성 유지 차원에서 직업훈련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2007~2008년까지 80만 달러를 들여 훈련원을 개 · 보수하고, 좀 더 세분화된 교육을 위해 전기와 전자 공과를 분리시켜 훈련 장비를 제공했다. 라오스 교사 12명을 국내로 초청해 선진적인 직업훈련원 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자문 활동도 벌였다. 현재 라오스 근로자들은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KOICA의 추가 지원 사업은 훈련원의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사업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한 · 라오스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80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원 개 · 보수,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2 LAOS

공부를 하고 싶어도 교과서가 없었어요

중 · 고등학교 교과서 보급 사업

The Project for Publishing Textbooks and Teacher's Guide books for Secondary Schools

"형과 나는 중학교 3학년 쌍둥이에요.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되는데 교과서는 누나가 물려준 책 한 권밖에 없어요. 시험공부를 할 때면 책 때문에 싸우는 일이 종종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한 권이라도 교과서가 있는 형 떼네캄과 동생 양리의 사정은 그나마 친구들에 비해 나은 편이다. 라오스 정부는 3~4년마다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중 · 고등학교 교과서 보급률은 20%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라오스에서는 자기 교과서를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교사들은 학교 소유의 교과서가 분실될까 봐 학생들이 교과서를 집에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300만 달러를 지원해 라오스의 중 · 고등학교 교과서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라오스 중학생 24만 명과 고등학생 15만 명이 총 2백70만여 권의 교과서를 공급받게 된다. KOICA는 라오스에 단순한 교과서 지원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입력 및 편집기, 제본기 등 인쇄기기를 제공함은 물론, 전문가를 파견해 교육 과정 개발과 인쇄기기 기술자 양성에 관한 자문 활동도 벌였다. 2008년 7월에는 라오스 관련자 6명이 국내 연수를 받기 위해 6주간 무료로 한국에 머물기도 했다.

국제 사회는 예전부터 'Education for All'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초등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다. 그 결과 라오스 초등학교 교과서 보급률은 80%에 이르렀지만 중 · 고등학교 교과서 보급률은 20%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KOICA의 교과서 지원 사업은 라오스의 교육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아울러 교과서 보급이라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이를 개발하고 편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라오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제 라오스의 모든 중 · 고등학생들은 KOICA가 지원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명 라오스 중 · 고등학교 교과서 보급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교과서 발간, 인쇄기기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3 LAOS

이제 우리 마을에도 수돗물이 나온다

볼리칸 군 7개 마을 식수 개발 사업

The Project for Bolikhan Small Tow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 Bolikhamxay Province

볼리캄사이의 작은 마을 나헨에 사는 여섯 살 판돌라는 오늘도 자신의 몸무게보다 몇 배나 무거운 물동이를 지어 나른다. 집에서 남싼 강까지는 걸어서 30분이 걸리지만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여섯 식구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다. 전 세계는 이미 물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 역시 중장기 국가 전략인 '분야별 투자 계획SIP' 을 설정하고 2020년까지 주민 80%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도 라오스 대부분의 지역에는 식수 시설이 없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많고, 그중에서도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판돌라와 같이 물을 길어 오기 위해 하루에도 몇 시간씩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어린이와 여성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라오스 정부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부지역 식수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볼리칸 군의 7개 마을인 폰시, 시몽쿤, 바탓, 나헨, 시사밧, 돈, 시엥톰의 식수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볼리칸 군의 7개 마을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KOICA의 지원 사업은 수량이 풍부한 남싼 강을 취수원으로 개발해 정수 처리 후 배수관을 통해 가정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KOICA는 2009년 7개 마을을 하나의 식수 공급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시설을 완공한 후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17개 주 관련 공무원 40명을 볼리칸 군으로 초청해 2주간 현지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KOICA의 지원이 단순한 인프라 제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볼리칸 군 7개 마을 주민 1만8천여 명은 수도관을 통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며, 여성과 아이들은 더 이상 무거운 물동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사업명 라오스 볼리칸 군 7개 마을 식수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설 공사,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볼리칸 공무원 현지 연수





14 비가 오면 학교 가기도 힘들어요

LAOS

비엔티안 주 5개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The Project for Rural Development in Vientiane Province



라오스 비엔티안 주의 5개 마을 비엥캄, 돈꾸앗, 틴융, 나닌, 포넹에는 마을로 통하는 도로가 없다. 우기 철이면 통학로가 끊겨 등교를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시장에 장보러 가는 일조차 어렵다. 게다가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 배앓이를 하는 등 주민들은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마침내 라오스는 2006년 8월 농촌 지역의 빈곤 탈피를 목표로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232만 달러를 지원해 비엔티안 주 농촌 지역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하고, 농촌 종합 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비엔티안 주 5개 농촌 마을에 15.6km의 진입로를 포장하고, 3개의 식수 공급 시설도 설치했다. 특히 식수 공급 시설은 관리와 운영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자 6명을 2주간 국내로 초청해 식수 공급 시설 개발과 관리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2006년은 KOICA의 라오스 무상 협력 사업이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농촌 개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를 한국형 농촌 개발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 특히 취약한 인프라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소득 증대 사업을 도모하면서 농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놓았다. 국내 총생산GDP의 50% 이상을 농업에 의존하는 라오스에서 열악한 농촌 환경 개선은 최빈국 탈피를 위한 국가 전략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사업명 라오스 비엔티안 주 5개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232만 달러 | **지원 내역** 시범 사업,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15 중 · 고교 설립은 라오스의 미래다

LAOS

비엔티안주 중 · 고등학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a Boarding School for orphans and disadvantaged students in Vientiane Province

라오스 방비엥에 사는 푸봉은 중학생이다. 몇 년 전 부모님을 여읜 푸봉이 다니는 중학교 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푸봉과 친구들은 군 막사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매월 지급되는 9달러의 식비로 하루 두 끼 밥을 먹고 있으며 교과서도 없다.



2008년 현재 라오스의 중등 교육 이수율은 48.3%다. 라오스 정부는 2010년까지 중학교 이수율을 63%로 높이기 위해 중 · 고등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다.



Tuesday April 29, 2008 | Home News | 3

South Korea to build school in Vientiane province

HAISYTHONG CHANDARA

tudents from different ethnic roups in Vangvieng and aysomboun districts, ientiane province, could soon ave a new school and better ccess to education, according o an education official.

The Korea International ooperation Agency (KOICA) ill provide assistance of S$2.5 million to build the oarding school for orphans nd disadvantaged students in ientiane province.

The plan depends on pproval from the Korean and ao governments. The agency nd the Provincial Planning nd Investment Department ave signed an agreement ating they will speak with eir governments about operating on the project.

If approved, the boarding chool will include lassrooms, teachers' rooms, ormitories, listening rooms, ffices and a kitchen and ining room.

Provincial Planning and nvestment Department irector, Ms Singkham hongsavanh, said the school ould be completed in 2010 nd aimed to help meet the emand for secondary ducation. The new school will place old ones in Vangvieng nd Xaysomboune districts.

Another objective is to ontribute to human resource evelopment and improve he quality of education ing better equipment and cilities.

KOICA will design and nstruct the school, which is

"The budget, exact items and their specifications will be discussed later through mutual discussions between the two parties," Ms Singkham said.

Ms Singkham said the two governments would cooperate in carrying out the following activities to achieve the project.

The Korean government will send experts to install the equipment and transfer operational skills to the Lao constructors and staff of the boarding school.

The Lao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will provide adequate land for the school and the infrastructure needed drainage and a telephone line.

It will also provide full-time security guards for the site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Ms Singkham said the two governments would be committed to long-term stability, good relations, mutual trust and comprehensive cooperation, and would increase high-level educational exchanges and expand cooperation in not only education, but also the areas of national security, health, sports and tourism.

At present, there are more than 500 ethnic students in two districts, according to a report from the Education

Sung Choon Ki *(left)*,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hakes hands with Ms Singkham Khongsavanh, from the Provincial Planning and Investment Department.

65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등 총면적 6,400㎡의 건물을 신축하고, 교육 기자재를 비롯해 기숙사와 식당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KOICA가 설립하는 고아 기숙학교는 기존의 열악한 시설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라오스의 기초 교육 수혜자 중 남녀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명 라오스 비엔티안 주 중 · 고등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설립, 교육 기자재 지원, 관계자 국내 초청 연수

16 LAOS

수로가 뚫리니 농업 생산성도 높아졌어요

비엔티안 주 폰홍 군 관개 수로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Irrigation Canal Construction in Phonehong District

농업은 라오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 지역을 중심으로 메콩 강 저지대에서 경작되는 미곡은 라오스의 주요 작물이다.

라오스의 비엔티안 주정부 기획투자국은 농촌지역을 여러 단위로 분류,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경제 개발 전략을 세워 현재 실천 중에 있다. 그러나 비엔티안 주는 대부분 취약한 관개 시설로 이모작이 가능한 천혜의 기후 조건을 누리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폰홍 군에는 라오스 정부가 2007년 완공한 관개용 댐이 있지만 하부 시설인 관개 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KOICA는 라오스 정부의 요청으로 2008~2009년까지 폰홍 군의 관개 시설 확충을 위해 170만 달러를 투입, 11km의 관개 수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라오스 관계자 8명을 2주간 국내로 초청해 농업용수 관리와 작물 재배 경험도 전달할 계획이다.

KOICA는 이 지원 사업으로 라오스의 미비한 관개 시설 기능을 보완하고,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3개 마을 4백15가구 2천76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관개 수로 건설로 이모작 도입이 가능해져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명 라오스 비엔티안 주 폰홍 군 관개 수로 건설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70만 달러 | **지원 내역** 관개 수로 건설,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17 LAOS

다른 지역의 롤 모델이 된 저수 댐 건설

비엔티안 주 문 지역 관개용 저수 댐 건설 사업

The Project for Irrigation Dam and Canal Construction in Meun District

2005년 말 라오스의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5백 달러로 유엔의 분류에 따르면 최빈국에 속한다. 라오스 정부는 'Lao Government Vision 2020' 을 근거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통해 2020년까지 최빈국에서 탈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중에서도 비엔티안 주는 농촌지역을 여러 단위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경제 개발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열악한 농촌 환경과 낮은 농업 생산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2007년 7월 라오스 정부는 비엔티안 주 문Meun 지역의 효율적 물 관리와 활용을 위해 관개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시켰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320만 달러를 지원해 문 지역의 'Namhee' 마을에 관개 목적의 댐 한 개와 16.7km 관개 수로를 건설하고, 5km의 진입 도로를 보수 중이다. 또한 농업용수 관리와 밭작물 재배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관계자 8명을 2주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KOICA는 댐과 관개 수로 건설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다모작과 특정 작물 생산 등 상업적 영농법을 도입해 나갔다. 이로써 사업 대상지 'Namhee' 마을이 속한 'Ban Vang' 클러스터Cluster 7개 마을 주민 8백34가구가 농가 소득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른 지역에도 확산 가능한 관개 수로 개발 등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

사업명 라오스 비엔티안 주 문 지역 관개용 저수 댐 건설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320만 달러 | **지원 내역** 댐과 수로 건설,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관계자 국내 초청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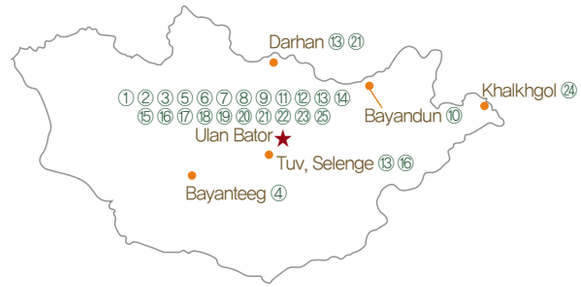
MONGOLIA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 국가가 된 몽골. 북서쪽으로는 러시아, 남동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다. 몽골 인구의 40% 정도는 지방에 거주하며 대부분 유목 생활을 한다. 국토는 넓지만 인구는 적은 편으로 국내 총생산의 30%, 연간 수출액의 50%를 광물 자원이 차지한다. 글 · 김영경, 추경완

몽골의 정식 명칭은 '몽골 울스' 다.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 전환 이후 10년 동안 경제적 위기를 겪어 왔다. 2002년 1인당 국민소득이 4백20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수년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유리한 대외 환경으로 인해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은 1천3백 달러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광산 개발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몽골 정부는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성장, 고실업, 심각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자 2003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경제 성장 및 빈곤 감소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또한 2006년에서 2021년까지 유엔에서 제안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초한 국가 개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빈곤 감소 전략은 2015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1998년(36%)의 2분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명 몽골인민공화국(Mongolian People's Republic) **정체** 공화제 **기후** 건성 냉대 기후(대륙성 기후 – 길고 추운 겨울, 짧은 여름) **인구** 2백59만 명(약 96만 명이 수도에 거주, 2006년 기준) **면적** 1,567,000㎢(한반도의 7.4배) **1인당 국민소득** 1천2백90달러(2007년 기준) **수도** 울란바토르(Ulan Bator) **민족** 할흐몽골족(90%), 카자흐족(5.9%), 브리아드계(2%) 등 17개 부족 **문자 해독률** 97.8%(2000년 기준) **종교** 라마불교(50%), 샤먼교 및 기독교(6%), 이슬람교(4%), 무교(40%) (2004년 기준) **공용어** 할흐 몽골어



| 몽골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몽골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빈곤의 정의(1일 1달러 미만 인구)를 몽골 정부가 지정하는 기초 식량 및 비식량 물자의 소비 묶음으로 재정의 하였으나, 2004년도 'MDGs'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5세 미만 아동 중 과소 체중 아동은 1990~2000년간 12%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실정.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과정 등록자는 1990년 98%에서 2000년 91%로 감소함. 이는 1990년대 말 닥쳐온 경제 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2000년 이후에는 점차 상승하고 있음. 이런 추세로 진행된다면 2015년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몽골의 경우 여학생 취학률이 남학생을 초과하고 있음. 2003년도 기준 고등 교육기관에서 여학생 비율은 60.2% • 현재 남학생들의 취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2015년까지 취학률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1990~2000년간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며 2015년 목표 달성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됨. 1990년 : 87.5%, 2000년 : 42.4%
모성 보건 증진	• 산모 사망률은 2000년 10만 명당 1백58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2년 10만 명당 1백24명, 2003년 109.5명으로 감소세에 있음. • 시골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개선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모성 보건 인식 개선 등 여러 과제의 해결이 요망됨.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몽골에서의 HIV/AIDS 바이러스 전염률은 매우 낮음. 1992년 조사 실시 이래 보균자 발견 건수는 4건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AIDS로 부모가 사망한 아동은 없음. • 몽골의 결핵 환자 확산은 1990년 10만 명당 79명에서 2000년 1백25명으로 크게 늘어남.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몽골은 1997년 이후 10년간 23억5천4백만 달러를 지원 받음. 연 평균 2억3천5백만 달러를 지원 받음. 이 중 무상 원조가 13억5천4백만 달러(57.5%), 유상 원조가 10억 달러(42.5%)임.

01 MONGOLIA 최대 수출 품목인 모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냉동 창고 설립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a Cold Storage Warehouse in Ulan Bator

몽골은 풍부한 동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제품 개발과 수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료와 육류를 저장하는 동물 사육 농장의 냉동·냉장 시설은 몽골의 주요 수출 품목인 모피를 생산하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1990년대 초반 몽골에서 운영되는 40여 개의 냉동 창고는 대부분 소련으로부터 원조 받은 구형 설비로 시설이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어 작업의 위험도가 높았다. 1992년 몽골 정부는 부처 간 합의를 거쳐 냉동 창고 설립 사업을 국가 개발 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3~1994년까지 32만 달러를 지원해 울란바토르 근교에 있는 살키트Salkhit 농장의 냉동 창고 12곳에 냉동기와 냉동 설비를 제공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냉동 설비에 필요한 전기 배선 등 주요 장비를 설치했다. KOICA는 몽골의 주요 수출 품목인 모피의 생산 능력과 모피 가공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은 물론, 육류의 적기 공급 능력도 향상시켰다.

사업명 몽골 냉동 창고 설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3~1994년 | **사업 규모** 32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02 MONGOLIA

이젠 안심하고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요

식품 및 농산물 검사연구소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Set-up of Bacteriological and Toxicological Testing Lab for Food Products



1992년 몽골은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외국산 식품과 농산물 수입이 급증했다. 하지만 식품의 위생 상태를 검증할 기본 장비와 기술은 전무한 편이었다. 1994년 몽골 정부는 식품 산업의 발전과 국민 보건을 위해 식품 및 농산물 검사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5~1996년까지 28만 달러를 지원해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 국립표준연구소MNISM에 미생물과 독극물 판독 실험 장비 23종, 28개 품목의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우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장비 설치와 운영법에 관해 교육하고, 몽골 국립표준연구소의 여성 연구원 5명을 국내로 초청해 한 달간 연수를 받게 했다.

"한국 정부의 식품 및 농산물 검사연구소 지원은 몽골 국민의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J.Barvuuren' 국립표준연구소 사무총장은 이같이 밝히며 KOICA에 사의를 표했다. 이 지원 사업을 계기로 KOICA의 몽골 무상 원조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사업명 몽골 식품 및 농산물 검사연구소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6년 | **사업 규모** 28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사전 조사

03 MONGOLIA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체험하다

국립피부진균 센터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of National Center for Dermatology and Mycology

몽골은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소련이 붕괴한 후, 1990년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과거 소련의 원조를 받은 사회 각 분야의 장비는 이미 낙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교체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몽골의 유일한 피부진균 전문병원인 국립피부진균 센터의 장비 대부분은 소련제로 노후화되어 작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리를 하려고 해도 부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1997년 몽골 정부는 국가 경제 개발 계획(1997~2000년) 중 보건 의료 분야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국립피부진균 센터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7~1998년까지 20만 달러를 지원해 피부병 환자를 치료하고 피부 질환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실험용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피부진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무자와 의사 등 3명을 2주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받게 하고, 전문가 3명을 현지에 파견해 교육을 실시했다.

국립피부진균 센터 지원은 KOICA가 몽골의 보건 의료 분야를 지원한 첫 번째 사업으로 몽골 국민의 피부과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 기술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사업명 몽골 국립피부진균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8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04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환경 분석

MONGOLIA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Coal Fired Thermal Power Plant

몽골은 1990년 경제 체제 전환 이후 국가 재정 부족으로 대부분의 개발 사업을 대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수급, 특히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가장 절박한 문제다.

1998년 당시 몽골의 발전 시설은 과도한 송전 손실과 전력 공급 시스템의 노화로 발전 용량이 감소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특히 중서부 지방은 심각한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몽골 정부는 울란바토르 서남쪽 560km 지점에 있는 우브르항가이 주 바얀텍 석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이용해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의뢰해 왔다.

KOICA는 1998년 37만 달러를 지원해 바얀텍 탄광 인근 지역에 40㎿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발전소 건설 예정지와 프로젝트 · 기본 건설 · 건설 시행 계획, 그리고 건설 지역의 환경 평가 및 경제적 평가 등을 분석하고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몽골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관련자 3명을 10일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받게 했다.

KOICA는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자원이 풍부한 몽골의 산업 개발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마련했다.

사업명 몽골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8~1999년 | **사업 규모** 37만 달러 | **지원 내역** 타당성 조사

05 한국의 경제 개발이 롤 모델이다

MONGOLIA

동북아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Assessment of Future Infrastructure and Financing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1990년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냉전은 종결되었다. 몽골과 동북아시아는 자원, 노동,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얻기 위해 지역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몽골은 교통과 통신,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계획 미비로 동북아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몽골 정부는 '몽골 및 동북아시아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7~1999년까지 26만 달러를 지원해 몽골의 주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와 비용을 측정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몽골 인프라에 대한 종합 평가와 부문별 세부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비용을 산출하고, 국내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동북아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아울러 몽골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받게 하고, 개발 정책 담당자에게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 운용과 경제 개발 경험을 전수했다.

당시 몽골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KOICA가 지원한 개발 조사 사업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사업명 몽골 동북아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9년 | **사업 규모** 26만 달러 | **지원 내역** 개발 조사 용역

06 MONGOLIA 원거리 교육으로 지방에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 원거리 교육 센터 건립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Distance Education Center

1999년 당시 몽골 인구의 40%(약 2백37만 명) 정도는 지방에 거주하며 대부분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도시 거주자와 달리 교육받을 기회가 적고, 라디오와 TV를 통해 단순 정보만을 접하는 실정이었다. 몽골 정부는 국가 개발 계획(1999~2000년) 중 교육 분야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원거리 교육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1998년~2000년까지 34만 달러를 지원해 울란바토르의 비공식 교육 센터Non-Formal Education Center 안에 라디오와 TV 스튜디오, 인쇄실을 마련해 교육 방송을 실시하고 교제를 제작, 배포했다. 또한 지원한 시스템과 장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2명의 교육 센터 직원과 국영 방송 직원 1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은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라는 기준으로 볼 때 투입 대비 즉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개발 사업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우수한 인재 양성은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몽골 국립 원거리 교육 센터 건립을 통해 교육의 기회가 확대된 몽골은 과거 대한민국과 같은 눈부신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o. Nyamdavaa' 몽골 교육부 산하 비공식 교육 센터 소장은 센터 완공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KOICA에 사의를 표했다.

사업명 몽골 국립 원거리 교육 센터 건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8~2000년 | **사업 규모** 34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07 MONGOLIA 법질서 유지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

병리학 및 법의학 센터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Upgrading of the Pathology and Forensic Medicine Center

2000년 당시 몽골 국립병리학 센터는 30년간 수도 울란바토르 소재 36개 병원의 병리학 센터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기자재가 노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몽골 정부는 1999년 5월 고 김대중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병리학 및 법의학 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이는 대통령의 약속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KOICA는 2000년 40만 달러를 투입 형광 현미경, 박절기, 자동 조직 처리기 등 첨단 병리학 기자재를 제공하여 센터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병리학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자와 의료진 등 8명을 국내로 초청해 병리학 · 생물학 · 약독물 · 마약 분석 분야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립과학연구소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 이들은 법의부검 관련 제반 감정 및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개인 식별 감정, 법의학적 감정 등에 관한 자문을 실시했다. KOICA의 사업을 통해 몽골 국립병리학 센터는 병리학 검사와 부검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전문성을 더한 의료진에 의해 보건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외에도 사법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

사업명 몽골 병리학 및 법의학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0년 | **사업 규모** 4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물 개 · 보수,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08 MONGOLIA

몽골에 한방 기술을 전하다

한 · 몽 한방병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Mongolia Friendship Oriental Medical Center





2000년 당시 몽골은,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많은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병원조차 의료 장비와 의약품 부족으로 제한적인 진료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한 · 몽 한방병원의 건립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0~2001년까지 40만 달러를 지원해 몽골의 바양골구 병원 건물을 수리, 신축하고 치료 및 진단 장비 6백20종을 제공했다. 또한 몽골 '전통치료요법원' 소속 의료진 5명을 국내로 초청해 한방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실시했다.

한방병원 건립 사업처럼 국민 보건과 연관된 사업은 지원 효과가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나게 마련이다. KOICA는 몽골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몽고에 보급하고, 양국 간의 우호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 · 몽 한방병원 건립 사업은 다른 원조 기관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나라 무상 원조 사업의 고유한 색깔을 찾아볼 수 있는 사업이었다.

사업명 한 · 몽 한방병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0~2001년 | **사업 규모** 4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물 개 · 보수 및 신축, 한방 기자재 지원, 관련 의료진 초청, 전문의 파견

09 MONGOLIA

장기 이식 수술, 다른 나라에 갈 필요 없다

장기 이식 센터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Upgrading National Center for Human Organs Transplantation

몽골 국민의 대부분은 염분의 과잉 섭취와 육식 위주의 식사로 신장 질환의 발병률이 높은 편이다. 좋지 않은 수질 상태도 발병률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2001년 당시 몽골 국립의료원 내 장기 이식 센터는 기자재의 노화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몽골에서 규모가 제일 큰 국립의료원의 장기 이식 센터가 개소한 이래 단 한 건의 신장 이식 수술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몽골 정부는 신장 제공자 및 뇌사자, 장기 기증 문제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는 동시에 신장 이식 수술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1999년 5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몽골 방문 당시 장기 이식 센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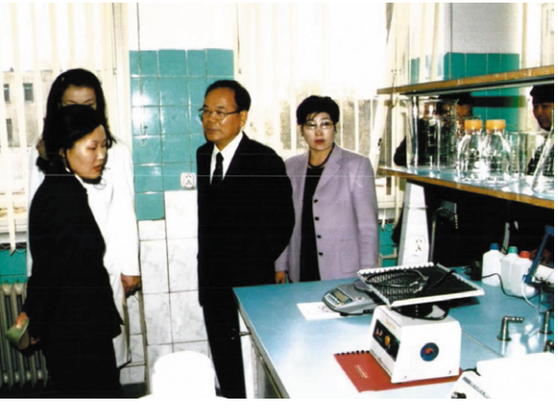
왔다.

KOICA는 2001~2002년 7월까지 25만 달러를 지원해 장기 이식 수술의 기본 장비인 혈액 투석기 등 의료 기자재를 제공하고, 장기 이식 관련 비뇨기과 · 외과 · 면역학과 · 내과 등의 의사와 간호사, 기자재 운용 기술자, 관리자 등 총 7명을 3주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1996년 몽골 국립의료원은 최초의 신장 이식 수술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경험했다. 두 번째 장기 이식 시술을 시도한 'Ts. Mukhar' 당시 국립의료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좋은 검사실을 설치해준 KOICA에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몽골도 장기 이식 시술 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몽골의 신장 질환자들은 이제 더 이상 중국 등 다른 나라로 가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KOICA는 몽골 국민의 보건 복지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장기 이식 및 뇌사자 처리 등에 대한 의료 제도를 개선시켰다.

사업명 장기 이식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25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교육 훈련





10 MONGOLIA 자원 개발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

광물자원 탐사 사업

The Project for Development Study on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

몽골은 1990년대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 산업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 하지만 몽골은 주요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서 국내 총생산의 30%와 연간 수출액의 50%를 광물자원이 차지할 정도다. 몽골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해 부존자원의 탐사 · 개발 · 생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광물자원 탐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KOICA는 2000~2003년까지 50만 달러를 투자해 몽골 동부에 있는 'Bayandun' 지역에서 광물자원 탐사 사업을 실시하고, 지질 조사와 지구 물리 탐사, 시추 및 트렌치 탐사를 통해 광물자원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 매장량 추정과 광상 개발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몽골 광물자원청 소속 직원 2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D. jargalsaikhan' 광물자원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OICA가 지원한 광물자원 탐사 사업은, 몽골 정부가 광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내외 투자 유치 노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라고 말하며 KOICA에 사의를 표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시작된 부존자원의 적절한 개발은 체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에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사업명 몽골 광물자원 탐사 사업 | **사업 기간** 2000~2003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개발 조사 용역

11 MONGOLIA 기초 의료 환경 개선과 전염병 예방

국립혈액 센터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Equipment of the Blood Center

몽골 국립혈액 센터는 수도권 36개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고, 전국적으로는 23개 지방 센터를 통해 혈액을 공급한다. 1999년 당시 국립혈액 센터의 장비는 극히 노후해 기초적인 혈액 검사 및 병리 검사조차 정확히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헌혈을 원활히 수급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실했다. 혈액 공급과 관리 체계의 허점은 몽골의 전반적인 의료 환경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KOICA는 2001~2002년까지 30만 달러를 지원해 국립혈액 센터에 의료 기자재를 제공하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몽골 국립혈액 센터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원활한 혈액 검사뿐 아니라 혈액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등 부수적 효과까지 거두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혈액 관리를 통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KOICA가 제공한 장비 중에는 소형 헌혈 차량도 포함되어 있어 헌혈 캠페인도 벌일 수 있었다.

"KOICA의 국립혈액 센터 지원은 몽골의 기초 의료 환경과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Mr. Davaadorij Ulaankhuu' 국립혈액 센터 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KOICA의 사업에 대한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다.

사업명 몽골 국립혈액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30만 달러 | **지원 내역** 의료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2 MONGOLIA 다른 지원국과 차별화된 IT 인력 육성

IT PARK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the Equipment of an IT Park











몽골은 2010년까지 IT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여 국내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을 증진시켜 국가 개발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IT 인큐베이터IT Park를 구축하고,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산업을 추진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2002년 당시 몽골의 IT 관련 시장은 대부분 외국 업체들에 의해 선점되었다. 2001년 몽골 정부는 IT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IT 인큐베이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했다.

KOICA는 2002~2003년까지 100만 달러를 지원해 몽골 정부가 제공한 3층 건물을 개 · 보수하여 첨단 'IT Park'를 완공하고, 각종 네트워크 장비, 컴퓨터, 서버, 사무용 기기를 제공했다. 또한 IT 인력을 국내로 초청해 견학과 인큐베이팅 분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성해 정보를 교류했다.

KOICA가 몽골의 IT 산업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갈 전담 기관을 육성해준 것은 단순한 인력 양성에 그친 다른 지원국과는 크게 구분되는 점이다. 즉 KOICA는 몽골 스스로 IT 기업을 육성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신기술 고소득 분야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업명 몽골 IT PARK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3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물 개 · 보수 작업,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웹 사이트 매뉴얼 구축

13 MONGOLIA

깨끗한 물이 사람과 자연, 국가를 살린다

식수 개발 사업 The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Water Wells

전통적 유목 민족인 몽골의 연간 강수량은 200~300㎜에 불과하다. 도시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강물이나 눈을 녹여 식수로 사용하고, 농가의 주요 수입원인 가축에게 공급할 식수도 부족한 실정이다.

몽골 정부는 국가 개발 전략을 수립하면서 수자원 확보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식수 개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50만 달러를 지원해 울란바토르, 투브, 다르항, 셀렝게 등 몽골 중부 4개 지역에 25개 관정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했다. 아울러 지하수 모터 펌프, 자동 전력 공급기, 발전기 등 관련 개발 장비도 제공



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지하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하고, 몽골의 수자원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해 지하수 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썼다.

KOICA의 지원 덕분으로 몽골의 중부 지역과 도시 빈민가 주민들은 식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었다. 이는 가축의 수출 증대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질병을 예방하는 등 보건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업명 몽골 식수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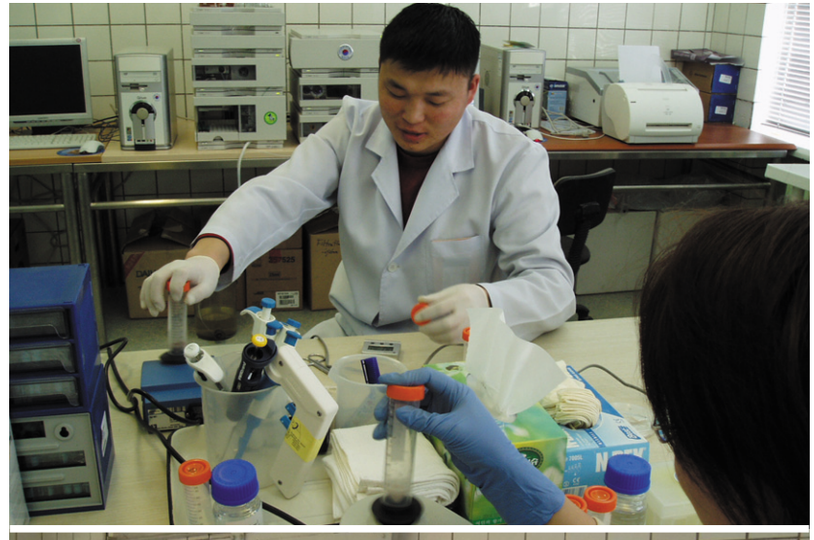




14 MONGOLIA 축산품 이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축산 위생 검역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Testing Capacity of Veterinary Food Hygiene Laboratories





몽골은 전통적인 유목 민족이다. 국민 총생산 중 축산업의 비율이 높고, 축산품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등 축산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하지만 근래 몽골은 '유목하는 축산'에서 '정착하는 축산'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중이다.

몽골 정부는 국가 차원의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범국가적으로 'Food Security and Nutrition' 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03년 당시 몽골은 러시아에 축산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몽골의 위생 검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축산품을 저가로 취급하는 등, 검역 과정에서 잦은 분쟁이 발생했다. 몽골 정부로서는 검역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했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40만 달러를 들여 축산 위생 검사 장비 24종과 시약 40여 종을 제공하고, 몽골의 중앙수의검사소의 연구 역량 및 검역 능력을 강화시켰다. 또한 식물미생물, 잔류 물질 분석 담당자를 각각 2명씩 3개월간 국내로 초청해 축산 위생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수의학 분야 전문가 5명을 현지에 파견해 축산 위생 검역 분야의 기술을 전수했다.

KOICA는 몽골의 전반적인 축산물 위생 및 잔류 물질 검사 능력을 배양시켜 축산물 수출에 크게 기여했다.

사업명 몽골 축산 위생 검역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4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관계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15 MONGOLIA

한국의 IT 기술력, 전자정부의 다리를 놓다

정보통신 기술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Project of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the ICT sector

광대한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라는 몽골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 기술 개발과 보급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을 보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00년 2월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f Mongolia up to 2010' 정책을 수립했다. 정보통신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책, 법령 및 인력 자원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단편적 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몽골 정부는 종합적인 정보통신 기술 개발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60만 달러를 지원해 각 분야별로 수립된 정보통신 기술 개발 계획과 정책을 검토해 전반적인 발전 전략을 도출하는 통합 마스터플랜과 전자정부 기반 구축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5명의 관련자를 2주간 국내로 초청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모델을 전수했다. 이 사업은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세부적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몽골의 IT 발전에 큰 의미를 가지며, 몽골의 정보통신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다.

사업명 몽골 정보통신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6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6 MONGOLIA

그 많던 종이 문서는 다 어디로 갔을까?

외무부 외교 문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he Electronic Archives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2005년 몽골 외무장관은 우리나라 방문 당시 외교통상부의 전산화된 문서 기록 보관 시스템에 감명을 받고,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몽골의 외교 문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요청해 왔다.

몽골 외무부 중앙 외교 문서 보관소는 1980년 이후 몽골의 국제 관련 협정서 등 문서와 사진 및 영상물 수만 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좁은 공간과 장비 부족으로 인해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더욱이 기록물 관리가 대부분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KOICA는 외교 문서의 보관 환경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몽골 외무부 외교 문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 30만 달러를 들여 이동서가 등 필수 기자재를 제공하고, 협정서 등 문서 2만 건, 사진 2천 장 규모의 문서를 전자 문서로 변환 · 보관 및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문가 2명을 10일간 현지로 파견해 중앙 외교 문서 보관서장과 담당자를 교육시키고, 운영 기술을 향상시켰다.

몽골 외교부는 기존 자료를 전산화시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KOICA는 이 지원 사업으로 몽골 정부의 외교 역량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IT 기술과 시스템 개발 능력을 홍보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사업명 몽골 외무부 외교 문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6년 | **사업 규모** 3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스템 개발,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17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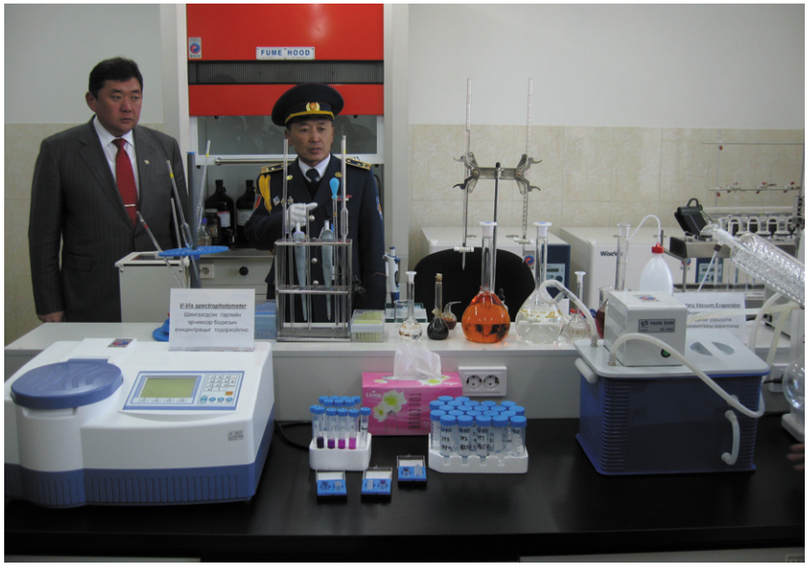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 방지 시스템이 시급하다

재난방지연구 센터 역량 강화 사업

Disaster Protection Empowerment

몽골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과 공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업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경과를 보면 사망 9백70명, 부상 4백68명, 동물 피해 9만3천7백만 마리, 이동식 주택인 게르 파괴 2천1백8동 등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몽골 정부는 2003년 '재앙예방법'을 제정하고, 2004년에는 국가국민보호청, 화재관리청, 국가예비품 관리소를 통합해 재난방재청을 설립했다.







재난방재청은 2005년 재난방지연구 센터를 설립해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재해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필요한 분석 장비와 전문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몽골은 재난방지연구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년 10월 사전 조사단을 파견해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007년 양국 정부 간 합의문 교환을 거쳐 122만 달러를 투입해 2008년 2월 재난방지연구 센터를 증축하고 개 · 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방재 관계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화학,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측정 장비를 제공했다.

KOICA는 그동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던 몽골의 재난방지연구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몽골 재난방지연구 센터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22만달러 | **지원 내역** 시설 개 · 보수,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8 MONGOLIA

바이러스 퇴치는 각국이 힘을 합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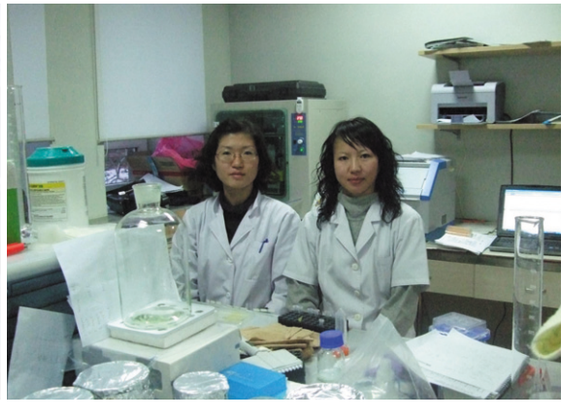
가축 바이러스성 질병 진단 센터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Viral Animal Disease Diagnostic Center at the State Central Veterinary Laboratory

몽골의 국내 총생산GDP에서 축산업의 비중은 매우 높다. 2001년 GDP의 26%, 2002년 GDP의 20.1%가 농업 분야인 데 비해 축산품은 80%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업의 높은 비중을 인식한 몽골 정부는 국가 차원의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05년 야생 조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몽골의 축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몽골 정부는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해외 악성 전염병 진단 및 방역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가축 바이러스성 질병 진단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130만 달러를 투입해 중앙수의연구소에 가축 바이러스성 질병 진단 센터를 건립하고, 생물 안전 차폐 연구실을 설치했다. 또한 실험 장비와 진단, 예방 활동에 소요되는 시약 제공 및 연구원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국가 중앙연구소의 가축 질병 진단 능력을 강화시켜 몽골의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전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양국 간 가축 질병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가축 질병의 진단 및 예방, 퇴치를 위한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명 몽골 가축 바이러스성 질병 진단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130만 달러 | **지원 내역** 인프라 건설,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사업 관리

19 MONGOLIA

친환경 설비로 겨울에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울란바토르 지역난방 및 용수 공급 시스템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District Heating and Water Supply System of Ulan Bator



몽골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지역난방 시설은 1978년 소련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다. 하지만 수명 기한인 20년을 훨씬 초과한 탓에 누수 및 전력 손실, 수압 불안정 등의 문제로 안정적인 난방과 용수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겨울 기온이 영하 40℃까지 떨어지는 몽골에서 지역난방 시설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몽골 정부는 2002~2020년까지 울란바토르 냉·온수 공급 장치 등 열 공급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하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500만 달러를 투입해 울란바토르 지역난방, 용수 공급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냉·온수 펌프와 열 교환기 교체를 위한 설계 및 설치, 시운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 지원 사업으로 울란바토르 시내 120개 펌프장 중 44개의 펌프장 시설이 개선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도 20% 정도 향상되어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사업명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난방 및 용수 공급 시스템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50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설 개선,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사업 관리

20 MONGOLIA

행정·상업·금융 분야 등 정보화에 앞장서다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Integrated Data Center

대한민국을 자국의 경제 개발 모델로 여기고 있는 몽골 정부는 우리나라와 IT 기술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2006년 당시 몽골 정부는 정보화 수준이 미비한 탓에 부처 간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본적 정보 통신망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부처별 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산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였다.



몽골 정보통신청은 각 부처의 전산 자원을 일원화시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520만 달러를 투입해 연면적 1,650㎡, 지상 2층 규모의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고, 서버실, 종합상황실, 교육실, 회의실 등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범정부 차원의 전산 통합 관리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는 몽골 최초로 건립되는 최첨단 행정 정보 기반 시설로 조세와 관세, 공공조달, 민원 관리 등 제반 행정 업무의 정보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기능을 완수하는 한편, 상업 및 금융, 투자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몽골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52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사업관리



21 MONGOLIA 몽골에서도 4계절 내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채소 재배 온실 설치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Greenhouse for Vegetable Cultivation



몽골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여름을 제외하면 혹한의 대륙성 기후를 가진 탓에 채소 재배 기간이 짧다. 1972년 소련과 불가리아의 지원으로 설치한 8ha 규모의 온실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2백30여 개의 플라스틱 온실을 지어 229.6톤의 채소를 수확한다. 하지만 이는 몽골 전체 채소 소비량의 30%에 불과하며, 온실을 이용한 채소 재배는 전체 수확량의 0.5%에 머물러 있다.

몽골 정부는 1990년대부터 육식 위주 식단에서 육식, 채식 혼합 식단으로 식생활 변화를 권장하며 급증하는 채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실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백40만 달러를 투입해 울란바토르에 플라스틱 온실 12동, 다르항에 플라스틱 온실 12동과 유리 온실 한 동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오이, 토마토 등 온실용으로 적합한 11개 품종 씨앗을 제공하고 온실 작물의 재배 및 환경 관리, 온실 공사 설계와 감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 이외에도 몽골형 온실 개발을 위해 연구용 온실을 설치해 온실의 유지 관리 및 재배, 환경 조절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업용 온실 개발에 적용할 계획이다. KOICA는 우리나라의 온실 관련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몽골 기후에 적합하며 경제성 높은 몽골형 온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업명 몽골 채소 재배 온실 설치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40만 달러 | **지원 내역** 온실 설립을 위한 인프라 건설,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22 MONGOLIA 기상 정보를 공유하여 오보를 막는다

기상청 기상 관측 보존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Climate Data Rescue and Modernization of Preserving System

몽골은 기상 관측 자료가 전산화되지 않아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겨울 기온이 매우 낮은 몽골의 기상 변화는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36년 이후 전국의 기상 관측소에서 수집된 종이 자료는 5천7백만 쪽에 달한다. 몽골 정부는 종이 자료를 전산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장비와 기술 분야의 한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몽골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상청과 업무 협력을 맺고, 지난 2006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 · 몽 기상협력회의를 통해 기상 관측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의뢰했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30만 달러를 지원해 훼손과 유실이 점점 심해지는 몽골의 종이 기후 관측 자료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이로부터 기후 수치를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영구적으로 기후 관측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버와 대용량 저장 장치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준다. 몽골과 우리나라는 이 사업으로 구축된 장기간의 기후 관측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세계 기후 변화의 과학적 정보를 확보하고,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 나라의 기후 자료는 전 세계 기후 변화와 연계되며 특히 몽골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상 예측이나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유익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몽골 기상청 기상 관측 보존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3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시스템 개발,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23 MONGOLIA 신속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명한 행정 업무 기대

전자 관세 통관 시스템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Modernization of Mongolia Customs

몽골 관세청은 2003년 개발한 'GAMAS' 라는 관세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기능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에 관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선진 관세 행정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250만 달러를 투입해 관세 행정 정보 시스템과 외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세청 직원 10명을 국내로 초청해 2주간 시스템 운영과 유지 보수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웹 기반의 관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외부 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 공적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신속한 통관 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토대로 한 치 오차 없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몽골 전자 관세 통관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스템 개발,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24 MONGOLIA

한국과 몽골의 식량 안보를 위하여

할흐골 지역 농업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The Development Study on Agricultural Development in Khalkhgol Region of Mongolia

유목, 방목 중심의 전통 축산 국가인 몽골은 불리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과거 밀, 감자, 채소 등의 농산물을 자급해 왔다. 1990년 이후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협동농장, 국영농장 시스템도 붕괴된다. 자산의 사유화 및 기업화, 자재 공급 중단으로 인해 농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경제적 혼란과 재원 부족, 기상 이변 등이 이어지면서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했다.

몽골 정부는 농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고, 집약적으로 축산업을 발전시켜 농촌의 인구 정착을 위해 동몽골 도르노드 아이막(道)의 할흐골 솜 유역에 관개 시설을 비롯한 농업 기반 시설을 복구하기로 결정했다. 할흐골 지역은 과거 경종(耕種) 농업이 번성했으나 현재는 낙후된 지역으로 몽골 정부는 농업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농 · 축 복합 시범농장 설계에 관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2백55만 달러를 투입해 할흐골 지역을 몽골의 식량 작물과 사료용 작물 재배 및 사육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농장 설계를 지원 중이다. 이 사업은 몽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역시 식량 안보를 위해 해외 농업 생산 기지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할흐골 지역을 우리나라의 해외 식량 수입 기지로 세울 수 있다면 이곳의 곡물을 국내로 직접 들여오거나 주변국에 팔아 다른 대체 곡물을 저렴하게 수입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몽골 지역은 몽골의 발흥지이자 한민족의 고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몽골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공존하는 곳이다. KOICA는 이 사업을 통해 양국의 경제적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명 몽골 할흐골 지역 농업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55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25 MONGOLIA

몽골에서 다시 태어난 한국의 연탄 산업

울란바토르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난방 문화 개선 시범 사업

The Pilot Project to Reduce Air Pollution by Improving Heating Culture in Ulam Bator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 게르촌,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 살고 있는 10살 소녀 '우양가'는 오늘도 영하 20℃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 손을 비비며 난로에 석탄 덩어리와 나무 장작, 폐타이어 등을 넣는다. 매캐한 연기에 연신 기침을 하면서도 검은 연탄 가루가 묻은 소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울란바토르는 연중 9개월 이상 난방이 필요하다. 전체 인구 대비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57%를 차지하며, 도시 인구의 50% 이상은 빈민촌 게르에서 거주한다.

울란바토르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으로 인근 게르촌의 난방과 취사 시 발생하는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가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해마다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 농도를 두 배로 증가시키고 있다. 아울러 심각한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자 몽골 정부는 게르촌에서 사용하는 저질 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연탄난로를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몽골 정부는 연탄을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한 배합 기술 및 연소 방법, 공장 설립, 품질 기준 제도 등에 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70만 달러를 투입해 울란바토르 주민들에게 연탄난로 4천2백37개와 연탄 4백23만7백 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사업이 단순한 물자 지원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자율적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연탄 제조업체의 생산 실태 점검과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탄 검사제도 및 방법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연탄 생산 시설과 관련된 단체를 견학하기도 했다.

남은 사업 기간 동안 KOICA는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전후 대기 오염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해 이를 몽골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몽골 정부는 저질 연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연탄을 난방 연로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고질적인 동절기 대기 오염과 호흡기 관련 질병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1980년대 이후 사양화되고 있는 연탄 산업을 기술 이전하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관련 기업의 몽골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등 다른 국가들로의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몽골 울란바토르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난방 문화 개선 시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70만 달러 | **지원 내역** 연탄난로 및 연탄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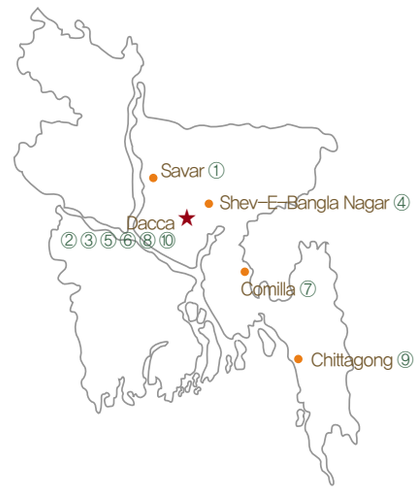
BANGLADESH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다. 한반도의 2/3에 불과한 면적에 1억4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산다. 부존자원이 극히 빈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 · 사회적 인프라가 워낙 취약해 빈곤과 저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빈곤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가 넘고, 청년 실업률은 38%에 가깝다. **글 · 추경완**

방글라데시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지배국 영국을 위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원이자 영국 제품의 판매 시장으로써 식민지 수탈이라는 전형적인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독립 후에는 파키스탄의 11개 주 중 한 개 주인 동파키스탄이 되었으나 벵골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파키스탄인 서파키스탄으로부터 정치 · 경제 · 사회적 차별을 받아 세계 최빈곤 지역으로 전락한 후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게 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극심한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빈곤 경감 가속화를 위한 방글라데시 4대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2015년까지 빈곤 인구의 수준을 절반으로 줄여 나간다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해 빈곤층을 위한 경제 성장 및 인적 자원 개발, 거버넌스 향상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경제 개발 외에도 대다수 국민이 겪고 있는 빈곤 극복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credit를 비롯한 다양한 개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정부 총지출의 25% 정도를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 구제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2003년 개최된 유엔의 빈곤 극복 관련 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국명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정체** 입헌공화국 **기후** 아열대 몬순 기후 **인구** 1억5천8백만 명 **면적** 147,570㎢(한반도의 약 2/3 정도) **1인당 국민소득** 4백30달러(2007년 기준) **수도** 다카(Dacca) **민족** 벵골인 98%, 비하리 · 차크마 · 무갈 · 아랍인 · 파탄족 등 **문자 해독률** 41.1%(2005년 기준) **종교** 이슬람교(86.6%), 힌두교(12.1%) 등 **공용어** 벵골어



| 방글라데시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1억5천8백만 명) 중 빈곤층은 1991년 58.8%에서 2005년 49.6%로 줄었으며, 절대 빈곤층 또한 28%에서 20%로 감소 ● 2015년까지 빈곤층 29.4%까지 감소 및 극빈층 14%까지 감소 목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1991년 73.7%에서 2005년 82.7%로 개선 ● **초등 학력 이수율** 1991년 42.5%에서 2005년 82.7%로 대폭 증가 ● **15세 이상 성인의 문자 해독률** 1991년 36.9%에서 2005년 38.8%로 소폭 개선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기초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1년 81.8%에서 2005년 92.3%로 개선 ● **중등 교육 과정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1년 51.5%에서 2005년 92.3%로 개선 ● **고등 교육 과정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1년 33.3%에서 2005년 56.3%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사망률** 1990년 신생아 1천 명 중 1백51명 사망에서 2005년 약 82명 사망으로 감소 ● **2015년까지 5세 이하 신생아 사망률** 1천 명 중 50명이 목표
모성 보건 증진	● **산모 사망률** 1990년 10만 명 중 5백47명 사망에서 2005년 320~400명 수준으로 감소 ● 2015년까지 1백43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HIV/AIDS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목표는 없음 ● **말라리아 발생률** 1991년 1%에서 2005년 0.05%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2005년 현재 개선된 수자원 사용** 도시 인구 82%, 농촌 인구 72% ● **2015년까지 안전 식수 이용률** 도시 인구 100%, 농촌 인구 96.5% 목표

01 BANGLADESH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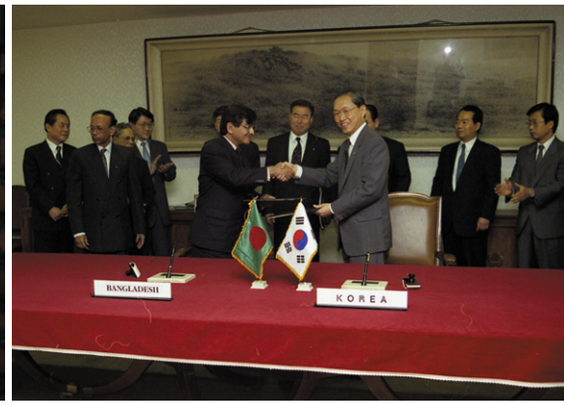
한 · 방 친선병원 건립 사업

The Project of Construction of Korea-Bangladesh Friendship Hospital

방글라데시는 전형적인 저개발 농업 국가다.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후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의 60%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 기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유아와 산모의 사망률이 심각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보건 사업을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의료 서비스가 급성장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KOICA는 1994~1999년까지 99만 달러를 지원해 건평 1,825㎡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에 30개 병상과 응급실, 외래환자실, 의사 · 간호사 숙소를 갖춘 한 · 방 친선병원을 건립했다. 그 밖에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제공하고 의사, 간호사, X-ray 기사 3명을 6주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친선병원 건립 사업은 1999년 8월 개원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다. KOICA는 지역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특히 가족계획 및 면역 서비스를 제공해 모자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방글라데시 산모 사망률은 1990년 10만 명당 5백47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320~4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출산 비율도 1990년 5%에서 2005년 12%로 증가하는 등 보건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사업명 한 · 방 친선병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4~1999년 | **사업 규모** 99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사전 조사



02 BANGLADESH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다

다카대 한국어 센터 지원 사업

Establishment of a Korean Language Laboratory at Institute of Modern Languages of University of Dacca

영국의 식민지였던 방글라데시는 1억4천 명에 이르는 내수 시장을 갖고 있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다. 1996년 당시 수도 다카를 비롯한 방글라데시 주요 지역에 우리나라의 기업 진출이 늘면서 양국의 교역량도 증가했다. 현지 한국 기업에 고용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인구가 15만 가구에 이를 정도다. 자연히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KOICA는 1997년 10만 달러를 투입해 방글라데시의 명문 대학인 다카대의 한국어 센터 개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카대의 한국어 과정 개설은 방글라데시 공관과 교민 사회뿐만 아니라 다카대의 숙원 사업이었다. KOICA는 어학 실습실을 마련하고,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가를 한 달 동안 현지에 파견해 교재를 개발하는 등 어학실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교육했다. 이외에도 어학 실습실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해 기자재 운영 및 조작과 수리법 등의 연수를 통해 현장 운영 능력을 향상시켰다. KOICA는 사업 종료 후에도 봉사 단원을 다카대로 파견해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 제일의 투자국이다. KOICA의 한국어 센터 지원은 방글라데시에 한국과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할 예비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또한 1억4천만이라는 막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사업명 방글라데시 다카대 한국어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7년 | **사업 규모** 1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3 BANGLADESH

비슷한 처지에서 시작한 한국의 과학 기술 놀라워요!

다카대 과학 기술 센터 설립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Advanced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in Science and Technology

세계 최고의 인구 과밀국인 방글라데시는 경제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과학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다카 국립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왔다. 2001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카대에 과학 기술 센터 건립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다카대 과학 기술 센터는 IT 공과 실습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1960년대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가 1990년대 성취한 과학 기술의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받고자 한 것이다.

KOICA는 2001~2002년까지 69만 달러를 들여 과학 기술 센터에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제공하고, IT와 기초 과학 등 4개 분야의 연수생을 국내로 초청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센터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술을 교육했다.

KOICA는 처음 전산화를 시작한 방글라데시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를 다지고, 국내에서 지원한 최신 기자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IT 제품과 기술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방글라데시 최고의 대학이란 상징성을 갖는 다카대를 지원하면서 양국의 우호 증진에도 기여했다.

사업명 방글라데시 다카대 과학 기술 센터 설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69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4 BANGLADESH

IT 분야 지원의 모범 사례로 남다

IT 훈련 센터 건립 사업

The Establishment of Korea-Bangladesh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방글라데시 정부는 행정 민원 서비스 향상과 정부의 생산성 및 투명성 확대를 목표로 2002년 정보통신기술ICT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전자정부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정보기술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수상이 직접 ICT 태스크 포스 회의를 주관하는 등 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의 IT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3~2004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네트워크 장비와 OA 장비를 제공하고, 관련자 13명을 국내로 초청해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컨설팅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IT 훈련 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IT 훈련 센터가 문을 연 후 방글라데시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견학과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곳의 교육 시설과 교과 과정이 다른 기관이나 기업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이다.

KOICA의 지원으로 제 규모를 갖춘, 방글라데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IT 훈련 센터는 IT 교육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자국의 개발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곳을 IT 분야 원조 사업의 모범 사례로 인식할 만큼 훈련 센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강하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방글라데시 IT 훈련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4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내부 공사 검수,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5 BANGLADESH

정보화 격차를 없애는 데 한국의 IT 기술이 앞장섰죠

ICT 교사 연수 센터 건립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Bangladesh-Korea ICT Training Center for Education

방글라데시 정부는 중 · 고등학교 IT 교육을 위해 5천 명의 교사를 양성하고, 2만5천 대의 컴퓨터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교육정보통계국은 정부의 지원으로 매년 2백50여 명의 교사들을 연수시켜 왔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는 IT 교사의 연수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KOICA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1~2002년까지 140만 달러를 투입해 교육정보통계국의 ICT 훈련 센터 실습장을 개 · 보수하고, 실습장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등 기자재를 제공했다. 아울러 시스템 운영자와 관리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IT 교사 연수 센터 건립 후 연간 39개 교육 과정에 2천60여 명의 인원이 이곳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ICT 산업을 발전시키고, 교육정보통계국 관련 담당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KOICA는 연간 2천여 명의 공무원과 중 · 고등학교 컴퓨터 교사들을 교육시킴으로써 방글라데시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사업명 ICT 교사 연수 센터 건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14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6 BANGLADESH

고급 기능 인력을 키우는 산실이 되다

국가 직업 훈련 역량 강화 사업

The Project to Enhance the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of Bangladesh

방글라데시의 직업 훈련은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967년에는 기술 교육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직업 훈련 사업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독일 정부와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왔다. 2005년 10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직업훈련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위치한 미르푸르 직업훈련원은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설립된 방글라데시 최초의 직업훈련원이다.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의 지원을 받아 1964년 실습장을 재건축하고, 새로운 장비를 제공받았으나 시설이 낡고 노후화됨에 따라 전면적인 운영 시스템 개편과 장비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400만 달러를 들여 훈련원 개 · 보수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종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KOICA의 지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미르푸르 직업훈련원은 다른 훈련원과 차별화되는 훈련 장비와 기자재, 우수한 훈련 과정으로 방글라데시의 고급 기능 인력을 배출하는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명 방글라데시 국가 직업 훈련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4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개 · 보수,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교재 개발





07 BANGLADESH

농촌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다

꾸밀라 지역 농촌 종합 개발 사업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n Burichang Upazila of Comilla District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며 노동력의 63%가 농업에 종사한다. 하지만 농업은 국내 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농업과 농촌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동부 2개 지역의 시범 개발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350만 달러를 투입해 방글라데시 꾸밀라 지역 농촌 종합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07~2010년까지 꾸밀라 군 부리창 면 지역에 기본적인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시킴은 물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KOICA는 농업용수로 건설, 농로 개설 등 농업 시설을 구축하고, 학교와 마을회관 건축 등 지역사회 개발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보급 및 농촌 지도자를 양성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지도 활동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 밖에도 재봉틀을 보급하는 등 농가의 소득을 다양화하는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KOICA의 꾸밀라 지역 농촌 종합 개발 사업은 지역의 농업 기반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시킴은 물론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방글라데시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방글라데시 꾸밀라 지역 농촌 종합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7~2010년 | **사업 규모** 350만 달러 | **지원 내역** 마을 단위 시범 사업,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8 BANGLADESH

방글라데시 고위 공무원도 KOICA가 교육

고위 공무원 교육원 역량 강화 사업

Developing the Training Capacity of the Bangladesh Civil Service Administration

2005년 10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빈곤 퇴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10년간의 '중장기 빈곤 퇴치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빈곤 문제 해결과 정치적 안정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부정부패 방지, 지방 행정 역량 강화, 정책 결정과 집행 능력 향상 및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등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6년 5월 공공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238만 달러를 투입해 고위 공무원 교육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방글라데시 공무원의 정책 개발, 집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정부 혁신 및 공공 개혁 분야의 연수 과정을 개발해 주요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와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OICA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무원 교육 전문 기관의 기능을 강화시켜 정부 혁신 및 공공 개혁 분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사업명 방글라데시 고위 공무원 교육원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238만 달러 | **지원 내역**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국내 초청 연수, 현지 연수, 기자재 지원

09 BANGLADESH

상하수도 관리에 대한 기본적 계획조차 없어…

치타공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Preparation of Master Plan for Water Supply and Wastewater Management for the Detailed Planned Area of Chittagong







인구 250만, 방글라데시 제2의 도시인 치타공은 방글라데시 최대의 무역 항구로 무역과 제조, 물류의 핵심지다. 치타공 지역은 최근 수년간 봉제, 가죽, 염색 등 제조업체가 모여들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물론 산업용수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전반적인 용수 공급 계획은 물론 상하수도 건설과 관리에 대한 기본적 계획조차 없어 상하수도 개발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치타공의 상하수도 체계를 개선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48만 달러를 투입해 2년간 단기, 중 ·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치타공 상하수도국과 도시개발국이 마련한 2015년까지의 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총면적 550㎢ 지역에 상하수도 개발 종합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며 아울러 단기, 중 · 장기 투자에 대비해 단기 개발 계획과 중 · 장기 개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현지 전역의 상하수도 현황 조사를 비롯하여 수요 예측, 수자원 조사, 수질 및 수량 평가, 처리 시설 입지 및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고 'GIS' 상하수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KOICA는 상하수도 시설 분야의 효율적 투자와 체계적 사업 관리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와 위생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공업용수를 공급해 지역의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사업명 방글라데시 치타공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48만 달러 | **지원 내역** 상하수도 단기 및 중 ·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국내 초청 연수, 기자재 지원

10 BANGLADESH

정확한 통계로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

통계청 통계 시스템 및 교육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ICT Training and System of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2005년 12월 세계경제보고서에서 방글라데시는 'BRICs' 에 이어 성장 잠재력을 지닌 'Next Eleven' 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방글라데시는 경제 안정성과 투자 조건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경제 개방성, 기술 능력 및 인적 자산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더불어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 일반 정보통신ICT 환경을 개선시키고, 공공 기관에 ICT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 통계 정보 시스템 구축과 ICT 기술 교육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59만 달러를 투입해 방글라데시 통계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4개 분야의 연수를 통해 선진적인 통계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ICT 교육실 설치와 함께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데이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료 이용을 통한 보고서 추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방글라데시 정부 각 기관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통계 정보를 전달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계청 ICT 교육실에서 통계청 내부의 인적 자원을 교육시키고, 업무 역량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방글라데시 통계청 통계 시스템 및 교육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59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관계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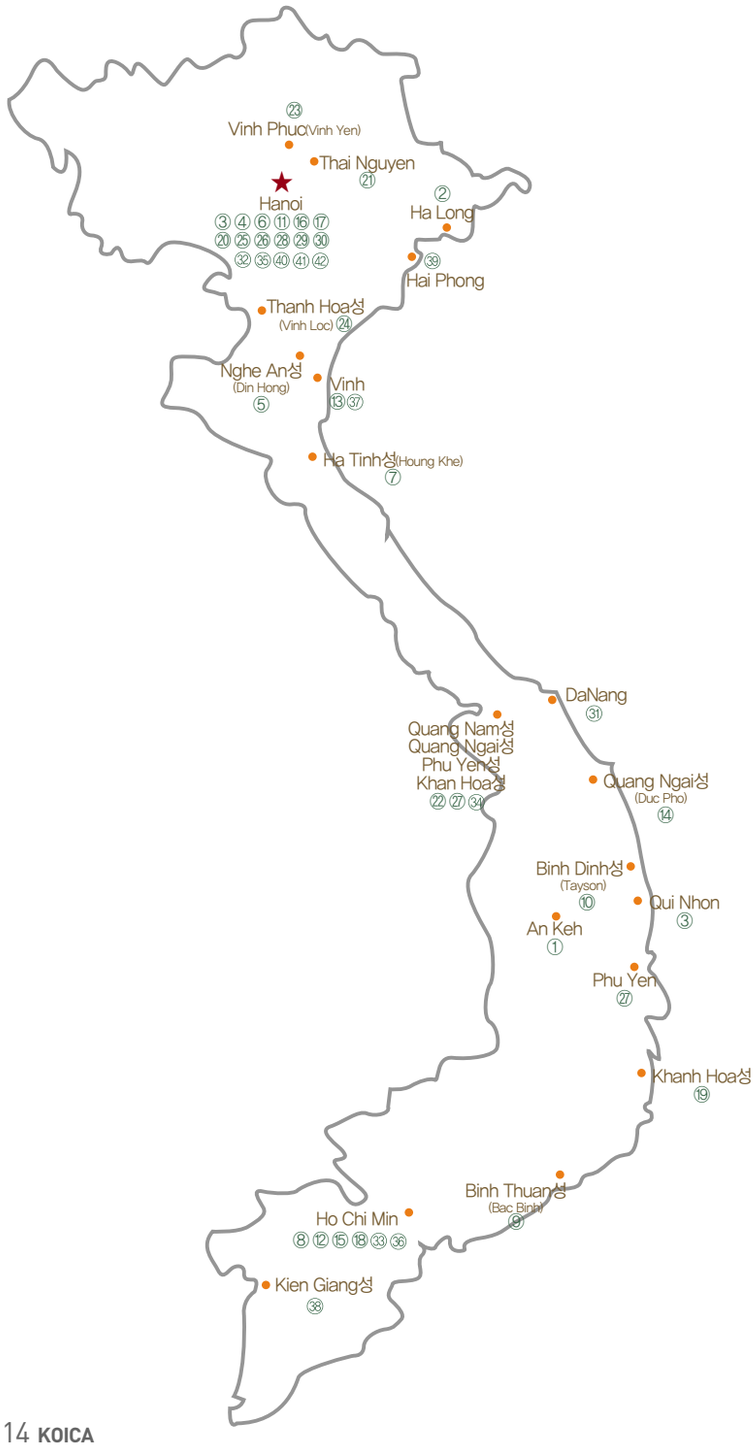
VIETNAM

베트남은 2000년 이후 연 8%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투자 1위 국가이며, 베트남은 공적 개발 지원의 최우선 중점 대상국이다. 2007년까지 무상 원조는 8천만 달러에 달한다. **글 · 김소영, 황재상**

베트남은 1986년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 정책인 이른바 '도이 모이Doi Moi'를 채택한 이후 높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2000년 이후 연 8%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2008년 들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무역 수지 악화 및 환율 불안, 미국발 금융 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급증하는 등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투자 1위 국가이며, 베트남은 공적 개발 지원의 최우선 중점 대상국이다. 2007년까지 무상 원조는 8천만 달러에 이를 정도다. 베트남은 지난 20년간 경제 개혁과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아직 경제 사회적 인프라와 기초 기술이 취약하고, 관료적 행정과 부정부패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인프라 부족과 관료주의, 부패가 만연해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2007년 세계은행 기업 활동 환경 평가에서 베트남은 178개국 중 91위를 차지했다. 또한 국가의 재정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아 양호한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특히 기본적 사회 서비스인 교육과 보건 분야는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심하다.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정체** 사회주의 공화제(공산당이 유일 정당) **기후** 북부 : 아열대성 기후, 남부 : 열대 몬순 기후 **인구** 8천2백만 명 **면적** 330,341㎢(한반도의 약 1.5배) **1인당 국민소득** 8백30달러(2007년 기준) **수도** 하노이(Hanoi) **민족** Viet족 89%, 타이, 므엉 등 54개 산악 소수 민족, 화교 **문자 해독률** 91.07%(2005년 기준) **종교** 불교(80%), 가톨릭(9%) 등 **공용어** 베트남어



| 베트남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 중 빈곤층** 1992년 58%, 2002년 54.3%에서 2006년 15.5%로 줄었으며, 2015년까지 빈곤층의 27.3%, 극빈층의 11.5%까지 감소 목표 • **영양 불균형 비율** 1992년 41%에서 2006년 20%로 축소, 2015년 11.15%까지 감소 목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취학자** 1990년 87%에서 2006년 96%로 상승 • 2015년까지 보편적 초등학교 취학률 100% 달성, 15~24세 문맹률 0% 달성 목표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초등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0년 93%에서 2006년 95%로 증가. 그러나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다소 감소. 직업 교육 과정에서는 1991년 77.73%에서 2002년 101.98%로 증가 • **비농업 분야에 고용된 여성 비율** 1991년 41.29%에서 2002년 42.2%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 1990년 1천 명당 58명에서 2007년 약 29명으로 축소. 신생아 사망률은 1990년 1천 명당 44.4명에서 2007년 16명으로 축소 • 2015년까지 5세 이하 사망률 1천 명당 17명 목표
모성 보건 증진	• **산모 사망률** 1990년 10만 명당 2백23명에서 2007년 75명으로 감소 •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모성 보건 전문 인력 부족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24세 인구의 HIV 발병률** 2000년까지 공식적으로 0.26%이나 실제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으로 확산. HIV/AIDS의 전염 수준을 2010년까지 반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 • **인구 1천 명당 말라리아 감염률** 1991년 1.53%에서 2006년 1.08%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식수 제공률** 1990년 63%에서 2001년 75%로 증가, 2015년 88% 목표 • **기초 위생 서비스** 1990년 54%에서 2015년 78% 목표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 1인당 원조 제공 비율** 1990년 3달러에서 2007년 22달러로 상승

01 VIETNAM 베트남에 'KOICA 자원 개발 조사단' 떴다

자원 개발 협력 조사 사업
Joint Mineral Exploration

베트남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졌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34억 배럴에 이르고, 1백85억㎥의 천연가스와 38억 톤의 석탄, 5억2천만 톤의 철광석을 보유하고 있다. 80억 톤의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3위를 차지한다. 베트남 중공업부와 지질청Geological Survey of Vietnam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3~1996년까지 95만 달러를 들여 베트남 중부 안케An Keh 지역을 대상으로 자원 개발 협력 조사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KOICA의 조사 사업은 광역 탐사와 정밀 탐사 · 유망 광상 지역에 대한 정밀 탐사 · 시추 · 개발 타당성 조사와 보고서 작성 등 4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총면적 940㎢에 달하는 광역 탐사를 통해 3개 유망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화학 및 물리 탐사를 통해 6개의 유망 광맥을 포착했으며, 경제성 분석과 개발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현지에 파견된 23명의 전문가들은 베트남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 기술을 전수했다. 지원 사업이 끝난 후 베트남 정부는 중공업부 차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KOICA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현재 베트남 지하자원은 수출의 큰 몫을 차지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명 베트남 자원 개발 협력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3~1996년 | **사업 규모** 95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타당성 조사

02 VIETNAM KOICA의 지원, 우리나라 이익으로 돌아오네

18번 국도(N-18) 개량 타당성 조사 사업
Improvement and Upgrading Highway 18

1993년 당시 베트남은 1986년부터 시행해 온 '도이 모이'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매년 마이너스에 육박하던 경제 성장률은 1991년 6%, 1992년 6.5%로 높아지고 물가는 안정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중에서도 국도 65%, 지방 도로 20%라는 빈약한 도로 포장률을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였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180km 떨어진 하롱베이Ha Long Bay는 3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관광지다. 베트남 교통체신부는 신항으로 개발 중인 카이란Cai Lan 및 하롱베이를 수도 하노이와 연결하는 18번 국도를 개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KOICA에 요청해 왔다.

베트남 북부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18번 도로는 중국 남동부와 연계되는 노선으로 총연장 206km에 달한다. 그중 치린Chi Lin에서 홍가이Hon Gai까지 81km 구간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구간은 도로 폭이 4~5m로 좁은 데다 침수 피해로 곳곳의 포장 상태가 불량한 탓에 주행 가능 속도는 시속 20km에 불과했다.

KOICA는 1993~1994년까지 56만 달러를 들여 도로 폭을 9~12m로 확장 및 개량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가 파견한 우리나라 전문가 9명과 베트남 전문가 7명은 공동으로 교통 및 노선을 측량하고, 토질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등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미래 교통량 예측과 구조물 및 포장 설계, 공사비 산출과 경제성 분석을 해나갔다.

KOICA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는 1995년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천4백만 달러를 확보했고, (주)대우는 1999년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18번 도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경제 협력의 상징임과 동시에 무상 · 유상 원조 사업 연계의 모범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업명 베트남 국도 18번(N-18) 개량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3~1994년 | **사업 규모** 56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타당성 조사

03 VIETNAM

KOICA의 본격적 사업이 시작

하노이 · 퀴논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The 1st/2nd Korean Vocational training Project

1994년 베트남 정부는 사회 경제적 개발을 가속화하며 해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는 숙련된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해 하노이와 퀴논의 직업훈련원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로 산업 분야의 선진적인 기술과 기계가 유입되기 시작한 곳이며, 퀴논은 빈딩성의 중심지이자 베트남 중부의 주요 교역지다. 두 도시는 모두 숙련된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직업훈련원은 열악한 시설과 노후한 장비로 인해 인력 양성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두 곳의 직업훈련원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4~1998년까지 하노이와 퀴논 두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250만 달러씩 총 500만 달러를 투입해 학교별로 5개 공과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종 훈련 장비를 제공하고, 훈련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제도를 교육시켜 훈련원의 운영 수준을 향상시켰다. 하노이 · 퀴논 직업훈련원 건립은 베트남에 대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한 첫 번째 사례로 베트남 산업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산업 인력 양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의 성공으로 베트남 무상원조 사업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았고, 이후 베트남은 KOICA의 최대 지원을 받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사업명 베트남 하노이 · 퀴논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4~1998년 | **사업 규모** 5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훈련 교사 국내 초청 연수



04 VIETNAM

개혁 · 개방 정책의 기반을 쌓다

경제개발연구소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Research Capability in Formulating Long-term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Economic Forecasting

1992년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하며 4년간 총 2백만 달러의 무상 원조를 약속했다. 베트남 정부는 무상 원조의 일부를 활용해 경제개발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KOICA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994~1996년까지 80만 달러를 들여 경제개발연구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31명의 경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베트남 '국가계획위원회SPC' 산하 '장기 지역계획연구소ILRP' 및 '경제관리중앙연구소CIEM'의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베트남 관계자 34명을 4회에 걸쳐 국내로 초청해 주제별 세미나와 시찰 등 연수를 실시하고, 연구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사무 기자재를 제공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체계적인 경제 지표와 데이터 관리, 경제 모형 수립 등 연구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 연구소의 구성원 대부분은 소련 · 동독 ·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아 시장 경제를 분석할 능력이 부족했다. 베트남은 KOICA의 지원으로 거시경제 분석과 경제 정책 수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본격적인 개혁 · 개방 정책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사업명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4~1996년 | **사업 규모** 8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05 VIETNAM

야호! 우리 마을에 초등학교가 생겼다

네안성 학교 건축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School Building and Providing Teaching Equipments in Nghe An Province

"딘홍초등학교는 이곳의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KOICA에 감사드립니다."

'Chong' 딘홍초등학교 교장은 개교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딘홍초등학교가 지역의 교육 환경을 향상시키는 상징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했다. 베트남 중부 네안성은 인접국 라오스의 관문이다. 호치민 주석을 비롯해 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유서 깊은 지역이지만 현재는 베트남의 극빈 지역 중 하나다. 네안성의 딘홍 코뮌Commune에는 아예 초등학교가 없어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는 네안성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5~1996년까지 2년간 25만 달러를 들여 840㎡ 규모의 학교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KOICA가 건립한 딘홍초등학교는 교실 12개와 컴퓨터실 1개로 구성되었으며, 49개 학급 1천7백74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KOICA는 딘홍초등학교 외에도 빈 특별중학교, 쿠아남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컴퓨터와 사무용 기기와 교육 기자재를 제공했다.

사업이 끝난 후 베트남 정부는 딘홍초등학교에 양국 간 교육 분야에 대한 협력과 우정을 상징하는 5m 높이의 조형 탑을 세우고, 그 아래 KOICA의 사업 내용을 새겼다.

사업명 베트남 네안성 학교 건축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6년 | **사업 규모** 25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기자재 지원

06
VIETNAM

하노이에 코리아 클리닉이 생겼네

코리아 클리닉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Vietnamese-Korean Friendship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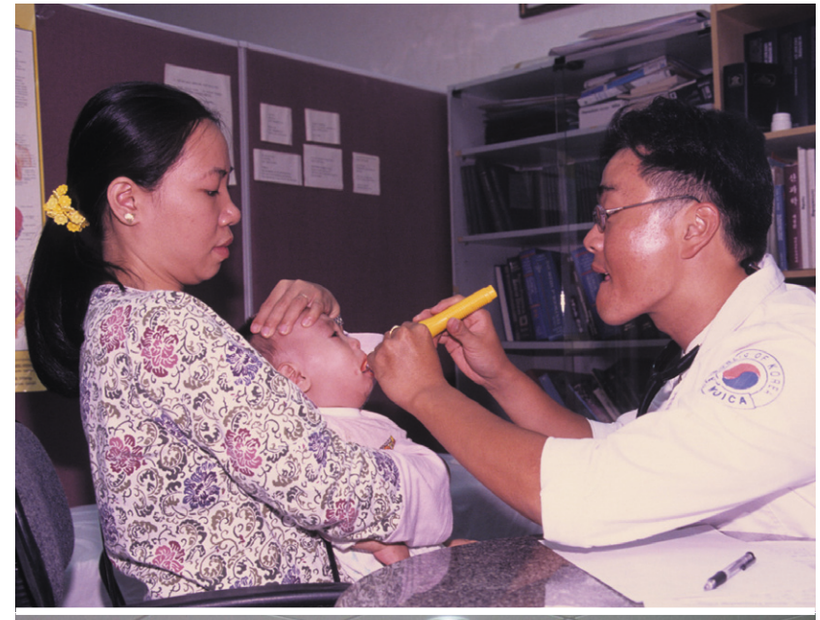
"병원이라기보다는 수용 시설에 가깝습니다."

1995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St. Paul' 병원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우리 측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5백 개 병상을 가진 'St. Paul' 병원에는 의사 1백58명과 간호사 3백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병원은 하노이의 주요 병원 중 하나지만 1970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병원 설비가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KOICA는 1995~1996년까지 26만 달러를 들여 병원 내에 '코리아 클리닉'을 개설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했다. 또한 수술용 내시경, 초음파 기계 등 의료 장비 24종을 제공하는 한편 X-Ray · 임상 병리 등 4개 분야의 연수생 6명을 국내로 초청해 교육을 실시했다.

1996년 3월 하노이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의료 보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 클리닉 개원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KOICA는 그동안 변변한 치료 한 번 받을 수 없었던 하노이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한 · 베트남 간 의료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코리아 클리닉'은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KOICA의 후속 지원을 받으며 '한 · 베 친선 병원'으로 발전했다. '코리아 클리닉'은 앞으로 베트남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베트남 '코리아 클리닉'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6년 | **사업 규모** 26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의료진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7 VIETNAM

하틴성에도 최신 병원이 생겼어요

홍케병원 건축 사업

The Project for upgrading Huong Khe District Hospital



베트남 하틴성에 있는 홍케병원은 시설과 기자재들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수십 년간 사용한 병원 기자재들은 너무 낡거나 고장이 쉽게 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였고, 부족한 예산 탓에 병원을 보수하기도 쉽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홍케병원을 중추적인 지역 병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5~1996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외과 병동과 수술실을 갖춘 1,650 m^2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고, 마취 장비 등 현대적인 의료장비 73종을 제공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의료 장비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베트남 의료진을 국내로 초청해 의료 기술을 전수했다.

하틴성 마오Mao 성장은 병원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베트남 국민들의 의료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병원을 건립해 준 한국 정부와 KOICA에 감사드립니다. 양국 간 우정의 상징인 홍케병원을 계기로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 지원과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1997년 7월 홍케병원은 KOICA가 지원한 외래 병동에 이어 베트남 정부의 지원으로 입원 병동을 신축하면서 명실공히 지역의 중추적인 의료 센터로 자리 잡았다.

사업명 베트남 홍케병원 건축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6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의료진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08 VIETNAM

시간과 이념을 뛰어넘은 KOICA의 의료 지원

호치민 열대병 센터 사업

The Project for Upgrading of the Center for Tropical Disease in Ho Chi Minh City

1974년 우리나라는 남베트남과의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해 현재의 호치민인 사이공에 한 · 베트남 의료 센터를 건립하고 기증했다. 20여 년이 지난 1995년, 베트남이 겪은 격동의 역사를 말해주듯 병원 이름은 '호치민 열대병 센터'로 변경되었다. 열대병 센터는 의사 80명, 간호사 3백50명 등 6백 명이 근무하는 5백 개 병상 규모의 병원이지만 장비와 건물은 크게 낙후된 상태였다. 중환자실과 임상 병리실조차 인공호흡기와 원심 분리기 같은 극히 초보적인 장비만 갖추고 있는 실정이었다.

KOICA는 과거 우리나라가 지원했던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시켜 한 · 베트남 협력의 의의를 되살리고자 1995~1996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호치민 열대병 센터'를 개선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 혈액 분석기와 생화학 분석기 등 의료 장비 11종을 제공하고, 장비의 설치와 교육을 위해 전문가 2명을 현지에 한 달간 파견했다. 또한 베트남 관계자 4명을 국내로 초청해 서울대 병원과 아주대 병원에서 의료 장비 사용과 관리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2차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시간과 이념을 뛰어넘어 한 · 베트남 간의 지속적이며 굳건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었다.

사업명 베트남 호치민 열대병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6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9 VIETNAM 낙후한 베트남 중부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

박빈병원 개 · 보수 사업

The Project for upgrading Bac Binh Hospital in Bihn Thuan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빈투안성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대부분 빈곤 계층인 박빈 지역 주민들은 무료 진료에 의지하고 있지만 박빈 병원의 의료 시설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1994년 베트남 정부는 열악한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박빈 병원의 개 · 보수 작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5~1996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외과 병동과 수술실을 갖춘 1,153㎡ 규모의 병원을 건축했다. 이와 함께 마취 장비와 구급차,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적 의료 장비 50종을 제공해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의료 장비 설치와 운용 기술을 교육하고, 병원 관리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의 도움으로 박빈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판티엣, 쩌러우 주민들도 이 병원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명 베트남 박빈병원 개 · 보수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6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0 VIETNAM 우리 학교가 빈딩성에서 최고예요!

빈딩성 학교 건축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Secondary School in Bin Dinh Province

"이제 우리 학교는 빈딩성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과 장비를 갖췄습니다."

'Mai Ai Truc' 빈딩성장은 축사를 통해 KOICA에 감사를 표했다. KOICA는 1996년 베트남 중부 빈딩성 타이손Tayson 지역에 25만 달러를 들여 중학교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7년 12월 관계자 70여 명과 학생,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KOICA는 학교를 설립하면서 어려움도 겪었다. 1997년 8월 현지에서 발생한 홍수로 테이손중학교 신축 공사는 위기를 맞았지만 난관을 극복하고 15개 교실을 가진 3층 건물을 완공하고, 컴퓨터 · 프린터 · 과학 실험 교재 등의 기자재를 제공했다. 테이손중학교는 개교 후 학생 5백여 명과 교사 26명을 가진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장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KOICA의 태이손중학교 건립은 가장 중요한 교육 분야에 소규모 예산을 지원해 큰 성과를 거둔 사업이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맹호부대 주둔지였던 빈딩성 지역을 지원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사업명 베트남 빈딩성 학교 건축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25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기자재 지원





11 VIETNAM 사회과학 연구소에 구축된 베트남 최초의 전산망

인문사회과학원 전산망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Computer Networking of the National Center fo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1996년 당시 베트남의 컴퓨터 보급 및 전산망 구축 등은 극히 미비했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 조직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베트남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인문사회과학원의 전산망 구축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7년까지 35만 달러를 들여 하노이와 호치민에 산재한 인문사회과학원 본부와 산하 27개 연구소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컴퓨터와 허브, 전산장비 등 19종의 기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인문사회과학원 관리자 2명과 전산 전문가 3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기술을 전수했다. 특히 지원 사업이 끝난 후에도 컴퓨터 분야의 KOICA 봉사 단원을 파견해 장비 유지와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인문사회과학원 전산망 개설 기념식에는 인민사회과학원 부원장인 'Dr. Le Huu Tang' 을 비롯하여 수상실과 외교부 관계자 및 산하 연구소 대표,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KOICA의 지원으로 인문사회과학 국립 연구소에 최초로 전산망이 구축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크게 기뻐했다.

사업명 베트남 인문사회과학원 전산망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35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2 VIETNAM 호치민에 싹 틔운 자본주의의 꽃

증권거래소 설립 1차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Assisting the Establishment of a Stock Exchange

"오늘 드디어 모의 증권시장을 개장합니다. KOICA의 지원으로 베트남 최초의 증권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위원장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개장을 선언했다. 1998년 7월 열린 모의증시 개장 기념식에는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장관, KOICA 총재, 베트남 부수상 겸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해 기쁨을 나누었다. 부수상은 모의 시스템을 통해 직접 증권 거래를 시연하기도 했다.

1987년부터 꾸준히 개혁 정책을 펴온 베트남 정부는 1990년 회사법과 개인영업법을 제정해 주식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시장 경제 도입을 위한 행보를 계속해 왔다. 특히 자본 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시장 개설을 국책 사업으로 정하고, 1995년 6월 '임시증권위원회Preparatory Securities Commission of Vietnam' 를 설립했다. 같은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도 무어이Do Muoi' 공산당 서기장은 증권거래소 설립에 관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8년까지 80만 달러를 들여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한국증권거래소를 사업 시행 용역 업체로 선정하고 법률과 제도 정비, 운영과 조직 체제 구축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22명의 우리나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자문과



교육 활동을 벌이고, 베트남 관계자 45명을 국내로 초청해 관련 기관 시찰 및 연수를 실시했다. 컴퓨터와 서버 등 전산 장비와 더불어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해 제공했다.

1997년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임시증권위원회를 수상 직속의 '국가증권위원회 State Securities Commission' 로 확대 개편하면서 증권거래소 개설을 추진하기 위해 2차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2차, 3차까지 이어진 KOICA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2000년 7월 마침내 호치민에 베트남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개설되었다.

사업명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 1차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8년 | **사업 규모** 8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전산 시스템 개발, 국내 초청 연수

13 VIETNAM

베트남 기술대학과 직업 훈련의 모델

산업기술대학 지원 사업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Institute

"우리 학생들은 KOICA에서 지원해준 첨단 장비로 실습할 기회가 많아 기술이 월등합니다. 최근 2년간 우리학교 졸업생 1천4백 명 중 90%가 취업을 했습니다. 하노이 · 호치민 · 하이퐁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의 초대 국가 주석인 호치민의 고향, 응에안성에 있는 베트남 산업기술대학장 '응우엔 두이 남'의 말이다.



베트남 정부는 1997년 당시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과 기술 발전을 국가 공업화 및 근대화의 핵심 기반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산업화와 직접 연계되는 기술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96~2000년) 중 교육과 직업 훈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KOICA는 베트남 정부의 직업 훈련 분야를 돕기 위해 응에안성 빙시에 1997~2001년까지 약 500만 달러를 투입해 '한 · 베 산업기술학교The 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School'를 설립했다. 한 · 베 산업기술학교는 고졸자 대상의 2년제 교육 훈련 기관이다.

KOICA는 13,053㎡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본관 · 실습동 · 후생동 · 기숙사 등을 완비했으며, 주변에 있는 2개의 산업 공단을 감안해 전기 · 전자 · 산업 기계 · 설비 · 용접 등 5개 공과를 개설했다. 특히 기술학교 학생들은 2년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에 취업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져 개원 첫해 3백 명 학생 모집에 무려 3천 명이 지원하는 성황을 이뤘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KOICA는 기술학교에 봉사 단원을 파견해 지속적으로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 · 베트남 산업기술학교는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우수한 직업훈련 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베트남 노동부의 장 · 차관 등 고위직 관료들이 수시로 방문한다는 사실에서도 한 · 베트남 산업기술학교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다른 공여국들조차 우수 협력 사업의 모델로 한 · 베 산업기술학교를 꼽을 정도다. KOICA는 이를 계기로 베트남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고용 창출과 수출 촉진 및 지역 사회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사업명 한 · 베 산업기술학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7~2001 | **사업 규모** 50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교재 편찬





14 VIETNAM 낙후된 중부 지역에 병원을 세우다

득포병원 건립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Duc Pho District Hospital





베트남은 남북으로 1,650㎞에 달하는 국토를 가졌다. 그런데 북부와 남부에 비해 중부 지역은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1997년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에 중부 지역 꽝나이성 득포 시에 병원을 건립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도 이 같은 격차는 매우 심했다. 당시 인구 14만 명의 득포 시에는 1975년 설립된 병상 1백 개 규모의 병원이 있었지만 시설과 장비는 극히 열악했고, 해마다 우기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병원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KOICA는 1997~1999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연면적 2,452㎡에 2개 동의 병원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 기자재 8종을 제공하는 한편 5개 분야 12명의 의료 인력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건물 신축 공사 중 제2 병동이 집중 호우와 열악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 완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1년 12월 마침내 성황리에 개원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개원식에는 베트남의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2백여 명이 참석했는데, 'Pham Hoai Hai' 당시 꽝나이성 부성장은 축사를 통해 "득포병원 건립을 비롯해 초등학교 지원 사업 등에 협조해준 KOICA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KOICA의 병원 건립 지원은 소규모 예산의 활용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필수적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원조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사업명 베트남 득포병원 건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9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물 건축,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15 VIETNAM 한국 · 베트남 간 최초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전기전자 안전 실험실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Development of Electrical & Electronic Safety Testing Laboratory

1990년대 후반 베트남은 점진적인 산업 발전으로 인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전기 전자 제품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도 검사 수요는 급증했으나 제한된 시설로 인해 검사 가능 건수는 연간 1천2백 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검사 품목까지 다양해지자 검사 장비는 물론 인력의 확충과 선진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전기전자 안전 시험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7~2000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과기환경부 산하 생산성표준





연구소의 전기 전자 제품 안전도 시험 능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하노이 전기전자 안전 시험소에 7종, 호치민 전기전자 안전 시험소에 6종의 검사 장비를 제공했다. 또한 2차에 걸쳐 11명의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기자재 설치 및 운용 기술을 전수하고 검사 능력을 배양시켰다.

지원 사업이 끝난 후 호치민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Bui Manh Hai' 과학기술환경부 차관은, '양국 간 최초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사업인 이 사업이 그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상징한다'고 언급했으며, 'Hoang Nhu Ly' 외교부 국장은 '전기 분야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시험이 가능해짐으로써 베트남의 개방화와 국제 사회 편입 노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기념식에는 베트남 정부 대표 외에도 현지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해 KOICA의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업명 베트남 전기전자 안전 실험실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1997~2000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6 VIETNAM

KIST를 모델로 베트남 과학기술 개발 지원

한 · 베 과학기술 센터 건립 지원 사업

The Project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Vietnam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1996년 11월 열린 한 · 베 정상 회담에서 베트남 정부는 과학기술 센터를 건립하는 데 우리나라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과학기술의 도입과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한 베트남은 유사한 사회 · 문화적 조건하에서 고도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모델로 하는 과학기술 종합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했다.

KOICA는 1997~2001년까지 5년간 288만 달러를 투입해 'KIST'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국가기술개발센터NACENTECH'와 함께 '한 · 베 과학기술센터VIKOTECH' 건립을 추진했다. KOICA는 신소재 생명공학 연구 개발 관리 등 8개 분야에 47명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베트남 연구원 80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



를 실시하는 한편 1백30만 달러 상당의 전산 기자재를 제공했다.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 시내에 있는 한 · 베 과학기술 센터 건물의 개 · 보수를 담당했다.

2001년 12월 개최된 한 · 베 과학기술 센터 개원식에는 베트남 부수상을 비롯하여 과학기술환경부 장관, 공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Pham Gia Khim' 부수상은 베트남을 방문한 KOICA 총재에게 특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한 · 베 정보통신네트워크VIKONET'의 개통이었다. 'VIKONET'은 연구 및 정보 교류 · 외부 기술 및 전문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베트남 연구 기관을 연결하는 인트라넷과 외부 인터넷망으로 구성되었다. KOICA는 시스템 설치와 함께 멀티미디어 장비와 IT 관련 교육 장비를 제공해 IT 기술의 활용도를 높였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KOICA는 주기적 점검과 관리를 통해 한 · 베 과학기술 센터의 운영을 도왔다.

사업명 베트남 한 · 베 과학기술 센터 건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7~2001 | **사업 규모** 288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17 VIETNAM 우리 병원에도 최신 장비가 들어왔어요

한 · 베 친선 병원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Vietnamese-Korean Friendship Clinic of the Saint Paul Hospital II



1995~1996년, KOICA의 지원으로 개설한 베트남 하노이 'St. Paul' 병원의 '코리아 클리닉(한 · 베 친선 병원)' 은 지역 주민의 의료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베트남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부는 코리아 클리닉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1998~2000년까지 25만 달러를 들여 2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KOICA는 최신 의료 기자재를 제공하고, 의료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화상초음파 진단기 · 이동 X-ray기 · 응급차 등 기자재를 제공하고, 전문가 2명을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베트남 인력 6명을 국내로 초청해 기술과 경험을 전수했다. KOICA는 외환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베트남 정부에 더욱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특히 장비 부족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던 병원 실무자들은 최신 장비 지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999년에 10월 기자재 기증식을 가진 후 '한 · 베 친선 병원'은 연간 1만8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KOICA는 2003년 사후 관리 차원으로 추가적으로 기자재를 지원했으며, 2005년에는 3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 원조 효과를 지속시켜 나갔다.

사업명 한 · 베 친선 병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8~2000년 | **사업 규모** 25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8 VIETNAM

한국형 증권거래소의 탄생

증권거래소 설립 2차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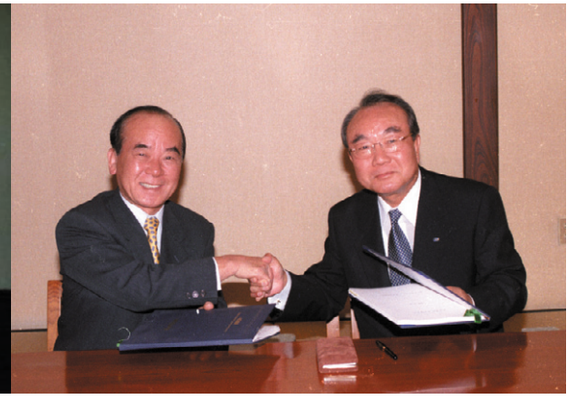
The 2nd-Phase Project for Assisting the Establishment of a Stock Exchange

KOICA는 1996~1998년까지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을 위한 1차 지원 사업에서 기술 자문을 해준 바 있다. 이에 만족한 베트남 정부는 1998년 11월, 2차 지원을 요청해 왔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증권거래소 설립을 위해 관련 법규 제정 및 증권사 설립과 기업의 주식화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기업들의 미비한 상장 준비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KOICA는 1999~2000년까지 20만 달러를 들여 한국증권거래소와 공동으로 2차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2차 지원 사업은 1차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술 자문과 경험 전수에 주력했다. 또한 매매 · 상장 · 결제 · 예탁 제도 등 6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련자에 대한 장 · 단









기 국내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해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 의 역량을 크게 강화시켰다.

2000년 7월 마침내 베트남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호치민에 설립되었다. 비록 180㎡의 트레이딩 플로어 시설에 2개 기업이 상장된 소규모 거래소였지만 4년간 1백20만 달러에 달하는 KOICA의 지원이 마침내 '한국형 증권거래소' 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활동하는 베트남 증권시장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까지 베트남 증권시장의 외국인 투자 유입액은 무려 62억 달러에 이르렀다.

사업명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 2차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9~2000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9 VIETNAM

캉화성 경찰들에게 태권도는 필수입니다!

캉화성 경찰국 태권도장 개 · 보수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Improving Taekwondo Training center of Khanh Hoa Police Department, Ministry of Public Security



"KOICA의 지원으로 경찰국 태권도장이 성공적으로 보수되었습니다. 이제 캉화성 경찰국은 베트남 중남부 지역의 경찰들을 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00년 3월 캉화성 경찰국 태권도장 개원식에 참석한 'Nhan' 캉화성 경찰국장의 말이다. 베트남 태권도는 1994년부터 우리나라 사범들의 지도를 받아 동남

아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태권도는 각종 국제 대회에서 베트남이 유일하게 메달을 획득하는 종목이다. 1998년 베트남 정부는 캉화성 내 12개 지역 경찰 2천 명에게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 경찰국 체육관을 태권도 전용 도장으로 개조해 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9년 6만 달러를 들여 총면적 1,200㎡의 태권도장을 건축했다. 태권도장 개원식에서 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태권도 물품을 전달했고, KOICA 봉사 단원의 지도로 경찰국 태권도팀이 시범을 보여 큰 갈채를 받았다. 특히 캉화성 TV는 개원식 실황을 저녁 뉴스에 상세히 보도해 양국 간의 두터운 우호 관계를 널리 알렸다.

사업명 베트남 캉화성 경찰국 태권도장 개 · 보수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9년 | **사업 규모** 6만 달러 | **지원 내역** 태권도장 개 · 보수

20 VIETNAM

베트남에 분당 같은 신도시를

하노이 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Hanoi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분당 등 신도시 개발 경험을 축적한 한국 건설업체들이 하노이 신도시 개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투리엠은 분당을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하반쾌' 하노이 신도시개발청 국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1998년 베트남 정부는 (주)대우 등 외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하노이 신도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는 2020년까지 하노이 부근, 동안Dong Ahn 및 투리엠Tu Liem 지역에 8,830ha 규모로 인구 75만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신구 도심이 공존하는 수도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부수상을 위원장으로 장 · 차관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조 총괄 기관인 '기획투자부MPI'를 통해 신도시 건설의 타당





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9~2001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마스터플랜의 기초 타당성 조사와 1단계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KOICA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 1단계 사업의 4개 주요 성장 거점과 지역별 우선 사업, 개발비용 산정 및 재무적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 경험에서 얻은 성공적 사업 수행 조건과 정부의 역할도 조언했다.

2001년 1월 양측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회가 열렸고, 2월에는 최종 보고서가 하노이 인민위원회에 전달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후속 사업으로 하노이 신도시 주거 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KOICA의 신도시 건설 사업 지원에 힘입어 2006년에는 대우건설과 경남기업 등 5개의 우리나라 기업 컨소시엄이 1조1천억 원 규모의 하노이 따이호따이 신도시 건설 공사를 따냈다. 그리고 포스코 건설은 베트남 기업과 합작으로 2조6천억 원 규모의 북앙카잉 신도시 공사를 수주했다. 외환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베트남에 지원한 1백만 달러의 무상 원조는 결국 몇 배가 되어 우리나라에 돌아온 셈이다.

사업명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9~2001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21 VIETNAM 농민들의 자립 기반을 세우다

농촌 개발 시범 사업

Pilot Project for Rural Saemaul Undong

베트남 빈곤층의 90%는 농촌과 산간 지역에 거주한다. 2001년 당시 베트남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78%에 달했지만 농가 소득은 도시 가구원 소득의 27.3%인 59달러에 그쳐 도농 간 소득 불균형이 심각했다. 이 같은 격차는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가속화시켜 도시 빈민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촉발시켰다. 베트남 정부는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 및 고용 창출과 생활 여건 개선 등 농업과 농촌 개발을 국가 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 개발의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베트남 농업 · 농촌개발부는 고위급 관료들의 KOICA 새마을운동 연수를 계기로 1970년대 우리나라의 농촌 개발 사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KOICA는 2001~2003년까지 30만 달러를 들여 2개 지역Thai Nguyen, Khoi Ky의 7개 마을을 시범 마을로 정하고, 관개 시설 보수와 마을회관 건축, 부엌 등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농가 대상 소규모 융자금을 대출해줘 주민의 소득 증대 활동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제공했다. KOICA는 관개 시설과 도로 개 · 보수를 통해 농업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량 증대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 지도자 육성과 교육을 통해 주민 의식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다.

특히 지난 시절, 농촌 환경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켰던 우리나라의 경험을 베트남 농촌 지역에 성공적으로 접목하고, KOICA 봉사 단원을 파견해 주민들의 농촌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사업명 베트남 농촌 개발 시범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3년 | **사업 규모** 30만 달러 | **지원 내역** 관개 시설 보수, 마을회관 건축, 부엌 등 주거 환경 개선

22 VIETNAM 베트남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

중부 지역 초등학교 건립 사업

Establishment of Primary Schools in the Central Provinces of Viet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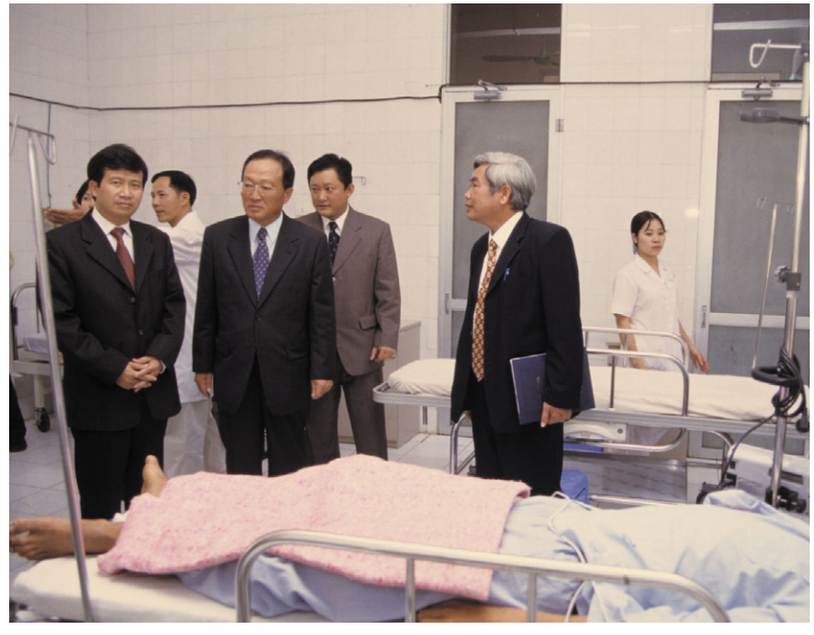


2002년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서는 KOICA가 지원한 10개 초등학교 준공식이 성대히 열렸다. 베트남 중부 지역은 30년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맹호 · 백마 · 청룡부대 등 우리군 주둔 지역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주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곳이다. KOICA는 이 지역에 베트남 발전의 동력이 되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초등학교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1~2002년까지 200만 달러를 들여 중부지방 5개 지역인 꽝남성 · 꽝나이성 · 빈딩성 · 푸엔성 · 캉호아성에 40개의 학교를 건축하고, 책상과 의자 등 교실 집기를 제공했다. 학교당 건축 면적은 426㎡로 6개 교실과 교무실, 전기 펌프 수조가 기본 시설로 갖춰졌다.
애초 3년으로 계획된 이 사업은 기간을 1년 앞당겨 2년 만에 마무리됐다. 베트남 정부는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무리 없이 사업을 완료해준 KOICA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사업의 취지를 동감한 포스리라마 · 창신 · 현대비나조선 · 삼양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학교에 미끄럼틀 등을 기증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베트남 중부지역 초등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집기 제공

23 VIETNAM 지역 병원을 성급 병원으로 격상시키다

빈엔병원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Upgrading Vinh Yen Hospital



베트남 북부 빈푹Vin Phuc성은 1인당 소득이 다른 지역의 3분의 2에 불과한 곳으로 성(省)급 병원조차 없었다. 2001년 베트남 정부는 빈푹성에 있는 빈엔병원을 지역 병원district hospital에서 성급 병원provincial hospital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했다. 하지만 재정 부족으로 의료 장비의 보강이 어려워지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1~2002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빈엔병원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2001년 당시까지 KOICA의 베트남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은 주로 100개 병상 규모의 지역 병원을 신축하고 개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빈엔병원 사업은 건물 신축을 베트남 정부가 담당하고, KOICA는 의료 기자재 지원과 병원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시키는, 비교적 소규모 예산을 들여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둔 원조 사업으로, KOICA는 빈곤 지역 주민들에게 개선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명 베트남 빈엔병원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24 VIETNAM 전에는 침대 하나를 두 사람이 썼죠

빈록병원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upgrading Vinh Loc District Hospital, Than Hoa Province

베트남 의료 체계는 중앙 정부 · 성 정부 · 현 · 코뮌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외형적으로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를 제외한 지방은 의료 시설과 장비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특히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탱화성의 빈록병원은 성내 27개 병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빈록병원은 1백 개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여름철 전염병 환자가 급증할 때는 하나의 병상을 두 명의 환자가 함께 사용해야 할 만큼 형편없다. 베트남 정부는 빈록병원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1~2002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1,717㎡ 규모의 외래 병동을 신축하고, X-ray 장비 · 마취기 · 소독기 등 의료 기자재 47종을 제공했다. 아울러 병원 관리자 6명을 국내로 초청해 병원 운영과 행정 기술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빈록병원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KOICA는 빈록병원을 포함해 1995~2001년까지 베트남의 전국 7개 병원에 350만 달러 상당의 무상 원조를 실시했으며, 베트남 국민의 기초 보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명 베트남 빈록병원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외래 병동 신축,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25 VIETNAM

하노이에도 증권거래소 설립 추진

증권거래소 3차 지원 사업

3rd phase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ock Exchange

베트남은 1986년 '도이 모이' 정책을 채택한 이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3년 이후 추진 중인 국영 기업의 주식화 작업은 경제 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베트남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KOICA가 1996~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120만 달러를 투입해 실시한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 사업은, 2000년 7월 베트남 정부가 호치민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면서 베트남 국가 경제 발전사에 획을 긋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2001년 베트남 정부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호치민 증권거래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 자문을 받고, 하노이 증권거래소의 추가 설립을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1~2002년까지 40만 달러를 들여 '한국증권거래소KSE' 와 함께 베트남 증권거래소 3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한국형 모델을 채택한 베트남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장비를 제공했다. KOICA는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전산 시스템 등을 수출하고, 증권시장과 투신업계에 진출하는 데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사업명 베트남 증권거래소 3차 설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40만 달러 | **지원 내역** 국내 초청 연수, 기자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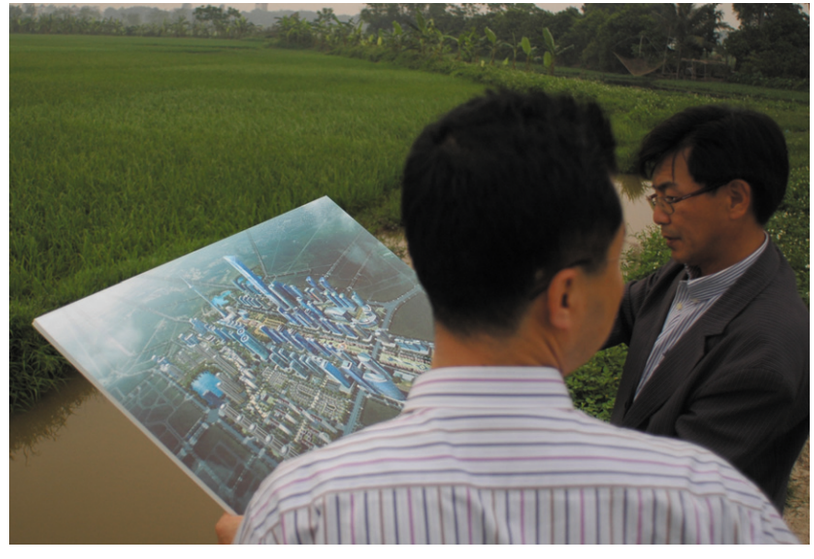
26 VIETNAM 하노이 신도시는 한국 기업이 건설

하노이 신도시 주거 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A Feasibility Study on Housing Development Project in Hanoi New Town

2000년 8월 베트남 정부는 KOICA가 1999년부터 지원한 하노이 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을 잇는 후속 사업으로 신도시 내 주거 단지 개발의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당시 베트남은 경제 성장에 따른 급속한 도시 집중화 탓에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대규모 주택 건설 경험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KOICA는 하노이 지역의 주거 개선과 주택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주택 및 건설 부문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1~2002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우선 측량과 토질 조사를 비롯하여 환경 영향 평가 등 기초 조사부터 시작해 주거 단지 개발 계획과 기본 설계, 자금 조달과 분양 계획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10명 규모의 베트남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일부 사무기기도 제공했다. 2003년 1월 KOICA는 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최종 보고서를 베트남 신도시개발청에 전달했다.

KOICA의 하노이 신도시 개발 및 주거 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2006년 대우건설과 경남기업 등 5개의 우리나라 기업 컨소시엄이 1조1천억 원 규모의 하노이 따이호따이 신도시 건설 공사를 수주했고, 포스코 건설은 베트남 기업과 합작해 2조6천억 원 규모의 북앙카잉 신도시 공사를 수주했다. 하노이 신도시 건설 현장에는 각각 2012년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국형 신도시'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사업명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주거 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타당성 조사), 국내 초청 연수, 기자재 지원



27 VIETNAM

월남전 최대 격전지에 병원을 세우다

중부 지역 병원 건립 사업

The 1st Phase of The Establishment of hospitals in the central province



베트남 정부는 산업 발전과 더불어 보건 분야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부 지역은 월남전 최대 격전지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지만 경제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빈곤층이 많은 데다 지방 정부의 재정도 빈약해 보건 위생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베트남 정부는 중부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개 지역 병원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2~2003년까지 190만 달러를 투입해 한 · 베 친선 꽝남성 어린이 병원(3,300㎡), 한 · 베 친선 손틴병원(2,630㎡), 한 · 베 친선 푸풍병원(4,000㎡)에 병동을 건립하고 의료 기자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 분야와 재활의학 분야 2명의 연수생을 6개월간 국내로 초청해 의료 기술을 교육했다. 꽝남성 인민위원장은 손틴 지역 병원 준공식에서 우리나라에 사의를 표하고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록 푸엔성 인민위원장은, "완공된 푸엔성 지역 병원은 성내에서 최신 의료 시설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KOICA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말했다. KOICA는 중부지역 3개 병원 지원 사업으로 베트남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교통사고 환자는 물론 고엽제 후유증이나 각종 전염성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반한 감정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었다.

사업명 베트남 중부 지역 병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3년 | **사업 규모** 19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립, 의료 기자재 제공, 국내 초청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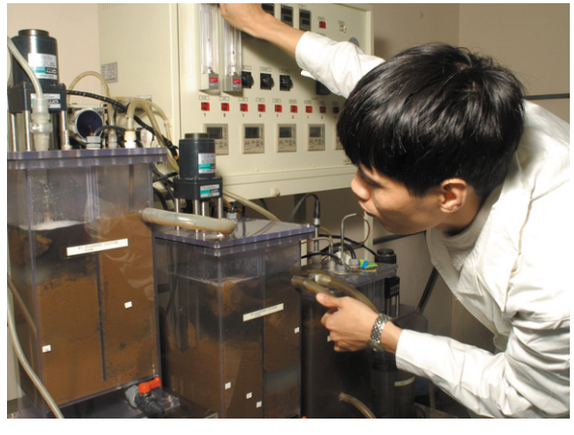
28
VIETNAM

이제는 지속 가능한 국가 개발을!

산업 오염 방지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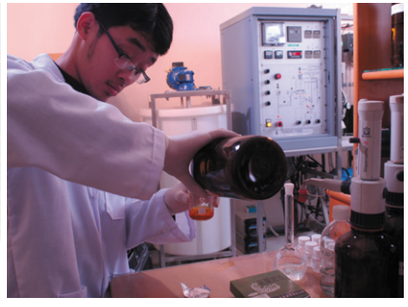
Strengthening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Capacity in Some Key Industries

2003년 베트남은 개혁 정책에 박차를 가한 지 10여 년에 이르자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섬유 염색 · 고무 · 피혁 · 수산업의 성장, 그리고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하천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켰다. 세계은행은 당시 추세가 유지된다면 수질 오염 증가율이 매년 14.2%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4년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2001년에는 '국가환경전략 2001~2010'을 수립하며 환경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산업 시설의 90%는 여전히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조짐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환경보호정책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난관은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산업 오염 방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3~2005년까지 60만 달러를 들여 베트남 '환경기술연구소IET' 의 오염 분석과 처리 능력 강화 및 폐수 처리 모형 실험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행해 나갔다. 또한 환경관리공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기술 자문과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3명의 베트남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폐수 처리 및 수질 분석 장비 24종을 제공했다. 그 결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처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KOICA는 이제 '산업화를 통한 경제 개발'이란 전통적 개발 원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속 가능한 국가 개발'을 위한 환경 분야 원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KOICA의 사업에 만족한 베트남 정부는 2007년 산업 폐수 처리 역량 강화 사업을 후속 사업으로 요청해 왔다. KOICA는 이를 통해 환경 산업 관련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사업명 베트남 산업 오염 방지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5년 | **사업 규모** 6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시범 사업

29 VIETNAM

법 제도 정비로 원조의 지평을 넓히다

정보통신 입법 지원 사업

The ICT Legislation Project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아세안ASEAN 정상 회의는 아세안 내 후발 4개국(CLMV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 베트남)의 개발 격차 완화와 지역 통합 가속화를 위한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IAI :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를 채택했다. 베트남 정부는 2002년 7월 ASEAN+3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한 · 중 · 일 3국에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총 500만 달러의 'IAI' 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2003년 'IAI' 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법 체계 정비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당시 베트남의 정보통신 산업은 1995~2000년까지 연평균 45%의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관련 법규는 마스터플랜이나 정책의 일관성 없이 산발적으로 제정되고 있었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86만 달러를 들여 베트남의 기존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정보통신 산업 · 전자 상거래 · 정보 보호 등 관련 분야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해 IT 전문 변호사들을 투입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문가들이 입법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 자문을 위해 6명의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하고, 베트남 관련자 18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현지 사정과 법률 제정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8차례에 걸친 초안 검토와 심의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베트남 정부는 KOICA에 의해 완성된 정보통신 발전 촉진 법안을 2006년 6월 의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 책임자인 'Lai' 우정통신부 차관은, 'KOICA가 제공한 입법안은 세계적 추세와 베트남 현지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훌륭한 법안'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법안을 기반으로 베트남 우정통신부는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로 개편되었고 통신법과 주파수법 등 IT 관련 후속법의 제정과 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KOICA는 기존의 물자와 건축 중심의 유형적 원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개도국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법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의 컨설팅 사업으로 원조의 지평을 넓혔다. 이 같은 원조는 그 파급 효과와 지속성이 단순한 물자나 건축 지원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또한 일단 제정된 법 제도는 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험과 입장을 반영해 구축한 법 제도가 향후 해당 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명 베트남 정보통신 입법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86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30 VIETNAM

한국의 마약 수사 기법을 배워볼까?

마약 퇴치 행정 현대화 사업

Strengthening the Capacity for National Drugs Control Coordinating Institution

베트남의 개혁 · 개방 정책은 연평균 7%대의 고도성장을 선물했지만 마약이란 불청객도 불러왔다. 베트남은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 지역과 가까운 데다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선과 해안선에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으로 대량의 마약류 반입에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경제 개방으로 인근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마약류의 유입은 점점 더 증가했고, 2004년에는 공식적인 마약 중독자 숫자만 15만을 넘어섰다. 그중 80%는 30대 이하 젊은이들로 파악





됐다.

베트남 정부는 마약을 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1997년 '마약통제상임기구SODC'를 신설했다. 'SODC' 는 2001~2010년까지 '마약퇴치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마약 통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53만4천 달러를 들여 마약 퇴치 행정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SODC' 의 내부 전산망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마약 테스트용 시약과 장비 등을 제공했다. 또한 베트남 공안부 마약 수사 요원 20명을 국내로 초청해 경찰청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전문가 8명을 현지에 파견해 수사 기법을 전수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자문 활동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에 의해 '마약 통제 성공 국가' 로 평가될 만큼 마약 통제 부문에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

이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마약 통제 역량에 IT 부문을 결합시켜 원조 성과를 높인 사례다.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원거리 지역의 정보 수집과 공유는 베트남의 마약 수사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업의 성과는 베트남의 후속 사업 요청에 따라 2차 지원 사업(2009~2011년/239만 달러)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명 베트남 마약 퇴치 행정 현대화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53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31 VIETNAM KOICA 정보통신 사업 중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한 · 베 친선 IT 대학 설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 Vietnam Friendship Information Technology College



2007년 12월 KOICA의 지원으로 베트남 중부 중심 도시 다낭에 한 · 베 친선 IT 대학이 설립되었다. KOICA와 베트남 정부가 4년 동안 추진해온 한 · 베 친선 IT 대학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인재 양성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다. KOICA와 베트남 정부는 2003년 9월 양국의 합의를 토대로 2004~2007년까지 각각 1천만 달러, 총 2천만 달러를 투입해 고등기술 교육대학을 설립한 것이다.

KOICA는 현대적 시설의 캠퍼스를 설계하고 본관과 강의동, 도서관을 건축했다. 이와 함께 392만 달러 상당의 IT 기자재를 제공하는 등 IT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11개 학과 59권에 달하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7개 분야 37명의 전

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베트남의 4개 과정 관련자 43명을 국내로 초청해 대학 운영과 IT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KOICA 설립 후 각국에 지원한 정보통신 분야의 무상 원조 사업 중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아울러 양국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베트남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설립된 한 · 베 IT 대학은 매년 7백여 명의 정보통신 인력을 공급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어, 낙후된 중부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 · 베 공식 수교 20주년을 앞둔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우호 협력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명 베트남 한 · 베 친선 IT 대학 설립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7년 | **사업 규모** 1천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지원,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32 VIETNAM 하루에만 8백 명의 환자가 찾아와요

한 · 베 친선병원 3차 지원 사업

The 3rd Phase of The Project for Upgrading the Korea-Vietnam Friendship Clinic in Hanoi



"제가 하노이 시 보건국장으로 재임할 당시부터 시작된 KOICA의 지속적인 지원이 마침내 훌륭한 병원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양측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 베 친선병원 개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Chieu' 베트남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다른 감회를 토로했다. KOICA는 1차 코리아 클리닉 지원 사업(1995~1996년)과 2차 한 · 베 친선병원 지원 사업(1998~2000년)을 통해 하노이 시내에 있는 'St. Paul' 병원 산하에 '코리아 클리닉'을 설치하고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해 왔다. 베트남 정부는 3차 지원 역시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130만 달러를 투입해 총면적 2,093㎡ 규모의 4층 외래 병동을 신축하고, 내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의료 기자재 47종을 제공했다. 또한 병원 관리와 응급 의료 분야 전문가 2명을 현지에 파견하고, 베트남 인력 5명을 국내로 초청해 병원 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로써 한 · 베 친선병원은 양국 보건 분야 협력의 상징물이 되었다. 베트남은 기존의 '코리아 클리닉'을 새로운 '한 · 베 친선병원Korea-Vietnam Friendship Clinic'과 통합해 하노이 주민과 외국인을 위한 의료 시설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2008년 1월 당시 하루 8백여 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명 한 · 베 친선병원 3차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13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33 VIETNAM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간선 수송망

나짱~호치민 간 철도 복선화 사업 타당성 조사

The Feasibility Study for Building and Electrifying the new 1,435mm gauge Double Track from Ho Chi Minh to Na Trang on the North-South Trunk Line

철도는 산업 발전의 동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다. 베트남과 같은 초기 산업화 단계의 국가에서는 인력과 물자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철도의 수요가 급증하기 마련이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을 향한 베트남 국가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면서 남북 간선철도 중 나짱~호치민 구간의 선로 용량이 단기간 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베트남 철도청은 증가하는 철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간선철도의 표준 궤간을 복선화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90만 달러를 들여 철도 교통 계획과 철도 공학, 교통 수요 예측 등 11개 분야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베트남 철도 공무원 6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일부 사무 기자재를 제공했다. 2007년 3월 양측 관계자 1백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노이에서 최종 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KOICA는 보고회에서 시속 350㎞의 운행이 가능한 366㎞의 새로운 노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베트남의 'Hong' 철도청장과 'Doanh' 부청장은 사업의 성과에 대해 KOICA에 사의를 표하며, 하노이~빙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후속 사업으로 요청해 왔다. KOICA는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간선 수송망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베트남 나짱~호치민 간 철도 복선화 사업 타당성 조사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9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34 VIETNAM 3천5백만 달러에 달하는 KOICA 최대의 무상 원조 사업

중부 지역 종합병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General Hospital in Quang Nam Province



베트남 중부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베트남 정부는 중부 지역을 주요 개발 예정 지역으로 정하고,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2001~2010년)' 목표인 산업화와 현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과제로 '중부 지역 개발과 빈곤 해소'를 제시했다.

KOICA 역시 그동안 중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건 의료 시설 확충 등 지원을 계속해 왔다. 2004년 10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한 · 베 양국 정상은 진일보한 협력 사업



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06년 1월 KOICA 총재는 베트남을 방문하고, 중부 지역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그 후 KOICA는 사업 형성 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꽝남성 출라이 '개방경제구역OEZ' 으로 결정했다. 이 사업에는 2007~2010년까지 3천5백만 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이는 그간 KOICA가 실시해 온 무상 원조 사업 중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KOICA는 건축 총면적 33,000㎡, 대지 면적 20ha에 달하는 5백 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물을 건축하고, 임상 진료과 21개, 지원 진료과 10개, 행정 관리 8개 부서에 대한 의료 기자재와 사무 기자재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보건 의료 환경의 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의료 기술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부지 제공과 함께 주변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이와 별도로 700만 달러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KOICA에 의한 종합병원 건립으로 다낭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앞으로 상당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개발경제구역의 의료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꽝남성 중부 이남 5개 성을 진료권으로 포괄하고, 환자 의뢰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내 1, 2차 의료 기관을 지원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1991년 이래 KOICA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11건의 중소 규모 병원들, 그중에서 특히 중부 지역 병원 지원 사업(2002~2004년/3백만 달러)으로 설립한 3개 병원과의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업명 베트남 중부 지역 종합병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10년 | **사업 규모** 3천5백만 달러 | **지원 내역** 종합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및 국내 초청 연수

35 VIETNAM

남북 철도 라인의 복선화를 꿈꾼다

하노이~빙 철도 전철화 및 복선화 타당성 조사 사업

The Feasibility Study for Building and Electrifying the new 1,435mm gauge Double Track from Hanoi to Vihn on the North-South Trunk Line

KOICA는 2005년 나짱~호치민 구간의 철도 복선화 타당성 조사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만족한 베트남 정부는 남북 간선철도 구간 중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베트남 북부 하노이~빙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후속 사업으로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120만 달러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철도 공학 · 구조 설계 · 교통 수요 예측 등 11개 분야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 기존 선로의 궤간 표준화 사업을 비롯하여 해당 구간의 철도 전철화 및 복선화 사업에 관한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분석해 나갔다. 또한 베트남 철도청의 고위급 공무원 10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면서 철도 분야 협력에 대한 지평을 넓혀 나갔다.

2008년 5월 하노이에서 베트남 철도청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타당성 조사 발표회가 열렸다. KOICA는 선형과 노반 조건, 시스템과 차량에 따른 다양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베트남 관계자들은 다양한 질의를 통해 논의를 심화시켰다. 홍Hong 베트남 철도청장은 폐회사를 통해 '사업의 성과가 남북 철도 라인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KOICA는 1단계 구간인 호치민~나짱 구간과 2단계 구간인 하노이~빙 구간에 대한 전철화 및 복선화 조사 사업을 마무리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하노이~호치민을 잇는 남북 철도 전 구간에 대해 자체적으로 복선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실제 철도 전철화나 복선화 공사를 시작

한다면 막대한 건설비 부담으로 인해 KOICA가 조사를 실시한 2개 구간에 대해 먼저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은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간 광역철도망 구성 계획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OICA는 베트남 철도 분야에서 꾸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대규모 철도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 있다.

사업명 베트남 하노이~빙 철도 전철화 및 복선화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12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기자재 지원

36 VIETNAM

전국의 도서관, 학교를 네트워크로 연결

호치민 정치 아카데미 도서관 정보화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an e-Library at Ho Chi Minh National Political Academy











베트남의 '호치민 정치 아카데미Ho Chi Minh National Political Academy' 는 당 간부와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베트남 사회의 리더를 양성하는 곳이다. 베트남 정부는 정치 아카데미의 전국 5개 지사와 64개 성에 있는 학교, 도서관을 연결하는 전자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143만 달러를 투입해 베트남 전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도서관 자동화와 정보통합 관리가 가능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IT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기자재와 시스템 설치,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16명의 전산 관리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유지 보수 업체를 선정해 사업이 끝난 후에도 2년간 정기적인 방문 관리를 실시하고, 국내 개발 업체의 지속적인 연락과 온라인 지원으로 베트남 측의 사후 관리 요청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KOICA는 베트남의 도서 관리 체계를 선진화시키고 문헌과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온라인 환경에서 도서 열람과 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도서관 시스템 발전의 토대가 되어 앞으로 베트남 정부가 자체적으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베트남 호치민 정치 아카데미 도서관 정보화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143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시스템 구축,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37 VIETNAM 베트남에서 가장 모범적인 직업훈련학교

한 · 베 산업기술학교 증축 및 역량 강화 사업

The Project for the Upgrading of the 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School

베트남 정부는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원조 공여국에게 선진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KOICA는 지난 1997~2001년까지 500만 달러를 투입해 응에안성 빙시에 한 · 베 산업기술학교 설립을 지원한 바 있다. 다른 공여국들조차 우수 협력 사업 모델이라고 인정한 이 학교는 2006년 3년제 직업훈련 전문대학Vocational Training College으로 승격되었다.






KOICA




TA
ĐIỆN TỬ

KOICA는 전문대학 승격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이 학교를 지역 거점이 되는 직업훈련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7~2008년까지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KOICA는 230만 달러를 투입해 3,400㎡ 규모의 실습동 건물을 신축하고, 냉동 · 자동차 등 7개 공과의 교육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공과별 교사 10명을 3개월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전문가 3명을 현지에 파견해 교과와 학교 운영 기술을 전수했다.

2008년 12월 학교 건립 10주년을 맞아 실습동 건물이 준공되고,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한 · 베 산업기술학교는 현재까지 8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각종 기술대회에 교사와 학생들을 참가시켜 수차례 수상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KOICA는 한 · 베 산업기술학교를 베트남 최고의 직업훈련 대학으로 성장시킬 계획으로, 앞으로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화 전략과 지역 간 균형 성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술 인력의 양성을 통해 주민들의 빈곤 완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청소년 취업 기회 제공 등 고용 안정과 사회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베트남 한 · 베 산업기술학교 증축 및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230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원 실습동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38 VIETNAM

2010년, 국민 85%에게 깨끗한 물을!

끼엔장성 우밍 및 빙빙남 지역 식수 개발 사업

Water Supply and Sanitation Kien Giang Province





베트남 정부는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2000년부터 'National Rural Clea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trategy up to Year 2020'을 추진 중이다. 이는 2010년까지 국민의 85%, 2020년까지는 모든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 최남단 서부 해안에 있는 끼엔장성은 1백68만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 여건이 좋지 못하다. 지리적 · 기후적 요인으로 안전한 식수를 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각종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끼엔장성 식수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끼엔장성에서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우밍 신도시 지역과 빙





빙남 지역에서 식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KOICA는 2007~2010년까지 240만 달러를 투입해 신도시 지역 개발과 연계해 수자원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우밍 지역 2만여 주민과 빙빙남 지역 4천5백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수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관정 · 우물보호시설 · 정수처리시설 · 관수로 등으로 이루어진 식수 공급 시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 실시 설계 및 기술 자문과 감리를 담당하고, 베트남 공무원 및 기술자 11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자재 제공도 병행된다. 메콩 강이라는 거대한 수자원을 인근에 두고도 안전한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끼엔장성 주민들에게 식수 개발 지원 사업은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10년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한 식수 공급이 항구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베트남 끼엔장성 우밍 및 빙빙남 지역 식수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7~2010년 | **사업 규모** 240만 달러 | **지원 내역** 식수 공급 시스템 설계 및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39 VIETNAM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 가능성도 높이고

하이퐁시 신도시 개발 세부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Establishment of the Detailed Master Plan of Hai Phong New Town Development

베트남 최대의 항구 도시 하이퐁은 수도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122km 떨어진 경제적 · 지리적 요충지다. 베트남 정부는 하이퐁의 도시 권역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신행정 타운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03년 '2020 하이퐁시 개발 계획'이라는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으나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했다. 베트남 정부는 1999~2001년까지 하노이 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KOICA에 하이퐁시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10년까지 370만 달러를 투입해 신도시 예정지인 껌 강Gum River 북부 주요 지역1,200ha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개발할 행정 중심 지역250ha에 대한 상세 도시 설계 작업을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단계별 개발 및 재원 조달과 주택 마케팅 전략 등의 상세 계획을 마련하고, 도시 계획과 설계 및 도로와 교통 등 12개 분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과 기술자 26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KOICA는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노하우와 선진 기술을 베트남에 전수해 국토의 균형적 개발에 기여하고, 하노이 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 가능성도 높이게 될 것이다.

사업명 베트남 하이퐁시 신도시 개발 세부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10년 | **사업 규모** 370만 달러 | **지원 내역** 마스터플랜 수립,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40 VIETNAM

정부의 부정부패 문제를 개선

전자 조달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an e-Procurement Pilot System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03년 전자 조달 도입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단계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 조달 시스템인 'KONEPS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을 벤치마킹하는 등 전자 조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OICA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으로 2007~2009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전자 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자 조달 관련 법적 기반 및 정보기술 인프라, 시스템 보안을 비롯한 전자정부 내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 연동성 그리고 전자 조달 시행 지침과 전자 조달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KOICA는 '베트남전력공사EVN' '베트남통신공사VNPT' 그리고 하노이시에서 운영될 전자 조달 시스템e-bidding system 을 파일럿 시스템으로 구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베트남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검증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 전자 조달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베트남 정부가 직면한 부정부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다. 또한 공고 · 입찰 · 개찰 등 온라인 업무 처리를 통해 거래 비용이 절감되어 정부 조달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 조달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4조5천억 원의 거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업명 베트남 전자 조달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시스템 개발,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41 VIETNAM

베트남 실정에 맞는 환경 교육을

환경 교육 센터 설립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Vietnam Environmental Training Center



급속한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한 베트남은 지난 2000년 '국가환경보호전략 2001~2020'과 '환경 관리를 위한 기관과 개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베트남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 베트남의 환경 교육은 대부분 형식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선진국이나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비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은 베트남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어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는 환경 분야 1만5천 명의 공무원에게 환경 정책을 비롯하여 환경 기술 등 환경 보호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교육 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10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환경 교육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 시내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KOICA는 센터 운영을 위한 기자재 제공 및 전문가 파견과 베트남 공무원의 국내 초청 연수를 통해 환경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기술 자문을 할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의 환경 정책은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이미 발생한 환경 문제를 복구하고 처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제 베트남은 환경 문제의 발생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환경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KOICA는 우리나라의 경험을 베트남 실정에 맞게 재구축하고, 최적의 환경 교육 센터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로 인해 KOICA가 지원하는 환경 교육 센터는 베트남 대학이나 지방 조직, 민간에 환경 센터가 설립될 때 표준 모델이 될 것이다. 앞으로 베트남의 환경 인프라가 확대된다면 환경 교육 훈련을 비롯하여 환경 측정 분석, 환경 관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명 베트남 환경 교육 센터 설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10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42 VIETNAM 산업화 초기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

산업 폐수 처리 역량 강화 사업

Strengthen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apacity for Some Key Industries in Vietnam-Phase 2

KOICA는 지난 2003~2005년까지 60만 달러를 지원해 베트남의 폐수 오염 분석과 처리 능력 강화 및 폐수 처리 모형 실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과를 크게 확대하기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 후속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90만 달러를 들여 베트남 산업 폐수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했다. 베트남 '환경기술연구소IET' 에 수질 분석 및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기자재를 제공하고, 폐수 처리 공법 개발을 위해 2명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15명의 베트남 인력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1차 사업에서는 주로 염색 폐수, 고무 및 수산물 가공 폐수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매립장 침출수 내의 오염 물질(POPs :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과 양식장 폐수가 대상이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우리나라가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악화와 엄청난 경제 · 사회적 손실을 경험한 바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환경 정책과 제도 개발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KOICA는 환경오염 방지 기술을 적절한 시기에 베트남에 전수함으로써 산업화 초기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앞으로 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했다.

사업명 베트남 산업 폐수 처리 역량 강화 사업(2단계)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9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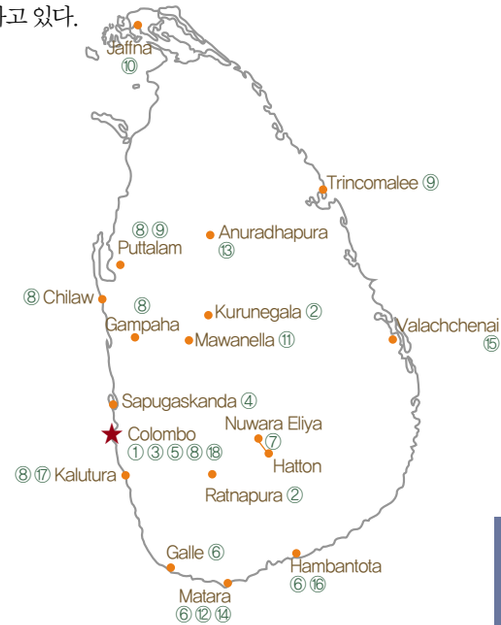


SRI LANKA

스리랑카라는 국명은 '싱할라어'로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이다. 고대 문명이 화려하게 꽃피었던 아름다운 섬나라가 바로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다. 글 · 박금옥

스리랑카는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섬' '아시아의 진주'라 불릴 만큼 풍광이 수려하고, 고대 문명의 발자취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섬나라다. 그러나 2004년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은 3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9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피해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해도 스리랑카 국내 총생산GDP의 4.5%에 달하며 이로 인해 2005년 'GDP' 성장률은 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보건 지수는 서남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무상 교육 정책 덕분으로 초등학교 입학률은 선진국에 근접해 있으며, 신생아 사망률은 1천 명당 13명 정도다. 세계은행에서는 스리랑카를 보건, 영양, 가족계획 부분의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스리랑카는 지난 2005년 11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힌다 라자파크세Mahinda Rajapakse가 선언한 'Vision for a New Sri Lanka'에 근거해 경제 성장과 개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빈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명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정체** 의원 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기후** 고온 다습한 열대 몬순 기후 **인구** 약 2천1백20만 명 **면적** 65,610㎢(한반도의 약 1/3) **1인당 국민소득** 1천3백 달러(2006년 기준) **수도** 정치 수도 :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SriJaya wardenepurakotte) 행정 수도 : 콜롬보(Colombo) **민족** 신할리족 73.8%, 타밀족 8.5%, 무어족 7.2% 등 **문자 해독률** 90.7%(2001년 기준) **종교** 불교(69.1%), 이슬람(7.6%), 힌두교(7.1%), 가톨릭(6.2%) 등 **공용어** 신할리어, 타밀어, 영어



| 스리랑카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1990년 26.1%에서 2002년 22.7%로 감소 ● 2015년 목표는 13.1% 수준이나, 동북부 지역의 빈곤 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 산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빈곤지수(1일 1달러 이하 소득 인구를 기준) 적용이 불가능하여 국가 빈곤선이라는 별도의 측정 도구 적용 중 ● **5세 이하 영 · 유아 중 저체중아 비율** 1993년 38%에서 2000년 29%로 감소, 2015년까지 19% 목표 달성 예상 ● **최소 음식물 섭취 이하 인구 비율** 동북부 지역에서의 빈곤 심화와 영양실조 인구 증가로 오히려 상승(50.9% → 51.3%)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1995년 95.7%에서 2002년 96.3%로 증가, 목표 100% 달성 전망 ● 현재는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 정책을 수립, 진행 중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기초 교육** 남녀 학생 비율은 93.1%에서 95.3%로 증가 ● **중등 교육** 여학생 비율은 104% ● **고등 교육** 남녀 학생 비율은 66.2%에서 89.8%로 증가 ● **여성 문자 해독률** 양성 간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이미 성공 ● 현재 경제 활동에서의 여성 권한 확대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역량 강화가 주요 과제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사망률** 1991년 신생아 1천 명 중 22.2명 사망에서 1999년 약 18.8명으로 감소, 2015년 목표 달성 예상(1천 명 중 12명) ● **신생아 사망률** 1990년 1천 명당 19.3명에서 2000년 12.2명으로 감소하여 목표에 이미 달성
모성 보건 증진	● **산모 사망률** 1990년 1천 명당 0.92명에서 2001년 0.47명으로 감소, 2015년 목표인 0.36명 달성 예상 ● **숙련된 의료 인력의 도움 아래 출산하는 비율** 2015년까지 99%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 2001년 97%에 도달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성인 중 HIV발병률** 2003년까지 공식적으로 0.1% 미만 ● **말라리아 발생 건수** 10만 명당 1994년 1천5백20명에서 2001년 3백50명으로 급격히 감소 ● 말라리아 외 결핵 및 뎅기열 발병률을 낮추는 데도 노력 중

01 SRI LANKA 현지어로 더빙한 한국어 자료도 만들어

개방대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Establishment of Korean Language Laboratory of the Open University of Sri Lanka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다. 한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 종종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KOICA는 1992년 8만 달러를 들여 개방대학교 Open University에 어학 기자재를 제공하고, 1993년에는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했다. 수도 콜롬보에서 30분 떨어진 개방대학교에서는 정규 대학에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해 공부를 한다.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한국어 과목에 쓰이는 교재가 부실해 학습 효과가 크지 않았다.

1993년 KOICA의 지원으로 6만 달러를 투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강좌가 개발되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비디오 · 오디오 자료를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지 강사와 KOICA 봉사 단원이 힘을 합쳐 현지어인 '싱할라어'로 더빙한 오디오 자료를 수업에 활용했는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어학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특히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KOICA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봉사 단원을 파견해 장비를 관리하고 강좌를 개선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방대학교는 스리랑카 한국어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

사업명 스리랑카 개방대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2~1993년 | **사업 규모** 14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공여(교재, 어학 실습 장비), 전문가 파견

02 SRI LANKA

빈민층 아이들에게 어린이 침구 세트 등 제공

아동복지원 지원 사업

Establishment of two State Receiving homes in the Sabaragamuwa and the North Western Provinces

스리랑카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동북부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인 타밀족과 다수의 싱할라족 간의 인종 분규가 내전과 테러로 이어져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경제 사회 개발이 지체되었다. 1992년 스리랑카 북서부 주 동부 지역과 사바라가무와Sabaragamuwa 주는 빈민층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다. KOICA는 1993년 13만 달러를 들여 쿠루네갈라Kurunegala 시와 라트나푸라Ratnapura 시의 어린이 보호 시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어린이 침구 세트 · 미니버스 · 교육용 기자재 · 운동 기구와 주방용품 등을 제공했다. 또한 사후 관리를 통해 KOICA가 제공한 물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고, 물품이 전용되지 않고 어린이 보호 시설에만 사용되도록 했다. KOICA는 불우한 아이들의 보건 위생과 교육 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했고, 소규모 비용으로 실질적인 아동 복지에 기여할 수 있었다.

사업명 스리랑카 아동복지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3년 | **사업 규모** 13만 달러 | **지원 내역** 침대 등 기자재 공여



03 SRI LANKA 수력 발전에만 의지할 수 없다

열병합 발전소 건립 타당성 조사

The Feasibility Study on Co-Generation Possibility

스리랑카는 목재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력 발전을 늘리고 있다. 전체 길이가 335km에 달하는 마하웰리 강은 스리랑카 제일의 하천이다. 1979년 이후 스리랑카 정부는 마하웰리 강을 개발해 전력 공급을 증대시키려는 '마하웰리 개발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스리랑카 전체 발전량의 90% 이상을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수력 발전은 가뭄 등 기후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고, 에너지 공급 구조를 다각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스리랑카 정부는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이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3~1995년까지 60만 달러를 들여 지역 환경과 에너지 수요 조사를 비롯하여 건설 계획 및 개념 설계 등의 시공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사업 예정지인 수도 콜롬보를 중심으로 2개 수출 산업 공단과 3개 방직공장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열수요 예측과 경제성 분석, 발전소 건설 예상 기간, 수익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푸고다Pugoda 방직공장의 운동장과 'KEP' 및 공항 지역의 쓰레기 야적장, 방직공장 등 세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KOICA는 열병합 발전소의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발전소 건설의 경제적 ·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해, 전반적인 스리랑카 에너지 활용 체계를 검토했다.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KOICA의 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민자를 유치하고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명 열병합 발전소 건립 타당성 조사 | **사업 기간** 1993~1995년 | **사업 규모** 60만 달러 | **지원 내역** 에너지 수요 조사 분석, 건설 및 시공 계획 수립, 환경 영향 평가 및 경제성 검토

04 SRI LANKA 대학 안 가도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좋아요

한 · 스리랑카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Sri Lanka · Korea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Project in Sapugaskanda



1990년 중반 스리랑카 대학의 정원은 7천여 명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2% 정도만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진학 청소년이 양산되면서 스리랑카 정부는 직업훈련원을 설립해 이들의 실업난을 해결하고, 우수한 기술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으로 훈련원 운영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4~1996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한 · 스리랑카 직업훈련원을 지원하기






로 결정했다. 직업훈련원 소재지는 콜롬보에서 북동쪽으로 15Km 떨어진 사프가스칸다Sapugaskanda 지역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15개 업체를 포함해 40여 업체가 입주한 공단 지역으로 숙련 노동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이다. 이 같은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KOICA는 직업훈련원에 전자 · 컴퓨터 · 용접 · 기계 · 목공 · 봉제 · 전기 공과를 설립하고 각종 장비를 제공했다. 동시에 교과과정에 관해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해 교과 내용을 한층 개선하고, 직업훈련원 관리자와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 '서울국제직업훈련원' '정수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KOICA의 지원 사업으로 한 · 스리랑카 직업훈련원은 높은 인지도를 갖게 되었으며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한 · 스리랑카 직업훈련원은 기술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병행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사업명 한 · 스리랑카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4~1996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5 SRI LANKA

한국 기업의 지원으로 실습도 가능해져

개방대 자동차 실습실 지원 사업

Establishment of Automobile Laboratory of the Open University of Sri Lanka

1995년 스리랑카 개방대에서는 자동차 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실습실 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이론 교육에만 치중하는 형편이었다. 당시 스리랑카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자동차 관련 교육 기관은 턱없이 부족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개방대 자동차 과정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8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개방대의 자동차 실습실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1997년 실습실을 완공하고 기자재를 제공했으며, 훈련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받게 하는 한편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자문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 것도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실습실 건립은 경남기업, 차량 실습용 중고 차량 등 기자재 설치와 제공은 만도통상과 극동기전, 훈련 교사의 국내 연수는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 그리고 만도통상이 담당했다.




개방대 자동차 실습실 개원식에서 스리랑카 쿠마라퉁가Kumaratunga 대통령은, "1996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요청한 사업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개방대 학생들이 최고의 실습실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스리랑카 일간지 〈Daily News〉는 개방대 자동차 실습실에 관한 특집 기사를 내고, 대통령과 주 스리랑카 대사를 비롯하여 교육부 장관 등의 축하 메시지를 게재했다.

사업명 개방대 자동차 실습실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설 건축, 기자재 공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06
SRI LANKA

일본 장비보다 한국 장비가 더 좋아요!

남부 지역 원양 어선 항법 장치 설치 사업
Installation of Navigation Equipment on Multiday Fishing Vessels in The Southern Province

"장비 설치 후에는 엔진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인접 지역에 빠르게 연락할 수 있어 큰 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통신 연락으로 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조업 기간을 늘릴 수 있었죠. 그래서 한 번 나가서 잡아오는 어획량도 많아졌어요."
KOICA가 원양 어선 항법 장치를 설치한 후 현지의 선장과 선원들의 반응이다. 어선과 해안 통제소가 교신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안테나 등 기지국 장비를 갖춰야 하고, 어선에서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위성항법장치GPS'와 '단측파대 전송SSB' 송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필수적이다. 1990년대 중반 스리랑카 연안에서는 'SSB' 송수신기가 해안 통제소마다 한 대만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고, 안테나의 설치 위치와 상태가 불량해 장비의 효율성이 매우 낮았다.






KOICA는 스리랑카 남부 지역인 골Galle, 마타라Matara, 함반토타Hambantota 지역에 원양 어선 항법 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1996~1999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장비를 제공했다. 그 결과 원양 어선은 해안 통제소와 원활하게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았고, 어선의 어획량이 늘어서 영세 어민의 소득을 향상시켰다. KOICA의 사업 완료 후 전에는 평균 2~3일이던 조업 기간이 10~20일로 연장되었다. 현지 어민들은 "일본 장비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고장이 잦고 수리가 안 되어 불편했는데, 한국에서 제공받은 장비는 통신 거리도 길고 장비의 하자가 거의 없어 효율적"이라며 기뻐했다.

사업명 스리랑카 남부 지역 원양 어선 항법 장치 설치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9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공여,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7
SRI LANKA

좁고 굽은 산간 도로를 개·보수

하튼~누와러엘리야 구간 도로 개 · 보수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on the Rehabilitation of Hatton-Nuwara Eliya Road



하튼Hatton~누와러엘리야Nuwara Eliya 구간은 스리랑카 최대의 차(茶) 생산지이자 관광지다. 그러나 이곳은 고산 지대에 있어 2차선의 좁고 굽은 산간 도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1999년 당시 46km에 달하는 하튼~누와러엘리야 구간에는 버스와 차(茶)를 수송하는 트럭 등 약 2천여 대의 차량이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곳의 도로 폭이 5m 미만으로 대형차가 지나기에는 몹시 좁았고, 급경사와 급커브 지점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하지만 하튼~누와러엘리야 구간은, 지리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기후를 즐길 수 있고, 양질의 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스리랑카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꼽혔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곳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돕기 위해 하튼~누와러엘리야 구간의 도로를 보수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0~2001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교량의 개 · 보수 범위를 확정하고, 신설 교량의 형식과 포장 설계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KOICA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후 스리랑카 도로청은 이 사업이 조기에 본 공사와 연결되도록 즉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콜롬보와 누와러엘리야 간 이동 시간이 최대 40분 정도 단축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하튼~누와러엘리야 구간 도로 개 · 보수 타당성 조사 | **사업 기간** 2000~2001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공사비 및 사업비 검토, 사업 시행 전후의 편익 산정,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

08
SRI LANKA

우리나라 장비의 우수성을 알리다

서부 · 북서부 지역 원양 어선 항법 장치 지원 사업

Provision of Navigational Equipment to multiday fishing vessels operating in Western and North-Western Province

1999년 KOICA의 원양 어선 항법 장치 지원으로 스리랑카에서 조업 중인 1천8백여 척의 원양 어선 중 4백여 척의 선박이 혜택을 받았다. 항법 장치 지원이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자, 스리랑카 정부는 1차 사업 당시 포함되지 않은 서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1차 항법 장치 지원을 받지 못한 나머지 선박들이 서북부 지역에서도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2차 항법장치 지원 사업에 포함된 지역은 콜롬보Colombo, 칼루타라Kalutara, 감파하Gampaha, 칠라우Chillaw, 푸탈람Puttalam 등 5개 지역으로 주민의 95% 이상이 어업에 종사한다.

KOICA는 2001~2002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2차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차 사업은 기본적으로 1차 사업과 동일하게 '단측파대 전송SSB'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기자재 제공과 전문가 파견 등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1차 사업 당시 국내로 초청되어 교육을 받은 연수생들과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매우 수월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경미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간단한 점검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수 유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중점을 두었다. KOICA의 지원 사업은 스리랑카 1백만 어민들의 조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장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사업명 스리랑카 서부 · 북서부 지역 원양 어선 항법 장치 지원 사업(2차)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09 SRI LANKA 대외 교역 상품의 수송로 확보

푸탈람~트린코말리 도로 보수 사업 타당성 조사
The Feasibility Study for the Rehabilitation of Puttalam-Trincomallee Road



스리랑카 중서부 지역의 농산물을 동부 지역에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 도로 중 하나가 '푸탈람Puttalam~트린코말리Trincomalee'의 180km 구간이다. 국도 A12번으로 표시되는 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포장 상태가 불량한 데다 구조물 규격이 작고, 도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물류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게다가 저지대와 유수지 통과 구간이 많은 탓에 비가 내리면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많아 도로 보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스리랑카 정부는 도로 개발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대외 교역 상품의 수송 체계를 확보해 중북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푸탈람~트린코말리 도로 보수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3~2004년까지 120만 달러를 투입해 푸탈람~트린코말리 구간의 교통 현황과 장래 교통량을 추정해 공사비를 산출하고, 예비 설계를 통해 사업 시행 전후의 편익을 산정했다. KOICA의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푸탈람~트린코말리 구간의 도로가 보수된다면 교통이 편리해져 중서부 지역의 농산물을 동북부 지역에 공급하기가 한층 수월해지고, 이를 통해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업명 푸탈람 ~ 트린코말리 도로 보수 사업 타당성 조사 | **사업 기간** 2003~2004년 | **사업 규모** 120만 달러 | **지원 내역** 용역 조사단 파견, 연수생 초청, 사무기기 지원

10 교육 시설 지원은 KOICA가 유일

SRI LANKA

자프나 기능대학 개선 사업

Upgrade Jaffna Technical College as Institute of Technology

스리랑카 북부에 위치한 자프나Jaffna에는 소수 민족인 타밀Tamil족이 거주한다. 자프나 기능대학은 스리랑카 동북부 지역의 유일한 대학으로 1959년 설립되었으나 20년 동안 지속된 중앙 정부와의 내전으로 인해 방치되면서 대학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KOICA는 2004년 자프나 지역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자프나 기능대학을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273만 달러를 투입해 기계 · 전기 · 사무자동화 · 자동차 등 4개 공과 건물을 신축하고, 훈련 장비와 비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자프나 지역에 대한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사업은 주로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 물자를 제공하는 데 한정되어 있었다. 자프나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 시설을 지원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KOICA는 종합고등학교 수준의 자프나 기능대학을 전문대학으로 발전시켜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술 기능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당시 스리랑카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건축 자재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KOICA의 교육 지원 사업은 장기간 내전으로 피폐해진 자프나 주민들에게 기초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지역의 재건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업명 자프나 기능대학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4년 | **사업 규모** 273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공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11 초등학교에 입학조차 할 수 없다면…

SRI LANKA

'자히라 칼리지' 부설 초등학교 신축 사업

Primary School Construction Project at Zahira College

스리랑카 마와넬라Mawanella에 있는 자히라 칼리지Zahira College 부속 학교는 2천5백 명의 초 · 중학교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로 설립 후 80년 동안 중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 왔다. 그러나 꾸준히 증가된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시설은 전혀 보완되지 않아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교실이 부족해 실습실과 창고 · 강당 · 기도실을 교실로 대체하거나 인근의 가옥을 빌려 가건물을 지어 교실로 사용할 정도였다. 이 같은 사정으로 자히라 학교는 마와넬라 지역의 학생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매년 약 1백 명의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입학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80만 달러를 들여 1천2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층 규모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강의실 · 컴퓨터실 · 양호실 · 체육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교실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를 제공했다. 특히 표준 규격에 맞지 않은 책걸상 사용으로 성장의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비품을 교체했다. 자히라 학교 신축 사업은 학교 측과 스리랑카 기술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2006년 완공되었다. KOICA는 마와넬라 시 초등 교육 시설의 부족과 부실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수준을 향상시켰다.

사업명 'Zahira College' 부설 초등학교 신축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8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물 신축, 교육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12 SRI LANKA KOICA 최초의 교량 건축

마하나마 교량 건설 사업

Project for Constructing and Rehabilitating Mahanama Bridge in Matara



2004년 12월 발생한 지진해일은 스리랑카 주요 교량 중 하나인 마하나마Mahanama 교량을 침수시켰다. 마하나마 교량은 1950년대 건설된 이래 콜롬보와 남부의 주요 도시 함반토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스리랑카 정부는 마하나마 교량의 보수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7년까지 700만 달러를 투입해 마하나마 교량을 건설하기로 하고, 교량의 준공 시점을 지진해일 발생 3주기에 맞췄다. KOICA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실시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도입하고, 현장 관리자를 현지 상주 감리로 변경시켜 시공과 감리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KOICA는 공사 중 유량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량의 길이를 늘려야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기도 했지만 일정에 맞춰 무사히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 2007년 12월 26일 지진해일 발생 3주기를 맞아, 스리랑카의 마힌다 라자파크세Mahinda Rajapakse 대통령을 비롯한 국토개발부 장관, 교통부 장관 등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 새로 건설된 마하나마 교량은 차선을 분리해 차량의 운행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교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 정부의 도로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해준 나라가 되었다. 이 사업은 KOICA 최초로 시도된 교량 건축 사업이었다.

사업명 마하나마 교량 건설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7년 | **사업 규모** 7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존 교량 개 · 보수 및 3차선 편도 확장, 공사 및 시공 감리

13 SRI LANKA

지방에서도 수도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파데니아~아누라다푸라 도로 개량 실시 설계 사업

The Detailed Engineering Design of Padeniya-Anuradhapura Highway

스리랑카 도로개발청은 지난 20년간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의 지원으로 도로를 개발해 왔다. 지난 2002년 타밀 반군과의 평화협정 이후 스리랑카 정부는 내전 기간 동안 물류와 인력의 교류가 거의 없었던 북동부 지역의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에 따라 물류 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도로 개발이 절실해졌다.

KOICA는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으로 2000~2001년까지 스리랑카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누와러 엘리야와 스리랑카 서남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위해 하튼~누와러 엘리야 구간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03~2004년까지는 중서부 지역의 농산물을 동부 지역에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 도로인 푸탈람~트린코말리 구간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90만 달러를 투입해 스리랑카에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파데니아~아누라다푸라 구간의 일부 개량을 위해 교량 형식 · 배수 설계 · 포장 설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도로 개량 실시 설계 사업을 진행했다.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는 스리랑카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북부의 중심지인 자프나Jaffna, 동부의 트린코말리Trincomalee, 남쪽의 콜롬보Colombo, 과거의 수도인 캔디Kandy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다. KOICA의 파데니아~아누라다푸라 구간의 도로 개선 사업이 종료된 후 지방에서도 쉽게 수도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구간은 KOICA가 2003년 지원한 푸탈람~트린코말리 구간과 함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명 파데니아~아누라다푸라 도로 개량 실시 설계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9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공여,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14 SRI LANKA 스리랑카 남부 지역 의료 환경 개선

한 · 스리랑카 친선 병원 건립 사업

The Establishment of Korea-Sri Lanka Friendship Hospital



스리랑카 남부 중심지인 마타라 Matara 지역에 있는 마타라 종합병원은 지진해일의 피해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더욱이 시내 중심부 강변에 위치한 탓에 지반이 약하고 부지도 넓지 않은 편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마타라 종합병원을 개 · 보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병원을 신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후보지를 물색했다.

그 결과 선택된 곳이 고다가마Godagama 지역이다. 고다가마 지역은 콜롬보와 마타라 구간의 고속도로 예정지와 가까워 마타라 지역은 물론 인근의 2백50만 주민들에게도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스리랑카 정부는 고다가마 지역에 병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년부터 총 670만 달러를 투입해 마타라 병원의 주요 진료 과목인 산부인과와 소아과 외래 병동을 중심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 기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1단계 사업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모자 병원처럼 단독 운영이 가능한 병원을 우선 건립하고 2, 3단계로 내과 등을 추가해 종합병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공 중인 병원이 완공되면 스리랑카 남부 지역 주민들의 보건, 위생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상 수가 증가해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한 · 스리랑카 친선 병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6~현재 | **사업 규모** 67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신축, 의료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15 SRI LANKA 더 이상의 홍수 피해는 없다

발라츠체나이 지역 배수 시설 설치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Storm Water Drainage at Valachchenai

스리랑카 동부 발라츠체나이Valachchenai 지역은 상습적인 침수로 피해가 잦아 주민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폭우에 대비한 배수 시설 등의 인프라가 미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수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수로 제방 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저지대를 개발하는 식의 행태도 홍수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 스리랑카 재난구호부는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홍수 피해 방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9년까지 390만 달러를 투입해 주거 밀집 지역에 신규 배수로를 준설하고, 기존 배수로를 정비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스리랑카의 정세 불안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으나 현지에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파견해 모니터링을 하는 등 효과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홍수와 배수 관리 기술을 전수할 수 있었다.

KOICA는 총 13개의 배수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했으며, 이를 연결하는 소형 교량들을 보수했다. 우기 때마다 이곳은 도로와 차량이 침수되어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수인성 질병이 만연했지만 이제 인근 주민들은 폭우에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KOICA의 지원 사업으로 도시는 비로소 안정과 위생을 되찾게 되었으며, 동부 해안을 찾는 관광객도 점차 늘어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발라츠체나이 지역 배수 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9년 | **사업 규모** 390만 달러 | **지원 내역** 배수시설 건설 및 개 · 보수,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16 SRI LANKA 함반토타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다

함반토타 국제 회의장 건립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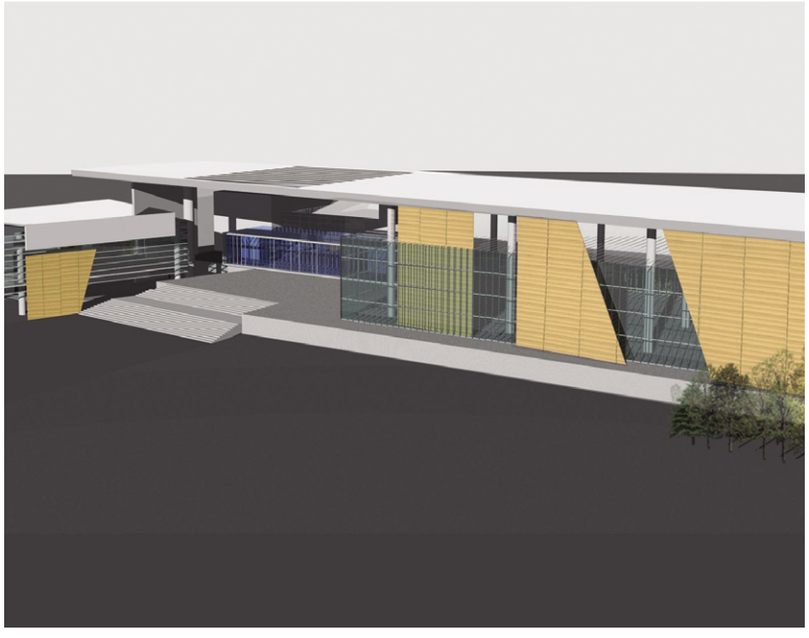
Construction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in Hambantota

함반토타Hambantota는 수도 콜롬보에서 남동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진 해안 지역이다. 아름다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각국의 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곳이었으며, 어획량도 풍부해 스리랑카 수산업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2004년 지진해일로 인해 3천 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4천 가구 이상이 생활의 터전을 잃었다.

스리랑카 정부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자 콜롬보와 스리랑카 남부를 연결하는 남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지방 행정관서 이전 및 신공항과 항만 건설을 추진하는 '함반토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더욱 힘을 실어준 것이 국제 회의장 건립 사업이다.

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함반토타는 스리랑카 남동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어 유럽 · 아시아 · 오세아니아 ·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접근성이 높은 곳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역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여기에 국제 회의장을 건립하고, 각종 회의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년부터 600만 달러를 투입해 1백 석 규모의 본관 오디토리엄과 별관 그랜드볼룸 등의 건물을 건축하고, 회의실에 필요한 오디오와 비디오 등 각종 장비를 제공했다. 또한 시설 관리 및 회의 진행 관련 인력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스리랑카 정부가 계획 중인 함반토타 신도시 건



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 회의장 완공 후 경제 개발 효과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릉지 최상단 부분에 자리 잡은 국제 회의장은 주변 2km 내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사업명 함반토타 국제 회의장 건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6~현재 | **사업 규모** 600만 달러 | **지원 내역** 회의장 건축,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17
SRI LANKA

재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치명적

응급 대응 시스템 지원 사업
Establishment of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스리랑카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와 불안한 지질 구조, 낮은 고도의 해안 지역 등 자연 재해에 매우 취약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1978년 사이클론, 2001년 가뭄,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04년의 지진해일은 4만 명의 인명 피해와 180만 달러의 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게다가 최근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면서 화재와 교통사고 같은 인적 재난도 폭증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국가 재난관리인권부에서 재난관리 센터와 비상작전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관기관 간 정보통신 체계가 열악하고, 지역에 적합한 재난 예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지방 도시에서조차 소방서가 없어 화재 진압이나 구급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OICA는 2008년부터 200만 달러를 들여 스리랑카 재난관리인권부의 협조 아래 칼루타라Kalutara 지역에 다목적 '재난관리조정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현대적인 '재난관리조정센터' 건물 2개동을 신축하고, 구급차와 소방차 · 구명보트 · 크레인 등 장비를 제공해 긴급 구조와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설은 실질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만 재난 발생 시 효과를 발휘하므로 KOICA는 연수생을 초청해 우리나라 소방방재청과 중앙 119구조대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자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재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를 대비하는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직 ·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KOICA는 응급 대응 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스리랑카의 재난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로써 주민들은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업명 응급 대응 시스템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8~현재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공여,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18 SRI LANKA

환경 친화적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

콜롬보 지역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Integrated Waste Management System in High Level Region of Colombo District

스리랑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앞에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집 안 한쪽에서 태워버린다. 분리수거로 자원을 재활용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어차피 쓰레기 수거일이 일정하지 않고, 폐기물 집하량이 하루 2천5백 톤에 불과해 모든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쓰레기가 수거되었다 하더라도 그저 매립해 버리기 때문에 지하수와 지표수 오염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파리와 모기, 쥐 등의 번식을 도와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스리랑카 환경부는 '필리사루pilisaru, 다시 자원화' 라는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폐기물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최소한의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필리사루' 의 목표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즉 자원회수시설 · 중간처리시설 · 퇴비화시설 · 위생 매립장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지속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체계가 미비해 사업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스리랑카 환경부는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450만 달러를 들여 적체된 폐기물을 처리할 매립장을 건설하고, 기본 장비를 제공하는 등 기초적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스리랑카 정부가 스스로 세우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폐기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본국에 돌아가 국민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ha 면적의 위생 매립장이 설치되고, 하루에 9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시설이 완공되어 각종 침출수가 가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시설로 인해 발생하던 질병을 감소시켜, 스리랑카 국민들의 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사업명 콜롬보 지역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45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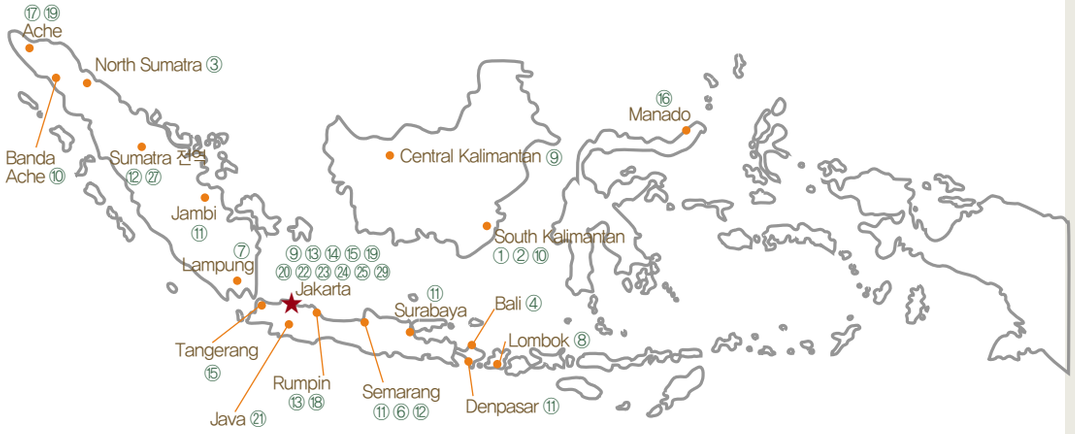


INDONESIA

1만8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구 위의 최대 섬나라인 인도네시아. 세계 제4위의 인구 대국이며 3백여 종족, 5백여 언어 등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지만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인 1억1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글 · 윤지현**

인도네시아는 1만8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섬나라다. 국명은 그리스어인 'Indo(인도)'와 'Nesos(섬)'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2억3천만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4위의 인구 대국이며 3백여 종족, 5백여 언어 등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다. 전체 인구의 87%는 이슬람이지만 개방적인 인도네시아 이슬람 문화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아세안 자유 무역 지대를 주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저가의 노동력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주석은 세계 제1위, 고무는 세계 제2위, 커피와 니켈은 세계 제3위의 보유국이다. 산림 면적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크며, 목재와 펄프의 주요 공급 국가 중 하나다.

2008년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3천 명으로 연간 1.17%씩 증가하고 있다. 하루 1.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는 16%,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1억1천만 명으로 빈곤선에 근접한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다. KOICA는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교통과 에너지, 통신 등 경제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행정 개혁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과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산림 분야 협력 등을 통한 환경 분야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 ⑤ ㉖ ㉘

국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정체** 대통령 중심제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다습(건기 4~9월/우기 10~3월) **인구** 약 2억3천만 명 **면적** 약 1,890,000㎢(한반도의 9배) **1인당 국민소득** 3천6백 달러(2007년 기준) **수도** 자카르타(Jakarta) **민족** 바족(45%), 순다족(13.6%), 아체족 등 3백여 종족 **문자 해독률** 89.79% **종교** 이슬람교(87%), 기독교(6%), 가톨릭(3%), 힌두교(2%), 불교(1%) **공용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 인도네시아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빈곤 인구 비율** 1999년 23.4%에서 2002년 18%, 2003년 17.4%, 2004년 16.7%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영양실조 아동의 비율은 2000년 24.7%에서 2003년 27.5%로 증가하고, 하루 2,100Kcal 이하 섭취자의 비율도 1990년 70%에서 2002년 65%로 더딘 감소율을 보임.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교육 취학자는 1992년 88.7%에서 2004년 93%로 증가했으며 중등교육 취학률도 1992년 41.9%에서 2004년 65.2%로 증가 • 도농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초 · 중고 모든 과정에서 남녀 비율이 거의 100%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고용에 있어 남녀 임금 비율 및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낮음.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1990년 신생아 1천 명 중 99명에서 2002년 약 60명으로 줄었으나 지역 · 빈부 간 격차가 심하고, 의료 서비스 및 질적 향상이 필요
모성 보건 증진	• **모성 사망률** 1990년 10만 명 중 4백25명에서 2002년 3백73명으로 감소했으나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Health Indonesia 2010' 프로그램, '사회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목표 달성 노력 중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성인의 HIV 발병률은 0.1% 이하이나 발병 위험이 높은 그룹이 5% 이상이며, 2010년까지 사망자 약 10만 명, 감염자도 1백만~5백만 명으로 예측됨. • 결핵도 매해 58만2천 명이 발병하고, 말라리아는 매년 3천만 명이 발병하는 등 초기 진단 및 의약품 지원 확대 필요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식수 제공률이 1990년 51%에서 2007년 52%로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1인당 GDP 대비 1990년과 2007년 모두 0.6kg로 큰 진전이 없음.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 1인당 원조 제공 비율은 1990년 10달러에서 2007년 4달러로 감소

01 INDONESIA

습지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

남부 칼리만탄 습지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South Kalimantan Swamp Development

사업명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습지 개발 타당성 조사 | **사업 기간** 1991~1993년 | **사업 규모** 70만 달러 | **지원 내역** 칼리만탄 주 3개 지역 수문 자료 및 토양 조사, 영농 개발 세부 계획, 비용 분석 및 환경 영향 평가 등 보고서 발간

인도네시아라는 국명은, 인디언이라는 뜻의 'Indos' 와 섬이라는 뜻의 'Nesos' 가 합쳐진 말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도인 인도네시아는 크게 수마트라 · 칼리만탄 · 슬라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칼리만탄은 보루네오 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친근하다. 칼리만탄은 습한 토양 지대로, 연 강수량이 4,000~6,000mm인 영구 다습 지역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0년대 이후 남부 칼리만탄 지역 80만 헥타르의 습지 중 23만 헥타르를 농경지로 개간하는 등 지방 도서에 대한 대규모 습지 개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칼리만탄 지역의 습지 중 단순 배수로 설치 등 1단계 개발이 완료된 11개 구역에서 우리나라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용 · 배수 시설 개 · 보수와 수로망 확충 등 습지 개발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1~1993년까지 70만 달러를 들여 '농어촌진흥공사' 와 함께 기상 · 해상 · 토양 등의 조사를 실시한 후 영농 개발과 지원 시설을 설치하고, 관개 및 배수 등 토목 시설 설치 계획도를 작성했다. 이 사업의 성공으로 KOICA는 자카르타 인구 밀집 지역 서민들의 칼리만탄 이주 계획에 힘을 실어 주게 되었다. 아울러 가뭄과 쌀 소비량 증대로 쌀 수입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칼리만탄의 관개 및 배수 시설 계획은 농산물 수확량을 늘리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02 INDONESIA

수마트라 전력 개발은 국가적 과제

북수마트라 전력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Power Engineering Development in Northern Suma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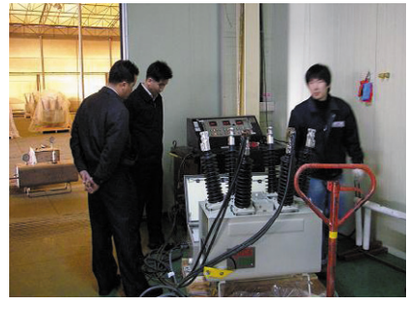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지역은 인도네시아 제2의 공업 도시인 메단Medan 공업 지역과 유전 · 가스 · 팜 오일 등 국가 기간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수마트라는 특히 제5차 경제개발계획(1989/1990~1993/1994년)에 의거해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수많은 사업장과 공장이 들어서는 등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원자재를 바탕으로 한 해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력의 부족은 날로 심각해졌다. 전력 부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북부 수마트라의 전력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2~1995년까지 47만 달러를 들여 북부 수마트라의 전력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KOICA는 전력과 용수 등 공급원을 조사하고, 송전망 검토 및 발전 방식 등의 기술성을 검토했으며, 전력 수요를 예측해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최종 보고서는 발전소 건설 시기와 규모, 최적 지점 선정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어 북부 수마트라 지역의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전력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2~1995년 | **사업 규모** 47만 달러 | **지원 내역** 'Sibolga' 지역 전력 부족 해소를 위한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03 INDONESIA 발리 섬 도로 개발로 관광 인프라 확충

발리 섬 도로망 개발 조사 사업
Feasibility Study on Road Network Development in Bali

1만8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졌다. 1991년 당시 인도네시아를 찾은 해외 관광객은 2백5만 명이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관광 개발과 서비스 산업으로 다각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 전략 정책을 점차 수정해 나갔다. 특히 자연 경관이 수려해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발리 섬은 도로 시설 등 사회 기본 인프라 시설이 미흡해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리 섬 전역의 모든 도로망을 개선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3~1995년까지 69만 달러를 투입해 발리 섬 교통량 조사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관광 환경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증가할 교통량을 예측했다. 아울러 신설 도로와 기존 도로의 개량 구간 측량과 토지 조사를 근거로 기본 예비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KOICA는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 성장과 산업의 다각화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발리 섬 도로망 개발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3~1995년 | **사업 규모** 69만 달러 | **지원 내역** 신구간 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04 INDONESIA 농촌에서도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동식 직업훈련원(MTU) 지원 사업
Project for Movable Vocational Training Center

1968년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물러나기까지 강력한 지도력으로 국내의 정치 및 사회적 안정을 꾀하고자 노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해 1989년부터 제5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인적 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훈련 시설이 없는 농촌 등 낙후한 지역의 청소년과 쉬고 있는 노동 인력의 기능을 향상시켜 농촌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그 일환의 하나로 2천5백만 달러의 우리나라 차관을 도입해 이동식 직업훈련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1993년 이동식 직업훈련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4~1996년까지 9만 달러를 들여 이동식 직업훈련원의 자문을 위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 KOICA는 유 · 무상 원조 사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동식 직업훈련원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직업 훈련 분야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이동식 직업훈련원(MTU)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4~1996년 | **사업 규모** 9만 달러 | **지원 내역** 수석 자문관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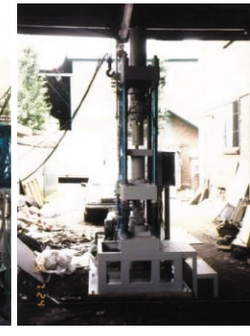
05 INDONESIA

연탄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석탄 성형 기술 사업

Feasibility Study on Briquetting Technology and Utilization of Indonesian Coal





인도네시아는 1990년 당시 전체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취사용 연료로 등유와 신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나중에는 석유 고갈로 이어져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주요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정 취사용과 소규모 공업용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웠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매장량은 아시아 전체 석탄 매장량의 97%에 해당하는 3백60억 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가정 연료로 연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우수한 석탄 성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KOICA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1994~1998년까지 58만 달러를 들여 자바 섬 반둥과 주변 지역에 석탄 성형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석탄 성형 기술 지원을 통해 유연탄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 제거 방법을 연구하고, 성형탄의 크기 설정과 성형 방법에 역점을 두고 취사용 연소기 개발에 기여했다. 아울러 실험실 규모의 성형탄 파일럿 시설을 설치해 시범적으로 기술을 이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석탄 성형 기술 사업 | **사업 기간** 1994~1998년 | **사업 규모** 58만 달러 | **지원 내역** 유연탄을 성형, 가정 취사용 및 공업용 원료로 사용 가능한 기술 개발 연구

06
INDONESIA

제2의 발리, 롬복 섬 개발

롬복 섬 도로망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Environmental Input Study for Road Development in South Lombok







인도네시아는 1만8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도서 국가로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진 발리 · 자바 · 롬복 섬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발리 동쪽의 롬복 섬은 상업화가 덜 진행된 곳으로 롬복 섬만의 독특한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어 최근 경쟁력 있는 관광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1994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제2공항과 대형 호텔 건설 등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롬복 섬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은행과 아시아은행의 차관을 통해 롬복 섬 순환 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순환 도로 중 신규 공항 예정지와 연결되지 못한 미개통 구간의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7년까지 74만 달러를 들여 순환 도로 중 남부 해안의 관광 개발 예정지 42.55km 구간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3개의 신설 도로 43.08km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KOICA는 롬복 섬 관광 산업의 잠재 수요를 예측하고, 토양과 지형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 구간에 대한 예비 설계와 도로 구간의 교통량을 분석하여 도로망 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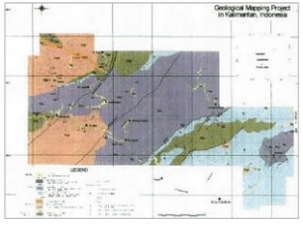
사업명 인도네시아 롬복 섬 도로망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74만 달러 | **지원 내역** 롬복 섬 해안 순환 도로 중 미연결 구간 신설 및 기존 도로 개 · 보수 타당성 조사

07 한국과 공동으로 자원 개발 모색

INDONESIA

중부 칼리만탄 광물 지질도 작성

Middle Kalimantan Geological Mapping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1위의 석탄 수출국이자 세계 제8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매일 약 1백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자원 국가다. 이 밖에도 구리 · 금 · 니켈 · 주석 등의 부존자원 양이 세계 10위 안에 꼽힐 정도로 많아 높은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6년 풍부한 광물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업권만 확보된 미개발 지역을 포함해 전 지역의 새로운 탐사권과 광업권을 신규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자원 탐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KOICA는 1997~2000년까지 50만 달러를 투입해 중부 칼리만탄 지역의 지질도와 탐사도 제작을 실시하기로 하고, 유망 광물 부존 지역의 지질과 광상, 물리탐사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토 개발의 기본 자료인 지질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KOICA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광물자원 개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의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 광물 지질도 작성 | **사업 기간** 1997~2000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금속 광상 탐사, 탐사 지역의 지질도와 탐사도 제작

08 화산회 혼합 시멘트로 집을 짓다

INDONESIA

화산회 혼합 시멘트 제조 사업

Project for Pozzolan & Blended Cement Manufacturing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 성장을 통해 도시를 개발하고,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켰다. 1990년 당시 인도네시아 가옥 대부분은 목재로 지어져 홍수와 태풍 등 환경 변화에 취약했다. 특히 농촌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대도시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절실했다.

KOICA는, 1996~1998년까지 133만 달러를 투입해 인도네시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산회Pozzolan를 이용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시멘트 대체용 건축 자재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혼합 시멘트 제조 사업은 룸퐁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KOICA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범 공장에 대한 기술적 설계와 장비 선정을 거쳐 시범 공장을 건립했다. KOICA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한 시멘트를 화산회 혼합 시멘트로 대체하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시멘트 제조 공장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판매망 확보와 법적 ·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시켰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화산회 혼합 시멘트 제조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8년 | **사업 규모** 133만 달러 | **지원 내역** 물자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설계 및 원료 분석

09 INDONESIA

KOICA의 지원으로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지원 사업

Project for Indonesia Agriculture Swampy Mechanization

인도네시아는 전체 국토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5천1백만 헥타르의 광대한 농경지를 갖고 있는 농업국이다. 그 중 29%인 2천만 헥타르가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논 면적은 7백80만 헥타르를 차지한다. 특히 쌀은 가장 중요한 작물 중 하나로, 1984년 처음으로 쌀 자급자족이 시작되었다. 쌀 생산성 향상은 인도네시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많은 농업 연구가들이 쌀 생산을 증대시키는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1994년부터 시작된 농업 개발 25개년 계획 중 제6차 경제 개발 기간(1994~1998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업 부문에서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 농가 고용 증대와 생산성 효율 증가 등 전반적 생활수준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 인도네시아 중남부 칼리만탄은 저습지로 농업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곳에서 100만 헥타르의 농지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8~2001년까지 저습지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03만 달러를 투입해 굴삭기, 트럭 등의 농기계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벼농사 기계화와 농기계 조작 및 정비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농기계 조작법 전수를 위해 4차례에 걸쳐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

KOICA의 농지 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 인도네시아 농업국 발표에 의하면 쌀 생산량은 30~60% 정도 증가했고, 영농비는 40%가 절감되는 등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성 지원 사업이 아닌 종합적인 전작물 개발 사업으로 이어져 인도네시아 농촌 지원 사업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이 사업 효과는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8~2001년 | **사업 규모** 103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공여,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10 INDONESIA

한국도 열대림을 연구할 기회 가져

소경목재 소재활용 방안 조사

Feasibility Study on Small-Diameter Log Development







산림 면적이 국토의 73%인 142.3백만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산림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하지만 산림 개발과 이용에 있어 벌채권을 대기업과 재벌이 독점하면서 개발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림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방 단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개발 이용이란 패턴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특히 직경 50cm 이상 되는 대경목 벌채 후 남은 원목과 직경 30cm 미만의 소경목은 이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막대한 양이 버려지고 있어 이를 활용할 방안이 시급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벌채와 산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경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잠비 지역의 소경목 활용 방법에 대한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8~1999년까지 46만 달러를 들여 산림청 및 임업연구원과 함께 소경목 활용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KOICA는 과학적인 연구 조사를 위해 인공위성 사진 분석 및 항공 · 지상 · 사회 인문 · 소경목 이용도 조사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잠비 지역의 자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소경목 중심의 산림 자원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KOICA의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경목 개발에 대한 투자 여건과 열대림의 생태와 환경 및 사회 경제 분야의 중요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로서는 열대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이의 환경적 가치를 이해하고, 생물의 다양성 확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소경목 활용 방안 조사 | **사업 기간** 1998~1999년 | **사업 규모** 46만 달러 | **지원 내역** 소경목 중심의 산림 개발 타당성 조사, 소경목 최적 이용 제품화 및 시장화 방안 수립

11 INDONESIA

저가 주택 개발로 자바섬 주택 문제 해결

서민 주택 개발 조사 사업

Feasibility Study on the Low Cost Housing Development

인도네시아는 연간 약 3백만 명씩 인구가 증가하면서 2000년 들어 총 인구가 2억 명을 넘어섰고,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확산됨에 따라 주택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2020년까지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인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0년 한 · 인도네시아 정상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에서 서민 주택 건설과 공급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 ·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인도네시아 주택지역개발부 장관 방한 당시 건교부와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양국 간 주택 협력 사업 사업이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KOICA는 2001~2003년까지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주택 문제가 심각한 자바 섬 반둥 지역을 대상으로 22만 달러를 들여 서민 주택 개발을 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주택 시장과 주택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 방식과 금융 지원 제도를 검토해, 주택 정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저가 주택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주택 정책의 방향과 주택 공급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KOICA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저소득층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 우리나라의 경험을 인도네시아에 전수시켜 양국 간 건설 분야 협력에 기여했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서민 주택 개발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3년 | **사업 규모** 22만 달러 | **지원 내역** 저가 주택 모델 개발, 시범 주택 건설 비용 분석 및 보급 방안 연구 조사





12 INDONESIA

IT 훈련 센터 건립으로 정보 격차 해소

인도네시아 대학 IT 훈련 센터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Information Technology Training Center UI-Korea

인도네시아는 KOICA의 원조 초창기부터 중요 국제 협력 대상국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하며 IT 기술의 선두 주자로 부상할 무렵 인도네시아는 외환 위기를 겪고 있었다. KOICA는 선진국 중심의 인터넷 보급과 지식 산업의 발전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정보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IT 분야는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기에 원조 규모가 절대 크지 않은 우리나라의 해외 원조 사업에 적합한 분야다. 2000년 11월 당시 한 · 인니 정상 회담에서는 개도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IT 훈련 센터를 설립해주는 안건이 논의되었다.

KOICA는 2001~2003년까지 총 250만 달러를 투입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인도네시아 최고 대학인 인도네시아대학에 IT 훈련 센터를 건립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첨단 IT 기술의 동향을 전해주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중소기업 개발 센터 설립과 함께 IT 지원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당면해 있는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사업이 끝난 후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이곳을 통해 수천 명의 교육생이 배출되어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대학 IT 훈련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3년 | **사업 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CM 파견







13 IT 인프라 구축으로 해외 투자 유도

INDONESIA

중소기업 개발 센터 IT 인프라 구축 사업

ICT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for the CD-SMEs of Indonesia

우리나라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정보 격차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중요 협력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 투자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다. 2000년 11월 한 · 인니 정상 회담에서는 총 250만 달러 규모의 IT 교육 훈련 지원 사업이 논의되었다. 200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훈련시켜 장차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소기업 개발 센터의 IT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1~2003년까지 125만 달러를 투입해 'CD-SMEs' 에 IT 센터를 건립하고 기자재를 제공했으며, 이를 운영할 교육 훈련 시스템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본부와 지역 센터 사무실을 제공하고 강사 등 기본 인력을 지원했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개발 센터의 IT 인프라 구축 사업은 다른 개발 사업과 달리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과 외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요구 조건을 적극적으로 감안한 사업이었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개발 센터 IT 인프라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3년 | **사업 규모** 125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CM 파견

14 재배 방식을 바꾸어 농업을 상업화

INDONESIA

밭작물 농업 중점 개발 사업

The Project for the Integrated Agriculture Development on Upland Area for Increasing Food Crop Production

대표적인 농업국인 인도네시아는 '국가개발 5개년 계획(2000년~2004년)' 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자급을 중요 정책으로 결정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으로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벼 생산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밭작물 생산은 경작지 부족으로 생산성이 극히 낮다. 특히 옥수수를 비롯한 땅콩 · 카사바 · 콩 같은 밭작물 대부분은 재래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도 관개 용수가 아닌 자연 강우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 안보와 영농의 상업화를 위해 밭작물 재배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에서 65km 떨어진 보고르 지역을 대상으로 밭작물 중점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중소 규모의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보고르 지역 농민들은 낮은 생산성이란 문제를 안고 있었다.

KOICA는 2002~2004년까지 72만 달러를 들여 인도네시아 밭작물 농업 중점 개발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농기계 보관 창고를 구축하고, 농업 분야 공무원 20여 명을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으로 초청해 영농 기계화 과정과 밭작물 재배 기술 과정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비료 살포기 · 트랙터 등의 장비도 제공했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밭작물 농업 중점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4년 | **사업 규모** 72만 달러 | **지원 내역** 장비 공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건축 지원

15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태권도 인구는 50만

한 · 인도네시아 스포츠 교류 센터 건립 사업

Project for Construction of Korea-Indonesia Friendship Sports Center

인도네시아는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다. 인도네시아 태권도협회 등록 인원은 50여만 명으로 자카르타를 포함한 자바 섬에 60%, 기타 지역에 40% 정도 분포돼 있다. KOICA는 1991년부터 인도네시아에 태권도 사범과 봉사 단원을 파견해 태권도를 국민 체육으로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선수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전용 체육관이 없어 고급 기술의 보급과 질적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태권도 보급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3~2005년까지 278만 달러를 투입해 자카르타 근교 치부부르 지역에 한 · 인도네시아 스포츠 센터를 건립했다. 2005년 완공된 스포츠 센터는 현재 배드민턴 · 태권도 · 에어로빅 등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태권도 클럽 운영 등 인도네시아의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 · 인도네시아 스포츠 센터는 자카르타 인근 신흥 개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지만 자체 수입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포츠 센터는 태권도협회와 협의를 통해 태권도 보급을 확대하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으로 이용자를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한 · 인도네시아 스포츠 센터는 청년체육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기념물이자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사업명 한 · 인도네시아 스포츠 교류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5년 | **사업 규모** 278만 달러 | **지원 내역** 스포츠 센터 건축, 건축 관리(CM) 및 감리









16 INDONESIA

도로가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어요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 2단계 타당성 조사 사업

Feasibility Study and Detailed Engineering Design for Manado Phase II

인도네시아는 도농 간 빈곤 격차가 심하다. 예를 들어 도시에 있는 자바 지역의 빈곤 인구는 15.7%, 평균 4km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농촌인 파푸아 지역의 빈곤 인구는 38.7%, 평균 32km는 가야 병원을 만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국가 정책 가이드라인과 국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개발이 취약한 지역에 도로와 같은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으로 북술라웨시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을 요청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원한 130억 원의 차관으로 1995년부터 'Winangum-Maumbi' 구간 8.4km의 우회도로 건설 공사에 착수해 2004년 마침내 완공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사업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단계로 'Maumbi-Buha' 7.7km 구간의 도로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차 사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한 가운데 전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단계 구간의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는 우리나라에서 무상 원조로 지원하고, 본 사업은 2차 유상 원조를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43만 달러를 들여 2단계 구간의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를 수행했으며 현재는 'EDCF' 차관을 통해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KOICA의 지원 사업으로 인도네시아는 항구에서 통합 경제 개발 지역으로 승격한 마나도까지 물류 여객 수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중앙 도로의 교통 체증을 완화시켰다.

사업명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 2단계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43만 달러 | **지원 내역** 도로 설계 프로그램 등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17 INDONESIA 다목적 댐 건설로 물 부족 상황에 대비

카리얀 다목적 댐 실시 설계 타당성 조사 사업
Project for Detailed Design of Karian Dam

인도네시아에서 가뭄과 홍수 피해가 잦아지자 안정적인 물 공급은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자카르타에 인접한 반텐Banten 주 세랑군과 탕그랑 지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매년 3%씩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초당 9.1㎥의 물 수요가 예상되어 수자원 계획이 절실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카리얀 댐과 세퐁 관개 수로 시스템의 일부 구간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카리얀 댐은 수자원 계획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댐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나머지 3개 댐인 파지르코포 · 씨라왕 · 탄정 댐의 후속 사업도 이어질 것을 기대되었다.

KOICA는 2004~2006년까지 152만 달러를 투입해 카리얀 댐 실시 설계와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KOICA는 농업용수 공급과 관개 수로 건설에 중요한 카리얀 댐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농업 기반 공사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댐 설계를 위한 지질 조사와 사업 수행 계획 수립 및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실시 설계를 진행해 나갔다. KOICA의 댐 실시 설계 타당성 조사 사업은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반텐 주 세랑군과 탕그랑 지역의 물 부족 상황과 홍수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꾀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카리얀 다목적 댐 실시 설계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6년 | **사업 규모** 152만 달러 | **지원 내역** 산업 · 공업 · 식수 용수로 사용 가능한 댐 실시 설계 타당성 조사

18 INDONESIA 지진해일이 휩쓸고 간 자리에 병원과 학교 건립

남아시아 아체 친선 병원 및 시범학교 건립 사업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Indonesia Friendship Hospital & School in Aceh





"KOICA의 지원으로 건설된 친선 병원과 학교는 국제적 수준이다. 한국 정부와 비정부 단체의 발 빠른 재난 복구 사업으로 아체가 신속히 정상을 되찾았다."

인도네시아에서 분리 독립 무장단체 '자유아체운동GAM'을 주도해 오다가 2005년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은 후 최초의 선거를 거쳐 주지사로 선출된 이르완디 유숩은 이같이 말하며 우리나라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2004년 12월 지진해일(쓰나미)로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은 폐허가 되었다. 수천 채의 가옥과 도로가 파괴되고 17만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지진해일이 휩쓸고 간 지역은 복구하기조차 힘든 폐허의 땅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지진해일 발생 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피해 국가에 5천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고, 재난 복구 사업을 시작했다. KOICA는 2005~2007년까지 952만 달러를 투입해 아체 주(州) 아체바랏다야와 나간라야 군(郡)에 대규모의 현대식 한 · 인니 친선 병원과 시범학교를 건립하

기로 결정했다. 2008년 5월 22일 공사 시작 4년 만에 마침내 준공식을 갖게 된 아체 친선 병원은 총 1백 개 병상 규모의 본관과 의사 및 간호사 숙소, 수술실, 임상실험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춘 현대식 병원이다.

KOICA는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의료 기자재 및 병원 운영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의료진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친선 병원 개원으로 아체바랏다야 군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환경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OICA는 아체바랏다야 군에 초 · 중 · 고등학교, 그리고 나간라야 군에 유치원과 초 · 중 · 고등학교 등 전부 7개의 시범학교를 건립했다. KOICA의 지원으로 각 학교는 과학실 · 음악실 · 컴퓨터 실습실 등 각종 설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 밖에도 현지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사업명 남아시아 아체 친선 병원 및 시범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7년 | **사업 규모** 952만 달러 | **지원 내역** 7개 학교 건축 : 물자 지원, 교사 국내 초청 연수/의료 센터 건축 : 물자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19 INDONESIA

망그로브 숲 복원으로 지진해일 방지

남아시아 지진해일 인도네시아 망그로브 숲 복원 사업

The Rehabilitation of Mangrove Forest and Coastal Area Damaged by Tsunami in Aceh



2004년 12월 26일 발생한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북부 수마트라 지역에서는 2만 5천 헥타르의 망그로브 숲이 파괴되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와 국가개발계획청은 파도로 인한 육지의 침식 방지와 지진해일 피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중요 생태지인 망그로브 숲 복원 사업에 나섰다. 망그로브 숲은 전 세계 1천5백만 헥타르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 40%가 남아시아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자라고 있다. 인도의 타밀나두 지역의 피차바람Pichavaram에 사는 1천7백 명의 주민들은 망그로브 숲 덕분에 지진해일 피해를 덜 입었고, 지진 진원지 인근에 있는 'Simeuleu' 섬도 망그로브 숲으로 인해 사상자 수가 적었다.

'유엔산림포럼UNFF' 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및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은 지진해일 지역의 복구를 위해 망그로브 숲을 복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 및 지역과 국제기관의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KOICA는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2005~2008년까지 180만 달러를 투입해 망그로브 조림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재건 복구 전담 기관과 함께 추진한 이 사업은 피해 지역 복구는 물론 자연 생태계 복원과 나아가 자연 재해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망그로브 숲은 해안 토양의 유실 방지와 더불어 생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매우 높다. 갑각류와 어류 등에게는 서식지를 제공해 주민들의 소득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오염물질을 여과하고 흡수해 바닥 침전물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업명 남아시아 지진해일 인도네시아 망그로브 숲 복원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8년 | **사업 규모** 180만 달러 | **지원 내역** 망그로브 숲 조림 , 정보센터 건축, 조림 관리 PM 파견, 국내 초청 연수





20 INDONESIA

우리나라도 열대림 관리 기술 확보

임목 개량 및 현대식 양묘장 조성 사업

Project for Seed Sources and Nursery Technology

불법 도 · 남벌과 산불 등으로 인해 2006년 말 현재 인도네시아 황폐지는 약 5천9백만 헥타르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약 3백만 헥타르의 황폐지가 증가하고 있다. 5천9백만 헥타르는 우리나라 산림(6백40만 헥타르)의 9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인도네시아 산림 보호의 필요성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열대림과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한 국가로서 범지구적 환경 보호를 통해 '새천년개발목표' 의 7번째 목표인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및 개발' 을 달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6월 제1차 한 · 인도네시아 산림 포럼을 개최하여 '청정개발 메커니즘CDM' 공동 연수를 수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협약에 대응하고 있으며, 조림을 통한 목재 자원 확보와 저탄소 배출 협력에 일조하고 있다.





KOICA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2005~2007년까지 180만 달러를 들여 황폐지를 복구하고, 상업용 플랜테이션을 조성하기 위해 보고르 룸핀 지역의 '임목 종자 개량 기술과 양묘 시설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KOICA는 약 30ha 양묘장을 조성하고 120ha의 시험림을 조성해 산림자원을 확보하고, 임목 육종과 토양 분석, 조직 배양 등 3개 분야 전문가를 2회씩 2주간에 걸쳐 현지에 파견해 조직 배양과 영양 번식 그리고 조림 관리에 대한 기술을 전수했다. 아울러 산림정책비교연구 · 임목육종 · 조림 · 양묘와 증식 등 4개 분야 25명의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열대림 관리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임목 개량 및 현대식 양묘장을 '산림 종자 관리 종합 센터'로 발전시켜 나갔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임목 개량 및 현대식 양묘장 조성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7년 | **사업 규모** 180만 달러 | **지원 내역** 온실 건립, 사무실 건축, 기자재 지원, 육종 및 증식,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21
INDONESIA

전기를 많이 쓰면 벌금을 낸다고?

3개 도시 배전 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자동화 시범 사업

Feasibility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electric distribution system in three c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DAS) pilot project in Semarang



인도네시아는 경제 도약과 선진 공업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2차 '장기경제개발계획(1995~2019)'을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전력 수요는 연간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현재 전력 생산은 수요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정부의 보조금으로 전기 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당시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는 전력 부족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그에 따른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2005년 하반기부터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최고 부하 시간에는 전기 요금을 두 배로 부과하고, 만일 이 시간의 전기 사용량이 평소의 절반을 넘을 경우 범칙금까지 포함해 4배의 전기료를 부과했다. 그만큼 전력난이 심각했던 것이다. 게다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낮은 전력 효율이다. 특히 높은 배전 계통 손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생산 활동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95만 달러를 들여 전력 수요가 높은 자바 섬 3개 도시에 배전 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배전 시스템이 유사한 스마랑 시에서는 배전 자동화 시스템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KOICA는 '배전자동화시스템DAS'의 시범 사업 결과, 원격으로 배전 개폐기를 개폐해 정전 시간과 정전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DAS' 확대 등 배전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3개 도시 배전 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자동화 시범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95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DAS' 시범 사업

22 INDONESIA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국내 취업 기회 확대

한 · 인니 기술문화협력 센터 건립 사업

Project for Korea-Indonesia Technical&Cultural Cooperation Center, Jakarta

2004년 8월부터 우리나라는 고용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사전 교육을 위해 한 · 인니 기술문화협력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3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인도네시아에 강의실과 어학실습실, 기숙사를 갖춘 훈련센터를 신축하고 컴퓨터와 영상기기 등 교육용 기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자문을 실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고용 허가제 프로그







램에 따라 한국으로 파견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사전 교육을 강화시켜 국내 취업 기회를 확대시키고,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노동 인력과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고용 허가제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11월 18일 자카르타 시라카스에서 마침내 한 · 인니 기술문화협력 센터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준공식에는 김호영 주 인도네시아 대사, 조원호 KOICA 이사, 이종선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그리고 'Erman Suparno'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 동부 자카르타 시장 등 약 2백여 명이 참석했다. 'Erman Suparno' 장관은, "기술문화협력 센터가 양국 간 기술 문화 협력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KOICA에 감사를 표했다.

사업명 한 · 인니 기술문화협력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 센터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23 INDONESIA 2010년까지 60만 IT 전문가를 배출한다!

ICT 교육 센터 지원 사업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Korea - Indonesia ICT Training Center

인도네시아는 1만8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지리적 특성상 고정 회선 설치가 어려워 통신 인프라가 열악하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내 전반에 걸쳐 IT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 사회 발전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설치와 국가의 정보 체계 구축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008년까지 4만 명의 ICT 강사, 2010년까지 60만 명의 ICT 전문가를 배출한다는 'TKTI 정책(2004)' 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총 890만 달러를 투입해 버카시Bekasi 지역에 ICT 교육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수도 자카르타 인근에 최첨단 ICT 교육 센터를 구축해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확산시켜,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KOICA는 교육실, 세미나실 등 4개동의 교육 센터를 신축하고,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학사 관리 운영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교육 센터 관리자와 실무자 8명을 2주간 국내로 초청해 센터 운영과 교육 과정 개발 방법론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과정 운영에 대한 자문을 했다.

사업명 한 · 인도네시아 ICT 교육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890만 달러 | **지원 내역** 교육실, 세미나실 건축, 네트워크와 관리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제공



24 INDONESIA 인도네시아 고위급 공직자도 교육시켜

정부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for Public Officials for Government Innovation

32년간의 수하르토 대통령 독재 이후 지속된 정치적 혼란 속에서 2004년 10월, 마침내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선 대통령 유도요노가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정부 개혁 · 부정부패 타파 · 경제 회복 등 정부를 혁신하라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힘입어 탄생한 유도요노 정부는 중앙 행정 기관과 지방 행정 기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부패척결합동팀'을 가동하는 등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인도네시아의 국가청렴도 지수는 163개국 중 130위로, 부패 지수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 2006년 12월 유도유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개발과 정부 혁신 경험을 배우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7개 부처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65만 달러를 들여 정부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에 착수했다. KOICA는 인도네시아 국가 사무처의 주관으로 행정개혁부 · 반부패위원회 · 공공행정연구원 · 국가개발기획청 · 대검찰청 · 재무부 소속 공무원 1백여 명을 초청해 총 6회의 연수를 실시했다. 참가자 직급에 따라 고위급 정책 결정자 과정과 중간 관리자급 과정으로 분류해 연수를 진행하고, 소속 업무와 연관한 교육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구에 맞춰 추진했다. 또한 전문가 4명을 4주간 현지에 파견해 행정 관리와 개혁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본국에 귀국한 연수생들의 액션 플랜 실행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멈추지 않았다. KOICA는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개혁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사업명 정부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65만 달러 | **지원 내역** 공무원 초청 국내 연수, 전문가 파견







25 INDONESIA

매년 강원도의 두 배에 달하는 산림이 파괴되다니…

산림 환경 보전 및 생태 관광 역량 강화 사업

The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for School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tourism Management

아이스크림 · 마가린 · 식용유 · 샴푸 · 초콜릿의 원료는 바로 팜유다.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세계의 허파다. 팜유 재배를 위해 1분마다 축구장 네 개 면적만큼의 인도네시아 산림이 사라진다. 이러한 환경 파괴는 지구 온난화를 낳고, 이는 홍수와 산사태, 물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그 재앙의 피해자는 바로 빈곤층이다.

인도네시아는 전 국토의 48.8%인 8천8백49만5천 헥타르가 열대림 지역으로, 전 세계 열대림의 10%를 차지한다. 열대림 규모만으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다. 산림 면적은 세계 제8위, 7개의 생물 다양성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불법 벌채와 산불 등 자연적 훼손으로 인해 매년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1백50만 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산림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심각한 산림 파괴에 대처하기 위해 2002년 30여 개의 국립공원을 2003년 31개, 2006년 50개까지 확대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산림을 관리할 인력 부족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하급직과 현장 기술직 중심의 산림 공무원 교육 체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산림부와 관련 기관의 중간 관리자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림 보전 및 생태 관광'과 관련된 10개월의 장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 중에 있다. KOICA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의사 결정자와 주민 대표, 시민 단체 대표 등에게도 적용되어 산림 보전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회의 전반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열대림 전문가를 양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인니 산림 환경 보전 및 생태 관광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산림 자원 조사, 생태 관광 전문가 파견 및 국내 초청 연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 기자재 · 컴퓨터 · 소프트웨어 · 차량 지원, 보고르 산림교육훈련원 건물 보수



26 INDONESIA 재난 피해,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줄인다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he Disaster Information Dissemination System in Indonesia

인도네시아는 전 국토가 화산대에 위치하는 섬나라의 특성상 지진해일 등의 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하지만 넓은 국토에 비해 조기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조기 경보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매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조기 경보 경로 조사와 실행 계획 연구 및 휴대폰을 이용한 재난 정보 전파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자카르타 · 서수마트라 · 족자카르타 · 발리 등 재해 빈발 4개 지역에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상황전파가 재난 관련 기관에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는 '상황전파 시스템SafeOn' 을 마련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기상지질센터BMG' 에서 재난 발생 상황을 핸드폰으로 전파할 수 있는 '재난 문자방송 서비스 시스템CBS' 을 구축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상황전파 시스템과 재난 문자방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자재를 제공했다. 아울러 재난 관리와 대처를 위한 기관 간 업무를 조율했다. KOICA의 지원 사업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은 다른 개도국에서도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필요한 시스템이란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재난 문자방송 서비스 시스템 구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27 INDONESIA 도로 개발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

수마트라 섬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on Arterial Road Network in Sumatra Island

수마트라 섬은 석유와 석탄 등 풍부한 자원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섬이다. 하지만 도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막대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3개 국도 일부는 파손이 심한 데다 선형이 불량하고, 보조 간선도로마저 불충분한 상태다. 더욱이 술라웨시, 킬리만탄, 자바 섬의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는 반면 수마트라 섬은 일부 지역에 대한 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만 실시되어, 섬 전체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수마트라 섬 간선도로망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도로 계획뿐만 아니라 풍부한 유전과 광물자원 개발 등 지역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 성장의 근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를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28 INDONESIA 열대림 파괴를 막아야죠!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사업

The Project of Forest Tree Seed Sources Management and Development



인도네시아는 국토 면적의 56.7%인 약 1억8백57만1천 헥타르가 산림이다. 이는 남한의 11배에 달하는 면적이며 동아시아 열대림의 45%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주로 서자바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만 일어나던 열대림 훼손이 최근에는 경작지 개간과 산업화에 따른 공장 증설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열대림 훼손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열대림의 황폐화와 산림 면적의 감소는 4백만 명에 달하는 고용 인력과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는 목재 관련 사업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서 산림 복원을 위한 우량 임목 종자 개발과 양묘와 조림 기술 개발을 추진하면서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임업 기술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240만 달러를 투입해 열대림 파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사업 당시 지원한 양묘 센터에서 생산한 우량 묘목으로 시험림을 조성하는 중이다. 또한 169ha에 달하는 1차 사업지의 사후 관리를 위해 우량 묘목 생산 체계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이는 KOICA가 이미 임목 개량과 양묘장 조성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열대림 황폐화 방지를 위한 우수 종자 보급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시도되는 2단계 사업이라는 데 한층 의미가 있다.

사업명 인도네시아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24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험지 조성, 묘목 생산 등 산림 사업, 종자 관리동 등 건축 · 설비, 종자 관리, 임목 육종 등 분야별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

29 INDONESIA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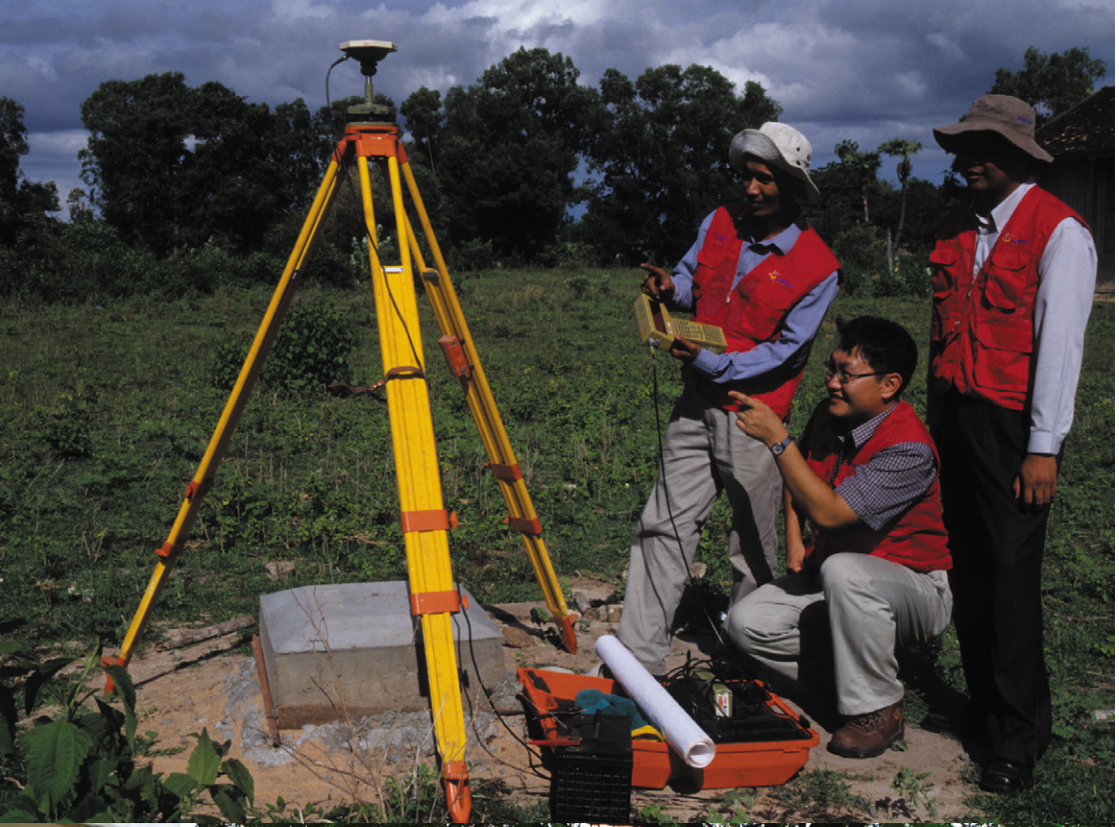
한 · 인니 산림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 사업

Project for adaptation and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in Forestry Sector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3위의 열대림 보유국이다. 그러나 1990~2005년까지 매년 약 1백80만 헥타르의 산림이 감소되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뿐 아니라 국제 협력을 통해 산림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7월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 변화에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특히 기후 변화 협약 산림 분야 협상에서 양국의 공동 협력과 대응을 위해 신규 조림 · 재조림 · 청정개발체제A/R CDM를 비롯하여 '산림이 농업이나 도로 및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REDD' 등 관련 분야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KOICA는 2008~2012년까지 500만 달러를 투입해 인도네시아 조림 및 재조림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차량과 사무장비 등 기자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조림 관계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KOICA는 인도네시아 중점 원조 사업인 산림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양국 간의 산림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한 · 인니 산림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2년 | **사업 규모** 500만 달러 | **지원 내역** 신규 조림 · 재조림 · 청정개발체제(CDM) 타당성 연구 사업 지원, 청정개발체제(CDM), 조림 등 유관 전문가 파견, 차량 및 사무장비 등 기자재 제공, 조림 및 관리 관련 연수 인력 초청, 국제 심포지엄, 워크숍 개최





CAMBODIA

캄보디아는 지난 10여 년간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인구 중 4백60만 명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글 · 장봉희

캄보디아

일반 공무원 월급은 30~40달러, 국장급 공무원의 월급은 1백 달러 미만이다. 공무원들조차 부업 없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극소수 상위 계층은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는 등 엄청난 부를 독점하고 있다. 궁핍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일상이 되어 버렸고, 이는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며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KOICA는 캄보디아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 외에도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 유엔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캄보디아 · 라오스 · 인도네시아 · 스리랑카 등 4개국 16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새마을운동 시범 사업이 그것이다. KOICA는 이들 국가에게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인프라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이루어주고 있다.



국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정체** 입헌군주제 **기후** 열대 몬순 기후, 고온 다습 **인구** 약1천3백39만 명(2008년 기준) **면적** 181,035㎢(남한의 약 1.8배) **1인당 국민소득** 5백89달러(2007년 기준) **수도** 프놈펜(Phnom Penh) **민족** 크메르족(90%), 기타 소수 민족(베트남 참족, 고산족 등) **문자 해독률** 69.6%(2004년 기준, 15세 이상) **종교** 소승불교(90%), 회교 등 **공용어** 크메르어(크마에), 불어

| 캄보디아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전국 국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 인구 비율** 2004년 34.7%, 1993 · 1994년 전국 통계치가 없어 전국의 56% 지역만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1993 · 1994년에는 39%였으나 2004년에는 28%로 개선 • **전국의 식량 빈곤층 이하의 인구 비율** 2004년 19.7%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전국 초등학교 입학률** 2001년 81%, 2005년에도 81%로 변화 없음. 그러나 6~14세 아동 중 미취학 비율은 1999년 35%에서 2005년 18.7%로 하락 • **초등 교육에서의 남학생 대비 여학생 비율** 2001년 87%에서 2005년 89.5%, 중등 교육에서는 63%에서 77%로 상승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고등 교육에서의 남학생 대비 여학생 비율** 2001년 48%에서 2005년 59.9%, 전문직 교육에서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01년 38%에서 2005년 45.6%로 상승 • **농업 분야와 산업 분야 임금 근로에서 여성 비율** 2015년까지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2005년 초과 달성. 단, 서비스 분야에서 여성 비율은 1998년 21%에서 2005년 27%로 아직 미흡
아동 사망률 감소	• **신생아 1천 명당 5세 이하 사망률** 1998년 1백24명에서 2005년 82명으로 크게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결혼한 여성의 현대식 출산 시설 사용 비율** 2000년 18.5%에서 2005년 20.1%로 향상. 그러나 이는 2005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수치임.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 중 HIV 감염 비율** 1997년 3.3%에서 2005년 1.9%로 목표치 초과 달성 • **보건 분야 보고에 따른 말라리아 사망 비율** 2000년 0.4%에서 2005년 0.36%, 뎅기열 사망 비율은 2003년 1.5%에서 2005년 0.74%. 하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있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가구당 목재 연료 의존도** 1993년 92%에서 2005년 83.9%로 목표치인 70%에 미달 • **안전한 식수 접근이 가능한 지방 인구 비율** 1998년 24%에서 2005년 41.6%, 도시 인구 비율은 60%에서 85.8%로 상승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대부분 개발 파트너 해당 사항으로 캄보디아 해당 목표치는 불분명함. • **연간 민간인 사망자 수** 1993년 1천6백91명에서 2005년 7백97명으로 2005년 목표치인 5백 명을 달성하지 못함.

01 CAMBODIA 중앙선도, 가로등도 없어요

캄포트~트라팡로포 도로 개 · 보수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사업

The Feasibility Study and Detailed Design on the Rehabilitation of the Kampot~Trapang Ropaou Road

캄보디아 도로에는 중앙선이나 가로등도 없으며 역주행도 다반사다. 캄보디아에서는 백미러도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자연스럽다. 손잡이 하나 없는 지붕 위에 사람들을 빼곡히 태우고 버스는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린다.

'앙코르와트'라는 크메르 제국의 찬란한 유적을 가진 캄보디아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5백89달러의 최빈국이다. 도로 정비는 캄보디아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캄보디아 정부 역시 도로망 정비를 최우선 사업으로 채택하고,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데다 파손된 부분이 많아 상시적인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을 세우고 프놈펜 남부 지역 3번과 4번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1~2002년까지 60만 달러를 들여 간선도로망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2명의 조사단을 파견해 기존 도로를 2차선 도로로 개 · 보수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했다. 타당성 조사에는 공사비 검토와 사업 시행 전후의 편익 산정 및 경제성 분석이 포함됐고, 실시 설계도와 공사 시방서, 입찰 관계 서류가 작성되었다. 또한 관련자 3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컴퓨터와 사무기기 등 기자재를 제공했다.

KOICA의 타당성 조사 결과 캄포트~트라팡로포 구간은 열악한 도로 상태로 인해 물류 수송과 차량 통행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도로의 개 · 보수가 시급히 요

구되는 상황이었다. 3번과 4번 도로가 주요 간선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선된다면 수출입 물류 수송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간선도로망 완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이 사업은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에 처음으로 실시된 도로 분야 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컸다. KOICA는 캄보디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도로 분야 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사업명 캄보디아 캄포트~트라팡로포 도로 개 · 보수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6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존 도로를 왕복 2차선 도로로 보수하기 위한 조사, 실시 설계도 작성

02 CAMBO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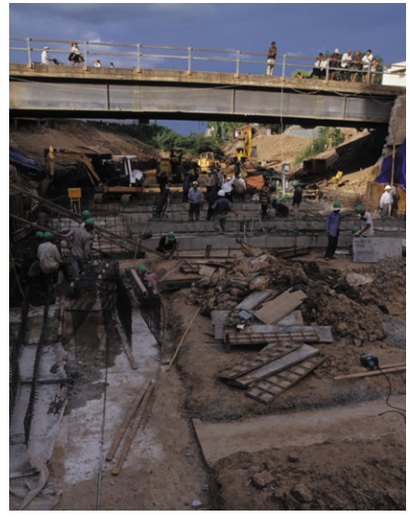
물이 콸콸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타목 저수지 복구 사업

Tamouk Reservoir Rehabilitation Project

캄보디아에서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생명을 잃거나 병에 걸린다. 더러운 물을 마시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충분한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에서 물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곳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대개 빗물을 받아 먹는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 물을 구하러 다니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17세기부터 시작된 서구 열강의 침략과 내전을 겪으며 무장 단체인 크메르 루즈Khmer Rouge의 폭정으로 인해 캄보디아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 캄보디아에서 농업은 국가 경제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지만 농업 생산성은





매우 낮다. 저수지와 제방이 부족해 농업용수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캄보디아는 풍부한 수자원을 가진 나라다. 엄청난 양의 수자원을 갖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빈곤에 처해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다. 관개수로와 저수지 건설은 농업 개발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다.



캄보디아 정부는 저수지와 제방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메콩강위원회MRC' 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의 예비 조사를 통해 타목 저수지를 복구하는 게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장기간 관리 소홀과 내전으로 인해 황폐화된 타목 저수지 관개 시설의 보수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3~2004년까지 137만 달러를 투입해 'Preaek Pnov' 주 취수문 보수와 타목 저수지 북측 제방에 있는 3개 보조 취수문 보수를 비롯하여 암거를 보수하고, 간선 수로 건설을 위한 사업을 실시했다. 공사가 끝난 후 타목 저수지는 프놈펜 외곽 지역인 우동Udong 지역에 이르기까지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쌀 생산량은 1헥타르당 2.0톤에서 3.5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KOICA의 사업이 시작되기 전 타목 저수지 주변은 황무지였지만 사업 종료 후 2007년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수지 주변의 대단위 양식장이 50개에서 3백30개로 크게 늘어나고, 몇몇 제조 공장이 입주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었다.

사업명 캄보디아 타목 저수지 복구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4년 | **사업 규모** 137만 달러 | **지원 내역** 저수지 조성 및 시공, 전문가 파견

03 CAMBODIA

완전히 사라져버린 지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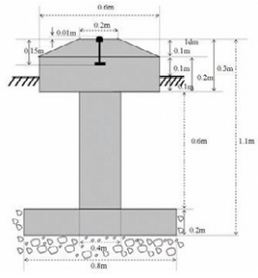
측량 기준점 설치 기초 조사 사업

The Basic Study on the Installation of Geodetic Control Points



측량은 어떤 부분의 위치와 형상, 면적을 측정해 그림이나 도표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공사의 계획 및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량은 국토 개발 사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측량에서 기준점이란 가장 기초적인 시설물로, 기준점 없이는 측량의 어떤 기술도 적용될 수 없다. 그렇기에 기준점은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1975년 크메르 루즈 집권 이후 폭정과 내전으로 인해 측량





과 지적 자료가 거의 소실된 탓에 새로운 기준점을 설치해야만 했다. 이는 국토 관리와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다. 캄보디아 국토관리부는 측량 기준점 설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3~2004년까지 120만 달러를 투입해 10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사단을 캄보디아 중서부 '깜퐁치낭Kampong Chhnang' 주에 파견하고 조사를 벌였다. KOICA는 이곳에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측량으로 1등점 15점과 2등점 35~40점을 설치하고, 4륜구동 차량을 비롯한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캄보디아 기술자를 대상으로 2주에 걸쳐 현지 교육을 시키고, 측량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인구 40만의 신흥 개발 지역인 깜퐁치낭은 철도와 국도, 해운이 교차되는 교통 요충지이자 국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측량 기준점의 설치 효과는 매우 컸다. KOICA는 우리나라의 측량 기술을 캄보디아에 이전시켜 앞으로 캄보디아가 자체적으로 기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사업명 캄보디아 측량 기준점 설치 기초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4년 | **사업 규모** 12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제공, 전문가 파견, 연수생 국내 초청, 관련 기술 이전

04 CAMBODIA

물만 충분하면 3모작도 가능한데…

크랑폰리 강 유역 다목적 수자원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Feasibility Study for Multi-purpos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Krang Ponley River Basin

캄보디아에서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은 벼농사다. 캄보디아 기후에서는 물만 충분하다면 3모작도 가능하다. 농사만 잘 지으면 소득이 증가하고, 농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수자원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우기 때는 호수의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건기 때는 저수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는다.

수도 프놈펜에서 북서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크랑폰리 강이 있다. 캄보디아 국토의 중서부 지역인 크랑폰리 강은 2003년 지역 발전을 위한 최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력 발전,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랑폰리 강의 기존 수리 시설을 복구하고, 신규 설비를 마련하는 게 절실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크랑폰리 강 유역의 다목적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74만 달러를 들여 6개월간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지질과 토양, 수질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자료 수집과 조사 결과 분석, 환경 영향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자를 2주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차량을 포함한 기자재를 제공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 농업 수리 시설의 개량과 신규 설비로 저수지의 수리 기능이 보강되었다.

KOICA의 지원 사업으로 농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 생산과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농업 시스템이 구축되자 농업 생산성이 안정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었다. KOICA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개발 기술과 관리 경험을 전수시켜 캄보디아 수자원 개발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사업명 캄보디아 크랑폰리 강 유역 다목적 수자원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74만 달러 | **지원 내역** 지형도 작성, 수리 수문 분석, 수자원 시설물 조사, 관개 및 농업 조사, 수력발전 조사, 기계 설비 조사, 경제성 분석, 개념 및 기본 설계 실시

05 CAMBO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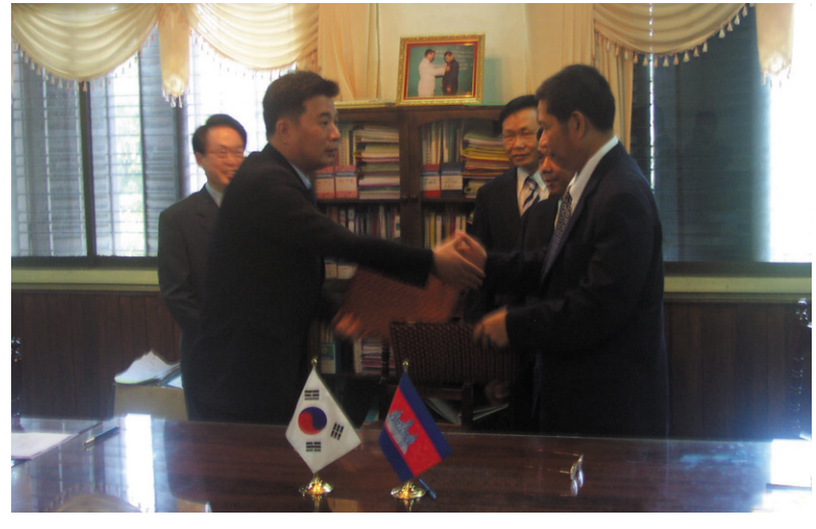
캄보디아도 국제 무대로 나가야죠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능력 배양 사업

The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in Trade in Goods and Services

캄보디아는 지난 2004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다. 하지만 회원국이 갖춰야 할 지적 재산권을 비롯하여 위생과 검역, 통관과 제재 절차 같은 국제 통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캄보디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무 과제를 수행하고, 캄보디아 산업 구조 발전과 연계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87만 달러를 들여 캄보디아 정부의 무역 관련 인력과 사업 종사자들과 함께 'WTO' 이행과 주요 무역 규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의 이행 과제, '자유무역협정FTA', 외국인 직접 투자 등 7개 분야에 대해 공동 연구를 실시했다. 또한 무역 통상 분야 공무원을 2주씩 4회에 걸쳐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공동 연구 연락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기자재를 제공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캄보디아는 'WTO'와 'ASEAN'의 이행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 제언과 교육을 받았고, 자유무역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 무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능력 배양을 위한 KOICA의 정책 대안은 장기적 경제 발전을 위한 캄보디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업명 캄보디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능력 배양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87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및 7개 분야 공동 연구, 공동 연구 연락 사무소 개설,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



06 CAMBODIA

이 아이도, 저 아이도 에이즈 환자래요

캄보디아 국립 소아병원 현대화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Modern Hospital for Cambodia Children

"KOICA의 지원으로 중환자실이 생겼습니다. 인공호흡기 등 최신 장비들도 갖추었습니다. KOICA가 새로운 병동을 짓기 전에는 엑스레이 검사와 초음파 검사실이 병동에서 50m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건물 안에 모든 시설이 모여 있어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캄보디아 국립 소아병원 부원장, 크단 유바타 박사의 말이다.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체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열악하다. 현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한 나라였다. 캄보디아 아이들은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유아와 아동 사망률이 높은 데다 영양실조 같은 소아 보건 문제가 심각하다. 유엔이 선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하나가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이 보건 분야다. 캄보디아 정부는 프놈펜에 위치한 국립 소아병원을 현대화 시키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국립 소아병원은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아이들만 진료하는 국립 병원이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240만 달러를 지원해 1백50개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소아병원을 짓고, X-ray기 · 초음파 장비 · 수술대 · 앰뷸런스 등

최신 의료 장비를 제공해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의사 3명과 간호사 2명 등 의료진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으로 이루어진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했다.

KOICA의 지원으로 국립 소아병원은 연간 7만여 명의 아이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되었다. 'Chhour Y Meng' 병원장은, "KOICA의 지원이 캄보디아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열대병 연구를 하는 데 한국 의료 장비의 기여도가 큽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소아병원의 현대화가 이루어진 후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치료율이 높아졌으며, 유아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명 캄보디아 국립 소아병원 현대화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240만 달러 | **지원 내역** 150병상 규모의 3층 건물 건축, 의사 및 간호사 초청 연수



07 CAMBODIA

앙코르와트 보호는 인류의 책임이다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 사업

Project for Construction of Siem Reap Bypass Road in Cambodia







캄보디아는 내전으로 인해 붕괴된 사회 체계와 경제적 인프라 및 오랜 기간 외국의 원조에 익숙해진 경제 구조 탓에 제조업과 농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관광업 발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캄보디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계적인 유적지인 앙코르와트다. 앙코르와트를 보기 위해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캄보디아의 작은 도시 시엠립을 방문한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교통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시엠립의 도로는 앙코르와트를 관통하고 있어 이로 인한 유적의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앙코르와트를 관통하는 도로로 인한 유적 훼손을 막기 위해 우회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2년 앙코르와트 진입 도로를 외곽으로 우회시키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160만 달러를 투입해 앙코르와트 인근 2개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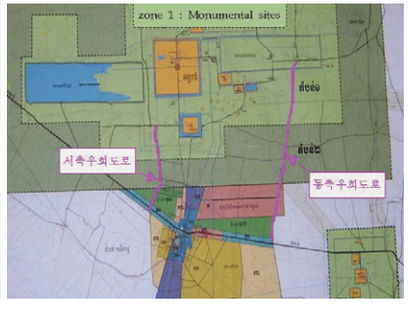
15.1km의 우회도로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사 후 3~5m의 비포장 도로는 자갈과 토사로 포장한 6m 이상의 2차선 도로로 확장되었다. 그동안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기존의 도로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KOICA는 앙코르와트라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캄보디아 관광 산업을 증진시켜 경제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사업명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160만 달러 | **지원 내역** 양코르와트 인근 2개 구간의 우회도로 확장 공사









08 CAMBODIA

캄보디아 최초의 지적도 작성

측량 기준점 설치 2차 사업

The installation of National Geodetic Control Points

측량은 국가 경제 개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측량 성과물을 기초로 각종 공사의 계획과 설계, 시공 및 국토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는 내전을 거치며 측량과 지적 자료 등 토지 정보가 80% 이상 소실되어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가적인 측량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국토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었다.

KOICA는 기준점 설치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원활한 국토 관리와 개발을 위





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5~2006년까지 120만 달러를 투입해 인구 40만의 교통 요충지인 푸삿Pursat 주와 인접 지역에 1등 기준점 16점과 2등 기준점 52점 등 총 68점의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관련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전수했다. 또한 정책 결정자 3명과 실무자 6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준점 관리 방법과 '위성항법장치 GPS' 측량법을 교육했다. 그 밖에 'GPS' 장비 등 기자재를 제공해 향후 캄보디아가 독자적으로 측량 기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KOICA가 제공한 기준점을 활용해 지적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KOICA의 지원으로 국가 개발과 계획 수립을 이룩할 공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기반을 증대시키고, 지역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경제 개발의 토대가 될 것이다.

사업명 캄보디아 측량 기준점 설치 2차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120만 달러 | **지원 내역** 측량 기준점 설치, 연수생 초청, GPS 전산 장비 등 기자재 제공

09
CAMBODIA

집에 수도와 화장실이 생겼어요

농촌 지역 개발 사업
The Project for the Rural Development in Kampong Cham Province

캄보디아에서는 물을 기준으로 집을 세 종류로 나눈다. 첫째는 집에서 물을 쓸 수 있는 집, 둘째는 150m 이내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집, 셋째는 강물이나 고인 물을 퍼다 쓰는 집이다. 그래서 '물 쓰듯 한다' 는 말은 캄보디아에서는 결코 쓸 수 없는 말이다. 캄보디아의 농촌은 매우 열악하다. 전기, 수도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설비도 없으며 교육과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도 형편없다. 캄보디아 인구의 84%는 낙후한 농촌지역에 거주한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는 빈곤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2004년 유엔 통계에 의하면 캄보디아 전체에서 15%의 가정만이 전기를 쓸 수 있고, 14%의 가정만이 화장실을 갖고 있었다. 전기를 쓸 수 있고 화장실도 갖춘 가구는 11%에 불과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농촌에 살면서 전기를 쓸 수 있고 화장실을 갖춘 집은 고작 5.1%에 불과하다. 캄보디아에서 대부분의 집의 기능은 단지 그늘을 만들거나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붕이 없는 곳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많으므로 캄보디아는 농촌 개발이 선행되지 않는 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캄보디아 농촌개발부는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 개발 모델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실정에 맞는 농촌 지역 개발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수도 프놈펜에서 북동쪽으로 50km 떨어진 캄퐁참 주의 3개 마을을 선정한 후 농촌 개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마을별로 구체적 시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한편 중앙과 지방 공무원, 지역 주민을 국내로 초청해 농촌 개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크숍을 개최해 사업 성과를 평가했다. KOICA는 이 지원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 가능한 농촌 개발 모델을 정립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시켜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업명 캄보디아 농촌 지역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마을별 구체적 시범 사업 계획 수립, 실행 관계자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교육 및 컨설팅










10 CAMBODIA 수자원은 많은데 관리를 못한다

수자원 개발 종합 계획 수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a Web Portal for Public ServicesThe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84%가 농촌에 거주하며, 70% 이상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한다. 농업국 캄보디아에서 수자원의 효과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강우량의 불균형과 내전으로 인한 인프라 파괴, 관측 시설의 부족 등으로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수자원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캄보디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표제 사업을 실시했다. KOICA는 캄보디아의 수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과 실행 계획을 수립했으며, 잠재적 수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2회에 걸쳐 2주간 수자원 정책 수립과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캄보디아는 아열대 기후와 풍부한 수자원으로 농업 잠재력이 높은 나라다. KOICA는 캄보디아의 수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와 시설 계획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캄보디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사업명 캄보디아 수자원 개발 종합 계획 수립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수자원 종합 개발 정책 수립, 관련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관측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연수생 초청



11 CAMBODIA

이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까

농촌 지역 개발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Formulation of Rural Development Policy and Strategy for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가난한 캄보디아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할 때가 많다. 시골에서 아이들은 소를 보살피고 소똥을 맨손으로 개서 바구니에 담고 장작을 나른다. 학교에는 하루 이틀 안 가도 상관없지만 장작이 없으면 당장 밥을 못하므로 학교 가는 일보다 장작을 구하는 일이 더 급하다.

캄보디아 농촌의 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전기와 수도 같은 기초적인 인프라는 극히 취약하고, 교육과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 또한 최하위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40년 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농

촌 개발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같은 농촌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자 농촌개발부를 설립했으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농촌개발부는 농촌 개발의 장기적 로드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했고,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의 선정과 방식 등 정책의 효과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개발부는 지역 개발 정책의 수립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한국농촌공사' 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의 일반 경제는 물론 농촌 경제와 사회 실상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농촌 부문의 정책과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촌개발부의 기능과 역할뿐 아니라 농촌 개발과 관련된 다른 분야의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의 협조 속에 추진해 나갈 방안을 제시했다. KOICA는 지금까지 농촌 개발 등 지역 개발 촉진과 관련된 극히 제한적인 분야의 사업만을 실시해 왔지만 이 사업을 계기로 지원의 범위를 정책과 제도 영역으로까지 확대시켰다.

사업명 캄보디아 농촌 지역 개발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농촌 개발의 장기적 로드맵 구성









12 CAMBODIA

캄보디아에도 한국형 증권시장이 들어선다

증권시장 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Project of Capacity Building for Capital Market Development







과거 우리나라가 빠르고 견실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열악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외자를 유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본 유치를 통해 저개발 상태인 국내 자원과 인력을 개발하고, 국제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 외자 유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이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개도국은 열악한 금융 인프라로 인해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KOICA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금융 시스템 설계 기술을 캄보디아에 전달함으로써 외국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6~2008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캄보디아 증권시장 개설을 위한 사업을 실시했다. 2009년 캄보디아가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기까지 KOICA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로 하여금 법령 제정 및 제도 구축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려주었으며, 정책 담당자 · 증권거래 전문가 · 실무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제반 사업을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자문과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의 설립은 기업이 공개된 시장에서 저비용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국내 산업과 자본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증권거래소는 시장 경제의 발전이란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 투명한 기업 운영과 공정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KOICA는 금융과 자본 시장 분야에서 캄보디아와 다면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구축된 교류 협력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증권 매매 거래 시스템을 비롯하여 공시 · 시장 감시 시스템 등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설비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것으로 본다.

사업명 캄보디아 증권시장 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법령 제정 및 제도 구축 지원, 정책 담당자 · 증권거래 전문가 · 실무 관리자에 대한 교육

13 CAMBODIA

검정제도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다

국가기술자격제도 구축 지원 사업

Project for the Creation o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인구의 35%가 극빈층인 캄보디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외적으로 고립된 채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 경제적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대외 개방을 표방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있으며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산업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술자격 검정제도 구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는 2006년부터 시행된 캄보디아 '국가전략개발계획' 과 발맞춰 인적 자원의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자격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이

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120만 달러를 투입해 국가 검정 기관을 설립하고, 법규 등 7개 분야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검정제도에 관한 마스터플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전산 및 사무 장비를 제공해 캄보디아 '기술자격검정제도' 의 국가적 표준을 만들었다. KOICA는 이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을 창출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명 캄보디아 국가기술자격제도 구축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12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등 자격 제도 구축, 연수생 초청, 기자재 제공






14 CAMBODIA

지방 병원의 열악함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캄퐁츠낭 지역 병원 의료 서비스 강화 사업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Cambodia Friendship Building in Kampong Chhnang

캄퐁츠낭 지역 병원에는 닭과 오리가 돌아다니고 돼지도 키운다. 심지어 벼도 자라고 있다. 이제 막 진료를 마치고 나온 할머니가 자기 손으로 힘겹게 링거를 들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는다. 캄보디아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캄보디아는 오랜 식민 통치와 내전으로 인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민 보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생 문제와 영양 결핍으로 인한 결핵, 에이즈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는 한풀 꺾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때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에이즈 환자가 증가한 국가였다. 때문에 프놈펜에 비해 의료 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역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결핵과 에이즈 진료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퐁츠낭 지역 병원의 의료 서비스 강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







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100만 달러를 들여 캄퐁츠낭 지역 병원에 응급실과 HIV/AIDS 및 결핵 병동을 신축하고 컴퓨터와 의료 장비, 앰뷸런스 등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병원 관리 전문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병원 관리와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병원 관리자와 의료진 12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2009년 1월 22일 마침내 응급 병동과 결핵 · 에이즈 병동 준공식이 KOICA 임원진과 캄보디아 정부 인사 및 병원 관계자, 지역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KOICA의 지원으로 설립된 캄퐁츠낭 병원은 앞으로도 보건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방 빈민층의 보건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업명 캄보디아 캄퐁츠낭 지역 병원 의료 서비스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응급 병동 및 결핵 · 에이즈 병동 신축, 일부 건물 개 · 보수, 외과 수술 장비 등 응급실 운영을 위한 장비와 기자재 제공



15 CAMBODIA 거대한 제방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바테이 지역 관개 수로 건설 사업

Construction of Irrigation Canal in Batheay Distr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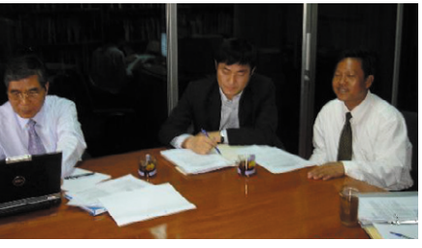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내려다본 거대한 제방의 규모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방의 길이가 장장 13km가 넘으니까요.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땅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연중 3모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008년 사업 중간 평가를 위해 현지를 방문한 전문가의 말이다. 1인당 연 소득이 5백60달러에 불과한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84%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다. 그러나 농토의 77%가 천수답이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일이 빈번하다. 더구나 기존 관개 시설은 20여 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바테이 지역은 물 관리 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중 하나다. 8, 9월 우기 때는 강과 호수가 범람해 농토는 물론 일부 도로까지 물에 잠겨버리고, 11월에서 5월까지 건기 때는 일부 저지대를 제외하고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조차 구할 수 없다. 이렇게 건 · 우기 사이 수자원의 극단적인 불균형은 지역의 농업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바테이 지역의 낙후된 관개 수로와 제방을 정비하고, 수자원 관리를 위한 홍수 조절 및 시설물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홍수가 났을 때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을 건설하고, 통행을 위해 제방 위에 도로를 만들었다. 또한 4km에 달하는 8개의 관개 수로도 건설했다. 토목 공사 외에도 3명의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의 홍수 조절 중 ·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의 운영 및 관리 지침서를 작성했다. 한편 수자원 관리 담당자 4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차량 2대를 비롯한 기자재도 제공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이제 바테이 지역에서는 3모작이 가능하고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바테이 주변 20개 마을 주민 3만여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캄보디아 바테이 지역 관개 수로 건설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제방 건설 및 접근 도로 포장, 용수 공급용 수리 시설 전문가 파견

16
CAMBODIA

쾌적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다

시엠립 우회도로 포장 사업

The Project for the Pavement of Siem Reap Bypass Road

앙코르와트 유적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인류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최빈국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유일한 관광 수입원이다. 캄보디아는 지난 2005~2006년까지 KOICA의 지원으로 160만 달러 규모의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시엠립 지역의 도로가 앙코르와트를 관통하면서 유적지의 훼손이 심각해지자 유적지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도로의 포장이 홍토Laterite로 되어 있어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는 데다 지속적으로 노면이 손상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이 도로를 포장해야 했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398만 달러를 투입해 시엠립 우회도로의 홍토 포장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길이 15.2km, 폭 9m의 도로를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새롭게 포장해 우회도로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KOICA는 포장 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했다. 공사 후에는 감리를 위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관리자와 실무자 각 5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포장 공사가 모두 끝나면 현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홍토 도로가 개선되어 지역 주민과 차량 이용률이 늘어나고, 앙코르와트를 관통하는 기존 도로의 교통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조성될 쾌적한 관광 여건은 캄보디아의 관광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OICA는 앙코르와트를 방문하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원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사업명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포장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398만 달러 | **지원 내역** 홍토 포장 보완, 감리 전문가 파견, 관리자 국내 초청 연수





17 CAMBODIA

인접 국가와의 국경 문제도 해결한다

국토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측량 기준점 설치 사업

Installation of National Geodetic Control Points

산업화와 근대화의 첫걸음은 국토 자원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지도 제작에서 시작된다. 현대적 지적 정보 축적을 위해서는 국가 기준점 설정이 필수적이다. 기준점 없이는 측량 분야의 어떤 기술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측량 기준점 설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정확히 설치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캄보디아의 경우 내전을 거치며 중앙 정부의 지적 정보가 대다수 소실된 상황에서 임의로 기준점을 잡아 지형도를 제작하고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 캄보디아 국토 관리 도시계획건설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측량 기준점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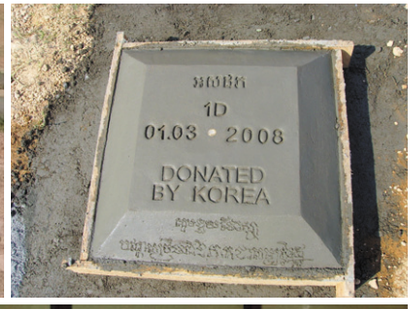


KOICA는 2007~2009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캄보디아 전역을 대상으로 81개의 기준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1등 기준점은 그리니치 천문대의 세계 측량 원점을 표준으로 주어지는 국가 원점 기준이다. 또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상시 관측소를 두 곳에 새로 설치해 위성 정보 수신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설치된 60개의 기준점을 재관측해 더욱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 중이다. 그 밖에 기준점 설치 작업과는 별도로 기준점 측량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하는 측량 장비를 제공하고, 국가 측량 분야의 관리자와 기술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의 국가 측량 기준점 설치 사업은 측량 관련 업무의 기본이 되는 국가 통합 측량망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KOICA의 지원으로 캄보디아는 측량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2등, 3등의 하위 기준점망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형도 · 지적도 · 주제도 등 각종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를 이용한 각종 국토 개발과 관리 계획 수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로 건설 등 캄보디아 국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측량 기준점 설치 사업의 성과는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요즘 제기되기 시작한 베트남과 태국 등 인접 국가와의 국경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명 국토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측량 기준점 설치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위성항법 장치를 활용하는 측량 장비 제공, 기술자 국내 초청











PHILIPP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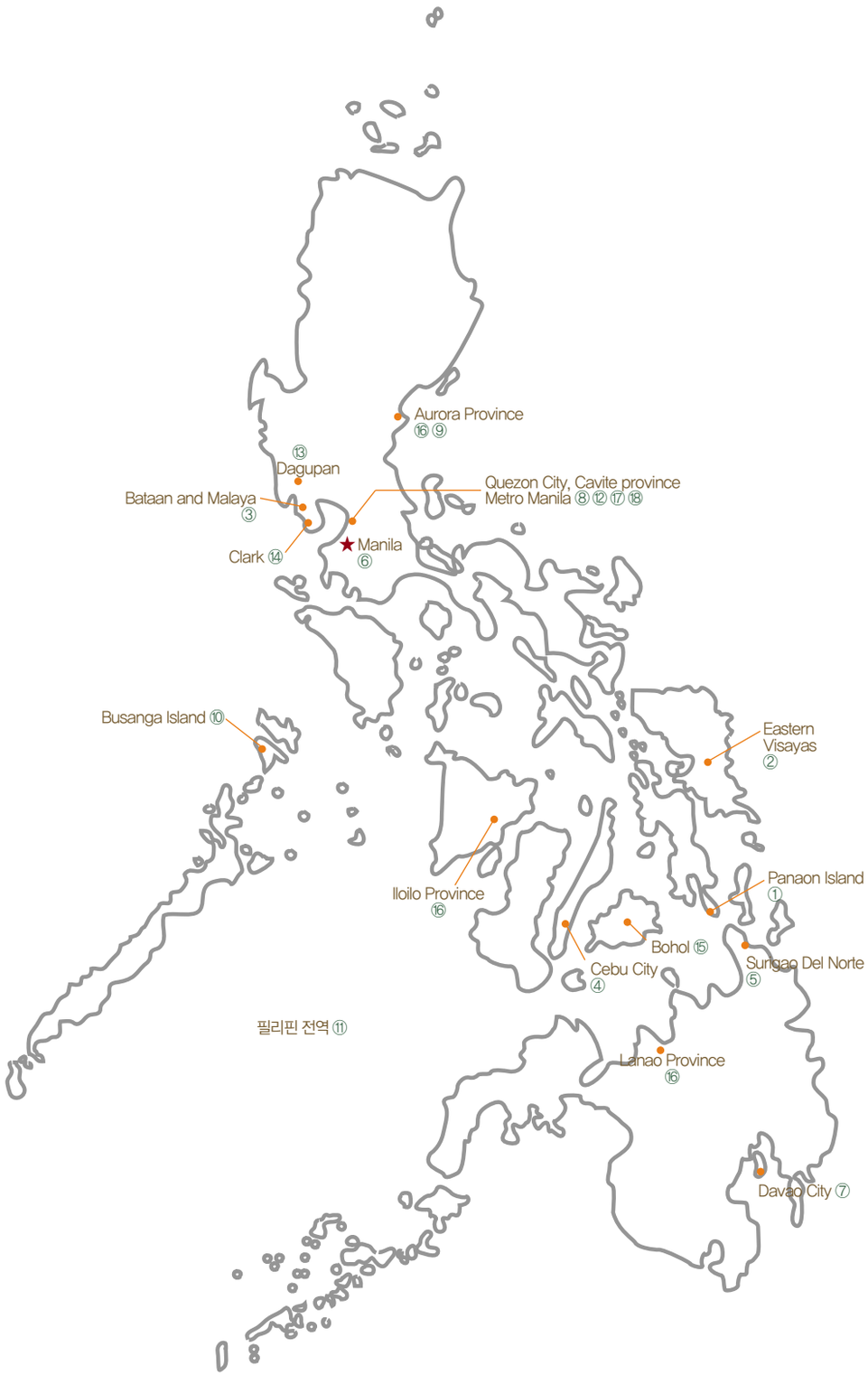
필리핀은 세계적인 휴양지다.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는 1백여 개 이상의 지방어가 사용될 정도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크게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북부 지방의 일루카노,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타갈로그, 세부의 비사얀, 민다나오 지방의 무슬림이 그것이다.

글 · 박준성, 장봉희

필리핀은 1521년부터 1898년까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할 때까지 미국의 식민지였다. 필리핀 국민은 말레이족을 중심으로 중국 · 미국 · 스페인 · 아랍의 후손들이다. 서구의 오랜 식민 통치와 필리핀을 오간 수많은 무역 상인들의 혈통이 뒤섞여 외모와 삶의 방식 모두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모습이 나타난다.

아세안 국가 중 필리핀의 발전 속도는 늦은 편이다. 열악한 경제 사회적 인프라와 인적 기반, 그리고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국민 소득은 정체되어 있다. 극심한 빈부 격차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소득 2백70달러 이하의 극빈층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한다. 근로자의 3분의 1이 종사하는 농업은 생산성이 낮고,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필리핀 정부는 경제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4~2010년까지의 '중기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한편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민다나오 지역 이슬람 세력과의 오랜 분쟁과 빈부 격차로 인한 정국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국명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정체** 대통령제(6년 단임제), 의회는 상하 양원 체제 **기후**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 **인구** 약 8천8백57만 명(2007년 기준) **면적** 300,400㎢(한반도의 1.3배) **1인당 국민소득** 1천2백97달러(2006년 기준) **수도** 마닐라(Manila) **인종** 말레이계가 주종으로, 중국 · 미국 · 스페인계 혼혈 다수 **문자 해독률** 93.9% **종교** 가톨릭(83%), 개신교(9%), 이슬람교(5%), 기타(3%) **공용어** 타갈로그어, 영어



| 필리핀 새천년 개발 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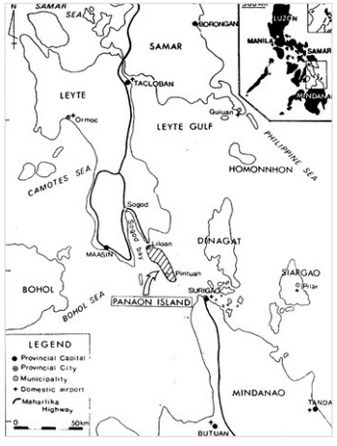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생존선 이하 인구 비율** 1991년 24.3%에서 2003년 13.5%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2000년 96.77%에서 2005년 84.4%로 감소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여학생의 기초 교육 취학률** 2001년 90.9%로 남학생의 89.3%보다 높음.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사망률** 1990년 신생아 1천 명 중 80명 사망에서 2006년 32명으로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1993년 10만 명당 2백9명 사망에서 2006년 1백62명으로 감소, 2015년 목표인 52명 달성은 어려워 보임.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HIV/AIDS는 1986~2006년간 총 2천7백19건 발생 • 매년 발병 건수는 2004년 2백 건에서 2006년 3백 건으로 증가 • 발병 건수 증가에도 불구, 인구의 1% 이하 발병률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말라리아에 따른 사망 건수는 1998년 10만 명당 0.8명에서 2002년 0.1명으로 감소 • 결핵 사망률은 1999년 10만 명당 38.7명에서 2003년 33명으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필리핀 아젠다 21'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침 문서임. 자연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는 구역은 2000년 83곳에서 2006년 1백3곳으로 증가. 도심의 공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함. • **안전한 식수 접근율** 2002년 80.2%에서 2004년 80.4%로 약간 개선. 30%에 달하는 소득 최하위층은 안전한 식수 접근률이 65.4%로, 나머지 상위 70% 소득층의 86.5%에 비해 차이가 큼. • 안전한 식수 및 위생적 화장실 시설 접근율은 2015년 달성 목표인 각 86.8% 및 83.8%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02년 수도권 지역 슬럼 거주자 수** 58만8천8백53명에서 2004년 67만5천명으로 증가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country data 참조

01 PHILIPPINES 필리핀 국토 개발의 기본은 지질도 확보

파나온 섬 지질 조사 사업

The Geological and Geometrical Exploration of Panaon Island



자원이 풍부한 필리핀은 기존 광산의 고갈에 대비하고,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광산 탐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1년 제8차 한 · 필 자원협력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1992년 2월 사마르 · 레이테 지역 파나온 섬에 대한 지질 및 지구화학 탐사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2~1993년까지 14만 달러를 들여 광물 자원 부존 유망 지역인 파나온 섬에 대한 지질도와 지화학도 작성 사업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파나온 섬 일대 대부분의 광산은 '필리핀 단층'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 단층은 파나온 섬 북부 레이테 섬으로 연장되어 금과 은 등의 금광 개발 잠재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KOICA의 지원으로 필리핀 정부는 광물 자원 탐사 기술을 습득하고, 광물 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토 개발의 기본 자료인 지질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직접 금 · 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필리핀 파나온 섬 지질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2~1993년 | **사업 규모** 14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지질도와 지화학도 작성

02 PHILIPPINES 공단 조성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다

동부 비사야스 지역 공단 조성 사업

THE Master Plan And Feasibility Study Of The Eastern Visayas Regional Industrial Center

1988년 필리핀 정부는 지방 분산화 정책을 근거로 '국가중기발전계획(1988~1992)' 을 세우고 대도시 산업 집중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16개 '지방공업단지RIC : Regional Industrial Center'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필리핀 정부는 중동부 비사야스 지역의 공단 조성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해 왔다.

KOICA는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연구원'을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1992~1994년까지 29만 달러를 들여 지방 공업 단지 개발 방향과 토지 이용 및 도로망 계획을 비롯한 하부구조 계획과 실시 계획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KOICA의 조사 보고서는 1994년 6월 관계 기관에 전달되었다. 이로써 필리핀 정부는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지 인력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KOICA의 타당성 조사 결과 타글로반 시의 경우 20년간 9천5백만 페소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중동부 비사야스 지역은 투자 활성화 및 약 3천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명 필리핀 동부 비사야스 지역 공단 조성 사업 | **사업 기간** 1992~1994년 | **사업 규모** 29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하부구조 계획 · 실시 계획에 대한 조사

03 PHILIPPINES 38만 달러를 들여 2천1백 배 효과

바탄~말라야 복합 화력발전소 전환 개발 조사 사업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Conversion of the Bataan and Malaya Gas Turbine Plants

또 정전이야? 밤이면 필리핀에서 종종 듣는 말이다. 비행기조차 수시로 연착해야 할 정도로 필리핀의 전력 사정은 좋지 않다. 필리핀의 밤은 불안하다.

필리핀은 3개의 전력 계통Luzon, Visayas, Mindanao을 운영한다. 그중 가장 큰 루존Luzon 계통의 경우 전력 수요는 연간 6%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늘지 않아 수시로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력 수급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

필리핀 정부는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루존Luzon 지역의 전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발전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바탄-말라야 가스 터빈 발전소를 복합 화력발전소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은 실제로 추진될 경우 그에 따른 부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외국의 유수한 전력 관련 기업에서도 KOICA의 타당성 조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KOICA는 '한국전력기술' 과 함께 1993~1994년까지 38만 달러를 들여 기존의 가스 터빈 발전소를 복합 화력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다. KOICA는 이 사업을 계기로 발전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과 설계 및 운전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외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필리핀 정부로부터 1억 달러 상당의 말라야 화력발전소 1, 2호기 성능 복구 공사와 7억 달러 상당의 일리한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

사업명 필리핀 바탄-말라야 복합 화력발전소 전환 개발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3~1994년 | **사업 규모** 38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타당성 조사

04 PHILIPPINES 교통사고? 이제 문제없습니다

세부 시 공항 도로 표지판 설치 사업

Supply and Installation of Directional Road Signs from Mactan Island to Cebu City



필리핀 제2의 도시인 세부는 중남부 필리핀의 정치 · 경제 · 문화의 중심지다. 세부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자동차 조립 공장과 도로 건설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의 수많은 도시 중 가장 역사적인 도시 세부는 1512년 포르투갈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처음 도착했을 때 이미 집단으로 터전을 이루고 생활할 정도로 발전했던 곳이다. 최근에는 공업과 주요 농산물 수출이 세부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의 막탄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어지는 20km의 도로에는 교통 안내 표지판이 부실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증가하는 관광객과 교통량을 원활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부 '교통공학관리소' 는 1995년 공항 도로 표지판 설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7년까지 120만 달러를 투입해 세부 공항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로써 KOICA는 세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이란 목적을 달성하고, 관광도시로서 세부의 모습을 일신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도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켰다.

사업명 필리핀 세부 시 공항 도로 표지판 설치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12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05 PHILIPPINES

광물자원 개발로 경제 성장 재원 확보

수리가오 해저 광물자원 조사 사업

Exploration of Submarine Mineral Deposits off the Coast of Surigao Del Norte

필리핀은 환태평양 연안에 집중된 광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부 금속 광산에 한해서는 세계적인 자원 부국에 해당한다.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주요 광물인 금 · 구리 · 크로마이트 · 니켈 생산량은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다. 1996년 필리핀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 정책의 하나로 필리핀 주변 해역의 해저 광물 자원을 개발하기로 하고, 탐사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과 아울러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펼쳤다.

KOICA는 1996~1997년까지 120만 달러를 투입해 자원 부존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추정된 수리가오 델 노르테 및 아구산 델 노르테 주변 해역에 대해 금을 비롯한 크로마이트 등 부존 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KOICA는 민다나오 섬 북부 수리가오 해역의 개발 유망 광물인 금과 기초 금속에 대한 탐사와 종합 분석을 거쳐 필리핀 광물 자원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사업명 필리핀 수리가오 해저 광물자원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12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06 PHILIPPINES

배전 손실률이 우리나라의 4배에 달해

배전 계통 개선 타당성 조사 사업

The Feasibility Studies on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and Customer Service Standards for the Electricity Distribution Sector

필리핀의 전력 산업은 발전 · 송전 · 배전 부문으로 구분된다. 국영 전력사인 필리핀 전력공사가 발전과 송전을 담당하며, 마닐라 등 수도권을 맡고 있는 메랄코Meralco를 포함해 20개 군소 배전 회사와 120여 개의 지역별 전력 협동조합이 배전을 담당한다.

배전 부문의 경우, 배전 회사들의 경제적 영세성과 낙후된 기술로 인해 평균 배전 손실률이 우리나라의 4배에 달하는 20% 이상을 초과한다. 이로 인해 불편한 생활에 비해 전기요금이 올라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빈번한 정전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배전 계통을 개선시켜 전력 손실을 감소시키고, 고장으로 인한 잦은 정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2~2003년까지 70만 달러를 들여 배전 계통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KOICA는 배전 계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이를 통해 전기 요금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필리핀 정부는 민간 배전 회사와의 효율적 협력으로 성공적인 제도 운영과 시스템 개선을 이루었으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명 필리핀 배전 계통 개선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3년 | **사업 규모** 7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07
PHILIPPINES

'약속의 땅'에 뿌린 평화의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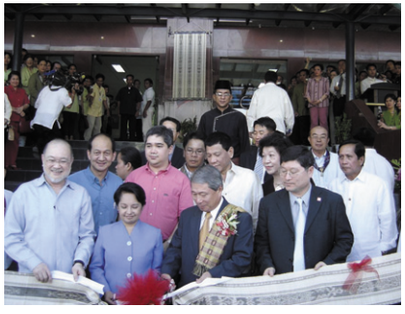
한 · 필 다바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he Korea-Philippines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Davao City

"한 · 필 다바오 직업훈련원에는 KOICA에서 구해준 트랙터가 한 대 있습니다. 3억 가까이 하는 비싼 기계입니다. 아마 필리핀 전역에 한 대밖에 없을 겁니다. 추수 때가 되면 학생들과 함께 트랙터를 끌고 가서 농민들을 도와줍니다. 농활인 셈이지요. 신이 난 학생들이 논에서 잡은 코브라를 선물이라고 건네주기도 합니다."








다바오 직업훈련원에서 일하고 있는 KOICA 봉사 단원의 말이다.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은 루손 섬이며, 그 다음은 최남단의 민다나오 섬이다. 민다나오 섬의 면적은 남한보다 약간 작다. 민다나오는 '약속의 땅' 이란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풍요로운 자연을 가진 섬이다. 하지만 가톨릭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는 이슬람 자치 지구가 존재하고 있어 1970년대부터 필리핀 정부와 정치 · 종교 · 경제적으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에서 최고의 빈곤 지역이 되어버렸다. 만다나오 섬의 반군은 1996년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민다나오 섬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주민의 60%가 빈곤층이며 중학교 취학률은 40%에 불과하다.

KOICA는 2003~2005년까지 500만 달러를 투입해 한 · 필 다바오 직업훈련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직업훈련원에 농기계 · 자동차 정비 · 용접 · 정보 처리 등 7개 과정을 개설하고 민다나오 지역 내 가장 현대화된 훈련 장비와 커리큘럼을 제공했다. 또한 훈련원 관리자와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다바오 직업훈련원은 민다나오 지역 내 최고의 훈련원으로 자리 잡았다. 다바오 직업훈련원은 2005년 개원 이래 2009년까지 매년 2백50여 명의 정기 과정 졸업생과 1천여 명의 단기 연수생 등 지난 3년간 수천여 명의 인력을 양성해 왔다. 다바오 직업훈련원의 성공 요인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데 있다. KOICA는 훈련원 개원 이후에도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와 자원 봉사자들을 현지로 파견해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장비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훈련원 운영 방법과 활용법, 기술 전수까지 책임을 진 것이다. 다바오 직업훈련원은 개원 1년 만에 필리핀 최고의 인기 훈련원으로 꼽히고 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곳으로 단기 연수를 올 만큼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사업명 한 · 필 다바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5년 | **사업 규모** 500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원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타 행정 비용




08 PHILIPPINES

옛날에는 한국이 필리핀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았다

한 · 필 IT 훈련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Philippines IT Training Center

"지금은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IT 기술을 전해주고 있지만 이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컴퓨터를 배우러 갔습니다. 나도 IBM에 다닐 때 필리핀으로 세 번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KOICA 시니어 단원의 말이다. 필리핀 정부는 IT 산업이 경제 성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보통신이 앞으로 국가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리핀 IT 산업은 정부의 의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IT 파급력과 노동력 · 교육 훈련 분야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에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IT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및 IT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필리핀 정부는 IT 인프라 개선과 인력 개발을 위해 '한 · 필 IT 훈련원 건립 사업'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IT 훈련 센터 건립을 통한 고급 기술 인력 양성과 노동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2003~2005년까지 500만 달러를 투입해 2005년 12월 첨단 IT 교육 시설을 갖춘 훈련원을 완공했다.

훈련원의 운영 담당 기관인 퀘손 시 정부와 '기술교육개발청TESDA'은 훈련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수준 높은 인적 자원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IT 분야 교육 기관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탓에 훈련원이 자립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KOICA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후속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업명 한 · 필 IT 훈련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5년 | **사업 규모** 500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원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09 PHILIPPINES

KOICA 라이스가 최고예요!

미곡 종합 처리장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Modern Integrated Rice Processing and Milling Complex







필리핀은 농업 기반의 국가다. 전체 국토 중 농경지 비율이 41%로 농업 분야는 국내 총생산의 14%를 차지하고, 전체 인구의 38%가 농촌에 거주한다. 쌀은 필리핀의 주곡 중 하나지만 생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자급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인구의 80% 이상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연평균 2.3%의 높은 인구 증가율과 쌀 수입 정책으로 쌀의 자급률이 2007년 현재 89.8%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생산량의 15% 정도가 수확 후 손실로 사라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매년 수차례 찾아오는 태풍 등의 재해로 수확된 벼가 인근 도시로 판매된 후 도정된 쌀이 다시 반입되는 과정에서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 정부는 벼 수확 후 손실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로라 주에 미곡 종합 처리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230만 달러를 투입해 2007년 1월 현대식 미곡 종합 처리장을 완공했다. 이곳에서 가공된 양질의 쌀은 'KOICA Rice' 란 브랜드로 판매되며, 농가의 소득 증대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 아로요 대통령은 필리핀의 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오로라 주 미곡 종합 처리장 시설을 성공 사례로 언급한 바 있으며, 2008년 1월 미곡 종합 처리장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10년까지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 등 주요 벼농사 지역에 4개의 미곡 종합 처리 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필리핀의 쌀 자급자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사업명 필리핀 미곡 종합 처리장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230만 달러 | **지원 내역** 미곡 처리장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10 PHILIPPINES

부수앙가 관광객이 5배 늘었다

부수앙가 공항 개발 사업
THE Project for Busuanga Airport Development

필리핀은 전 국토를 잇는 운송 체계 구축을 '중기발전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항공 운항은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필리핀의 주요 산업인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공항을 넓히고 시설을 보충하는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문이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이를 추진해 나가는 데 기술적 ·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팔라완Palawan 주의 부수앙가Busuanga 공항의 시설 확충과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2010년 북부 팔라완 지역의 관광객 수는 외국인 25만 명을 포함해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항의 시설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공항 여객터미널을 신축하고, 행정 건물과 소방 건물을 개 · 보수하는 한편, 주차장 정비와 배수 시설 개선 및 공항 등급 상향을 위한 활주로의 확장과 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부수앙가 공항 준공식에 참석한 필리핀 대통령은, "새로운 공항청사 건립과 활주로 확장으로 팔라완 지역의 핵심 산업인 관광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팔라완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푸에르토 프린세사Puerto Princesa에 소재한 산 빈센테San Vincente 공항 재개발 사업에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히며 KOICA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KOICA의 지원을 받기 전 부수앙가 공항은 2개 항공사가 일주일에 10회를 운항하면서 300여 명을 수송하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4개의 항공사가 일주일에 28회를 운항하면서 4천2백여 명의 수송을 담당한다. 지원 사업 후 승객 수송 인원은 14배 증가했고, 항공기는 21인승에서 80인승으로 교체되었다. 그 결과 부수앙가를 방문하는 여행객 또한 5배 이상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사업명 필리핀 부수앙가 공항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공항 여객터미널 신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CM 파견

11 PHILIPPINES

도시와 지방, 해안과 내륙을 연결한다

주요 국도 건설 및 개선 타당성 조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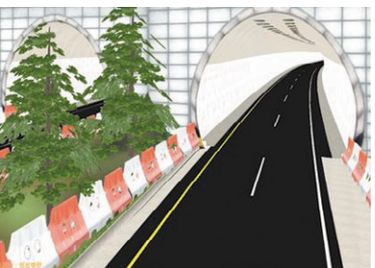
The Feasibility Study on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Selected National Roads

현재 필리핀에서 도로 교통은 전체 운송 물량의 53%, 전체 승객 운송의 89%를 차지하는 중요한 운송 수단이다. 하지만 국가 간선도로망의 48%는 보수, 31%는 재포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로의 낮은 포장률과 도로 관리에 필요한 예산 부족은 운송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 기능 저하와 교통 편익 감소 및 교통사고와 물류비용 증가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16년까지 '장기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을 세우고, 세부 수행 계획 수립과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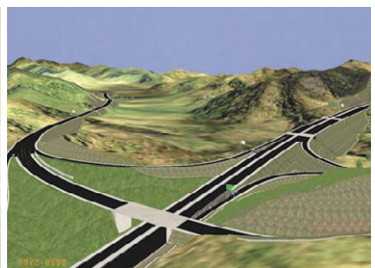
KOICA는 2006~2007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전국 7개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개 · 보수 작업과 신설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10월 필리핀 '건설도로부DPWH' 에 보고서를 전달했다.

KOICA의 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도로 구간은 앞으로 도로 건설과 개 · 보수 작업을 통해 지방과 도심 지역, 해안과 내륙 지역 간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전국 도로망의 전략 노선으로서 주요 간선도로망의 기능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필리핀 주요 국도 건설 및 개선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건설 도로 보고서 작성,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12 PHILIPPINES

한국 사람도 우리 병원에 옵니다!

한 · 필 카비테 주 외래 병동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Korea-Philippines Friendship Hospital in Cavite-Phase2





"KOICA의 지원을 받은 후 우리 병원의 의료진과 시설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인근 지방 환자들까지 이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도 우리 병원으로 옵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필리핀 카비테 주 병원장 닥터 프란시스코의 말이다. KOICA는 1999~2001년까지 380만 달러를 들여 수도 마닐라 남쪽에서 45km 떨어진 카비테 지역에 한 · 필 친선 병원을 건립한 바 있다. 이 지원 사업은 카비테 주의 주도 트레세 마르티레스에 1백 개 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해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원 후 외래 환자가 2002년 7천6백여 명에서 2005년 2만여 명으로 대폭 증가할 만큼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환자로 인해 검사와 진료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고,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건평 900㎡에 3층 규모의 외래 병동을 건립했다. 외래 병동에 내과 · 소아과 · 산부인과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외과 · 치과 · 산부인과 기자재도 새로 제공했다. 또한 의학 전문 도서관과 대형 컨퍼런스 룸도 갖추었다. 2009년 1월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과 박대원 KOICA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래 병동 개원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KOICA의 지원으로 의료 서비스 역량이 크게 향상된 카비테 병원은 현재 산부인과 · 외과 · 소아과 · 내과 등의 수련 병원이 되어 가고 있다.

사업명 한 · 필 카비테 주 외래 병동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13 PHILIPPINES

필리핀 최고의 시설을 갖추다

다구판 시 수산물 가공 공장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he Seafood Processing Facility Dagupan City, Pangasinan

팡가시난Pangasinan 주는 루손 섬 북쪽 지역에 있는 주요 수산물 생산지이며, 다구판 시는 팡가시난 주의 4개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로 필리핀의 대표적 수산물인 방우스milkfish의 최대 양식 지역이다. 다구판 시는 방우스 가공을 통해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곳이지만 수산물 가공 공장이 없는 탓에 원시적인 가내형 가공 처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다구판 시는 수산물 가공 공장을 건립하고 방우스를 가공 · 판매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220만 달러를 투입해 다구판 시 수산물 가공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 수산기술 개발연구원NIFTDC' 부지 내에 지어질 수산물 가공 공장은 방우스 가공뿐만 아니라 방우스 양식에 대한 연구 및 가공식품 개발과 현장 실습을 위한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종류의 수산물(틸라피아, 새우, 컷피시 등)을 가공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이다. 2009년 말 완공 예정인 수산물 가공 공장은 필리핀 최고의 현대적인 가공 시설을 갖춰 방우스의 해외 수출과 국내 판매 확대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의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필리핀 다구판 시 수산물 가공 공장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2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14 PHILIPPINES

아태 지역의 허브 공항을 꿈꾼다

클라크 국제공항 개발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사업

The Feasibility Studies for the Master Plan Development
of the Diosdado Macapagal International Airport in the Clark Freeport Zone

도서 국가라는 국토 여건과 관광 산업으로 인해 필리핀은 항공 산업과 공항 개발이 국가 과제로 떠오를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필리핀 정부는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마닐라 국제공항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도권 지역의 항공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수빅과 클라크 지역을 아시아 물류 허브 및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면서 클라크의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국제공항DMIA'을 마닐라 공항의 대체 공항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마닐라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수빅과 클라크 지역은 이곳을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허브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필리핀 정부의 계획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클라크 국제공항 개발 계획을 구체화한 필리핀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한국교통연구원'과 '대우엔지니어링'을 공동 사업 시행 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신축을 비롯하여 항공기 정비 시설 건축 및 물류 단지 조성, 육상 교통 센터 건설과 활주로 확장 등 공항 건설 전반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에 착수한 지 6개월 후 KOICA는 '국제공항이 개발된다면 연간 7백만 명이 이용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필리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의 건설업체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실현된다면 클라크 국제공항은 연간 7백만 명의 승객뿐만 아니라 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KOICA는 당시 우리 기업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수빅 만의 대규모 조선소 건설 사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사업명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 개발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







15 PHILIPPINES

보홀 섬 벼 생산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

보홀 주 말리나오 댐 개선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사업

The Feasibility Studies and Detailed Design on the Improvement of Malinao Dam and Irrigation Facilities in Trinidad, The Bohol Province

7천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취업 인구의 3분의 1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다. 비록 국민 총생산에서 농업의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가의 기초 사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필리핀 정부는 농업의 생산 기반 확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주로 쌀농사를 짓는 필리핀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개 시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4년 수립된 국가 개발 10대 사업에서도 농지 개량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채택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농업 부문 개발 사업 중에서도 보홀Bohol 섬의 관개 용수 확보를 위해 기존의 말리나오 댐 시설을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말리나오 댐 시설은 이미 노후화되고 저수 용량이 적어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농업용수 공급 시설 구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의 타당성 조사 결과 말리나오 댐을 확충할 경우 지역 내 5천여 농가와 1만 헥타르 농지에 대한 용수 공급이 개선되어 2만5천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댐 용량의 증가로 용수 공급 대상 면적이 2천2백 헥타르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 증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KOICA의 사업을 통해 보홀 섬의 벼 생산량은 헥타르당 1.59톤에서 3.16톤으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필리핀 보홀 주 말리나오 댐 개선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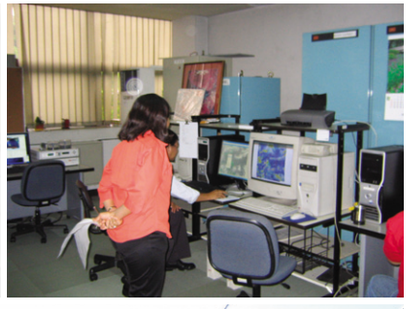
16 PHILIPPINES

경보 시스템 미비로 막대한 피해 입어

재해 방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The Establishment of an Early Warning and Monitoring System for disaster Mitigation







지난 2004년 발생한 지진해일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규모 피해를 입혔다. 안타까운 사실은 경보 시스템만 갖춰져 있어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초보적인 경보 시스템조차 없어 대피 시간이 없었던 많은 인명이 파도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현재 일본과 유럽연합 등 각국은 동남아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탓에 지진 등 자연 재해가 빈번하다.

하지만 재해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 번 재해가 닥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이는 농업이 주요 산업인 필리핀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크게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필리핀은 3모작이 가능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등 우수한 농업 환경을 지녔지만 자연 재해로 인해 해마다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기상 장비를 제공하고, 재해 예보 및 경보 기술을 필리핀 기상청에 전수해 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시켰다. 사업의 주요 대상지는 필리핀 내에서도 기상재해에 가장 취약한 오로라 · 일로일로 · 라나오 주 등 3개 주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여건에 맞는 예보 ·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과 기술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해 방지 교육을 진행했으며, 우리나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필리핀 관련 인력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비를 들여 필리핀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재 대책을 수립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이는 앞으로도 기후 변화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업명 필리핀 재해 방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 현지 워크숍

17 PHILIPPINES

필리핀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은 결핵

국립 폐질환 센터 결핵 퇴치 역량 강화 사업

Development of the Lung Center of the Philippines as the National Referral Center

요즘은 결핵이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 질병은 아니지만 30년 전에는 많은 사람이 폐병이란 이름으로 목숨을 잃었다. 21세기인 현재도 대다수 개도국에서 결핵 퇴치는 여전히 중요한 보건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결핵은 다른 질병에 비해 비교적 간단히 퇴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의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소규모 예산으로도 개발도상국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필리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결핵 위험 국가 22개국 중 9위에 해당한다. 필리핀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 중 6위에 꼽힐 정도로 결핵은 아직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한 해 새로 발생하는 결핵 감염자 수를 1천2백여 명으로 추산하고, 치료를 위해 연간 70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결핵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결핵 센터 건립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국립 결핵 센터를 건립하고, 기자재뿐만 아니라 결핵균 검사와 치료 및 관리, 결핵 감시 관련 IT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핵 센터의 건립을 통해 발병자를 줄인다면 치료에 드는 상당한 비용을





줄이고, 치료 수준을 높여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던 결핵은 최근 개도국과 빈민 국가들을 중심으로 후천선 면역 결핍증의 확산과 맞물려 증가 추세에 있다. KOICA의 지원으로 필리핀 국립 결핵 센터는 당장의 치료뿐만 아니라 결핵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료기술을 활용함은 물론, 진단 시약 등을 지원해 우리나라 제약 업체가 동남아 여러 나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사업명 필리핀 국립 폐질환 센터 결핵 퇴치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18 PHILIPPINES

KOICA의 지원으로 전자 거래가 활성화

공인 인증 체계(PKI)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져왔다.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세계가 인정하는 인터넷 선진국이 되었다. 실제로 돈이 오가는 상거래나 행정망으로 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실명 인증과 보안을 담보할 수 있는 공인 인증 체계는 한 단계 도약한 인터넷의 모습을 보여준다.

필리핀은 지난 30년간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평균 1.4%로 매우 저조한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최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그동안 농업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IT 기술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KOICA의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서 지난 16년간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 정보통신 기술위원회는 국가의 IT 정책 산업인 전자 상거래와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온라인 적용과 안전한 상거래를 위한 기술적 · 법적 기반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터넷 기반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 공개 키 기반 구조' 분야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공인 인증 체계NPKI : National PKI'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필리핀 정보통신 기술위원회는 국가 전체적인 공인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PKI'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230만 달러를 투입해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법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는 등 공인 인증 체계 운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수했다. KOICA의 지원 덕분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필리핀 인터넷 산업에 진출하기 쉬운 환경이 마련되었다.

사업명 필리핀 공인 인증 체계(PKI)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30만 달러 | **지원 내역** PKI 파일럿 시스템 구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현지 워크숍 개최



Nigeria
Senegal
Ethiopia
Egypt
Tanzania

지구촌의 가난과 배고픔을 함께 한다

Africa









NIGERIA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인구 대국이자 세계 10위의 석유 수출국이다.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전체 인구의 70%는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한다. 글 · 조정명

나이지리아는 15세기 노예 매매를 위해 영토를 침탈해온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19세기에는 영국이 페르난도포섬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고 보호령으로 선포했다. 이처럼 나이지리아의 초기 역사는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얼룩졌다. 1960년 나이지리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지만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했다. 1990년 민선 정부가 출범, 2007년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풍부한 석유 수출에 따른 막대한 수익으로 경상수지가 안정되고, 정부 재정도 확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의 만성적인 부정부패와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그리고 법 제도의 미비 등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KOICA는 북서아프리카의 거점 국가인 나이지리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1~2007년까지 17년간 302만 달러의 무상 원조를 지원했다. KOICA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나이지리아의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KOICA는 농촌 개발과 보건 의료 분야를 주요 지원 분야로 설정했는데, 이는 사회 지도층의 부패가 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개발 원조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고, 인간다운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국명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정체** 연방공화제 **기후** 열대성 고온 다습한 기후(연평균 기온 31~34℃) **인구** 1억4천6백20만명 **면적** 923,768㎢(한반도의 4.2배) **1인당 국민소득** 9백20달러(2007년 기준) **수도** 아부자(Abuja) **민족** 하우사족(30%), 요루바족(20%), 이보족(20%) 등 2백50여 종족 **문자 해독률** 69%(2007년 기준) **종교** 회교(50% : 북부 위주), 기독교(40% : 남부 위주) **공용어** 영어(공용어), 2백50개 토착어



| 나이지리아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일 소득 1달러 이하 인구** 1993년 59.2%에서 2003년 70.8%로 상승 ● **5살 이하 저체중 아동** 1990년 35.7%에서 2003년 28.7%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1991년 52.8%에서 2003년 63.9%로 상승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1년 3.4%에서 2007년 6.1%로 증가 ● **기초 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1991년 79%에서 2004년 83%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인구 1천 명당 5세 이하의 사망률** 1990년 2백30명에서 2006년 1백91명으로 감소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1990년 54%에서 2006년 62%로 증가
모성 보건 증진	● **인구 10만 명당 모자 사망 인구** 1990년 1천 명에서 2005년 1천1백 명으로 증가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2003년 3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 중 HIV 양성자 비율** 2001년 3.2%에서 2007년 3.1%로 소폭 감소 ● **10만 명당 결핵 인구** 278.4명에서 2006년 614.8명으로 대폭 증가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전체 토지 대비 숲이 차지하는 비율** 1990년 18.9%에서 2005년 12.2%로 감소. ●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년 0.4톤에서 2004년 0.8톤으로 증가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1990년 50%에서 2006년 47%로 감소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2006년 기준 79달러로 나타났으며, 부채 비율은 2005년 기준 17%로 집계

01 NIGERIA 관개시설을 갖춘 농지는 고작 1% 정도

미곡 처리 기술 지원 사업

Sustainable Rice Production and Improvement of Rice Post-Harvest Processing in Nigeria

나이지리아는 인구 1억5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 인구 대국이자 세계 제10위의 석유 수출국이다.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70%는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한다. 인구의 70%는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은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35%, 전체 노동력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농업 기술이 낙후된 탓에 나이지리아는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해 버렸고, 전체 경작 가능 토지 중 관개 시설을 갖춘 농지는 1%에 불과하다. 고질적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농업 정책을 개발하고, 생산 방법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미곡 처리 기술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80만 달러를 투입해 니제르Niger 주와 나사라바Nassarawa 주에 수확 · 쌀가공 · 포장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곡 종합 처리장과 농기계 보관 창고 및 교육 훈련 센터를 설립했다. 그 밖에 농업 분야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수확 후 처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나이지리아 영농 관계자들이 체계적인 농업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KOICA는 쌀 손실률을 감소시키고, 수확 증대 및 품질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명 나이지리아 미곡 처리 기술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8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시험 재배 농기계 등 기자재 제공, 건조 · 저장 · 가공 분야 등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2 NIGERIA

농촌의 빈곤 타파, 안정적 식량 확보가 시급

3개 지역 농산물가공 센터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하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경제는 원유 등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산업 간 불균형이 심하다. 이로 인해 70% 이상의 국민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낮은 소득과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절대 빈곤에 시달린다. 나이지리아는 전체 국토의 75%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갖고 있으나 현재는 40%만이 경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는 1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세농으로 화전 등 극히 재래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의 농촌 경제는 빈곤 타파와 함께 국민의 안정적 식량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나이지리아 '국가빈곤퇴치부NAPEP' 는 가장 중요한 식량 작물의 하나인 '카사바' 의 증산으로 농촌의 빈곤 퇴치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통령 카사바 구상Presidential Cassava Initiative' 을 발표하고 카사바 재배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세계 최대량의 카사바를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전국에 분산되어 있다. 1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전국 경작 농지의 87%를 차지하고, 중간 규모인 3ha 정도를 소유한 농가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카사바의 재배 기반을 확대하여 생산을 증가시키고, 이를 적절히 가공해 유통시킬 수 있다면 소득 증대는 물론, 식량의 만성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160만 달러를 투입해 카사바 등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는 주요 식량 작물의 가공 시설을 확충하고, 공장 운영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펴나갔다. 이와 함께 재배 작물의 식품 활용성과 유통망 개선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KOICA는 카사바를 생산하고 있는 코기 · 오군 · 에누구 주 등의 3개 주 지역의 농산물가공 센터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시설의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꾀하고 있다. 앞으로 가공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카사바의 생산과 소비가 촉진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업명 나이지리아 3개 지역(코기 · 오군 · 에누구 주) 농산물가공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16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3
NIGERIA

농촌의 교육 시설은 매우 부족

초등학교 교실 확충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Additional Classrooms in Kogi and Katsina States





아프리카 최대의 인구 대국인 나이지리아는 전체 인구의 40%가 15세 미만 이하로 추정되지만 그중 상당수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삶은 자연히 빈곤으로 이어진다. 2000년 이전까지 나이지리아는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공교육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으나 최근 5년간 학교시설을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증축하면서 교육 환경은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교육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의 교육 시설 부족은 매우 심각해 기초 교육 분야에 대한 대외 개발 원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장기 빈곤 퇴치 전략을 세우고,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교육 서비스 확대와 양질의 교육 시설과 교재 확보, 교사의 자질 향상, 기술·직업 교육 확대를 비롯한 민간 교육 분야 확대를 주요 목표로 정했다. 또한 문맹률 감소(0%), 중등학교 진학률(80%), 대학 진학률(20%), 성인 문자 해독률(65%) 등의 세부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추진시켜 나가고 있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코기Kogi 및 카치나Katsina 주의 초등학교 교실 확충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지역의 8개 학교에 40개 교실을 신축하고 책걸상, 칠판 등을 제공해 초등학교 취학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초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초교육 이수자들의 규모를 증대시켜 앞으로 기술 교육을 통한 실무 인력의 양성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층의 실업난 해소와 함께 사회, 경제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나이지리아 초등학교 교실 확충 지원 사업(코기 및 카치나 주)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교실 신축(총 8개 학교, 40개 교실), 책걸상, 칠판 등 기자재 지원

04 NIGERIA

1천 명당 1백5명의 신생아가 죽어…

HIV/AIDS 진단 능력 강화 사업

Improvement of Laboratory Infrastructure on HIV/AIDS in Nigeria through provision of Equipment

아프리카 최대의 인구 대국인 나이지리아는 보건 관련 수요가 막대하지만 보건 의료 환경은 답보 또는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대 수명의 경우 1991년 여성 53.8세, 남성 52.6세에서 2000년에는 여성 48.2세, 남성 46.8세로 오히려 퇴보했다. 신생아 사망률은 1990년 1천 명당 87.2명에서 1999년 1백5명으로 증가했고, 임산부 사망률도 10만 명당 8백 명으로 세계 최고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보건 의료 환경이 악화되는 주요인은 기초 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이나 의약품 공급 부족에도 기인하지만 나이지리아 정부의 무능과 부패, 효과적인 보건 의료 정책의 부재 등 정치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1999년 기준 나이지리아 전역에는 1만8천2백58개의 1차 의료기관, 3천2백75개의 2차 의료기관, 29개의 3차 의료기관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의료 기관이 제한된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하거나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0년 이후 보건 의료 분야의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 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다. 나이지리아 연방 보건부는 전체 국민 중 AIDS 감염률을 0.1%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HIV/AIDS 관리법의 전수를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코기Kogi, 에누구Enugu 등 2개 지역에서 HIV/AIDS 진단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에이즈 감염이 심각한 베누 주 등 나이지리아 동부 지역 의료 센터에 혈액 분석기와 진단 키트 등 HIV/AIDS 진단기기를 제공하는 한편, 보건부와 병원 관계자 등 공중 보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성병 및 HIV/AIDS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명 나이지리아 HIV/AIDS 진단 능력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혈액 진단 장비, 임상 화학 분석 장비 등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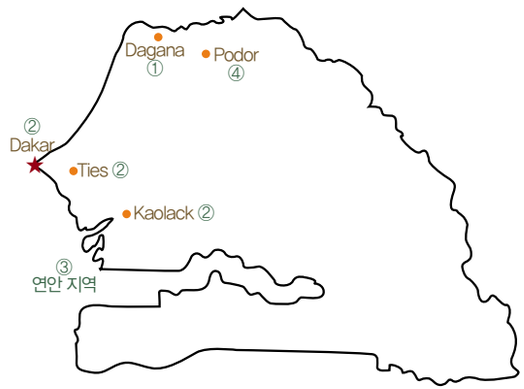
SENEGAL

세네갈은 2000년 3월 압둘라예 와데(Abdoulaye Wade)가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며 대통령에 당선되어 '아프리카 민주주의 창구'로서의 명성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빈곤이 감소되고 있다고는 하나 전체 인구 중 50%가 절대 빈곤층에 해당할 정도로 여전히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다. 글 · 라갑채

세네갈은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 북대서양 연안에 자리 잡고 있다. '서아프리카 통화동맹'의 회원국으로서 대부분의 경제 수익을 땅콩과 어업,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서 얻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은 6.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물가 상승은 2% 미만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빈곤이 감소됐다고는 하나 전체 인구 중 50%는 여전히 절대 빈곤층에 해당할 정도로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다. 세네갈 정부는 농업을 최우선 개발 산업으로 정하고, 농산물 수출과 식량 자급을 늘리기 위해 관개 시설을 개발하고, 농업 생산법 개선 등을 위한 'Plan Reva return to agriculture'를 추진 중이다.

KOICA는 세네갈이 추진하고 있는 '빈곤감소전략' 및 '성장가속화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북부 세네갈 강 유역을 중심으로 관개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 공동체 생산성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세네갈 정부는 2000년 이래 교육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교육 등록률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도농 간의 교육 격차나 남녀 아동 간 교육 불평등, 교육의 질과 적정 교사 수 확보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KOICA는 농촌 지역의 초 · 중등학교 교육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 기자재 제공 등의 사업을 통해 인적 자원 개발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명 세네갈공화국(The Republic of Senegal) **정체** 민주공화국(대통령 중심제) **기후** 열대성 기후(건기 12~5월, 우기 6~11월) **인구** 1천2백만 명(2006년 기준) **면적** 196,190㎢ **1인당 국민소득** 1천8백30달러(2006년 기준) **수도** 다카르(Dakar) **민족** 월로프족(44%), 풀라르족(23%), 세레르족(15%) **문자 해독률** 41%(2006년 기준) **종교** 이슬람교(95%), 기독교(5%) **공용어** 프랑스어



| 세네갈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영양실조에 걸린 인구 비율 2007년 26% • 영양실조에 걸린 5세 이하 아동 수 2000년 20.3%에서 2007년 14.5%로 감소 • 15세 이상 노동 활동 인구 비율 2007년 66% • 하루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 2000년 54%에서 2007년 34%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2000년 38%, 2007년 49%로 상승 • 15세~24세 문자 해독률 여아 45%, 남아 58% 수준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초등 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2000년 86%에서 2007년 100%로 상승 • 중등 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2000년 65%에서 2007년 76%로 상승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인구 1천 명당) 2000년 83명에서 2007년 68명으로 감소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2000년 48%에서 2007년 84%로 상승
모성 보건 증진	• 모자 사망 인구(인구 10만 명당) 2007년 9백80명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1990년 60%에서 2007년 52%로 감소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의 인구 중 HIV 양성자 2000년 0.4%, 2007년 1.0%로 증가 • 결핵 인구(10만 명당) 발병률 2000년 2백37명, 2007년 2백 명으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2000년 72%, 2007년 77%로 개선 중 •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0년 0.4톤에서 2007년 0.4톤으로 변동 없음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2000년 41달러, 2007년 68달러 • 인터넷 사용자 수(1백 명당) 2000년 0.4명에서 2007년 6.6명으로 대폭 증가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country data 참조



01 SENEGAL

세네갈, 쌀 소비량의 70%를 수입

다가나 농업 생산성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he Dagana District







세네갈은 인구의 50% 이상이 빈곤층에 속하고, 이들 대다수는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이다. 농업 분야는 세네갈 국내 총생산의 16%에 불과하나 경제 활동 인구의 73%가 농업에 종사한다. 세네갈 국기가 농업을 상징하는 녹색인 것도 세네갈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준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대다수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만성적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세네갈 정부는 2015년까지 주식인 쌀의 자급자족을 농업 개발의 첫 번째 과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약 20만 헥타르의 관개 시설이 완비된 농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네갈 정부의 쌀 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 소비량의 7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가나 지역은 수도 다카르Dakar에서 북쪽으로 350km 떨어진 기레스Guires 호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쌀 재배 여건이 좋지만 전력과 생활용수 공급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관개 수로망과 수리 구조물은 대부분 파손된 상태다. 초등 교육 시설과 공공시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역의 농업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개 농지 개발과 도로 · 학교 · 마을회관 건설 및 농기계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세네갈 정부는 다가나 지역의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농촌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다가나 농업 생산성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KOICA는 현지 지형 조사 같은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농지 기반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양수장 시설과 수로 시설 등을 정비해 관개 농지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의 도로를 건설하고, 학교와 마을 회관 건축 등 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논에 물을 넣고 재배하는 '수도작' 영농 기술의 전수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농민을 교육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농민조합을 결성해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농촌 개발 경험을 활용해 자조 · 자립정신에 입각한 농민조합을 육성하고, 사업 시행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을 조합기금으로 조성하여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 관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사업명 세네갈 다가나 농업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설,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2
SENEGAL

이제 학교에 가는데 10km씩 걷지 않아도 돼요

3개 지역 중등학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Junior High Schools in Dakar, Thies and Kaolack






PRESERVONS ENSEMBLE
LA RESSOUR
2005 - 2015





세네갈은 아프리카에서 문화적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아프리카인으로는 최초로 영화를 만들고, 1968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비평가상을 받은 영화감독 '셈벤 우스만'과 식민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레오폴드 센그호' 같은 작가가 세네갈의 문화계를 대표한다. 세네갈의 전 대통령 '세다르 셍고르' 역시 시인이자 학자였다. 하지만 프랑스의 오랜 식민 지배로 인해 세네갈의 문맹률은 높다. 세네갈 정부는 2005년 '교육 분야 10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보편적 초등 교육 제공과 중등 교육의 보급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맹 퇴치와 노동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 훈련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간의 불평등 해소, 장애 아동 및 여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본격적인 교육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 사회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초등학교 등록률이 80%를 웃돌고 있지만 중학교 입학률은 48%에 불과할 정도로 중학교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개의 중학교는 과밀 학급으로 인해 2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의 낮은 교육 수준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2005년 기준, 전체 교육 예산 중 초등 교육 관련 예산은 45%를 차지하지만 중학교 관련 예산은 5분의 1 정도인 8.4%에 불과하다. KOICA는 중등 교육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세네갈 3개 지역 중등학교 건립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2008~2009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4개의 중학교에 48개 교실(Dakar 2개교 24개, Thies 1개교 12개, Kaolack 1개교 12개)을 신축하고, 책걸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 지역 중 다카르 지역(57%)을 제외한 'Kaolack(44%)' 및 'Thies(50%)' 지역은 전국 평균 입학률(54%)보다 낮은 중학교 입학률을 보이고 있어 이곳에 중학교를 설립한다면 5~10km에 달하는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세네갈 3개 지역 중등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기자재 지원

03 SENEGAL

프랑스와 일본은 실패했지만 KOICA는…

해수 양식장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술 협력 사업

Feasibilit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Marine Aquacultural Station







대서양과 접해 있는 세네갈은 전체 외화 수입 중 40%가 수산물 수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네갈 인구 중 70만 명은 수산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며, 전체 인구의 80%가 어류에서 단백질을 섭취한다. 하지만 최근 남획과 환경오염에 의한 어족 자원의 감소로 '잡는 어업'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세네갈 정부는 '기르는 어업'인 양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07년 6월 양식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산양식진흥청'을 신설했다. 세네갈은 기본적으로 해양 양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지만 기술 부족으로 인해 양식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수산양식진흥청'은 해수 양식 시험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60만 달러를 투입해 해수 양식장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총괄 관리자와 어류 · 갑각류 · 패류 분야의 양식 전문가, 경제성 및 환경 분석 전문가, 양식 시험장 설계 전문가를 이곳에 파견하고, 적절한 사업 부지를 선정해 양식 시험장의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KOICA는 이 사업으로 세네갈 양식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선진 양식 기술을 전수시켰다. 또한 해양 산업 발전을 근거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수자원 보호를 통한 식량 안보 확충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국 간 수산 양식 분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우리나라 기업의 대서양 연안 수산업 진출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이 세네갈에서 양식 관련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효과가 미진한 탓에 이번 사업에 대한 세네갈 정부의 기대는 매우 크다. KOICA의 사업이 최종적으로 성공할 경우 세네갈은 말리 · 모리타니아 · 기니 · 기니비사우 등 주변 국가의 수자원 개발을 위한 허브 국가가 될 것이다.

사업명 해수 양식장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술 협력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60만 달러 | **지원 내역** 해수 양식 시험장 설계, 기자재 제공, 타당성 조사, 국내 초청 연수





04 SENEGAL

세네갈의 식량 자급도는 겨우 20%에 불과

포도르 지역 관개 재개발 사업

The Project for Irrigation Development in Podor District

세네갈 정부는 여러 산업 중 농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분야로 정하고, 농산물 수출 및 식량 자급 강화를 위한 관개 시설 개발과 농업 생산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Plan Reva return to agriculture'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 개발이 용이한 북부 세네갈 강 유역을 중심으로 관개 사업과 농촌 공동체 생산성 증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세네갈 전체 소비량의 20%에 불과한 식량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식량증산운동GOANA'을 펼치고 있다. 세네갈 정부는 세네갈 강 유역 벼농사 관개 개발의 일환으로 '포도르 지역 관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포도르 지역은 수도 다카르에서 북쪽으로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세네갈 강 지류인 갈렌카 강에 인접하고, 모리타니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약 300ha에 달하는 관개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1981~1983년까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관개 시설이 설치된 바 있으나 현재는 양수 시설과 용수로망이 거의 낙후되고 파손되어 있는 상태다. 연평균 강수량은 200mm 미만이며, 1970년대 이후 극심한 가뭄으로 총체적인 농업 생산성이 극히 떨어져 있다. 하지만 포도르 지역은 수량이 풍부한 세네갈 강과 평탄한 토지 등 관개 농업 개발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므로 이곳에 관개 시설을 구축한다면 농업 생산력이 강화되어 지역 주민의 식량 자급자족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180만 달러를 투입해 포도르 지역 9개 관개 농업 지구의 낙후된 관개 시설을 보강하고, 영농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용수로를 개·보수하고, 양수기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건설 농업 토목 전문가와 영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관개 개발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공무원과 농민 지도자를 대상으로 농업 기술을 종합적으로 전수하고 있다. KOICA는 사업 종료 후 세네갈에 연간 250만 달러의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영농 가능 면적은 5.5배, 농작물 생산량은 6.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명 포도르 지역 관개 재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180만 달러 | **지원 내역** 관개 시설 보강, 영농 기술 전수, 기자재 제공



ETHIOPIA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는 에티오피아의 지명인 아랍어 '카파(caffa)'에서 유래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 대개는 적도의 뜨거운 태양을 생각한다. 하지만 해발 2,400m의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열대병보다 고산병을 걱정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솔로몬 왕이 시바 왕국의 공주를 취한 후 그 자손이 세웠다고 알려진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다.

글 · 이상백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새로운 꽃'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KOICA의 에티오피아 지원은 2004년 이후 대폭 증가해 1991~2007년까지 총 1천6백75만8천 달러, 연평균 98만6천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규모로 50% 이상이 교육과 의료 보건에 지원됐다. 특히 2006년도 우리나라 정부의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 이후 2006~2008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식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구 규모와 국토 면적, 그리고 동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가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KOICA의 지원 규모는 선진 공여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탓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KOICA의 지원 전략은 에티오피아의 국가 개발 계획과 우리의 지원 능력을 기초로 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의 개발을 촉진시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즉,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 보건 서비스를 개선시키며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농업 · 농촌 개발 등 지역 사회 중심의 협력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국명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정체** 연방제 공화국 **기후** 고지대(평균 기온 섭씨 16℃, 비교적 쾌적), 저지대(고온 다습) **인구** 7천9백9만 명 **면적** 1,114,000㎢(한반도의 약 5배) **1인당 국민소득** 2백20달러(2007년 기준)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민족** 오로모족 35%, 암하라족 26%, 티그레이족 7% 등 약 80여 개 종족 **문자 해독률** 성인 문맹률(59.7%), 여성 문맹률(67.6%) **종교** 에티오피아 정교(Orthodoxy, 50%), 회교(40% 이상), 기타 토착 종교 **공용어** 암하라어(공용), 영어 및 지방 언어



| 에티오피아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영양실조에 걸린 인구 비율** 1990년 17%에서 2007년 14%로 감소 • **5세 이하 영양실조 아동 수** 2006년 35% • **15세 이상 노동 활동 인구 비율** 1995년 53%에서 2007년 51%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2007년 46% 수준 • **15세~24세 문자 해독률** 여아, 남아 모두 99% 수준 • **GDP 기준 초등 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비율** 2005년 14%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초등 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2000년 98%에서 2007년 95%로 감소 •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고용된 여성 비율** 2000년 36.9%에서 2005년 38.5%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인구 1천 명당)** 2000년 11명에서 2007년 9명으로 감소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2000년 97%에서 2007년 91%로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모자 사망 인구(인구 10만 명당)** 2005년 7백20명에서 2007년 160명으로 감소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2007년 100%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 중 HIV 양성자** 1990년 0.1%, 1995년 0.2%, 2000년 이후 0.3% 수준 • **결핵 인구(10만 명당)** 1990년 38명, 1995년 27명, 2000년 19명, 2007년 12명으로 개선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1995년 92%, 2000년 93%, 2007년 95%로 개선 •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0년 3.9톤에서 2007년 4.1톤으로 상승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2000년 3달러, 2007년 7달러로 증가 • **인터넷 사용자 수(1백 명당)** 2000년 16.5명에서 2007년 31.1명으로 증가

01 ETHIOPIA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 초등 교육으로 꽃피우다

한국전 참전 용사 마을 초등학교 건립 사업

Construction of the Facility for Hibret Firie Primary School



세계인의 식탁에서 유일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르는 커피는 에티오피아의 지명인 아랍어 '카파caffa'에서 유래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 대개는 적도의 뜨거운 태양을 생각한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해발 고도는 2,400m로 열대병보다는 오히려 고산병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태양에 그을린 얼굴'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나라,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친근하게 느껴지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다. 2007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집계한 인간 개발 순위를 보면 에티오피아는 177개국 중 170위를 차지한다. 세계 최빈국인 에티오피아 인구의 43%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며, 하루 2달러 미만 생활자는 전체 인구의 8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진학률은 낮을 수밖에 없고, 교육 기회의 박탈은 곧 빈곤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KOICA는 에티오피아의 1차 교육 확대를 위해 2004~2005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예카Yeka 지역에 초등학교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예카는 빈곤 지역 중 한 곳으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KOICA는 이곳에 현대식 초등학교를 건립하고, 책상과 의자 등 교육 관련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에티오피아의 낙후하고 빈곤한 지역에 초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이곳 초등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는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다.

사업명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마을 초등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지원,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2 ETHIOPIA

더 이상 흙탕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구지(보레나) 지역 우물 개발 사업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Ground Water in Guzi Zone of Oromia Region



"이제 구지 지역에 사는 10만 명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매일 30km나 떨어진 곳으로 식수를 길러 가기 위해 온종일 걷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흙탕물을 식수로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에티오피아의 일간지 〈The Daily Monitor〉는 KOICA의 우물 개발 사업 성과를 2007년 10월 30일자 신문 1면에 이렇게 보도했다. 아프리카에서의 물 부족, 특히 식수 부족은 심지어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심각한 물 부족 사태로 전쟁이란 비극적인 상황을 겪고 있으며, 가뭄을 국가 재난 사태로 선포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도 극심한 가뭄에 수차례의 전쟁 피해까지 더해져 주민들은 궁핍한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에도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 겨우 구할 수 있는 식수는 수질이 나빠 수인성 질병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여성과 아이들은 물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이는 여성의 노동을 가중시키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동아프리카 식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구지Guzi

지역의 우물 개발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년 25만 달러를 들여 통합 배수지와 마을별 물탱크 및 급수대 등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물탱크 트럭을 비롯한 관련 기자재를 제공했다.
KOICA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수인성 전염병을 감소시키며, 여성과 아동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에티오피아 구지(보레나) 지역 우물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6년 | **사업 규모** 25만 달러 | **지원 내역** 식수 개발 및 워터 펌프 등 기자재 제공



03 ETHIOPIA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을 갖고 싶어요

티그라이 주 킬테 아우랄로 지역 식수 개발 사업

Project for Water Supply in the Kilte Aullalo Woreda of Tigray Regional 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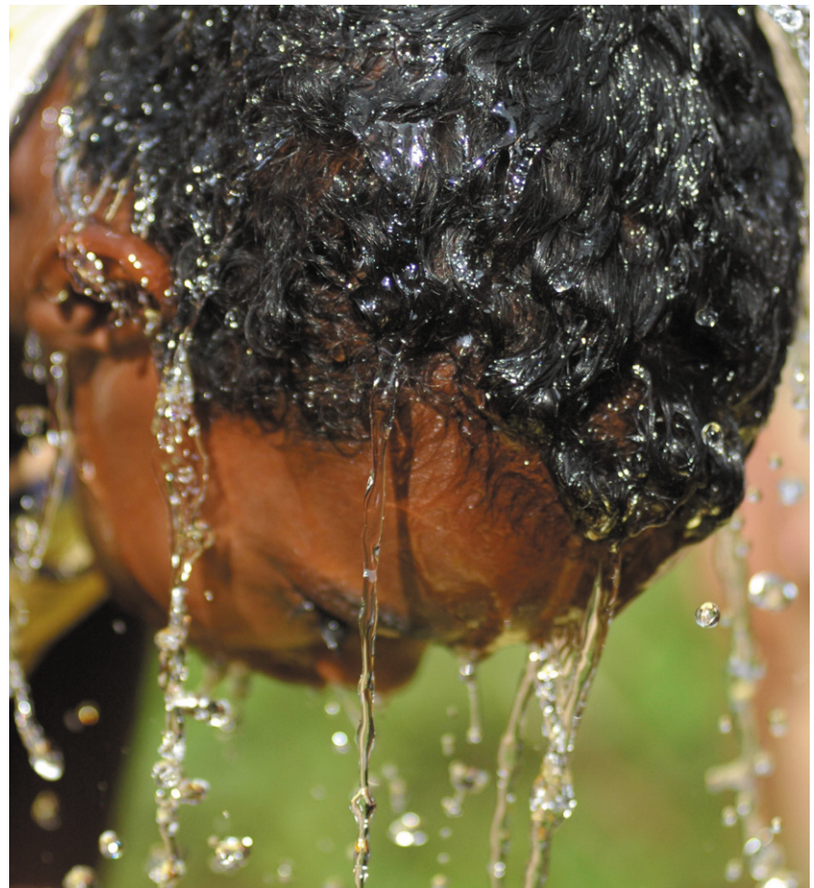
3~5km를 걸어가야 겨우 마실 물을 구할 수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연간 강우량은 848mm로 아프리카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인구가 많은 탓에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 양은 아프리카 평균의 37%에 불과하다. 에티오피아 정부와 티그라이 주정부는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06~2011년까지 '수자원 5개년 개발 계획'을 세우고 수자원 공급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지형과 강우 패턴, 지역에 따른 강우량 차이 등으로 인해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데다가 수자원을 관리할 시설이 부족해 여전히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특히 해발 2,000~3,000m의 산악 지형을 가진 티그라이 지역의 연간 강우량은 600mm 이하로 에티오피아에서도 가장 적은 수준이다. 티그라이 주의 킬테 아우랄로 지역은 분지 지역에 주민 대부분이 살고 있지만 산악 지역에도 적지 않은 주민이 살고 있다. 문제는 이곳의 식수 보급률이 평균 이하라는 사실이다. 산악 지역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식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2004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우물의 수량이 급속히 줄었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식수 개발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175만 달러를 투입해 식수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산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간 연계 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통합 배수지와 관로를 연결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원거리 지역 주민을 위해 물탱크 차량을 제공하고, 지원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식수관 우물을 개발하고, 보수 및 관리를 위해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연수 공급 시스템 구축과 사후 관리 교육을 통해 킬테 아우랄로 지역의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업명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주 킬테 아우랄로 지역 식수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175만 달러 | **지원 내역** 측량 및 설계, 식수 공급 시스템, 기자재 지원







04 ETHIOPIA

건강한 출산과 육아는 여성 교육에 달려 있다

아르시 지역 초등학교 건립 사업

The Construction of the 4 Primary Schools in the Oromiya Regional State Arsi zone

커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서일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커피 한잔을 마실 때도 커피를 볶고 빻아 만든다. 마치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 것 같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이것을 '커피 의식Coffee ceremony'이라고 부른다.

매년 2.7%에 달하는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에티오피아는 일인당 '명목 국민소득GNI'이 200달러 미만으로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1년 내전 이후에도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접국인 에리트레아(Eritrea)와 전쟁을 치르면서 빈곤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2002년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빈곤 감소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초등학교 건립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2005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 받은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식의 활용과 기술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소득과 더 높은 생산성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육받은 기간이 늘어날수록 여성은 학교에서 학습한 보건 지식을 활용해 건강한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 에티오피아의 초등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에티오피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초등학교 입학률인 84.9%에도 훨씬 못 미치는 63.9%의 입학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과밀 학급 운영으로 2부제나 3부제 수업을 해야 하고, 1 : 67이라는 과도한 교사 대 학생 비율 등으로 교육의 질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207만 달러를 투입해 아르시에 4개의 초등학교를 신축하고, 6개 초등학교를 증축 및 개축 중이다. 또한 10만 달러를 들여 책걸상과 각종 비품을 제공하고 있다. KOICA는 'MDGs'의 제2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부합하는 기초 교육 시설을 확충시켜 낙후한 에티오피아의 초등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에티오피아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에티오피아 아르시 지역 초등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07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학습 물품 지원



05
ETHIOPIA

여성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 보건 증진 사업

Community-based family planning capacity building in Arsi Zone Oromia Regional State



에티오피아의 시멘 국립공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다. 고대 그리스 시인 호머는, 시멘 고원에서 신들이 체스를 두며 즐겼다고 한다. 시멘 고원은 '트레킹의 꽃'이라 할 만큼 능선과 산봉우리를 돌 때마다 엄청난 협곡과 웅장한 신록이 장관을 이룬다.

2008년 에티오피아의 인구는 7천8백25만 명으로 세계 15위, 아프리카에서는 세 번째를 차지했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2000~2005년 사이 2.8%의 높은 인구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높은 인구 증가율은 인구의 절반 정도가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주민들의 식량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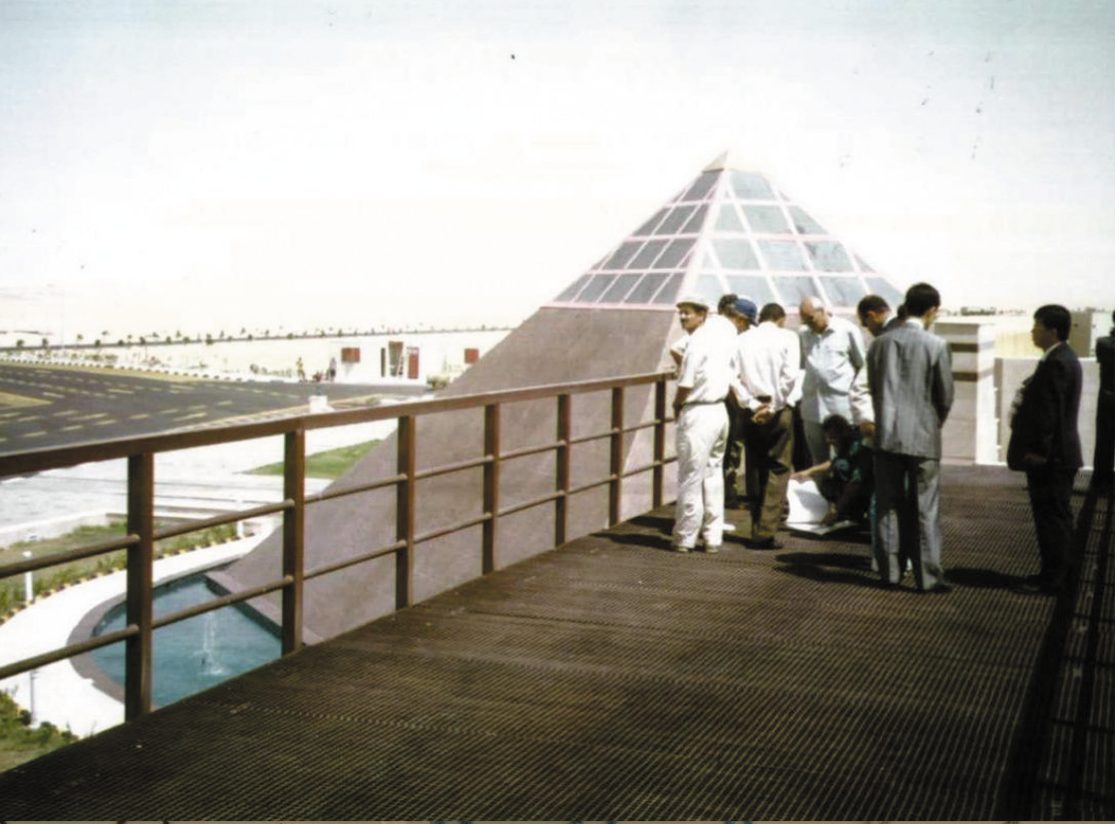
에티오피아 정부와 국내외 민간단체들은 가난을 해소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가족계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여성의 50%는 피임을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실제 피임률은 15%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85%가 살고 있는 농촌의 조혼 풍습과 종교적인 영향, 대가족 선호 사상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촌의 인구 증가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르시의 가족계획 및 모자 보건 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사업 대상지인 'Oromiya Region' 아르시의 가족계획 실천율은 2007년 18%로 전국 평균(33%)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340만 달러를 투입해 아르시 'Hetosa woreda' 지역에 모자보건 센터와 3개의 가족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교육 기자재와 물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족계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사업을 관리하고, 현지 NGO와 공동으로 보건 인력과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숙사와 강의실을 갖춘 보건 센터에서 간호사 및 보건 요원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건 서비스 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

사업명 에티오피아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 보건 증진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340만 달러 | **지원 내역** 모자보건 센터와 가족교육 센터 건립, 모자 보건과 가족계획을 위한 기자재 공여, 보건 인력 및 주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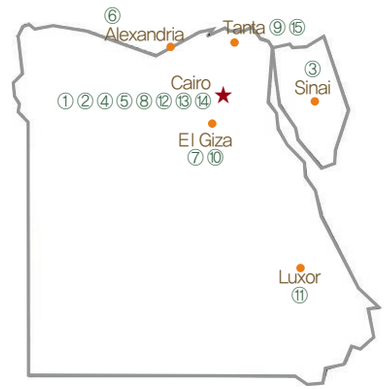
EGYPT

이집트는 고대 문화유산과 사막,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 홍해로 친숙하다. 찬란한 문화 유적과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 대륙과 연결되는 지리적인 입지로 인해 옛날부터 외세의 침입도 많았다. 현재 이집트는 인구 7천8백만을 가진 아랍 중동권 최대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글 · 백승화**

이집트는 세계 불가사의로 불리는 고대 문화 유적과 사막,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기적의 바다 홍해로 널리 알려진 나라다. 찬란한 문화유산과 아프리카와 아랍권을 잇는 지리적 입지를 갖춘 탓이었을까. 이집트는 이슬람 문화를 가져온 아랍을 비롯하여 오스만 터키 · 프랑스 · 영국 등 끊임없이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아 왔다. 오늘날 이집트는 인구 7천8백 만을 가진 아랍 중동권 최대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빠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제조업과 관광, 정보통신 분야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소득 불균형을 비롯하여 재정 적자와 취약한 경제 구조 등의 당면 과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적극적인 경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은 큰 편이다.

현재 이집트 정부는 무상으로 중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연 2%에 달하는 인구 증가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화려한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삶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국명 이집트 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정체** 대통령 중심제 **기후** 아열대성 사막 기후 **인구** 7천8백만 명 **면적** 1,001,000㎢(한반도의 약 5배, 전 국토의 95%가 사막) **1인당 국민소득** 1천6백80달러 **수도** 카이로(Cairo, 인구 약 1천8백만 명) **민족** 이집트인, 베두인,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된 햄족이 99%, 그리스, 누비안, 아르메니아인 등 소수민족 1% **문자 해독률** 70.7% **종교** 이슬람교(93.7%, 수니파), 콥틱교(6.3%) **공용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및 불어 통용(지식층)

| 이집트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일 소득 1달러 이하의 인구** 2005년 3.4%로 2015년 목표인 4.1%를 초과 달성,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은 1990년 24.3%에서 2005년 20.2%로 감소 • 식량 · 비식량 필요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지표인 '능력 빈곤(Capability Poverty)' 탈피가 목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취학자** 2007년 98% 달성 • **청소년(15~24세) 문자 해독률** 1990년 73%에서 2005년 87%로 증가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초등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0년 84%에서 2007년 95%로 증가하였으나 여성 인력의 활용은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하며, 주로 보건 및 교육 분야에 종사 • 전 교육 과정에서 성적 불평등을 없애고 평등한 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평생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목표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아동 사망률** 1970년 이래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90년 93명에서 2007년 36명으로 감소했고, 영아 사망률은 1990년 86명에서 30명으로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산모 사망률** : 2007년 10만 명당 1백30명으로 집계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아동 홍역 백신 접종률** 2005년 98.9%이며, 아동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은 94.9% 달성 • 보건 의료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안전한 식수 접근 가능한 도시 가구** 2007년 98%에 달했으며, 농촌 지역은 1990년 61.1%에서 2005년 95%로 개선 • **기초 위생 시설 접근률** 1990년 50%에서 2007년 66%로 증가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2007년 14달러 • **부채 비율** 2006년 5%

01 EGYPT 빈민가 청 · 장년층에게 자립 기회 제공

쇼라비아(Shorabia)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Shorabia Vocational Training Center





이집트 인구의 91%는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슬람교는 이집트인들의 생활양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인 '인샬라' 는 '모든 일은 신의 뜻' 이라는 말이다. 이는 이슬람교가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집트의 높은 실업률은 극심한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30~70%의 인력이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어 직업을 얻는다 해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이집트의 노동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집트 정부는 직업훈련원을 발전시켜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국가의 주요 개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 인구를 흡수해 실업률

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3년 당시 이집트 내 직업훈련원은 5개뿐이었다. 그마저도 설비가 녹슬고 낡은 데다,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 저하 등 산적한 문제로 직업훈련원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퇴색되어 있었다. 이집트 정부는 직업훈련원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빈민가의 청·장년층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KOICA는 1993~1995년까지 60만 달러를 들여 카이로 빈민가에 위치한 쇼라비아Shorabia 직업훈련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전자·자동차·용접 등 3개 분과에 필요한 1백13종의 장비를 제공하고, 3개월간 직업훈련원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직업 훈련원 시스템과 기술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 쇼라비아 직업훈련원은 차츰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기본 실습과 전공 실습으로 분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곳에서 주간에는 중학교 중퇴자들이, 야간에는 직장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KOICA의 쇼라비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와 이집트가 직업 훈련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구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KOICA는 이집트의 여러 직업훈련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사업명 이집트 쇼라비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3~1995년 | **사업 규모** 6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2 EGYPT

북부 카이로에 세운 코리아 센터

쇼브라 자동차 정비 센터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Shoubra Auto-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Center

"우리나라 학생들 외에도 이라크·리비아·탄자니아 등 주변국 엔지니어들도 이곳에 와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쇼브라 자동차 정비 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의 말이다. 이집트에서는 종종 당나귀가 끄는 마차, 그리고 승용차와 보행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95년 당시 이집트의 자동차 수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벤츠와 BMW, 대우 등 유명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특별한 산업 기반이 없는 이집트에서 자동차 정비업은 유망 직종으로 꼽히고 있었다. 이집트 정부는 쇼브라Shoubra 자동차 정비 센터 시설과 교육 훈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쇼브라는 북부 카이로의 인구 과밀 지역으로 철도 교통의 요지이자 주





요 공업 지역으로 산업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KOICA는 1996~1999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정비 센터 공과를 자동차 관리 · 정비 · 부품 생산 및 조립 · 전기 전자 · 자동차 수리 · 도장 등 여섯 개 분야로 전문화시키고, 공과별 전문가와 직업 훈련 자문관을 파견해 기술을 전수했다. 또한 자동차 훈련에 필요한 1백38종, 3백32개의 훈련 장비를 제공하고 공과별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과 직업 훈련이 없는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2000년 11월 이집트 산업기술부 장 · 차관, 관련 기관 국장급 20여 명, 주 이집트 대사와 국내 자동차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쇼브라 자동차 정비 센터 개원식에서 'Mostafa El-Refai' 산업기술부 장관은 이 같은 말로 KOICA에 감사의 말을 대신했다. 현재 쇼브라 자동차 훈련 센터는 '코리아 센터'로 불리며 수준 높은 직업 훈련을 상징하고 있다.

사업명 이집트 쇼브라 자동차 정비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9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등



03 EGYPT 시나이 반도, 이집트 최대의 상업 · 주거공간으로 변모

시나이 반도 기술 단지 조성 사업

The Master Plan Marketing Plan of SINAI Technology Valley In Egy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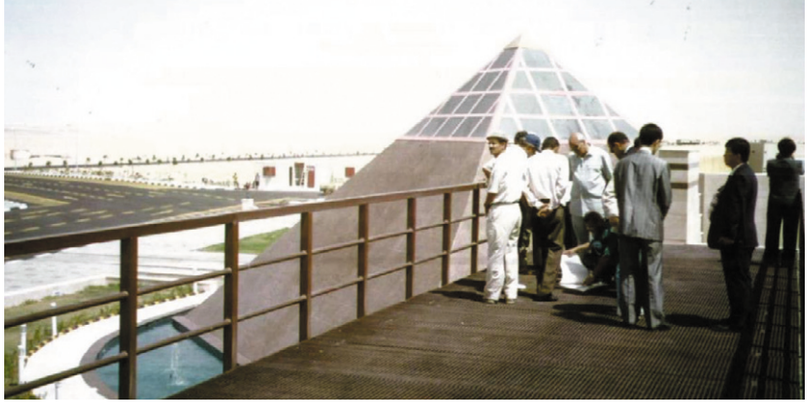
KOICA는 1991~2006년까지 이집트에 16년간 총 1천8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연평균 지원액은 1백10만 달러에 이른다. 특히 1995년 4월 양국 간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KOICA는 이집트를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분류해 무상 협력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최근 2005~2006년에는 '중동특별협력사업'을 포함해 지원 규모를 연간 3백만~4백만 달러로 확대했다.

시나이 반도는 1967년 3차 중동전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했다가 12년 후 반환한 중동 평화의 상징 같은 곳이다. 이집트 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부

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나이 반도 이스마일리아 주에 '첨단산업기술단지SINAI Technology Valley'를 조성 중이다. 시나이 반도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지정학적 이점 외에도 광물 자원이 풍부해 주요 투자 유치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나이 반도 기술 단지에는 정보통신과 자동차, 환경 및 생명공학 등의 첨단 산업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집트 정부는 시나이 기술 단지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8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72㎢에 달하는 기술 단지의 개발 여건 기초 조사에서부터 단계별 사업 구상 · 실행 방향 · 첨단 산업 분석 · 해외 기업 유치 전략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다. 기술 단지가 KOICA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진행된다면 시나이 반도는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이집트 최대의 상업 및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또한 기술 단지가 완공되는 2017년,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의 첨단 산업 단지를 대표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명 이집트 시나이 반도 기술 단지 조성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8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보고서 작성(마스터플랜 및 국제 마케팅 플랜 수립)



04 EGYPT

KOICA 연구원들, 현지에 수개월씩 상주하기도

산업 기술 센터 설립 조사 사업

The Master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Technology Center In Egypt

이집트는 제조업이 취약한 탓에 주어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상급 면화를 재배하고 있지만 정작 가공 기술이 부족한 탓에 가공된 면직물을 오히려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집트 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해 각 분야의 산업 기술 센터를 설립 중에 있다. 특히 사타트Sadat 시에 산업 기술 센터 설립을 구상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사다트 시는 첨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지역으로, 산업 기술 센터가 신설되면 기술 이전 및 인력 교육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KOICA는 2001~2002년까지 30만 달러를 들여 전문가를 여러 차례 현지에 파견해 사다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산업 분야를 발굴,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일부 연구원들은 현지에 수개월씩 상주하면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갔다. 조사가 종료된 후 KOICA는 식품가공과 섬유기술을 이집트 산업의 특화 분야로 지정하고, 'Industrial Technology Center'와 'Textile Technology Center' 및 'Food Technology Center'의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KOICA의 최종 보고서는 기술 센터의 수요 파악에서부터 조직 구성과 시설 계획, 예산 등 총괄적인 연구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 기술 센터 설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신설된 3개의 산업 기술 센터는 기존의 연구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업명 이집트 산업 기술 센터 설립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30만 달러 | **지원 내역** 보고서 작성(타당성 분석, 마스터플랜 수립 등)

05 EGYPT

공산품 품질 관리 시스템,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

공산품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Implementing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Manufacturing Products





이집트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인 여건 등을 활용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격에 비하여 품질이 낮은 것이 그 이유다. 이집트 '산업관리청ICA' 은 공산품의 품질 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공장 검사와 라이선싱, 소비자 불만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가 수기로 이루어져 일의 처리가 느리고, 품질 관리 시스템이 없는 탓에 실질적인 품질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집트 정부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공산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1~2005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산업관리청의 공산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산업관리청의 업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조사단을 파견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체류시켜 품질 관리 시스템과 정보 지원 시스템, 그리고 산업관리청의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이 같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문서의 정형화가 이루어져 업무 능률이 향상되었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품질 관리 분석 및 통계가 용이해졌다. 또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이집트 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네트워크 장비와 OA 기기, 사무용 가구 등 115만4천 달러 규모의 기자재를 제공했다.

KOICA의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집트에서 실시된 원조 프로젝트 중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이집트의 행정 전산화와 더불어 공산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명 이집트 공산품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5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소프트웨어 개발

06 EGYPT

아날로그 기술을 디지털 기술로!

알렉산드리아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Auto-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Alexandria

"이집트에서는 한국 자동차의 정비 기술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을 나서던 한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2006년 한국 자동차가 신차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이집트에 KOICA가 지원하는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이 문을 열었다.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는 대규모 산업 단지가 들어서 있는 이집트 제2의 도시로 현대 · 기아 자동차 및 타 자동차 브랜드의 서비스 센터가 많아 자동차 공과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당시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은 3층 건물인 알렉산드리아 서부 무하마드 빅 교육 센터의 전관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KOICA는 기존 직업훈련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4~2006년까지 180만 달러를 투입해 2백26종의 훈련 장비와 교보재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을 전수했다. 아울러 훈련원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자와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개원과 더불어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에는 3백20명의 학생들이 등록했다. 이집트 직업훈련청장은, "KOICA의 지원이 이집트의 기술 향상과 실업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라며 KOICA에 감사를 표했다. 직업 훈련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와 명성을 쌓아 온 독일의 기술 원조 기관인 'GTZ' 관계자도 개원식에 참석해 KOICA의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현재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은 연간 70여 회의 시험과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훈련원에서 가장 낙후된 분과였던 자동차 정비 분야에는 매년 1천여 명의 학생이 입학을 희망하고 있다. KOICA의 지원으로 재정비된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은 이제 산업계와 대학으로부터 견학과 훈련 위탁 요청을 받는 것은 물론, 인근 예멘과 이라크 등의 연수 위탁도 받고 있을 정도로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명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6년 | **사업 규모** 18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7 EGYPT 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 기술 전수는 처음

국립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National Software Development Center

이집트 정부는 1차 5개년 계획(1982~1987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국가의 현대화와 글로벌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IT 분야를 중기 개발 전략의 주력 분야로 정하고, 법 개정 및 전화와 인터넷 가입자 유치 등 정보통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이집트의 이동 전화 가입자는 1천9백만 명, 인터넷 사용자는 22만 명에 이른다. 세계 각국이 이집트의 I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 정부는 '국립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National Software Development Center' 설립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6년까지 130만 달러를 투입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자재를 제공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각종 산업기기와 가전제품에 활용되는 핵심 소프트웨어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 분야다. 또한 관리자와 엔지니어를 국내로 초청해 9주간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및 방법, 유지 보수 체계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

'국립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가 자리 잡은 곳은 수도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있는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다. 사막에 자리 잡은 탓에 '기술 오아시스'로 불리는 스마트 빌리지는 정부 부처와 세계적인 IT 기업, 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3백 에이커 면적의 기술 단지다. 스마트 빌리지는 ICT 산업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이미 많은 외국 기업들이 입주해 있지만 KOICA의 이번 사업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젝트는 드물다는 점에서 이집트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KOICA의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을 통해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이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개발 허브이자, 새로운 정보 산업 국가로서의 변화를 구상하고 있다.

사업명 이집트 국립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6년 | **사업 규모** 13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8 EGYPT 컴퓨터를 켜고 끄는 법조차 몰라…

정보통신 원격 교육 센터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Distance Learning Center for Telecom Engineers



"이집트에는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많고, 컴퓨터를 켜고 끄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조금 안다는 사람들조차 자판을 누르면 글자가 나오고 프린트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도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픽을 만들어 문서에 붙이는 걸 보여주면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집트는 중동에서 가장 광대한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엔지니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술 수준이 낮은 이유로 IT 분야가 발전하는 데 한계를 맞고 있다. '국립통신연구원 National Telecommunication Institute' 은 정보통신부 산하 교육 기관으로서, 정보통신 분야의 고급 기술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기술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집트 정부는 정보통신 엔지니어를 양성하고자 '국립통신연구원' 내 원격 교육 센터 설립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6년까지 70만 달러를 들여 원격 교육에 필요한 서버와 컴퓨터,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 또한 6명의 관리자를 국내로 초청해 'e-Learning' 교육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장비 설치와 기술 지도 및 강사 훈련을 위한 강의 자료 개발 등을 실시해 나갔다.

2006년 7월 카이로 '국립통신연구원'의 원격 교육 센터 개원식이 열렸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집트 정보통신부 장관은, "KOICA의 지원으로 설립된 원격 교육 센터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라며 KOICA에 감사를 표했다.

이 같은 'e-Learning' 교육은 이집트에서 최초로 시도된 방식이었다. 현재 원격 교육 센터는 'e-Learning'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IT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원격 교육 센터의 활동 영역을 점진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KOICA는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인터넷 기반의 원격 교육을 보편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사업명 이집트 정보통신 원격 교육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6년 | **사업 규모** 7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9 EGYPT 인구의 90%가 나일 강 지역에 거주해 난개발이 성행

토지 개발 정책 평가 · 감시 능력 강화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nd local Monitoring Systems to Observe and Evaluate Land Development Policies

이집트 인구의 90%는 비옥한 나일 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사막을 제외한 전 국토의 4%, 이 좁은 지역에 7천8백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까닭에 곳곳에 불법적인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우리나라의 시행착오와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아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높이고자 토지 개발 정책 평가 및 감시 능력 강화 사업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6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토지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토지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 및 감시 능력 증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개발 조사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이집트 국토계획청과 현지 컨설턴트,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탄타와 아시우트지역이다. 탄타는 도시 주변에 비옥한 농경지를 지닌 델타 지역으로 기존 시가지 재개발을 통한 도시 관리 방안을 찾기에 적합한 곳이다. 반면 아시우트는 광대한 사막 지역으로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계획적 도시 관리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지역이다. KOICA는 사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도시 개발 계획 및 통계 · 주택 · 사회 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국토계획청 관계자 15명을 우리나라에 초청해 토지 분야 정책 입안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KOICA는 이 사업을 통해 이집트의 도시 지표와 지역 특성에 따른 토지 개발 시뮬레이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사업명 이집트 토지 개발 정책 평가 · 감시 능력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6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보고서 작성, 국내 초청 연수

10 EGYPT 실습용 차량에 손도 못 댄다고?

기자 지역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 센터 개 · 보수 및 역량 강화 사업

The Project for Upgrading the Auto-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Embaba, Giza



"현재 이집트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4대가 대한민국 차입니다. 한국 차는 모두 전기 제어 장치로 작동됩니다. 한국과 30년 이상 기술력 차이가 있는 이집트에서는 이런 차를 수리할 기술을 가진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마후무드 엘 사라프 이집트 직업훈련청 부청장의 말이다.

"KOICA가 지원한 첨단 장비들, 이를테면 스캐너로 자동차를 진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교사나 학생들 모두 신기해합니다. KOICA에서 실습용 차량을 기증해도 학교 측에서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심지어 공구를 나눠줘도 쓰지 않고 고이 모셔 두기도 합니다."

KOICA 사업 책임자의 말이다. 이곳에서는 그만큼 장비가 귀하다는 뜻이다.

KOICA는 이미 쇼브라(1996~1999년)와 알렉산드리아(2004~2006년)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의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집트 정부는 두 사업을 가장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꼽으며 후속 사업으로 2005년 3월 기자 지구 내 엠바바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낙후된 교육 훈련 시설을 개선하고,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훈련 기법과 기술을 교육했다. 또한 노후화된 자동차 정비 기자재를 교체하고, 학생들을 국내로 초청해 발전된 자동차 기술을 체험하게 했다. KOICA는 교재 위주의 기존 교육 방식과는 달리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활용하는 등 최신 멀티미디어를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해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북돋웠다.

2008년 9월 엠바바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3년제 직업훈련학교로 새 출발을 하게 된 훈련원에는 개원 전부터 입학 문의가 잇따랐다.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어 신입생 정원을 당초 90명에서 1백30명으로 증원하기도 했다.

이곳 신입생들의 성적은 '이집트직업훈련청PVTD' 산하 직업훈련원 학생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엠바바 직업훈련원은 현지 자동차 회사인 현대의 가부르 및 기아 자동차와 산학 협력 협정서를 체결하고 학생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실력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사업명 이집트 기자 지역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교재 개발

11 룩소르 유일의 공업 고등학교 지원

EGYPT

중등 기술학교 시설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Luxor Mechanical Industry Secondary School



이집트는 아랍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계획 경제를 추구했지만 1980년대 말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 조정으로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물가가 안정되고 매년 6~7%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집트의 경제 성장은 주로 전기 전자 분야와 정보통신 및 자동차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그동안 전기 전자 · 기계 · 자동차 분야의 기능 인력 양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희망해 왔는데, KOICA는 주로 자동차 분야의 기능 인력 양성을 지원해 왔다.

나일 강 동쪽 연안의 룩소르는 신전과 '왕가의 계곡'이 자리 잡고 있는 관광지이자 농산물 집산지로, 최근에는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다. 룩소르는 중부 지방의 주요 도시이지만 1990년 교육부가 설립한 룩소르 중등 기술학교가 이곳의 유일한 공업계 고등학교일 정도다. 이집트 정부는 룩소르 중등 기술학교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룩소르 기술학교에 최신식 실습실을 구축하고,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했으며 기계 · 자동차 · 전기 등 3개 공과에 새로운 교육 훈련 장비를 제공했다. KOICA의 지원으로 룩소르 중등 기술학교는 이집트 중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컴퓨터 '수치제어장비CNC'를 갖추게 되어 기술 교육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다. 현재 룩소르 중등 기술학교는 나일 강 상류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기술학교로 발전하고 있다.

사업명 룩소르 중등 기술학교 시설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٢٣ ابريل آخر موعد لتسجيل بيانات المعلمين المتخلفين عن اختبار الكادر

الأقصر – محسن جود:

مليون دولار منحة كورية لتطوير التعليم الفنى بالأقصر

كتب سامح داغ الانصاف:

عبدالعزيز خلال توقيع الاتفاقية مع الوفد الكورى

الجمل .. فى الأقصر:

٢٣ أبريل آخر موعد للتقدم لاخ

لتسكين ٢٥٦ ألفا و٦٣٠ معلما ف

12 EGYPT 이집트 기술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배전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Developing and Automating the Electricity Distribution System in North Cairo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5천 년 역사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동시에 역동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도시다. 그중에서도 북부 카이로는 행정도시 헬리오폴리스Heliopolis와 상업 지대인 나스르 시티Nasr City, 공장 지대 쇼브라Shoubra가 자리 잡고 있어 변화의 속도가 한층 빠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전력 에너지 수요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집트의 전력 수요는 2015년까지 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이집트는 기술력 부족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나스르 시티Nasr City의 배전 시설은 한 해 6백39건의 고장을 일으키며 정전도 잦다. 이집트 정부는 '북부 카이로 배전공사 개발계획(2002~2022년)'을 수립하고, 배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180만 달러를 투입해 배전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헬리오폴리스와 나스르 시티에 전문가를 파견해 높은 배전 손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쇼브라 지역에는 배전 자동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배전 자동화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개폐기 원격 감시 및 제어 시스템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얻은 기술이다. 현재 KOICA는 현장 조사와 정전 원인 분석, 배전 자동화 시스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사업명 이집트 배전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18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보고서 작성







13 EGYPT

이집트 유물 관리는 한국 기술로

문화재청 유물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The Project of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of 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

지중해와 홍해에 연한 이집트는 이슬람 건축과 사원, 그리고 고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다. 역사적 유물로 인해 관광 산업은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이자 최대의 외화 수입원이다. 이집트 정부는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통해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재청 유물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문화재청 정보 센터를 구축하고, 유물의 효율적인 등록과 보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KOICA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와 고고학자를 파견해 이집트 현지에 적합한 유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IT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와 운영자,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이집트 문화재청은 일일이 손으로 진행하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합된 유물 정보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유물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져 이집트 문화를 연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집트 정부의 '2차 IT 발전 계획' 중 문화유산의 디지털화e-Culture와도 맥락을 함께 한다. 이집트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하와스 고유물 최고위원회 위원장은 "KOICA의 이번 사업은, 이집트가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추진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류의 유산인 이집트 유물은 이집트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것이기도 합니다"라며 KOICA에 감사를 표했다. KOICA는 2001년 이후 테러 및 불안정한 중동 정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집트 관광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인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사업명 이집트 문화재청 유물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4 이집트 환경 보호 수준은 최하

EGYPT

유해 폐기물 통합 관리 사업

The Project of the Management of Mercury Waste

이집트는 전반적인 환경 보호 평가에서 아프리카, 중동 지역 15개 국가 중 13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불명예스러운 순위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대도시 지역의 환경오염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2천5백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카이로 지역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각종 생활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산업 폐기물 처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1994년부터 유해 폐기물 관련 법체계를 수립하고, 수은 등 유해 폐기물 안전 관리를 지도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 시설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기술과 지식 부족으로 성과가 미비한 형편이다. 정부 예산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이집트 정부는 유해 폐기물 통합 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10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카이로의 위성도시인 '10th Ramadan City' 지역에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립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KOICA가 건설하게 될 수은 처리 시설은 750kg/hr을 수용하는 규모로, 인근 공단의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폐기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폐형광등 수집함과 수거 폐기물 운반 차량을 제공하고, 국내로 관련 공무원을 초청해 시설 운영과 관련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7년 사전 조사가 진행될 당시 이집트 최대 일간지인 〈알아흐람〉은 이에 대해 "한국과 이집트 간의 첫 번째 환경 분야 협력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Ramadan City'의 위생 여건을 개선하고, 앞으로 환경 분야의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게재했다.

사업명 이집트 유해 폐기물 통합 관리 사업 | **사업 기간** 2007~2010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5 EGYPT 중동 자동차 시장의 메카를 꿈꾸다

자동차 직업훈련원 시스템 개선 사업

Program for the Improvement for the Automotive Vocational Training System



이집트는 중동 자동차 시장의 메카를 꿈꾼다. 경제 성장에 힘입어 차량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07년에는 10만 대의 신차가 판매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일본차보다 현대 · 기아 등 국산 브랜드 차량을 훨씬 자주 볼 수 있다. 이집트 신차 시장의 40%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은 이집트의 자동차 정비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집트 자동차 산업이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KOICA는 그간 실시한 자동차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KOICA가 이미 실시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원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과 여러 면에서 차별화된다. 우선 초창기 기자재 제공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현지 여건에 적합한 중 · 장기적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자동차 훈련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표준화된 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 및 기술 자격 검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자동차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이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된 반면 이번에는 지방 소재 세 곳의 직업훈련원을 전체 사업 안에 연계시켜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배분은 지방의 산업 기반 확충과 더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KOICA는 2008~2010년까지 500만 달러를 투입해 교육 연수 센터를 설립하고 표준 교과 과정과 교재 개발, 능력 개발 프로그램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더불어 탄타 지역에 있는 'Kafer El Zayat'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쇼브라Shoubra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의 유지 · 보수 사업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KOICA의 지원으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우리나라의 정비 기술을 이전받아 온 이집트 직업훈련원은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이집트 자동차 직업훈련원 시스템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500만 달러 | **지원 내역** 표준 교과 과정 개발, 능력 개발 프로그램 구축, 교원 연수 센터 설립, 'Kafer el Zayat' 직업훈련원 지원, 쇼브라 직업훈련원 사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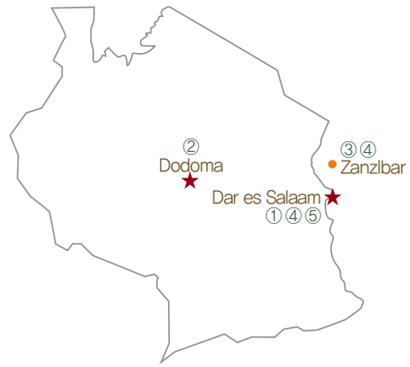
TANZANIA

사파리로 널리 알려진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해발 5,985m의 킬리만자로 산으로 유명한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람'은 평화의 항구라는 뜻을 갖고 있다. 동아프리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지만 탄자니아의 현재 국내 총생산은 7백30달러에 불과하다. 글 · 이상백

탄자니아는 2006년 IMF 통계에 의하면 세계 1백79개국 중 175위, 2008년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2백9개국 중 187위를 차지하는 최하위 빈곤 국가다. 탄자니아 정부는 1986년 이래 시장 개방과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과거의 개발 계획에서 실패한 점을 보완해 경제 발전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에는 최빈국의 멍에를 벗겠다는 목표로 'Vision 2025'이라는 국가 중 ·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농업, 보건 의료 분야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KOICA는 1991년 이래 5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고, 1백70여 명의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1백15명 규모의 봉사 단원을 파견하는 등 총 1천6백57만6천 달러 규모의 무상 원조를 제공했다. 특히 2006년 우리나라 정부의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계획 발표 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5개 중점 협력 대상국 중 하나다.

국명 탄자니아 합중국(United Republic of Tanzania) **정체** 대통령 중심제 **기후** 열대성 기후(우기 : 3~5월, 10~12월) **인구** 3천8백40만 명(2005년 기준) **면적** 945,087㎢(한반도의 4.3배, 본토 942,473㎢, 잔지바르 2,614㎢) **1인당 국민소득** 3백30달러(2005년 기준) **수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도도마(Dodoma, 행정 수도) **민족** 오빔분두족(37%), 킴분두족(25%), 바콩고족(13%), 기타(25%) **문자 해독률** 90% **종교** 이슬람교(56%), 기독교(42%), 토속종교(2%) **공용어** 스와힐리어 · 영어 · 아랍어(잔지바르 지역 공용어)



| 탄자니아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빈곤선 인구 비율** 1990년 39%, 2000년 36%로 감소 중이며 2015년까지 19.5% 이하로 감소 목표 설정 • **5세 이하 저체중 아동 수** 1990년 28.8%, 2005년 21.9%로 감소 중이며 2015년까지 14.4% 이하로 감소 목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교육 취학자** 2000년 58.7%에서 2005년 94.8%로 개선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초등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2007년 98% 수준 • **국회 내 활동 여성 비율** 2000년 21%에서 2005년 30.4%로 개선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인구 1천 명당)** 1999년 1백47명에서 2004년 1백12명으로, 2015년까지 64명 감소 목표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율** 2000년 80%에서 2015년까지 90% 달성 목표
모성 보건 증진	• **모자 사망 인구(인구 10만 명당)** 1996년 5백29명에서 2005년 5백78명으로 증가되었으나 2015년까지 1백33명으로 감소 목표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2000년 35.8%에서 2005년 46%로 개선되었으며 2015년까지 90% 달성 목표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 중 HIV 양성자** 2000년 9.4%에서 2005년 6.8%로 감소 • **결핵 인구(10만 명당)** 2000년 1백88명, 2007년 4백79명으로 증가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2000년 42%(농촌) · 85%(도시), 2007년 53%(농촌) · 73%(도시) • **기초 위생 서비스** 2002년 91%에서 2005년 88.9%(농촌) · 98.5%(도시)로 개선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2006년 46달러 • **인터넷 사용자 수(1백 명당)** 1990년 3.7명에서 13.5명으로 증가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country data 참조

01 TANZANIA 최고의 대학에 실험 실습 장비도 없다?

다르에스살람 공대 ICT 교육 강화 사업

Project for effective ICT education at the colleg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University of Dar es Salaam

영화 '말아톤'에는 사파리로 유명한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등장한다.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동아프리카 최대의 국가, 탄자니아는 거대한 대자연을 무대로 살아간다. 1백20여 개 부족이 모여 사는 탄자니아는 가족적 연대를 주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농촌 경제는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 환경도 열악하여 초등학교 진학률은 60%지만 중학교로 진학할 확률은 10% 미만이다.







최근 무역 자유화로 만성적 물자 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국가 발전과는 너무나 먼 실정이다. 아랍어로 '평화의 집'을 뜻하는 '다르에스살람'은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다. 탄자니아 정부는 'Tanzania National Development Vision 2025'를 수립하고 지식 경제 산업 육성과 국가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다르에스살람은 이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국립 다르에스살람 공대는 동아프리카 지역 최고의 대학으로 이곳 출신들은 탄자니아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ICT 시설이 열악해 우수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자재가 부족해 실험 실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다르에스살람 공대의 ICT 센터를 개·보수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ICT 센터 2곳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제공하여 각종 전산 설비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나라 대학과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수했다. KOICA는 다르에스살람 공대의 ICT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업명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공대 ICT 교육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ICT 센터 개·보수, 기자재 공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02 TANZANIA

이제 식수를 구하려고 몇 시간씩 걷지 않아도…

도도마 및 신양가 지역 식수 개발 사업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Ground Water in Dodoma and Shinyanga Regions

"KOICA가 마련해 준 우물 덕분에 도도마 지역과 신양가 주민 2만4천 명이 더 이상 식수난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도마 지역의 어느 공무원의 말이다. 마사이족의 나라, 탄자니아는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가 전체의 57.8%를 차지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2004년 시작된 가뭄으로 탄자니아는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탄자니아는 연간 1,000mm 정도의 강우량을 비롯하여 하천과 호수, 습지 등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형과 강우 패턴의 불균형과 수자원 관리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가뭄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매일 몇 시간씩 걸





어가 물을 길어 와야 할 정도다. 탄자니아 수자원부는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수자원을 개발 · 관리하기 위해 'MAJI Review'를 채택하고, '수자원종합개발관리계획(2002~2005)'과 '국가수자원개발계획(2006~2025)'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도도마와 신양가 지역의 식수 개발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두 지역은 탄자니아에서도 식수 보급률이 매우 낮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관정의 수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댐과 저수지는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다. KOICA는 신규 관정 8개를 개발하고, 기존의 식수 시설을 개 · 보수했으며, 빗물 저류 장치 40개를 설치했다. 또한 차량과 물탱크, 컴퓨터 등 기자재를 제공하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원조로 수자원 시설을 개발하고 복구한 바 있다. KOICA는 탄자니아에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해 물과 관련된 수인성 질병을 감소시키고, 식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여성과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물을 구하러 몇 킬로미터씩 걸어가는 일이 없도록 했다.

사업명 탄자니아 도도마 및 신양가 지역 식수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관정 개발 및 이용 시설 등 설치, 기자재 지원, 인적 자원 개발

03 TANZANIA

KOICA의 지원 후 농경지가 20배 늘어나

관개 시설 재건 및 농업 기계화 사업

Rehabilitation of the Irrigation Facilities and Modernization of the Farm

1964년 탄자니아와 통합된 잔지바르 섬은 인도와 아랍의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섬이다. 주민의 60%는 농촌에 거주하며, 노동 인구의 80%는 농업에 종사한다. 전형적인 농업 지역인 잔지바르 주민들은 주로 쌀과 콩, 곡물류를 용수 공급이 유리한 우기에 재배하고 있지만 관개 시설이 극히 미비해 생산량 감소와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한편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에스살람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모로고로 지역은 주민의 8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모로고로 지역을 '탄자니아의 곡창'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곳의 경작 가능 농경지가 5백90만 헥타르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경작되는 면적은 20%에 불과하다. 관개 시설 등의 기초 농업 시설이 부족하고 농업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광대한 경작지를 오로지 인력에 의지해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자니아 정부는 잔지바르와 모로고로 지역에 관개 시설 재건과 농업 기계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170만 달러를 투입해, 지하수를 개발하고 노후된 양수기를 교체하는 등 관개 수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수확기와 트랙터, 경운기 등 필수적인 농기계를 제공하고 쌀과 작물 재배, 가공식품 품질관리 분야의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농기계 제공으로 지역의 농업 현대화에도 기여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이 지역은 관개 농업 면적이 예전보다 20배 이상 늘어났고, 농지 활용도가 향상되어 2모작이 가능해졌



다. 잔지바르와 모로고로에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탄자니아 천혜의 자연 조건에 우리나라의 농업 기계화 기술과 경험이 더해져 주민들의 식량 부족을 개선하고, 빈곤 퇴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업명 탄자니아 관개 시설 재건 및 농업 기계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170만 달러 | **지원 내역** 지하수 개발 및 관개시설 재건, 기자재 지원, 농업 기계화 지원,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04
TANZANIA

매년 수확량의 절반을 버렸다고?

농산물가공 훈련 센터 건립 사업

Establishment of the Agro-Processing Training-Cum-Production Centers

탄자니아의 농산물 수확량은 많다. 하지만 농산물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수확 후 매년 과실 생산량의 40~60%가 변질되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당시 수확 후 가공 처리가 가능한 농산물은 연간 총 농산물 생산량인 270만 톤의 4%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는 태국 40~50%, 필리핀 78%, 말레이시아 83%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다. 또한 탄자니아 농가공품은 주로 칼과 강판 · 소형 · 그라인더 · 분쇄기 등을 이용해 가내수공업 형태의 영세 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있어 식품 안전과 포장 등 품질 수준 또한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국가 발전 계획 중 식품가공 산업 육성을 중점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특히 농산물 집산지이지만 식품가공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모로고로 주와 식품가공 발전 잠재성과 소비 시장이 큰 다르에스살람, 관광이 발달한 잔지바르 주에 식품가공 관련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소득 증대와 식품가공 산업을 육성하고자 농산물가공 훈련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300만 달러를 들여 다르에스살람 · 모로고로 · 잔지바르 지역의 지역 경제 발전과 영세 가공업자 교육 및 창업 기회를 증대하고, 가공식품 원료 생산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가공 훈련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KOICA는 식품가공 분야의 교육 훈련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중소 가공업자의 창업과 보육을 지원해 탄자니아 식품가공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사업명 탄자니아 농산물가공 훈련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5
TANZANIA

수술실이 정전되는 나라

다르에스살람 지역 보건소 진단 능력 강화 사업

Capacity Building for Diagnostic Service Improvement of Health Centers in Dar Es Salaam



"병원에 온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데굴데굴 구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CT나 초음파 장비가 없어요. 배가 아프다고 하면 배를 갈라볼 수밖에 없지요.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는 데 느닷없이 정전이 되기도 합니다. 비상 발전기를 돌리라고 소리를 치면 기름이 없어 못 돌린다고 할 때도 있어요."

탄자니아에서 일하는 KOICA 협력 의사의 말이다. 최근 탄자니아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밀한 인구 집중은 식수와 주거 환경을 오염시켜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되고 있다.

탄자니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은 영양실조 및 설사와 장염 같은 장 질환과 말라리아, AIDS를 비롯한 감염성 질환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과 1차 의료 기관은 시설과 장비가 노화되어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처 능력이 없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구 3백50만의 다르에스살람 시 보건 당국은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6개 보건소의 기능과 시설을 구립병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탄자니아의 키크웨테Kikwete 대통령은 2006년 11월 방한 당시 다르에스살람 지역의 진단 능력 강화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450만 달러를 들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랑기타투 · 부구루니 · 신자 등 3개 지역 보건소에 전염병 진단 및 모자 보건 센터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현재 가장 필요한 전염병 진단 및 모자 보건 향상을 위한 장비와 에이즈 · 결핵 · 간질환 등 감염성 질병 진단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산전 진찰과 고위험 산모 진단, 안전한 분만 및 가족계획을 위한 장비 등도 후속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장비 제공 외에도 전염병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방역 기술과 경험을 탄자니아에 전수하고 있다. KOICA는 탄자니아의 감염성 질환의 진단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낙후된 모자 보건 서비스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명 다르에스살람 지역 보건소 진단 능력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45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Latin America

지구촌의 가난과 배고픔을 함께 한다



Guatemala
Paraguay
Pe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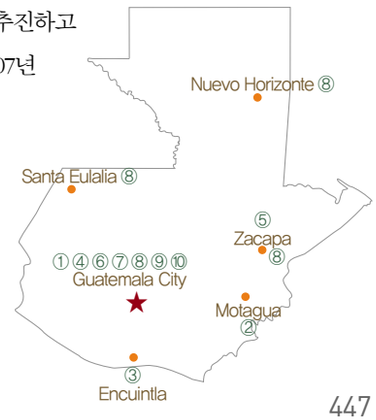


GUATEMALA

과테말라는 고대 마야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나라다. 인구의 58%가 빈민층에 속하며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세 번째로 심한 나라다. 1954년 쿠데타 이후 과거 36여 년간 무장 게릴라 그룹과의 내전과 쿠데타가 끊이지 않아 막대한 인적 피해를 입었다. 사회적 불평등 지수를 낮추는 것은 과테말라의 국가적인 과제다.

글 · 유지영

과테말라는 고대 마야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나라로 1524~1821년까지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 그 후 프랑스 혁명에 자극 받아 1824년 중미연방 형태로 독립했다가 1847년 과테말라 공화국 건립을 선포하고, 현재의 국가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1960년부터 군부 쿠데타 및 반정부 무장 게릴라에 의한 소요 등 불안정한 정국이 지속되면서 36년에 걸친 내전을 치렀다. 1996년 정부와 무장 게릴라 그룹은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과테말라를 전반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하게 된다. 평화협정 후 3차례의 민주 선거를 통해 과테말라의 국가 정세는 점차 안정되어 지속적인 발전과 3~4%의 경제 성장을 이어 오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내전의 후유증으로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는 2천4백60명이 살해됐다. 1996년 아루수 대통령이 반군과 평화협정을 맺으며 오랜 기간 지속된 내전은 종식되었지만 무기들이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미국이 과테말라에 대한 섬유 쿼터를 해제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받기도 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등장하고, 치안 불안으로 외국 기업들이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경제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 2007년 11월 2일, 1996년 민간정부 출범 이래 최초의 좌파 정권인 알바로 콜롬Alvaro Colom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알바로 콜롬 대통령은 사회 치안을 확립하고, 지방 개발 및 원주민들의 권익 신장과 교육, 보건 서비스 향상 등 사회 문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누적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7년까지 KOICA는 총 1천2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국명 과테말라공화국(Republic of Guatemala) **정체** 대통령 중심제 **기후** 고지대 · 열대지대(고온 다습한 기후) **인구** 1천3백만 명 **면적** 108,890㎢(대한민국 : 약 98,480㎢) **1인당 국민소득** 2천4백40달러(2007년 기준) **수도**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 **민족** 백인(5%), 라디노(혼혈, 40%), 인디오(50%) **문자 해독률** 69.1%(15세 이상 남성 75.4%, 여성 63.3%) **종교** 가톨릭(약 70%), 개신교(약 30%) **공용어** 스페인어(원주민은 마야어 등 23개 부족어 사용)

| 과테말라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하루 1달러 미만 소비 인구 비율** 1998년 13.2%에서 2002년 13.5%로 소폭 증가 •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1990년 57.9%에서 2000년 56.2%로 소폭 감소 • **5세 미만 저체중 아동 비율** 1999년 24.2%에서 2002년 22.7%로 소폭 감소 • **영양 불균형 인구** 1990년 16%에서 1995년 21%로 증가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등록률** 2000년 87%에서 2007년 95%로 상승 • **초등 교육 이수율** 1995년 48%에서 2007년 77%로 대폭 개선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 2000년 7%에서 2007년 12%로 소폭 개선 • **남아 대비 여아의 초등교육 등록률** 2000년 87%에서 2007년 93%로 소폭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아동 1천 명당 사망률** 1990년 82명에서 2007년 41명으로 대폭 개선
모성 보건 증진	• **산모 10만 명당 출산 중 사망률** 1990년 2백 명에서 2007년 2백90명으로 증가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 중 HIV 보균자 비율** 2000년 0.8%에서 2007년 0.8%로 상태 유지 • **인구 10만 명당 결핵 감염률** 1990년 1백40명에서 2006년 103.5명으로 다소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톤/1명)** 1990년 0.6톤에서 2004년 0.98톤으로 증가 • **전체 국토 중 산림지 비중** 1990년 44%에서 2007년 36%로 감소 • **수자원 이용 가능 인구 비율** 1990년 79%에서 2007년 96%로 개선

01 GUATEMALA 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1 아동 복지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he 1st Youth Attention Center in Guatemala City

보통 과테말라에서 결혼을 한 부부들은 10명 정도의 아이를 낳는다. 여자들은 14살, 15살이 되면 결혼을 한다. 10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이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가족들이 먹고살 수 있다. 과테말라에서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한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다.

1991년 당시 과테말라 국민의 46%가 15세 미만 아이들이었다. 과테말라 시 주변 1백76개 지역에는 79만 명의 빈민이 거주하는데, 이들 중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에 달한다. 거리의 아이들 대부분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생계를 유지하며 하루에 토티아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보통이다.

빈민층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우 아동 보호 시설 건립과 교육 문제가 사회 복지 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자 과테말라 대통령 영부인실 공공사업부는 1991년 여성 및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복지 시설 건립을 우리나라에 요청해왔다. KOICA는 1993~1995년까지 70만 달러를 들여 15세 미만 남자 아이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450㎡ 규모의 건물과 숙소 및 식당을 갖춘 복지원을 과테말라 시 시내에 건립했다. 또한 제과 · 재단 · 원예 · 석공 분야의 장비들을 제공해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 일할 수 있는 직업 훈련반도 마련해주었다. 아울러 컴퓨터 분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복지원 교사와 학생들에게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사업명 과테말라 제1 아동 복지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3~1995년 | **사업 규모** 70만 달러 | **지원 내역** 복지원 건축, 기자재 공급, 전문가 파견







02 GUATEMALA

광물 자원의 해외 개발을 유도하다

광물 탐사 사업

The Geochemical Exploration Project in Guatemala

과테말라는 국토 전역에 걸쳐 광산 개발이 가능한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광업 분야의 개발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 1985년 과테말라 정부는 광업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도 탐사 및 개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초조사 및 외부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1994년 과테말라 정부는 지화학도를 제작하기 위해 광물 탐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5~1998년까지 56만 달러를 들여 과테말라 중남부 모타구아 분지 지역을 대상으로 금과 기타 광물의 부존 여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퀘브라다스Quebradas 지역 금 · 은 광화대 · 도나 마리아Dona Maria 지역 비금속 광화대 · 라 유니온La Union 지역 다중 금속 광화대 · 요카탄Jocatan 지역 텅스텐W-탄탈럼Ta 광화대 · 산 아구스틴 아카사과스티안San Agustin Acasaguastian 지역 다중 금속 광화대 · 카난Cannan 지역 연 · 아연 광화대 등 6개 광물의 부존 유망 지역을 선정하고, 2개 구역 63개 성분 도면 등 화학 성분 분포 광역 지화학도를 제작했다. 또한 다변수 통계 처리에 의한 요인 및 군집 분석 지화학도를 7부 제작, 과테말라 정부에 제공해 해외 자원 개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과테말라는 KOICA의 지원으로 국내 광화대를 확인하고 개발 방법을 연구하게 됐으며, 산업 원료 공급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명 과테말라 광물 탐사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8년 | **사업 규모** 56만 달러 | **지원 내역** 정밀탐사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

03
GUATEMALA

과테말라 불우 아동을 돕다

제2, 3 아동 복지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he 2nd and 3rd Juvenile Attention Center in Guatemala City



과테말라는 현재까지 중남미 지역의 10대 빈곤국 중 하나로 부의 불균등과 높은 실업률 등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과테말라는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세 번째로 큰 나라로, 사회적 불평등 지수를 낮추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를 만큼 심각하다. 과테말라 정부는 사회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불우 아동들에 대한 관리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단체는 1991년부터 'Help for Street Children' 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KOICA의 지원을 받아 과테말라 제1 아동 복지원을 건립한 바 있다.

KOICA는 기존의 경험을 살려 1996년 우리나라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 당시 약속한 제2 · 제3 아동 복지원을 1997~1999년에 걸쳐 건립했다. 아동 복지원은 12~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수도인 과테말라시티에서 남쪽으로 65km 떨어진 엔퀸틀라Encuintla 시에 각각 5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설립되었다.

상대적 빈곤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KOICA의 아동 복지원 건립은 체계적인 직업 교육으로 빈민층 청소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시키고,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과테말라로서는 청소년기부터 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KOICA는 그동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아이들에게 복지원에서 컴퓨터 · 전기 · 제과 · 요리 · 봉제 · 미용 · 가전 수리 등의 기술을 가르쳐 어엿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사업명 과테말라 제2 · 3 아동 복지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9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복지원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04
GUATEMALA

대외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다

외교부 e-library 구축사업

Establishment of an e-library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우리나라와 과테말라는 1962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KOICA가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는 1991~2007년까지 프로젝트 사업 위주로 1천2백만 달러 이상을 과테말라에 지원해 왔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면서, 2008년에는 약 3백50만 달러를 지원했다.

과테말라 외교부 전자도서관e-library 구축 사업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관리와 가공 능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외교부의 주요 의사 결정과 업무 추진 시 활용될 각종 국제법과 협정 등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지원을 필요로 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외교 관련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외교부의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2~2003년까지 38만 달러를 들여 신축된 도서관에 서버 · 컴퓨터 · 도서 관리 ·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IT 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관련 기자재의 설치 및 활용 방법과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과테말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시스템 관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서관 관리자 및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사업명 과테말라 외교부 e-library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3년 | **사업 규모** 38만 달러 | **지원 내역** 도서관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05
GUATEMALA

지방에서도 기술 교육을 받고 싶다

기술교육 훈련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Korea-Guatemala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





과테말라는 1960년부터 1996년까지 36년간 내전을 겪으면서 3%의 인구 성장을 보인 결과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 하지만 대부분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직업 교육 훈련은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다.

과테말라 국민의 50%는 농업에 종사하지만 농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불과하다. 반면 공업은 18.9%를 차지해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공업 분야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기술 훈련 교육을 전담하는 '기술훈련청INTECAP' 의 주도로 수도권에 6개의 훈련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주민들은 기술 교육을 받고 싶어도 수도권을 제외하곤 기술 훈련원이 없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과테말라 포르티요Portillo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를 파견해 대통령과 면담 중 이러한 사정을 처음 듣게 되었다. 그 후 과테말라 정부는 수도권에서 170km 정도 떨어진 사카파Zacapa 주에 기술 교육 훈련원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2년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고, '기술훈련청' 과의 협의를 거쳐 2003~2004년까지 120만 달러를 투입해 훈련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정비 · 용접 · 제과제빵 · 이미용 분야 등 특화가 가능한 공과를 선정, 각 80명씩 연간 총 3백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훈련원을 사카파 주에 세우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교육을 실시했다.

2004년 7월 개최된 기술훈련원 준공식에서 베르게르Berger 대통령은, "한국이 지원해준 훈련원이 과테말라 동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효될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에 대비해 국가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라며 KOICA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KOICA 김석현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과테말라의 노력이 국가의 잠재력 개발과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업명 과테말라 기술교육 훈련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4년 | **사업 규모** 120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원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06
GUATEMALA

섬유 산업의 대외 경쟁력 높여

섬유 기술 훈련원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he Apparel and Textile High Technical Training Workshop in Guatemala 1 INTECAP



"과테말라에서도 잘사는 집 아이들은 우리처럼 학교에 다니고 졸업 후 직업을 갖습니다. 하지만 빈곤층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결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테말라에서 직업 훈련원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는 KOICA 관계자의 말이다. 과테말라의 섬유 및 의류 시장은 2004년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섬유 수출 쿼터를 받아 안정적으로 대미 수출을 하면서 미국의 의류 생산 기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섬유 분야의 쿼터 제도는 2004년 말 폐지되었고, 2007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의한 자유 무역이 실시되면서 큰 타격이 우려되었다. 더욱이 '미 · 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 이 발효된다면 과테말라 제일의 수출 품목인 의류 시장이 위축되어 이로 인한 산업 붕괴와 실업난이 예상되었다.

과테말라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급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 과제로 떠올랐다. 2004년 과테말라 경제부 루이스 오스카Louis Oscar 차관은 KOICA와의 협의 중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뒤지지 않기 위해 고급 기술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우리나라와 '중남미통합체제SICA'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05~2006년까지 80만 달러를 들여 과테말라시의 '기술훈련청INTECAP' 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제1 훈련원의 섬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섬유 및 패션과 관련된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교과 편성 및 교재 제작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했다. 이외에도 2개월간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현지 기술 수준을 감안해 관련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운영 방법을 교육했다.

사업명 과테말라 섬유 기술 훈련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8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교과 편성 및 제작 방안,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7 GUATEMALA

전국으로 보급된 KOICA의 교육 프로그램

한 · 과테말라 ICT 훈련 센터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Korea-Guatemala ICT Training Center



정보접근지수 DAI, Data Access Index는 정보 및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를 기준으로 국가 간 ICT 접근성을 비교할 수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0.82인 반면 과테말라는 0.38로 중하위 그룹에 속한다. 하지만 과테말라 정보통신 산업 현장에서 첨단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과테말라 정부는 국가 인프라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전력을 쏟고 있다.

과테말라 '기술훈련청INTECAP' 역시 기존의 기초 직업 훈련원 이미지에서 탈피해 기술교육 전문 기관이자 ICT 산업의 고급 기술 인력 양성 기관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기존의 '기술훈련청' 소속 4개의 직업훈련원을 성공적으로 건립해 준 우리나라에 다시 선진 교육 과정 개발과 강의 기법, 그리고 첨단 교육 장비를 지원해주기를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250만 달러를 투입해 기술훈련청과 합작으로 과테말라시티 기술훈련청 바로 옆에 총 400만 달러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ICT 훈련 센터를 신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교육 · 행정용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e-learning' 룸을 구성, 훈련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를 과테말라 전 지역의 직업 훈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KOICA의 지원으로 구성된 ICT 교육 프로그램은 과테말라 전국으로 보급되고 있다.

사업명 한 · 과테말라 ICT 훈련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 센터 건축,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

08
GUATEMALA

한 달에 13달러만 내면 돼요

청소년 직업훈련원 자동차 정비 훈련소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utomotive Center of the INTECAP Training Center Guatemala 4

"한 달에 13달러만 내면 훈련원에서 교육받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국립대학으로 진학할 수도 있답니다. 직업훈련원 졸업생들은 국립 산카를로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KOICA가 지원한 직업훈련원의 교육 수준을 국가가 인정하는 셈이지요."

과테말라 청소년 직업훈련원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있는 한 학생의 말이다. 2005년 과테말라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도 대비 51%, 2006년에는 18%가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도 좋은 수출 기회가 되고 있어, 2006년 과테말라 신차 판매 순위를 보면 현대자동차가 4위, 기아자동차가 6위를 차지했다.

과테말라시티에는 2백 개 이상의 자동차 정비소가 있지만 종합적인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갖춘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과테말라 '기술훈련청INTECAP'은 KOICA가 이미 지원한 바 있는 과테말라시티 내 청소년 직업훈련원에 자동차 정비과 개설을 요청해 왔다. 기술훈련청은 과테말라 전역의 직업훈련소 중 총 11곳에 자동차 정비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과테말라시티에 있는 2개 훈련소에서 자동차 정비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국내외 원조를 통해 지원된 이들 훈련소의 장비와 시설은 우수한 편이지만 증가하는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었다.

과테말라 기술훈련청은 학생들이 졸업 후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질적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공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





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60만 달러를 투입해 직업훈련원 내 자동차 정비 훈련소를 건립하고, 기자재를 제공했다. KOICA가 지금까지 지원한 직업훈련원은 기술 인력을 훈련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까지 활동 분야를 넓힐 계획이다.

사업명 과테말라 청소년 직업훈련원 자동차 정비 훈련소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60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 센터 건축,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

09
GUATEMALA

난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난민 정착 지원 및 교육 강화 사업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Program for the Eradicated People

아니라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지역 개발의 모델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사업명 과테말라 난민 정착 지원 및 교육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자활 및 직업 교육,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찬란한 마야 문명을 꽃피운 과테말라는 1954년 혁명에 의해 정부가 수립된 이후 36년간 내전을 겪었다. 내전이 종료된 후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으로 떠났던 난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난민들은 주로 마야족의 토착 원주민들로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혼혈족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와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재정착을 위한 대책이 미비해 문맹 및 기초 교육 부재, 빈곤 등의 문제는 과테말라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에 대한 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과테말라 정부는 난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250만 달러를 투입해 과테말라 전역 6개 난민 정착 마을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고, 자활 및 직업 교육을 통해 경제적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각 마을에 마을회관 · 학교 · 직업훈련소 등을 건립하고 관련 장비를 제공했다. KOICA는 과테말라 난민들에게 교육과 기술 훈련 기회를 제공해 소득 증대와 빈곤 감소에 기여했을 뿐만



10 GUATEMALA

민원 서비스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편리해졌다

행정 민원용 웹 포털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a Web Portal for Public Services

과테말라는 2008년 1월, 중도 좌파 성향의 알바로 콜롬 카바예로스Alvaro Colom Caballeros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 후 경제 발전 정책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치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국 21개 부락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21개의 다양한 언어도 국가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2008년 1월에 들어선 새 정부는 사회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치안 확보 및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제공과 기초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한 나라에서 대국민 행정 서비스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 중 하나다. 하지만 과테말라 정부의 행정 민원 처리는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부처 간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지원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2004년 11월 과테말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중 'e-Service'의 핵심을 행정 민원 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 투명성 확보에 두었다. 과테말라 정부는 민원 서비스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인터넷 기반의 포털 행정 민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80만 달러를 투입해 서버 등을 포함한 하드웨어와 포털 엔진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정부 관리 · 프로세스 분석 · 시스템 운영 등의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사업명 과테말라 행정 민원용 웹 포털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8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시스템 개발,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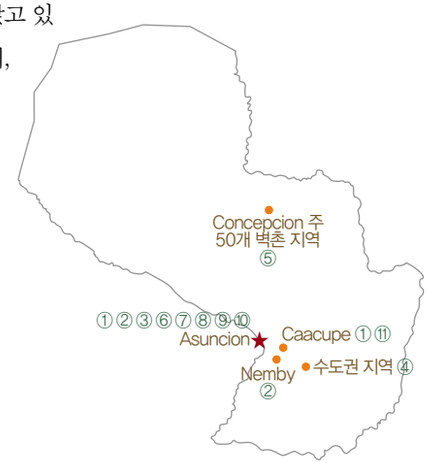




PARAGUAY

파라과이는 장기간의 군부 통치 이후 1990대 후반 민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에서 2005년 사이 남미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현재 하루 생계비 1달러 미만의 절대 빈곤 인구를 감소시키는 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글 · 박숙현**

파라과이는 1990년대 금융 위기와 농산물의 국제 시장가 하락을 비롯한 정세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 연평균 3.7%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2005년 9.9%, 2006년 12.5%로 지속적 경제 성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2006~2015년까지 제도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 생산 등 여러 분야의 개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파라과이는 2006년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 지수 순위에서 163개국 중 111위를 차지했고, 1998~2005년 사이 남미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발전 장애 요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법과 사법 제도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투자 위험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가 경제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 파라과이는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 이래 문화 · 기술 · 무역 · 범죄인 인도 협정 등을 맺어 왔다. 2005년 교역 규모는 자동차 · 섬유 · 가전 · 목재 등을 포함해 5천5백 만 달러다. 남미의 주요 경제, 사회 협력 국가 중 하나인 파라과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진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 교민의 수는 6천 명에 달하는데, 이는 1960년대 우리나라 농민의 파라과이 이민 정책 덕분이다.



국명 파라과이공화국(Republic of Paraguay) **정체** 대통령 중심 공화제 **기후** 대륙성 아열대 기후(평균 기온 : 겨울 15℃, 여름 32℃) **인구** 6백80만 명(2008년 기준) **면적** 400,000㎢(한반도의 약 1.8배) **1인당 국민소득** 4천5백 달러 **수도** 아순시온(Asuncion) **민족** 메스티소 95% **문자 해독률** 94.9% **종교** 가톨릭(90%), 메노나이트 교회 및 개신교(10%) **공용어** 에스파냐어(스페인어), 과라니어

| 파라과이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6백80만 명) 중 빈곤층** 1995년 20.5%, 극빈층은 1990년 5.9%, 1998년 19%, 2005년 9.3%로 90년대 후반 급증하다가 다시 감소 추세 • **극빈층** 2015년까지 8%까지 감소 목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1991년 92.8%에서 2004년 94.5%로 증가 • **초등학력 이수율** 1991년 66.9%에서 2004년 84%로 증가 • **15~24세 문맹률** 1992년 4.4%에서 2007년 3.6%로 감소 • **중등학교 취학률** 2015년까지 80%로 향상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고용된 여성 비율** 1991년 39.9%에서 2003년 42.6%로 증가 • **여성 의원 좌석 수** 1990년 5.6%에서 2008년 10%로 확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 1990년 신생아 1천 명 중 41명 사망에서 2006년 약 22명 사망으로 축소 • **0세~1세의 유아 사망률** 신생아 1천 명 중 1990년 33명 사망에서 2006년에는 19명 사망으로 축소 • **2015년까지 5세 이하 신생아 사망률** 1천 명 중 14명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
모성 보건 증진	• **산모 10만 명당 사망 수** 2005년 1백50명 • **모자보건 전문 인력 비율** 1990년 66%에서 2004년 77.1%로 증가 • **임산부 건강 진단 관리 비율** 1990년 82.75%에서 2005년 93.5%로 증가 • **2015년까지 산모 10만 명당 사망 수** 47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성인(15~24세) 중 HIV 발병률**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0.4%이며 2007년 0.6%로 오히려 증가 • **HIV/AIDS의 사망률** 정부의 목표는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반전시키는 것 • **결핵 발병률 및 사망률** 10만 명당 1990년 73.8%에서 2006년 70%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남미 국가 중 높은 편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식수 제공률** 1990년 52%에서 2006년 77%로 증가, 그러나 도시와 농촌 지역은 2006년 94%, 52%로 현저한 차이 • **도시 지역 슬럼 지역 인구** 1990년 36.8%에서 2005년 17.6%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빈곤 계층과 도농 간 소득 및 생활 격차는 큰 해결 과제로 부상

01 PARAGUAY 원목은 수출하면서 가구는 수입

기술학교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Nembu Technical College Project





파라과이란 국명은, '위대한 강으로부터'라는 과라니 족의 언어 'Paraguay'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위대한 강'은 이구아수 폭포와 이어진 파라나 강을 일컫는다. 동쪽으로는 브라질, 남쪽과 서쪽으로는 아르헨티나, 북서쪽으로는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라과이는 장기간의 군부 통치 이후 1990대 후반 민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빈곤 심화 및 빈부의 격차는 파라과이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1995~2002년 사이 도시 근로자 실업률은 3%에서 15%로 증가했고, 빈곤율 또한 30.5%에서 46.4%로 증가했다. 특히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여드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 빈민을 비롯한 실업과 범죄, 빈부 격차는 더욱더 심화되었다.

파라과이에서 15~29세까지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직업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 좀처럼 빈곤에서 벗어나기기 쉽지 않다. 파라과이에서는 우수한 학생조차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을 포

기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사회에 불만을 갖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기술학교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년 20만 달러를 들여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Asuncisn에 있는 넴부Nembu 직업 기술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컴퓨터 51대와 레이저 프린터 7대 · 목공 계측기 10대 · 목공 공구 세트 10대 · 목공 선반 등을 제공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목공 기술을 교육했다. 파라과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목 수출국으로 원목이 수출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목공 기술이 낙후한 탓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가구는 오히려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KOICA는 특히 목공예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지원 사업이 끝난 후에도 1998년 봉사 단원을 파견해 학교의 낙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컴퓨터 기술을 교육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사업명 파라과이 기술학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6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및 목공 전문가 파견

02 PARAGUAY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킨다

농촌 개발 사업

The Pilot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ral Community





2002년 12월 13일 아침 7시 40분, 한국 · 파라과이 수교 40주년에 맞추어 파라과이 라디오 방송인 카디널Cardinal 씨는 으브꾸이 시 시범 농장 개소식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개소식에는 파라과이의 다리오 바움가르텐Dario Baumgarten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주지사와 투자 국장 및 지역 주민 250여 명과 우리나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범 농장은 1970년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파라과이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었다.

처음엔 1997~1999년까지 3년간 계획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를 맞은 파라과이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난황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파라과이 정부는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 80만 달러와 70만 달러를 투입해 3년간 사업을 연장하고, 2002년 마침내 성공적으로 농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KOICA는 영농 센터 건축과 육묘장을 지원하고, 영농 분야 전문가 파견 및 연수

생 초청, 관련 기자재 등을 제공하며 우리나라 농촌 개발 사례를 보여주었다. 파라과이 정부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가 주택 건설과 입주 농가 선정 및 영농 지도 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역경을 극복하고 마무리된 사업이라 우리나라와 파라과이의 우정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명 파라과이 농촌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1997~2002년 | **사업 규모** 80만 달러 | **지원 내역** 육묘장 및 영농센터 건축, 기자재 제공,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3 PARAGUAY

대형 화재나 긴급 재난도 문제없다

방재 시스템 현대화 사업

The Project for Modernization of the National Disaster Control System

파라과이의 비능률적인 행정 체계와 부정부패 그리고 치안 불안 및 빈곤 악화, 빈부 격차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비능률적 행정 체계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파라과이의 방재 시스템에도 예외가 아니다.

2004년 8월 아순시온의 한 슈퍼마켓에서 거대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 중 하나인 엘니뇨 등 홍수와 가뭄 같은 재해가 잦아졌다. 하지만 파라과이에서 대형 화재나 긴급 재난에 대한 대책이나 피해 방지 시스템은 기대하기 힘들다.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방재관리청의 상근 인원은 45명에 불과하고, 보유 장비도 미비한 데다 연간 예산은 5백50만 달러 수준이다. 파라과이 정부는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재 시스템을 현대화하기로 결정했다.



Indispensable para decidir

LA NACION

REPÚBLICA DEL PARAGUAY - LUNES 21 DE JULIO DEL 2008 - AÑO 14 - Nº 4.782 - G. 5.000 - www.lanacion.com.py

Dólar: 3920/3960 ⇄ Euro: 6.100/6.280 ⇄ Real: 2.270/2.350 ⇄ Peso Arg.: 1.280/1.330 ⇄ Dow Jones: 11.496,57 ⇄ Bovespa: 59988 ⇄

MANEJO DE DESASTRES NATURALES

Cooperación coreana donó US$ 1 millón a la SEN

También fue beneficiado con el aporte el Cuerpo de Bomberos Voluntarios del Paraguay.

La Secretaría de Emergencia Nacional (SEN) y el Cuerpo de Bomberos Voluntarios del Paraguay (CBVP) fueron beneficiados con un aporte de casi un millón de dólares de la Agenci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de Corea (KOICA).

La contribución se realizó en el marco del "Proyecto de Modernización del Sistema de Manejo de Desastres Naturales en el Paraguay" e incluyó equipamientos, insumos y entrenamiento especializado en Corea y Paraguay.

Los aportes fueron entregados durante una ceremonia oficial de la que participaron el titular de la SEN, José Key Kanauwa, y el embajador coreano, Joo Tae Kim. También asistieron Luis Sánchez y Rafael Valdez, autoridades de la Junta Nacional y del Cuerpo de Bomberos Voluntarios.

La cooperación facilitó la instalación y equipamiento del nuevo Centro de Operaciones para el Manejo de Desastres del SEN, que está dividido en salas de Comando, de Operaciones y de Capacitación e incluye un sistema digitalizado de advertencias hidricas.

El sistema será el soporte de planes preventivos de protección a la población ribereña, en casos de crisis derivadas de inundaciones registradas en periodos de crecida del río Paraguay.

El sistema de monitoreo hidrológico y de control de precipitación pluvial funciona a tiempo completo, a través de estaciones automáticas con lectores biométricos instaladas en el puerto de Asunción y el arroyo Mburicaó.

El sistema proveerá insumos para la elaboración de planes de asistencia

KOICA는 파라과이 정부의 요청으로 2007~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아순시온방재관리청National Emergency Agency안에 종합 상황실을 구축하고, 화재 진압용 소방차와 안전모, 구조용 로프 및 유압 장비 등 관련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긴급 구조와 재난 대책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긴급 구호 교육을 실시했다. KOICA의 지원으로 비로소 파라과이 정부는 강우 수위 예보와 경보 시스템을 갖춘 현대적인 종합 상황실을 갖추게 되었다.

사업명 파라과이 방재 시스템 현대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방재 시스템 구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ULTIMA HORA

Asunción, martes 22, julio 2008
Año XXXV - Nº 11.832 - 144 páginas - G. 5.000

35 años

www.ultimahora.com

14 País

Corea apoya a la SEN y a Bomberos Voluntarios

En el marco del Proyecto de Modernización del Sistema de Manejo de Desastres Naturales en el Paraguay, la Secretaría de Emergencia Nacional (SEN) y el Cuerpo de Bomberos Voluntarios del Paraguay recibieron un aporte de un millón de dólares de parte de la Agenci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de Corea (Koica). La colaboración incluyó equipamientos diversos, insumos y entrenamiento especializado en Corea y Paraguay.

Los aportes fueron entregados durante una ceremonia oficial que contó con la presencia del titular de la SEN, el Gral. (SR) José Key Kanazawa, y el embajador de Corea en Paraguay, Joo Taec Kim. Igualmente participó del evento el sociólogo Camilo Soares, futuro ministro del área. También asistieron Luis Sánchez y Rafael Valdez, autoridades de la Junta Nacional y del Cuerpo de Bomberos Voluntarios. El apoyo asiático facilitó la instalación y el equipamiento del nuevo Centro de Operaciones para el Manejo de Desastres de la SEN. El mismo está dividido en salas de Comando, de Operaciones y de Capacitación, e incluye un sistema digitalizado de advertencias hídricas.

PREVENTIVO. El sistema será el soporte de planes preventivos de protección a la población ribereña, en casos de crisis derivadas de inundaciones registradas en períodos de crecida del río Paraguay.

El sistema de monitoreo hidrológico y de control de precipitación pluvial funciona a tiempo completo, a través de las estaciones automáticas con lectores biométricos instalados en el puerto de Asunción y el arroyo Mburicaó. También se incluyó la entrega de una motobomba de 8,5 T, accesorios y equipos de rescate a los Bomberos Voluntarios.

Igualmente, el proyecto incluyó cursos de entrenamiento sobre rescatismo.

Motobomba. La donación de Corea incluye un carro motobombas y otros elementos.

04 PARAGUAY

전에는 배전 손실이 30%가 넘었어요

배전 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자동 검침 시범 사업

The Master Plan for the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and the Automatic Meter Reading System Pilot Project



매년 6.5%씩 상승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파라과이 정부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30%가 넘는 배전 손실과 낙후된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KOICA는 파라과이 정부의 요청으로 배전 시스템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해 2007~2009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수도권 2개 지역에 대한 배전 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자동 검침 시범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수도권 지역 100가구에 자동 계량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분야와 직급별로 구성된 연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파라과이 전력청은 한국전력공사의 기술 지도에 따라 현대화된 검침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도권인 페르난도드모라, 루케, 산로렌소, 빌랴아제스, 카피아타, 이타구아 등의 지역에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KOICA의 지원 사업이 완료되면 아순시온 시내에 위치한 마리스칼로페스, 델솔, 몰티 플라자 등 거대 쇼핑몰과 대형 슈퍼마켓, 스타디움 등은 우리나라 기술로 생산된 자동 전력 검침기로 전력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사업명 파라과이 배전 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자동 검침 시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계량 시스템 구축,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5 PARAGUAY

야호!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물이 나와요!

벽촌 지역 식수 공급 시설 사업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Potable Water Supply System of the Paraguayan Rual Regions



"전에는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산타마리아 강까지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오전과 오후에 모터만 돌리면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물이 나옵니다."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 남쪽에 있는 이타쿠루미 마을 주민 기예르마 펠로소 데아마릴랴 씨의 말이다. 파라과이 벽촌 지역 주민들은 오늘도 물을 길러 마을의 공동 우물로 간다. 집 안에 수도는 고사하고 집 주변에선 생활용수조차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이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공동 우물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하는데, 그나마 우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물탱크가 오는 날이면 줄을 서서 배급을 받아야 한다. 깨끗한 물이 귀한 이곳에서는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목이 마르면 근처의 흙탕물을 마시는 것이 보통이다. 이로 인해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복통에 시달리면서도 견디며 살아간다. 파라과이 정부는 벽촌 지역 식수 공급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3~1995년까지 73만 달러를 들여 'Conceopcion' 주를 포함한 7개 주 50개 벽촌 지역에 간이 상수도용 펌프 1백 대와 전기 공급 취약 지역에 발전기 10대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장비 사용법과 유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계기로 벽촌 지역 인구가 전 국민의 80%인 350만 이상을 차지하는 파라과이는 식수 공급 시설을 보급해 오지 주민들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수인성 질병을 퇴치할 수 있었다.

식수 공급 장비 기증식에 참석한 보건부 장관 아드레스 비도비치 모랄레스 Adre' s Vidovich Morales 박사는, '물은 생명수이며,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국가 개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KOICA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사업명 파라과이 벽촌 지역 식수 공급 시설 사업 | **사업 기간** 1993~1995년 | **사업 규모** 73만 달러 | **지원 내역** 장비 공여, 전문가 파견





06 PARAGUAY 구급차도, 간호사도 없어요

아순시온 인근 3개 지역 모자 사망률 감소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Improving Maternal & Child Health Care Services

아순시온 근교의 비야 엘리사Villa Elisa, 림피오Limpio, 카피아타Capiata 지역의 병원들은 구급차는 고사하고 의약품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도 열악하고 주말이면 당직 의사도 없다. 산모가 출산을 하고 싶어도 자연 분만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며, 구급차와 간호사도 없이 소방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동 중 산모가 사망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며 무사히 출산을 한다고 해도 영 · 유아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의료 환경은 파라과이 인구의 40%가 넘는 모자인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모자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모자 사망률 감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327만 달러를 투입해 파라과이 인근 3개 지역에 15세~49세 사이의 가임 여성과 임산부, 영 · 유아를 보살필 수 있는 1,142㎡ 규모의 모자 보건소를 설립하고, 수술용 침대와 의료 장비를 제공했다. 또한 보건 정책 전반에 관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파라과이 보건부 장관인 오스카 마티네스 돌단Oscar Martinez Doldan은 모자 사망률 감소 사업을 지원해준 KOICA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국립 의과대학과 연계해 의료 기술자와 보조 인력을 적극적으로 교육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업명 파라과이 아순시온 인근 3개 지역 모자 사망률 감소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327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07 PARAGUAY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여주었다

외교부 현대화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Moderniz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of Paraguyan MOFA

현대 사회에서 정보화 수준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이는 파라과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7년 당시 파라과이 외교부도 정보 수집과 활용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파라과이 정부는 외교부 현대화를 시범 사업으로 정하고, 정보통신 분야 시스템 개발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7년 40만 달러를 들여 외교부와 재외 공관 간 행정망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망 기기와 전산 장비를 제공했다. 또한 5백 명이 넘는 파라과이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산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 사업은 대만과 일본,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등과의 기술 협력 속에 실시되어, 유수한 국제 원조 기관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파라과이 외교부 차관 'Ruben Melgarejo Lanzoni'는 "양국 간의 우정을 상징하는 KOICA의 지원이 농촌 개발 등 다른 분야로 확장되는 데 외교부 현대화 프로젝트가 시작점이 된 것 같다"며 KOICA에 감사를 표했다.

사업명 파라과이 외교부 현대화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7년 | **사업 규모** 4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08 PARAGUAY

남미 최초로 출입국 지문 인식 시스템 도입

이민청 및 여성부 정보화 사업

The Project for the Support of IT Network of General Immigration Direction & the Modernization of the Ministry of Women

9·11 테러는 파라과이 이민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과 여성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4년 당시 파라과이 정부는 외국인 등록증의 위·변조와 증명서를 이용한 신분증의 허술한 발급,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출입국 관리의 비효율성과 범죄인 국경 출입 통제 등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라과이 정부는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80만 달러를 들여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자문을 했다. 이와 함께 1992년 발족한 파라과이 여성부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IT 교육을 실시하고 낙후된 컴퓨터 등을 교체해 주었다. 사업이 끝난 후 이민청과 2개의 국제공항, 16개 국경 출입국 관리소, ID 발급청에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여성부 본사 인력의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민청 및 여성부 정보화 시스템 기증식에서 모할리오 베니테스Moralio Benitez 내무 장관은 "한국의 지원으로 남미에서 최초로 출입국 지문 인식 전산 시스템을 각 공항과 국경 지대 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KOICA에 감사를 표했다.

사업명 파라과이 이민청 및 여성부 정보화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8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09
PARAGUAY

20년 동안 이룬 기술을 2년 만에 전해주다

중앙 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 체계 현대화 사업
The Project for Modernization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ystem of the State Ministries Nacional

파라과이 정부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2007년 당시 파라과이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까지 정부 데이터 '지정 장소GDC'를 구축하고, 2010년까지는 지방 행정 부처까지 행정 통신망을 연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KOICA는 대통령실 소속 '행정개혁위원회CPMAP'와의 협조 속에 2007~2008년까지 250만 달러를 투입해 'RMSP' 백본망 업그레이드1GB→10GB와 재경부와 국방부 등 10개 중앙 부처 및 대통령실에 행정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통신망VoIP을 구축했다. 또한 재경부와 산업통상부에는 그룹웨어(전자 메일, 전자 결제 등)를 구축하는 등 파라과이 관리자와 운영 실무자 과정 연수생들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했다. KOICA의 지원으로 파라과이의 10개 정부 부처는 초당 10GB의 속도로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 등의 통신비를 연간 1천만 달러 이상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파라과이는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이룬 기술을 단 2년 만에 전수받아 자국의 정보통신 분야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 이 사업에는 한국통신KT이 최초로 KOICA를 통한 무상 원조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를 계기로 몽골·네팔·콩고의 '정보통합데이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사업을 맡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명 파라과이 중앙 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 체계 현대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스템 구축,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10 PARAGUAY

노숙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자립 기반 마련

취약 아동 · 청소년 재활훈련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Juvenile Rehabilitation Training Center

파라과이의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민주화와 정부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고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하루 생계비 1달러 미만의 절대 빈곤 인구를 감소시키는 게 절실히 요구된다. 그중에서도 극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1980년대 이후 아순시온 등 대도시에는 집단으로 노숙을 하는 청소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약물과 성 매매,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청소년 범죄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2008년 8월 15일 출범한 파라과이 신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거리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취약 아동 · 청소년 재활훈련원'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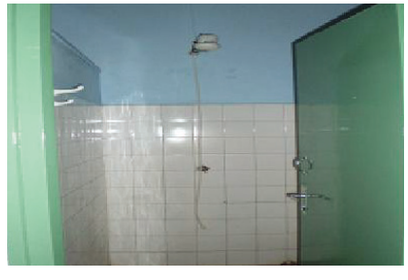
KOICA는 2008~2009년까지 180만 달러를 지원해 쉼터와 재활훈련원 건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재활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고, 정책 결정자와 운영 실무진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재활 훈련원의 프로그램은 6~17세까지 거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도심에 단기 쉼터를 마련해 숙식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며, 2단계는 가족, 지역 사회와 연계해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 단기 교육을 실시하고, 3단계는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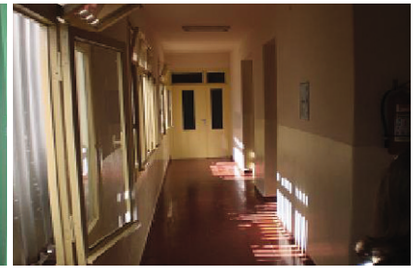
KOICA는 노숙 청소년들의 교육과 훈련, 재활을 통해 청소년들을 가정에 복귀시키거나 자립시켜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명 파라과이 취약 아동 · 청소년 재활훈련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8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전문가 파견, 교육 훈련, 사업 관리, 기자재 제공









11 PARAGUAY

대한민국학교에 컴퓨터실이 없어요

대한민국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Assistance the School Republic of Korea in Caacupe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동쪽으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인구 4만5천의 중소 도시 카쿠페Caacupe가 나타난다. 파라과이의 최대 성지인 카쿠페 성당이 있는 이곳에는 한국 교민 2세의 기부로 지어진 3천 평 규모의 '대한민국학교'가 있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가르치는 이 학교는 한인회에서 기부금을 제공하고, 파라과이 문교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민들 자녀뿐만 아니라 현지 학생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2백 80명 정도 되는 '대한민국학교' 학생들은 체육관도 없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으며, 컴퓨터 실습실도 없이 컴퓨터 수업을 하고 있었다. 파라과이 정부는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과 체육 문화 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13만 달러를 들여 1,500㎡ 규모의 체육관과 8㎡ 규모의 컴퓨터 실습실을 건립하고 각종 교육 기자재를 제공했다. 체육관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으로 설계되었다. '대한민국학교' 다목적 강당 개관식은 6백여 명의 지역 주민과 고위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고, 우리나라와 파라과이 양측 인사들은 파라과이 국목인 '네그루 라파초'를 심으며 우호를 다졌다.

사업명 파라과이 대한민국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13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기자재 지원











PERU

태양신의 나라, 페루는 안데스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찬란한 잉카 문명을 이룩했다. 16세기 초에는 안데스를 중심으로 현재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북부까지 정복해 광대한 잉카 제국을 건설했다. 쿠스코는 옛 잉카 제국의 수도로 이곳의 주요 교통수단은 우리나라의 중고 '티코' 택시다. '티코'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 쿠스코의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누비고 다닌다. 글 · 이동현

페루는 2006년 7월 28일 출범한 가르시아Alan Garcia Perez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의 과반수가 직면한 빈곤 퇴치와 안정적 경제 성장 및 수출 촉진, 경제 사회의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까지 5개년 국가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 수입을 인프라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개발 계획의 핵심을 재정 적자 축소를 비롯하여 수출 촉진, 빈곤과 문맹 퇴치, 정부 개혁과 지방 분권 강화, 마약 퇴치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경제 성장이 직접적인 빈곤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교육과 양성 평등 분야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빈곤과 기아 감소라는 목적은 달성이 어렵다는 게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평가다. 페루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소득 재분배, 사회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통합과 실행이 관건이다. 또한 기초 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와 산모 사망률 감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KOICA는 의료 분야에 집중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명 페루공화국(Republic of Peru) **정체** 대통령 중심제 **기후** 열대성 기후(10월~4월 우기, 5월~9월 건기) **인구** 2천8백37만 명 **면적** 129만㎢(한반도의 약 6배) **1인당 국민소득** 2천9백20달러(2006년 기준) **수도** 리마(Lima) **민족** 인디오 45%, 혼혈 37%, 백인 15%, 기타 3% **문자 해독률** 92.9%(2007년 기준) **종교** 가톨릭(90% 이상) **공용어** 스페인어 및 케추아어

| 페루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2천6백70만 명) 중 빈곤층** 1991년 54.4%, 2002년 54.3%에서 2005년 51.6%로 줄었으며, 23.9%는 극빈층 • 2015년까지 빈곤층 27.3%, 극빈층 11.5%까지 감소 목표 • **영유아의 연령 대비 체중 불균형률** 1992년 10.8%에서 2000년 7.7%로 축소 • **영양 불균형률** 1998년 22.3%, 2015년 11.15%까지 감소 목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1991년 90.6%에서 2002년 89.5%로 축소, 초등학력 이수율은 1991년 75.1%에서 2002년 84.1%로 증가, 15~24세 문맹률은 2002년 3.36% • 2015년까지 보편적 기초 교육 취학률 100%, 15~24세 문맹률 0% 달성 목표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기초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1년 98.54%에서 2002년 99.86%로 증가. 그러나 초등 교육 과정에서는 94.47%에서 90.28%로 축소.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1991년 77.73%에서 2002년 101.98%로 증가 •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고용된 여성 비율** 1991년 41.29%에서 2002년 42.2%로 증가 • 전 교육 과정에서 성적 불평등을 없애고 평등한 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평생 동안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사망률** 1996년 신생아 1천 명 중 56명 사망에서 2002년 약 43명으로 축소 • 2015년까지 5세 이하 신생아 사망률을 1천 명 중 17명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
모성 보건 증진	• 1996년 10만 명 중 2백65명 사망에서 2000년 1백85명으로 감소 •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모성 보건 전문 인력 상당 부족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성인(15~24세) 중 HIV 발병률은 2000년까지 공식적으로 0.26%이나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정부는 HIV/AIDS의 전염 수준을 2010년까지 반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 • 말라리아 발생률은 1991년 1.53%에서 2003년 1.82%로 증가되었으나 사망률은 9건에 불과하여 예방을 하는 정도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식수 제공률** 1990년 63%에서 2001년 75%로 증가, 2015년 88%까지 목표 • **기초 위생 서비스률** 1990년 54%에서 2015년 78%까지 목표

01 PERU

KOICA, 세계를 향해 최초의 손길을 내밀다

한 · 페 의료 센터 건립 사업

The 1st-5th Korea-Peru Health Center Construction Project










"저희 병원은 건립부터 운영까지 전적으로 KOICA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페루 보건부의 예산은 아예 없거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너무 느립니다. 저희 병원은 KOICA의 지원을 받아 코마스 주 42개 병원 중 가장 활발히 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의사들은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한국인 의사에게만 진료를 받겠다고 하는 환자들이 있을 정도예요."

리마에 있는 2차 한 · 페 친선 병원장 '노에 아밧 에체' 박사의 말이다. 1991년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무상 원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해 KOICA는 3개의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도미니카 농촌 지역 초등학교 건립, 수단 직업훈련원 건립 그리고 페루 1차 한 · 페 의료 센터 건립이 그것이다. KOICA가 세계를 향해 내민 첫 번째 손길에 페루가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페루의 의료 센터 건립 사업은 단발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 5차 한 · 페 의료 센터 건립까지 이어졌고, 해외 봉사단과 의료 단원을 파견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병행한 사업이었다.

카야오Callo 시에 설립한 1차 의료 센터는 대지 1485㎡, 건평 614㎡으로 본관 진료실과 결핵 전담 진료실로 이루어졌다. 특히 1993~2003년까지 우리나라 의료진을 파견해 무의촌 순회 진료 활동과 실습생과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카야오 시의 보건 의료 환경을 한 단계 개선시켰다. 2차 한 · 페 의료센터는 카야오 의료 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페루의 수도 리마의 빈민가인 코마스Comas에 건립되었다. KOICA는 이곳에도 협력 의사와 봉사 단원을 파견해 진료 활동을 지원했다. 3차 한 · 페 의료 센터는 1996년 리마에서 비행기로 2시간여 정도 떨어진 안데스 산맥 서쪽, 아마존 지역의 중심 도시인 이키토스Iquitos 시에 건립되었다. KOICA는 35만 달러를 들여 1099㎡ 규모의 의료 센터를 건립하고, 기자재를 제공했으며 의료진을 파견했다. 4차 한 · 페 의료 센터는 1999년 모자 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아노코Huanoco 시에 건립되었다.

4차 한 · 페 의료 센터는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과를 비롯해 방사선과 · 임상병리과 · 신생아실 · 응급 환자 처리 센터 등을 갖추고 연간 6만여 명을 치료하고 있다. 5차 한 · 페 의료 센터는 페루와 에콰도르 간 국경 지대인 피우라Piura 주에 설립되었다.

당시 주정부는 의료 서비스망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85만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2차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한 곳밖에 없어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산타로사 보건소를 2차 진료가 가능한 의료 센터로 개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5차 의료 센터는 2004년 완공되었다. 하지만 KOICA의 이 같은 지원과 2002년 무상 의료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페루 국민의 77.1%는 여전히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1천 명당 43명의 어린이가 5세 전에, 1백64명의 산모가 출산 중에 사망한다. 페루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영아 및 산모 사망률 축소, 가족계획 적극 추진, 식수 및 기초 위생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목표 달성은 멀기만 하다. 페루는 우리나라의 관심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



사업명	사업 기간	지역	사업 규모
제1 한 · 페루 의료 센터	1992~1993년	Callo 시	46만 달러
제2 한 · 페루 의료 센터	1993~1994년	Comas 시	44만 달러
제3 한 · 페루 의료 센터	1995~1996년	Iquitos 시	35만 달러
제4 한 · 페루 의료 센터	1997~1999년	Huanoco 시	55만 달러
제5 한 · 페루 의료 센터	2000~2004년	Piura 시	130만 달러

02 PERU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를 특화시켜 지원

식품기술훈련원 건립 사업

The Technical Training Center Project for the Food Industry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티티카카 호수가 있는 나라 페루, 이곳에는 수천 년 전 문명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페루는 고작 1백10명의 보병과 67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스페인 원정대에 의해 정복되었다는 슬픈 역사도 안고 있다. 페루는 2005년 6.7%, 2006년에는 7.9%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국제 원유가 상승 및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등 국내 정국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11년 만에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은 광물 등 원자재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국내 제조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페루 중부 유닌 주 안데스 고원 지대에는 산티아고 안튜네스 산업기술훈련원이 있다. 1998년 당시 훈련원은 농축산학 · 회계학 · 전산학 · 식품산업학 · 간호학 · 기계학 · 약학 · 비서학 등을 가르쳤지만 실험 기자재와 공간 부족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었다. 리마와 5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유닌 주는 열대와 고랭지, 농경 지역이 공존하며 과일과 곡류 등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KOICA는 1998년~2000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안튜네스 산업기술훈련원의 식품가공 분야를 특화시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1998년 안튜네스 산업기술훈련원 내에 식품기술훈련원을 건립했다. 또한 유닌 주 내 식품가공업 개발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시 운영되고 있던 산업기술훈련원의 문제점을 파악해 지속 가능한 훈련원 건립의 토대로 삼았다. 특히 학생들이 충분한 실험과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각종 수익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적응력을 키워주는 한편 훈련원의 운영비도 확보했다. 식품기술훈련원은 2001년 12월에 개원식을 갖고, 2004년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사업명 페루 식품기술훈련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8~2000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3 PERU

급수난이 심각한 루이스 지역에 배수 시설 설치

식수 개발 및 상수도 설치 타당성 조사 사업

Feasibility Study of Amarilis Area Water Supply Project



타당성 조사는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이다. 경제, 사회 발전 및 기초 인프라 건설에 기여하는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본 · 실시 설계의 제공은 수원국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건설, 도시 개발, 정보통신, 자원 · 에너지 개발, 농림 · 수산,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해당된다. 개발도상국은 경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각종 국가 기반 시설 구축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도국이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기술적 · 재정적 어려움이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타당성 조사 사업이다.

페루 정부는 우나누코 및 아마릴리스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과 보건 위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식수 및 상수도를 설치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6년까지 70만 달러를 들여 식수 개발과 상수도 설치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시범 사업으로 급수난이 심각한 루이스 지역에 용수 공급이 가능한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식수 개발과 상수도 설치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사업명 페루 식수 개발 및 상수도 설치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6년 | **사업 규모** 70만 달러 | **지원 내역** 긴급 식수 공급 공사,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4
PERU

저소득층 미혼모를 보살피는 보건소 건립

파차쿠텍 보건소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Peru Health Care Center in Pachacutec

2000년 발생한 수도 리마 남부 지역의 화재 이후 파차쿠텍Pachacutec은 이주민이 계속 늘어나 페루의 최대 빈민가가 되었다. 파차쿠텍의 아동 사망률은 페루 전체의 2배 이상이며, 산모 사망률은 페루에서 가장 높다.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가톨릭 국가인 페루에서는 임신 중절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페루의 미혼모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페루 정부는 지역 개발 계획 1순위로 보건소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85만 달러를 들여 파타쿠텍 지역에 저소득층 미혼모와 아이들을 진료하기 위한 공공 보건소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페루의 최빈곤 지역인 파차쿠텍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용수 공급 시설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나 수도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페루 정부의 재정과 프로젝트에 책정된 예산이 부족한 탓에 용수 공급은 급수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2006년 7월 마침내 파차쿠텍 보건소가 완공되었다.

KOICA는 미혼모의 출산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분만실을 설치하고, 보건소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효율적인 공공 보건 진료소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파차쿠텍 보건소는 페루의 최빈곤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의 꿈을 전해주고 있다. 작은 생명의 잉태를 온전히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낼 때 공적 개발 원조의 고귀함은 빛을 발할 것이다. 파차쿠텍 보건소는 그 빛을 벌써 3년째 밝히고 있다.

사업명 페루 파차쿠텍 보건소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85만 달러 | **지원 내역** 보건소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5 PERU

페루 원조 관리 기관의 현대화 지원

국제협력청 ICT 인프라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of Peru's Government Manag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잉카 문명과 마추픽추, 나스카 라인으로 유명한 페루의 인구는 2천7백50만, 면적은 한반도의 6배에 달한다. 광활한 국토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중남미 국가 중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다. 페루 정부의 '국제협력청'은 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 총괄 기관으로 선진국의 공적 개발 원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국제협력청'은 ICT 인프라가 미비한 탓에 업무를 처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 페루 정부는 노후화된 ICT 인프라를 현대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사전 조사를 거쳐 2006~2007년까지 60만 달러를 들여 '국제협력청'의 문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ICT 프로젝트와 같이 시스템 개발이 포함되는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요구를 세밀히 분석해 반영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충실히 교육시키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른다. 이를 위해 KOICA는 '국제협력청'의 핵심 인력 5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전문가 7명을 현지에 파견해 기술을 전수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문서 관리 및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은 '국제협력청'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명 페루 국제협력청 ICT 인프라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6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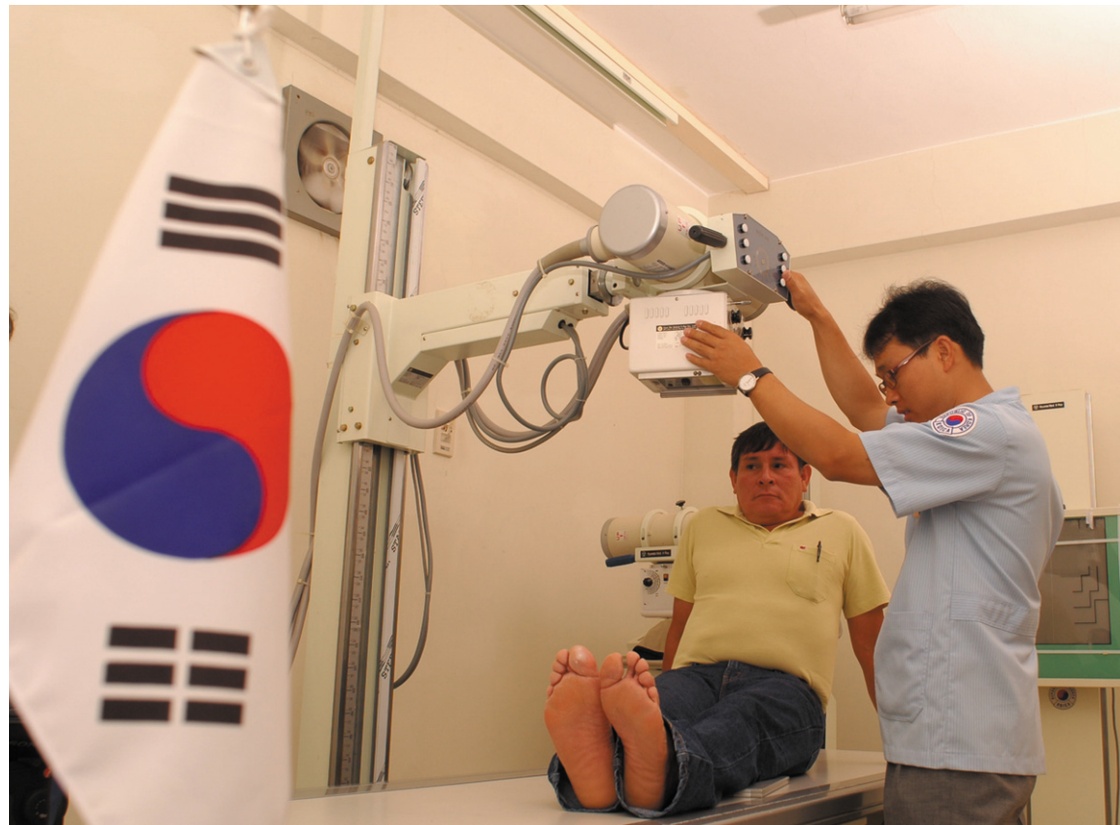


06 PERU

늘어나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어…

피우라 주 산타로사 친선 병원 개·보수 사업

Medical Service Improvement of Korea-Peru Friendship Santa Rosa Hospital



KOICA는 이미 2003~2004년에 걸쳐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경 지대인 피우라 Piura 주와 인근 지역 빈민층의 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산타로사 보건소를 친선 병원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친선 병원에 우리나라 의료진을 파견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런데 피우라 주 피우라 군에는 종합병원 수준의 3차 의료기관이 없고, 2차 병원 중에서도 빈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보건부 산하인 산타로사 친선 병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산타로사 병원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피우라 주정부는 산타로사 친선 병원의 증축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330만 달러를 투입해 개 · 보수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좁은 분만실과 응급실, 환자 대기실 등을 확장하기 위해 병원을 증축하고, 관련 의료 기기와 기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병원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KOICA의 지원으로 산타로사 친선 병원은 병상이 1백 개 규모로 늘어나고, 식











당과 급식 시설, 세탁실 등을 갖추게 된다. 이제 산타로사 병원의 개 · 보수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피우라 주 빈민층 주민들은 저렴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명 페루 피우라 주 산타로사 친선 병원 개 · 보수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33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실 건축,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07 PERU

첨단 정보통신 분야도 지원한다

국립 공과대학 ICT 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

The Improvement of the Capabilities of Educati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of National University of Engineering

페루의 ICT 분야 인프라는 인근 중남미 국가인 칠레 · 멕시코 · 브라질 등과 비교할 때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영세한 형편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외국계 통신 업체의 활발한 진출과 대규모 투자 확대에 따라 유 · 무선 통신 가입자와 인터넷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페루 국립 공과대학은 1876년 건축과 광산 분야를 특화시키며 설립되었는데, 1955년 공학 전문대학으로 개편되어 엔지니어와 건축가, 과학자 등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국립 공과대학은 최근 과학 기술 분야와 IT 응용 기술이 접목되어 발전하는 세계적 과학 기술의 추세에 따라 대학의 IC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립 공과대학은 2004년부터 지역 주민,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IT '사회개발교육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교육용 기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270만 달러를 투입해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행정실 · 강의실 · 대강당 · 실습실 · 프로젝트 룸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컴퓨터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5개 학과가 공통으로 ICT 실습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의 여건을 갖추어 나갔다. KOICA는 1991년부터 페루의 의료 보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의 영역을 첨단 정보통신 분야까지 확대했다.

사업명 페루 국립 공과대학 ICT 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270만 달러 | **지원 내역** 교육 센터 건축,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08 PERU

외교부와 재외 공관 사이 온라인 시스템도 없다

외교부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99년 당시 페루 정부는 업무 전산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문서 관리 · 정보 · 전략 기획 시스템 등 4개의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예산과 기술 부족으로 재외 공관과 지방 사무소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페루 정부는 2006년 8월 외교부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페루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보화된 사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외교 업무 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외교 정보망 현대화와 영사 업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290만 달러를 투입해 영사 업무 시스템과 외교 정보 시스템, 포털 시스템을 개발하고, PC · 서버 · 네트워크 장비 등 기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1명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외교부의 전산 핵심 인력 6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페루 외교부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대국민 정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페루 정부가 행정 전산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사업명 페루 외교부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29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스템 개발,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Middle East







Iraq

지구촌의 가난과 배고픔을 함께 한다





IRAQ

이라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다. 1990년까지 이라크 교육 분야는 중동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다. 하지만 1991년 걸프전 이후 계속된 전쟁과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해 사회적 기반과 인프라는 급격히 황폐화되었다. 글 · 김준모

이라크의 국가 개발 전략은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 실패한 정부 정책을 대체할 거시 경제적인 정책과 함께 분야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이라크 정부는 4가지 우선 과제- 성장 기반 강화 · 민간 부문의 활성화 · 삶의 질 향상 · 선정의 확립과 치안 확보- 를 제시했다. 세계은행과 유엔, 주요 원조국들은 이라크 개발 프레임 워크를 발표하고, 이라크 정부의 기획개발협력부와의 협조 속에 국가 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원조 사업을 발굴하거나 조정, 채택하고 있다.

KOICA는 2003~2007년까지 5년 동안 교육 · 보건 의료 · 행정 제도 등 이라크 국가 개발 전략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약 2억6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2007년 5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ICI International Compact with Iraq' 회의에서 2011년까지 유상과 무상으로 각 1억 달러씩 2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KOICA는 이라크 원조 규모의 확대에 따라 바그다드와 아르빌에 있는 2개의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라크 정부와 국제기구 등과의 협조 속에 내실 있는 원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명 이라크공화국(The Republic of Iraq) **정체** 민주 공화국. 의원 내각제 **기후** 사막성 건조 기후 **인구** 2천8백90만 명(2006년 기준) **면적** 440,000㎢ **1인당 국민소득** 3천5백36달러(2007년 기준) **수도** 바그다드(Baghdad, 인구 6백30만 명) **민족** 아랍족(75~80%), 쿠르드족(15~20%), 기타(5%) **문자 해독률** 60%(2005년 기준) **종교** 이슬람교 97%(시아파 60~65%, 수니파 32~37%), 기타 3% **공용어** 아랍어, 북부 지역은 쿠르드어



| 이라크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5세 이상 노동 활동 인구** 1990년 35%에서 2000년 35%로 동일 • **15~24세 노동 활동 인구** 1990년 23%에서 2000년 21%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2000년 85% 수준 • **기초 교육 이수율** 200년 54% 수준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1990년 11%에서 2007년 26%로 상승 • **초등 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1990년 84%에서 2000년 82%로 감소
아동 사망률 감소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1990년 75%에서 2000년 90%로 상승 • **5세 이하 사망률(인구 1천 명당)** 1990년 53명에서 1995년 48명으로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1990년 54% 수준 • **15~49세 여성의 피임 보급률** 1990년 14% 수준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결핵 인구(10만 명당)** 2000년 56% 수준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깨끗한 식수 사용 가능 인구** 1990년 83%에서 1995년 82%로 감소 •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년 2.6톤에서 2000년 2.9톤으로 상승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1995년 15달러에서 2000년 3달러로 감소 • **전화 사용자 수(1백 명당)** 1990년 4명에서 2000년 3명으로 감소

01 IRAQ 이라크 재건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

한 · 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Korea-Iraq Vocational Training Center

국제 사회의 지원을 기반으로 이라크 정부는 국정 안정과 치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파 · 종파 간 갈등과 폭탄 테러 등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치안 부재로 인해 원조 사업 자체가 축소 ·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치안 비용이 급증하면서 원조 사업의 성과도 감소하게 되자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이라크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실업률은 급등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테러 집단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국가 재건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주민과 청소년들의 자립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직업훈련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3~2007년까지 800만 달러를 투입해 이라크 노동사회부가 제공한 7,208㎡ 규모 부지에 기숙사와 식당, 강당을 포함한 직업훈련원을 건립했다. 컴퓨터 · 자동차 정비 · 용접 판금 · 목공 · 전자제품 수리 등 5개 공과를 개설하고, 직업훈련 장비와 사무 비품을 제공했다. 또한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훈련 제도와 훈련원 운영 기법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자문을 실시했다. KOICA는 이라크 재건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청소년과 주민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업명 한 · 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7년 | **사업 규모** 800만 달러 | **지원 내역** 직업훈련원 건립,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교과 과정 및 교재 개발

02 IRAQ

이라크 보건지표는 중동에서 최하위 수준

알카라마 병원 증축 · 보수 사업

Reinforcement of Capability Al Karama Hospital







이라크 기후는 사막성 건조 기후로 고온 건조하며 여름철은 더위가 극심하다. 연평균 기온은 38~49℃, 바그다드의 7월 평균 기온은 34.3℃다. 2002년 당시 이라크 정부는 국제 사회의 지원으로 보건 의료와 교육 같은 기초 인프라 복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 이라크는 우수한 보건 의료 체계와 의료 인력, 첨단 의료 시설과 장비를 가진 나라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후세인 정권의 보건 의료 정책이 실패하고, 전쟁과 경제 제재로 이어지면서 보건 의료 체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그 결과 2000년 초반 이라크의 각종 보건 의료 지표는 중동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라크 정부는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라크 재건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 의료 분야를 중점 지원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KOICA는 2003~2007년까지 800만 달러를 투입해 알카라마 병원을 증축 및 보수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수술 및 응급 전문 병동을 건축하고, 병원에 필요한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제공하는 한편 보건 정책 및 병원 관리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알카라마 병원의 보건 의료 서비스 기능은 정상화되었고, 전쟁과 오랜 독재 정치로 피폐해진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명 이라크 알카라마 병원 증축 · 보수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7년 | **사업 규모** 80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03 IRAQ 시범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르빌 시범학교 건립 사업
The Arbil Model School Project



"KOICA가 지어준 나우로즈Nawroz의 시범학교는 아르빌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손꼽혀 입학 경쟁률이 매우 치열합니다."

나우로즈 시범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이라크 재건을 위해 2003년부터 5년간 무상 지원을 약속하고, 아르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990년까지 이라크 교육 분야는 중동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지만,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걸프전 등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는 급격히 침체되었고, 교육과 보건 의료 분야의 기본 인프라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쿠르드 지방 정부는 교육 환경 개선을 국가 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아르빌 시내와 인근 농촌 지역에 학교를 신축해 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7년까지 1천 만 달러를 투입해 이라크 정부가 제공한 나우로즈Nawroz와 'Shaqlawa' 지역 건축 부지에 유치원과 초 · 중등학교 등 7개 학교와 2개의 체육관을 신축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교육부 공무원과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교육 정책 수립과 학교 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공립 교육 시설이 크게 부족한 지역에 시범학교를 건립해 매년 2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자이툰 부대가 파병된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이라크 아르빌 시범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7년 | **사업 규모** 1천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기자재 지원, 초청 연수

04 IRAQ 어학실에서 국제 회의도 열린다!

살라하딘대학 멀티미디어 어학실 구축 지원 사업
Establishment of Multimedia Language Laboratory at Salahaddin University, Arbil

이라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다. 기원전 4,500년부터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빌론 왕국과 압바스 왕조를 거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답게 이라크 교육 분야는 1990년까지 중동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다. 하지만 1991년 걸프전 이후 계속된 전쟁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교육 시설은 황폐화되었다. 이라크 자치지역인 쿠르드 지방 아르빌에 위치한 살라하딘 대학교는 아르빌의 유일한 4년제 국립 종합대학으로 북부 지역 인재 양성의 산실이었으나 전쟁을 치르며 교육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쿠르드 지방 정부는 살라하딘 대학교의 멀티미디어 어학실 구축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년 60만 달러를 들여 살라하딘 대학교의 문화 센터와 중앙도서관, 인문대 등 세 곳에 동시통역 기능을 갖춘 멀티미디어 어학실을 구축하고 기자재를 제공했다. 현재 멀티미디어 어학실은 어학 실습뿐만 아니라 국제 회의 등 아르빌 지역의 주요 행사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KOICA는 대학에 효율적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IT 교육을 통한 대학 교육의 현대화에 기여했다.

사업명 이라크 살라하딘대학 멀티미디어 어학실 구축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5년 | **사업 규모** 6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제공 및 설치, 기자재 운영 관리

05 IRAQ 20년 동안 보수 공사가 한 번도 없었다니…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The Arbil Water Supply and Sewerage System Improvement Project

이라크 아르빌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20년 이상 투자와 개 ·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수장의 노후화로 인한 상하수도 오염은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라크 정부는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미국의 지원으로 일회적인 사업만을 실시해 왔다. 아르빌 도시관리부는 장기적으로 상하수도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7년까지 600만 달러를 투입해 아르빌 상하수도를 현대화시키기 위해 사전 조사를 토대로 기술 진단과 기본 계획 수립 · 하수 처리장의 실시 설계 · 취수장 및 정수장 개 · 보수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KOICA는 노후화된 상수도 취수장과 정수장 시설을 개 · 보수해 수질을 개선하고, 용수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수질 분석 장비를 제공해 원수 및 정수, 물의 혼탁도와 오염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했으며, 지하수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해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KOICA는 쿠르드 지방정부 도시관리부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상하수도와 지하수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아르빌 지역의 개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이라크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7년 | **사업 규모** 600만 달러 | **지원 내역** 하수 처리장의 실시 설계, 취수장 및 정수장 개 · 보수

06 IRAQ 차량 소유의 진위 여부도 확인 못해

아르빌 교통 관리 시스템 현대화 사업

The Project for Modernization of the Traffic Management System in Arbil

2004년 당시 아르빌 지역에서는 차량 등록과 운전면허 발급, 차량번호판 발급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교통 관리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미등록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허증과 차량 소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아르빌 지방 정부 내무부는 '아르빌 교통 관리 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이는 운전면허 발급의 전산화를 통해 면허증 전산 조회 및 차량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차량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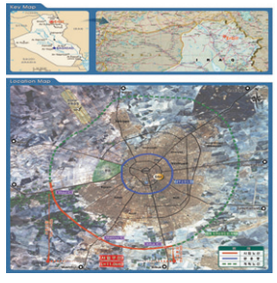
KOICA는 2005~2007년까지 500만 달러를 투입해 운전면허 관리 건물 내 운전면허 발급소 · 면허 시험장 · 자동차 등록소 · 민원인 주차장 · 번호판 발급소 등을 신축하고, 통합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컴퓨터와 서버 장비, 번호판 제작 장비 등을 제공하고, 관련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면허 시스템 교육과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세계적 표준에 걸맞은 교통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르빌과 인근 지역의 차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사업명 이라크 아르빌 교통 관리 시스템 현대화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7년 | **사업 규모** 5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지원, 기자재 공여,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07 IRAQ 중 · 장기적 도시 재건의 토대를 마련

아르빌 외곽 순환 고속도로 실시 설계 사업

The Design Project on the Arbil City Highway Circular Link Road



아르빌은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지방에 자리 잡은 고대 도시이자 사막의 땅이다. 고대로부터 인류가 살아온 가장 오래된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아르빌이다. 인구는 1백40만이며 터키 · 시리아 · 이란과 연결된 교통 요충지다. 하지만 20만 대의 자동차가 다니는 아르빌의 교통 정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시내 도로망이 방사환상형으로 설계되어 시내 중심부로 갈수록 혼잡한 데다 불합리한 도로 운영이 더해진 탓이다. 아르빌 정부는 중 · 장기 아르빌 개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관한 실시 설계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아르빌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11km 구간에 대해 본선 6차로와 폭원 6m의 2차로, 3개의 입체 교차로와 4개의 본선 교량, 4개의 IC 교량 건설 등의 설계를 지원했다. KOICA는 아르빌이 산발적 지진 발생지라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의 도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차로의 측방에 갓길 및 도로 선형을 명시하도록 설계하는 한편, 야간 운전자를 위한 시선 유도 시설과 각종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르빌 시내 중심 관통 도로의 유입 차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나아가 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아르빌의 중 · 장기 도시 재건의 토대를 마련했다. KOICA는 이외에도 'HAWLER' 공항과 연계해 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외곽 순환 고속도로는 201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명 이라크 아르빌 외곽 순환 고속도로 실시 설계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설계,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08 IRAQ

전에는 응급 환자 후송 체계도 없었어요

아르빌 리즈가리병원 응급 의료 센터 건립 사업

Establishment of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at Rizgari Teaching Hospital, Arbil





인구 1백만의 아르빌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방의 중심 도시다. 하지만 아르빌의 국립 병원과 개인 병원은 1 · 2 · 3차 의료 기관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응급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이송 체계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의료 인력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0.7명, 간호사 2.5명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리즈가리병원의 응급실 역시 미비한 시설로 인해 교통사고나 화상 환자 같은 응급 환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르빌 보건부는 리즈가리병원에 응급 의료 센터를 신축해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살라하딘 의과 대학의 협력 병원인 리즈가리병원은 아르빌의 유일한 종합 병원으로 4백 개 병상을 갖추고, 하루 평균 3백~5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하지만 낙후된 병원 시설과 부족한 의료 장비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700만 달러를 투입해 리즈가리병원의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독립된 68개 병상 규모의 응급 의료 센터를 신축하고, 'MRI' 와 'CT' 등 첨단 의료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장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아르빌 지역의 보건 인프라와 선진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업명 아르빌 리즈가리병원 응급 의료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700만 달러 | **지원 내역** 응급 의료 센터 건축, 의료 기자재 제공,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09 IRAQ 국제적 수준에 맞는 품질 관리 규범을 만들다

아르빌 품질관리연구소 현대화 사업

Modernization of the Quality Control Laboratory in Arbil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의 통치 기간 중 이란 · 이라크 전쟁과 걸프전을 치렀고, 지금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라크는 계속된 전쟁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으나 최근 많은 공산품 공장이 설립되는 등 2차 산업 발달의 초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품 품질 관리를 관장하는 품질 관리 검사소에는 검사 장비가 전혀 없는 데다 품질 관리 기준과 제도 등 제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라크 'KRG 산업부'는 공산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품질관리연구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미생물 분석 · 화학 · 물성 연구원 15명과 관리자 10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이라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진 기술을 전수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이라크 정부는 식품 안전과 품질 관리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에 맞는 규범을 제정할 수 있었다. 또한 강화된 식품 안전 기준으로 가공품의 위생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 이라크 국민 보건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KOICA는 장기적으로 이라크의 산업부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이라크 아르빌 품질관리연구소 현대화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설비 공사,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컨설팅

10 IRAQ 이제는 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중앙표준품질관리원 기능 강화 사업

Capacity Buildup of Central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 Board in Baghdad



전쟁 이후 이라크는 식품, 건축, 도량, 전기 전자 등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어 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 정부는 산업 시설을 복구하고, 산업 시설의 기반이 되는 표준 · 측정 분야의 기능을 강화시켜 식품과 공산품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중앙표준품질관리원의 기능을 강화시키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이라크는 건설 자재와 일반 물품을 수입할 때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탓에 부실 자재나 불량 공산품, 불량 식품 등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되고 있었다. 이는 이라크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큰 차질을 가져 왔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중앙표준품질관리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자재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기자재를 설치하고 운용에 대한 기술을 교육했다. KOICA는 이라크의 품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했다.

사업명 이라크 중앙표준품질관리원 기능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컨설팅

11 IRAQ 지방 정부의 행정력을 강화하다

아르빌 IT 훈련 센터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IT Training Center in Arbil

1990년 이후 전쟁과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라크의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2006년 인적 자원 개발을 국가 발전의 우선 분야로 선정한 이라크 아르빌 지방 정부는 IT 훈련 센터를 건립해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이는 IT 인프라 구축과 기술 교육을 통해 이라크 재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아르빌 지방 정부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었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400만 달러를 투입해 8개의 강의실과 대강당, 인터넷 플라자를 갖춘 IT 훈련 센터를 건립했다. 또한 2백 대의 컴퓨터를 제공하고, IT 센터의 운영진과 교수진을 3차례에 걸쳐 국내로 초청해 센터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라크의 바르자니Barzani 총리는 IT 훈련 센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 현장을 방문해 KOICA에 감사를 표했으며, IT 분야와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2008년 6월 아르빌 최초의 IT 훈련 센터가 문을 열었다. IT 훈련 센터는 현재 쿠르드 지방 정부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쿠르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빈부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명 이라크 아르빌 IT 훈련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4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제공,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12 쿠르드족에 고등 교육을 지원

IRAQ

도훅, 술래마니아 어학 실습실 설치 사업

The Establishment of the Multimedia Language Laboratory at Dohuk and Sulaymaniya University

메데족The Medes으로 불리는 쿠르드족은 고산 지역에 거주한다. 수니파(75%)와 시아파(15%) 등으로 구성된 쿠르드족은 역사상 한 번도 국가를 갖지 못하고 터키 · 이란 · 시리아 등지에 흩어져 살아 왔다. 이라크 쿠르드족은 1920년대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국가 건국을 갈망해 왔지만 번번이 좌절을 겪어 왔다. 쿠르드족과 우리나라의 인연은 자이툰 부대의 파병과 함께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2003~2007년까지 이라크 재건 사업비 110억 원을 쿠르드 지역에 투입하고 지원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쿠르드 지역은 후세인 정권 당시 교육 분야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교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었다. 특히 전문적인 교육 기자재가 필요한 고등 교육은 하지 못하고, 이론 위주의 형식적인 교육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었다. 쿠르드 지방 정부는 도훅 및 술래마니아 대학교에 어학 실습실을 설치해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년 100만 달러를 투입해 온 · 오프라인 자습실과 동시통역실 구축을 위한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IT 교육을 위한 다목적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면서 어학 학습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서 동시통역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기능을 극대화시켰다. KOICA는 도훅, 술래마니아 지역의 교육 환경을 현대화시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감소시키고, 자이툰 부대의 민사 작전과 협조를 이루어 이라크 재건 사업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사업명 도훅, 술래마니아 어학 실습실 설치 사업 | **사업 기간** 2007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제공, 전문가 파견

13 외상 및 화상 환자를 치료

IRAQ

바그다드 트라우마 센터 건립 사업

Establishment of Trauma Center in Baghdad

이라크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민간인들이다. 특히 어른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다. 유엔 난민기구 집계에 따르면 이라크 난민은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이라크 국민 일곱 명 중 한 명은 난민인 셈이다.

이라크는 2003년 종전 후 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저항 세력의 활동으로 인한 치안 사정 악화와 더불어 정파 및 종파 간의 이해관계로 오랜 기간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찾지 못했다.

보건 체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라크 보건 의료 체계는 전쟁과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를 거치며 전반적으로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모든 병원에는 진통제 · 마취제 · 인슐린 같은 기본 의약품과 수술용 장갑 · 붕대 · 테이프 같은 기본 의료 도구조차 동이 났을 정도다. 이라크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화상 환자와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바그다드 이맘알리 병원과 알사드르 병원에 소규모 화상 센터를 건립해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년 300만 달러를 투입해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고 소아과 · 산부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외과 · 성형외과 · 화상 환자 진료실과 내과 · 흉부외과 진료실 및 수술실 · 응급실 · 엑스레이실 · 검사실 · 중환자실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제공했다. 화상 센터는 KOICA의 사전 조사를 거치며 트라우마 센터로 변경되었다. 단순히 화상 센터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폭탄 테러나 폭격 및 대형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 손상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KOICA는 바그다드 동부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외상 환자와 화상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트라우마 센터를 모델로 한 의료 센터를 타 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명 이라크 바그다드 트라우마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14 IRAQ 원거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나자프 이동 진료팀 구축 사업

Establishment of a Mobile Clinic Team in Najaf

2003년 5월 종전 직후부터 국제 사회는 이라크에 3백3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시했다. 국제 사회는 신속한 긴급 구호와 인도적 지원으로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라크 국민의 기초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라크는 의료 시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으로 가면 의료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받기 어려운 지역이 많다. 더욱이 전쟁의 영향으로 의료 서비스 수준은 열악하지만 의료비 부담이 높은 탓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OICA는 2007년 260만 달러를 투입해 이동 진료팀을 구성하고, 이동 진료 및 치료와 입원, 교육 등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라크 보건부의 협조 아래 첫 번째 이동 진료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나자프 지역이다. KOICA는 응급 차량 3대 · 진찰 차량 4대 · 산부인과 차량 2대 · 치과 차량 2대 · 수술 차량 2대 및 기타 진료 지원 차량 7대 등 총 20대의 이동 진료 차량을 제공했다. 또한 이동 진료 차량의 구성과 필요 인원, 활동 등에 대한 이동 진료 시스템을 교육하고,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이라크 보건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의사와 간호사, 행정 인력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이동 진료 차량 관리와 진료팀 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원거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질병과 사망률을 저하시키고, 이라크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켰다.

사업명 이라크 나자프 이동 진료팀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7년 | **사업 규모** 260만 달러 | **지원 내역** 이동 진료 기자재 제공, 국내 초청 연수

15 IRAQ

자가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공급받았어요

아르빌 소수력 발전소 건립 사업

Hydro Mini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Arbil

아르빌 주는 인구 150만의 이라크 북부 지역이다. 이곳은 자이툰 부대와 KOICA의 재건 사업에 힘입어 우리나라와 견고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아르빌 지역은 연간 430mW의 전력이 요구되지만 자체 발전 용량은 29mW에 불과하고, 제한적인 중앙 전력 공급량도 160mW에 머물러 있어 241mW의 추가적인 전기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아르빌 외곽 지역은 국가 전력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마을 전체가 자가 발전기를 이용해 최소한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빌 지방 정부는 부족한 전력난을 해소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수력 발전소 건립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년 10월과 2007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사전 조사와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부지와 사업 지원 내용을 확정했다. 조사단 방문 당시 아르빌 지방 정부는 북부 지역에 50개의 수력 발전소 건립 대상지를 선정했고, KOICA는 'Letan · Bekhal · Rezga Diwin' 등 3개 지역을 방문해 낙차와 유량 등 자연 지형과 사업 실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Bekhal'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 아르빌 지방 정부 전력부 장관은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작성한 전력 분야 마스터플랜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소수력 발전소는 2007~2009년까지 9백만 달러를 투입해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명 아르빌 소수력 발전소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9백만 달러 | **지원 내역** 사전 조사 및 설계 감리, 발전소 시공, 기술 이전

16 IRAQ 이라크에서 손꼽히는 직업훈련원

안바르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Capacity Building of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 Anbar

이라크의 천연자원은 풍부하다. 2006년 추산 이라크 석유 매장량은 1천1백25억 배럴에 달하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 캐나다 · 이란에 이어 세계 제4위를 차지할 정도다. 앞으로 국내 치안 사정이 호전되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는다면 이라크는 중동 지역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다.

KOICA는 이라크 직업훈련원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직업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2003~2007년까지 한 · 이라크 직업훈련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만족한 이라크 정부는 추가적으로 안바르 직업훈련원의 역량 강화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고, 2008년 5월 KOICA와 이라크 정부는 요르단 암만에서 협의를 걸쳐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안바르 직업훈련원의 용접 · 컴퓨터 · 전자 · 전기 · 자동차 수리 · 선반 분야 등 6개 공과에 훈련 기자재를 제공하고, 관리자와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 훈련원 운영 시스템과 커리큘럼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KOICA의 지원으로 안바르 직업훈련원은 바그다드의 한 · 이라크 직업훈련원과 더불어 이라크에서 손꼽히는 시설을 갖춘 직업훈련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또한 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의 자립 능력을 배양시키고, 산업 기술 인력을 양성해 국가 재건 산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안바르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제공, 연수생 초청, 원격 자문 회의

17 IRAQ 치안이 안 좋은 곳은 기자재 지원 위주로

3개 의과대학 역량 강화 사업

Capacity Build-up for 3 medical centers

이라크의 주요 광물자원은 석유와 천연가스다. 2006년 추산 석유 매장량은 1천1백25억 배럴로서 세계 제4위다. 이 같은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1990년 걸프전과 내전, 그리고 2003년 또다시 미국과 영국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간접 시설과 산업 시설은 파괴되었다. 의료 체계 역시 전반적으로 붕괴되었고, 보건 의료 분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라크 고등교육부는 열악한 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3개의 의과대학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400만 달러를 들여 3개 의과대학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바그다드 지역의 불안정한 치안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 인력의 현지 방문이 어렵다는 조건을 감안해 인력을 파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치와 운용이 가능한 기자재 지원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지원 기자재에 대한 설치와 운용 교육 및 의료 연수를 실시했다.

사업명 이라크 3개 의과대학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400만 달러 | **지원 내역** 의료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18 IRAQ 불법 차량 운행을 방지

아르빌 교통 관리 현대화 사업 사후 관리

The Second Phase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a Motor Vehicles Office

종전 이후 이라크의 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및 차량 등록 등 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 업무도 급증했다. 아르빌 내무부는 2004년 9월 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용 차량과 교통 관리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년 아르빌 운전면허 및 차량 관리소에 운전면허 발급소와 면허 시험장, 자동차 등록소 등을 갖춘 운전면허 관리동과 번호판 발급소를 신축한 바 있다. 또한 통합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컴퓨터와 서버 · 네트워크 · 운전면허 통합 전산 시스템과 번호판 제작 장비 등을 제공하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면허 시스템과 차량 등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1차 지원에 이어 KOICA는 2008년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차 지원을 실시했다.

KOICA는 123만 달러를 들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쿠르드 지방 정부의 면허 시험장 운영 계획에 맞춰 순회 지원을 시작했다. KOICA는 1, 2차 아르빌 교통 관리 현대화 사업을 통해 불법적인 차량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차량 관련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KOICA가 구축한 교통 관리 시스템은 이라크는 물론 다른 중동 지역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아르빌 교통 관리 현대화 사업 사후 관리 | **사업 기간** 2008년 | **사업 규모** 123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순회 지원

19 IRAQ 오지에서도 수준 높은 이동 진료가 가능

카르발라 주 이동 진료팀 구축 사업

The Establishment of a Mobile Clinic Team in Karbala, Iraqnisia



2007년 이라크 보건부는 우리나라에 15개 주 82개 군에 이동 진료 차량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KOICA는 이동 진료 차량을 82개 군에 제공하는 데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와의 협의를 통해 이동 진료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 제도적 장치를 갖춘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의 이동 진료팀은 의료 시설과 장비 · 의료 인력 · 전기 등이 부족한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진단과 치료, 입원과 보건 교육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동 진료팀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진료부와 임상병리 · 방사선 · 응급 구호 담당 인력으로 구성된 진료 지원부, 차량 이동 등 제반 행정 지원을 하는 행정 지원부로 구성된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이라크 국내 난민이 몰려들고 있는 카르발라Karbala 지역에서 이동 진료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카라발라 지역은 분규와 테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이다. KOICA는 이동 진료 센터를 설립해 진료팀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이동 병원에서 제공하던 일차적 의료 지원 수준에서 벗어나 좀 더 전문적인 의료 수준과 시설을 갖추고, 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카르발라 이동 진료팀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이동 진료 차량 제공, 국내 초청 연수

Uzbekistan

Kazakhstan

CIS

지구촌의 가난과 배고픔을 함께 한다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은 '강과 계곡 그리고 실크로드의 나라'다. 찬란한 실크로드 문명을 꽃피운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 우즈베키스탄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 많다. 하지만 화려한 과거를 가진 우즈베키스탄의 현재는 척박하다. 글 · 문상원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역사 · 문화적 중심지로, 과거 찬란한 실크로드 문명을 꽃피운 나라답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많다. 인구는 2천6백85만, 16만의 고려인 동포가 산다. '강과 계곡 그리고 실크로드의 나라'로 불리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비해 풍부한 수자원을 가졌다.

과거에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고, 현대에 와서도 역사 · 문화 · 정치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금 매장량 세계 4위, 금 생산량 세계 7위, 천연 가스 생산량 세계 10위, 우라늄 생산량 세계 4위라는 통계 자료에서 보듯 우즈베키스탄의 광물 자원은 풍부하다. 석유를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석탄 · 구리 · 납 · 텅스텐 · 주석 · 동 · 아연의 생산량도 상당하다. 그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 생산물인 목화는 세계 4위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목화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백색 황금'이라고 불리며 수출의 21% 이상을 차지한다. 문맹률은 제로에 가깝지만 사마르칸트, 레기스탄 등 실크로드의 화려한 과거를 가진 우즈베키스탄의 현재는 척박하다. KOICA는 1992~2008년까지 2천7백만 달러의 무상 원조 사업을 펼쳐왔으며, 2008년까지 KOICA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즈베키스탄의 공무원 · 대학교수 · 연구원 등은 9백4명에 이른다.

국명 우즈베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정체** 공화제, 다당제, 대통령 중심제(임기 7년) **기후** 고온 건조한 대륙성 사막 기후로 낮과 밤의 온도 차가 큼 **인구** 2천7백34만 명 **면적** 447,400㎢ **1인당 국민소득** 7백30달러(2007년 기준) **수도** 타슈켄트(Tashkent) **민족** 우즈베키스탄인(71.4%), 러시아인(6.3%), 타지크인(4.7%), 카자흐인(3.9%), 고려인(0.9%, 약 23만 명) 등 **문자 해독률** 99.1% **종교** 이슬람교 88%(수니파 70%), 러시아 정교(9%) 등 **공용어** 우즈베키스탄어(공용어), 러시아어(통용)



| 우즈베키스탄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세계은행 기준 빈곤 인구** 47.3%(세계은행은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한 생활비 증가를 고려, 소득 빈곤선을 1일 2.15달러로 상향 조정) ● 반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일 최저 음식물 섭취량 2,100Kcal를 기준으로 한 음식 빈곤선(food poverty line)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빈곤 인구는 26.2%(2003년)이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0년까지 20%까지로 축소 목표를 설정 ● 빈곤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간 기업 성장 기반 확충에 주력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이수율** 103%, 7~15세 아동 취학률은 97.5%로 초등 교육 접근률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으며,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 중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와 농촌 간 학교 시설 및 인력 격차 해소,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목표 제시, 학생들의 학습 성과 측정 시스템 개선에 주력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초등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98.9%, 직업 교육 과정에서는 96%로 목표 기달성 ● 고등 교육과 취업 기회에서 성별 격차 해소(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성 배려 정책 추진 필요)를 목표로 설정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 1천 명당 24.3명, 신생아 사망률은 1천 명당 15.4명 ● 2015년까지 5세 이하 사망률을 1천 명당 15명 감소를 목표 ● 이를 위해 1차 의료 보호 서비스의 질적 개선, 호흡기 전염성 질환 및 비위생적인 식수가 원인인 수인성 질환의 집중 관리
모성 보건 증진	● **산모 사망률** 1990년 10만 명당 31.6명으로 2010년까지 28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 ● 농촌 지역 보건소 및 1차 진료 기관의 역량 강화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HIV 감염률** 1백만 명당 70.4명, 결핵 발병률은 10만 명당 79.4명 ● 감염자 치료, 사회적 차별 개선, AIDS 예방법 홍보, 혈액 은행에서 HIV/AIDS 검사 등 강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감염자에게 적절한 치료약 제공에 주력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안전한 식수 제공률** 89%로 증가 ● 2010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접근 가능한 농촌 인구 비율 90%를 목표로 농촌 지역의 식수 공급과 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 중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country data 참조

01 UZBEKISTAN 마을 원로인 '악사칼'도 컴퓨터를 배운다

IT 전문가 훈련 센터 건립 사업 The Establishment of Korea-Uzbekistan IT Training Center

타슈켄트 구시가지에는 아직도 진흙으로 만든 벽돌집과 모스크 사원, '메드레세'라 불리는 이슬람 학교 등 실크로드와 오아시스의 잔영이 남아 있다. 사막을 횡단하던 실크로드의 대상(隊商)들은 이곳에서 여독을 풀며 비단 · 향료 · 소금 · 종이 · 도자기 등의 문물을 거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IT 분야의 저변 확대가 21세기 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1998년 구축된 아시아 유럽 간 광케이블망에 접속하는 디지털망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IT 분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낮아 2001년 현재 인터넷 가입자 수는 총 인구의 1%에 불과하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T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타슈켄트 시청 내 IT 전문가 훈련 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와 IT 분야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 2003년 이를 신규 사업으로 확정하고, 국제 IT 수준에 걸맞은 훈련 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03~2004년까지 70만 달러를 들여 컴퓨터 60대 · 노트북 4대 · 컴퓨터 서버 · 프로젝터 등 일체의 장비를 제공했다. 또한 전문가를 장기간 현지에 파견해 IT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도 훈련 센터가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IT 전문가 훈련 센터 완공 후 타슈켄트 시청의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3천 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타슈켄트 시청과 도청 공무원들 중 9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한 후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처리

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IT 전문가 훈련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IT 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교육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T 전문가 훈련 센터는 주야간 내내 활용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전통적 지역 공동체인 '마할라' 라는 게 있다. 마할라의 대표가 바로 '악사칼'이라는 마을 원로다. 대개 5천 명 단위의 마을에 한 사람의 '악사칼' 이 있는데, 이들도 세상을 알아야 한다며 IT 전문가 훈련 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웠다. 그 후 그들은 'KOICA와 한국에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이라는 기도를 해줄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IT 전문가 훈련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4년 | **사업 규모** 7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설 개 · 보수,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2 UZBEKISTAN

정보 격차는 새로운 불평등이죠

과학 기술 문헌 전자도서관 설립 사업

Creation of complex system of electronic library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 공대생인 '까릴로브' 는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 그런데 필요한 책 한 권을 찾는 데 무려 30분이 걸렸다. 왜냐하면 아직 우즈베키스탄 도서관은 전산화된 시스템이 아닌 손으로 쓴 도서 목록을 통해 책을 찾기 때문이다. 덕분에 까릴로브는 수업 시간에 지각을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는 시립 도서관과 주 도서관이 있지만 두 곳 모두 도서관이라고 하기엔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도서 관리 시스템LAS-Library Automation System 조차도 없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1970년대 도서관과 유사하다. 우즈베키스탄은 가치가 높은 고문서, 특히 기초 과학과 기술 분야의 고문서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으나 도서나 고문서 관리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다. 게다가 건물은 낙후되고,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시스템이 없는 탓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정보기술은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간의 정보 격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도국의 경우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지식 정보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을 비롯하여 교육과 보건 서비스 향상 및 사회 복지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청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을 위한 정보 도서 제공에 관한 법령'에 의거 전국에 14개 정보 도서관을 설립하고, 과학 기술 문헌 정보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학 기술 문헌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지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서 정보 자료의 디지털화 및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양방향 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개발하고,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KOICA는 전자도서관을 구축해 도서관의 업무 자동화를 이루고, 도서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다른 도서관과 대학의 학술 시스템을 연계해 과학 기술 문헌에 관한 전국적인 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과학 기술 문헌 전자도서관 설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및 시스템 지원, 사업 관리,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3 UZBEKISTAN

중앙아시아 최초의 전자도서관

세계경제외교대학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Library at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까리나'는 3년 전 세계경제외교대학 06학번 신입생이었다. 이 대학은 국내의 많은 정치 · 경제 지도자들을 배출한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대학이다. 그녀는 최고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학교에 들어온 만큼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까리나'는 허름한 건물과 학교의 낙후된 시설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 체계적인 도서 관리 시스템이 없어 원하는 책을 찾기가 어려운 데다 찾는 책들이 없을 때가 많았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체계적인 도서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85만 달러를 들여 원문 관리와 도서관 콘텐츠 관리 시스템, 그리고 분산 검색 시스템 등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멀티미디어실과 참고 열람실을 만들었다. KOICA의 지원으로 대학의 장서 규모는 이전의 2배인 35만권으로 늘었다.

디지털 시대 도서관의 경쟁력은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확보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이번 사업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2007년 도서관 개원식에서 카라마토프 총장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전자도서관이 우리 학교에 설립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세계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이제 우리 도서관을 세계의 거대한 지식 정보 유통망에 링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KOICA에 감사를 표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인적 자원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다. 특히 도서관은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KOICA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 경제 분야 차세대 리더들이 공부하고 있는 세계경제외교대학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해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고위급 의사 결정자가 될 인력들에게 우리나라의 긍정적 이미지를 한층 더 깊이 심어 주었다.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학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85만 달러 | **지원 내역** 건물 개 · 보수,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4 이제는 실습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UZBEKISTAN

직업 훈련 역량 강화 사업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the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우즈베키스탄은 산업 사회의 다양한 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 발전의 핵심 과제로 교육 분야를 선정하고, 정부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여기에 지출하고 있다.

특히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기회 확대에 초점을 둔 장기 교육 개혁 프로그램인 '1997~2010년간 인력 양성 프로그램NPPT: National Program for Personnel Training' 을 추진 중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전문 직업 교육 제도는, 3년 과정으로 각각 외국어와 정보화 및 서비스 분야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고등학교Academic Lyceum' 와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직업기술학교Professional College' 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의 문제는 실습보다는 이론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직업 훈련 기능이 매우 취약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타슈켄트에 직업훈련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타슈켄트의 세르겔리 지역에 훈련원 부지를 제공하고, KOICA는 2007~2010년까지 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1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포함한 훈련원 건물을 짓고, 훈련 기자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 금속가공 · 전기전자 · IT 등 4개 공과를 개설하고 전문가 파견 및 우즈베키스탄 훈련원 교사의 국내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직업 훈련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10년 | **사업 규모** 400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원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교재 개발

05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을 누비는 한국 응급차

전국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역량 강화 사업

Improvement of 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 System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응급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필요한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응급 의료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급차 제공과 응급 후송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인력 훈련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250만 달러를 투입해 우즈베키스탄 전역의 응급 후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했다. KOICA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바탕으로 최신 응급 환자 이송 차량과 의료 장비를 제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자를 교육했다. 응급 후송 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자 이송 수단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하던 구급차는 내부가 협소해 응급 처치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KOICA는 전국의 응급 의료 기관에 108대의 일반 구급 차량과 함께 의사를 수송할 수 있는 수송 차량 2대, 구급차 사후 관리를 위한 부품과 소모품을 제공했다. 한편 구급차의 사후 관리를 담당할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4개 지역에서 각각 3명씩 총 42명의 차량 관리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현지 연수를 실시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응급 처치 능력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앞으로 환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구급차를 제공함으로써 특수 차량에 대한 우리의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전국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역량 강화 사업 | **사업기간** 2007~2008년 | **사업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구급차 지원, 사후 관리 물품 지원, 기술 인력 현지 연수

06 UZBEKISTAN

디지털 지도로 자원 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국가 지리 정보 체계 구축 사업

Project for the Creation for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KOICA의 지원으로 국토를 항공 촬영해 타슈켄트의 디지털 지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토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흐티야르 에르게쇼브 중앙항공지도 제작 소장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를 꺼내 들더니 이제까지 작업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자랑하듯 보여주면서 말했다. 중앙아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 광물 · 수자원 · 전력 · 환경 · 기후 관리 등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지리정보 시스템NGIS' 을 구축하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 사업 추진과 관련해 2002년 5월 3일 'ICT 도입 및 전산화 촉진에 관한 대통령령' 과 이에 관한 내각 회의의 결정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타슈켄트를 대상으로 4~5% 정도의 시범적 디지털 맵을 완료했다.

하지만 토지 관리위원회 및 산하 지리 정보 업체는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디지털 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본 경험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시범적 사업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125만 달러를 투입해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전자정부 구축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업은 타슈켄트 시의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지도는 국토 정보의 효율적 관리에서부터 시작해 세금 관리와 국가 개발 계획 수립,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특히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의 자원 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지리 정보 시스템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분야다. KOICA는 우리의 우수한 지리 정보 시스템 기술이 적용된 기자재를 제공하고, 디지털 매핑과 지리 정보 시스템 기술을 전수시켜 IT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었다. 전 국토에 대한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KOICA의 이번 지원 사업은 시범 사업의 성격이 강한 만큼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국가 지리 정보 체계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125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디지털 매핑,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7 UZBEKISTAN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게 고작이었죠

우즈베키스탄 3개 중앙 사료(史料) 보관소 정보화 사업

The Project for Informatization of the Central State Archive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와 중세 이슬람 문화의 화려한 유적이 남아 있는 나라다. 소련이 붕괴된 후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을 선포하고 1998년 12월 '독립국가연합CIS' 에 가입한 이래 개방과 경쟁을 지향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점차적으로 도입해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최근 석유와 천연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사업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이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IT 분야와 국가 기록물 보관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수도 타슈켄트 내 세 곳의 중앙 사료 보관소는 중앙 기록물과 영상, 과학 기술, 의료 등 중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숙한 관리로 인해 자료가 훼손되고 있으며, 수작업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어 자료의 검색과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문서를 전자화하고 있다고 해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그 속도는 매우 느리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7년 문화유산과 중요 국가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중앙 사료(史料) 보관소의 정보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중앙 사료 보관소에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 곳의 기록물 보관소의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제공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중앙 사료 보관소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전문가를 파견하고, 연수생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OICA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사회 · 과학 ·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됨은 물론, 역사적 유산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중앙 사료 보관소 정보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공조 설비, 시스템 구축 및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KAZAKH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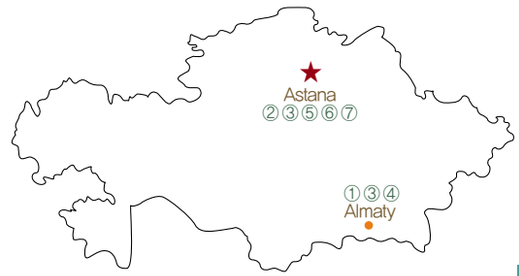
'카자흐'라는 말은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을 뜻한다. 그 이름처럼 광활한 초원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자유롭게 살아 온 카자흐 사람들은 외국 문물에 개방적이고 관용적이다. 1백30여 개의 이민족이 화합을 이루며 사는 모습은 카자흐인들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글 · 전영은**

카자흐스탄

중앙부는 불모지에 가까운 사막과 초원 지대이지만 일본의 전체 면적과 비슷한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어 호주와 함께 세계적인 식량 수출국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전 국토에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 나오는 화학 원소를 거의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자원 또한 풍부하다. 특히 원유와 가스, 텅스텐의 매장량은 세계 1위, 우라늄과 크롬은 세계 2위의 매장량을 자랑한다. 국제 원유가가 오르기 시작한 2000년 카자흐스탄은 10%에 육박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 후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을 거듭했다.

2007년 카자흐스탄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9천7백 달러로 '독립국가연합CIS' 나라 중 러시아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자원에만 의존하는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자원 수출은 과도한 외화를 유입시켜 물가가 오르게 되고, 환율이 상승해 제조업과 같은 다른 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자원에서 얻은 수입을 국가 기금으로 축적해 경쟁력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등 산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국가 발전 화두는 경쟁력 있는 세계 50대 국가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부문뿐 만아니라 IT · 석유화학 · 건설 · 교통 · 운송 · 농업 · 식품가공 · 금융 ·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명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정체 공화제 **기후** 대륙성 기후 **인구** 1천5백19만 명
면적 2,724,900㎢ **1인당 국민소득** 9천7백 달러 (2007년 기준) **수도** 아스타나(Astana) **민족** 카자흐인(57%), 러시아인(27%), 기타(16%) **문자 해독률** 100% **종교** 이슬람교(47%), 러시아 정교(44%) 등 **공용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 카자흐스탄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 중 빈곤층 비율** 1995년 34.6%에서 2000년 17.6%로 감소, 영 · 유아의 연령 대비 체중 불균형률은 2000년 3.8%로 축소 • '기초생활관련법' '복지지원법' 제정, 빈곤 및 실업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 • 5세 미만 아동, 임산부 · 수유 중인 여성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업 발전 계획 수립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취학자** 2000년 95%에서 2007년 99%로 상승 • **초등 학력 이수율** 2000년 94%에서 2007년 101%로 상승한 결과 5~24세 문맹률은 2000년 0%를 기록 • 질 좋은 교육 확대를 위한 국가 교육 프로그램 수립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기초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2000년 101%에서 2007년 100%로 축소,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102%에서 99%로 축소 • 여성 건강, 여성의 경제적 처우 개선,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 지위 개선을 위한 국가 실천 계획' 채택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유아 사망률** 1995년 신생아 1천 명 중 60명 사망에서 2007년 29명 사망으로 축소 • **영아사망률** 1995년 신생아 1천 명 중 50명 사망에서 2007년 26명 사망으로 축소
모성 보건 증진	• **산모 사망률** 1990년 10만 명당 1백40명 사망 • '모성 및 아동 건강 보호' 국가 프로그램 실행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성인(15~24세) 중 HIV 발병률** 2007년 0.1%, • **결핵 발병률(10만 명당)** 1990년 58명에서 2007년 1백30명으로 증가 • AIDS 관리를 위한 국가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AIDS 관련 협력 위원회 활성화 • 2000년부터 국가 결핵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결핵 관련 의약품 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령 시행

01 KAZAKHSTAN 고려인도 진료하는 KOICA 병원

한 · 카 친선 병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Kazakhstan Friendship Hospital

"가지 마오… 여기 같이 있으오…"

한 · 카 친선 병원 내과 진료실에서 고려인 할머니가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KOICA 협력 의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인다. 혈압과 심장병이 있는 할머니는 고려 말로 수다를 떠는 몇 안 되는 할머니 중 한 분이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다. 면적은 남한의 26배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나라지만 인구는 1천5백30만에 불과해 호주, 캐나다에 이어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낮은 나라 중 하나다.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 알마티에 위치한 제5 병원은 과거 소련 통치 시절 건립된 탓에 건물은 노후하고 의료 수준은 열악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알마티와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제5 병원을 '한 · 카 친선 병원'으로 이름 짓고 1997~2000년까지 120만 달러를 투입해 제5 병원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1998년 11월에서 1999년 4월까지 건물 ·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3백5종의 의료 기자재를 제공했다. 외과 응급 장비, 내과 · 방사선과 기본 의료 장비 및 약품, 내시경 · 약제기 · 혈액 분석기 · 임상병리과 약품 · 구급차 · 전압 조정기 등 의료 기자재를 설치할 때는 병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고려인 회장단도 찾아와 장비를 살펴보고 기뻐했다. 또한 의료진 20명을 국내로 초청해 경희대 병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2000년 2월 10일 '한 · 카 친선 병원' 개원식



에서 비자노프 알마티 부시장은 KOICA의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2000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KOICA는 병원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1년부터는 내과 · 외과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2003년에는 이동용 진료대 등 치과 장비를 추가로 지원했다. 의료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우리나라 기술자는 KOICA가 파견한 의료진들의 진료실 앞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오기도 했다.

사업명 한 · 카 친선 병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7~2000년 | **사업 규모** 12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물 건축, 의료 기자재 지원, 의료진 초청 연수

02
KAZAKHSTAN

공인 기술자, 우리가 보장합니다

국가 자격 검정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Professional Readiness, Confirmation and Recognition of Qualification for the Professions of Technical and Service Fields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산업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원유 산업은 물론 IT · BT · NT 등 신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산업 분야가 요구하는 우수한 기술 인력을 적시에 공급해야 하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자격 검정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개의 기업들은 직업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는 수도 아스타나에 '국립 자격확인 검정 센터RCCRQ'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관리 및 운영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들여 카자흐스탄의 국가 자격 검정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했다. 분야별 전문가를 5단계- 자격 제도 및 법규 · 문제 출제 · 노동 시장 분석 및 검정 종목 개발 · 정보 관리 · 재정관리- 로 나누어 현지에 파견하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노동부, 국립 자격확인 검정 센터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우리나라의 자격 검정 제도 관리 및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국립 자격확인 검정 센터 멀티미디어실에 자격 제도 관리 및 문제 은행 시스템 구축용 전산 장비를 제공했다.

2007년 5월 마침내 국립 자격확인 검정 센터는 카자흐스탄 전국의 63개 검정 시설을 통해 10개 종목을 대상으로 2천4백98명의 자격 검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응시자의 31.5%인 8백50명이 국가 공인 자격을 획득했다. 최근에는 건설 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특히 건설 분야가 업계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국제 노동포럼International Labour Forum' 및 최종 결과 보고 세미나에서 교육과학부 과장 겸 국립 자격확인 검정 센터 소장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 KOICA에 사의를 표했다. 교육과학부 관계자 등 참석자들도 "한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OICA는 카자흐스탄에 공인된 기술 인력의 효율적 양성과 공신력 있는 자격을 보유한 인력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

사업명 국가 자격 검정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멀티미디어실 전산 장비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3 KAZAKHSTAN

스터디 투어로 수출 실무를 익혔어요

경제특구 활성화 및 수출 지원 역량 강화 사업

Export Promotion and Special Economic Zones Improvement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카스피 해 원유 개발 사업 등을 바탕으로 최근 9%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원유와 가스에만 의존하고 있는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경제 다각화와 효율성 향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목표는 세계 10대 에너지 수출국 및 세계 50대 경제 대국 리스트에 오르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출을 기조로 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시스템과 실행 계획 설계를 '시장조사 및 분석 연구소CMAR'에 위임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4개 경제특구의 활성화와 수출 및 투자 역량 강화에 대한 자문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35만 달러를 투입해 4가지 주제- 수출 및 투자정책 · 경제특구 발전 방안 · 무역 교육 센터 설립 자문 · 무역 실무 가이드북 발간- 에 대해 카자흐스탄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수출과 투자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스터디 투어Study-tour'를 가졌다. 또한 카자흐스탄 공무원을 비롯하여 경제특구 입주 기업인 10명과 무역 교육 센터 예비 강사진 20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사업이 끝날 무렵 KOICA는 포럼을 개최해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CMAR'의 알마티와 아스타나 사무소 간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화상 회의 장비를 제공했다. 'CMAR'은 2008년 2월 'KAZNEXKazakhstan Next







Export' 로 이름을 변경하고 우리나라의 KOTRA와 같은 성격의 기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KAZNEX'는 "스터디 투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수출 진흥 경험과 제도를 습득하고 비교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회를 가졌다"는 감사 서한을 우리나라에 보내오기도 했다. KOICA는 우리나라의 수출 진흥 정책에 관한 경험을 카자흐스탄 상황에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KAZNEX'의 조직 역량을 강화시키고, 국가 경쟁력과 수출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활성화 및 수출 지원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35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스터디 투어, 국내 초청 연수



04 KAZAKHSTAN '인터넷을 보급하자' 는 캠페인 중이에요

한 · 카 IT 교육 센터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Kazakhstan ICT Education Center

카자흐스탄은 정부가 앞장서서 '학교에 인터넷을 보급하자' 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열악하다.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에 따르면 교사의 60%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 기관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IT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ICT 교육 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450만 달러를 투입해 3,000㎡에 달하는 ICT 교육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콘텐츠 제작 도구와 교육 과정 개발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아울러 포털 · 학사 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등 교육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컴퓨터 · 서버 · 네트워크 장비 등 교육 기자재를 제공해 총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ICT 교육센터는 카자흐스탄 최고의 명문 대학인 국립기술대학 안에 건립되고 있는데, 2009년 완공되면 매년 85개의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 2만2천5백 명의 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다. KOICA는 카자흐스탄에서 IT 사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할 교육 훈련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사업을 'ICT 교육 모델' 로 선정하고, 정보 통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명 한 · 카 IT 교육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450만 달러 | **지원 내역** 교육 센터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5 KAZAKHSTAN 21세기 새로운 실크로드를 꿈꾼다

관광 산업 진흥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for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나 문화유산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광 산업을 위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입지 조건은 카자흐스탄이 관광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반이 되어주는 중요 요소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리적인 이점을 적극 활용해 옛 실크로드의 명성을 회복하고, 동서를 잇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꿈꾸고 있다. 카자흐스탄 관광체육부는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카자흐스탄의 관광법과 제도 정비를 비롯하여 관광 행정 및 통계 분야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실시하고, 동부와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또한 관광 분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개발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양국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KOICA는 카자흐스탄의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장기적인 개발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개발 계획의 토대를 마련해줌으로써 카자흐스탄의 관광 정책 및 제도 수립을 위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관광 산업 진흥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워크숍 개최,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6 KAZAKHSTAN

우리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싶다

WTO 가입 준비 및 경제 영향 분석 사업

The Project for Promoting Kazakhstan' s WTO Accession and Analyzing its Economic Impact





1996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추진해 온 카자흐스탄은 최근 미국, 호주, EU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협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입 준비에 들어갔다.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해 2006년 10월 산업무역부 산하에 'WTO' 가입 협상 절차와 가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의 분석을 담당하는 '통상정책개발센터Center for Trade Policy Development, CTPD'를 설립하고, 2008년 우리나라의 다자무역 체제 활동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동식물 위생 및 검역 · 농업무역 · 석유 및 광물 서비스 조달 · 자동차 산업 · 정보 센터 부문에 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CTPD' 담당자 8명을 5개 분야별로 2주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분야별 워크숍을 통해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은 자국의 산업 다각화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KOICA는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준비와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인력과 지식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큰 힘을 실어 주게 될 것이다.

사업명 WTO가입 준비 및 경제 영향 분석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워크숍





07 KAZAKHSTAN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경험을 배운다

경제 선진화 역량 강화 사업 Capacity Building for Economic Development

카자흐스탄은 자원에 의존한 경제 구조로 외부 환경에 민감하고, 특히 금융 부문에 있어 취약하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양한 경제 환경 분석과 경제 개선 진단을 통해 금융 안정화와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07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금융 위기 극복 경험이 자국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한 · 카 경제 전략 세미나를 제안해 왔다. 이에 양국은 2008년 3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제1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 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1차 세미나의 성과와 지향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후속 사업을 요청해 왔다.

양국은 제2차 고위급 정책 세미나를 2008년 7월에 개최하고, 2009년에는 실무자급 초청 연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KOICA는 5개 분야 정책- 국제적 신용 경색과 급속한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직면하게 된 부실 채권 관리 · 금융 감독 기능 강화 · 조기 경보 시스템의 개선과 운영 · 기업 구조 조정 방안 · 산업 개발- 에 대한 자문서를 작성하고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KOICA는 위의 5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4~5개 선정해 협력의 강도를 높이는 경제 협력 액션 플랜도 작성할 예정이다. KOICA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경제 선진화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세미나 개최, 자문서 작성









Asia



지구촌의 절망에서 희망을 꽃피운다



- Nepal
- East Timor
- Myanmar
- Afghanistan
- China
- Papua New Guinea
- Pakistan
- Fiji





NEPAL

세계의 지붕이라는 히말라야를 가진 나라, 네팔은 지난 10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이 마비되었다. 2008년 임시의회가 네팔을 민주연방 공화국으로 선포하면서 국왕은 권좌에서 물러났고, 네팔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인구의 40%는 여전히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한다. 글 · 박상백

네팔 정부는 지난 10년간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비율을 1996년 42%에서 2004년 31%로 낮추었다. 하지만 2006년 기준 국민 총소득GNI 320달러, 최고 수준의 유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 심각한 남녀 불평등, 경작지 대비 높은 인구 비율 등으로 인해 최빈국의 멍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팔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내전을 겪으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 계속된 무장 분쟁에서 비롯된 법질서 결여, 둘째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소외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네팔 정부는 3개년 잠정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빈곤 감소와 함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낙관적인 점은 네팔이 10년간 내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와 도로, 소수력 발전 및 학교 관리, 빈곤 경감 자금 사업 같은 여러 가지 성공적인 개발 경험을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KOICA는 지난 18년간 네팔에 대해 2천6백만 달러 규모의 무상 원조 사업을 실시했고, 2009년에는 직업훈련원 건립과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사업에 3백64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명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정체** 연방공화제 **기후** 언덕지대 : 아열대 · 온대성 기후, 평야지대 : 열대성 기후 **인구** 약 2천9백만 명(2008년 기준) **면적** 147,181㎢(한반도의 약 2/3배) **1인당 국민소득** 3백40달러(2007년 기준) **수도** 카트만두(Kathmandu 인구 약 130만 명, 해발고도 1,350m) **민족** 체트리족(16%), 브라만-힐족(12.5%), 마가(7%), 타루(7%) 등의 다민족 **문자 해독률** 49%(2007년 기준) **종교** 힌두교(80.6%), 불교(10.7%), 이슬람(4.2%) 등 **공용어** 네팔어(대부분의 관공서는 영어 사용 가능)



| 네팔 새천년 개발 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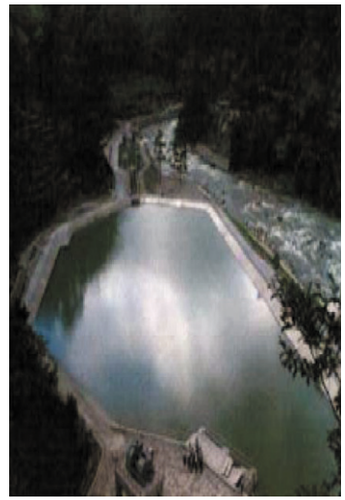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5세 이상 취업률** 2000년 62%에서 2007년 62%로 정체 • **전체 인구 중 빈곤 비율** 1996년 42%에서 2004년 31%로 감소 • **5세 이하 영양실조 비율** 이전 측정치는 없으며 2007년 23.9%를 기록 • **전체 인구 중 영양실조 비율** 1990년 17%에서 1995년 15%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15~24세 여성 문맹률** 1990년 79%에서 2007년 84% 로 증가 • **15~24세 남성 문맹률** 1990년 88%에서 2007년 91%로 증가 • **초등 교육 졸업 비율** 1990년 79%에서 2007년 86%로 증가 • **초등학교 등록률** 2000년 85%에서 2007년 89%로 증가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 1990년 13%에서 2007년 18%로 증가 • **초등 교육 등록 남녀 비율** 2000년 92%에서 2007년 95%로 증가 • **중등 교육 등록 남녀 비율** 2000년 93%에서 2007년 95%로 증가 • **비농업 분야 여성 고용 비율** 1991년 34.6%에서 2000년 37.4%로 증가 • **15~24세 남녀 식자 비율** 1990년 90%에서 2007년 93%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12~23개월 유아 면역률** 1990년 73%에서 2007년 80%로 증가 • **1천 건당 총 유아 사망률** 1990년 63명에서 2007년 49명으로 감소 • **5세 이하 유아 사망률** 1990년 92명에서 2007년 72명으로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전문 출산 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 1990년 49%에서 2007년 65%로 증가 • **15~49세 여성 피임약 및 기구 보급률** 1990년 57%에서 2007년 65%로 증가 • **10만 건당 모성 사망 비율** 1990년 4백30명에서 2007년 4백 명으로 다소 감소 • **태아 검진 임산부 비율** 1990년 65%에서 2007년 80%로 증가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에이즈 감염률** 2000년 0.9%에서 2007년 0.8%로 감소 • **10만 명당 결핵 발병률** 1990년 1백24명에서 2007년 1백39명으로 증가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년 4.1톤에서 2000년 4.0톤으로 감소 • **하수 시설 개선 비율** 1990년 51%에서 2007년 60%로 증가 • **상수원 개선 비율** 1990년 76%에서 2007년 86%로 증가 • **산림 비율** 1990년 31%에서 2007년 31%로 유지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country data 참조

01 NEPAL 전에는 건기 때마다 제한 송전을 해야 했어요

모디 강 수력발전소 건설 실시 설계 사업

The Detailed Design and Preparation of Tender Documents of MODI KHOLA Hydroelectric Project



세계의 지붕이라는 히말라야를 가진 나라, 그 산자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흔히 네팔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언제나 평온해 보이는 그림 같은 풍경과는 달리 현실은 힌두교와 불교 성지, 그리고 히말라야라는 관광 자원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산업 기반이 전혀 없고, 인구의 40%는 여전히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네팔 정부는 국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 및 편중된 지역 개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풍부한 수력을 바탕으로 한 전력 산업 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는 산업 시설의 확충으로 해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네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네팔은 연 40,000MW라는 세계 제2위의 포장수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전력 생산이 불안정해 매년 건기 때마다 제한 송전이란 문제를 겪고 있다. 네팔 정부는 부족한 전력 사정을 개선하고,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모디강 Modi Khola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실시 설계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2~1994년까지 71만 달러를 들여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착수를 위한 실시 설계도 및 공사 시방서와 입찰 관계서 등을 작성했다. KOICA의 실시 설계를 바탕으로 네팔 정부는 자체 재원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으로 1996년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시작해 2000년 8월 완공했다. 2000년 9월 마침내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함에 따라 네팔 서부 전역에 원활히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난을 타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이 끝난 후 코이랄라Koirala 네팔 수상은, "네팔 제1의 관광 도시인 포카라 지역의 전력난을 완전히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수력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KOICA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KOICA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력발전소 설계 기술로 산악 국가에 적합한 중소 수력발전소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디 강 수력발전소는 현재 연간 92.5Ghw 용량에 약 50Ghw의 전력을 생산하는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수력발전소로 자리 잡았다.

사업명 네팔 모디 강 수력발전소 건설 실시 설계 사업 | **사업 기간** 1992~1994년 | **사업 규모** 71만 달러 | **지원 내역** 모디 강 수력발전소 타당성 조사서 재검토, 실시 설계도, 시공 시방서, 입찰 제반 서류 준비






02 NEPAL

산간 오지에서 활동할 의료 인력이 필요해요

보건대학 건립 사업 School of Health Science Project




서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네팔은 인도와 중국에 둘러싸인 내륙 산악 국가다. 네팔은 전체 인구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아리안 족을 중심으로 61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다. 네팔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100여 개에 달하며, 지방의 많은 소수 민족은 아직도 네팔과 카트만두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네팔은 기본적으로 수력자원을 제외한 천연 자원이 빈약하고, 국민 총생산GNP 비율이 낮은 데다 높은 유아 · 모성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영아와 모성 사망률이 높은 것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없는 네팔 오지 마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 있는 곳까지 몇 킬로미터씩 걸어 나와야 한다. 네팔 정부는 오지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지에서 활동할 '보건보조원Health Assistant'을 양성하는 학교를 설립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7년까지 39만 달러를 들여 카트만두에서 130km 떨어진 라밧트풀 지역의 9개 학교 건물을 개 · 보수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장비와 의료 교육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NGO인 장미회와 호산나 재단이 '네팔기술직업교육국 CTEVT'과의 협조 아래 학교를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네팔 보건대학은 네팔 유일의 보건 교육 전문대학으로서 보건요원학 · 임상병리학 · 간호학과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네팔 전역의 7백여 개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업명 네팔 보건대학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39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시설 개 · 보수

03 NEPAL

KOICA가 지원한 외무부는 부처 전산화의 모델이다

외무부 전산화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Computerizat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t

새천년 경제 성장 동력인 IT 산업은 농업 중심의 극빈국인 네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네팔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일찍이 네팔 전화통신공사를 통해 위성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 · 무선,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 부족으로 인해 통신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팔은 1999년 총선을 거쳐 다수당 신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Korea donates computer set t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y A Staff Reporter
Kathmandu, Jan. 23: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Kingdom of Nepal Ryoo See-ya handed over 30 pieces of computer sets, office furniture, digital camera and various other items worth of US dollar 300,000 to the Acting Secretary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dhu Raman Acharya today.
Under the grant project of Ko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e computer were provided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es for the upgrading of the administrative capacity of the Ministry through the computerisation of office work.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of the Embassy of Republic Korea, nine personnel from the ministry were also provided necessary training in Korea for this purpose.
Various senior and junior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embassy officials were present at the function organised at the ministry.
"This assistance being provided from the Korea will certainly help in strengthening already existed close and cordial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 and Nepal", Ambassador Ryoo See-ya said.

이로 인해 각 정부 부처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책의 원활한 뒷받침을 위해 IT 활용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대외 원조와 차관 사업이 늘어나자 대외 창구로서 외무부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외무부 전산화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외무부의 IT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네팔 정부는 외무부의 전산화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당시 네팔 정부는 농업과 일부 노동 집약적 산업 생산성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전산화 산업의 발전은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KOICA는 2001~2002년까지 30만 달러를 지원해 네팔 외무부를 전산화하기로 결정하고 전산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분야 등 각종 전산화 장비 운용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네팔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장비 운용을 비롯하여 인터넷 · 데이터베이스DB · 유닉스UNIX 부분의 교육을 실시했다.

KOICA의 지원 덕분으로 네팔 외무부는 대외적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다른 정부 부처 전산화의 롤 모델이 되었다.

사업명 네팔 외무부 전산화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3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04 NEPAL 잠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이 늘어났어요

이타하리 잠업 센터 지원 사업 Itahari Sericulture Development Center Support Project

1972년은 네팔과 우리나라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그해 우리나라는 네팔의 잠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1983년 12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0여 명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기술을 전수하고, 12만 달러 상당의 누에 품종과 제사(製絲) 장비를 제공했다. 1993~1995년까지는 이타하리 Itahari 잠업 지도소 건립을 지원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타하리 잠업 지도소의 설비 수준으로는 지속적인 농가 소득 창출과 늘어나는 누에 생산량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제사 장비의 과도한 사용으로 끊임없이 고장이 발생하고 있었다.



KOICA는 1996년 14만 달러를 들여 다시 이타하리 잠업 지도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제사 장비 98종을 추가로 제공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잠업 지도소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전통적인 농업 국가에 머물러 있는 네팔에서 잠업은 여전히 농가 소득 창출과 농업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이다. KOICA의 지원으로 잠업 지도소는 연간 30톤의 누에고치를 제사 처리해 수출함은 물론, 내수 물량을 충당함으로써 약 20만 호에 이르는 잠업 농가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었다.

사업명 네팔 이타하리 잠업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6년 | **사업 규모** 14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05 NEPAL

네팔 동부 지역에 잠업 기반 시설을 건립하다

잠업 지도소 건립 사업

Sericulture Development Project in Eastern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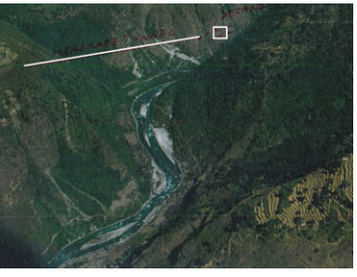


네팔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개발 국가 중 하나로 국민의 3분의 1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한다. 특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 인구와 국내 총생산 GDP의 38%를 차지하는 농업 경제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로서 네팔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산업 경제에 있어서도 주요 농업 생산물인 황마 · 사탕수수 · 담배 · 잡곡류 등의 식품가공 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가내 수공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전형적인 농업 국가인 네팔의 잠업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네팔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을 개발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잠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93~1995년까지 63만 달러를 들여 2백 평 규모의 잠업 지도소를 건축하고, 지도소 운영에 필요한 잠사 기계 및 교육용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잠종 개발 전문가와 누엣병 방지 전문가를 각각 2개월과 5개월씩 파견해 잠업 지도소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고, 네팔 잠업 지도소 관계자 2명을 2주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네팔 전역을 통틀어 잠업 시험소가 하나밖에 없던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동부 지역 잠업 기반 시설인 잠업 지도소를 건립해 농촌 지역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업명 네팔 잠업 지도소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3~1995년 | **사업 규모** 63만 달러 | **지원 내역** 잠업 지도소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전문가 초청

06 NEPAL 이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실시 설계 사업
The Detailed Design and Preparation of Tender Documents of Chameliya Hydroelectric Project



네팔은 산악 지형과 내륙국이라는 지형적인 제약과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력 부족이라는 곤란을 겪고 있다.

네팔 정부는 1992년부터 3년간 진행된 모디콜라 수력발전소 실시 설계 사업의 성공을 모델로 삼아 서부 지역의 전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멜리야Chameliya 수력발전소 실시 설계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왔다. 이는 네팔 서부 지역 마하칼리Mahakali 강의 지류인 차멜리야 강에 30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실시 설계와 시공 입찰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KOICA는 2000~2002년까지 95만 달러를 들여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네팔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재검토하고, 지형 · 지질 · 송전선 등에 관해 추가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수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진입 · 공사용 도로와 교량 등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와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실시 설계를 완성하고, 실제 발전소 건설 공사를 위한 입찰 서류를 준비했다. 아울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수력 발전 기술을 전수했다. KOICA의 지원으로 네팔 서부 지역은 비로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사업명 네팔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실시 설계 사업 | **사업 기간** 2000~2002년 | **사업 규모** 95만 달러 | **지원 내역** 타당성 조사 재검토, 현지 지질 조사, 수력발전소 및 부대시설 설계, 설계 공사 입찰 서류 작성, 수력 발전 기술 전수 및 연수 실시

07 NEPAL 우기 때마다 도로가 폐쇄되곤 했어요

칸티 국도 개량 타당성 조사 사업
Feasibility Study of Kanti Rajpath Improvement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와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이 가능했던 것은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네팔 같은 내륙국가에서 교통망 확보는 경제 · 사회 발전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다. 네팔 정부는 도로 교통망의 발달이 경제 성장과 생산 및 사회 분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8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건설과 개량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했다.

네팔 정부는 'Kanti Rajpath' 도로를 개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anti Rajpath' 도로는 1954년 완공 후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쇄되었다. 하지만 카트만두와 헤타우다 사이를 잇는 2개의 도로가 우기 때마다 유실되고 폐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네팔 정부는 'Kanti Rajpath' 도로를 대체 도로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KOICA는 1997~1999년까지 80만 달러를 들여 'Kanti Rajpath' 도로에 대한 사회 경제 조사를 포함해 교통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예비 설계와 경제성을 분석하여 최종 보고서를 네팔 정부에 제출했다. KOICA의 지원으로 네팔 정부는 비로소 두 지역 간 통행 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사업명 네팔 칸티 국도 개량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9년 | **사업 규모** 80만 달러 | **지원 내역** 칸티 국도 개량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실시(사회 · 경제 · 교통 · 현장 조사, 예비 설계, 환경 영향 평가 등)



08 NEPAL

무상 원조 사업이 유상 원조 사업으로 이어지다

칸티 국도 개량 실시 설계 사업

Detailed Design on the Kanti Raj path Improvement



네팔과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악 지형인 탓에 산업 사회의 근간인 도로가 발달하기 어려웠다. 구불구불한 산등성이를 따라 나 있는 네팔의 도로를 보면 마치 강원도 오지의 도로를 보는 것 같다.

네팔 정부는 1997년 9차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 사회 발전을 위해 국가 간선도로망 정비와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총연장 233km의 프리시비Prithivi 국도는 카트만두~헤타우다Hetauda 간 최단 도로로서 수출품의 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총연장 86km 칸티 국도는 프리시비 도로의 대체 도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문제는 칸티 국도였다. 칸티 국도는 관리 부실로 이미 오래 전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네팔 정부는 칸티 국도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2~2003년까지 110만 달러를 투입해 도로 건설을 위한 각종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수집 ·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형 측량과 지형도 작성, 지질

및 토질 조사를 수행했다. 그리고 칸티 국도의 교량과 포장, 교통안전 시설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시 설계 사업을 진행했다. KOICA의 칸티 국도 실시 설계 사업은 이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에 의한 도로 개량 사업으로 이어졌다. 사업 종료 후 칸티 국도의 개선으로 카트만두~헤타우다 간 소요 시간은 6시간에서 3시간대로 줄어들었고, 안전한 수송로가 확보되었다.

사업명 네팔 칸티 국도 개량 실시 설계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3년 | **사업 규모** 110만 달러 | **지원 내역** 국도 설계 관련 자료 수집, 분석, 지형 측량 및 지형도 작성 등 기술 조사, 상세 설계, 적정 공사비 산정 등 입찰 도서 작성

09 NEPAL

저희 지역에도 병원이 생겼어요!

한 · 네팔 친선 병원 건립 사업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epal Friendship Hospital in Thimi, Bhaktapur





네팔은 지난 10년간의 내전으로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이 마비되었다. 특히 의료 보건 등 공공분야 시설의 열악한 상황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네팔의 빈민 지역 중 하나인 카트만두 인근 티미Thimi 시의 인구 밀도는 1㎢당 4천2백98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이곳에서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함께 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Banepa Nardias' 고속도로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하지만 인근에는 3개의 보건지소와 2개 보건소를 제외하면 의료 시설이 전무하다. 네팔 정부는 티미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곳에 한 · 네팔 친선 병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116만 달러를 투입해 50개 병상을 갖춘 1,800㎡ 규모의 병원을 건축했다. 수술실과 치과 · 이비인후과 · 임상 병리실 ·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의료 장비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병원 경영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는 한편 현지 인력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네팔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티미 지역에 기초 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빈민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2009년 4월 개원식에 참석한 람 바란 야다브 네팔 대통령은 KOICA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사업명 네팔 친선 병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116만 달러 | **지원 내역** 소규모 시립 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10 NEPAL

정부 부처 전산화로 새로운 네팔을 건설하다

정부 통합 데이터 구축 사업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Integrated Data & Training Center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정보통신 분야를 자국의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히말라야라는 자연 환경과 내륙 국가라는 제약을 갖고 있는 네팔도 마찬가지다. IT 발전을 국가 발전 목표로 정하고, IT 산업 육성과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년간 지속된 내전이 끝난 후 '새로운 네팔New Nepal' 건설을 표방하고 나온 네팔 정부는 IT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의 전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통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350만 달러를 투입해 정부 통합 데이터 시스템과 훈련 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센터 건축과 더불어 각종 네트워크와 데이터 장비 등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센터 운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효율적 센터 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앞으로 네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업명 네팔 정부 통합 데이터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350만 달러 | **지원 내역** IT 훈련 센터 건축, IT 시스템 구축,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11 NEPAL

노동 인력의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부트왈 탐나가 지역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ep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Butwal





매주 토요일 오후 동숭동 대학로의 한쪽에는 우리가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다. 이들은 대부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등 남서부 아시아에서 꿈을 좇아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수입의 거의 전부를 자국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다. 네팔도 예외는 아니다. 2006년 기준, 해외의 네팔 노동자들은 약 15억 달러를 모국으로 송금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 노동자들이 네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네팔 노동자들은 숙련된 기술이 부족한 탓에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6년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노동 인력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직원훈련원 건립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500만 달러를 투입해 네팔 부트왈Butwal 지역에 직업훈련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실습실을 포함한 연면적 5,000㎡의 훈련원 건물을 신축하고, 기계 · 전기 · 전자, 컴퓨터 등 주요 3개 공과의 기자재를 제공하며, 교사와 관리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훈련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교육을 지원한다.

KOICA는 네팔의 산업 현장과 해외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고용 창출을 통한 가계 소득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교육 시설이 열악한 부트왈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내전 종식 후 '새로운 네팔New Nepal' 건설을 내세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과 소외 계층 포용 정책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네팔 부트왈 탐나가 지역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500만 달러 | **지원 내역** 직업훈련원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EAST TIMOR

동티모르의 인구는 약 110만 명에 불과한데, 그중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산간 오지에서 생활한다. 국내 시장의 규모가 극히 작아 제조업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시행될 유전 개발로 20년간 30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를 경제 발전에 활용한다면 동티모르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글 · 안지희

동티모르의 주요 생산물은 커피다. 하지만 농업 국가인 동티모르는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대외 의존도 또한 높은 편이다. 1999년 이후 동티모르의 주요 수입원은 유엔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지원해준 원조금이었다. 국제 사회는 동티모르의 경제 발전을 위해 농업 부문에서 구황 작물과 환금 작물을 수출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커피와 같은 작물은 세계 시장에서 저가로 판매되고 있어 농작물 수출만으로는 특별한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2003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동티모르의 국민 총생산GNP은 410달러이며, 국민의 70%가량이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2005년 자료 참고) 현재 동티모르 정부는 2015년까지 매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빈곤과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 산업 및 시민 사회, 사업가 집단을 형성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실업률 감소와 교육 개선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동티모르의 2005년도 국내 총생산은 전년도에 비해 약 3%가량 높아져 경제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동티모르 정부는 2002년 5월 20일 호주와 '티모르 갭Timor Gap' 유전개발협약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년간 자국의 자립 경제 건설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게 됨은 물론 빈곤 퇴치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천2백50명의 육군과 36명의 해군, 이것이 동티모르가 가진 군사력의 전부다.

국명 동티모르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정체** 공화제 **기후** 열대 · 아열대 기후 **인구** 110만 명(2007년 기준) **면적** 14,609㎢(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 **1인당 국민소득** 354달러(2005년 기준) **수도** 딜리(Dili) **민족** 주로 말레이족 · 파푸안족 · 테툼족(약 40%) 및 기타 32개 종족 **종교** 가톨릭(80.3%), 개신교(18.0%), 기타 **공용어** 포르투갈어 · 테툼어



| 동티모르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1백10만 명) 중 1일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는 2001년 52.9%에 달함. ● **5세 미만의 체중 미달 아동** 2002년 42.6%에서 2003년 45.8%로 증가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2005년 68.1% ● 초등 학력 이수자 등 기타 자료는 찾을 수 없음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기초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2004년 93%에서 2005년 92%로 감소 ● **중등 교육 과정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2004년 99%에서 2005년 100%로 소폭 상승 ● 고등 교육 과정에서는 2002년 126%에 달하는 등 교육에서는 거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음.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사망률** 1990년 신생아 1천 명 중 1백77명 사망에서 2006년 약 55명 사망으로 축소
모성 보건 증진	● **모성 사망률** 2005년 10만 명 중 3백80명 수준(1995~2005년까지의 모성 사망률 통계 없음) ●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출산 비율** 1997년 25.8%에서 2003년 18.4%로 감소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AIDS 사망 인구** 15~24세 중에서 100명 미만으로 추정됨.(2001년 기준) ● **결핵 발병률** 인구 10만 명당 1990년 1백79명에서 2006년 1백52명으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안전 식수 이용률** 2000년 61%에서 2006년 62%로 거의 변화 없음. (도시 인구 77%, 농촌 인구 56%)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country data 참조

01 EAST TIMOR 신생 독립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다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the Independence Memorial Hall of Timor-Leste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동티모르 독립기념관은 우리나라의 기념비적인 건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동티모르 외무부 장관은 독립기념관 건립 축하 행사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입가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중 하나, 그것도 섬의 절반만 차지하고 있는 나라 동티모르에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독립기념관이 건립된 것이다.

동티모르는 5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아 왔다. 1977년부터 25년간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생활을 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더욱이 1999년 국민투표 후 독립이 결정되었으나 독립을 반대하는 민







병대와 철수를 준비하던 인도네시아 군인들은 동티모르의 사회간접시설 대부분을 파괴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동티모르 정부는 신생 독립국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독립기념관 건립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1~2003년까지 120만 달러를 투입해 건평 562.65㎡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에 있던 건평 286.42㎡ 건물을 보수했다. 또한 독립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동영상 기기, 방송 장비, 무대 장치, 전시용 유리 케이스 등의 설비를 제공해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KOICA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동티모르 무상 원조 사업을 한층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사업명 동티모르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3년 | **사업 규모** 12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장비 시설

02 EAST TIMOR

응급 의료 시스템 덕분에 사망률이 감소했죠

딜리 등 6개 지역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사업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for Timor-Leste

현재 동티모르 국민의 90% 정도는 내 집이 없으며, 세 가구당 한 가구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시설이나 문맹 등 기본적인 사회 지표도 아시아에서 가장 낮다. 무엇보다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부족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정은 의료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랜 독립 투쟁으로 동티모르의 보건 의료 환경은 매우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동티모르 정부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민들에게 긴급 의료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Health Policy Framework HPF'를 수립했다. 이로 인해 동티모르 주민들은 도보로 2시간 거리 이내에서는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고, 차량으로 2시간 이내 거리에서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KOICA는 동티모르 보건부의 요청에 따라 2007~2008년까지 81만 달러를 지원해 수도 딜리를 중심으로 6개 지역의 응급 후송 체계를 구축했다. 특수 의료 장비를 장착한 기본형 구급차 3대, 고급형 구급차 7대 등 모두 10대의 구급차를 제공해 응급 치료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다. 또한 응급 의학 전문의, 응급 구조사 등 전문가 5인을 현지에 파견해 응급 의료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 조직된 동티모르 '국가앰뷸런스운영위원회NA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활동도 전개했다. 아울러 동티모르 응급 의료 전문가와 관리자 6명을 국내로 2주간 초청, 연수를 통해 동티모르 의료진의 기술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줬다.

KOICA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응급 의료 시스템과 의료 기술을 동티모르에 전수함은 물론, 응급 의료 체계를 새롭게 정비시켜 동티모르 국민의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명 동티모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81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응급 의료 전문가 파견, 동티모르 의료진 국내 초청 연수

03 EAST TIMOR 동티모르에 CT가 들어오다니 꿈만 같아요

국립병원 의료 서비스 현대화 및 관리 능력 배양 사업

Strengthening Diagnostic Capacity of Dili National Hospital at Dili in Timor-Leste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최빈국에 속하는 동티모르의 보건 수준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열악하다. 2002년 동티모르의 영아 사망률은 1천 명당 88명,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천 명당 1백25명, 모성 사망률은 1만 명당 80명이며, 기대 수명은 57세에 불과하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수도 딜리Dili에는 단 한 개의 국립병원만이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티모르 섬 전체를 통틀어 컴퓨터 단층 촬영기CT나 혈액 투석기 등 현대적 의료 기기는 전무하다. 질병으로 인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 같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인도네시아나 호주 등 인근 국가로 이송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도 많았다.











KOICA는 동티모르 보건부의 요청에 따라 2007년 딜리 국립병원의 의료 서비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우리나라로부터 80만 달러를 지원받은 딜리 국립병원은 컴퓨터 단층 촬영기 1대, 혈액 투석기 2대, 석션 머신 20대, 디지털 혈압 테스터기 20대 등을 갖춰 의료 서비스를 단기간에 현대화시켰다. 또한 동티모르 방사선과 의사 1명을 8주간 국내로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우리나라의 신장 내과 전문의 2인을 2주간 현지에 파견해 의료 서비스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동티모르에 CT가 들어오다니 꿈만 같아요." 국립병원의 한 의사는 의료 서비스 현대화 사업 후 CT를 갖게 된 기쁨을 이렇게 전하며 KOICA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사업명 동티모르 국립병원 의료 서비스 현대화 및 관리 능력 배양 사업 | **사업 기간** 2008년 | **사업 규모** 8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04
EAST TIMOR

우편물 배달, 이젠 걱정 없답니다

우편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imor-Leste Public Postal Service

동티모르는 아직 화폐 제도가 확립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 체제가 미비하다. 2003년 11월부터 1 · 5 · 10 · 25 · 50 등 5종류의 동전인 '센타보centavo'를 발행해 유통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달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미비는 우편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유엔의 잠정적인 통치를 거쳐 2001년 5월 완전 독립을 이루기까지 동티모르에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우편 서비스 제도가 없었다. 현대화된 우편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한 동티모르 정부는 2007년 자국의 기반 산업부Ministry of Infrastructure를 담당 부처로 정하고 우리나라에 우편 서비스 현대화 사업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동티모르 우편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KOICA는 수도 딜리에 건평 1,000㎡, 2층 규모의 중앙우체국 건물을 신축하고, 우편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이에 필요한 서버, 단말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우편 서비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KOICA는 동티모르에 자국민들을 위한 우편 서비스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 표준화에 부합하는 우편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사업명 동티모르 우편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물 신축, 기자재 지원, 시스템 개발, 국내 초청 연수



MYANMAR

미얀마는 1989년 나라 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 연방'으로 바꾸었다. 국토의 66%가 산림지대인 미얀마에는 1백35개 소수 민족이 살고 있지만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는다. 미얀마는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개발과 성장 모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글 · 손송희**

미얀마는 1989년 나라의 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 연방Union of Myanmar'으로 바꾸었다. 국토의 66%가 산림지대로 1백35개의 소수 민족이 살고 있지만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고 있다. 불교는 미얀마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미얀마의 독특한 문화를 탄생시켰다.

미얀마는 1886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쳐, 1948년 독립 후 지금까지 40여 년간 군부 통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미얀마는 정부의 정책 실패와 민주화 세력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 1993년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하여 2007년 '동남아 국가 연합ASEAN'에 가입하고, 아시아 지역 협력체와는 물론 인접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2008년 국민투표에 의한 신헌법 채택과 2010년 총선 실시 등 민주화를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얀마의 경제, 사회 발전을 바라보는 외부의 전망은 밝지 않다. 하지만 2010년 민정 이양으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개발과 성장 모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④⑥⑧ 미얀마 전역

국명 미얀마연방(Union of Myanmar) **정체** SPDC 군사정부(국가평화발전위원회) **기후** 열대성 몬순 기후 **인구** 5천7백50만 명 **면적** 678,675㎢(한반도의 약 3배) **1인당 국민소득** 4백44달러(2008년도 기준, 유엔이 최빈국으로 지정) **수도** 네피도(NayPyidaw) **민족** 미얀마족 70%, 소수 족 25%, 기타 5%(중국, 인도계 등) **문자 해독률** 81%(2007년도 기준) **종교** 불교(89.28%), 기독교(5.86%), 이슬람교 등 **공용어** 미얀마어

| 미얀마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경제 활동 인구(15세 이상) 중 취업률** 1990년 75%에서 2007년 75% 유지 • **영양실조 인구 비중** 1995년 34%에서 2007년 19%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2000년 기준으로 15~24세 여성 문맹률 7%, 남성 문맹률 4% • **초등 교육 졸업 비율** 2000년 81%에서 2007년 95%로 증가 • **초등 교육 등록률** 2000년 95%에서 2007년 99%로 증가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초등 교육 등록자 남녀 비율** 1990년 97%에서 2007년 101%로 증가 • **중등 교육 등록자 남녀 비율** 1990년 99%에서 2007년 100%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12~23개월 유아 면역 상태** 1990년 90%에서 2007년 78%로 감소 • **1천 건당 총 유아 사망률** 1990년 91명에서 2007년 74명으로 감소 • **5세 이하 유아 사망률** 1990년 1백30명에서 2007년 1백4명으로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15~49세 피임약 및 기구 보급률** 1990년 17%에서 2000년 37%로 증가 • **10만 건당 산모 사망률** 2007년 3백80명 • **태아 검진 임산부 비율** 2000년 7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24세 여성 에이즈 감염률** 2007년 0.6% • **15~49세 에이즈 감염률** 2000년 0.9%에서 2007년 0.7%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병률** 2007년 1백71명 • **DOTS에 의한 결핵 진단률** 1995년 26%에서 2007년 109%로 증가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년 0.1톤에서 2000년 0.2톤으로 증가 • **하수 시설 개선 비율** 1990년 23%에서 2007년 82%로 증가 • **상수원 개선 비율** 1990년 57%에서 2007년 80%로 증가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 1인당 원조 제공** 2000년 2달러에서 2007년 4달러로 증가

출처 : 세계은행(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01 MYANMAR 교육이 충실해야 지역이 발전한다

라쇼대학 시설 개선 사업
Project for Upgrading Building Facilities at Lashio College



미얀마는 국경 지역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방 교육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중시하였으나 재정난으로 학교 시설의 확장이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지방 대학들은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지역 사회 발전이나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미얀마 정부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샨 주Shan State 지역의 중심 도시인 라쇼Lashio에 라쇼대학의 학생 수를 두 배로 증가시키고, 2년제에서 4년제로 학제를 조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5~1996년까지 50만 달러를 지원해 3층짜리 대학 본관을 신축했다. 대학 본관은 2,413㎡ 규모로 1층에는 학장실을 비롯하여 사무실 · 대기실 · 연구실 · 부대 공간이 들어섰고, 2층에는 회의실과 세미나실 · 비디오실 · 영사실 · 연구실 그리고 3층에는 대강당이 지어졌다. 미얀마 건설부 산하 공공시설 건설청은 설계와 시공을 맡아 작업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부지 조성 및 설계를 비롯하여 전기와 수도 설치를 맡고, 총 건축 비용 80만 달러 중 30만 달러를 부담했다. 이 공사는 라쇼 지역에서 최초로 외국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으며 현지 주민과 관계 기관 공무원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다. KOICA의 지원을 통해 라쇼대학교 학생들은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지 방송과 신문은 공사 계약에서 착공까지 사업의 진행 과정을 전국적으로 보도했다.

사업명 미얀마 라쇼대학 시설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6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02 외화 획득의 발판을 마련하다

MYANMAR

잠업 개발 사업

Strengthening and Upgrading of Silkworm Breeding and Sericulture Intension Facilities

1998년 미얀마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책에 따른 실질적 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국유화 정책의 후유증으로 경제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미얀마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열악한 산업 인프라, 정치 상황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해 빈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1996~2001년까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잠업 산업을 내수 및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곡, 콩, 옥수수 등 1차 농산품의 생산 둔화에 따라 부차적 상품을 생산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마약 재배지를 잠업 생산 기지로 대체하고자 했다. 하지만 뒤떨어진 잠업 기술과 낙후된 시설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KOICA는 1997~1998년까지 32만 달러를 투자해 미얀마 잠업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관련 장비를 제공했으며 누에 사육과 뽕밭 관리 관련자 10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미얀마의 잠종 생산과 누에 사육, 뽕나무 재배 및 가공 등에 관한 기술의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고, 농촌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장기적으로는 면사 산업 발전을 통해 외화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미얀마 잠업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8년 | **사업 규모** 32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3 녹색 성장의 꿈에 다가서다

MYANMAR

산림녹화 시범 사업

Greening the Dry Zone of Central Myanmar Ⅰ

1990년대 미얀마의 무역 규모는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며, 농산물과 임산물 등 1차 산업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 특히 산림 분야는 동남아 최후의 산림 보유국가답게 투자의 유망 분야로 꼽혔다. 티크, 경질목 등 산림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접목될 경우 경제 개발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만달레이 냥웅우Nyaung-Oo 지역 내 'Tu-Yin Taung' 산은 강수량과 평균 기온 등 산림녹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미얀마 정부는 이 지역을 산림녹화 숙원 사업 지역으로 정했으나 재원과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미얀마 정부는 이곳의 조림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는데, 1994년 KOICA가 파견한 산림녹화 전문가들의 활동과 우리나라의 영일만 사방 녹화 사업에 대한 인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

KOICA는 1998~2000년까지 18만 달러를 투자해 산림녹화 시범 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건조 지역을 녹화시켜 농업 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조림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지원의 목적이었다.

KOICA는 미얀마에 용기 묘 생산을 위한 시설 기술을 전수하고, 조림목의 활착 증진 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수목의 생장 향상 기반 조성 및 산지사방 기술 개선 사업 등을 펼쳤다. 그 결과 미얀마는 산림 환경 복원 기술 향상으로 사업 지역의 환경을 녹화시키고, 토양 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농산물 생산 증대에 따른 소득향상을 통해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산림녹화 시범 단지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나서 미얀마 정부가 중부 지역의 산림녹화 시범 단지 조성을 추가로 요청해 옴에 따라 KOICA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명 미얀마 산림녹화 시범 단지 조성 사업 | **사업 기간** 1998~2000년 | **사업 규모** 18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4 MYANMAR 이제 더 이상 전기 걱정은 하지 않는다

전력망 개발 조사 사업 Power System Network Diagnosis

1998년 당시 미얀마는 수도권에서 100mW, 전국에서 약 1,000mW 정도의 전력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은 하루 평균 8시간, 다른 지역은 이틀 간격으로 송전을 제한해야 할 만큼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었다. 이는 노후된 전력 설비로 인한 잦은 고장 때문이었다. 게다가 부품 조달이 어려워 신속한 수리를 할 수 없어 갑작스런 정전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막심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얀마 정부는 1997년 7월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KOICA는 2000년 9월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2001~2002년까지 40만 달러를 투자해 미얀마의 전력망 개발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미얀마의 기존 전력망을 분석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전력망 설비 개선 및 신규 전력망 설비 개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력 수급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KOICA는 전산 '프로그램PSAC'을 개발해 30년간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2002년~2007년까지 6년간의 전력 상황을 분석해 나갔다. 아울러 관련자 8명을 국내로 초청해 전력 계통 기술 교육, 전산 프로그램 활용 실습, 산업 시설 견학 등의 연수를 실시했다.

KOICA의 이번 사업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력 분야 협력 사업의 초석이 되었다. 미얀마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02년 500kV 송전망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 사업을 추가로 요청해왔다.

사업명 미얀마 전력망 개발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4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5 MYANMAR

한국의 기술력으로 낙후된 전력 시설을 개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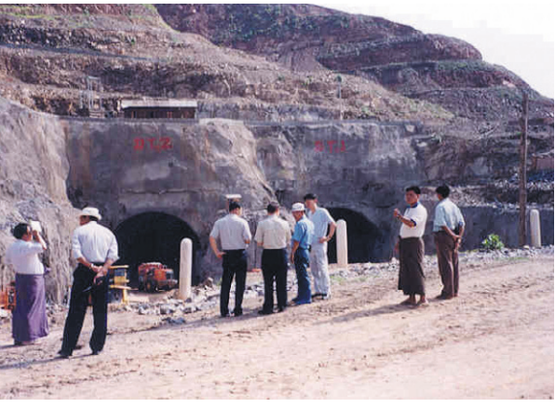
송전망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사업

Feasibility Study and Basic Designs for the 500kV Transmission System

미얀마의 전력 수요는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2배가량 증가했으나 공급이 이를 따르지 못해 산업 분야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30년 장기 전원 계획을 수립하고 수력 ·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했다. 미얀마의 주요 전력 수요지에서 643㎞ 정도 떨어진 북쪽에 설비 용량 780MW의 대규모 'Yeywa' 수력발전소가 있다. 2001년에서 2002년까지 KOICA의 지원으로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실시된 '미얀마 전력망 개발조사사업' 결과, 'Yeywa' 수력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Yeywa' 지역과 양곤 사이에 초고압 송전 선로를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송전 전압으로는 500kV가 적당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미얀마 정부는 500kV 송전망 건설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재차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3~2005년까지 미얀마의 장기 전력 수요 예측과 계통 계획을 수립하고 500kV 송전 선로와 변전소 기본 설계 및 전력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단기 보강 계획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관련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전력 기술과 절연 설계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미얀마 전력부 국장인 'Dr. Thein Tun'과 전력청장 'Dr. Sann Oo' 씨는 미얀마 KOICA 사무소장과의 면담에서, "1단계 전력망 진단 사업 및 2단계 송전망 타당성 조사 사업은 낙후된 미얀마 전력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국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미얀마 전력 산업의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2005년 10월 KOICA 소장과 미얀마 전력부 국장 'Dr. Thein Tun', 그리고 사업을 직접 진행한 한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미얀마 정부는, "사업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후속 사업으로 '계통 운영 및 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이 꼭 지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해 왔다.

사업명 미얀마 송전망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5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6 MYANMAR

ICT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다

정보통신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Myanmar ICT Development Master Plan Project

2003년 말 현재 미얀마의 전화 가입률은 0.79%다. 더욱이 인터넷 사용자는 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후발 4개국 중에서도 미얀마의 정보 통신 인프라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미얀마 정부는 국가 발전에서 정보 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e-Asian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2000년 11월 최고 기관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의 주도로 'e-National Task Force'를 구성, 각종 정보 통신 정책과 제도 개발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가 수립한 마스터플랜은 기본 방향과 원칙 제시에 불과할 뿐 실제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극히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마스터플랜을 수정, 보완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95만 달러를 들여 미얀마 정보통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다.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정보통신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고, 미얀마 정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정보통신 개발 마스터플랜을 세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고위 정책자와 실무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해 마스터플랜에 관한 우리나라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KOICA가 제안한 마스터플랜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자정부, 전자 상거래, 온라인 교육 및 정보통신 표준화와 법 제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목적과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 · 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었다.

최종 보고서 전달식에서 미얀마 정부의 사업 책임자인 'U Thein Oo'씨는, "이 보고서가 미얀마의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면서 KOICA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KOICA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미얀마의 정보통신 분야 개발을 촉진시키고 한 · 미얀마 협력 관계 확대에 기여했다.

사업명 미얀마 정보통신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95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7 MYANMAR

울울창창한 산림은 한국의 녹지 기술 덕분

중부지역 산림녹화 시범 단지 조성 사업

The Greening of the Dry Zone of Central Myanmar II

사업명 미얀마 중부지역 산림녹화 시범 단지 조성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3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조림 및 산불 감시 지원

미얀마는 국토의 66%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임산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며 최대의 티크 목재 생산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도한 벌목으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로 인해 지표면의 유실과 하천으로 흘러든 유실물 퇴적으로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있으며 사막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중부 건조 지역의 녹화 사업을 위한 30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대규모 국제 원조를 받고 있다. 미얀마는 KOICA가 1998~2000년까지 16만 달러를 들여 지원한 중부지방 냥웅우Nyaung-Oo 지역 120ha에 대한 성공적인 조림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2년 제2차 한 · 미얀마 임업협력위원회 당시 2차 사업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30만 달러를 들여 1차 사업지로부터 15마일 떨어진 'Nga-lin-pok' 지역에서 330ha 면적의 2차 조림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림, 양묘, 사방 전문가를 파견하고 기자재를 지원했으며, 관련자 4명을 3주 동안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1차 사업 당시 심은 수종 중 건조에 강하고 생장이 양호한 수종을 선정해 2차 사업지에 심었다.

사업 종료 후 2007년 다시 찾은 현장에서는 숲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급경사지의 산지를 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사방 기술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녹화 성공지의 잡초가 가축 사료와 취사 연료로 사용되고, 조림지의 보식 · 연료 채취와 산불 감시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08 MYANMAR

1~3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시스템을 마련하다

전력 계통 운영 및 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

Development Study on the Power System Operation and Protection Scheme

미얀마는 전력 설비 부족과 계통의 불안정으로 산업체와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우리나라에 전력 분야 기술 지원을 요청해 왔고, KOICA는 '미얀마 전력망 진단 사업(2001~2002년)'과 '미얀마 500kV 송전망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사업(2003~2005년)'을 실시했다. 1, 2차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미얀마 정부는 현재의 전력 계통을 보완하고 미래의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3차 전력 분야 기술 지원을 다시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140만 달러를 투입해 미얀마 전력 계통 운영 및 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3차 사업은 1, 2차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전력 계통 운영 능력을 배양하여, 미래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KOICA는 안정적 전력 시스템 운영 계획과 미얀마 전력부 조직 진단 및 개선책을 수립하는 한편, 전력 시스템 복구 절차와 보호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력 설비 준공 시험 장비를 제공하고, 계통 운영 및 보호 과정에서 3회의 초청 연수와 2번의 현지 교육을 실시했다.

2008년 6월 20일 미얀마 현지에서 개최된 최종 발표회에서 미얀마 전력2부 장관은 KOICA와 사업 수행 업체인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01년부터 7년간 미얀마의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변함없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갑시다"라고 언급하면서 1~3차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사업명 미얀마 전력 계통 운영 및 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기간** 2006~2008년 | **사업규모** 140만 달러 | **지원내역** 전문가 파견, 기자재 제공, 교육 훈련





09 MYANMAR 미얀마 산업 역군의 요람을 설립하다

따가야 지역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Establishment of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Thagaya

풍부한 자원과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미얀마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 미얀마는 40년간의 군부 독재와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 속에서도 빈곤 탈출과 경제 발전을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국, 인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대외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얀마 공업부는 기능 인력 양성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직업훈련원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230만 달러를 투입해 따가야Thagaya 지역에 직업훈련원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설계와 감리를 비롯하여 훈련원 운영 자문과 교재 개발 및 교사 직무 능력 강화 사업을 펼쳤다. 또한 전문가를 미얀마에 파견하여 4개 공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원 관리자와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특히 자동차 · 기계 가공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 미얀마 공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미얀마 최고 지도자인 딴쉐 장군이 산업 단지 개발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이곳 산업 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앞으로 따가야 직업훈련원은 이곳의 대표적인 훈련원으로 자리 잡아 미얀마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사업명 따가야 지역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 **사업기간** 2007~2009년 | **사업규모** 230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원 설계,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10 MYANMAR 전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발전된 롤 모델 제시하다

흘레구 지역 농업 및 농촌 개발 사업

The Hlegu Township Rural Development Project





미얀마는 인구의 63%가 농업에 종사하고, 국가 총생산량의 45%를 농산물이 차지하는 농업 국가다. 그러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낙후된 영농 기술 탓에 생산성이 매우 낮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빈곤 탈출과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양곤 주 흘레구 타운의 5개 마을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흘레구 타운 내 3개 마을, 커야웅, 서캉지, 짜우꺼딘에 대한 종합적 농촌 개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발전된 농촌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가의 소득 증대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기자

재를 제공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해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조 · 협동 · 개혁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3개 마을 중 서캉지는 2008년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으로서 이곳에서의 농촌 개발 사업은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KOICA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농촌 개발 사업의 경험과 지식을 미얀마에 전달하고,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얀마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효과적 농촌 개발 사업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명 미얀마 흘레구 지역 농업 및 농촌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200만달러 | **지원 내역** 시범 사업,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교육 훈련





11 MYANMAR

열대림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 동참하다

중부 건조 지역 산림녹화 사업 The Greening of the Dry Zone of Central Myanmar III

미얀마는 중국, 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꼽히는 산림 자원 보유국이다. 하지만 과도한 벌목으로 지표면 유실과 함께 사막화 우려가 심각하다. 미얀마 정부는 국토의 9.2%에 이르는 중부 건조 지역의 황폐화 및 사막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부 지역 녹화를 위한 30년 마스터플랜(2001~2030년)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KOICA는 이미 1998~2000년, 2004~2005년에 걸쳐 미얀마 중부의 냥웅우 Nyaung-Oo 지역에 48만 달러를 들여 450ha의 산림녹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미얀마 정부는 KOICA의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아직 복구하지 못한 지역의 녹화 사업을 우리나라에 추가로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중부 지역 산림녹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 · 단기 전문가를 파견해 우리나라의 사방 녹화 사업과 조림 기술을 교육해 미얀마의 조림 기술을 강화하고, 150ha 규모의 산림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1, 2차 사업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사방 녹화와 우량 묘목 생산 체계에 관한 노하우도 전수할 계획이다.

KOICA는 성공적인 녹화 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범지구적 개발 과제인 열대림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사업명 미얀마 중부 건조 지역 산림녹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산림 사업, 건축 및 설비,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교육 훈련





AFGHANISTAN

2004년 아프가니스탄의 '인간개발지수'는 178개국 중 173위를 차지했다. 평균 수명은 낮고, 여성의 문맹률이 높은 데다 가뭄과 홍수, 지진 등 자연 재해에 취약하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토대는 파괴되었다. 글 · 윤지현

아프가니스탄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19세기부터 영국과 러시아의 분쟁 지역이었다. 191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1979년 소련의 침략을 받게 된다. 2001년 9 · 11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알카에다 지도자 빈 라덴의 인도 요청을 탈레반 정부가 거절하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정권을 붕괴시켰다. 2004년 아프가니스탄 '인간개발지수'는 178개국 중 173위를 차지했다. 평균 수명은 낮고, 여성의 문맹률이 높은 데다 가뭄과 홍수, 지진 등 자연 재해에 취약하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사회적 · 경제적 토대를 파괴시켰다. 난민으로 전락한 6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란과 파키스탄 등으로 이주했고, 전쟁 중 마약 재배가 붐을 이루어 세계 최대의 마약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다. 유엔은 2001년 11월 14일 안보리 결의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과도 정부를 지원하고, 난민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 원조를 호소했다. KOICA는 2002년부터 6천7백만 달러를 투입해 아프간의 전후 재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쟁 후 국제 사회의 지원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조국 대열에서 새로운 국가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국명 아프가니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정체** 대통령제(Hamid Karzai, 임기 5년), 상하원 양원제 **기후** 대륙성 기후 **인구** 약 3천만 명 **면적** 650,000㎢(한반도의 3배) **1인당 국민소득** 8백 달러(2004년 기준) **수도** 카불(Kabul) **민족** 아리안계 파슈툰족(38~44%), 타지크족(25%), 하자르족(10~19%), 우즈베크족(6~8%) 등 **문자 해독률** 34%(남성 50%, 여성 18%) **종교** 이슬람교(99% : 수니파 84%, 시아파 15%) **공용어** 다리어(이란어의 방언) 및 파슈툰어



| 아프가니스탄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농촌 인구의 40%가 만성적(20%) 식량 부족을 겪는 빈곤층으로 2020년까지 1달러 미만 인구를 매년 3%씩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 2020년까지 5세 이하 아동 저체중 비율을 현재 50%에서 매년 5%씩 감소 목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취학 대상 아동이 20%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취학률은 45%로 매우 저조. 2020년까지 보편적 기초 교육 취학률을 100% 달성 목표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폭력은 여성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요소로 양성 평등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기초 · 중등 · 고등 교육 및 문자 해독률의 남녀 간 비율 격차 해소를 목표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아동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앙골라 등 3개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며, 주된 사망 원인은 설사 · 급성 호흡기 질환과 같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 **아동 사망률 · 영아 사망률** 2015년까지 50%로, 2020년까지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
모성 보건 증진	● **모성 사망률** 2002년 10만 명 중 1천6백 명 사망 – 10명 중 9명이 집에서 출산, 10명 중 8명이 비숙련 인력에 보조받으면서 출산하며, 2002년에서 2015년까지 모성 사망률을 50%, 2020년까지 25% 감소를 목표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HIV/AIDS 관련 지식 및 위생 수준이 낮고, 고도 1,500m 이하 말라리아 발병률이 2004년 기준 60% ● HIV/AIDS 전염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2020년까지 말라리아 및 결핵의 전염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위생 시설에 접근 가능 인구** 도시 거주민의 1/3, 농촌 주민의 1/10만 가능. 75%의 도시 인구(5백만 명)가 슬럼가에 거주 ● **위생 시설 및 깨끗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는 비율** 2020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슬럼 거주자의 거주 환경 개선 목표
글로벌 파트너십 및 개발	● 2002~2005년간 84억 달러의 원조가 아프간에 제공됨. 치안 · 교통 ·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필요 ● 원조액이 기초 사회 서비스(교육 · 보건 · 영양 · 위생 등)에 투자되는 비율 증가 필요
치안 (특별목표)	● 치안은 아프간의 재건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국방부 내 숙련 인력의 부족, 치안력의 전국적인 영향력 미비, 운영 능력 부족이 문제 ● 군사 예산을 앞으로 15년간 3~5%로 감축 목표(현재 17%) ● 2010년까지 경찰 혁신, 불법 무기 소지 비율 감소 목표 ● 2013년까지 대인 지뢰 제거, 2015년까지 모든 폭발물 제거 목표

01 AFGHANISTAN 미국, 독일, 일본도 모범 사례라고 꼽았다

한 · 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 협력 사업 The Cooperative Vocational Training Project



아프가니스탄은 191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소련의 침공과 내전으로 고통을 받았다. 1992년 무장 게릴라 조직 '무자헤딘'이 수도 카불을 점령했을 때 지식인 대부분은 살해되거나 국외로 탈출했고, 지금도 인접한 파키스탄과 이란에 대규모 난민 캠프가 있다. 2001년 미국은 빈 라덴의 인도 요청을 거부한 탈레반 정부를 상대로 테러전을 감행했고, 종전 후 국제 사회는 전후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KOICA는 2002~2005년까지 800만 달러를 투입해 수도인 카불에 한 · 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원을 건립했다. 아프가니스탄 유일의 기술 인력 양성소인 이곳에서는 매년 4백2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2005년 추가로 기숙사를 건립

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시켰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기술 인력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국가 기술발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 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원은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수준 높은 교수진 확보와 실기 위주 수업 및 한국적 운영 방식 등으로 인해 호평을 받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재하는 미국, 독일, 일본 원조 기관과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ADB' 관계자들도 한 · 아프가니스탄 직원훈련원을 원조의 모범 사례로 꼽은 바 있다.

사업명 한 · 아프간 직업훈련 협력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5년 | **사업 규모** 800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원 건축,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6개 공과 훈련 장비 공여

사업명 한 · 아프간 직업훈련원 기숙사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162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숙사 건립, 기자재 및 비품 지원, 설계 감리





02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최고의 의료 시설로 거듭나다

이브니시나 흉부 병원 및 응급 병원 개 · 보수 사업

Renovation and Expansion of AVICENA Chest Hospital and Emergency Hospital in Kabul City

KOICA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2~2004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60개 병상 규모의 이브니시나 흉부 병원을 신축하고 응급실을 개 · 보수했다. 지원 사업이 끝난 후 이브니시나 병원은 내과 · 외과 · 이비인후과 · 피부과 등을 개설하고, 현대식 건물과 의료 장비를 갖춘 아프가니스탄 최고의 의료 시설로 거듭났다. 하지만 자체 역량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KOICA는 NGO를 통해 병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브니시나 병원은 2004년 12월 카르자이 대통령 취임식 당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환자들을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주시키고, 각국 축하 사절단의 진료에 대비할 정도로 아프가니스탄 최고의 의료 시설로 인정받고 있다. KOICA는 응급 병원의 증축과 개 · 보수를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NGO가 사후 관리와 운영을 맡게 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이브니시나 흉부 병원 지원 사업처럼 정부와 NGO 간의 협력 모델은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수원국의 운영 능력이 부족할 경우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명 한 · 아프가니스탄 이브니시나 흉부 병원 및 응급 병원 개 · 보수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4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03
AFGHANISTAN

컴퓨터 수리 과정도 필요합니다!

컴퓨터 훈련 센터 설립 지원 사업 The Establishment of a Computer Training Center in Kabul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KOICA는 2003~2004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아프가니스탄 '행정개혁인사위원회' 건물을 개 · 보수하고, 컴퓨터 훈련 센터를 건립했다. 컴퓨터 훈련 센터는 컴퓨터 교육장과 인터넷 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후 재건을 이끌어 갈 공무원들의 행정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훈련 센터 건립 후 1천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이곳에서 컴퓨터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만족한 '행정개혁인사위원회'는 처음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한 각 부처 공무원의 컴퓨터 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컴퓨터 수리 과정도 개설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교육을 실시했다. 그 후 컴퓨터 훈련 센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유일한 컴퓨터 수리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컴퓨터 훈련 센터는 대외 원조로 설립된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컴퓨터 교육 센터로 현재 각 부처 실무급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KOICA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감안해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3년간 강사료와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했다.

사업명 아프간 컴퓨터 훈련 센터 설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3년~2004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물 개 · 보수 및 신축, 기자재 공여,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4 여자아이들도 교육을 받아야죠

AFGHANISTAN

농촌 개발 지원 사업 The Community-based Rural Development Project

농촌의 발전은 국가와 산업 발전의 기반이다. 이런 점에서 농촌 개발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산맥과 사막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각 지방이 고립적이고 분산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중앙 정부의 재건 노력을 농촌 지역으로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KOICA의 아프가니스탄 농촌 개발 지원 사업은 2003~2004년까지 420만 달러를 투입해 카불 주 농촌 마을에 14개 초등학교와 8개 보건소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카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카불 인근 농촌 지역의 교육과 의료 인프라는 크게 개선되었다. KOICA가 건축한 초등학교의 활용도는 특히 높다. 초등학교 대부분은 2~3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 회의 장소로 쓰이는 등 지역 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Kalakan' 지역에 설립한 4개 초등학교 중 하나인 'Sarijubala' 마을 초등학교는 재학생 6백90명 중 6백50명이 여학생이다. 이 학교는 지역 내 유일한 여학교로 아프가니스탄 여성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Guldara' 지역에 설립한 두 개 학교의 10개 교실에서도 1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2~3부제로 수업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NGO를 통해 운영 중인 보건소 또한 매일 1백여 명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등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보건소는 예방 접종과 위생 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명 아프가니스탄 농촌 개발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4년 | **사업 규모** 42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기자재 공여, 국내 초청 연수

05 전에는 맨땅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AFGHANISTAN

파르완 주 학교 건립 사업 The School Construction Project in Parwan Province

파르완 주 학교 건립 사업은 확산형 농촌 개발 사업이다. KOICA는 우리나라의 다산 부대가 파견된 파르완 주 3개 마을에 2004~2006년까지 80만 달러를 들여 3개 초등학교를 신축하고, 오랜 내전과 테러 및 탈레반 정권의 여성 교육 전면 금지 등으로 황폐화된 농촌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KOICA는 농촌 개발 사업 당시 파악된 문제들을 보완하고,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고려해 중앙 복도 윗부분에 창문을 설치해 채광을 좋게 하고, 알루미늄 새시로 학교 창틀과 문틀을 마감 처리 하는 등 깔끔히 공사를 마쳤다. KOICA가 이곳에 학교를 건립하기 전 파르완 주 학생들은 맨땅이나 텐트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중 여학생의 비중이 50%를 넘고 있어, 초등학교 건립 사업은 아프가니스탄 여성 교육 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파르완 주에 학교를 건립한 일은 농촌 개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농촌 개발 사업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학교를 건축하고, 필수적인 교육 기자재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였다.

사업명 아프간 파르완 주 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6년 | **사업 규모** 8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기자재 공여



06 AFGHANISTAN

이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 건립 사업

The Istalif Micro-Hydro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 건립은 KOICA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일하게 산업 에너지 분야를 지원한 사업이다. KOICA는 2004~2006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이스탈리프 지역에 환경 친화적이며 운영 유지비가 저렴한 수자원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스탈리프 지역은 카불과 인접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고, 수려한 경관을 지닌 관광 산업의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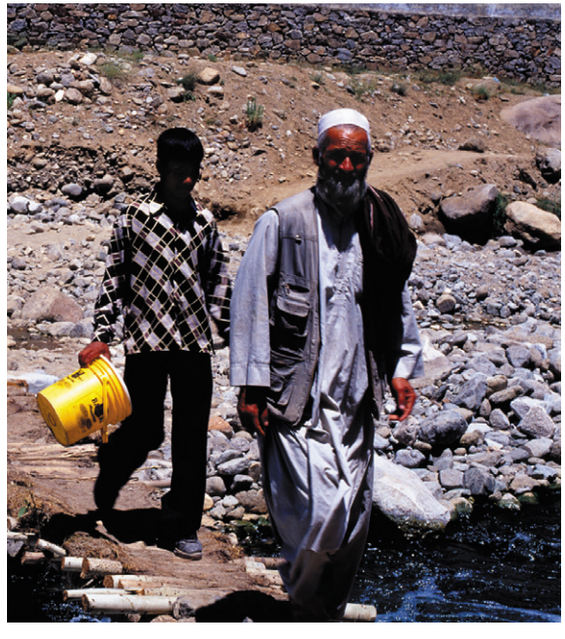
그러나 당시 이 지역에는 국가 송배전망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기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KOICA는 이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 이스탈리프가 카불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리적 특성상 산악 지역에 풍부한 수량을 가진 곳이 많아 국가 전력망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수력발전소 건립이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OICA는 현지 공무원들의 소수력발전 분야 기술 수준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해 소수력발전소 건립과 병행해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2006년 발전소가 준공되었지만 관리자 대부분은 전기와 발전 설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단순 기능공에 불과했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국가의 재정 부족으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운영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1차 사후 관리를 했다. 2008년 3월에는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2차 사후 관리를 실시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사업명 아프간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6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발전소 건축, 기자재 공여

사업명 아프간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 건립 사업 1차 사후 관리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발전소 운영비 지원, 전문가 파견, 홍수 피해 복구 지원, 발전 설비, 고장 수리

사업명 아프간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 건립 사업 2차 사후 관리 | **사업 기간** 2008년~2011년 | **사업 규모** 107만 달러 | **지원 내역** 홍수 피해 복구 공사, 취수 및 시설 개선 공사, 발전소 운영 지원





07 AFGHANISTAN

카불 공대 학생들에게 IT 기술을 습득시킨다

카불 공대 IT 센터 건립 사업

Project for Establishing an IT Center at the Kabul Polytechnic University



KOICA의 카불 공대 IT센터 건립은 컴퓨터 훈련 센터의 성공적인 지원 결과에 힘입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었다. 2004~2005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진행되었는데, 이 지원 사업은 장기간의 전쟁으로 노후화된 교육 환경에서 수학 중인 카불 공대 학생들에게 IT 기술을 습득시켜 궁극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IT 센터 건립 후 IT 과목은 카불 공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되었고, 매년 약 1천6백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인터넷 통신 기반이 열악한 아프가니스탄 같은 최빈국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IT 사업은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보 격차 해소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 내 IT 센터 건립은 미래를 내다본 장기적 투자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명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대 IT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4년~2005년 | **사업 규모** 200만달러 | **지원 내역** IT 센터 신축, 기자재 공여,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8 AFGHANISTAN

산만하게 실시되던 공무원 교육을 일원화시켰다

공무원 교육원 건립 사업

Afghanistan Civil Service Institute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전후 재건을 위해 2002년 11월 한국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과 같은 공무원 연수 기관의 설립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공무원의 선발과 임용,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아프간 행정개혁 인사위원회ARCSC' 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2004~2006년까지 600만 달러를 투입해 대지 118,018㎡, 건평 7,820㎡ 규모에 연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무원 교육원을 신축했다. 또한 교육용 기자재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교육원 운영과 교과 과정 개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프가니스탄 공무원 교육원 건립에 대한 KOICA의 최종 보고서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전달되었다. 공무원 교육원의 완공으로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산만하게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교육을 일원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국가 개발에 필요한 공무원의 기획 능력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앞으로 수준 높은 공무원의 인적 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국가 건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2007년 1월 공무원 교육원 개원 후 자립 가능성에 우려가 있기도 했으나 공무원 후보자 교육 과정(6개월 과정 1백43명)과 리더십 과정 등 단기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교육원 운영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KOICA의 공무원 교육원 건립은 아프가니스탄 공직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한층 깊게 심어줄 수 있었다.

사업명 아프가니스탄 공무원 교육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6년 | **사업 규모** 6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공여,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교재 과정 및 개발

09 AFGHANISTAN

KOICA는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파르완 의료 지원 사업

Project for Medical Assistance of Parwan Province

탈레반 정권이 붕괴된 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민심을 얻고 새로 출범한 정부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재건PRT :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사업을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에 동의 부대를 파견한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동의 부대가 철수한 후에도 군이 담당했던 의료 활동을 민간과 군의 혼성팀으로 대체해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기존 한국군 파병 지역인 파르완 주에서 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가 의료 지원 사업이고, 두 번째가 직업훈련 지원 사업이다.

KOICA는 현지인 진료와 의료 인력의 교육 훈련을 통해 전쟁과 가난, 낙후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지원했다. 의료 지원 활동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KOICA는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의료 인력 2명의 기간을 연장하고, 2009년에는 11명의 인력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이라크 아르빌 한국군 주둔 지역으로 지방 재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KOICA는 열악한 치안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약속한 재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 국제적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파르완 한국 병원은 아프간 주민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병원이 되었다. 단순히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명 파르완 의료 지원 PRT사업 | **사업 기간** 2008~2011년 | **사업 규모** 4천3백57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 기자재 공여, 전문가 파견











CHINA

'소강(小康)'. 조화롭고 온건하게 번영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소강 사회 건설을 목표로 개발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06년 이후 중국은 세계 제4위의 국내 총생산 및 1.5조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을 자랑하며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 · 장봉희, 조형래

중국은 조화롭고 온건하게 번영한다는 뜻의 소강(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2005년 제10차 5개년 개발 계획을 마무리하고, 현재 제11차 5개년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13억이라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은 1978년 개혁 · 개방 정책 이후 연평균 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는 2006년 이후 국내 총생산 규모 세계 제4위, 외환 보유액 1.5조 달러라는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전 세계 빈곤 감소 성과의 75%는 중국에서 달성되었고, 이는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에 힘입었다. 1990~2005년 사이 중국에서 1일 1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인구는 3억 9천만이 감소하고, 문맹률과 유아 사망률도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 간 소득 격차 심화, 경제 성장에 수반되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과잉 소비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중국 정부는 세 가지 개발 과제를 수립했다. 첫째는 그동안 생산 부문,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체되어 온 서비스 부문과 고용 관련 정책을 강화해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다. 둘째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를 개편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며, 수자원을 보호하고 오염 물질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셋째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고용 기회 창출과 사회 안전망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명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정체** 인민공화제 **기후** 지역별로 습윤 · 건조 · 반건조 기후가 공존 **인구** 13억2천1백29만 명 **면적** 약 9,600,000㎢ **1인당 국민소득** 2천3백60달러 **수도** 베이징(Beijing) **민족** 한족(92%) 외 장족, 위구르족, 몽고족 등 55개 소수민족 **문자 해독률** 91% **종교** 불교, 도교, 회교, 기독교, 천주교 **공용어** 중국어



| 중국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990년 정부 설정 빈곤선 이하 인구** 2000년 8천5백만에서 3천만까지 감소 • **식량 섭취량이 최소 수준 섭취량(minimum dietary consumption level) 이하 수준인 인구 비율** 1990년 17%에서 2000년 11%로 감소 • **적정 체중 미달 아동 비율** 1990년 21%에서 1998년 10%로 하락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등록률** 1990년 96.3%에서 2002년 98.6%로 증가 • **중등학교 등록률** 1991년 66.7%에서 2002년 90%로 증가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2002년 기준 남학생 대비 여학생 비율** 초등 교육에서 90%이며 중등 교육에서는 85%임.
아동 사망률 감소	• **유아 사망률** 1990년에 1천 명 중 50명 사망에서 2002년 30명 사망으로 감소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1991년 61명에서 2001년 36명으로 하락
모성 보건 증진	• 2000~2001년 동안 2억 위안을 투입한 모성 보호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평균 산모 사망률을 29% 감소시켰으며 2004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연장 시행함.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중국 내 전체적인 AIDS 보균자 비율** 미공개 감염자의 64%는 마약 투여 시 주사바늘 공유, 11%는 수혈 등으로 전염됨. 연령대에서는 20대가 51%를 차지하고 성별로는 남성이 73%를 차지 • **2000년 현재 중국의 결핵 환자 수** 약 4백50만 명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산업화에 따른 토지 황폐화, 환경오염 및 파괴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각도로 시도 중. • **식수** 2000년 현재 75%의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고 있음.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위해 다양한 법률 · 무역 · 금융 시스템 관련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는 등 세계 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옴.

01 CHINA 구리와 니켈 광산 탐사로 부족 자원 해결

신강성 광물 자원 개발 조사 1차 사업

The Comprehensive Geological Exploration for Copper-Nickel Resources in Xiangshan of Rami area,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1991년 중국은 5억9천만 달러 상당의 구리를 외국에서 수입했다. 중국에서 구리는 매년 상당량을 수입해야 하는 주요 부족 자원 중 하나다. 구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동광 탐사 사업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2년 중국 정부는 주요 광물 매장 지역의 하나인 신강 위구르 자치구 내 하미(哈密)~시앙산(香山) 지역에서 구리와 니켈 광산을 탐사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중국 내륙 지역인 신강성의 하미~시앙산은 광물 부존 잠재성이 높은 지역으로 중국 정부는 이미 1981년부터 지속적인 탐사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구리와 니켈의 1차 경제성이 확인되었다.

KOICA는 그동안 이루어진 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규모 광체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제반 인프라 여건이 양호한 데다 탐사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원을 결정했다.

KOICA는 1993~1995년까지 90만 달러를 들여 3단계에 걸친 사업을 실시했다. 우선 1단계로 정밀 탐사 대상 지역에 대한 시추와 물리 탐사로 매장량을 확인하고, 지질 조사와 시추 탐사를 통해 매장 유망 지역 선정 및 추가 매장량을 확인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인된 광체 부존 유망 구역에 대한 정밀 지질 조사 및 시추 탐사 등을 통해 폭과 연장, 심도 같은 광상 규모를 확정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확인된 지역 중에서 경제적 채굴이 가능한 구역을 정하고 기술적 ·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중국 정부는 8백만 톤에 이르는 동 · 니켈 등 개발 유망 광체를 확보하고, 중국에서 구리 생산량을 추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대형 티타늄 광체를 발견하는 수확을 거두고,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탐사를 위해 제2차 신강성 광물 탐사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사업명 중국 신강성 광물 자원 개발 조사 1차 사업 | **사업 기간** 1993~1995년 | **사업 규모** 90만 달러 | **지원 내역** 광역 탐사(지질 조사, 트렌치 탐사, 물리 탐사), 정밀 탐사(시추 등), 현지 조사, 보고서 작성, 개발 계획 수립

02 CHINA

KOICA, 위구르 자치구에서 금광 발견

신강성 광물 자원 개발 조사 2차 사업

Exploration for Titanium, Copper and Gold Deposits in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1993~1995년까지 진행된 신강성 광물 자원 탐사에서 예상치 못한 티타늄 광체를 발견하자 이에 고무된 중국 정부는 1차 사업의 기간을 연장해 상세 탐사를 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예산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1차 사업의 성과를 확대시키기 위해 티타늄 광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2차 광물자원 탐사를 실시했다. 2차 사업에서는 1차 사업에서 발견된 티타늄 광맥에 대한 지질 및 광상 조사, 개발 계획 수립 그리고 경제성 검토 등 본격적인 탐사 사업 수행이 핵심이었다.

KOICA는 1996~1998년까지 35만 달러를 들여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 내 하미 지역에 매장된 티타늄 광맥과 함께 포얼경 지역의 동광과 금광을 탐사했다. KOICA는 1차 탐사를 통해 부존 유망 구역을 확보했다면 2차 탐사를 통해서는 정밀 탐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다. 두 지역에 대한 정밀 탐사 결과, 하미 지역에 약 1백만 톤 규모의 티타늄 광체가 매장되어 있고, 개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얼경 지역 또한 동과 금 광체가 매장되어 있어 추가 정밀 탐사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은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KOICA의 신강성 지역 2차 광물 탐사를 통해 중국 정부는 1차 사업에서 확인된 동광은 물론 티타늄과 금광 등 광물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사업명 중국 신강성 광물 자원 개발 조사 2차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8년 | **사업 규모** 35만 달러 | **지원 내역** 지질 및 광상 조사(시추 및 트렌치 탐사, 매장량 조사), 개발 계획 수립(채광 계획, 선광 계획, 갱의 시설 조사, 생산 계획, 투자 계획), 경제성 검토, 보고서 작성

03 중국 최초의 농업 센서스 실시

CHINA

농업 통계 조사 지원 사업(1 · 2 · 3차)

Technical Cooperation For Sampling Of Agriculture Statistics

KOICA는 1994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농업 통계 조사를 지원했다. 특히 1997년에는 중국 최초의 농업 통계 센서스를 실시하는 데 기여했다. 당시 중국 국가통계국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농업 통계 경험과 기법, 농업 구조가 중국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농업 통계 조사 사업을 요청해 왔다. 1999년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6년에 걸친 KOICA의 지원이 중국 농업 통계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다시 3차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온 것이다. 3차 지원 사업은 2000~2002년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1997년 조사한 농업 통계 센서스의 기초 위에 표본 설계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였다.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KOICA의 지원으로 한국 농업 센서스 모형을 그대로 원용해 2억3천만 중국 농가를 조사할 농업 통계 사업의 기초가 확립되었으며, 현재 중국 각 지방에서 표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처리 중입니다. 중간 평가 결과 한국의 농업 센서스 방법이 중국 실정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라고 밝히며 KOICA에 감사를 표했다. KOICA는 3차에 걸친 농업 통계 조사 지원을 통해 중국의 농업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간 쌓아온 한중 간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한층 높였다.

사업명 중국 농업 통계 조사 지원 사업(1 · 2 · 3차) | **사업 기간** 1 · 2차 1997~1999년, 3차 2000~2002년 | **사업 규모** 1차 50만 달러, 2차 30만 달러, 3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자재 공여, 워크숍 및 기술 교류

04 댐 건설로 산서성의 물 부족 해결

CHINA

산서성 분하강 유역 조사 및 바이예커우Baiyekow 댐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

Comprehensive Management Study Of Upper Fenhe River Basin And Pre-feasibility Study of No.3 Fenhe Multi-purpose Dam Project

석탄은 중국 북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한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철강과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서성은 중국 석탄 매장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중국 정부는 이곳을 에너지 및 중화학 단지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산서성은 반 건조 기후 지역으로 연간 평균 강우량은 50mm에 불과하다. 현재 분하강에는 제1 분하 댐과 'Wenyuhe' 댐 등 2개의 대규모 저수지가 있어 홍수를 조절하고, 용수 공급과 전력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에만 비가 내리기 때문에 2개의 저수지만으로는 산서성의 중심지인 태원시와 인근 지역에 충분한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심각한 물 부족 지역인 산서성 분하강 일원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 분하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4~1996년까지 79만 달러를 들여 분하강 상류 수자원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황하물을 저류할 수 있는 제3 분하 댐 건설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산서성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KOICA는 산서성의 석탄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명 산서성 분하강 유역 조사 및 바이예커우 댐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4~1996년 | **사업 규모** 79만 달러 | **지원 내역** 분하강 상류 수자원 계획, 의사 결정 시스템 모형 개발, 제3 분하 저수지 계획 조사

05 CHINA 가락동 도매시장을 모델로 중국의 농수산물 수급 구조 개선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
The Constr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 중인 중국은 낙후된 유통 체계로 인해 경제 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시범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볼 필요성을 느낀 중국 정부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과 경영 관리 및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1993년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모델로 하는 현대적인 농산물 유통 센터를 건립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4~1995년까지 20만 달러를 들여 북경 지역의 농산물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장 · 단기 유통 개선 방안 및 유통 개선을 통한 도시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도매시장 건설 예정지에 대한 적합성과 도매시장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매시장 건설 추진 체계와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제시했다.

KOICA는 이 조사를 통해 중국의 농수산물 수급 구조 개선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 경제의 도입을 촉진시켰다. 한편 중국 정부는 KOICA의 지원을 계기로 농산물 유통 관리 및 도매시장의 건설 방안을 확보하게 되었다.

사업명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4~1995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경제적 ·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06 CHINA 직업학교 건립으로 소수 민족의 교육 지원

금평현 민족직업학교 건립 사업
Construction of Jin Ping Minority Nationalities Vocational School



중국 운남성 남단에 있는 산골마을 금평현은 남쪽으로 베트남을 마주보는 변경 지역으로 묘족과 요족, 장족 등 8개 소수 민족이 살고 있다. 금평현 민족직업학교는 1983년에 건립되어 중국의 인력 양성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학교가 현 중심에서 7km나 떨어져 있어 통학이 어려운 데다, 교실과 실험 장비 등 제반 시설이 낡고, 주위 환경이 열악해 효과적인 직업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금평현 인민정부는 민족직업학교를 금평현 인근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5~1996년까지 34만 달러를 들여 금평현 민족직업학교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KOICA와 금평현 인민정부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민족직업학교를 신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각각 34만 달러와 25만5천 달러를 들여 학교의 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KOICA는 컴퓨터와 현미경 등 다양한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고 건축 자재를 조달했으며,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건축의 완성도를 높였다. 금평현 인민정부는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을 맡았다. KOICA는 학교 건립을 통해 금평현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사업명 금평현 민족직업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6년 | **사업 규모** 34만 달러 | **지원 내역** 현미경 ·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 지원, 학교 건축 자재 공급 및 건축 감리, 전문가 파견





07 CHINA

극빈 지역의 조선족 교육 기회 확대

중도 도문 제3 소학교 건립 사업
Construction of Tumen 3rd Primary School

북한과 다리로 연결되어 북한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중국의 도문이다. 도문시는 전체 인구 중 조선족 비중이 60%가 넘을 정도로 많은 조선족이 살고 있다. 하지만 도문은 조선족 거주 지역 중에서도 가장 극빈 지역 중의 하나다. 많은 조선족 아이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과 경제적 가난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3 소학교는 1천2백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지만 건물은 낡고 교실은 부족한 데다 운동장조차 없다. 여기에 지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육 여건은 더욱 열악해져 갔다. 도문시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초등학교의 신축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5~1996년까지 90만 달러를 들여 총 부지 17,400㎡, 건평 7,200㎡에 36개 학급, 1천8백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신축했다. KOICA는 기초 교육 여건이 극히 열악한 도문시에 초등학교를 신축함으로써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족에 대한 지원으로 재외 동포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긍정적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우리나라의 중국 및 조선족 원조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명 중국 도문 제3 소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6년 | **사업 규모** 9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자재 지원 등 면학 환경 개선

08 CHINA

전기 기계 분야의 인력 양성 지원

강소성 양주공업학교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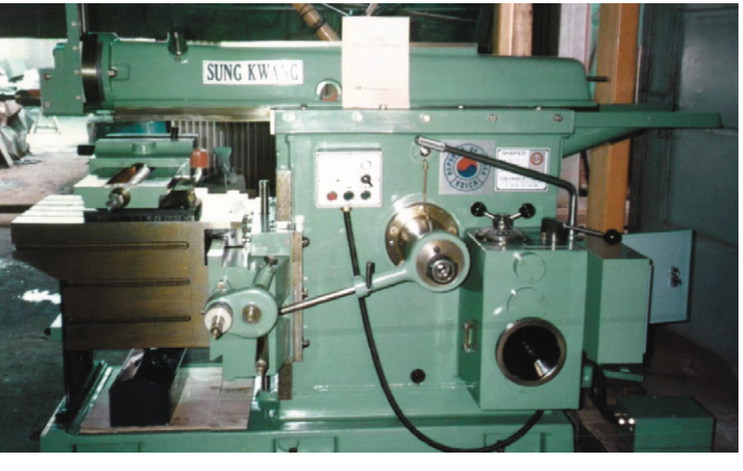
Project of Yangzhou Vocational School

중국 강소성 중부, 양자강 북쪽에 자리한 양주는 1995년 당시 인구 9백31만의 신흥 공업 도시였다. 1994년 기준 국민 총생산은 52억 달러에 달했다. 양주시 당국은 전기 기계 · 화학 · 방직 · 경공업 등 4대 기간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중 · 장기 발전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인력의 규모와 질적 수준은 높아졌지만 기존 직업 교육 기관으로서는 양질의 기술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직업 훈련 학교의 신설과 기존 직업학교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중국 국가교육위원회는 양주공업학교의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양주시의 주요 직업교육 학교 중 하나인 양주공업학교는 원래 보통 중 · 고등학교였으나 1987년 정식 직업학교로 개편되었고, 1991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중점 직업고등학교로 인정받았다. 학업 기간은 3년이며 30여 개 학급에 기계 · 전기 · 화학공업 · 자동차 운전 및 수리 과목을 교육하고 있으며, 86명의 교사와 1천3백여 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다.

KOICA는 양주공업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1995년 20만 달러를 들여 수치 제어 가공훈련 센터와 기계조립 실습장에 밀링머신, 선반 등 각종 실습 장비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교육시켰다. 또한 교사와 관리자를 국내로 초청해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현황과 한중 양국 간 직업교육 실태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이를 통해 양주공업학교의 실습 교육 역량을 눈에 띄게 개선시키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기 기계 분야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업명 강소성 양주공업학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5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밀링머신, 선반 등 실습 기자재 지원, 학교 관리자 및 교사 초청 연수 실시







09 CHINA

중국에 한의학을 전하다

한중 동양의학연구 센터 지원 사업

Establishment of Korea-Sino Oriental Medicine Research Center









한중 양국은 서양 의학과 더불어 한의학이 의료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한의학 분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1995년 중국 정부가 산동성에 있는 산동성 중의학원 부속병원에 동양의학연구 센터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 간 한의학 공동 연구가 시작되었다. 산동성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수많은 한의학자를 배출한 곳으로 산동성 중의학원 부속병원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시설을 갖고 있으나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 수준은 미흡한 형편이었다.

KOICA는 1995~1997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중의학원 부속병원에 동양의학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골밀도 측정기 등 의료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양국의 기술을 교류하고, 중국 의료진을 국내로 초청해 교육을 실시했다. KOICA는 한의학 분야에서 중국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양국 간 한의학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명 한중 동양의학연구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7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의료 장비 및 사무기기 제공, 한의학 분야 전문가 7명 파견, 중국 중의학 전문가 및 행정 인력 초청 연수

10 CHINA

하얼빈을 동북아 무역 허브로!

하얼빈 전산기술개발 훈련 센터 지원 사업

The Establishment of harbin Computer Technology Development & Training Center

사업명 하얼빈 전산기술개발 훈련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7년 | **사업 규모** 90만 달러 | **지원 내역**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파견, 전산 개발 분야 관계자 초청 연수

하얼빈은 중국 동북3성 북부의 가장 큰 도시다. 현재는 동북아의 중요한 경제 무역 도시로 발전했으나 1995년 당시만 해도 중국 내륙과 연해 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1994년 중국 정부는 하얼빈을 동북아 무역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보 현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산기술개발 훈련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정보 현대화는 중국 정부의 개방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현재 중국이 IT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KOICA는 1995~1997년까지 90만 달러를 들여 전산기술 교육을 통해 중국의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전산기술개발 훈련 센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하고, 연수생을 초청해 교육을 시켰으며 기자재를 제공했다. 이는 중국에 전산 기술을 이전시켜 중국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조선족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

하얼빈에는 4만 명의 조선족이 있으며, 하얼빈이 속한 헤이룽장성에는 45만의 조선족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전산기술개발 훈련 센터의 지원 사업이 끝난 후 취업률은 80% 이상, 평균 수입은 10% 이상 상승하는 등 실제적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11 CHINA

새로운 철도 건설로 헤이룽장성을 발전시켜야

미산~당비 간 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

Feasibility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the Local Railroad from Mishan to Dangbi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는 4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특히 석탄은 동북3성 중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6백만~8백만 톤 정도를 해외에 수출한다.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채굴된 석탄을 대련항까지 이송해야 하는데, 그 거리가 1,700km에 달해 막대한 운송비가 소요되었다. 더욱이 대련항의 화물 처리 용량은 한계에 달해 대련항을 통한 석탄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도 급증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이룽장성 정부는 미산(密山市)~당비(當壁鎭) 간 철도를 연결하고 러시아 나호드카Nakhodka 항구를 이용하는 방법에 착안했다.

이 경로를 이용할 경우 운송거리가 700km에 불과해 대련항을 이용할 때보다 무려 1,000km를 단축시킬 수 있어 운송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산~당비 간 구간은, 과거 일본군이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해 철도를 가설했으나 1945년 일본 패망 직전 모두 철거되었다.

그 후 중국 정부는 중소 무역이 증가하자 미산~당비 간 구간을 재건설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1988년부터 철도 건설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1995년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7년까지 39만 달러를 들여 지형 및 지질 조사를 비롯하여 교통 현황 분석과 장래 수송 수요 예측 등 제반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선안을 마련하고, 각 안에 대한 기본 설계와 공사비 산정 및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다. KOICA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1998년 11월 완성되어 중국 정부에 전달되었다.

KOICA는 이 조사를 통해 헤이룽장성 지역의 석탄 자원 등 지하자원의 새로운 운송 경로를 확보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운 해상, 육상 운송로를 개척해 헤이룽장성 지역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경제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명 미산~당비 간 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39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초 조사(지형 · 지질, 사회 · 경제 · 환경, 교통 현황 및 특성, 장래 수송 수요 등), 대안별 기본 설계, 공사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관련 기술자 초청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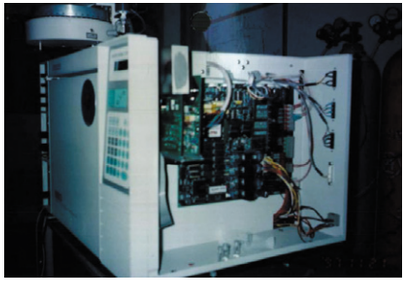
12 CHINA

외국 잡지에서 보았던 최신 장비예요

천진 연안 해역 유독 유기 화합물질 및 도시 대기 분진 연구 지원 사업

The Comprehensive Study on the Toxic Organometallic Compounds in the Coastal Area and Urban Atmospheric Particulate Matter





"KOICA에서 제공한 대기 오염 측정 장비를 실은 미니버스가 남개대학교에 도착하면 학교 전체가 들썩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외국의 과학 잡지에서나 볼 수 있던 최신 장비를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기 오염에 관해 우리나라와의 공동 연구에 참가한 남개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의 말이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가 환경오염이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루고 있는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해양 오염은 중국뿐 아니라 인접한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 정부는 부산 연안과 중국 천진 연안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천친 연안 해역의 환경오염을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KOICA는 1996~1997년까지 20만 달러를 들여 천진 해양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던 남개대학교 환경과학과의 연구 시설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부경대학교와의 인력 교류를 통해 남개대학교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켰다. KOICA는 부경대학교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해양 생물에 유해한 유기 화합물과 도시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대기 분진 등 2개 분야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남개대학교 연구진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남개대학교 환경과학과 연구실에 가스색층 분석기 등 환경 분석 장비를 제공했다.

이 사업은 한중 양국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한 최초의 프로젝트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한중 정부는 이 사업을 계기로 환경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명 중국 천진 연안 해역 유독 유기 화합물질 및 도시 대기 분진 연구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가스색층 분석기 등 연구 장비 제공, 남개대 연구 인력 초청(연안 해역 오염 연구 및 도시 대기 분진 연구 등 2개 분야), 해양 오염 및 대기 분진 등 2개 분야 전문가 파견







13 CHINA

중국인들의 실업은 국가적 문제

한중 직업 훈련 협력 사업

The Cooperative Vocational Training Projec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5년 당시 이미 12억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의 규모만 8억 이상이었다. 경제 개방 정책과 더불어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중국인들의 구직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풍부한 노동 자원을 개발하고, 이들의 구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생계와도 연관이 크지만, 중국의 경제 발전이나 사회 안정과도 직결된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9.5 계획과 2010년 목표' 를 정했다. 이는 1996~2000년 사이 각급 성(省), 진(鎭)에서 4천만 명이 새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 진의 실업률을 4%로 억제하고, 4천 만 농촌 노동력을 비농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증가한 노동계층과 비농산업으로 전환한 노동계층이 전업 훈련을 받는 게 필수다.

중국 정부는 1997년 직업 훈련과 직업 기능 검정 등 직업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중국취업훈련기술지도 센터' 의 건립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우리나라의 '산업인력관리공단' 을 모델로 한 지도 센터는 중국 전역의 직업 훈련 시설을 조직 · 지도 · 관리하고, 직업 교육 연구 및 교재를 개발하고 기능 경연 및 직업 능력 검정 등 직업 교육에 관해 종합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KOICA는 1997~2000년까지 1천만 달러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센터 설립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6개 직업 훈련 분야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중국 정부 역시 8백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북경의 북사환로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의 신축과 운영을 맡았다. 아울러 양국 관계자들은 문제은행 개발 등 직업 교육을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갔다.

사업이 착수된 지 4년 후 2000년 12월, 마침내 '취업훈련기술지도 센터' 의 개원식이 열렸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 홍순영 주중 대사, 그리고 사회보장부 부장 등 양국의 각계 인사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형기 KOICA 총재는 축사를 통해, "직업 교육과 기술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KOICA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인 한중 직업 훈련 센터가 중국의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취업훈련기술지도 센터' 는 중국 전역의 취업 훈련과 기술 교육, 기능 검정 사업을 중앙에서 관장하며, 중국의 개혁 개방과 근대화에 있어 핵심 요소인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사업명 한중 직업 훈련 협력 사업 | **사업 기간** 1997~2000년 | **사업 규모** 1천만 달러 | **지원 내역** 직업 교육 관련 6개 분야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문제은행 등 공동 기술 개발, 정보통신 및 사무자동화 장비 제공, 엘리베이터 · 냉난방기 등 건축 기자재 제공



14 CHINA

보건소 한 곳에서 20만 명을 보살펴?

운남성 마율파현 모자 보건 센터 지원 사업

Reconstruction of Maternity and Child-care Center of Malipo County of Yunnan Province



중국 운남성 마율파현에는 장족과 묘족 등 11개 소수 민족 주민이 모여 산다. 마율파현의 전체 인구 26만여 명 중 4분의 3은 극빈자 계층으로 분류될 정도로 생활수준이 열악하다. 게다가 이곳의 보건 의료 시설은 1977년에 마련된 보건소 하나뿐이다. 그나마 이곳마저도 건물이 낙후되고,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우려가 높아 진찰실 외의 나머지 공간은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마율파현 주민의 60%인 여성과 유아의 보건 지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임산부의 12%만이 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산모와 유아 사망률은 1천 명 중 각각 2백68명과 1백22명으로 운남성 전체 산모 · 유아 사망률의 2배가 넘는다. 1995년 당시 7천 만 극빈자의 빈곤 구제 사업을 추진하던 중국 정부는 마율파현의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이곳에 보건 센터를 설립하고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년 25만 달러를 들여 6층과 7층, 2개 건물을 신축하고, 초음파 장비 등 의료 장비를 제공했다. 중국 정부 역시 센터 건축과 의료 장비 구매에 참여했다. 1998년 1월 14일, 마침내 모자 보건 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준공식에는 외교부 부빈판공실 진계원 주임 등 각계 관계자 1백50여 명이 참석해 건립을 축하했다. 의사 28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 모자 보건 센터는 마율파현의 산모와 유아 사망률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보건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

사업명 중국 운남성 마율파현 모자 보건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6년 | **사업 규모** 25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비용 지원, 의료 장비 제공







15 CHINA 기생충 문제가 무방비로 방치…

한중 기생충 감염 관리 시범 사업

Korea-China Collaborative Project of Control Strategies for Helminthiasis in Pilot Areas

중국의 기생충 문제는 높은 감염률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성공적인 기생충 관리 대책을 실현한 바 있고, 이미 1995~1999년까지 중국의 기생충 관리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1999년 중국 위생부 산하 예방의학과학원에서는 2차 기생충 감염 관리 시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0~2004년까지 100만 달러를 들여 헤이룽장성과 강서성에 9개 시범 관리 지역을 선정하고, 현장 조사와 감염 관리 등 기생충 관리 작업에 들어갔다. 검사 장비와 구충제를 제공하는 한편 87명의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하여 기생충 관리 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1백7명의 연수생을 국내로 초청해 워크숍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기생충 관리 경험을 전수받은 중국은 시범 지역의 간디스토마 감염률이 40%에서 15% 이하로, 회충 감염률은 71%에서 35% 이하로 감소되었다. 현지 언론은 KOICA의 사업성과를 각종 기사로 소개하고, 중국의 국영 채널인 CCTV는 헤이룽장성 조원현의 보건 관계자와 주민들의 인터뷰를 방송하기도 했다. 더욱 반가운 사실은 지원 사업이 끝난 후 기생충 퇴치를 위한 크고 작은 후속 조치들이 중앙 정부와 성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KOICA의 원조를 통해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명 한중 기생충 감염 관리 시범 사업 | **사업 기간** 2000~2004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검사 장비 등 기자재 제공,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16 CHINA 중국 환경 문제, 한국에도 영향 미쳐

중국 밀운 저수지 보호림 조성 사업

The Demonstration Project of Protection Forest for Headwaters Conservation and Recharge Improvement in Miyun Reservoir Watershed Area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림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난방용 목재와 군수품 조달 목적으로 무분별한 벌채가 이루어져 과거 우리나라의 산림은 복구가 의심스러울 만큼 훼손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정부에 의한 체계적인 조림 사업과 국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 현재는 풍성한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도국은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잦은 홍수와 가뭄 등 심각한 환경 재앙의 위협을 받고 있어 한국의 조림 성공 사례는 각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중국 역시 산림 파괴로 인한 환경 재앙이 경제 성장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98년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의 결실을 거두기 시작한 중국 정부는 날로 심해지는 황사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중국을 방문 중이던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공동 성명에 합의하고, 환경 보호 및 홍수 방지 차원의 산림녹화 그리고 토사 유실 방지 등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중 정부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중국 밀운 저수지 보호림 조성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밀운 저수지는 북경시 생활용수의 80% 이상을 공급하는 중국의 중요한 수원이지만 석질 지역에 속한 탓에 토양의 두께가 두껍지 못하고, 삼림 피복률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과 토양의 유실이 심각했다.

KOICA는 2001~2003년까지 3년간 100만 달러를 투입해 3차에 걸쳐 500ha에 달하는 조림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제 중국은 KOICA의 주요 원조 대상국은 아니지만 중국의 환경 문제가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기술을 중국 정부가 높이 평가하는 만큼 기술과 인력 교류는 지속될 전망이다.

사업명 중국 밀운 저수지 보호림 조성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3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조림 기술 지원, 사방 및 수원 보호 기술 전수



17 CHINA 여의도 27배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다

중국 서부 지역 조림 사업
The Afforestation Project of Western Region

황사의 피해를 줄이고 황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 · 중국 · 일본 · 몽골 등 관련국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사막화가 진행 중인 중국 서부 지역에 방풍림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조림 사업을 실시해 사막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KOICA는 2001~2005년까지 500만 달러를 투입해 중국 서부 지역의 조림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중국의 사막화 · 석막화 지역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황사를 감소시켜 동북아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KOICA는 내몽골 · 영하 · 감숙 · 신강 · 귀주 등 5개 지역에 기자재를 제공하고, 1백21명의 연수생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으며, 지역별로 매년 두 차례 조림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자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여의도의 27배에 해당하는 총 8,042ha의 조림지가 형성되었다. 조림지가 형성되자 사막화와 카르스트 지형화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이 녹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토사 유실 방지와 대기 오염 정화 등 환경 개선 효과도 거두고 있다.

사업명 중국 서부 지역 조림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5년 | **사업 규모** 500만 달러 | **지원 내역** 묘목 · 비료 지원, 정지 작업비 지원, 사업 현장 관리자 파견





18 CHINA 황사 대응을 위한 한중 기반 마련

한중 황사 공동 관측망 설치 사업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China joint Monitoring Network of Sand/Dust Storm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의 환경 변화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 하나가 매년 봄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황사다. 황사는 근본적으로 중국 내몽고와 몽골 고원 지역의 사막화가 원인이라고 추정되지만 워낙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 중국 · 몽골 · 일본 등 관련국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KOICA는 2003~2005년까지 63만 달러를 들여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황사 관측망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 4월 대규모 황사 피해 이후 황사 예보의 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황사 발원지와 경로지인 통요通遼 Tongliao, 유사榆社 Yushe, 대련大連 Dalian, 주일화朱日和 Jurihe, 혜민惠民 Huimin 등 5곳에 공동 관측망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2005년 2월 KOICA는 관측 기자재를 주요 황사 경로에 설치하자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기존 백령도 기상 관측소에 의한 황사 관측 대신 중국 연안 지역 5개 관측소로부터 황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게 되면서 황사 예보 시간을 8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OICA는 한중 황사 전문가 2명을 3개월씩 교환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공동 워크숍을 개최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양국의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은 관측망 설치 사업이 끝난 후에도 자체적으로 만주~백두산~신의주 구간에 추가로 관측망을 설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황사 관측 취약 지역인 만주~북한 지역에서 남한의 북서쪽으로 유입되는 황사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황사 예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KOICA는 이 사업을 통해 양국 간 황사 대응을 위한 기초 인력과 기술 및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단일 국가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 재해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명 한중 황사 공동 관측망 설치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5년 | **사업 규모** 63만 달러 | **지원 내역** 황사 관측장비 제공, 전문가 교환, 황사 측정 자료 교환, 기술 인력 훈련







19 CHINA 취약 지구에는 관측 장비를 추가로 제공

중국 황사 관측망 확대 구축 사업

Extended Establishment of the Korea-China Joint Monitoring Network of Sand/Dust Storms

한중 양국은 황사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미 황사 관측망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상국은 수집한 황사 관측 자료를 우리 기상청에 실시간 전송해줌에 따라 우리나라는 황사 현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06년 발생한 황사는 만주와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었는데, 이곳에는 관측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황사 예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취약 지역에 추가로 황사 관측 장비를 설치할 필요를 느끼고, 중국 과기부는 관측망 확대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72만 달러를 들여 1차 사업에 이어 추가로 선정된 5개 지역, 내몽고 에렌호트Erenhot · 치펑 · 산동성 칭따오 · 요녕성 단동 · 길림성 시핑 관측소에 황사 관측 장비를 제공했다. 아울러 황사 전문가의 상호 파견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황사 관측과 분석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KOICA의 협력으로 한중 양국은 기존에 설치된 5곳을 포함해 총 10곳의 황사 관측소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황사 예보를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피해 감소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사업명 중국 황사 관측망 확대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72만 달러 | **지원 내역** 황사 관측 장비 설치(칭따오 등 5개 지역), 한중 기상청(국) 간 황사 전문가 교환, 한중 황사 방지 관련 세미나 개최

20 CHINA 우리나라 조림 기술을 중국에 전하다

북경지구 산림 종합 경영 시범 사업

Project for Integrated Forest Management and Demonstration in Beijing

2005년 북경시 당국은 산림자원에 대한 종합 경영 개념이 미비했다. 북경 인근 산림 지역은 산림을 조성하는 데 나무의 종류가 단순하고, 적정한 수준의 임도(林道 : 산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간벌 등 산림 경영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병충해 방지와 방화 기능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경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경 지역의 제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하던 북경시 당국은 생태 환경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조림 기술을 전수받기를 요청해 왔다.







21 CHINA 만리에 걸친 녹색 산성을 쌓자

내몽고 자치구 바얀누르시 우란부허 사막 확산 방지 및 생태 복원 사업

The Project for Combating Desertification for Bayannur City of Inner Mongolia

KOICA는 2005~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들여 북경 산림 종합 경영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 우선 북경 근교 북서쪽에 있는 팔달령과 남서쪽의 문두구 등 2개 지역에서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를 선정하고,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조림 사업을 펼쳐나갔다. 또한 산불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무인 카메라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산불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산불 진화에 사용될 각종 안전 장비를 제공했다. 아울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예방 포스터와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산불 예방 홍보 입간판을 설치했다. 북경시 당국도 임도 건설과 관수 설비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급속히 발전해 온 경제 성장의 이면에 누적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 보전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KOICA의 지원 사업은 북경시 인근 산림 환경의 생태 구조를 개선시키고, 중국 전역의 산림 관리 역량을 향상시켰다. 나아가 사막화와 황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업명 중국 북경지구 산림 종합 경영 시범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조림 지원(팔달령, 문두구 등 2개 지역, 총 550ha), 산불 감시 시스템 및 산불 소화 장비 등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조림, 산림 경영, 산불 방지 등 3개 분야)





"중국의 선조들이 만리장성으로 나라를 지킨 것처럼 만리에 걸친 '녹색 산성'을 쌓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황사를 완전히 없애도록 노력하자."

KOICA 박대원 이사장은 2009년 한중 합작 사막화 방지 사업 현장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을 국가의 우선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는 소홀히 했다. 환경을 도외시한 개발의 결과로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가 초래되었고, 국토의 파괴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사막화는 황사로 인한 기상재해와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인접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녹화 사업이 시급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사막화가 워낙 빠르고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몽고 지역 우란부허 사막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림 사업을 계획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우란부허 사막의 1,000ha에 이르는 지역에 인공 조림을 실시해 황하로 유입되는 토사를 제어하고, 황사 발생량을 줄여 사막의 생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양묘 시설 기자재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했으며,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산림녹화 노하우와 경험을 중국에 전달함으로써 중국의 사막화 방지 노력이 결실을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중국 내몽고 자치구 바얀누르시 우란부허 사막 확산 방지 및 생태 복원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방풍림 조성(1,000ha 규모), 전문가 파견(사업 관리, 양묘, 입지 환경 관리, 조림, 사방수토 등), 국내 초청 연수(산림 경영, 조림, 묘목, 양묘 분야 등), 양묘 시설 기자재 제공

22 CHINA

황해가 오염되는 원인을 찾는다

황해 오염 통제 연구 사업

Assessment of Land Based Pollutant Loads in the Yellow Sea and its Control

황해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유하는 국제 수역으로 수산 자원의 보고이자, 국제 무역을 위한 해상 교통과 해양 레저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평균 수심이 44m에 불과하고, 다른 바다와의 교류가 적은 폐쇄성 내만(內灣)이기 때문에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최근 심각하게 오염이 진행 중이다. 양국은 황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7년부터 매년 12차례에 걸쳐 한중 황해 공동 조사를 수행하고 오염 실태를 파악해 왔다. 그러나 육지에서 기인된 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실태 분석에만 급급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분야 총괄 연구 기관인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중국황해오염통제연구'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황해 오염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평가 기법 개발 및 오염 확산 모델 개발, 육상 생태 환경 관리 등 종합적인 오염 관리 방안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11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중국의 환경 분야 공무원과 연구원 19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 조사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 3대를 지원하는 등 18만 달러에 이르는 기자재를 제공한다. 중국의 환경 변화와 오염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많은 인구와 함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비점원오염

원과 오염 물질 배출량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분석과 조사,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시급하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환경 보전과 관리, 오염 예보를 포함한 모니터링을 하는 데도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중국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눈에 띄는 성과가 기대된다.

사업명 중국 황해 오염 통제 연구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공동 연구 실시(황해 환경 문제 저감 등 4개 주제), 전문가 파견(환경 평가 등 5개 분야), 세미나 개최, 국내 초청 연수(환경 평가 등 5개 분야), 오염 조사 장비 지원

23
CHINA

탄광의 인명 피해를 줄이자!

헤이룽장성 허강시 신싱 탄광 재난 방지용 3차원 전산 시스템 개발 사업

The Development of the 3D Information System to Prevent and Decrease Disasters of the Xinxing Coal Mine, Hegang, Heilonjiang

중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2001~2005년) 동안 2000년에 비해 국내 총생산이 57.3% 성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 과정과 사회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에너지 자원의 과도한 소비와 환경오염의 가속화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석탄의 채굴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탄광 내 재난이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오염도 가속화되어 도약하는 중국의 세계적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술 교육의 발전을 주요 개발 정책으로 정하고, 정보화 정책 및 '863계획 · 화거 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환경 보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탄광들은 여전히 기술 미비로 인한 재해와 인명 피해, 그리고 탄광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석탄의 안전 채굴 및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헤이룽장성 허강시 신싱 탄광에 재난 방지용 3차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시스템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리정보체계GIS'의 저변 확대를 꾀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환경 분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기술 협력을 도모하고, 관계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현장 체험 및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사업명 중국 헤이룽장성 신싱 탄광 재난 방지용 3차원 전산 시스템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산 시스템 개발, 자료 DB 구축, 연수생 초청(시스템 관리 등 3개 분야), 전문가 파견(시스템 개발 등 5개 분야), 기자재 지원(웹서버 등 H/W 및 GIS 엔진 등 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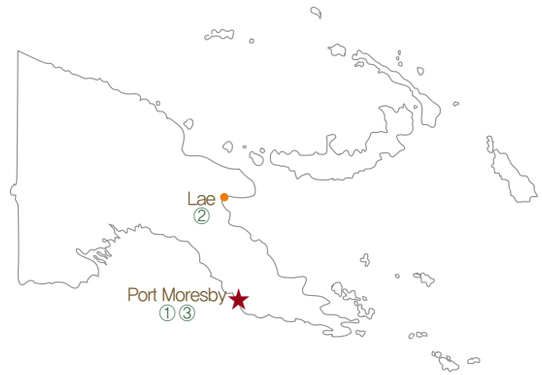
PAPUA NEW GUINEA

9백여 부족으로 구성된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8백69가지라고 한다. 이는 세계에서 쓰이는 언어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다양성으로만 본다면 언어의 천국 같은 나라지만 이는 현대 산업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글 · 박상백

파푸아뉴기니의 각 부족은 국가도 섣불리 간섭하지 못하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 부족 간 또는 중앙 정부와 부족 간의 갈등도 종종 발생한다. 부겐빌 섬 분쟁 등 치안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2002년 총선으로 정권을 장악한 마이클 소마레Michael Somare 총리의 노력으로 파푸아뉴기니는 점차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생물과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파푸아뉴기니는 단순한 미개발 국가가 아니라 축복받은 나라다. 풍부한 원시림과 에메랄드 빛 해변은 전 세계 관광객을 모은다.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금 · 은 · 니켈 · 철 · 목재 · 팜 오일은 물론 수산 자원까지 풍부한 천연 자원의 보고다. 원유와 가스의 매장량도 상당하여 최근 호주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국명 파푸아뉴기니 독립국(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정체** 연방군주제(Federal Constitutional Monarchy) **기후** 열대 기후 **인구** 약 6백30만 명(2007년 기준) **면적** 462,840㎢ **1인당 국민소득** 1천3백6달러(2008년 기준) **수도** 포트모르즈비(Port Moresby) **민족** 파푸안, 오스트로네시안 등 다민족(다부족) **문자 해독률** 64.1%(2007년 기준) **종교** 기독교(96%, 가톨릭, 개신교 포함), 토속 종교(4%) **공용어** 영어, Tok Pisin, Hiri Motu



| 파푸아뉴기니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5세 이상 취업률** 1990년 70%에서 2007년 70%로 정체 • **15~24세 취업률** 1990년 58%에서 2007년 70%로 증가 • **1인당 국내 총생산 증가율** 1990년 12%에서 2007년 3%로 대폭 감소 • 하위 20% 가계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4.5%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15~24세 여성 문맹률** 2000년 36%에서 2007년 35%로 정체 • **15~24세 남성 문맹률** 2000년 31%에서 2007년 37%로 다소 증가 • **초등 교육 졸업 비율** 1990년 48%에서 1995년 52%로 다소 증가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국회위원 중 여성의원 비율** 1990년 0%에서 2007년 1%로 증가 • **고등교육 등록 남녀 비율** 2000년 55% • **초등교육 등록 남녀 비율** 1990년 84%에서 2007년 84%로 정체 • **중등교육 등록 남녀 비율** 1990년 62% • **비농업 분야 여성 고용 비율** 1991년 27.9%에서 2000년 32.1.4%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12~23개월 유아 면역률** 1990년 67%에서 2007년 58%로 감소 • **1천 건당 총 유아 사망률** 1990년 69명에서 2007년 50명으로 감소 • **5세 이하 유아 사망률** 1990년 94명에서 2007년 65명으로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전문 출산 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 1995년 53%에서 2000년 41%로 감소 • **15~19세 여성 피임약 및 기구 보급률** 1995년 26% • **10만 건당 모성 사망 비율** 2007년 4백70명 • **1천 명당 10대 여성 출산 비율** 1995년 90명에서 2007년 51명으로 감소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에이즈 감염률** 1995년 0.1%에서 2007년 1.5%로 증가 •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1990년 2백50명에서 2007년 2백50명으로 정체 • DOTS하에서의 **결핵 검진율** 1995년 1%에서 2007년 15%로 증가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년 0.5톤에서 2000년 0.4톤으로 감소 • **하수 시설 개선 비율** 1990년 44%에서 2007년 45%로 다소 증가 • **상수원 개선 비율** 1990년 39%에서 2007년 40%로 다소 증가 • **산림 비율** 1990년 70%에서 2007년 65%로 다소 감소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country data 참조

01 PAPUA NEW GUINEA 이제 여성들도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카리타스 여자 기술학교 교사 신축 사업

Construction of Caritas Girls Technical High School Building







적도 바로 아래 위치한 뉴기니의 오른쪽 절반이 파푸아뉴기니다. 영연방의 일원으로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이다. 파푸아뉴기니의 공용어는 영어지만 서로 다른 수많은 언어를 쓰는 부족이 모여 산다. 파푸아는 '짧은 머리털'을 뜻하는데 1526년 이곳을 항해한 포르투갈인 메네세가 이름을 붙였다. 한반도 2배의 영토에 길들여지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가진 지상 최후의 파라다이스로 불리는 곳이 바로 파푸아뉴기니다.

19세기 이후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파푸아뉴기니는 1975년 호주로부터 독립한 후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1997년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하지만 만성적 국가 재정 부족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탓에 여성이 교육 받을 기회는 적었다. 여성을 위한 기술학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여성에게 전문 기술을 교육하고, 부족한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자 한국 수녀들이 운영하는 카리타스 여자 기술학교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7~1998년까지 25만 달러를 들여 940㎡ 규모의 기술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기자재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여학생들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KOICA는 파푸아뉴기니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일조했다.

사업명 파푸아뉴기니 카리타스 여자 기술학교 교사 신축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8년 | **사업 규모** 25만 달러 | **지원 내역** 10개 교실 신축, 기자재 지원

02
PAPUA NEW GUINEA

제2의 국제공항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다

나자브 공항 확장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The Feasibility Study for Nadzab Airport Redevelopment project

아름다운 원시림의 풍광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파푸아뉴기니는 호주와 적도 사이에 위치한다. 6백 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인 데다 험악한 산악 지형을 갖고 있어 철도는 고사하고 도로 사정도 빈약하다. 1992년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4개년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투자 및 산업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잭슨 공항의 수요가 증가하자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 공항을 확보하고자 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모로베Morobe 주의 라에Lae 시에 있는 나자브Nadzab 공항을 확장 및 재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2~1993년까지 67만 달러를 들여 나자브 공항 확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KOICA는 활주로와 여객 터미널, 격납고 등의 확장과 신설 그리고 기초 설계를 담당하고 경제성을 검토했다. 사업 종료 후 KOICA는 단계별 사업 시행 계획을 포함한 보고서를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전달했다. KOICA는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모르즈비 지역 개발과 항공 교통량 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

사업명 파푸아뉴기니 나자브 공항 확장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2~1993년 | **사업 규모** 67만 달러 | **지원 내역** 나자브 공항의 항공 교통 수요량 예측, 공항 시설 용량 분석, 각종 부대시설물 확장 및 신설 조사

03
PAPUA NEW GUINEA

전에는 이름뿐인 전산 교육실이었다

포트모르즈비 상과대학 전산화 사업
Port Moresby Business College Computer Laboratory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파푸아뉴기니를 TV에서 본 식인종의 나라로 연상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파푸아뉴기니에서 식인 풍습은 이미 100년 전 사라졌다. 파푸아뉴기니는 1975년 호주로부터 독립한 이후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와 중앙 정부 등의 행정 조직을 갖춘 어엿한 근대 국가다.

파푸아 만 연안에 위치한 '포트모르즈비'는 파푸아뉴기니의 수도다. 인구 19만의 작은 도시인 이곳에는 13년 전 우리나라가 지원한 바 있는 포트모르즈비 대학이 있다. 2년제 과정과 단기 과정을 운영하는 포트모르즈비 대학은 3개의 전산 교육실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했으나 열악한 기자재로 인해 실질적인 전산 교육은 할 수 없었다. 파푸아뉴기니 교육부는 대학의 전산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4년 17만 달러를 들여 기존 전산실 건물을 개 · 보수하고, 컴퓨터 35대와 각종 주변 기기를 제공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전산실의 효과적인 활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KOICA의 지원으로 포트모르즈비 대학생들은 이름뿐인 전산 교육실이 아니라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전산 교육실을 갖게 되었다.

사업명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상과대학 전산화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4년 | **사업 규모** 17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산실 보수, 전문가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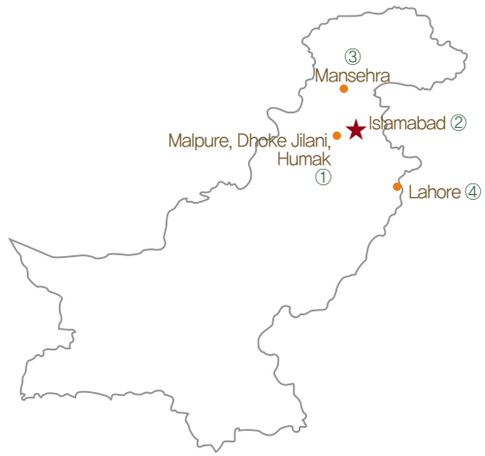


PAKISTAN

파키스탄 사람들은 언제나 '인살랴, 알살람 알라이 쿰'이라고 기도한다. '신의 뜻대로,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이란 말이다. 파키스탄은 다양한 문명을 가진 국가들과 접해 있는 관계로 불교 유적지와 힌두 사원, 이슬람 궁전, 그리고 앵글로 · 무굴 고딕 양식의 저택까지 여러 문화가 공존한다. 글 · 윤지현

파키스탄의 정식 명칭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이다. 남아시아 국가인 파키스탄은 서쪽으로는 이란, 북쪽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동쪽과 남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아라비아 해와 접경을 이룬다. 다양한 문명을 가진 국가들과 접해 있어 불교 유적지를 비롯하여 힌두 사원과 이슬람 궁전, 앵글로 · 무굴 고딕 양식의 저택까지 여러 문화가 공존한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언제나 '인살랴, 알살람 알라이 쿰'이라고 기도한다. '신의 뜻대로,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이란 말이다. 하지만 기도와 달리 파키스탄은 항상 인도와 대립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갈등과 전쟁이 시작되었다. 카슈미르라 불리는 넓은 접경 지대를 사이에 두고 양국은 현재까지 끊임없는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이 모두 현재의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명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정체** 연방공화제 **기후** 대륙성 기후 **인구** 1억5천6백70만 명(2006년 기준) **면적** 803,940㎢(한반도의 약 3.5배) **1인당 국민소득** 8백47달러(2005/6년 기준) **수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 **민족** 아리안족(서북부와 편자브 주), 드라비다 족(남부), 터키 아리안족 외 터키인, 페르시아인 및 아랍인들의 혼혈족 **문자 해독률** 46%(2005년 기준) **종교** 이슬람교(97% : 수니파 77%, 시아파 20%), 힌두교, 기독교 등 **공용어** 우르두(Urdu)어

| 파키스탄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 중 빈곤층** 1995년 28.6%에서 2000년 32.6%로 오히려 확대 •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한 10개년(2001~2011년) 개발 계획 추진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 국가 교육 정책(1998~2010년), '국민교육 국가 활동 계획(2001~2015년)' 등 추진 • **소년 문자 해독률** 2000년 67%에서 2007년 77%로 상승 • **소녀 문자 해독률** 2000년 43%에서 2007년 53%로 상승 • **초등학교 취학률** 2000년 57%에서 2007년 67%로 상승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2002년 '개발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 공표 •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00년 2%에서 2007년 21%로 대폭 증가 • **초등 교육에서 남녀 학생 비율** 2000년 68%에서 2007년 78%로 상승 • **문자 해독 남녀 비율(15~24세)** 2000년 64%에서 2007년 69%로 소폭 상승
영아 사망률 감소	• 면역 확대 프로그램, 국가 영양 전략 체제, 모유 관련 법령 제정 등 • **영아 사망률(1천 명당)** 2000년 108명에서 2007년 97명으로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1994년 '가족계획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착수 • **모성 사망률** 2007년 인구 10만 명당 3백20명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국가 AIDS 관리 프로그램 실행 중 • **2007년 HIV 감염률(15~49세)** 0.1%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국가 환경 활동 계획 승인** 국가 재정착 보호 정책, 국토 사용 프로그램, 국가 기후 변화 전략 등 세부 프로그램 실행 • **삼림율(전 국토 대비)** 2000년 3%에서 2007년 2%로 감소 • **위생 시설 개선 비율** 2000년 48%에서 2007년 58%로 상승 • **수원(水原) 개선율** 2000년 88%에서 2007년 90%로 상승

01 PAKISTAN 농촌 사람들도 글은 읽어야죠

초등학교 건축 사업

Project for Constructing Primary School in Islamabad

파키스탄의 국가 개발 목표는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고, 농촌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고성장을 이루는 데 있다. 여기에는 개발 성과를 분배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며,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낙후된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도농 간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전력을 쏟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문맹률이 54%에 이를 만큼 기초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KOICA는 1994~1996년까지 80만 달러를 지원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키스탄의 수도권 농촌 지역에 초등학교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1994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 인근의 'Malpure' 'Dhoke Jilani' 'Humak' 지역에서 시작된 초등학교 건립 공사는 1996년까지 5개의 초등학교를 완공하고 마무리되었다. 각 초등학교는 2층 건물로 다섯 개의 교실과 한 개의 교무실, 그리고 두 개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KOICA는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에 학교를 건립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아이들 모두에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사업명 파키스탄 초등학교 건축 사업 | **사업 기간** 1994~1996년 | **사업 규모** 8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및 교육 기자재 제공, 건축 시공 기술자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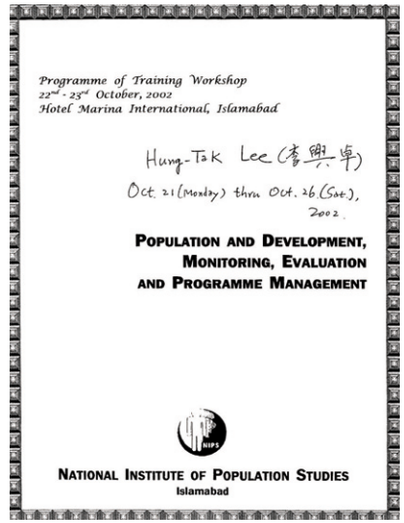


02 PAKISTAN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어진 가족계획 사업

인구 개발 HRD 훈련 사업

Project for Strengthening HRD Training Capacity in the area of Population & Development

"파키스탄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아요. 학교에 가지 않으니 글을 읽지도 못하죠. 그러니 교육을 한다 해도 효과가 낮을 수밖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들의 과다한 출산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개도국에서는 아직도 과다한 인구 증가로 인한 빈곤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3.2배인 1억6천만의 인구를 가진 파키스탄은 2007년 기준으로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이은 세계 6위의 인구 대국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인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중앙 부처인 인구복지부 차원에서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 파키스탄의 인구 정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피임률과 사회적 인식 부족 및 여성의 높은 문맹률 등으로 인해 인구 정책 효과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가족계획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1~2002년까지 19만 달러를 들여 파키스탄 국립 인구연구원의 연구와 교육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갔다. 인구 및 가족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관련 인력을 교육하고, 파키스탄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우리나라 전문가로부터 교육받은 파키스탄 관계자들이 지방의 교육 훈련원에 파견되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KOICA의 가족계획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사업명 파키스탄 인구 개발 HRD 훈련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2년 | **사업 규모** 19만 달러 | **지원 내역**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자재 공여(시청각 기자재, 컴퓨터 등)

03 PAKISTAN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공부하던 일이 꿈만 같아요

만세라 상업기술 대학 재건 사업

The Reconstruction of Government College of Commerce in Mansehra District, North-West Frontiers Province

2005년 10월 8일 발생한 파키스탄 대지진으로 수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NWFPNorth-West Frontiers Province' 교육 시설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2005년 11월 19일, 파키스탄의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원조 공여국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 지원 예정액 235만 달러 중 205만 달러를 교육 시설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지진재건복구국(ERRA, Earthquake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Authority)' 과 협의했다.

'NWFP' 주 만세라Mansehra 지역은 3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NWFP' 주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이곳에서만 2백여 개 학교가 복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만세라 상업기술 대학은 만세라와 바트그람Batgram, 코히스탄Kohistan 등 북부 지역 3개 지방의 유일한 상업기술 대학으로 IT 위주로 학과가 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 7백 명을 수용했던 건물은 완전히 붕괴되고,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205만 달러를 투입해 만세라 상업기술 대학의 강의실 건물을 신축하고, 컴퓨터 등 IT 기자재를 제공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지원한 강의실에서 정상적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세라 상업기술 대학 레흐만 총장은 2007년 3월 23일 우리나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폐허 속에서 희망을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학생들을 무장 단체나 테러 단체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만세라 상업기술 대학은 현재 파키스탄 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 되고 있다.

사업명 파키스탄 만세라 상업기술 대학 재건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205만 달러 | **지원 내역** 대학 강의실 건물 신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04 PAKISTAN 한국 · 파키스탄 · 세계은행의 3자 협력으로

펀자브 주 고형 폐기물 관리 공동 조사

KOICA-WorldBank Joint Study on Punjab Solid Waste Management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서서히 폐기물 등 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환경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정부 차원의 능력 강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특히 펀자브 주는 고체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각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능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펀자브 주정부는 민간 부문의 참여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세계은행으로부터 조언을 받기로 했다. 세계은행은 폐기물 처리에 관해 우수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년 200만 달러를 지원해 펀자브 주 주요 도시의 고형 폐기물 처리 여건을 파악하고, 경제성 및 공공 인식 수준 평가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고형 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자료 제공과 관련 지침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9월 세계은행과 파키스탄 정부에 보고서를 전달했다. KOICA와 파키스탄, 그리고 세계은행의 3자 협력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개도국 환경 분야 기술 전수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사업명 파키스탄 펀자브 주 고형 폐기물 관리 공동 조사 | **사업 기간** 2006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폐기물 처리 기술, 경제성 분석, 홍보 및 민간 분야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워크숍 참가

FIJI

피지는 3백30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가다. 2006년 발생한 군사 쿠데타는 피지의 법치제도와 인권을 현저하게 퇴보시켰고, 사회적 인프라를 파괴했다. 피지의 주요 소득원인 관광, 설탕 산업, 기업 투자 환경도 악화시켰다. 국제 사회는 피지에 대해 총선 실시와 가시적인 민주화 일정 이행을 요구하는 반면, 피지 정부는 국제 사회의 원조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글 · 김태은

피지는 남태평양 멜라네시아제도 남동부 비티레부Viti Levu, 바누아레부Vanua Levu, 타베우니Taveuni 섬 등 3백30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가다. 약 90%의 국민이 주요 도서인 비티레부와 바누아레부에 거주하며, 피지 원주민계(57.3%), 인도계(37.6%) 및 기타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지는 남태평양에서 가장 일찍 경제 개발이 이루어진 나라로 설탕, 카카오, 금이 주요 수입원이며,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잇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 산업의 비중도 크다. 임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왔으나, 2006년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대외 원조는 감소하고, 정치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2009년 5월 조사에 따르면, 피지는 2008년 겨우 0.2%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2009년 역시 0.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피지는 남태평양 지역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국의 특수성을 알리는 등 선진 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총선 실시와 민주화 이행을 요구하는 국제 사회와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피지 정부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피지'를 비전으로 2007~2011년간 '국가전략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종과 계층 간 평화와 단합을 통한 국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표방하면서 빈곤 감소를 천명하고 있다.

국명 피지공화국(the Republic of the Fiji Islands) **정체** 공화제 **기후** 열대 해양성 기후 **인구** 약 84만 명(2009년) **면적** 18,333㎢(332개 도서 :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 **1인당 국민소득** 3천2백 달러(2008년 기준) **수도** Suva (Viti Levu 섬에 위치 **민족** 피지 원주민계(57.3%), 인도계(37.6%), 기타 로투만계(8천 명), 중국계(5천 명), 유럽계 등 **문자 해독률** 93%. **종교** 기독교 52%, 힌두교 38%, 이슬람교 8% **공용어** 영어(공용어), 피지어, 힌두어, 로투만어



| 피지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991년 이후 상대적 빈곤이 줄어들기보다 늘어났으며, 'Poverty Task Force'에 따르면 빈곤 발생률이 2002년에 33%에서 55%로 증가함. 도시 빈민주거지와 같은 새로운 극빈자 밀집 지역이 생겨남. • 피지 정부는 빈곤 감소를 핵심 정책으로 선정하고 교육, 보건, 기타 서비스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등록률이 2007년 기준으로 94%로 보편적 초등교육을 달성함. 농촌지역 교육의 질 개선과 노동시장 수요에 적절한 교육 제공이 주요 과제로 파악됨. 또한 교육 성과가 인도-피지언(Indo-Fijian)보다 피지 원주민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우선순위 과제로 고려하고 있음.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2007년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초등학교 등록률이 97%로 초 · 중등학교에서의 양성 평등에 거의 도달함. •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 인구의 여성 비율은 1995년 31.5%에서 2007년 30.6%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 의회 내 여성 의원의 비율은 11%에 이름.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1990년 1천 명당 22명에서 2007년 약 1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임. • 홍역 예방 접종률이 2007년 81%로 높은 편에 속함.
모성 보건 증진	• 2007년 10만 명당 210명의 산모가 사망함. • 대부분의 지역이 전문 의료인에 의해 출산을 실시하고 있음.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성인의 HIV/AIDS 발병률이 2007년 0.1%이며, 피지 정부는 다양한 HIV/AIDS 예방 이니셔티브를 시작함. • 당뇨, 고혈압, 비만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으로부터의 사망률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열악한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안전한 식수 공급과 폐수 처리가 도시 지역의 주요 환경 문제임. 개선된 식수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은 1990년 48%에서 2007년 47%로 감소함. • 농촌 지역에서는 일부 농업 제도가 산림 파괴와 같은 환경 악화를 초래함.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1인당 원조 제공 비율은 1995년 58달러에서 2007년 69달러로 증가함.

출처 : ADB(2003),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the Pacific, p. 29-32
http://ddp-ext.worldbank.org

01 FIJI 배가 끊겨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바투레레 섬 보건소 건립 사업 Upgrade of Vatulele Nursing Station to Health Center

주민 1천3백 명이 거주하는 피지 바투레레Vatulele 섬에는 의사가 없다. 더욱이 이곳에는 부인과 질병을 비롯하여 호흡기 질환, 설사, 피부병, 빈혈, 결핵 등이 만연하다. 몸이 아프면 2~4시간 동안 배를 타고 본섬으로 나와야 한다. 그나마 날씨라도 좋으면 다행이지만 날씨가 나쁠 때는 배편마저 며칠씩 두절되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게 불가능해진다.

1997년 피지 정부는 바투레레 섬과 같은 무의촌 주민들을 위해 기존의 간호사만이 상주하는 보건소Nursing Station를 의사가 상주하는 보건소Health Center로 개선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원의 부족으로 사업이 여의치 않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7년 11만 달러를 들여 바투레레 섬에 있는 기존의 간호사만이 상주하는 보건소를 의사가 상주하는 보건소로 개선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KOICA는 기존 보건소 건물을 증 · 개축하고 의사 진료실을 비롯해 신생아실, 분만실, 병실 등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발전기를 설치해 자체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전화 등 통신 시설을 설치하고 의료 기자재를 제공했다. 1998년 9월 4일 바투레레 섬의 'Health Center' 준공식이 주 피지 대사와 피지 보건부 장 · 차관, 국회의장, 여성 · 문화부 장관 등 저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제 바투레레 섬의 1천3백여 명의 주민들은 언제든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KOICA는 피지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킴은 물론, 보건 · 위생의 질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피지 정부와 지역 주민들은 모두 그동안의 숙원 사업인 'Health Center' 건립에 대해 KOICA에 사의를 표했다.

사업명 피지 바투레레 섬 보건소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7년 | **사업 규모** 11만 달러 | **지원 내역** 건물 증 · 개축, 기자재 지원



FIJI'S DAILY POST - WEDNESDAY, SEPTEMBER 9, 1998

Koreans give island health service boost

THE Vatulele Nursing Station has been upgraded to a modern health centre.

The project was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a $124,000 grant from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Opening the health centre, Korean ambassador Moon Byung-Rok said that his government, like Fiji, placed priority on health as a basic human need and aspire to...

He said that his government had helped in other health projects which would foster the nation's welfare.

Recent projects include Rakiraki Hospital, the Moana Hydro Project in Vanua Levu and the dispatch of an obstetric gynaecologist to Rakiraki Hospital, the ambassador said.

He said the upgrading of Vatulele's nursing station to a health centre was another major step as would be the next project, the details of which were being determined by the two governments.

He said that their commitment to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remained the same despite the financial crisis that struck all of Asia and presented Korea with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in its history."

The most valuable lesson learned, he said, wa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market economy in time to meet the changing demands of a growing nation.

He said that although a reduction in the size of the assistance programme was inevitable in light of the economic difficulties, Korea maintain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of being a partner in development.

THE Korean Ambassador Moon Byung-rok (second from right) pictured with (from left) the Minister for Health Leo Smith, Minister for Women and Cultures Beruwala Hong Yip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r Apenisa Kurisaqila in front of the new Vatulele Health Centre soon after the opening ceremony last Friday.
Photo: Compliments of the Korean Embassy.

02 FIJI 6백여 명 주민들이 전깃불 아래서 살게 되다

무아나 소수력 발전소 건설 사업 Muana Mini Hydro Project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 피지는 3백20여 개 섬으로 이루어졌다. 아름다운 바다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우리에겐 관광지로 익숙하다. 하지만 2007년 당시 피지의 1인당 국민소득은 3천7백 달러에 불과했다.

피지의 경제는 농업, 관광업, 경공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무역 적자의 폭이 큰 때문이다. 전력 보급률은 75%에 달하지만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고, 도시에서 30~40km 떨어진 자연 부락에는 아직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피지 정부는 무아나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7년 20만 달러를 지원해 길이 8m · 높이 1.5m 정도의 소규모 댐을 건설하고, 30kw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건립했다. 그리고 27m 길이의 물탱크와 수압관, 발전소와 마을을 연결하는 파이프와 송전 기기를 설치했다. KOICA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던 3개 부락 6백여 명의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소규모 가내 공업을 촉진시켰다. 〈피지 타임스〉, 〈데일리 포스트〉 같은 피지의 주요 신문은 KOICA의 지원 사업을 사회 간접 시설 확충의 모범적인 원조 사업으로 높이 평가했다.

사업명 피지 무아나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 **사업 기간** 1997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소규모 댐 · 소수력 발전소 건설, 물탱크 · 발전기 설치, 부대시설 지원





03 FIJI 북섬의 소외 계층 응급 진료를 위하여

피지 북섬 응급 의료 및 지역 사회 보건 개선 사업
Improvement of Emergency of Community Health Care In Vanua Levu

'바누아레부' 라고 불리는 피지 북섬은 연중 고온 다습한 기후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빈번한 지역이다. 수도와 국제공항이 있는 남섬에 비해 북섬의 의료 시설은 매우 낙후되었다. 피지 정부는 북섬의 의료 서비스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132만 달러를 투입해 북섬의 유일한 3차 의료 기관인 람바사 병원의 개선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응급실과 산부인과, 치유 정원을 만들고, 15만 달러를 들여 의료 장비와 기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북섬의 빈곤 지역인 '부아' 에 화장실을 비롯한 위생 시설을 개량하고, 이동 진료 차량도 지원한다.

아울러 피지 의료진을 국내로 초청해 4주간의 연수도 실시한다. 2008년 12월 람바사 병원 내 응급 의료 센터의 증 · 개축 기공식이 열렸다. 응급 의료 센터를 비롯해 산부인과 병실이 완공되고, 기자재 제공 등 지원이 완료된다면 북섬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KOICA의 의료 지원 사업은 응급 의료 체계를 개선시켜 응급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고, 소외 계층의 의료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업명 피지 북섬 응급 의료 및 지역 사회 보건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132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시설 건축, 극빈층 거주 지역 위생 시설 개선, 보건 활동 자문, 국내 초청 연수, 보건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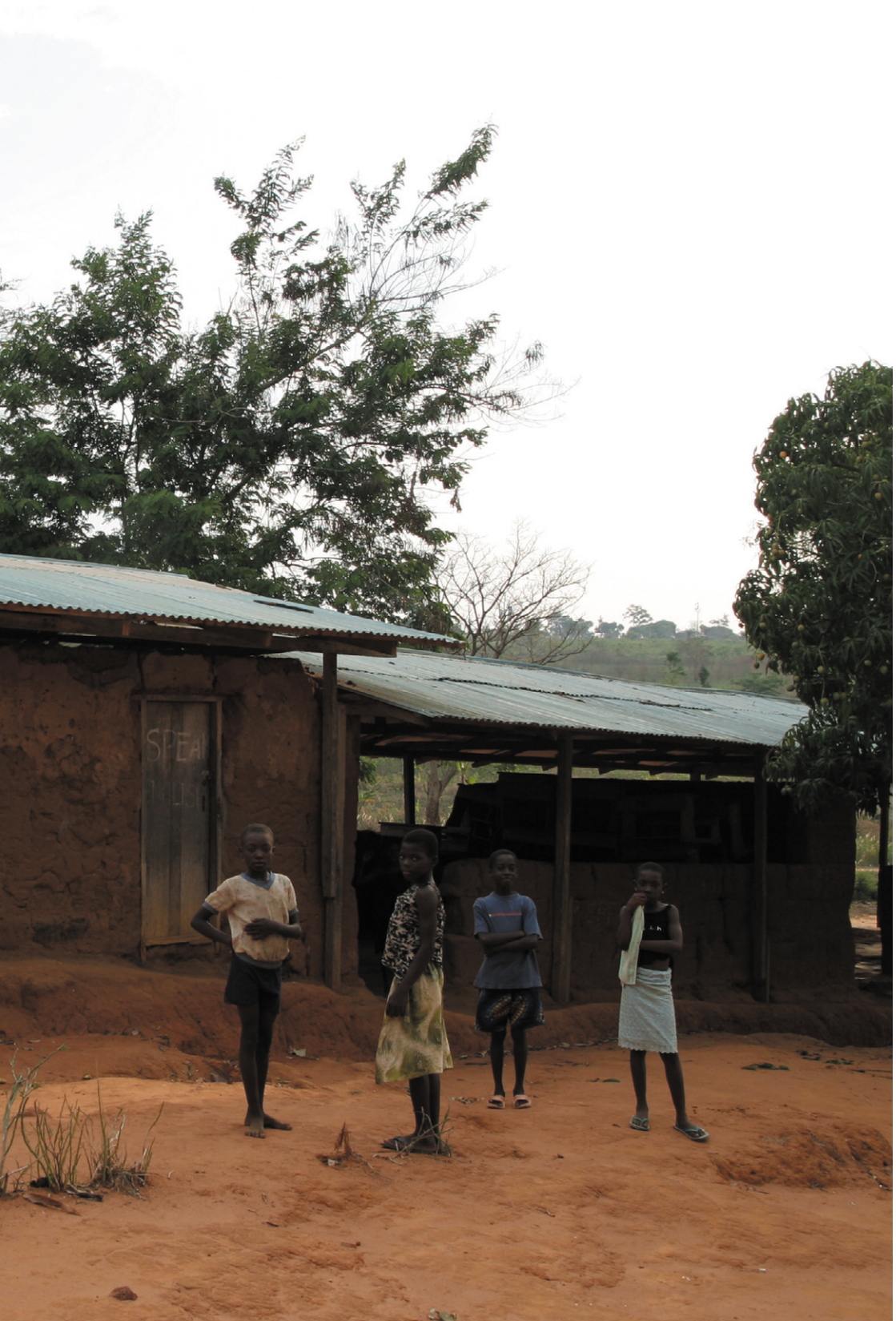
Ghana
Morocco
Sudan
Angola
Algeria
Zambia
Zimbabwe
DRC
Côte D'ivoire
Kenya
Tunisia

지구촌의 절망에서 희망을 꽃피운다

Africa







GHANA

가나는 카카오나무의 원산지이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 의 고향이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지만 자연 재해에는 취약한 편이다. 가나의 북부 지역은 농업 생산력이 낮은 탓에 대부분의 주민이 영양실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 · 조정명**

가나는 서쪽으로 코트디부아르, 북쪽으로 부르키나파소, 동쪽으로 토고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대서양과 맞닿아 있다. 동부와 서부에 산지가 있을 뿐 대체로 평탄한 고원인데 중앙부를 볼타 강이 남쪽을 향해 흐른다. 가나는 1960년 국민투표를 거쳐 '가나 공화국' 이 되었고, '은크루마' 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가나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정치를 기반으로 1990년부터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존 아타 밀스John Evans Atta-Mills' 가 민주적 방식으로 제 1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현재 가나는 아프리카의 모범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조사에 따르면 가나 인구의 29%는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으며,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19%에 이른다. 가나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2007년 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좀 더 신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기반 시설과 산업 기술의 선진화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1991~2007년까지 17년간 총 5백46만 달러의 무상 원조를 실시했다. KOICA는 가나에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공유함으로써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했다. 특히 가나는 국가 개발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KOICA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명 가나공화국(Republic of Ghana) **정체** 공화국(대통령 중심제) **기후** 남부 열대 기후(우기 : 5~9월, 건기 : 10~4월), 북부는 건조 기후 **인구** 2천3백50만 명(2007년 기준) **면적** 238,539㎢(한반도 크기) **1인당 국민소득** 5백90달러(2007년 기준) **수도** 아크라(Accra) **민족** 아칸족, 에베족 등 **문자 해독률** 57.9% **종교** 기독교(69%), 회교(16%) 등 **공용어** 영어(공용어, 70%), 튀어, 판티어

| 가나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 중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 1993년 27.4%에서 2003년 19%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1991년 53.5%에서 2007년 71.9%로 상승 • **국내 총생산(GDP) 기준 초등 교육 학생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비율** 2006년 18%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02년 9%에서 2007년 11%로 소폭 상승 • **기초 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1991년 0.85에서 2007년 0.99로 상승
아동 사망률 감소	• 1990~2015년까지 5세 이하의 사망률을 3분의 2로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5세 이하의 사망률(인구 1천 명당)은 1990년 1백20명에서 2006년 1백20명으로 변화 없음.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1990년 61%에서 2006년 85%로 상승
모성 보건 증진	• 1990~2015년까지 모성 사망률을 4분의 3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구 10만 명당 모자 사망 인구는 1990년 7백40명에서 2005년 5백60명으로 감소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의 인구 중 HIV 양성자 비율** 2001년 2.3%에서 2007년 1.9%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병 비율** 1990년 532.2명에서 2006년 378.8명으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안전한 식수 제공과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 대비 숲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32.7%에서 2005년 24.2%로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년 0.2톤에서 2004년 0.3톤으로 상승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1990년 56%에서 2006년 80%로 대폭 상승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2006년 기준 51달러이며, 부채 비율은 2005년 기준 14%

01 GHANA 한국의 외교통상부 같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외교부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E-Consul & E-Administr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Republic of Ghana





"가나 외교부도 한국 외교통상부와 같은 영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2005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정부혁신 세계포럼'에 참가한 가나의 'Osei-Adjei' 차관은 외교통상부가 시연해 보인 외교 영사 시스템을 살펴본 뒤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가나 정부는 아직 기본적인 정보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 영사 시스템 같은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계 정보 시스템이나 여권 비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외교부의 핵심 업무에 대한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그룹웨어 시스템과 회계 정보 시스템 및 여권 비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종 IT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과 관리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가나빈곤감소전략 II'의 세 가지 주요 이슈- 민간 부문의 경쟁력 강화, 인간 개발과 기초 서비스, 선정good governance과 시민의식- 중에서 세 번째 이슈와 연관된 것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의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또한 KOICA는 가나의 행정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켰다.

사업명 가나 외교부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스템 개발, 기자재 지원, 시스템 설치 및 교육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2 GHANA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데…

동부 지역 기초 교육 환경 개선 사업

Integrated Quality Education Project in Kwahu North and Fanteakwa

흔히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한다. 하지만 삶의 환경을 통해 짐작해 보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떠할까? 식량 부족으로 제 나이에 맞는 체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 아이들의 현실이다. 가나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83.3%다. 하지만 지역 간 교육의 격차가 커 낙후한 농촌 지역의 취학률은 매우 낮다. 가나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하나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을 위해 동부 지역 기초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동부 지역의





'Kwahu North'와 'Fanteakwa'는 교사의 부족과 낡은 학습 교보재, 그리고 교육 행정 기구의 역량 부족 등으로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Kwahu North' 시와 'Fanteakwa' 시에 학교를 신축하고 교보재를 제공하는 한편, 현직 교사 및 보조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낙후한 농촌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초등교육은 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필수 요소다. KOICA의 동부 지역 기초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교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초등학교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가나 동부 지역 기초 교육 환경 개선 사업(Kwahu North, Fanteakwa)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및 교사 숙소 신축 및 개 · 보수, 학습 교보재 지원, 교사 역량 강화 교육

03 GHANA

교육을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유도

동부 지역 아동 및 모성 사망률 감소 지원 사업
Support for Mother and Child Health Care in Eastern Region

1471년 유럽 국가로서는 최초로 가나 땅에 침입한 포르투갈은 금 산지를 발견했다. 그들은 이곳에 '황금 해안Gold Coast'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금과 노예무역의 거점으로 삼아 수백 년간 식민 통치를 실시했다. '가나' 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874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57년 독립하면서부터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나는 풍부한 금과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된 정치적 환경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유리한 국가 개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와 HIV/AIDS 등의 고질적인 질병으로 인해 국가 발전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나 보건부는 동부 지역의 심각한 아동 및 모성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모성 사망률과 영 · 유아 사망률, 말라리아 감염률과 HIV 수직 감염률을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살충제 처리 모기장 보급을 비롯하여 말라리아 예방과 HIV 감염 산모들을 치료해 주는 등 의료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KOICA는 의료 시설을 개선하고,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보건 의식을 증진시켜, 모자 보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KOICA는 위생적인 환경에서의 분만을 장려하고, 모자 보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명 가나 동부 지역 아동 및 모성 사망률 감소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말라리아 예방 사업 확대(살충제 배포망 보급, 지역 사회 교육), 임산부 HIV/AIDS 감염률 감소 지원, 모자 보건 연수

04
GHANA

가난한 주민들에게 인기 최고예요!

테마 종합병원 현대화 사업
Tema General Hospital Modernization Project

"KOICA가 수술실을 만들어준 후 일주일에 30~40명의 환자를 수술할 정도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테마 병원은 공립 병원이기 때문에 가난한 주민들의 인기 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테마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의 말이다. 카카오나무의 원산지이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고향인 가나는 서아프리카의 중부, 기니 만 연안에 접해 있다. 대서양에 접한 가나의 수도 아크라Accra 인근에 있는 테마Tema는 인구 50만의 항구 도시이자 산업 도시다.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아크라의 베드타운인 테마에는 인접한 3개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이 많다. 하지만 열악한 도로 사정과 시민들의 거친 운전 습관 탓에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테마 종합병원은 테마의 유일한 국립 병원이지만 열악한 시설과 의료 사정으로 인해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응급 환자가 치료를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일도 종종 있으며, 심지어 고작 4평 남짓한 응급실에서 간이침대와 간단한 소독 기구만으로 응급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다수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나 정부는 테마 병원의 응급실을 증축해 보다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3~2004년까지 20만 달러를 들여 기존 응급 시설을 확장하고, 외래 병동과 응급실을 분리시켜 효율적이고 청결한 환자 진료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증가하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테마 지역의 응급 의학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가나 테마 종합병원 현대화 사업 | **사업 기간** 2003~2004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응급 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MOROC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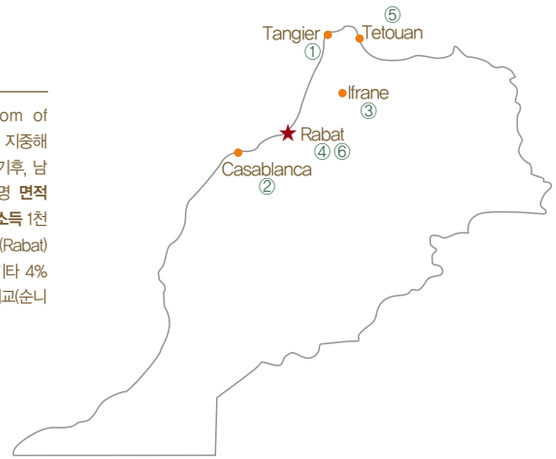
모로코는 세 대륙의 문화를 가졌다. '머리는 유럽, 가슴은 아랍, 뿌리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바로 모로코다. 모로코는 튀니지, 알제리와 함께 '태양이 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북부 아프리카 마그레브(Maghreb) 국가 중 가장 서구적이고 개방적이다. **글 · 김영란**

모로코는 농업을 기반으로,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전체 인구의 40%가 빈곤층에 해당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1천 3백20달러 수준으로 저소득 국가에 속한다.

현재 국왕인 모하메드 6세는 대외적으로 친서방 정책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 정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 중인 모로코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깝고 프랑스의 식민 통치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연합 국가들의 지원이 원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미국과 일본의 대외 원조도 늘고 있다.

KOICA는 모로코에 1991~2007년까지 17년간 총 110만 달러의 무상 원조를 지원했다. 특히 모로코 정부의 '인력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INDH 및 e-Morocco' 등 국가 개발 계획에 따라 지역 및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취약 계층의 문맹률과 실업률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왕정 국가인 모로코의 독특한 정치와 사회적 특성에 맞춰 빈곤층의 생활 여건 개선과 IT · 자동차 · 직업 훈련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국명 모로코 사회주의 왕국(Kingdom of Morocco) **정체** 입헌군주제 **기후** 북부 : 지중해성 기후, 내륙 : 대륙성 아틀라스 산맥 기후, 남부 : 사막성 기후 **인구** 3천2백20만 명 **면적** 446,550㎢(한반도의 1.8배) **1인당 국민소득** 1천 3백20달러(2007년 기준) **수도** 라바트(Rabat) **민족** 아랍계 60%, 베르베르계 36%, 기타 4% **문자 해독률** 50%(2005년 기준) **종교** 회교(순니파) **공용어** 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 모로코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하루 1달러 이내 소득 인구 비율** 1990년 3.5%에서 2007년 0.6%로 감소, 유엔이 제시한 당초 목표 1% 기달성 • **하루 2달러 이내 소득 인구 비율** 2007년 8.2% 수준 •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 비율** 2007년 1%로 감소, 당초 목표 2.3% 기달성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취학자** 1999~2000년 79.1%에서 2006~2007년 93.5%로 개선 • **GDP 기준 초등 교육 학생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비율** 2005년 23%, 2007년 26%로 상승 • **문맹률** 2007년 10세 이상 인구의 41.2%로 주요 해결 과제임.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남학생 대비 여학생 학교 등록률** 80% 이상 • **10세 이상 여성 문맹률** 52.6%로 남성의 29.4%에 비해 매우 높음. •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중 여성 비율** 2000년 27.9%에서 2004년 28.3%, 2007년 27.1%로 감소 • **임금 수준** 여성이 남성의 80%로 남녀 간 격차가 큰 편임.
아동 사망률 감소	• **1개월 이하 영아 사망률** 1992년 31%에서 2004년 27%로 감소 •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992년 76%, 2004년 47%로 감소 중이며 2015년까지 28%로 감소 목표 설정
모성 보건 증진	• **모자 사망 인구(10만 명당)** 1991년 3백32명에서 2003년 2백27명으로 감소 중이며 2012년까지 50명으로 감소 목표 설정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의 인구 중 HIV 양성자** 2000년 이래 0.8% 수준 • 2006년 2만6천 건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하여 결핵 퇴치를 위한 노력 경주 중 • 1965년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 시행 후 2004년을 마지막으로 말라리아 환자 추가 발병 사례 없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2006년 86% 수준으로 개선 • **개별 수도관 보급 비율** 2006년 72%로 증가 •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4년 4.8톤에서 1999년 5.7톤으로 증가 추세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2006년 34달러 •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 구상INDH' 프로그램을 2006~2010년간 12.3억 달러 규모로 시행 중이며 이 중 20%를 외부 원조로 충당할 계획

01 MOROCCO KOICA 최초의 모로코 프로젝트 사업

중 · 고교 컴퓨터 보급 사업

Computer Education System Development Project for Fundamental School and Secondary Schools



스페인에서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는 배를 타면 20분 후 모로코에 도착한다. 20세기 초 스페인과 모리타니아를 통치한 역사적 자부심이 강한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안정적인 정치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중 · 고교생의 IT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로 양성하고자 인적 자원 개발과 교육 및 기술 훈련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 한 · 모로코 제1차 문화 공동위에서 모로코 정부는 중 · 고교 컴퓨터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4~1996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모로코 북부의 땅제, 떼뚜완부터 라바트, 케니트라, 카사블랑카, 우즈다, 사피, 딴딴 등 전국 39개 중·고교에 컴퓨터 330대를 제공했다. 또한 컴퓨터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 컴퓨터 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연수를 시키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컴퓨터 설치 및 운영법을 교육했다.

KOICA의 이 지원 사업은 모로코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젝트형 사업이었다. 그동안은 단순히 무상으로 컴퓨터를 제공하는 데 그쳤지만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지원 형식을 바꾼 것은 좀 더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KOICA는 모로코 지방의 낙후된 교육 여건을 개선시키고,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우리 기술로 만든 컴퓨터를 보급해 높아진 IT 강국의 위상을 확인시킴은 물론,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업의 모로코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모로코의 IT 시장이 곧바로 중동과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사업명 모로코 중·고교 컴퓨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4~1996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2 MOROCCO

KOICA의 지원으로 기술 자립도를 높이다

자동차 정비 교사 연수원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Upgrading the Center of Development of Competence of Car Repair in Casablanca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양호한 도로망을 갖고 있다. 유럽과 도로망이 잘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 분야의 산업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하라 사막 9,000km를 종단하는 자동차 경주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파리~다카 랠리'의 중심에 모로코가 있다.

모로코는 국내 자동차의 90% 이상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고 차량 판매가 활발해 자동차 정비 수요가 높고, 신차 판매는 연간 3만 대에 이른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를 위한 훈련 시설이 매우 낙후한 데다 기술 훈련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로코 자동차 정비 기술 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02년 KOICA 관계자가 모로코를 방문했을 때 직업훈련부 차관은, "20%에 달하는 실업률 감소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자동차 정비 분야 직업 훈련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현대, 기아 등 자동차 생산에 성공한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KOICA는 2004~2005년간 50만 달러를 들여 카사블랑카의 자동차 정비 교사 연수원 시설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기자재를 제공하고 자동차 정비 기술을 교육했다. 지원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모로코 전역의 학생을 교육하는 자동차 정비 교사 연수원을 지원함으로써 파급 효과는 작지 않았다. 무엇보다 모로코 자동차 정비 교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교육시킴으로써 모로코의 자체 기술 자립도를 높일 수 있었다.

사업명 모로코 자동차 정비 교사 연수원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자동차 정비 관련 교육 장비 지원, 전문가 파견, 관계자 및 훈련 연수생 초청





03 MOROCCO

폭넓은 교육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다

모로코 알아카와인 대학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of IT Innovation for Human Development



모로코 정부는 2001년 4월 'E-Morocco 전략'을 수립하면서 10년 안에 모로코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IT 최강국으로 부상시킨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모로코는 인구의 40%가 빈곤층에 해당하고 문맹률은 50%에 달한다. 모로코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빈곤과 문맹 퇴치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농촌 지역은 IT 인프라가 열악한 탓에 정보화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모로코 정부는 농촌 지역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 8천6백여 개 학교 중 3천 개 학교에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모로코 서북부의 이프란Ifrane 지역은 아틀라스 산맥에 위치해 스키를 탈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 이곳에 1995년 개교한 알아카와인 대학Al Akhawayn University은 모로코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미국식 학제로 운영된다. 과학기술, 경영, 공학,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모로코 교육부는 알아카와인 대학에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와 정보 혁신 개발 센터를 건립하고, IT를 활용한 학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모로코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알아카와인 대학에 멀티미디어실을 갖춘 정보 혁신 개발 센터를 건립하고, IT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또한 학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근 중등학교에 IT 기반의 교육 환경을 도입해 시범학교로 운영했다.

KOICA는 낙후된 이프란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에게 IT 교육 환경을 조성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보화의 격차를 해소해 나갔다. 또한 한국의 '전자학습 e-Learning' 교육을 받은 알아카와인 대학생들이 졸업 후 모로코의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명 모로코 알아카와인 대학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멀티미디어 장비 · PC 등 기자재 제공, IT 기반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04 MOROCCO 시민의 집은 모로코 · 한국 우정의 집

티플렛 마을 시민의 집 시범 운영 사업

The Project for the Pilot Management of the House of the Citizen in Tiflet Commune





모로코 정부는 2005년 5월 빈곤층 감소를 위한 사회 개발 프로그램인 '인력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빈곤 및 문맹 퇴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집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수와 봉제 등의 기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유아 교육 프로그램, 문맹 퇴치 교실, 무담보 소액 대출micro-credit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06년 모로코 정부는 종합 복지 시설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티플렛 마을 시민의 집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티플렛 마을은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60km 떨어진 인구 7만의 소도시로 주민 대부분이 밀 재배와 목축업에 종사한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지원해 티플렛 마을 '시민의 집'에 직업 훈련과 사회 복지 교육이 가능한 3개동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 시

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유아, 청소년, 지역 주민 등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보육 서비스도 주야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등 모로코 내 다른 '시민의 집'과 차별화된 운영을 보여주었다.

2008년 12월 26일 '시민의 집' 개원식에서 KOICA는 티플렛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 봉사와 구강 교육,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 이 일은 모로코 방송사와 국영 통신사를 통해 크게 소개되기도 했다.

시민의 집 시범 운영 사업은 모로코 국왕이 빈곤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왕정 사업으로 직접 제안한 것이다. KOICA와 함께 이 사업을 수행한 모로코 사회개발가족연대부 장관은 티플렛 마을 '시민의 집'을 '모로코 · 한국 우정의 집'으로 명명하고 모로코 전역 '시민의 집' 사업의 우수 모델로 평가한 바 있다.

사업명 모로코 티플렛 마을 시민의 집 시범 운영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민의 집(강당, 보육 시설 등) 보수 공사, 사회 복지 및 교육 분야 전문가 파견, 봉제기 · 직조기 · PC 등 직업 훈련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05 MOROCCO

국가에 등록된 내 땅을 갖게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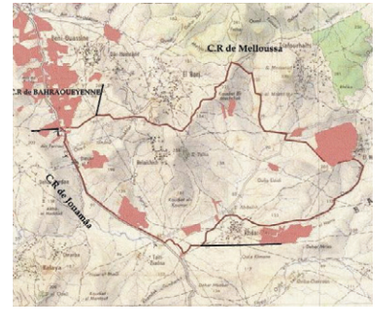
종합토지등록 방안 수립 시범 사업

The Program for the Establishment of Cadastral Methodology and Pilot Project of Tangier

모로코는 하얀 눈과 황금빛 사막이 공존하는 국가다. 유럽에 인접한 북부 아틀라스 산맥에서 남부 사막지대까지 한반도의 2배에 해당하는 국토를 갖고 있다. 또한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글래디에이터' '알렉산더대왕' '본얼티메이텀' 등 많은 영화의 촬영지로도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런데 모로코의 국토는 전체 토지 면적의 약 20%만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 주민 간의 암묵적 동의로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다. 토지를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고 등록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되고 국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토지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모로코 정부는 북부 떼뚜완Tetouan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등록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을 계획했다. 떼뚜완은 스페인과 국경을 마주하는 지브롤터 해협의 항구 도시로 과거 모로코가 스페인까지 점령했던 시기,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한 북부 최대의 상업 도시다. 특히 이곳에는 중요한 건설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현대화된 지적 제도와 토지 등록 전산화가 시급했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지원해 떼뚜완 지역의 토지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개발해 나갔







다. 우리나라 측량 기술진을 현지에 파견해 토지 등록 업무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등록 방안을 강구했으며, 항공사진과 지상 측량을 병행하는 토지 등록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1,000ha의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토지 등록을 시행하면서 토지 등록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을 시정해 주었다. KOICA는 사업 종료 후에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양국 간 지적 및 측량 기술을 비교 분석하고, 토지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술을 교육했다.

KOICA는 모로코의 국토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 토지 정보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국토 개발 분야의 행정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저당권, 임대차 권리 설정, 부동산 관련 권리 공시 제도 등의 구현을 통해 토지와 관련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사업명 모로코 종합토지등록 방안 수립 시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위성 항법 장치(GPS) 등 측량 기자재 제공, 토지 등록 방법 개발 및 지적 관리 시스템 구축, 국내 초청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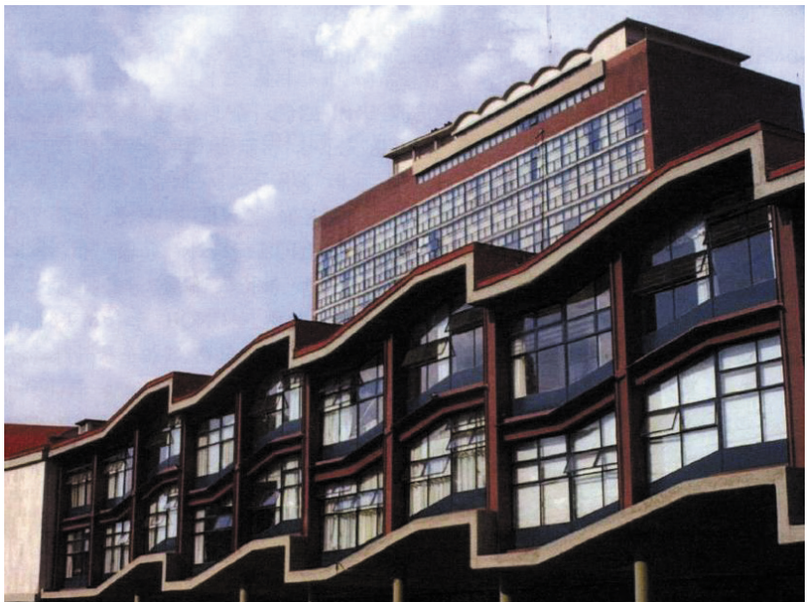
06
MOROCCO

아프리카의 IT 허브 국가를 꿈꾸다

중등 교사 IT 활용 교육 역량 강화 사업

The Program for the Training of Teachers for Wid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Secondary Education





모로코에서는 도시의 골목골목마다 인터넷 카페를 손쉽게 볼 수 있다. 모로코는 매년 100% 이상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어 유럽과 아프리카를 있는 교통, 통신의 요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인구 3천만 중 성인 한 명당 한 개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 최대의 정보통신 시장이다.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IT 최강국으로 부상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특히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150만 달러를 지원해 알아카와인 대학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모로코 교육부는 KOICA가 지원한 멀티미디어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중등 교사의 IT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전국적으로 IT 교육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2006년부터 모로코 교육부는 'GENIE Project' 를 통해 모로코 전체 8천6백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컴퓨터실을 설치하고, 23만 명의 교사를 통해 6백20만 학생들이 IT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범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7년까지 4천 개 학교에 컴퓨터실이 개설되었으나, 교사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점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멀티미디어 실습실과 네트워크 실습실을 갖춘 교사 양성용 IT 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교육 장비와 원격지 이동 교육에 필요한 IT 차량을 제공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커리큘럼 개발, 교보재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KOICA는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모로코의 IT 인재를 배출하고, 아프리카 정보통신 분야에서 허브 국가가 될 모로코의 IT 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모로코 중등 교사 IT 활용 교육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IT 훈련 기자재 및 이동 교육 차량 제공, 멀티미디어 · 네트워크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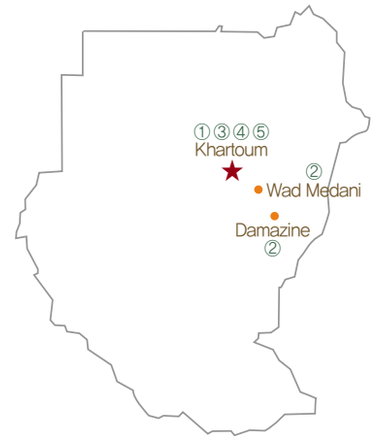


SUDAN

수단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다. 2005년 내전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면화, 고무 등 풍부한 농업 생산물과 금, 망간, 석유 같은 막대한 광물 자원을 토대로 국가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 · 권새봄

수단에서 1989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바시르 정권은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서방 세계는 수단의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수단이 국제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1996년 유엔 안보리는 수단에 경제 제재를 결정했다. 그러나 2001년 9월 미국의 동시 다발 테러 사건 이후 수단은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경제 제재가 해제되었다.

2003년 서부 다르푸르Darfur 지역에서 정부군과 수단해방운동SLM, 정의공정운동JEM 등 반정부 세력과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물과 목초지에 대한 부족 간 분쟁을 계기로 발발한 내전이었다. 정부 측 아랍계 민병대는 아프리카계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20만 난민과 2백만 명의 국내 피난민이 발생했다. 2004년 7월 유엔 안보리는 수단 정부에 아랍계 민병대의 무장 해제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며 무기 금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자산 동결 및 도항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발동하고, 국제법 위반 사안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다. 2004년 6월 '정부간개발기구IGAD' 주도로 바시르 정권과 '수단인민해방운동SPLM'의 평화 교섭이 시작되었다. 치안 확보와 부의 분배, 권력 배분과 3개 지역의 귀속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5년 1월 수단 정부와 'SPLM' 간 '남북포괄적평화합의CPA'가 체결되었다.



국명 수단공화국(Republic of Sudan) **정체** 공화제 **기후** 대륙성 · 열대 · 사막 기후 **인구** 4천21만8천4백56명(2008년도 기준) **면적** 2,505,813㎢ **1인당 국민소득** 1천2백42달러 **수도** 하르툼(Khartoum) **민족** 아랍인 39%, 베자족 6%, 흑인 55% **문자 해독률** 61%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70%, 원시 종교 5%, 기독교 25% **공용어** 아랍어

| 수단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5세 이상 노동 활동 인구** 1995년부터 2007년 까지 47%로 동일 • **15세 이상 24세 미만 노동 활동 인구** 1995년 30%, 2000년 27%, 2007년 24%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1995년 38%, 2000년 37%, 2007년 50%로 증가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기초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5년 81%, 2000년 85%, 2007년 86%로 점진적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인구 1천 명당)** 1990년 79명, 1995년 76명, 2000년 73명, 2007년 69명으로 감소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1990년 57%, 1995년 51%, 2000년 58%, 2007년 79%로 증가 추세
모성 보건 증진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1990년 69%, 1995년 86%, 2000년 87%, 2007년 49%로 감소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결핵 인구(10만 명당)** 1990년 1백74명, 1995년 1백92명, 2000년 2백12명, 2007년 2백43명으로 증가 추세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위생 시설 접근성** 1990년 33%, 2000년 34%, 2007년 35%로 증가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1990년 64%, 1995년 67%, 2000년 69%, 2007년 70%로 증가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1990년 31달러, 1995년 8달러, 2000년 7달러, 2007년 55달러로 증가 • **인터넷 사용자 수** 1990년 0명, 2007년 9.1명으로 증가

01 SUDAN

사후 관리 없이 장기적 발전 없다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Korean-Sudanese Vocational Training Center Project

에티오피아에서 흘러오는 청나일과 서쪽에서 흘러오는 백나일은 수단의 수도 하르툼Khartoum에서 합쳐져 비로소 나일강이 된다. 수단의 수도 하르툼은 나일강변에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진 '다르푸르 사태'라는 말이 대변하듯 수단은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오랜 내전으로 인한 난민 문제와 산적한 경제 문제를 안고 있다.

한 · 수단 직업훈련원 설립은 KOICA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KOICA는 1992~1998년까지 488만 달



러를 투입해 967㎡의 훈련원을 건립하고 훈련 장비를 제공했으며, 25명의 연수생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한편 수단 정부는 부대시설 및 훈련원 대지와 운영비를 제공했다.

사업 착수 초기 KOICA는 컴퓨터 · 자동차 정비 · 전기 · 봉제 등 4개 공과로 훈련원을 구성했으나 시장의 노동 수요 변화를 감안해 기계 조립 공과를 신설했다. 또한 여성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가공 및 편물, 자수 등 단기 훈련 과정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총 6개 분야의 훈련 과정을 개설했다. 1996년 1월 훈련원 개원 당시 수단 직업훈련원은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규모로 최신 시설을 갖춘, 자랑스러운 면모를 드러냈다. 사업 성과에 만족한 수단 정부는 1998년 훈련원의 후속 지원을 요청해 왔고, KOICA는 수단에 3년간 직업 훈련 자문관을 파견하고, 새로운 훈련 장비를 제공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했다. 그 후 직업훈련원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순조롭게 운영되는 듯했으나 2004년까지 지속된 장기간의 내전으로 재정 사정이 악화되고, 교육 부문에 대한 수단 정부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훈련원 또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KOICA는 훈련원이 안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기자재를 제공하는 등 또 한 차례의 사후 관리 사업을 실시했다. 수단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은 초반에 순조롭게 진행된 사업도 사업이 종료된 후 반드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사업명 수단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2~1998년 | **사업 규모** 488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원 건축, 훈련 장비 제공, 연수생 초청 및 자문관 파견

02 SUDAN 천혜의 자연 환경, 최고 품질로 소득 증대를 이루다

양잠 개발 지원 사업

Pilot Sericulture Development Project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내전을 겪은 수단은 내전이 종료된 후에도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여전히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 발전 침체가 지속되자 수단 정부는 면화, 고무 등 자국의 풍부한 농업 생산물과 금, 망간, 석유 같은 막대한 광물자원을 토대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4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양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단은 양잠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온의 평야 지역을 제외하고 비옥한 토양과 나일 강을 따라 조성된 관개 시설, 기후 조건 등이 양잠을 하는 데 더없이 좋은 환경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수단 정부는 양잠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년에서 1997년까지 20만 달러를 지원해 27,720㎡에 이르는 뽕밭을 조성하고 잠실 2동을 건축했으며, 3회에 걸친 누에 사육기술 전수와 양잠기술 전반에 대해 교육했다. 이외에도 양잠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고, 잠실 건축비를 지원해 양잠 산업 발전의 기초를 구축했다. KOICA의 지원이 완료된 후 메다니, 다마진 지역에서 재배한 누에고치의 품질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KOICA는 수단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잠업 육성으로 농촌 산업을 다변화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업명 수단 양잠 개발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잠실 건축, 기자재 제공,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3 SUDAN 훌륭한 외교 정책도 업무 환경이 좋아야 나오죠

외교부 별관 건립 사업

Project for Construction of an Annex Building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Sudan

수단 정부와 수단인민해방운동이 작성한 수단 합동 평가 보고서에는 포괄적 평화협정에서 정한 6년간의 잠정 기간(2005~ 2011년) 동안 수단이 개발해야 할 과제들이 명시되어 있다. 제1단계(2005~2007년)에서는 평화 정착과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제2단계(2008~2011년)에서는 새천년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 및 기초 서비스 확대를 실시하는 한편, 평화 협정 체결과 피난민의 귀환과 재정착을 돕는 것이다. 또한 남부 수단의 인프라 정비와 농업 중점화, 사회 자본의 재생 및 행정조직 개편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같이 산적한 대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 외교부의 뛰어난 외교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하지만 당시 수단 외교부의 현실은 매우 암담했다. 지은 지 100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을 청사로 쓰던 수단 외교부는 벽이 부식되고, 금이 가는 등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청사를 폐쇄했고, 새로운 청사를 건축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3년째 비좁은 다른 건물을 얻어 쓰는 실정이었다. 수단 정부는 외교부 별관 신축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109만 달러를 투입해 외교부 별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7층의 외교부 청사 건물 중 1~3층까지 공사를 실시해 2006년 7월에 수단 정부에 인계했고, 수단 정부는 4~7층의 공사를 추진했다. KOICA의 사업은 외교부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사업명 수단 외교부 별관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109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설계, 감리비

04 SUDAN 학생과 공무원들에게 최신 IT 지식을 접할 기회를 주다

아자리 국립대학 IT 및 어학 센터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IT and Linguistics Center(ITLC) of Al Zaeim Al Azhari University

아자리 국립대학Al Zaeim Al Azhari University은 1990년 설립된 수단의 5대 국립대학 중 하나다. 수단 정부는 학교 발전과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아자리 국립대학 IT 및 어학 센터 건립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당시 수단의 IT 교육 시설은 수도인 하르툼에서조차 소규모 사설 학원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아자리 대학에 유일한 컴퓨터 실습실이 있었지만 컴퓨터가 매우 낡아 기껏해야 최소한의 이론 교육과 실습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90만 달러를 지원해 아자리 국립대학에 IT 및 어학 센터ITLC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이 시작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숙련되지 않은 현지 건설 인력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광대한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가공할 모래 폭풍은 어학 센터 건립에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

결국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KOICA와 수단 정부는 하르툼 북부 'Bahri' 캠퍼스 내 600㎡ 부지에 수단 최초의 어학 센터를 건립했다. 이 어학 센터는 최신 IT 지식을 비롯하여 외국어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교육 시설과 교사의 절대 부족으로 IT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과 공무원들에게 정보통신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학 교육을 통해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KOICA는 어학 센터가 건립된 후에도 독자적인 운영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관리자와 교수진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IT 분야의 기술 교육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사업명 수단 아자리 국립대학 IT 및 어학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90만 달러 | **지원 내역** 어학 센터 건축, 기자재 공급,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5 SUDAN

2차 지원으로 한층 전문화된 기술을 제공하다

한 · 수단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Project for the Upgrading of the Korea-Sudan Vocational Training Center

KOICA가 지원한 제1차 한 · 수단 직업훈련원 설립 이후 11년이 지났다. 2008년 수단 정부는 한 · 수단 직업훈련원이 수단 내 다른 직업훈련원과 차별화되는 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2차 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는 그동안의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훈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80만 달러를 투입해 직업훈련원 본관과 실습동 등 부대시설을 개 · 보수하고 기자재 제공 및 연수생을 초청하는 한편 전문가 파견 등의 후속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급변하고 있는 수단의 산업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자동차 · 전기 · 전자 · 컴퓨터 등 4개 공과를 특화시켜 집중 지원하고, 수단의 유일한 자동차 조립 생산 업체인 'GIAD Motors' 와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KOICA의 2차 지원 덕분으로 한 · 수단 직업훈련원은 다른 직업훈련원과는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직업 훈련 기관으로 재탄생했다. KOICA의 1차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이 양국 간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 · 수단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상징적인 사례였다면, 2차 지원에서는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를 특화시켜 보다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명 한 · 수단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8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설 개 · 보수,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ANGO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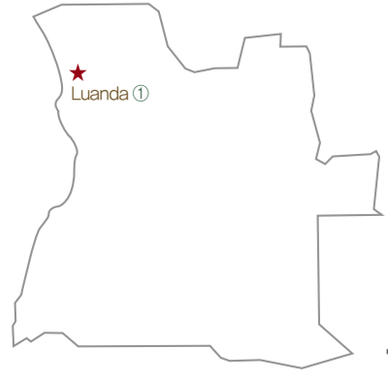
27년간 내전을 겪은 앙골라는 원유 수출이 외화 획득원의 90%를 차지한다.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세계 제4위다. 국내 제조업 기반이 부실해 거의 모든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며, 최근 수년간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100~300%를 넘는다. **글 · 권새봄**

앙골라는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후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소련의 원조를 받았다. 27년간의 내전으로 교량과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은 완전히 파괴되고, 국민들은 기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앙골라 경제는 국가 계획 경제의 실패와 과도한 외채, 극심한 인플레, 가파른 환율 상승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었다.

하지만 앙골라는 석유와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원유 생산량이 많으며,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세계 제4위다. 앙골라 정부는 현재 도로망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앙골라는 2002년 4월 반정부군과의 휴전협정 체결 후 전후 복구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앙골라의 카빈다Cabinda 지역과 목시코Moxico 지역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유니타(UNITA : 앙골라 완전독립 민족 동맹) 반군의 게릴라 활동으로 채벌이 중지되고, 벌목 장비 부족과 도로 · 수송 차량 등의 미비로 본격적인 개발이 지연되었던 곳이다.

우리나라는 앙골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앙골라 정부의 친북 정책으로 실현시키지 못하다가 1991년 5월 말 친소 정부군MPLA과 미국의 지원을 받던 반정부군UNITA 간의 휴전이 성립된 후 1992년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국명 앙골라공화국(Republic of Angola) **정체** 공화제 **기후** 열대성 기후 **인구** 1천2백53만1천3백57명(2008년 기준) **면적** 1,246,700㎢ **1인당 국민소득** 3천7백57달러 **수도** 루안다(Luanda) **민족** 오빔분두족(37%), 킴분두족(25%), 바콩고족(13%), 기타(25%) **문자 해독률** 67% **종교** 가톨릭(38%), 기독교(15%), 토착 종교(47%) **공용어** 포르투갈어



| 앙골라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5세 이상 노동 활동 인구 비율** 1995년부터 2007년까지 76%로 동일 • **15세 이상 24세 미만 노동 활동 인구 비율** 1995년 70%, 2000년 69%, 2007년 68%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2000년 53% 외 보고 자료 없음.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기초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0년 92%, 2000년 86%, 2007년 92% • **국회 여성 의원 비율** 1990년 15%, 2000년 16%, 2007년 15%로 예전 비율과 거의 동일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사망률(인구 1천 명당)** 1990년 2백58명, 1995년 2백30명, 2000년 1백91명, 2007년 1백58명으로 감소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1990년 38%, 1995년 46%, 2000년 41%, 2007년 88%로 증가 • **유아 사망률(1천 명당)** 1990년 1백50명, 1995년 1백37명, 2000년 1백26명, 2007년 1백16명으로 감소세
모성 보건 증진	• **모자 사망 인구(10만 명당)** 1천4백 명(2007년 기준) • **숙련된 산파 지원을 받는 출산율** 2000년, 2007년 47%로 동일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사이 인구 중 HIV 양성자** 1990년 0.3%, 1995년 0.7%, 2000년 1.5%, 2007년 2.1%로 증가 • **결핵 인구(10만 명당)** 1990년 2백5명, 1995년 2백26명, 2000년 2백50명, 2007년 2백87명으로 증가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1990년 39%, 1995년 40%, 2000년 44%, 2007년 51%로 증가 • **위생 시설 접근성** 1990년 26%, 1995년 30%, 2000년 40%, 2007년 50%로 증가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1990년 25달러, 1995년 34달러, 2000년 22달러, 2007년 14달러로 감소 • **인터넷 사용률**(1백 명당) 1990년 0%, 2000년 0.1%, 2007년 2.9%로 증가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country data 참조

01 ANGOLA 앙골라 전후 복구 사업 지원

외교부 전산망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Modernization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of the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

앙골라는 1975~2002년까지 27년간 내전을 치렀다. 이로 인해 국토는 피폐해지고, 경제는 악화되었으며, 1백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내전이라고는 하지만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가난하고 힘없는 제3 세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2002년 앙골라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앙골라 공용어인 포르투갈어라는 언어 문제와 낙후된 행정 체계 등 수용 능력을 감안해 기자재 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 KOICA는 7만 달러를 들여 앙골라 외교부 전산망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컴퓨터 10대, 노트북 5대, 컴퓨터용 'UPS(무정전 전원 장치)' 10대, 프린터 5대, 복사기 등 기자재를 제공하고, 앙골라 ICT 실무자 2명을 1주일간 국내로 초청해 ICT 기술과 외교부 전산망 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사업명 앙골라 외교부 전산망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7년 | **사업 규모** 7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ALGERIA

알제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와 함께 아프리카 3대 경제 대국이다. 전 세계에서 열 번째,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지중해와 아랍, 아프리카 지역이 만나는 마그레브 중앙에 위치한다. 알제리는 지중해 연안국 중 가장 아름다운 1,200km에 이르는 해안과 사하라 사막이란 막대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다. 글 · 김영란

알제리는 과거 130년간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았으나 1954~1962년까지 8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통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 「이방인」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카뮈는 알제리 출신 프랑스인이다. 3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 70%가 30대 이하로 경제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개도국 중 하나다. 전 국토의 4/5 정도에 걸쳐 천연 가스와 석유 · 철 · 아연 · 금 · 인산 · 우라늄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15번째 원유 보유국이자 8번째 천연 가스 보유국이다.

알제리는 2백4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방대한 국토를 가진 전통적인 농산물 수출국이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함께 농업 개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현재는 식량 수입에 30~40억 달러를 지출하는 식량 수입국이 되었다. 알제리 정부는 비원유 부문으로 산업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철도, 항만과 같은 교통 분야와 도시 계획 등 경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KOICA는 아프리카 5대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알제리와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1~2008년까지 17년간 총 6백32만 달러의 무상 원조를 제공했다. 특히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 이후 공무원 초청 연수 등 인적 자원 개발과 알제리의 'WTO' 가입을 위해 산업 구조 재편 및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명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정체** 인민공화제 **기후** 지중해성 기후 **인구** 3천2백90만 명(2006년 기준) **면적** 2,381,740㎢ **1인당 국민소득** 3천86달러 **수도** 알제(Algiers) **민족** 아랍인 · 베르베르인 99% **문자 해독률** 30%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99% **공용어** 아랍어 · 베르베르어 · 불어



| 알제리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영양 실조에 걸린 인구 비율** 1990년 17%에서 2007년 14%로 감소 • **5세 이하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수** 2007년 23.2% • **15세 이상 노동 활동 인구** 1990년 63%에서 2007년 61%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2000년 85%에서 2007년 89%로 상승 • **15세~24세 문자 해독률** 여아 87%, 남아 91% 수준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초등 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2000년 96%에서 2007년 106%로 상승 •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고용된 여성 비율** 2000년 36.3%에서 2005년 22%로 감소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인구 1천 명당)** 2000년 83명에서 2007년 68명으로 감소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2000년 73%에서 2007년 82%로 상승
모성 보건 증진	• **모자 사망 인구(인구 10만 명당)** 1990년 4백30명에서 2007년 4백 명으로 감소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1990년 50%에서 2007년 65%로 상승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의 인구 중 HIV 양성자** 1990년 0.3%, 1995년 0.7%, 2007년 0.8% 수준 • **결핵 인구(10만 명당)** 1990년 1백25명, 1995년 1백28명, 2000년 1백36명, 2007년 1백39명으로 상승 추세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1995년 79%, 2000년 82%, 2007년 86%로 개선 •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5년 4.1톤에서 2007년 4.5톤으로 상승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1990년 11달러, 2000년 10달러, 2007년 16달러 • **인터넷 사용자 수(1백 명당)** 1990년 2명에서 2007년 51명으로 대폭 증가

01 ALGERIA 최첨단 도시 인프라 공사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다

시디 과학 기술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Master plan on the Development of Sidi Abdellah Science & Technology new Town



알제리 정부는 수도인 알제 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선도할 첨단 기술 위주의 산업 기반 확충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알제에서 25㎞ 떨어진 시디 압델라 지역에 인구 20만 규모의 과학 기술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1년 알제리 정부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 · 알제리 공동위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3~2004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시디압델라 지역 29,931,000㎡ 부지에 11,979,000㎡ 규모의 과학 기술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초 조사를 비롯하여 첨단 과학 기술 산업 유치 전략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2008년 9월 우리나라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8천3백억 규모의 첨단 과학 기술 신도시 인프라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이 사업추진을 계기로 시디압델라 사이버파크 인근 3,000ha 부지가 사업 대상지였다. 알제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와 함께 아프리카 3대 경제 대국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대상국이다. KOICA는 알제리 최초의 최첨단 도시 인프라 구축에 우리나라 기업을 주도적으로 참여시켰고,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업명 알제리 시디 과학 기술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 **사업 기간** 2003~2004년 | **사업 규모** 100만달러 | **지원 내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02 ALGERIA

전략적 동반자로서 경제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다

국가 산업 정책 전략 및 이행 계획 자문

Policy Consulting on the Blue Print for Industrial Development of Algeria



"아프리카 대륙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전환점을 맞으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2007년 11월 14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 지표 2007' 보고서 내용이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급속한 성장을 주도하는 선두 그룹에 알제리가 있다. 석유, 가스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마그레브의 중심 국가인 알제리는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의 기간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0년간 사회주의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인력 개발 투자에 의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3년 알제리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 당시 양국은 기존의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나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후속 사업으로 알제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산업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알제리 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을 초청, 국내 연수와 5차례에 걸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알제리 산업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와 세계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을 실시했다. 또한 알제리 정부가 수립 중인 중·장기 산업 개발 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섬유·석유화학·자동차·철강·ICT·제약·비료 분야 등 핵심 산업별 세부적인 집행 계획을 제안했다. 이는 비단 알제리의 산업 정책뿐만 아니라 수출 촉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비롯하여 기술·지역·인력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노하우와 경제 개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 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KOICA는 이를 계기로 알제리의 산업 기반을 다양화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업명 알제리 국가 산업 정책 전략 및 이행 계획 자문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워크숍 및 전문가 파견, 자문 보고서 발간 및 연구, 국내 초청 연수



03
ALGERIA

한국의 선진 농업으로 씨감자 파동에서 벗어나다

농작물 생산 기술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echniques of Seed Potato Production

과거 전통적인 농산물 수출국이었던 알제리는 인구 증가와 함께 농업 개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농산물 소비량의 50%를 수입하는 식량 수입국이 되었다. 알제리 정부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제리의 주요 식량원은 감자다. 감자를 생산하는 데 씨감자 의존도는 75%, 씨감자 비용은 생산비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그러나 씨감자 육종과 생산 · 보관 등에 대한 기술이 미흡해 대부분의 씨감자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어, 수입국의 작황에 따라 씨감자 부족 파동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과 보급을 통해 1억 달러에 달하는 씨감자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알제리 농작물 생산 기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180만 달러를 투입해 감자 주산지인 알제리 서남부 티아렛 지역에 씨감자 생산 시설(실험동 500m^2 및 유리 온실 500m^2)을 설계 · 시공하고 실험 기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티아렛 지역에 씨감자 재배를 위한 제반 시설을 확충하고 종자 개량을 위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실시해 알제리의 씨감자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식량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KOICA를 통해 알제리에 보급된 무균 씨감자 생산 기술(조직 배양, 양액 재배, 바이러스 검정 등)과 육종 기술은 농업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게 될 것이다.

사업명 알제리 농작물 생산 기술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180만 달러 | **지원 내역** 실험용 건물 및 저장고, 유리 온실 건축, 전문가 파견 및 국내 초청 연수, 기자재 지원

04 ALGERIA

선박 안전 관리, 세계가 인정한 한국에 맡기세요!

선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Enhancing Ship Safety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알제리는 1,200㎞의 해안선과 넓은 영해를 갖고 있지만 조선 산업을 비롯하여 해운 · 해양, 수산 항만 및 어업 개발 분야는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알제리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아래 2009년까지 70억 달러를 투자해 29개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선 3천여 척을 확보하는 등 수산업 개발과 함께 종합적인 선박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선박 안전 관리에 관한 알제리의 현행 법령은 경제 개발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수산, 항만 및 어선 현대화 사업 등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 협약에 따른 안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탓에 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알제리 정부는 알제리 선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우리나라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5년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협력체가 실시한 점검 결과 57개 국가 중 선박 안전 관리 최우수 국가로 평가받은 바 있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알제리의 선박 안전 기본 법령 개정을 자문(선박 안전 및 검사 관련 규정 개정, 길이 24m 미만 어선의 현행 기술 기준 개정, 선박 안전 관련 법령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선박의 안전 관리 및 검사, 설계와 건조 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KOICA는 알제리 정부의 수산업 개발 정책을 뒷받침할 선박 안전 관리 법령을 정비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선박 안전 관리 및 설계 기술을 전수하여 알제리 선박의 안전성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조선 기술과 선박 안전 관리 수준도 향상시켜 알제리의 조선업과 수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 해사 기구IMO 회원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사업명 알제리 선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선박 안전 검사, 법령 개선 등 전문가 파견, 선박 안전 관리, 선박 건조 설계, 국내 초청 연수

05 ALGERIA

사막에서도 새우가 자랄 수 있는 양식장을 만든다

새우 양식장 건설 및 기술 이전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Shrimp Farming

1,200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가진 알제리는 영해의 대부분이 청정 해역이지만 어로 및 양식 기술이 낙후해 수산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수산 기술 습득에 역점을 둔 수산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230만 달러를 투입해 새우 양식장 건







설 및 기술 이전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양식을 위한 종묘 배양장과 1ha 규모의 양식장을 건설하고, 양식 기술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어업 기술을 종합적으로 전수할 계획이다.

KOICA는 알제리 북부 스키다Skida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나 알제리 정부의 요청으로 사하라 사막 와글라Ouagla 지역에서도 '사막 새우 양식'이라는 유례없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사하라 사막은 860㎢의 면적에, 동서 길이만 5,600km에 달하며 건조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런 지역에서 새우를 양식하는 KOICA의 사업이 성공한다면 식량 증산으로 인한 소득 창출과 더불어 그 홍보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알제리 정부는 KOICA의 지원으로 연간 20~30톤의 보리새우와 흰 다리 새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식장이 건립되면 소득 창출과 함께 양질의 새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식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육식 위주인 알제리 국민의 식단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명 알제리 새우 양식장 건설 및 기술 이전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230만 달러 | **지원 내역** 새우 양식장(종묘 배양장 및 양식장) 건설,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ZAMBIA

잠비아 정부는 2005년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채무 탕감과 구리 산업 붐으로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 같은 경제 성장을 앞으로 어떻게 서민층의 생활수준 향상과 빈곤층 감소로 이어 나가는가가 경제 발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인 구리 생산은 가격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지속적인 경기 활성화는 아직 미지수다. 글 · 권새봄

잠비아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세계은행은 잠비아를 부채 탕감 완성 단계라고 인정했다. '고채무국 이니셔티브'에 따라 잠비아의 부채 탕감액은 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개발협회IDA는 2001~2020년간 8억8천5백만 달러를 탕감할 예정이며, 국제통화기금IMF도 2001~2008년간 6억2백만 달러를 탕감한다고 발표했다. 그 밖에 기타 국제기구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잠비아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비아 국민의 70%는 빈곤층에 속한다. 2006년 11월 잠비아 정부는 '5차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빈곤 감소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이를 실현하기에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자체 내 개발 역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원조 관리 분야와 정부 시스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잠비아 국민 중 극빈곤층은 58%에서 53%로 줄었으나 여전히 절대적 극빈곤층이 많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국명 잠비아공화국(Republic of Zambia) **정체** 공화제(영연방) **기후** 아열대 기후 **인구** 1천1백66만9천5백34명(2008년 기준) **면적** 752,614㎢ **1인당 국민소득** 9백17달러 **수도** 루사카(Lusaka) **민족** 반투계 민족(통가족, 날자족 등) **문자 해독률** 19% **종교** 기독교(50~70%), 이슬람교 · 힌두교(24~49%), 토착 종교 **공용어** 영어

| 잠비아 새천년 개발 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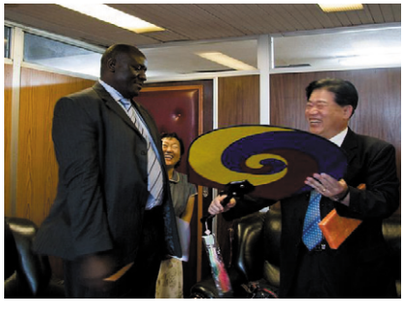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5세 이상 취업률** 1995년 57%, 2000년 61%, 2007년 61%로 동일 • **15세 이상 24세 미만 취업률** 1995년 41%, 2000년 46%, 2007년 47%로 다소 증가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교육 취학자** 2000년 68%, 2007년 95%로 증가 • **초등학교 이수율** 2000년 60%, 2007년 88%로 증가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기초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0년 91%, 1995년 92%, 2000년 93%, 2007년 97%로 점차 증가 • **국회 여성의원 비율** 1990년 7%, 2000년 10%, 2007년 15%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인구 1천 명당)** 1990년 1백63명, 1995년 1백78명, 2000년 1백78명, 2007년 1백70명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1990년 90%, 1995년 86%, 2000년 85%, 2007년 85%로 동일 • **아동 1천 명당 유아 사망률** 1990년 99명, 1995년 1백7명, 2000년 1백8명, 2007년 1백3명
모성 보건 증진	• **모자 사망 인구(인구 10만 명당)** 8백30명(2007년 기준)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47%(2007년 기준) •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여성 출산율** 2000년 1백44명, 2007년 1백25명으로 다소 감소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 중 HIV 양성자** 1990년 8.9%, 1995년 16.3%, 2000년 15.5%, 2007년 15.2% • **결핵 인구(10만 명당)** 1990년 2백97명, 1995년 5백36명, 2000년 6백2명, 2007년 5백6명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1990년 50%, 1995년 53%, 2000년 54%, 2007년 58%로 다소 증가 • **깨끗한 위생 시설 접근율** 1990년 42%, 1995년 45%, 2000년 49%, 2007년 52%로 다소 증가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1990년 58달러, 1995년 2백19달러, 2000년 76달러, 2007년 88달러 • **1백 명당 인터넷 사용자 비율** 1990년 0%, 2000년 0.2%, 2007년 4.2%로 증가

01 ZAMBIA

산모가 초음파 검사 한 번 받기 어려워

모자 보건 역량 강화 사업

Strengthening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in Zambia





2008년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잠비아의 평균 수명은 43세, 5세 이하 유아 사망률은 1천 명당 1백82명에 달한다. 이는 빈곤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비아 정부조차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대개의 원조 공여국들은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보건 분야를 제외하고 있어, 잠비아 정부는 모자 보건 관련 의료 장비 제공과 보건 의료 인력 훈련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년 13만 달러를 투입해 초음파 검사기 1대 · 인큐베이터 6대 · 심전도계 4대 등 산전 관리 및 중증 신생아 관리를 위한 의료 기자재를 제공했다. 아울러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기자재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기자재의 하자 보증을 통한 2년간의 사후 관리 시스템도 마련했다. KOICA는 모자 보건 역량 강화 사업에 이어 2008~2009년까지 '루사카 주 총궤 군 모자 보건 서비스 개선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KOICA는 단기적으로는 잠비아의 모자 보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맞춰 모성 사망률과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산모의 적절한 산전 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 등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아동사망률을 감소시켜 모자 보건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잠비아 모자 보건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년 | **사업 규모** 13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사업 평가





02
ZAMBIA

31개 보건소에 의료 장비 지원

루사카 주 총궤 군 모자 보건 서비스 강화 사업

The Project For Improv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Service
In CHONGWE Dictict, LUSAKA Province

1991년부터 잠비아 정부는 의료 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는 '전략적 의료 계획'을 세우고 2005~2009년까지 보건부 관련 조직 개편을 통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들 간의 의료 서비스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잠비아 정부는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의 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 도입과 실행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에 옮기는 중이다. 특히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2007년 잠비아 정부는 루사카 주 총궤 군에서 모자 보건 서비스 강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60만 달러를 투입해 루사카 주 총궤군 31개 보건소와 보건 지소에 분만 세트와 소독기 등 의료 장비를 제공하고,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해 중대형 발전기를 설치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구체적인 모자 보건 모델을 수립하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모자 보건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아울러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통신 수단 확보를 위해 라디오 시스템을 구축하고 앰뷸런스와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 환자 운송 수단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안전한 지하수를 공급해 수인성 질환을 줄이기 위해 공동 우물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명 루사카 주 총궤 군 모자 보건 서비스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6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사업 관리, 우물 설치

ZIMBABWE

짐바브웨는 한때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로 불릴 만큼 풍요로운 나라였다. 하지만 200만 퍼센트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세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다. 1천억 원짜리 짐바브웨 달러 지폐로 살 수 있는 것은 빵 한 조각, 또는 달걀 2개뿐이다. 글 · 라갑채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대륙 남부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모잠비크, 남쪽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북쪽으로 잠비아, 서쪽으로는 보츠와나와 국경을 접한다. 1888년부터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의 지배를 받았고, 1923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1953년 로디지아 · 니아살랜드 연방으로 편입, 1963년 연방 해체 후 영국의 자치 식민지로 남았다가 1980년 총선 후 독립했다. 1987년 12월 31일 이후 지금까지 로버트 가브리엘 무가베Robert Gabriel Mugabe 대통령이 집권 중이다. 짐바브웨의 2000년 이후 급진적으로 실시된 토지 개혁과 2002년 대통령 선거 및 집권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정치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비화되었다. 그 후 영국과 미국, EU 등 대부분 서방 원조국들은 짐바브웨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단했다.

KOICA는 짐바브웨의 농업 기술 및 기계화와 관련한 시험 · 평가, 농기계 운용 등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짐바브웨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열악한 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HIV/AIDS 퇴치 등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지원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짐바브웨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중심 국가로 비약하고자 하는 짐바브웨는 2008년에서 2013년까지 경제 개발 계획으로 11개 중점 과제를 설정해 추진 중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농업 분야와 보건 분야다.



국명 짐바브웨 공화국(Republic of Zimbabwe) **정체** 민주공화국(대통령 중심제) **기후** 아열대 기후, 연평균 강우량 700mm **인구** 1천2백23만 명(2006년 기준) **면적** 390,580㎢ **1인당 국민소득** 340달러(2006년 기준) **수도** 하라레(Harare, 인구 1백44만 명, 구명 : Salisbury) **민족** 쇼나족 78%, 은데벨레족 20%, 기타 2% **문자 해독률** 90%(2005년 기준) **종교** 기독교(60~70%), 토착신앙(20~30%), 기타 10% **공용어** 영어(공용어), 토착어(쇼나어 및 은데벨레어)

| 짐바브웨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영양실조에 걸린 인구 비율 2007년 40% 수준 • 5세 이하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수 2000년 11.5%에서 2007년 14%로 증가 • 15세 이상 노동 활동 인구 2000년 68%에서 2007년 67%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교육 취학자 2000년 84%에서 2007년 88%로 상승 • 15세~24세 문자 해독률 여아 88%, 남아 94% 수준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초등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2000년 97%에서 2007년 99%로 상승 • 중등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2000년 88%에서 2007년 93%로 상승 •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고용된 여성 비율 1995년 17.2%에서 2000년 20.4%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인구 1천 명당) 2000년 1백22명에서 2007년 90명으로 감소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2000년 75%에서 2007년 66%로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모자 사망 인구(인구 10만 명당) 2007년 8백80명 수준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2000년 73%에서 2007년 69%로 감소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의 인구 중 HIV 양성자 2000년 27.3%, 2007년 15.3% 수준으로 감소 • 결핵 인구(10만 명당) 2000년 6백85명, 2007년 7백82명으로 상승 중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2000년 80%에서, 2007년 81%로 거의 동일 •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0년 1.2톤에서 2007년 0.9톤으로 감소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2000년 14달러, 2007년 35달러 • 인터넷 사용자 수(1백 명당) 2000년 0.4명에서 2007년 10.1명으로 대폭 증가

01 ZIMBABWE

지방 병원이 5개밖에 없는 나라가 있다니…

모자 보건 역량 강화 사업

Strengthening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in Zimbabwe

짐바브웨에서는 엄청난 인플레 탓에 1천억 원짜리 짐바브웨 달러 지폐가 통용될 정도다. 그런데 1천억 원 지폐로 살 수 있는 것은 빵 한 조각, 또는 달걀 2개뿐이다. 그것도 세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린 후에 말이다.

2008년 8월, 1백억 원 짐바브웨 달러를 1짐바브웨 달러로 명칭 절하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짐바브웨의 인플레는 2백만 퍼센트를 넘는 세계 기록을 갖고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짐바브웨의 보건 의료 서비스는 극도로 열악하다. 출산 중 산모가 사망할 확률은 선진국에 비해 3백50배나 높고, 유아 사망률은 22배나 높은 정도다. 그 이유는 짐바브웨에는 산부인과를 포함한 지방 병원이 5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테벨란드 북부Matebeleland North 지역에도 병원은 하나도 없다. 짐바브웨 정부는, 마테벨란드 북부 지역 주민 7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루파네Lupane 병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년 11만 달러를 들여 짐바브웨 모자 보건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음파와 인큐베이터 등 모자 보건 관련 4종의 의료 기기를 제공하고, 기술자와 보건 정책 관리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의료 기기에 대해서 2년간의 사후 관리를 해주었다.

KOICA의 사업에 만족한 짐바브웨 정부는 2008년 다시 블라와요 시 남부 지역 병원 의료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50만 달러를 투입해 모자 보건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짐바브웨의 모자 보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에 맞춰 모성 사망률과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짐바브웨 모자 보건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년~2008년 | **사업 규모** 11만 달러(2007년) / 150만 달러(2008년)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02 ZIMBABWE 농업 잠재력은 크지만 장비도, 기술도 없어

농업부 농업 장비 훈련 센터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Upgrading the Agricultural Engineering Training Center, Ministry of Agricultur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로 불리는 빅토리아 폭포를 가진 짐바브웨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다. 인구의 90% 이상이 영어를 구사하고, 관광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농업이 짐바브웨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0%로 이는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짐바브웨 인구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한다. 더욱이 주요 수출 품목 역시 면화와 담배 같은 농산물과 광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업 개발은 국가 발전의 중요 과제다. 짐바브웨는 국가별 연간 재생 수자원량 조사에서 146위를 차지한 한국보다 상위에 있으며, 큰 강과 호수가 많아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수자원이 풍부하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기초적인 농업 장비와 숙련된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짐바브웨 정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을 기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농기계가 워낙 부족한 데다 운용 및 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짐바브웨 농업부는 우리나라의 농촌 개발 경험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년 12만 달러를 들여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Harare에 있는 농업장비 훈련 센터에 콤바인과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공하고, 훈련 센터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농기계 관리와 유지 · 보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KOICA는 짐바브웨의 농업 장비를 현대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농업부 농업 장비 훈련 센터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7년 | **사업 규모** 12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03 ZIMBABWE 짐바브웨 인구의 20%는 AIDS 보균자

블라와요 시 남부 지역 병원 의료 역량 강화 사업
The medical capacity building project for the central hospitals(UBH&Mpilo) at Bulaway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짐바브웨의 평균 수명은 여자는 43살, 남자는 44살이다. 세계식량계획의 자료를 보면 1천3백만 인구 중 45%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짐바브웨 인구의 20%는 AIDS 보균자로 조사되었다. AIDS로 인한 결핵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 밖에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고혈압과 환경성 질환도 증가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2008년 8월 짐바브웨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이후 2009년 1월 18일 현재 사망자가 2천3백37명에 달하며, 콜레라 감염 의심 환자 수도 4만4천4백63명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짐바브웨 보건부는 블라와요 시를 중심으로 남부 지역 의료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보건 의료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2008~2009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짐바브웨 제2의 도시인 블라와요 시 2개의 중앙병원에 있는 노후한 의료 기기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2개의 병원에 분만실 장비 9종 · 산과병동 장비 7종 · 중환자실 장비 9종 · 신생아 중환자실 장비 5종 · 응급실 장비 5종 · 방사선실 장비 3종 · 임상병리실 장비 3종 등의 의료 기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전문가 5명을 현지에 파견해 기자재 사용 방법을 교육시켰다. KOICA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앞으로 치료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짐바브웨 블라와요 시 남부 지역 병원 의료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04 ZIMBABWE

식량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빵바구니'

농기계 시험 평가 센터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Equipment Testing Center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최소한 88만 명의 짐바브웨 국민이 '국내 난민IDPs'으로 떠돌고 있다. 유엔의 '인간 개발보고서 2007/2008'에 따르면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층이 전체 인구의 83%에 이른다. 2008년 짐바브웨 국내 난민들은 질병과 기아를 피해 남아공 국경을 넘으려 했으나 남아공 정부는 콜레라 같은 전염병을 우려하여 국경을 폐쇄했다.

짐바브웨는 현재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나 과거에는 육류와 옥수수, 그리고 환금작물인 엽연초와 면화, 설탕 등을 수출하면서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로 불릴 만큼 풍요로웠다.

짐바브웨 정부는 198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백인이 소유했던 농장을 몰수해 원주민들에게 재분배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기계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농작물 재배 면적도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자연환경도 큰 피해를 끼쳤다. 농작물 생산량이 강우량에 크게 좌우됨에 따라 1992년과 1995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친 홍수와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가뭄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초래했다. 여기에 2백만 퍼센트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을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세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짐바브웨 정부는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 5월 짐바브웨 정부는 농기계화부를 신설하면서 농기계 관리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에 농기계 시험 평가 센터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짐바브웨 정부의 농업 기계화 정책에 맞춰 2008~2009년까지 276만 달러를 투입해 농기계 시험 평가 센터를 건립하고 기자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내 초청 연수와 전문가 파견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짐바브웨의 농기계 시험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기계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끝나면 농기계 시험 평가 센터는 국내산 농기계와 수입산 농기계의 정확한 품질 파악 및 농기계 관리를 현대화하고,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기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 생산성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짐바브웨 농기계 시험 평가 센터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76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관계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트랙터 시험 평가 센터 개선, 이동식 수리 센터 장비 지원, 공사 감리



DRC

아프리카 동부 최대의 미개척지인 콩고민주공화국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토질이 비옥해 '아프리카의 물 저장고' '아프리카의 양곡 창고'라고 불릴 만큼 발전 잠재력이 크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부패, 그리고 계속된 내전으로 인해 콩고의 경제는 피폐화됐다. 글 · 권새봄

콩고민주공화국은 인구 6천여 만의 나라로 아프리카 중앙부 적도상에 위치하며 한반도의 11배, 미국의 4분의 1에 달하는 국토를 가졌다. 중부와 서부는 콩고 강으로 형성된 거대한 분지를 이룬다. 세계 제3위의 산림자원 보유국, 다이아몬드 보유량 세계 제3위, 금 보유량 세계 제10위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석유와 구리, 코발트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졌다. 콩고는 1960년대 남아공보다 더 부유한 나라였다. 하지만 천혜의 경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부패, 그리고 계속된 내전으로 인해 경제는 피폐화됐다. '세계식량계획WFP'에 의하면 콩고는 전체 국민 중 1천6백만 명이 식량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정상적으로 필요한 칼로리의 3분의 2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국민의 80%가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70%의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며, 어린이 사망률은 10만 명당 1천8백50명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전쟁과 경제 붕괴로 공중보건 또한 형편없으며, 인구의 37% 이상이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국명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정체** 대통령 중심제 **기후** 열대성 고온 다습한 기후, 연평균 27℃ **인구** 6천6백51만4천5백4명(2008년 기준) **면적** 2,345,410㎢ **1인당 국민소득** 1백66달러 **수도** 킨샤사(Kinshasa) **민족** 반투족, 망베투아잔데족 등 2백여 부족 **문자 해독률** 68% **종교** 가톨릭(50%), 기독교(20%), 회교(10%), 토착 종교(10%) **공용어** 프랑스어 · 링가라어 · 스와힐리어 · 키콩고어 · 치루바어



| 콩고민주공화국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5세 이상 취업률** 1995년 67%, 2000년 66%, 2007년 66%로 거의 동일 • **15세 이상 24세 미만 취업률** 1995년 60%, 2000년 60%, 2007년 61%로 거의 동일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이수율** 2007년 51%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기초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0년 71%, 1995년 69%, 2000년 90%, 2007년 81% • **국회 여성 의원 비율** 1990년 5%, 2007년 8%로 다소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인구 1천 명당)** 1990년 2백 명, 1995년 1백92명, 2000년 1백79명, 2007년 1백61명으로 다소 감소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1990년 38%, 1995년 27%, 2000년 46%, 2007년 79%로 증가 추세 • **아동 1천 명당 유아 사망률** 1990년 1백27명, 1995년 1백22명, 2000년 1백16명, 2007년 1백8명으로 다소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모자 사망 인구(인구 10만 명당)** 1천1백 명(2007년 기준)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2007년 74% • **15세 이상 19세 미만 여성 출산율** 2000년 2백30명, 2007년 2백22명으로 다소 감소 • **결핵 인구(10만 명당)** 1990년 1백65명, 1995년 2백38명, 2000년 3백43명, 2007년 3백92명으로 증가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 중 총 HIV 보균자 비율** 2000년 0.8%에서 2007년 0.8%로 상태 유지 • **인구 10만 명당 결핵 감염률** 1990년 1백40명에서 2006년 103.5명으로 다소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1990년 43%, 1995년 44%, 2000년 45%, 2007년 46%로 다소 증가 • **깨끗한 위생 시설 접근율** 1990년 15%, 1995년 17%, 2000년 25%, 2007년 31%로 다소 증가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1990년 24달러, 1995년 4달러, 2000년 3달러, 2007년 19달러 • **1백 명당 인터넷 사용자 비율** 1990년 0%, 2000년 0%, 2007년 0.4%로 증가

01 DRC 정부 기관에도 전화가 없다

4개 부처 정부 통신망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Government Network



콩고민주공화국은 2006년 말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요 정부 기관 사무실에는 유선 전화도, 팩스도 없다. 유선 전화가 없는데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을 리가 없다. 공무원들은 휴대폰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 간 문서 수발은 인편으로 이루어진다.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직원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1천 명당 3명에 불과하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해 통신비용을 절감하고, 정부 기관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4개 부처 통신망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외교부 · 공공행정부 · 대통령실 · 총리실의 IC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61만 달러를 투입해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 전화교환망PBX을 설치하고, 정부 부처 간 이메일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했다. KOICA는 콩고의 행정 부처 중 가장 중요한 부서에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IT 기자재를 제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 전자정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제 4개 정부 부처에는 유선 전화망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운용할 수 있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화 시스템이 갖춰졌다. 이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최초의 유선 통신망 구축 사업이었다. KOICA의 사업을 높이 평가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추가로 6개 부처의 통신망 구축 사업을 요청해 왔고, 현재 6개 부처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명 콩고민주공화국 4개 부처 정부 통신망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61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재원, 사업 관리 전문가 파견 및 국내 초청 연수



02 DRC

비싼 핸드폰 대신 이제는 유선 전화로 업무 처리

콩고민주공화국 6개 부처 정부 통신망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Government Network of 6 Ministries



콩고민주공화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활력을 찾으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996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 시내에 콩고민주공화국 최초의 현금 지급기가 설치된 것이다. 현금 지급기 설치가 뉴스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콩고민주공화국이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4개 부처에 유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1차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6개 부처에도 유선 통신망을 확대, 구축해 달라는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까지 250만 달러를 투입해 법무부 · 재무부 · 예산부 · 기획부 · 정보통신부, 재건부 등 6개 부처의 통신망 확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선 'LAN · WAN' 및 유선 전화망을 설치하고, 업무 정보화를 위한 이메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기자재 설치와 설비 운영 기술을 교육하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전산 관리와 시스템 및 ICT 기자재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KOICA의 지원으로 정보 통신망이 구축되면 인편으로 이루어지던 문서 수발은 데이터 통신 방식으로 변하고,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던 핸드폰 대신 유선 전화의 사용으로 통신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KOICA는 콩고민주공화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명 콩고민주공화국 6개 부처 정부 통신망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광케이블 공사,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CÔTE D'IVOIRE

코트디부아르는 영어로 '상아 해안(Ivory Coast)' 이란 말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코트디부아르는 북서부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풍부한 자원을 가졌다. 불어가 공용어지만 문맹률은 52%에 달한다.

글 · 권새봄

코트디부아르는 북서부 아프리카 해안에 면해 있으며 영어권에서는 '상아 해안Ivory Coast'이라고 부른다. 과거 유럽의 강국들이 상아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몰려들면서 상아 매매의 중심지가 되었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코트디부아르는 북서부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농업이 발달한 코트디부아르는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코트디부아르의 농산물 중 코코아는 연 1백45만 톤으로 세계 제1위, 커피는 22만 톤으로 세계 제4위를 차지한다. 코트디부아르는 1980~1990년대에 걸쳐 지속된 경기 침체에서 탈피해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 '아시아의 용'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아프리카의 코끼리'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기업의 민영화와 투자 확대, 수입 자유화 등 경제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인적 자원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코트디부아르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후 복구 작업인 'DDR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과 총선 실시다. 코트디부아르는 2002년 9월 이래 정부와 반군 간 내전이 지속되다가 2007년 3월 9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내전 후 국가 재건을 위한 사회 재통합과 평화적 선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빈곤율은 33.6%였으나 내전으로 인해 2007년 3월에는 44%로 증가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개발지수는 177개국 중 164위를 차지하고, 내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다. 불어가 공용어지만 문맹률은 52%에 달한다.

국명 코트디부아르공화국(Republique de Côte d'Ivoire) **정체** 대통령 중심제 **기후** 열대우림 기후 **인구** 2천17만9천6백2명(2008년 기준) **면적** 322,460㎢ **1인당 국민소득** 1천45달러 **수도** 야무수크로(Yamoussoukro), 아비장(Abidjan, 행정 경제 중심지) **민족** 아칸족 42.1%, 그루족 17.6%, 만데족 16.5%, 크로우족 11% 등 **문자 해독률** 49% **종교** 이슬람교(40%), 원시 신앙(30%), 기독교(26%) **공용어** 프랑스어



| 코트디부아르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5세 이상 취업률** 1995년 63%, 2000년 61%, 2007년 60%로 다소 감소 • **15세 이상 24세 미만 취업률** 1995년 52%, 2000년 48%, 2007년 45%로 다소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2000년 53% • **초등학교 이수율** 1990년 41%, 1995년 37%, 2000년 39%, 2007년 45%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기초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0년 71%, 1995년 73%, 2000년 75%, 2007년 79%로 다소 증가 •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90년 6%, 2000년 8%, 2007년 9%로 다소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사망률(인구 1천 명당)** 1990년 1백51명, 1995년 1백43명, 2000년 1백36명, 2007년 1백27명으로 감소 추세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1990년 56%, 1995년 57%, 2000년 73%, 2007년 67% • **아동 1천 명당 유아 사망률** 1990년 1백4명, 1995년 1백 명, 2000년 95명, 2007년 89명으로 다소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모자 사망 인구(인구 10만 명당)** 2007년 8백10명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은 출산율** 1995년 45%, 2000년 63%, 2007년 57% • **15세 이상 19세 미만 여성 출산율** 2000년 1백43명, 2007년 1백7명으로 다소 감소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 중 HIV 양성자** 1990년 2.2%, 1995년 5.8%, 2000년 6.3%, 2007년 3.9% • **결핵 인구(인구 10만 명당)** 1990년 1백77명, 1995년 2백55명, 2000년 3백68명, 2007년 4백20명으로 증가 추세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1990년 67%, 1995년 71%, 2000년 75%, 2007년 81%로 다소 증가 • **깨끗한 위생 시설 접근율** 1990년 20%, 1995년 21%, 2000년 22%, 2007년 24%로 다소 증가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1990년 54달러, 1995년 81달러, 2000년 21달러, 2007년 9달러로 감소 • **1백 명당 인터넷 사용자 비율** 1990년 0%, 2000년 0.2%, 2007년 1.6%로 증가

01 CÔTE D'IVOIRE '아프리카의 코끼리'를 꿈꾸는 코트디부아르

외무부 회의실 통역 시설 현대화 사업

Project for Modernization of Interpretation Facility of Congerence Room of Foreign Ministry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의 2TV에서는 2009년 1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우리나라 드라마 〈가을동화〉를 방영했다. 한국어 음성에 불어 자막으로 방송되는 〈가을동화〉를 통해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1.4배 면적에 2천만 인구를 가진 코트디부아르는 1960년 독립 이후 20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 7%를 기록하며 아프리카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했다.

하지만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의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과도하게 외채를 들여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했다. 이로 인해 외채 규모가 급증하면서 매년 외채 상환 및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국가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주요 수출품인 카카오와 커피의 국제 가격 하락,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의 극심한 가뭄도 경제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1999년 중반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경제 운용 부실을 이유로 차관 제공을 중단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외 업무를 총괄해야 할 외교부의 역량 강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1996년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외무부 회의실 통역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년 20만 달러를 들여 총리실과 기자회견실, 외무부 회의실의 통역 및 방송 시설을 현대화시키기로 결정했다. KOICA는 동시통역과 방송 음향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고 이를 설치할 전문가 2명을 현지에 15일간 파견했으며, 장비 운용 시스템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12일간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코트디부아르 외부무의 행정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업명 코트디부아르 외무부 회의실 통역 시설 현대화 사업 | **사업 기간** 1996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공여,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2 CÔTE D'IVOIRE

이제는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아비장 국립대 정보 시스템 구축 · 강화 사업

The Project for the Strengthening of Cocody Abidjan University

"KOICA의 지원을 받기 전에는 컴퓨터를 통한 교육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교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도서관에서 1백50명의 학생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08년 당시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 국립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던 한 사서 직원의 말이다. 1백50명의 학생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2002년 발생한 군부 쿠데타와 내전으로 코트디부아르의 교육 환경은 매우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다. 아비장 국립대학은 코트디부아르에서 유일한 국립대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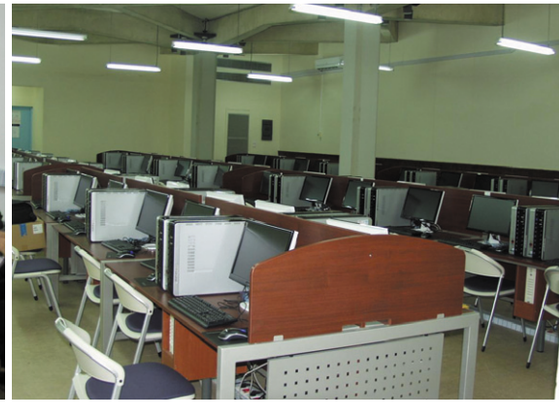
대부분의 정 · 관계, 재계 인사가 이곳 출신일 정도로 아비장 국립대학은 코트디부아르의 인재 양성소다. 아비장 국립대학은 최대 1만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2006년 당시 재학생은 5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포화 상태였다. 이로 인해 교육 시설의 부족은 심각했고, 그중에서도 정보 시스템은 가장 열악했다. 소수의 사서 직원만이 도서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낡은 20대의 컴퓨터가 IT 실습용 기자재의 전부였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69만 달러를 들여 IT 기자재를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아비장 국립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도서관에 정보 검색실을 설치하고 1백52대의 컴퓨터를 제공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 내 7개 학과 건물을 유 ·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보통신 전산망을 구축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학교 정보화의 근간이 될 서버실 기자재를 설치하고,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KOICA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컴퓨터는 불어 키보드 제품으로 제공하고, 현지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은 애당초 지원에서 삭제하는 등 코트디부아르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해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학 당국은 KOICA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전기 용량 증설 등의 사업을 신속히 추진했으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 예정보다 빠르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업명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국립대 정보 시스템 구축 ·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69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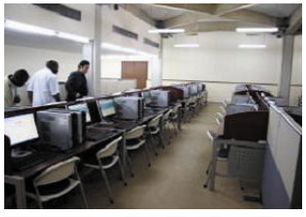


03
CÔTE D'IVOIRE

KOICA의 지원으로 교육부 효율성 높여

교육부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한 인트라넷 구축 사업

The Establishment of Intranet System for Reinforcement of Administrative Capability of the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는 영어로 '상아 해안Ivory Coast'이란 뜻이다. 이곳에서 상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유럽 식민주의자들은 산출품에 따라 식민지 이름을 정하듯 '상아 해안'이란 이름을 붙였다.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아름다운 이름과 다르게 코트디부아르는 최근 내전을 겪으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정부 부처에서조차 인터넷망이나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한 상태다. 2007년 당시 교육부 전체 공무원 중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원은 10%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교사와 학생 수 등 교육 관련 정보가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아 교육 행정은 점점 더 낙후되어 갔다. 코트디부아르 교육부는 네트워크 구축과 기자재 지원으로 교육 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및 ICT 기술의 부재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되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교육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컴퓨터 등 기자재를 제공해 정보화 능력을 강화시키기로 결정했다. KOICA는 국내의 유사한 사례를 적용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실시해 앞으로 교육부 그룹웨어 시스템의 독자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 고위 관료를 국내로 초청해 산업 시찰 등 연수를 실시하고, 현지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코트디부아르 기술진을 인트라넷 구축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고 있다.

KOICA는 교육부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로써 코트디부아르 교육부는 경쟁력과 역량을 갖춘 부서로서 전국 각 지역의 교육 정보화 시스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앞으로 독립적인 운영도 가능할 것이다. KOICA는 코트디부아르에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전수시켜 우리 기업의 서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2009년 1월 21일 인트라넷 구축 기공식에 참석한 블루레인Bleu-Lain 교육부 장관은, "KOICA의 열정적인 지원으로 인트라넷이 구축되어 커뮤니케이션 개선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이로써 교육부의 효율성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라며 우리나라에 감사를 표했다.

사업명 교육부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한 인트라넷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스템 개발,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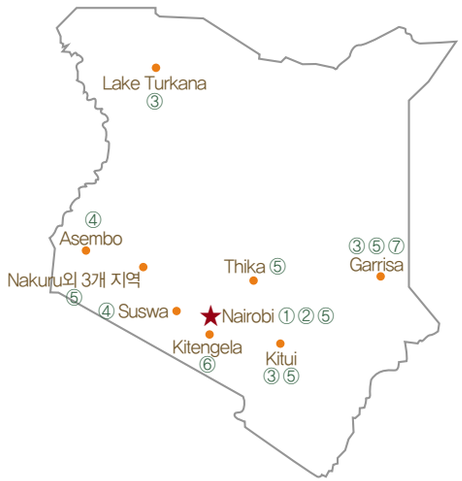
KENYA

케냐는 아프리카의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나이로비 국립공원으로 유명하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한 인근 국가들과 달리, 시장 경제 체제를 택하고 서방의 자본을 유치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극심한 부정부패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2년 새로 들어선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외국의 원조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 · 조정명**

케냐 정부는 부정부패와 공공 자원 관리 미숙을 경제 · 사회 성장의 장애 요소로 파악하고, 통치 기반의 확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 인프라를 현대화시키는 것은 케냐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열악한 경제적 인프라는 생산비용을 높이고, 케냐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도로와 철도, 원격 통신 분야의 인프라 부족은 생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케냐 정부는 도로 복구와 확충,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립과 원격 통신 시스템 확대를 통해 경제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KOICA는 1991~2007년까지 17년간 6백74만 달러의 무상 원조를 지원한 바 있다. 특별히 케냐의 경제 생산성 향상과 빈곤 감소 실현을 위해 사회 경제적 분야의 인적 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과 기술 훈련 분야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국내 초청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조사 결과 케냐의 깨끗한 식수 보급률이 57%에 그치는 것을 감안,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우물 개발과 정수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국명 케냐공화국(Republic of Kenya) **정체** 대통령 중심제 **기후** 해안(20.5~32℃), 내륙(9.5~23.6℃) **인구** 3천7백50만 명 **면적** 580,000㎢ (남한의 약 6배) **1인당 국민소득** 6백80달러(2007년 기준) **수도** 나이로비(Nairobi) **민족** 키쿠유족(23%), 루야족(14%), 루오족(13%), 카렌친족(11%), 캄바족(10%), 키시족(8%), 메루족(8%) 등 약 43개 부족 **문자 해독률** 85.1%(2003년 기준) **종교** 개신교(45%), 가톨릭(25%), 이슬람(10%) **공용어** 스와힐리어(통용어), 영어(공용어)



| 케냐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일 소득 1달러 이하로 고통 받는 인구** 1992년 33.5%에서 1998년 22.8%로 감소 • **5살 이하 저체중 아동 비율** 1994년 22.5%에서 2003년 19.9%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1999년 64%에서 2004년 74.7%로 증가 • **국내 총생산(GDP) 기준 초등교육 학생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비율** 2006년 21%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 1990년 1.1%에서 2007년 7.3%로 대거 상승 • **기초 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1991년 96%에서 2004년 94%로 소폭 감소
아동 사망률 감소	• **인구 1천 명당 5세 이하의 사망 인구** 1990년 97명에서 2006년 1백21명으로 증가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1990년 78%에서 2006년 77%로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모자 사망 인구(10만 명당)** 1990년 6백50명에서 2005년 5백60명으로 감소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2003년 42%.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 중 HIV 양성자** 2001년 7.7%에서 2007년 4.9%로 감소 • **결핵 인구(10만 명당)** 1990년 132.9명에서 2006년 334.1명으로 증가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전체 토지 대비 숲이 차지하는 비율** 1990년 6.5%에서 2005년 6.2%로 감소 •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년 0.2톤에서 2004년 0.3톤으로 상승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1990년 41%에서 2006년 57%로 증가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26달러(2006년 기준), 부채 비율은 7%(2006년 기준) • **인터넷 사용자(1백 명당)** 1990년 0%에서 2006년 7.86%로 증가

01 KENYA 경제 발전에 기여할 기술 인력 양성

케냐 기술 훈련소 지원 사업

The Project of Ramogi Technology Institute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무역과 금융 중심지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한 인접 국가들과 달리 시장 경제 체제를 택하고 서방의 자본을 유치하여 독립 후 1980년대까지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편향된 산업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2002년 새로 들어선 정부는 부패 척결과 외국의 원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케냐는 1963년 독립 후 친서방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으로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양질의 노동 인력 부족으로 비약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케냐 정부는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 훈련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89~1991년까지 60만 달러를 들여 나이로비 기술훈련소에 훈련 장비를 제공하는 등 기능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나이로비 공대 실험실 현대화 사업을 비롯하여 나이로비 · 나쿠루 · 티카 지역 초등학교 건립 등 케냐의 기술 훈련 및 교육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명 케냐 기술 훈련소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89~1991년 | **사업 규모** 6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설치 전문가 파견

02 KENYA 고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KOICA의 노력

케냐 나이로비 공대 실험실 현대화 사업

Rehabilitation and Modernization Project of the Electronic & Microprocessor Laboratory in the Dept. of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of the University of Nairobi



한때 '차가운 물'이라는 이름으로 유목민들의 쉼터였던 케냐는 인도양에 면해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소말리아, 북쪽으로 에티오피아와 수단, 서쪽으로 우간다, 남쪽으로는 탄자니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동부 아프리카 교통의 관문이자 산업 중심지다. 케냐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백50만 명이 살고 있는 나이로비에는 최근 케냐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국 난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초등 교육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 교육이라면, 대학 교육과 같은 고등 교육은 인간의 배우고자 하는 자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케냐는 동부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으로 주변국에 비해 국가 발전의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고등 교육의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케냐 정부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나이로비 공대의 실험실을 현대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5~1998년까지 47만 달러를 들여 전산 기자재를 제공하고, 'UNIX' 운용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통신 분야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사업명 케냐 나이로비 공대 실험실 현대화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8년 | **사업 규모** 47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설치 전문가 파견



03
KENYA

전 국토의 84%는 사막 또는 준사막

'Kitui' 등 3개 지역 우물 개발 및 개 · 보수 사업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and Rehabilitation of Ground-water wells in Kitui, Turkana and Garrisa



케냐의 빅토리아 호수는 실제로 바다처럼 넓다. 호수의 본래 이름은 '니얀자로'인데, 이는 바다같이 넓다는 뜻이다. 하지만 1백50년 전 영국인 탐험가가 이곳에 와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호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수평선 위로 점점이 떠 있는 선박들, 일렁이는 파도는 이곳이 호수라는 것을 잊게 만든다. 빅토리아 호수의 면적은 남한의 70%에 해당할 정도다. 그런데 이같이 광대한 호수를 가진 케냐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전 국토의 84%가 사막 또는 준사막 지역인 데다 북부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덮쳐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은 케냐 · 에티오피아 · 말라위 · 잠비아 · 모잠비크 등 동아프리카에 40년 만에 닥친 가뭄을 '킬러Killer' 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피해가 심각했다는 뜻이다.

KOICA는 2006년 40만 달러를 들여 동아프리카 식수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 4월 조사단을 파견해 에티오피아 · 케냐 · 지부티의 식수 보급 현황을 조사하고 같은 해 5월 나이로비에서 남동쪽으로 157km 떨어진 'Kitui' 지역과 북부의 'Turkana Garrisa' 지역에서 우물 개발과 우물 개 · 보수 사업에 착수했다. KOICA는 신규 관정을 개발하는 한편 기존 관정을 개 · 보수했으며,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관정 관리 기술을 전수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KOICA는 아셈보 정수장과 수스와 지역의 상수도 개 · 보수 사업 및 타나 강 유역 식수 개발 사업 등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다.

사업명 케냐 'Kitui' 등 3개 지역 우물 개발 및 개 · 보수 사업 | **사업 기간** 2006년 | **사업 규모** 40만 달러 | **지원 내역** 관정 개발 및 기자재 제공, 전문가 파견, NGO를 통한 기존 관정 개 · 보수





04 KENYA

인구의 57%만이 깨끗한 물을 마신다

아셈보 정수장 건립 및 수스와 상수도 개 · 보수 사업

Project for Construction of Water Purification Plant in Asembo & Water Supply Facilities in Suswa Region

"아셈보 정수장이 만들어지면 8만2천 명의 주민들이 물 걱정을 덜게 됩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9천 마리의 가축들도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은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가축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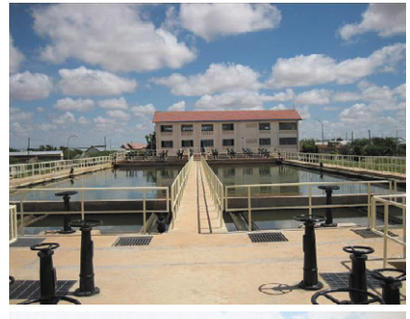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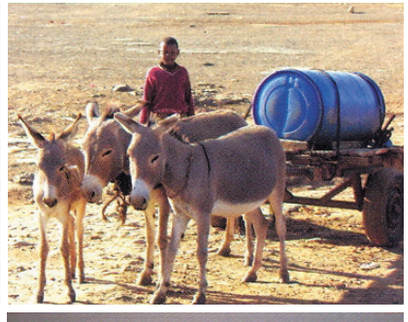
케냐는 적도가 국토의 중앙을 관통하면서 인도양과 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에티오피아와 수단, 동쪽으로 소말리아, 남쪽으로 탄자니아, 서쪽으로는 우간다와 국경을 함께 한다. 아프리카 최대의 관광국인 케냐는 '야생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의 천국'이란 수식어나 '마사이족'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케냐의 수자원은 서부의 빅토리아 호수와 중부의 리프트 밸리Rift Valley, 북부의 'Ewaso Ngiro 강', 동부의 'Tana 강', 남부의 'Athi 강' 등 5개 유역으로 구분된다. 케냐에서 가장 강우량이 많은 빅토리아 호수 및 해안 지역은 연간 760mm 이상 비가 내리지만 이 같은 지역은 국토의 15%에 불과하다. 연간 1인당 가용 수자원 양은 650㎥로 인구의 57%만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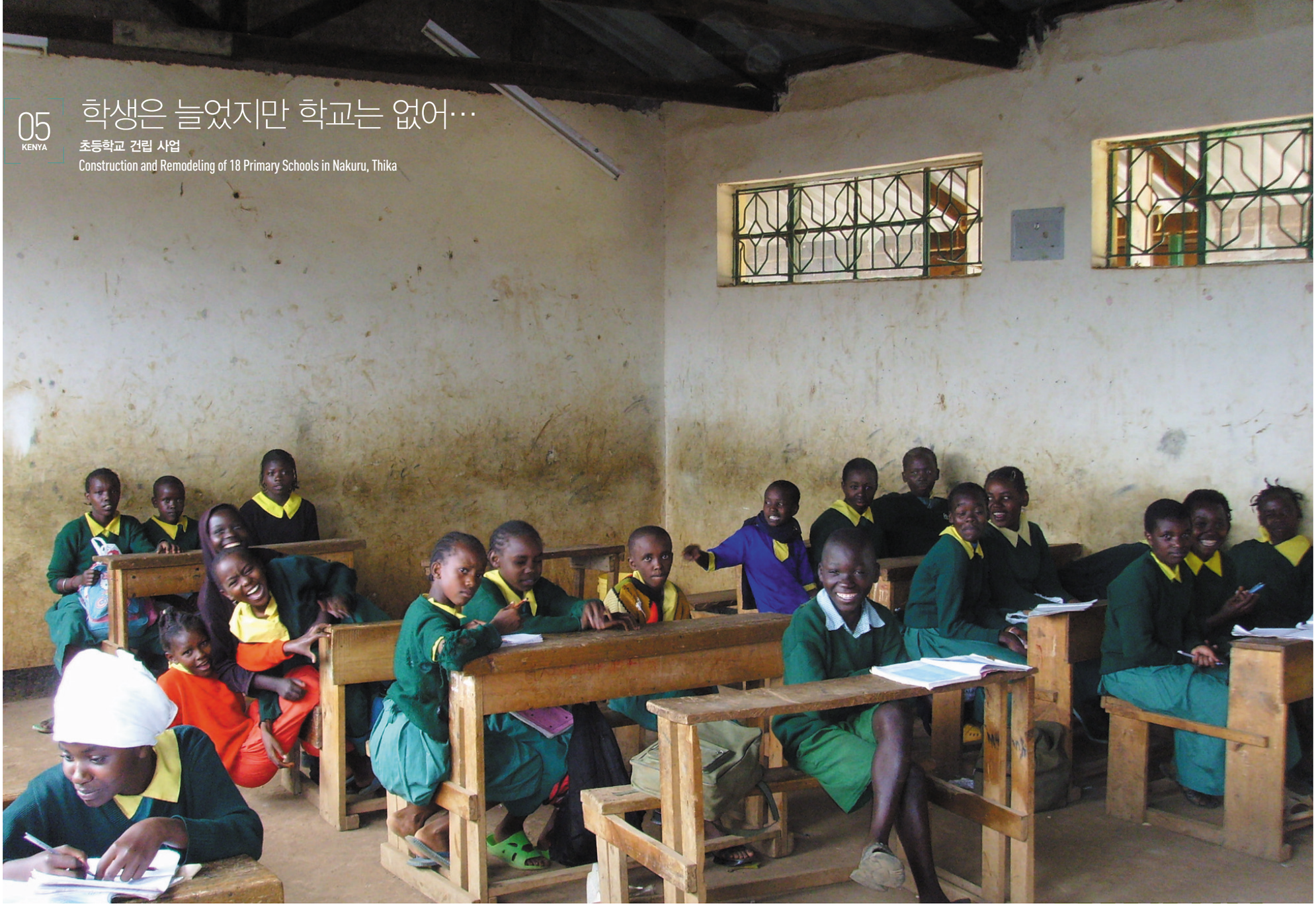
케냐 정부는 물 부족 문제가 극심한 아셈보 지역과 수스와 지역에 식수 공급 시설을 건설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아셈보 지역은 빅토리아 호수와 인접해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나이로비 인근 수스와 지역은 연간 강우량이 600mm 이하로 매년 상습적인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242만 달러를 투입해 아셈보 지역에 시간당 166㎥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정수장을 건설하고, 산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물탱크 차량을 제공했다. 수스와 지역에서는 기존 166㎥ 용량의 배수지를 복구하고, 지하수 관정 2개소와 배수관로 7km를 개 · 보수하여 지역의 식수 보급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량해 나갔다. KOICA는 이 사업을 계기로 케냐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 급수 설비를 구축해 놓았다.

사업명 케냐 아셈보 정수장 건립 및 수스와 상수도 개 · 보수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242만 달러 | **지원 내역** 아셈보 정수장 건립, 수스와 상수도 개 · 보수





05
KENYA

학생은 늘었지만 학교는 없어…

초등학교 건립 사업

Construction and Remodeling of 18 Primary Schools in Nakuru, Thika

케냐의 농업 생산물 중 가장 큰 소득원은 커피다. 또 관광 수입만 한 해 3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케냐 경제는 전적으로 농업과 관광에 의존하고 있다. 케냐 정부의 '경제회생전략ERS' 은 경제 부흥과 고용 창출에 초점을 둔 앞으로 5년간의 로드맵에 맞춰져 있다.

여기에는 경제 성장과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 인프라 복구와 확충 및 빈곤층의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4대 과제로 명시되어 있다.

기초 교육 환경의 개선은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2003년 무상 초등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케냐의 학생 수는 5백90만 명에서 8백만 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케냐 정부는 2008년 수도 나이로비 북서쪽 130km에 있는 나쿠루 지역과 나이로비 북동쪽 50km에 있는 디카 지역의 초등학교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250만 달러를 투입해 나쿠루 지역과 디카 지역에 학교를 신축하고 개 · 보수 작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두 지역에 3개의 학교를 신축하고 15개 학교를 증 · 개축했으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KOICA는 케냐의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초등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업명 케냐 3개 지역 초등학교 건립 사업(나이로비 · 나쿠루 · 디카 지역)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신축 및 증 · 개축, 사업 관리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06 KENYA 출산 · 모성 · 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자!

키텐젤라 지역 모자 보건 센터 증축 및 개선 사업

Project for Improvement of Kitengela Clinic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부분의 산모들은 전통적 방식의 분만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목숨을 잃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케냐 보건부는 전통 방식으로 인한 출산 사망률과 모성 · 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역 모자 보건 센터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케냐 키텐젤라 지역에 있는 모자 보건 센터의 증축 및 개선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키텐젤라 지역은 수도 나이로비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곳 보건소에서는 하루 평균 1백60명의 외래 환자와 월평균 16명의 임산부를 진료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 공사 부실과 대홍수 등으로 보건소 건물은 낙후되었고, 병동과 수술실, 세탁동은 아예 폐쇄된 상태였다.

KOICA는 건물을 신축하고, 구급차와 X-ray기 · 초음파기 · 분만대 등의 의료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보건부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는 등 키텐젤라 보건소를 2차 진료가 가능한 지역 병원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KOICA는 낙후된 키텐젤라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시킴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출산 사망률과 모성 · 유아 사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업명 케냐 키텐젤라 지역 모자 보건 센터 증축 및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구급차 · X-ray기 · 초음파기 · 분만대 등 기자재 지원, 보건부 관계자 국내 초청 연수

07 KENYA

악어에게 돌을 던지며 물을 긷는다고?

타나 강 유역 식수 개발 사업

Development of Large Diameter Wells along the Tana Basin to Supplement the Garissa Urban Water Supply



"물을 길러 가는 일은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합니다. 우물이 없는 마을 사람들은 인근 타나 강까지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케냐에서 물을 길러 가는 거리가 평균 12km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되나요? 강에 물을 길러 간 어린 여자아이가 악어에 의해 희생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도 다음날이면 아이들은 또 물을 길러 가야 합니다. 한 아이는 강에 들어가 물을 긷고, 다른 아이는 강 밖에서 돌을 던져 악어를 쫓으면서요."

KOICA의 지원으로 우물을 파주고 있는 케냐 구호 단체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의 말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야생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나이로비 국립공원으로 잘 알려진 케냐의 또 다른 모습이다. 케냐 국토의 평균 고도는 1,500m, 국토의 84%는 사막이거나 준사막 지역이다. 북부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반면 남부와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량이 풍부해 수자원의 지역별 편차가 심한 편이다.

케냐 정부는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수인성 질병 예방 등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해 1999년 정부령 제1호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 겪고 있는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2006년 1월 케냐 대통령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208만 달러를 투입해 케냐 북동부 타나 강을 활용한 식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대상지인 가리사Garrissa 시 바라사Barasa 지역은 케냐 북동부 지방의 주도로 타나 강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공급 시스템이 미비한 탓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KOICA는 관정 3곳을 개발하고, 강물의 탁도 완화와 염분 제거 등 식수 처리와 정수장 배관 설치 등 단계적 개발을 통해 지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안전한 식수 확보를 통해 위생적 기초 생활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보건의료나 교육 등 어떤 분야의 지원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런 점에서 KOICA의 타나 강 유역 식수 개발 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명 케냐 타나 강 유역 식수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08만 달러 | **지원 내역** 관정 개발 및 이용 시설 설치, 배관 공사, 간이 수질 분석 장비 · 조사용 차량 등 기자재 공여, 지하수 · 토목 · 기계 등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지하수, 수질 검사, 정수장 운영 및 관리 등)







TUNISIA

유럽 대륙에서 불과 140km 떨어진 튀니지는 지중해의 숨은 보석이다. 북부에는 광활한 보리밭과 올리브 나무, 남부에는 뜨거운 사막이 펼쳐진다. 북서아프리카 연안, 이탈리아를 마주보며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튀니지는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곳에 있다. **글 · 김영란**

튀니지는 2008년 1월, 지중해 남단 국가 중 처음으로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무역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튀니지 정부는 국민 총생산GNP의 25%를 경제 개발에 재투자하고 '마그레브의 엘도라도'를 도모하고 있다. 안정된 정치와 풍부한 관광 자원, 유럽과 중동을 잇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가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유럽과 근접한 튀니지의 주요 원조 공여국은 유럽 국가들이다.

KOICA는 1991~2008년까지 17년간 총 6백40만 달러의 무상 원조를 튀니지에 지원했다. 특히 튀니지의 직업 훈련 분야와 부족한 산림 자원 개발을 위해 참나무 숲을 조성하고, 대기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환경 분야와 태권도 보급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현재 튀니지 정부는 연간 6%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2006년 14%에 달했던 실업률을 2011년까지 10%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명 튀니지공화국(the Republic of Tunisia) **정체** 대통령 중심제 **기후** 북부 : 지중해성 기후, 내륙 및 남부 : 사막성 기후 **인구** 1천17만 명 **면적** 163,610㎢(한반도의 3/4배) **1인당 국민소득** 3천1백42달러(2007년 기준) **수도** 튀니스(Tunis) **민족** 아랍인 98%, 유럽인 1%, 유대인 및 기타 1% **문자 해독률** 100%(2006년 기준) **종교** 이슬람(순니파) 99%, 기타 1% **공용어** 아랍어(공용), 불어(통용)

| 튀니지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 중 빈곤층 목표** 2015년까지 1% 미만 ● **5세 이하 저체중 아동 수** 1990년 8.5%에서 2015년까지 1.5% 달성 목표 ● **15세 이상 노동 활동 인구** 1990년 41%에서 2007년 42%로 소폭 증가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2000년 95%에서 2007년 97%로 상승 중 ● **GDP 기준 초등교육 학생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비율** 2006년 21% ● **15~24세 문자 해독률** 2007년 남아 97%, 여아 94%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기초 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2006년 120%에서 2007년 142% 달성 ●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고용된 여성 비율** 1995년 23.1%에서 2005년 24.6%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인구 1천 명당)** 2000년 25명에서 2007년 18명으로 감소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2000년 95%에서 2007년 98%로 상승
모성 보건 증진	● **모자 사망 인구(인구 10만 명당)** 2007년 1백 명 수준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2000년 90% 수준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의 인구 중 HIV 양성자** 2000년 이후 0.1% 수준 ● **결핵 인구(10만 명당)** 1990년 31명, 2000년 25명, 2007년 26명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깨끗한 식수 제공 인구** 1995년 86%에서 2007년 94%로 개선 중 ●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5년 1.8톤에서 2007년 2.2톤으로 상승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1995년 8달러, 2000년 23달러, 2007년 30달러 ● **부채 비율** 2000년 21%에서 2007년 11%로 개선 ● **인터넷 사용자 수(1백 명당)** 1990년 2.7명에서 16.8명으로 대폭 증가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country data 참조

01 TUNISIA 모든 장비를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어요!

국립 직업훈련 센터 자동 제어 교육실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Modernization of Amira Room in CENAFFIF Vocational Training Center



유럽 대륙에서 불과 140km 떨어진 튀니지는 지중해의 숨은 보석이다. 북부에는 광활한 보리밭과 올리브나무, 남부에는 뜨거운 사막이 펼쳐져 있다. 튀니지는 1988년부터 6년간 초등학교 의무 교육제를 9년간의 초·중등학교 의무 교육제로 바꿨다. 또한 직업 훈련을 강화시키고자 직업 훈련 및 고용 인력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는 직업 훈련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직업훈련센터CENAFFIF'의 실험실 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국립직업훈련센터는 수도 튀니스에서 10km 떨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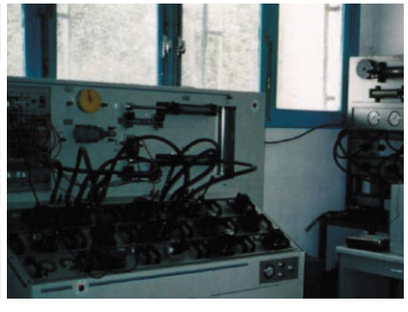
라데스Rades 지역에 있는데, 튀니지에서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직업 훈련 기관 중 하나다.

KOICA는 1994~1995년까지 40만 달러를 들여 'CENAFFIF'의 5개 교육실- 자동 제어 교육실 · 멀티미디어 및 SW 개발실 · 자동기계실 · 냉난방 교육실 · 경영학 교실- 중 자동 제어 교육실용 기자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자재 27종(35만 달러), 장비 설치와 운영 전문가 파견(1만 달러), 정밀 계측 분야 연수생 초청(3만 달러)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KOICA가 제공한 모든 장비는 컴퓨터에 의한 제어가 가능해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튀니지 정부는 KOICA의 지원 사업을 양국 협력 관계의 우수 모델로 평가하고, 1995년 세계 26개국이 참여한 'Tunisia International Business and Technology Fair'에서 KOICA가 지원한 장비 중 일부를 특별히 전시하기도 했다.

사업명 튀니지 국립 직업훈련 센터 자동 제어 교육실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4~1995년 | **사업 규모** 4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자 교육 및 자동화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02 TUNISIA

기술자 양성이 경제 개발 원동력이다

직업훈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사업

Feasibility Study on the Pilot Complex for Vocational Training

북서아프리카의 연안, 튀니지는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곳에 있다. 튀니지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섬유산업에서 기계 및 전자산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이동하는 등 부가 가치가 높은 제품 생산 증대를 위해 제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995년에는 EU와 '경제협력협정'을 맺었지만 1996년 당시 국민의 4분의 3 정도는 적절한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직업 훈련을 받은 인력은 매년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의 절반에 불과했다.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튀니지 정부는 수도 튀니스 남쪽 22km 지점 보르쥬 세드리아Borj Cedria 지역에 1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직업훈련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7년까지 20만 달러를 들여 앞으로 국립 직업훈련원에서 실시할 훈련 교육 분야를 선정하고,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에 들어갔다. 또한 적정 규모를 파악하고 공과별 시설 계획과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훈련원 교사 및 관리자 연수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과거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에 중간층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다기능 기술자를 정책적으로 양성해 경제 개발의 동력으로 삼은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KOICA는 튀니지의 여건에 맞는 직업 훈련 수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교육 과정에 접목시켜 국립 직업훈련원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자문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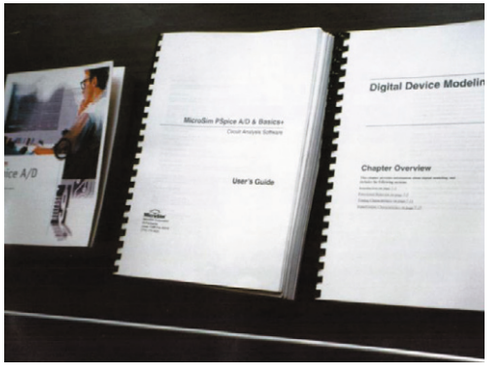
사업명 튀니지 직업훈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전문가 파견

03 TUNISIA

사회 불안의 원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

국립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Development Project of National Center for Training Trainers and Training Engineering, Rades



튀니지는 아랍 문화뿐만 아니라 페니키아의 식민지 카르타고 유적과 로마가 남긴 유적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지니고 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로 낯익은 원형 경기장도 튀니지 남부에 있다. 튀니지는 장기 집권에 따른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로 외견상 안정을 이루고 있으나 인구의 14%에 이르는 50만 실업 인구, 특히 30% 이상의 청년 실업 문제가 정권과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튀니지는 제9차 5개년 경제 개발 사업(1997~2001년) 당시 직업 훈련 및 고용 증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벤 알리Ben Ali 튀니지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고부가 가치 분야의 직업 훈련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직업훈련부를 사회부에서 분리시켜 신설했다. 또한 직업 훈련 관련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정하기도 했다. 튀니지 국립 직업훈련원은 직업 훈련 양성 계획에 따라 교사를 교육시키고, 훈련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1993년 건립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훈련원의 자동화 제어실 기기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튀니지 정부는 직업훈련원의 목적에 따른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을 지속적으로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CAD', 'CAM'실의 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왔다. KOICA는 1997~1999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CAD', 'CAM' 분야 실습실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고, 네트워크와 연결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국립 직업훈련원의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업명 튀니지 국립 직업 훈련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9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네트워크 구축 및 'CAD', 'CAM'실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04 TUNISIA

북부 아프리카에 불어 온 태권도 열풍

태권도 회관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a Taekwondo Hall



마그레브 3개국 중 튀니지의 인구와 국토 면적은 가장 작다. 하지만 분쟁 관계에 있는 모로코와 알제리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북부 아프리카의 스위스를 자처한다. '2001 지중해 연안국 올림픽'을 개최한 튀니지는 북부 아프리카의 스포츠 강국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튀니지에도 태권도 열풍이 불었다. 1994년 튀니지에 파견된 임봉덕 사범은 태권도 국가 대표단을 지도하면서 시드니 올림픽 참가를 준비했다.

KOICA는 튀니지 국가 대표단을 지원하기 위해 태권도 회관을 건립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97~1999년까지 70만 달러를 들여 엘멘자 종합 스포츠 센터 안에 2,180㎡ 규모로 1천 명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태권도 회관을 건립하고, 매트 등 태권도 용품을 제공했다. 튀니지 정부도 사업 대상 부지를 제공하고, 태권도 회관 설계와 내부 배관 공사를 실시하는 등 76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튀니지 태권도 회관은 해외에서 최초로 다른 나라와 협조하여 회관을 건립한 사례다. 태권도 회관 건립 후 튀니지 정부는 그간 일본의 '가라데 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태권도 협회를 독립시켰다. 또한 KOICA는 튀니지의 2001년 지중해 올림픽 경기 유치에 필요한 올림픽 축구 경기장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건립했다.

사업명 튀니지 태권도 회관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9년 | **사업 규모** 70만 달러 | **지원 내역** 태권도 회관 건립, 기자재 지원



05 TUNISIA

튀니지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청일뽕

양잠 개발 사업

The Pilot Project for Sericulture Industry Development

프랑스 식민지 시절, 튀니지는 북서부 산악 지역에서부터 중부 건조 지역에 이르기까지 양잠업이 번성했다. 그러나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누에 원종 등 유전자원을 인계받지 못해 튀니지의 잠업 기반 대부분은 손실되었다. 튀니지 정부는 제10차 경제 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연간 3백만 달러에 이르는 튀니지 실크 산업을 내수로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타바르카Tabarka 지역 양잠 개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우리나라는 양잠 원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에가루와 누에그라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일본이나 중국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뽕나무를 기르는 데 적합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타바르카Tabarka 지역은 카르타고 유적지 등 문화유산을 갖추고 있는 데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곳이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관광업이 점차 쇠퇴하고 있어 농촌 인구의 실업률이 20%에 달하고 있다.

KOICA는 2004~2007년까지 75만 달러를 들여 타바르카Tabarka 지역에서 총 20ha 중 1차로 10ha 규모의 뽕나무밭을 조성하고, 누에 사육실과 고치 생산 실험실을 건립했다. 또한 실크 실을 추출하는 제사 공장을 건축해, 잠업 정책 수립부터 뽕나무 재배 · 양잠 · 누엣병 및 제사 부문까지 전 단계에 걸쳐 기술을 이전하고, 관련 묘목과 기자재를 제공했다. 튀니지에서 잠사업은 전통 산업인 농업을 배경으로 제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분야다. KOICA는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튀니지의 양잠 산업에 우리나라의 '청일뽕' 재배 기술과 실크 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해 튀니지의 잠업 기반 확대에 기여했다.

사업명 튀니지 양잠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7년 | **사업 규모** 75만 달러 | **지원 내역** 누에 사육 잠실 건축, 누에알, 묘목 및 제사 관련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6 TUNISIA

튀니지의 유일한 산림 지대를 보호해야죠

코르크 숲 쇠퇴 원인 분석 및 지속 가능 개발 사업

Analysis of Cork Oak Forest Degradation Causes and Involvement of Local Popul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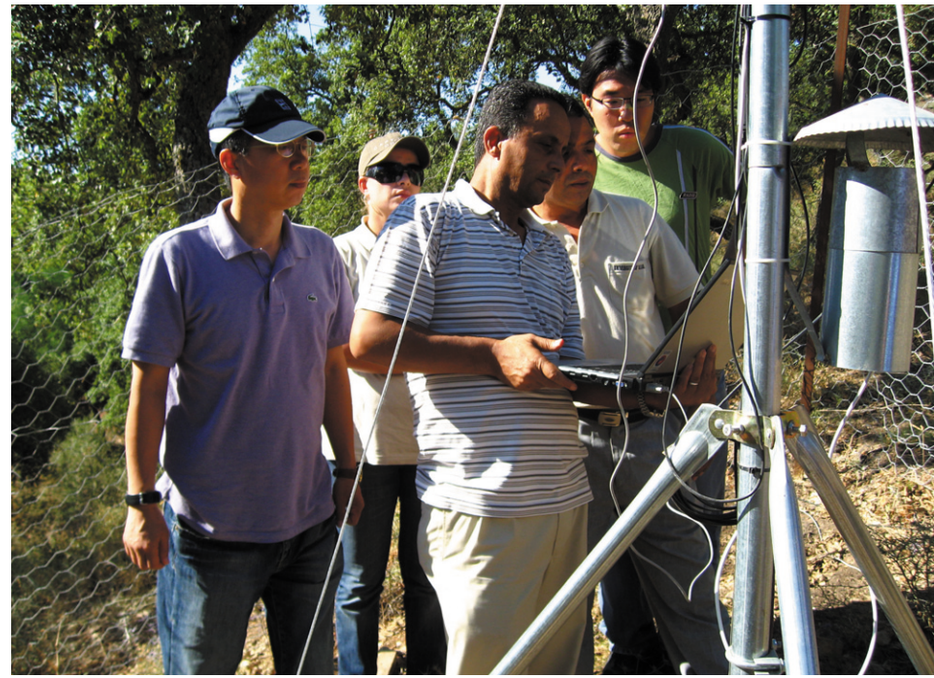
튀니지 정부는 '산림 개발 국가 전략(2002~2011년)'을 수립하고 서북부 지역 코르크 숲에 대한 복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의 6%에 불과한 서북부 산림 지역은 튀니지의 유일한 산림 지대로서 코르크 생산지와 목축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르크 숲의 면적은 1930년대 14만 헥타르에서 현재는 50%가 소실된 7만 헥타르에 불과하다. 튀니지 정부는 더 이상의 산림 지대가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숲의 자연적인 복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산림 보존은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 방지와 생물의 다양성 확보 등 환경 문제와 결부되어 중요성이 점점 더 크게 인식되고 있는 범지구적 과제 중 하나다.

튀니지 정부는 자국의 산림 쇠퇴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인정한 산림녹화 성공 국가인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10년까지 250만 달러를 지원해 튀니지 '임업수자원 연구원' 기술진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KOICA는 광합성 측정과 기상 관측 장치 등 연구 장비를 제공하고, 현지 수목의 생리와 병리 현상을 분석해 숲의 복원과 보존 방안을 찾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KOICA의 지원으로 앞으로 복원될 코르크 숲은 자연 환경 복원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코르크 채취와 양, 염소 사육 등의 목축업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KOICA는 포르투갈 · 스페인 · 모로코 · 알제리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코르크 숲 보전과 활용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튀니지 코르크 숲 쇠퇴 원인 분석 및 지속 가능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7~2010년 | **사업 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대기 측정망 구축 및 관련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7 TUNISIA

기르는 양식업으로 식량 자원을 확보한다

패류 양식 기술 이전 사업

The Project for Technology Transfer for Selfish Culture

지중해 연안 국가인 튀니지에는 1,300km에 달하는 해안선이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만5천 명으로 연간 11만 톤 규모의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해안 지역의 환경 문제는 어패류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수산업 추이는 단순 어획에서 기르는 양식업으로 변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는 주요 어패류 양식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식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패류 양식 기술 이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이는 식량 자원을 확보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60만 달러를 투입해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북서쪽으로 55km 떨어진 비제르테Bizerte 시의 '수산양식고등연구소ISPAB'와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패류 양식 기술을 이전하고, 양식과 양묘 시험을 위한 설비와 관련 장비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수산양식고등연구소'는 어업 · 양식 · 냉동 분야의 고급 기술사 교육 기관이다. 이곳의 양식 분야 연구진들은 대부분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연구 의욕이 높은 신진 해양 생물 전문가들로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 이전에 매우 적극적이다.

KOICA는 굴 양식에 필요한 사육 수조 설비와 50톤 규모의 오폐수 정수 처리장, 담수 및 해수 배관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 중이며 종묘의 생산과 양성, 먹이 생물 분야의 우리나라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련 인력을 국내로 초청해 양식 기술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 중이다. 튀니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와 유사한 해안 환경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튀니지 패류 양식 기술 이전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60만 달러 | **지원 내역** 굴, 홍합 등 종묘 · 양식 시험 연구 및 설비,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8 TUNISIA

아프리카 환경 산업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다

대기 오염 모니터링 역량 강화 사업

Capacity Reinforcement for Atmosphere Monitoring and Assessing



튀니지의 관광 산업은 국내 총생산 중 7%를 차지한다.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생태계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특히 오존 농도 감소가 관광지 개발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튀니지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환경 보호 전략을 채택하고 오염 원인을 규제하는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기 오염 모니터링은 튀니지 관광 산업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튀니지의 환경오염 관리 시스템은 과거 유럽의 지원으로 설치된 낡은 장비를 이용하는 수준에 불과해 환경오염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었다. 2007년 5월 한 · 튀니지 '환경협력협정' 체결 당시 튀니지 정부는 대기 환경오염 감시 및 저감 메커니즘 수립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250만 달러를 투입, 튀니지 정부와 함께 오존 공동연구를 실시해 전국의 오존 농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민 보건 관리와 오존 발생 억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튀니스를 중심으로 오염 모니터링 시설과 측정망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측정망 운영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KOICA는 환경 측정 이동 차량을 제공하고 측정망을 설치해주는 등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켜, 앞으로 아프리카의 환경 산업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해 '청정 개발 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명 튀니지 대기 오염 모니터링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대기 측정망 구축 및 관련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Latin America



지구촌의 절망에서 희망을 꽃피운다

Nicaragua
Dominica(R)
Bolivia
El Salvador
Ecuador
Honduras
Jamaica
Colombia



NICARAGUA

니카라과는 서반구에서 가장 극심한 빈부 격차를 보이고 있는 나라다. 2000년대 초반 시작된 국제 사회에 의한 '고채무최빈국' 채무 구제(HIPC Initiative) 덕분으로 니카라과는 2004년 세계에서 10번째로,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받았다. 이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글 · 유지영**

니카라과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미국 등 외세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20년대 말 외세에 대항하는 산디노 장군의 게릴라 세력이 등장한 후 니카라과는 1930년대 국가 방위군 장관 소모사의 족벌 독재 체제와 1961년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의 저항운동, 그리고 1970년대 니카라과 혁명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어 왔다. 'FSLN' 정권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친미 우파 차모로 정권이 국정을 장악했으나 2006년에 다시 'FSLN' 계열의 다니엘 오르테가 사아베드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07년 취임했다.

오르테가 현 정부 역시 경제 성장을 통한 부의 창출과 빈곤 감축을 정권의 목표로 삼고, 사회적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 역량 강화 및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니카라과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빈곤 감소와 태아 및 유아 사망률, 위생 시설 접근성 등은 2015년 목표에 근접해 가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 취학률을 비롯한 모성 사망률, 만성 영양 결핍, 낮은 문자 해독률 등은 여전히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국명 니카라과 공화국(Republic of Nicaragua) **정체** 공화국 **기후** 고도별 편차가 큼(태평양 저지대는 열대 기후, 카리브 해 연안은 고온 다습, 북쪽 산악지대는 선선함) **인구** 5백78만5천8백46명(2008년 기준) **면적** 129,494㎢ **1인당 국민소득** 980달러(2007년 기준) **수도** 마나과(Managua) **민족** 메스티소(69%), 백인(17%), 흑인(9%), 인디언(5%) **문자 해독률** 15세 이상 67.5%(남성 67.2%, 여성 67.8%) **종교** 가톨릭(60%), 복음주의(22%), 무교(15.7%), 기타 **공용어** 스페인어



| 니카라과 새천년 개발 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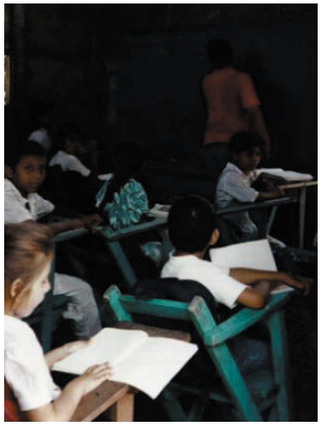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하루 1달러 미만 소비 인구 비율** 1993년 47.9%에서 2001년 45.1%로 소폭 감소 •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1995년 50.3%에서 2000년 47.9%로 감소 • **5세 미만 저체중 아동 비율** 1993년 11.9%에서 2000년 7.8%로 감소 • **영양 불균형 인구 비율** 1990년 30%에서 1995년 33%로 증가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취학자** 1990년 69%에서 2007년 93%로 개선 • **초등 교육 이수율** 1990년 44%에서 2007년 73%로 개선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 1990년 15%에서 2007년 19%로 소폭 상승 • **남아 대비 여아의 초등교육 취학률** 1990년 106%에서 2007년 98%로 소폭 하락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아동(1천 명당) 사망률** 1990년 68%에서 2007년 36%로 대폭 개선 • **임산부(10만 명당) 출산 중 사망률** 1990년 1백60명에서 2007년 1백70명으로 소폭 증가
모성 보건 증진	• **15~49세 인구 중 총 HIV 보균자 비율** 2000년 0.2%에서 2007년 0.2%로 정체 • **인구 10만 명당 결핵 감염률** 1990년 196.2명에서 2007년 73.85명으로 대폭 개선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톤/1명)** 1990년 0.6톤에서 2004년 0.74톤으로 소폭 상승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전체 국토 중 산림지 비중** 1990년 54%에서 2007년 43%로 감소 • **수자원 이용 가능 인구 비율** 1990년 70%에서 2007년 79%로 소폭 개선

01 NICARAGUA

교실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교사들

벽지 농촌 교사 주택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Rural School Teacher's Housings



1999년 11월 19일, 니카라과 마사야 주 마사테페Masatepe 아이들은 한껏 들떠 있었다. 교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선생님에게 드디어 집이 생기는 날이기 때문이다. 1997년 당시 니카라과 인구의 44%를 차지하는 학령기 인구 중 45%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니카라과 학교의 87%인 3천9백29개 학교는 농촌 지역에 있는 반면 6백9개 학교는 도시에 있다. 도시와 농촌의 학교 수는 인구 분포에 비례하지만 정작 교사의 경우는 전체 교사의 53%만이 농촌에 근무하고 있어 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편이었다. 교사들의 농촌 지역 근무 기피는 지방에 근무할 경우 적절한 교통편이 없어 3~4시간씩 도보로 출퇴근을 해야 한다거나 잠잘 곳이 없어 교실 바닥에서 숙박을 해결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 때문이었다.

니카라과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2년부터 농촌 지역 교사들의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미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산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을 하나하나에 주택을 짓는 일은 어려운 사업이었기에 니카라과 정부는 번번이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니카라과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1996년 대통령 순방 당시 약속한 1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주택 건설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KOICA는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 주변 농촌 지역 중 보아코Boaco, 촌탈레스Chontales, 레온Leon, 치난데가Chinandega, 마사야Masaya, 그라나다Granada 등 6개 지역을 선정하고, 82개의 벽지 농촌 지역에 교사 주택 건설 사업을 실시했다. KOICA는 농촌 지역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고, 안정적으로 교원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공 교육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업명 니카라과 벽지 농촌 교사 주택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9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주택 건축, 전문가 파견

02 NICARAGUA

2차 산업 개발로 실업 문제를 개선하다

직업훈련 센터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Upgrading of El Centro de Capacitacion Nicaraguense Aleman

니카라과는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에 들어갔다.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현대화에 힘쓰고, 빈곤층 지원 확대 및 교육, 보건 분야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자 최빈곤층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8년 허리케인 미치Mitch가 과테말라를 강타하면서 개혁의 결과물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2001년 당시 니카라과의 실업률은 20% 이상이었다. 특히 산업 구조의 22.8%를 차지하는 2차 산업의 고용 비율은 전체 노동 인구 중 15%에 그쳤다. 수도인 마나과 중심가에 있는 니카라과 직업훈련 센터CECNA는 니카라과의 대표적인 직업훈련원 중 하나로 1990년대 중반 독일의 원조 기관인 '독일기술협력공사GTZ'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CECNA'는 총 13개 공과를 개설하고,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기술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1년 기준으로 1백96개 과정에서 3천9백36명을 교육시켰다. 하지만 2001년 당시 'CECNA'의 산업디자인 공과는 인력과 장비가 태부족한 상태였고, 컴퓨터 공과는 직업훈련원의 대표적인 공과 중 하나였지만 기초 교육만 이루어질 뿐 네트워크 시스템조차 미비한 상태였다. 니카라과 정부는 2차 산업 개발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컴퓨터 공과의 시설 구축과 산업디자인 공과의 시설 장비 확충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 전수를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2~2003년 39만 달러를 들여 산업디자인 공과에 컴퓨터 20대와 프린터 · 스캐너 · 프로젝터 및 관련 도서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컴퓨터 공과에는 서버 3대, 컴퓨터 20대, 'APC back-up' 장비, 통신 장비, 3개 훈련실 케이블망, 에어컨 2대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공과별 전문가를 2달간 현지에 파견해 12명의 교사를 교육시켰다. KOICA는 이 사업을 통해 니카라과의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니카라과 직업 훈련 센터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3년 | **사업 규모** 39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

03 NICARAGUA

교육을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

국립농업기계화 훈련소 현대화 사업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the ENMA, Chinandega

니카라과의 경제 성장률은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빈곤 감축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가난하다. 빈곤층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2001년과 현재를 비교해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1993년에 19%인 최빈곤층이 2005년에는 15%로 감소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으로 빈곤의 규모와 정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니카라과 인구의 46%는 국가 빈곤선 이하에 있는 실정이다.

니카라과의 높은 문맹률과 실업률, 커피로 대표되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여전히 경제 개발을 가로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대규모 공공시설 민영화 및 IMF 프로그램에 따른 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 카리브 해 국가 연합 등 자유 무역 기구 회원으로서 대외 무역 및 개방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치난데가Chinandega 주는 니카라과 북서부에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교육을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한 · 중미 연합체SICA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치난데가 주 '국립농업기계화 훈련소ENMA'의 시설 개선과 발전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왔다.

국립농업기계화 훈련소는 '국립직업훈련 센터INATEC' 산하 36개 훈련 기관 중 하나로 치난데가 주의 직업훈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과 장비가 낙후해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34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들여 국립농업기계화 훈련소의 시설 개선과 최신 교수법을 전수했다. KOICA는 장기적으로 치난데가 주의 기초 기술 인력 양성과 저소득 계층의 실업률 저하에 기여했다.

사업명 니카라과 국립농업기계화 훈련소 현대화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34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





04 NICARAGUA

외교부의 정보화 수준이 업그레이드되다

외교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0년대 초반 국제 사회의 원조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고채무최빈국' 채무 구제 덕분으로 니카라과는 2004년 약 30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채를 탕감 받았다. 이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도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차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니카라과는 부패와 테러, 마약 거래 및 돈 세탁 등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니카라과 외교부는 국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힘쓰면서 서방 세계와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여러 국가들과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니카라과의 이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외교부의 업무는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문서 처리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 효율성은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심지어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정보 교류 속도조차 무척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 탓에 외교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니카라과 외교부는 외교 업무 전산화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IT 기자재 지원과 외교 문서 보안 시스템 및 검색 엔진 개발 등 ICT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외교부 전자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2년 동안 50만 달러를 들여 기본 계획 수립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지 인력을 교육했으며 컴퓨터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제공했다. 사업 종료 후 니카라과는 업무 정보화를 위한 서버 성능이 10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외교부의 정보화 수준도 업그레이드되어 업무 처리와 문서 저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KOICA는 니카라과 외교부의 수많은 문서를 디지털화함은 물론, 전자도서관 시스템 개발로 외교 문서의 체계적인 보관과 관리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사업명 니카라과 외교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DOMINICA(R)

도미니카공화국은 한반도의 약 1/20에 해당하는 영토와 9백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지만 현재 중미와 캐리비안 지역 국가들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 만성적 전력난과 빈부 격차 심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 · 유지영

도미니카공화국은 16세기부터 시작된 스페인 식민 통치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프랑스와 아이티, 미국의 식민지였다. 독립 후에도 부패와 인플레 등의 문제로 안정을 되찾지 못했으나 1970년대 말 이후 점차 평화적인 시기를 맞게 된다. 2003년 경기 침체기를 맞아 연평균 0.3%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과 높은 인플레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7년 이후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인플레율을 한 자리로 낮추고, 자국의 통화 안정화를 실현시켰다. 2003년 경제난 이후 2004년 8월 출범한 페르난데스Fernandez 정권은 2005년 IMF 차관 도입과 이에 따른 긴축 재정과 공공 부문의 구조 조정을 통해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연 10.7%라는 급속한 'GDP'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도미니카공화국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양성 평등과 유아 사망률 감소는 2015년 목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0년대보다 오히려 약간 증가했으며, 초등 교육 보급과 모자 보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015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 및 만성적 전력난과 빈부 격차 심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국가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명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정체** 민주공화국 **기후** 열대기후 **인구** 9백50만7천1백33명 **면적** 48,730㎢(대한민국 : 98,480㎢) **1인당 국민소득** 3천5백50달러(2007년 기준) **수도**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 **민족** 혼혈(73%), 백인(16%), 흑인(11%) **문자 해독률** 15세 이상 87%(남성 86.6%, 여성 87.2%) **종교** 가톨릭(95%), 기타(5%) **공용어** 스페인어



| 도미니카 공화국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하루 1달러 미만 소비 인구 비율** 1992년 2%에서 2007년 2.8%로 소폭 증가 • **5세 미만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10.4%에서 2002년 5.3%로 대폭 감소 • **영양 불균형 인구 비율** 1990년 27%에서 1995년 26%로 소폭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등록률** 1991년 54.6%에서 2007년 80%로 개선 • **초등 교육 이수율** 1995년 61%에서 2007년 83%로 상승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 1990년 8%에서 2007년 20%로 대폭 증가 • **남아 대비 여아의 초등 교육 등록률** 1990년 100%에서 2007년 95%로 하락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아동(1천 명당) 사망률** 1990년 65명에서 2007년 29명으로 대폭 개선
모성 보건 증진	• **산모(10만 명당) 출산 중 사망률** 1990년 1백10명에서 2007년 1백50명으로 상승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 중 총 HIV 보균자 비율** 2001년 1.3%에서 2007년 1.1%로 소폭 감소 • **결핵 감염률(10만 명당)** 1990년 232.8명에서 2006년 118.2명으로 대폭 개선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수자원 이용 가능 인구 비율** 1990년 84%에서 2007년 95%로 개선

01 DOMINICA(R)

우리 학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 교육 센터

농촌 지역 1차 초등학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Primary Schools in Rural Communities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감소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산하에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해 달성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국제 개발 기구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국민의 교육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 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해 교육 시설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991년 당시 농촌 지역은 교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기존 시설마저 노후화되어 3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초등학교 건립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2~1993년까지 60만 달러를 들여 빌라 알타그라시아Villa Altagracia, 산 페드로 데 마코리스San Pedro de Macoris, 바노Bano, 마오Mao, 페스카데리아Pescaderia 등 9개 지역에 9개의 초등학교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책걸상과 칠판 등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고, 건축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자문을 실시했다. 9개의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 교육 및 사회 교육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인 마을 회관으로도 쓰일 수 있게 건축되었다. 이 같은 다양한 목적을 지닌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KOICA는 문화교육부가 아닌 대통령실 산하 농촌 지역 개발청의 협조를 받아가며 사업을 진행시켰다.

사업명 도미니카공화국 농촌 지역 1차 초등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2~1993년 | **사업 규모** 6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02 DOMINICA(R)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다

농촌 지역 교실 건축 사업

The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Schools in Rural Communities

도미니카공화국은 한반도의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와 9백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지만 현재 중미와 캐리비안 지역 국가들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미국, 중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 유치로 경제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OICA는 도미니카공화국 농촌 지역에 1차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해 시설 부족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등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시켜 주었다. 1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이에 만족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1996년 농촌 지역 교실 건축을 위한 2차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7년까지 60만 달러를 들여 10개 지역에서 교실 건축 2차 사업에 착수했다. 북부 1개 지역 산티아고Santiago, 북동부 1개 지역 산 프란시스코 데 마코리스San Francisco de Macoris, 중부 3개 지역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 바니Bani, 몬테 플라타Monte Plata, 동부 2개 지역 히게이Higuey, 산 페드로 데 마코리스San Pedro de Macoris, 남동부 3개 지역 아주라Azua, 엘리아스 피나Elias Pina, 산 후안San Juan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KOICA는 이곳에 교실을 건축하고 교육 기자재를 제공했으며,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학교 건립을 위한 KOICA의 계속적인 지원 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구축하는 교육 사업을 실현하는 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었다.

사업명 도미니카공화국 농촌 지역 교실 건축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6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기자재 제공



03 DOMINICA(R) 미성년 여성 중 3분의 2가 임신 경험이 있다

미성년 임신 방지 및 보건 관리 강화 사업

The Project for the Prevention and Strengthen of Health Care for Adolescent and Young Women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인구 중 청소년의 비율은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런데 미성년 여성 중 3분의 2가 임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문제를 인식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산모를 보호하고 모성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공 병원의 산부인과 의료 장비를 현대화하고, 미성년 임신 예방 및 HIV/AIDS 감소, 가정폭력 방지 등의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왔다. 이 사업은 보건 증진과 여성 개발, 복지 향상이라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사업인 만큼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도미니카공화국 여성부의 주관으로 대통령실 국제 협력국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보건부 및 6개의 지역 보건국이 KOICA의 사업에 협조했다.

KOICA는 2006~2008년까지 40만 달러를 지원해 도미니카공화국 최대의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를 비롯해 산 페드로San Pedro, 엘 세이보El Seibo, 몬테 플라타Monte Plata, 라 베가La Vega 지역에 있는 6개의 병원에 초음파 기계 등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11종의 기자재를 제공하고, 미성년 임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초점을 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업명 도미니카공화국 미성년 임신 방지 및 보건 관리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40만 달러 | **지원 내역** 의료 기자재 제공, 워크숍 지원

04 DOMINICA(R) 성 교육과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미성년 임신 방지 및 여성 보건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the Preventing Teenage Pregnancy and Improv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for Young Women

도미니카공화국은 미성년 여성의 임신율이 매우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여성부는 사회 발전을 위한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부처와의 협조를 거쳐 사회 취약 계층인 여성과 청소년 보건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2005년부터 여성·청소년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 교육과 임신·출산 등에 관한 보건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도미니카공화국의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 기자재를 제공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원 사업을 벌인 바 있다. 사업 결과에 만족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미성년 임신 방지 및 여성 보건 개선 사업에 관한 2차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100만 달러를 들여 청소년 성 교육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보건 센터를 건립하고, 현지 보건 인력의 교육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KOICA가 실시하는 첫 번째 여성 개발 분야 사업이다. KOICA는 청소년 대상의 성 교육 및 전문가 교육 훈련을 위한 설비를 제공하고, 지역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기자재도 공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성 문화 센터를 모델로 한 청소년 보건 센터를 건립해 청소년 성 교육 및 상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책 담당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국내외 보건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사업명 도미니카공화국 미성년 임신 방지 및 여성 보건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보건 센터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국내 초청





BOLIVIA

볼리비아는 '남미의 티베트'로 불린다. 고립된 영토의 대부분은 해발 3,000m를 넘는 고원지대에 있다. 평화라는 뜻을 가진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La Paz)'는 해발 3,60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인구의 절반이 잉카의 후손이자 원주민인 볼리비아는 여전히 전통적인 문화를 지키며 살아간다.

글 · 문상원

볼리비아는 전체 인구의 77%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타의 보건 지표도 같은 중남미 '고채무빈국HIPC'에 속한 온두라스나 니카라과 등에 비해 열악하다. 교육 부문 또한 인접 국가에 비해 문맹률을 비롯한 취학률 등이 최하위 수준이며 지역 간, 성별 간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문맹률의 경우 전국 평균치는 13.6%이지만 도시와 농촌 지역은 각각 7.6%와 26.7%이고, 남녀 비율은 각각 7.2%와 19.7%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같은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남미 최빈국인 볼리비아로서는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 단기간 내 교육 환경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2006년 취임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은 '빈곤감소전략EBRP'과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반영된 5가지 주요 과제- 사회 개발 · 민주화 · 생산성 · 대외관계 · 거시경제 안정- 를 골자로 하는 국가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보건 · 교육 · 치안 강화 · 지방 분권 등에 대한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국명 볼리비아 공화국(Republic of Bolivia) **정체** 공화제(대통령 중심제) **기후** 열대 기후(저지대), 고산 기후(고지대) **인구** 9백70만 명(2008년 기준) **면적** 1,099,000㎢(한반도의 5배) **1인당 국민소득** 1천1백28달러(2006년 기준) **수도** 라파스(La Paz) : 행정 수도로 인구 97만 명, 해발 3,600m **민족** 케추아인 30%, 아이마라인 25%, 혼혈 30%, 유럽인 15% **문자 해독률** 81% **종교** 가톨릭 95% **공용어** 스페인어, 케추아(Quechua)어, 아이마라(Aymara)어



| 볼리비아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빈곤층** 1992년 70%, 1999년 62.7%, 2006년 59.9%로 감소. 같은 기간 극빈층 비율은 37%, 36.5%, 37.7%(2015년까지 빈곤층 42.7%, 극빈곤층 24.1%까지 감소 목표) • **영 · 유아의 연령 대비 중량 불균형률** 1989년 38.3%에서 2003년 24.3%로 감소(2015년까지 19%까지 감소 목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2000년 96.4%, 2003년 97.1%, 2006년 92.7%로 최근 소폭 감소 • **초등 학력 이수율** 1992년 55.4%, 2003년 75%, 2006년 75.6%로 증가 • **15~24세 문맹률** 2001년 2.6%에서 2006년 1.5%로 감소(2015년까지 보편적 기초 교육 취학률 100% 달성 목표)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기초 교육에서의 성비 차** 2001년 2.8에서 2006년 −0.6으로 역전되었으며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각각 1.2에서 −1.5로 역전 •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고용된 여성 비율** 2001년 31.5%에서 2006년 34.6%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사망률** 1990년 신생아 1천 명 중 1백25명 사망, 2000년 약 84명, 2006년 61명 사망으로 감소 추세(2015년까지 1천 명 중 40명으로 감소 목표)
모성 보건 증진	• **모성 사망률** 1990년 10만 명중 6백50명 사망, 2000년 4백20명, 2005년 2백90명 사망으로 대폭 감소(2015년까지 10만 명중 1백 명 사망 목표) •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모성 보건 전문 인력 상당 부족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백만 명 중 HIV/AIDS 발병률** 1995년 0.5명, 2001년 9.4명, 2006년 19.2명으로 증가 추세(2015년까지 1백만 명 중 13명 목표) • **10만 명 중 결핵 감염 비율** 1996년 3백46명, 2000년 309.2명, 2006년 266.3명으로 감소 추세 • **1천 명 중 말라리아 감염 비율** 2001년 4.6명에서 2006년 5.2명으로 소폭 증가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식수 제공률** 2001년 72%에서 2006년 73.1%로 소폭 증가 • **기초 위생 서비스률** 2001년 40.7%에서 2006년 55.7%로 증가

01 BOLIVIA 현대적인 병원이 16만 주민의 건강을 돌본다

한 · 볼 의료 센터 건립 사업
Korea-Bolivia Health Center Construction

볼리비아는 전 국토에서 고작 3~4% 정도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이며, 대부분은 전혀 개척되지 않은 오지이거나 불모지다.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볼리비아 국민들은 결코 풍요롭지 못하다. 하지만 500년 전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모습 속에는 가난해도 찌들지 않은 따뜻한 인정이 듬뿍 배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볼리비아 인구는 지난 50년간 3배로 증가했다. 근대화의 영향으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그러나 수도인 라파스와 인근 지역조차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처해 교육은 물론, 보건 의료 등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헌법상 수도인 수크레Sucre 근교 엘알토El Alto 시에 의료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볼리비아에서 도시 집중 현상이 한창이던 1995~1996년까지 50만 달러를 투입해 18개 병상 규모의 2층 병원을 건축하고, 진료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제공했다. 당시 엘알토에 있는 큰 규모의 병원(40병상)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Los Andes Hospital'이 유일했다. 하지만 이 병원만으로는 산모의 사망률이 높은 엘알토 지역의 환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수도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한 · 볼 의료 센터는 1997년 2월 개원식을 가진 이래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KOICA는 추가로 장비 제공과 함께 질병 관리 및 응급 의료 분야의 연수를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 속에 의료 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한 신문은, "현대화된 병원이 16만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볼 것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한 · 볼 의료 센터 건립을 알리면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지원에 큰 기대와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명 한 · 볼리비아 의료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6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축, 의료 장비 제공, 관계자 연수

02 BOLIVIA

나만의 기술을 익혀 사회로 진출하는 게 즐거워요

기술교육원 건립 사업

Project for Establishing the Technical Education Institute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볼리비아는 아이러니하게도 남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천연가스와 주석을 비롯한 텅스텐 · 유황 · 구리 등의 광물 자원과 풍부한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극소수 스페인계 계층에 대부분의 부가 집중되어 있어, 대다수 볼리비아 국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 지역의 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개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 볼 의료 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손길이 닿은 엘알토El Alto 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 증가로 보건 의료 분야의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자립





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신만의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직업 교육을 통해 인적 인프라와 개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소득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KOICA는 2000~2002년까지 75만 달러를 들여 엘알토 시에 1,800㎡ 규모의 기술교육원을 건립하고 봉제 · 컴퓨터 · 목공예 · 전자 수리의 4개 학과를 개설했다. 봉제와 목공예 분야에서는 여성의 지원이 두드러졌는데,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볼리비아 여성들은 자립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컴퓨터와 전자 수리 분야는 가정의 소소한 제품 수리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지식 기반 산업의 구축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KOICA는 기술교육원의 4개 학과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기술 교육을 시키는 한편, 훈련원 관리자와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나만의 전문 기술을 익혀 사회로 진출하는 게 매우 즐겁습니다."

기술교육원 학생들은 배움의 즐거움이 성공적인 사회 진출로 바로 이어지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낀다고 했다. 자기만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직업 선택의 폭과 기회가 넓어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기술 역량은 후배들에게, 더 젊은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될 것이다. KOICA는 한 · 볼 의료 센터와 함께 볼리비아 직업교육원 건립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엘알토 주민의 시급한 의료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사업명 볼리비아 기술교육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0~2002년 | **사업 규모** 75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원 건축, 기자재 제공,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3 BOLIVIA

병원 건립뿐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도 돕는다

엘알토 지역 모자 보건 서비스 개선 사업

Public Health Service Improvement Project for Mother and Child in El Alto

볼리비아는 유엔 '인간개발지수HDI' 로 평가했을 때 177개국 중 113위를 차지한다. 인구의 3분의 2가 빈곤층에 속하며, 이들 대부분은 원주민으로 문맹률과 실업률도 심각하다. 빈부 격차 또한 중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소득 격차나 실업률, 문맹률이 더욱 차이가 나는데 이는 농촌 지역 인구의 대부분이 원주민이기 때문이다.

한 · 볼 의료 센터 건립 이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엘알토의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2005년에는 자체적으로 병원 규모를 기존 18개 병상에서 48개 병상으로 늘렸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73%가 빈곤층에다 그중 25%가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지역적 특성상 무료 진료를 원하는 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당시의 병원 규모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2006년 당시 엘알토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급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였다. 환자는 매일 폭주하듯 밀려들고,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기다려야 했다. 또한 엘알토 지역에는 대형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3차 의료 기관이 없는 관계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할 경우 수도까지 이송하는 방법 외에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로 인해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와 의료 장비의 내실화는 한 · 볼 의료센터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게다가 산모 1명이 평균 5.4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모자 보건 분야의 지원이 절실했다.

KOICA는 볼리비아 정부의 엘알토 지역 모자 보건 서비스 개선 사업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2006~2008년, 기존 한 · 볼 의료센터에 125만 달러를 투입하여 면적 2,000㎡의 모자 의료 센터를 신축하고 초음파 진단기와 인큐베이터 등 필수적인 의료 장비들을 제공했다. 산모와 신생아의 질병 관리 외에도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응급 의료, 보건 행정 연수 과정을 개설했다. KOICA는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환자의 수적인 증가와 질병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은 처음 병원을 설립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명 볼리비아 엘알토 지역 모자 보건 서비스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8년 | **사업 규모** 125만 달러 | **지원 내역** 모자 보건 센터 건축, 의료 기자재 지원





EL SALVADOR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는 수십 개의 화산과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이곳의 토양은 커피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대외 수출량의 60%를 커피가 차지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와 세계 경제 침체로 엘살바도르의 빈곤은 다시 악화되고 있다. **글 · 서동성**

엘살바도르는 오랜 내전의 여파로 다량의 총기가 사회에 유포되었으며, 군인이나 게릴라 출신 전투원들 중 사회 적응에 실패한 이들과 빈곤층에 의한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하루 평균 1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상 강도와 은행 강도, 납치 사건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 이미지와 투자 환경 및 빈곤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전 종식 후 정치, 경제 개혁의 성과와 해외 거주자의 달러 송금에 힘입어 엘살바도르의 사회 재건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연이은 허리케인과 지진 피해로 수십만 명의 주민이 생활의 터전을 잃는 등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 발생과 세계 경제의 침체로 엘살바도르의 빈곤은 다시 악화되고 있다. 2001년부터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를 자국 통화와 함께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달러 공용화 제도'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만성적 인플레이션 극복과 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달러 공용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긴축 재정을 시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명 엘살바도르공화국(Republic of El Salvador) **정체**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연임 불가, 중임 가능) **기후** 열대 기후(해안), 아열대 기후(고지대), 우기(5~10월), 건기(11~4월) **인구** 6백70만 명(2005년 기준) **면적** 21,041㎢(한반도의 약 1/10) **1인당 국민소득** 2천1백29달러(2006년 기준) **수도** 산살바도르(San Salvador : 수도권 인구 2백만 명, 해발 680m) **민족** 메스티소(백인 · 원주민 혼혈) 91%, 백인 6%, 원주민(인디오) 3% **문자 해독률** 91% **종교** 가톨릭 70%, 개신교 25%, 기타 5% **공용어** 스페인어

| 엘살바도르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6백70만 명) 중 빈곤층** 1991년 57.8%에서 2002년 39.8%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1991년 78%에서 2002년 88%로 개선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기초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의 비율** 1991년 99%에서 2002년 100%로 성 불평등은 거의 해소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사망률** 1993년 신생아 1천 명 중 52명 사망에서 2003년 약 31명으로 축소 • 2015년까지 5세 이하 신생아 사망률을 1천 명 중 7명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
모성 보건 증진	• 1993년 10만 명 중 1백58명 사망에서 1998년 1백20명 사망으로 감소하였으나 2002년 1백72명으로 상승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HIV/AIDS 전염은 1990년 남자 54명, 여자 42명에서 2002년 각각 1천2명과 5백95명으로 크게 증가 •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 1990년 98%에서 2002년 93%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산림 지역** 1990년 9.3%에서 2000년 5.8%로 감소하였으며, 보호 지역 또한 1994년 0.5%에서 2002년 0.4%로 감소 •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년 0.5메트릭톤에서 1999년 0.9메트릭 톤으로 증가 •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국민은 1991년 23.9%에서 2002년 11.9%로 감소

01 EL SALVADOR KOICA의 지원으로 IT 기반을 마련하다

IT 교육센터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Improv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Education Sector

엘살바도르는 커피가 대외 수출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커피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자리의 25%도 커피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커피 수확기에는 그 비율이 80%까지 올라가 마치 나라 전체가 '엘살바도르 커피 회사'로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미고Amigo'는 라틴어로 친구를 뜻한다. 정보통신부는 2005년 주한 중남미 대사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IT 정책을 소개하면서, IT 분야 발전을 위한 'IT Amigo' 관계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본격적 제안에 앞서 중남미에서 실시한 최초의 IT 협력 사업은 2002년 '엘살바도르 IT 교육 센터 지원'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엘살바도르는 적극적인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인 사회 '인적자원개발HRD'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KOICA는 2002~2003년까지 38만 달러를 지원해 '중미기술원ITCA'에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 등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8명의 'ITCA' 직원을 국내로 초청해 3개 과정- 관리자 과정, 서버·네트워크 과정, 교육 및 교재 개발 과정- 의 연수를 실시했다. 아울러 우리 전문가 10명을 현지에 파견해 IT 교육 센터의 서버 구축과 네트워크 관리 및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현지의 요구를 반영해 화상 회의 시스템 등 기자재를 추가로 제공하기도 했다. KOICA의 엘살바도르 IT 지원 사업은 2003년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사업명 엘살바도르 IT 교육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3년 | **사업 규모** 38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2 EL SALVADOR 엘살바도르 최초의 선진국 수준 IT 교육 과정

중미기술연구소 현대화 2차 사업

Modernization of the Central American Technological Institute(ITCA)

IT 분야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엘살바도르 정부의 의지는 매우 적극적이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1차로 추진된 IT 교육센터 지원 사업에 이어 2차로 '중미기술연구소ITCA'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당시 엘살바도르 정부는 'La Nueva Alianza' 라는 국가 개발 계획에 IT 분야 개발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 · 장기 마스터플랜 등 구체적인 개발 전략이 없었고, 기반 인프라는 매우 취약했다. 중미기술연구소는 당시까지 전기 · 전자 · 산업공학 등 공학 기술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개발 전문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33만 달러를 들여 중미기술연구소 캠퍼스에 엘살바도르 최초로 선진국 수준의 IT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1차 사업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개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사업이 종료된 후 중미기술연구소의 IT 교육 센터는 단기 과정과 2년 코스의 장기 고급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친 KOICA의 지원을 통해 IT 교육 효과는 극대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일회적 지원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주요 사례가 되었다.

사업명 엘살바도르 중미기술연구소 현대화 2차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33만 달러 | **지원 내역** 멀티미디어 강의실 구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03 EL SALVADOR 소비자 보호로 경제 발전을 모색한다

소비자 보호청 IT 시스템 구축 사업

Project for support of setting up the Consumer Protection Office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세 나라와 인접해 있다.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작다.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에서 살고 있는 인구는 엘살바도르 전체 인구의 30% 수준이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엘살바도르를 중미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으로 평가할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004년 사카Elas Antonio Saca 대통령이 취임한 후 포괄적인 개발 목표가 담긴 5개년 국가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정치 · 경제 · 사회 개발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치안 강화와 교육의 현대화, 보건 영역 확대 등 16가지 세부 실천 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을 국정 과제의 하나로 정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 대통령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2005년 9월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재경부 산하 소비자 보호국DPC은 대통령 직속의 소비자 보호청Defensoria으로 통합되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소비자 보호청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소비자 보호청의 IT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연수생 초

청 등 물적 ·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KOICA에 의해 소비자 보호청은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고, 투명하고 선진화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업무의 정보화 기반도 조성했다. 엘살바도르 데 로보De Lovo 소비자 보호청장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정착, 발전시켜 장차 다른 중남미 국가에 그 경험을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KOICA에 사의를 표했다.

사업명 엘살바도르 소비자 보호청 IT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4 EL SALVADOR

소야팡고에는 '대한민국학교'가 있다

소야팡고 시 초 · 중등학교 시설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Conditions at the "Schoo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oyapango

엘살바도르의 9살 마누엘은 생계를 위해 학교에 가는 대신 조개와 가재를 잡으며 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마누엘은 담배를 피운다. 담배가 좋아서 피우는 게 아니라 말라리아모기를 쫓기 위해 피우는 것이다.

현재 교육과 보건 등 사회 분야에서 엘살바도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현황은 다른 중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1991~2002년 사이 기초 교육 취학률은 10% 증가하고, 유아 사망률은 40% 감소했다.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오랜 내전의 영향으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 계층 및 도농 간 빈곤의 격차가 크고, 심각한 어린이 노동 문제를 안고 있는 데다 치안 상황은 중미 6개 국가 중 가장 열악하다.

엘살바도르에서는 6년간 무상으로 초등 교육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등학교 취학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006년 '교육 발전 15개년 계획Plan of National Education 2021'을 수립하고, 교육 훈련 강화와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마누엘 소년같이 엘살바도르에는 학교에 가는 대신 거친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아 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엘살바도르 소야팡고Soyapango 시에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학교'가 있다. KOICA는 2007년 '대한민국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55만 달러를 들여 학교 내에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건축하고,





체육 활동에 필요한 설비와 방송 장비 및 무대 장치를 제공했다. KOICA는 5월에서 10월까지 장기간 우기가 찾아오는 현지의 기후를 고려해 우기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을 마련해준 것이다.

사업명 엘살바도르 소야팡고 시 초 · 중등학교 시설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55만 달러 | **지원 내역** 체육관 건축, 기자재 지원, 건축 전문가 파견

05
EL SALVADOR

어린이들에게 전염병 예방 주사를 놓아주세요

전염병 검사 · 관리 역량 강화 사업
The Capacity-building for Laboratory Diagnosis and Surveillance of Communicable Disease



"어린이들에게 전염병 면역 주사를 놓아야 한다. 당장 전투를 멈춰라."
1980년대 엘살바도르 내전 당시 제임스 그랜트 전 유니세프 사무국장은 아이들에게 면역 주사를 놓아야 한다며 정부군과 반군 사령관을 설득해 전투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그 후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보건 환경으로 인해 HIV/AIDS와 결핵, 뎅기열 등의 심각한 전염병과 싸우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전염병 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전염병 검사 · 관리 역량 강화' 사업에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년 72만 달러를 들여 고속 원심기와 항온 배양기, 초저온 냉동고, 증류수 제조기 등 40여 종의 필수적인 검사 장비를 제공하고,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 전염병 관리와 검사 분야에 관한 기술을 전수했다. KOICA는 엘살바도르 보건복지부 산하 과학기술 부서인 '중앙 진단검사의학 센터'의 전염병 관리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향상시키고, 전국 보건소 검사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갔다.

"한국의 지원으로 전염병 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의학 센터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우방 국가인 한국의 도움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된 후 'Jose Ernesto Navarro' 보건부 차관은 이같이 소감을 밝히며 코이카에 사의를 표했다.

사업명 엘살바도르 전염병 검사 · 관리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년 | **사업 규모** 72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06
EL SALVADOR

이제 우리도 컴퓨터를 수리할 수 있어요

교육 분야 정보통신 기술 지원

The Project for Improv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Education Sector

엘살바도르 교육부는 컴퓨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원조 기관으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지원받고 있으며, 자국 업체들이 재활용품으로 기증한 컴퓨터를 수리해 학교에 공급해 왔다. 그러나 소규모 수리 센터를 운영하는 데 점차 한계를 느낀 교육부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268만 달러를 투자하여 '엘살바도르 교육 분야 정보통신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컴퓨터 분해 수리 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기술 지원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분해 수리 센터에서는 각종 컴퓨터 부품과 수리 기자재, 수리한 컴퓨터의 포장 기자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컴퓨터 수리 및 조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컴퓨터 부품과 교육 기자재, 재고 관리와 바코드 시스템을 지원했으며, 우리나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엘살바도르 분해 수리 센터 관리자를 국내에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하드웨어의 구축은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해외 원조와 기업의 기증으로 지원된 중고 컴퓨터를 수리 · 보급하는 것은 엘살바도르의 컴퓨터 보급률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사업명 엘살바도르 교육 분야 정보통신 기술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268만 달러 | **지원 내역** 컴퓨터 분해 수리 센터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7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EL SALVADOR

임산부 요양소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Maternal Homes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모성 사망률 감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의 5번째 목표다.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의료진의 관리를 받는 것은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2008년 발간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를 보면 출산 때 의료진의 관리를 받을수록 모성 사망률이 감소하고, 산모의 건강 관리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전문 의료인의 관리를 받는 출산율이 증가하자 10만 명당 산모의 사망 건수는 15년 사이 1백80건에서 1백30건으로 감소했다. 엘살바도르 보건부는 10만 명당 사망 산모를 50명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가 개발 계획에 '출산 전후 관리 및 모성 사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10개의 임산부 요양소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응급 분만을 위한 의료 기기와 침구 등 각종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엘살바도르 공무원 및 모자 보건 관계자의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KOICA는 오지에 거주하는 산모들도 적절한 산전 ·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모성 및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엘살바도르 임산부 요양소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임산부 요양소 건축, 기자재 지원, 워크숍 실시

08 영농 설비 구축으로 연중 채소 재배가 가능

EL SALVADOR

채소 재배 생산성 향상 사업

Improvement of Vegetable Cultivating Technique in Central Province



세계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경우 최근 30년간 이상 기후 현상으로 5만5천7백 명이 사망했고, 경제적 피해액은 2백2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엘살바도르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부문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농업은 전적으로 자연 강수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 기온 등 기후 변화로 인해 1~5월까지의 건기에는 더욱 건조해지고, 7~8월의 우기에도 강수량이 점점 줄어들어 최대 강수량이 예년의 평균치에 그치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최근 수년간 '농업 관련 사업 복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200만 달러를 들여 농가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중 채소와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영농 설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가뭄 피해가 심하고 낙후된 지역에 관개 시설 및 온실 등의 농업 관련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고부가 가치 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업명 엘살바도르 채소 재배 생산성 향상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펌프 온실 설비, 사무용 기기 등 기자재 지원, 온실 건축, 연수생 초청

ECUADOR

안데스 산맥을 품고 있는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Ecuador). 에콰도르는 스페인어로 적도를 의미한다. 지구상에 적도에 있는 나라는 많지만 적도라는 명칭 자체를 국명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에콰도르뿐이다. 에콰도르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작은 나라지만 해발 6,000m의 안데스 산맥 고봉에 자리 잡은 만년설부터 태평양 연안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 글 · 서동성

에콰도르는 1970년대 원유 산업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의 35%인 4백만 명이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중 1백50만 명은 수입의 전부를 식료품비로 지출해도 기본적인 영양 미달 상태에 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안데스 산맥과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황금 어장인 태평양 연안, 그리고 갈라파고스 섬까지 에콰도르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졌다. 양식 새우 생산량은 중남미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바나나 생산량은 세계 4위다. 생선, 바나나, 커피 등 농산물 수출과 함께 1백만 명에 이르는 재외 동포들의 송금과 원유 수출은 에콰도르의 주요 수입원이다. 최근에는 연기 없는 산업으로 각광 받는 '환경관광산업 Ecotourism'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007년 1월 취임한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 개발 계획을 제시하며, 에너지 국유화와 사회 복지를 위한 지출 확대 등 급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개년 경제 개발 계획 · 사회 부문 발전 계획 · 플랜 에콰도르 · 국가 인적 개발 계획 등이 그것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같은 개발 계획에 '새천년개발목표 MDGs'를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정책 조율을 통해 목표 달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인종 간 대립 등으로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은 에콰도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에콰도르는 다시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국명 에콰도르 공화국(Republic of Ecuador) **정체** 공화제(대통령 중심제/4년 단임) **기후** 열대 기후(해안, 동부 지역), 온대 기후(중부 산맥 지역) **인구** 1천3백34만 명(2007년 기준) **면적** 277,000㎢ **1인당 국민소득** 3천88달러(2007년 기준) **수도** 키토(Quito) : 인구1백40만, 해발 2,850m **민족** 메스티소(65%), 원주민(25%), 흑인(3%), 기타(7%) **문자 해독률** 91% **종교** 가톨릭 90% **공용어** 스페인어 및 11개 기타 부족어(키추아어, 슈아르어 등)



| 에콰도르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극빈층** 1995년 13%에서 1999년 15.5%로 증가(2015년 7.7%까지 감소 목표) • **만성 영양 불균형률** 1999년 22.9%, 2000년 22.7%, 2004년 17.4%로 감소 추세(2015년까지 11.4% 감소 목표) • **5세 이하 저체중아 비율** 1999년 14.8%에서 2004년 9.4%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1999년 99%에서 2004년 99.4%로 동일 수준 유지 • **초등 교육 이수율** 1995년 89%, 1999년 90.3%, 2003년 88.9%로 동일 수준을 유지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기초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1년 99%에서 2004년 100%로 개선 • **의회 여성 진출** 1998년 3.7명, 2002년 14.6명, 2007년 2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사망률** 1990년 신생아 1천 명 중 65.9명, 2000년 29.1명, 2006년 24명으로 감소 추세 • 2015년까지 5세 이하 사망률을 1천 명 중 21.96명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로 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영아 사망률** 1990년 49.9%에서 2006년 35.6%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까지 16.6% 달성이 목표 • **1세 영아 홍역 예방 접종률** 1996년 이후 97% 수준
모성 보건 증진	• **10만 명 출산 중 모성 사망률** 1990년 1백50명, 2000년 1백30명, 2005년 2백10명으로 증가 추세 •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모성 보건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인구 10만 명당 연간 HIV/AIDS 발생률** 2003년 25% • **인구 10만 명 당 연간 결핵 감염률** 1996년 276.9명, 2004년 247.2명, 2006년 194.9명으로 감소 추세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녹지율** 1999년 49.9%, 2000년 42.8%, 2005년 39.2%로 감소 추세 • **식수 제공률** 1990년 73%, 2000년 88%로 증가, 2006년 96%로 대폭 개선 • **기초 위생 서비스율** 1990년 54%에서 2015년 78%까지 증가 목표

01 ECUADOR

분쟁 지역에 뿌린 모성의 씨앗

모자 보건소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Maternity & Infant Health Center





적도 위의 나라 에콰도르는 늘 푸르다. 국토는 좁지만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갖고 있다. 비옥한 고산 지대, 활화산인 안데스, 독특하고 희귀한 야생 동식물, 금을 비롯한 광물의 보고인 아마존 열대 우림을 가진 나라가 바로 에콰도르다.

문제는 아마존 유역의 막대한 자원이다. 에콰도르와 페루는 55년 동안 3차례 국경 분쟁에 휘말렸다. 이 같은 충돌은 1830년 에콰도르가 독립하면서 설정된 모호한 국경선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후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보장 아래 체결된 '리우조약'이 페루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되면서 치명적 분쟁의 씨앗이 됐다. 이제 겨우 분쟁은 끝났지만 국경 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국경 도시 '라스 라하스Las Lajas' 시는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로부터 508km 떨어져 있다. 2000년 당시 이곳의 0~5세 유아 사망률은 12%에 달했다. '라스 라하스' 시에는 보건소와 약국밖에 없어 산모에게 긴급한 일이 생기면 20km 이상 떨어진 인근의 도시까지 가야만 했다.

KOICA는 국경 지역의 평화 정착을 돕기 위해 의료 시설이 열악한 라스 라하스 시 벽촌 지역에 모자 보건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2001~2003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1,317㎡의 보건소 건물을 건축하고, 정원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했다. 또한 기본적인 의료 장비와 더불어 출산 및 산후 조리에 필수적인 기자재도 제공했다.

'루시오 구티에레스Lucio Gutierrez' 에콰도르 대통령은 KOICA 총재와의 면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보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보건소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콰도르의 경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인적 자원 개발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악한 지역일수록 모성 사망률과 아동 사망률의 수치는 높다. KOICA는 이 지역의 모자 보건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분쟁의 아픔을 나누고자 했다. 2003년 보건소 개원 후 '라스 라하스' 시의 의료 상황은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사업명 에콰도르 모자 보건소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3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보건소 건축, 기자재 지원



02 ECUADOR

벽지에 보건소를 세우다

산로렌조 시 기초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사업

Strengthening of the Community-based Primary Health Care Program at San Lorenzo Health Center



"이곳 보건소는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데, 수돗물 같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았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아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곤 했죠."

에콰도르는 채무 문제를 성공적으로 재조정하고, 달러 공용화 제도를 통해 외환 위기를 극복한 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산업 호조로 경제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 하지만 1997년 이후에만 3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어 해외로 망명하는 등 고질적인 정치 불안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국경 지역은 분쟁과 빈곤으로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콰도르 북쪽 콜롬비아와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산로렌조San Lorenzo는 태평양 연안의 아름다운 도시지만 콜롬비아와의 국경 분쟁을 비롯하여 불법 이민과 난민, 빈곤과 폭력, 환경 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2007년 낙후된 이곳의 평화 유지와 개발을 위해 '평화 계획Peace Plan'을 발표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90만 달러를 들여 시청 앞 부지에 연면적 900㎡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하고, 초음파기와 X-ray기 등 보건소 운영에 필수적인 의료 기기를 제공했다. 에콰도르는 가톨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보건 의료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도시에서 떨어진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보건소의 역할은 우리 몸의 모세혈관만큼 중요하다. 작은 혈관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미미해 보이지만 혈관이 막히면 생명은 숨을 거둘 수밖에 없다. 위생 환경이 열악한 벽지일수록 기초 의료 기관의 유무는 지역 주민의 생명을 좌우한다. KOICA는 에콰도르 북쪽 빈민 지역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으며 보건소의 지속적 운영과 의료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업명 에콰도르 산로렌조 시 기초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90만 달러 | **지원 내역** 보건소 건축, 기자재 지원, 인적 자원 개발

03 ECUADOR

나도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과야스 주 ICT 교육 센터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ICT Training Center of the Guayas Province



"컴퓨터를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에 두 시간 정도뿐이에요. 아예 컴퓨터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고장 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태평양 연안 과야스 주 과야낄 시에 사는 중학생의 말이다. 과야낄 시의 학생 수는 8만8천 명. 이는 전체 에콰도르 학생 수의 25%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초·중등학생은 컴퓨터를 가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 과야스 주 의회는 2008년부터 7년간 과야스의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ICT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 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04만 달러를 투입해 ICT 교육 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야스 주 정부는 ICT 교육 센터를 건축하고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KOICA는 컴퓨터와 서버, 프린터 등의 강의용 기자재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또한 센터 관리자를 위한 연수 과정을 개설해 관리와 운영에 관한 지식을 공유했다.

사업명 에콰도르 과야스 주 ICT 교육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04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및 초청 연수

04 ECUADOR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어요

침보라소 주 관개 수로 및 영농 기술 지원 사업

Construction of Irrigation System and Agricultural Extension Facilities

"여기는 산악 지역이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농사에 쓸 물을 대는 일도 어렵죠. 그렇다고 이곳에서 농사 말고 다른 할 일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 점점 고향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어요."

에콰도르 농촌에서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빈곤 인구의 3명 중 2명이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원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산 지역과 아마존 지역은 더욱 형편이 어렵다.

에콰도르에서 가장 높은 해발 6,168m의 침보라 산이 있는 침보라소 주는 인구 40만 중 61%인 25만 명이 농사를 지으며 사는 전형적인 농업 지역이다. 그러나 산악 지형의 특성상 농경지의 규모 자체가 영세하고, 무분별한 개간으로 인한 경사지의 토양 침식과 관개 시설까지 미비해 농사를 짓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침보라소 주 정부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개 수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했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250만 달러를 투입해 아브라Abra 관개 수로를 건설하고, 1,300ha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관개 수로가 건설되면 이모작은 물론 전천후 영농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업 기술 지원 센터를 건립해 수자원 관리 기술과 영농 기술도 교육할 예정이다.

사업명 에콰도르 침보라소 주 관개 수로 및 영농 기술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토목 및 건축(관개 수로, 영농 기술 교육 센터, 마을 창고),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

HONDURAS

온두라스는 스페인으로부터 1821년 독립했으나 빈번한 쿠데타로 정국의 불안 상태가 지속되었다. 정치적 혼란이 여전히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육과 보건 부문의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글 · 이유리

온두라스의 현대 정치사는 군사 쿠데타로 점철돼 있다. 1955년 군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다. 1957년에는 의회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으나 1963년 다시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다. 1965년 의회 선거로 대통령을 뽑고 1971년에는 민간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1972년 군부로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뿐만 아니다. 1975년에는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군 출신의 다른 인사를 국가 원수로 추대하기도 했다. 1979년 온두라스는 제헌 의회를 통한 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야 마침내 민주적인 방식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차기 당선자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은 온두라스가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었다. 온두라스의 빈곤 감소 전략은 국가 재건 계획의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온두라스 정부는 교육과 보건 부문의 개발을 우선 과제로 정했다. 또한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17개월에 걸쳐 3천5백 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 부문 중 · 장기 계획(2005~2015년)과 보건 부문 중 · 장기 계획(2005~2015년)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균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의 빈곤 감소를 위한 지원책을 펴는 것이다. 이외에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 보호망 강화 및 개발 전략의 지속적 추진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명 온두라스 공화국(Republica de Honduras) **정체** 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기후** 해양 : 열대성 기후(20~39℃) 내륙 : 온대성 기후(7~34℃) **인구** 6백97만5천2백4명(2003년 기준) **면적** 112,090㎢(한반도의 1/2) **1인당 국민소득** 1천43달러(2005년 기준) **수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 **민족** 메스티소 90%, 인디언 7%, 흑인 2%, 백인 1% **문자 해독률** 60% **종교** 가톨릭(97%) **공용어** 스페인어



| 온두라스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2000년 당시, 국가 빈곤선에 놓인 인구가 여전히 전 인구의 52.5%를 차지 • **5세 미만 영양실조 아동** 1990년 33%에서 2007년 26%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과정 이수율** 1990년 64%에서 2007년 89%로 개선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대학 및 직업 교육을 받는 남성 대비 여성 비율** 1990년 79%에서 2000년 126%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1990년 58%에서 2007년 27%로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숙련된 산파의 도움을 받는 출산 비율** 1990년 45%에서 2007년 67%로 개선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에서 HIV 발병률** 2000년 0.9%에서 2007년 0.7%로 감소 •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비율** 1990년 1백15명에서 2007년 76명으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수자원 접근성** 1990년 72%에서 2007년 84%로 증가

01 HONDURAS 원격 지원으로 의료 장비를 갖춰 나갔죠

응급 병원 개선 사업

Improvement of the Clinicas Perifricas de Emergencia(CLIPERs) of Tegucigalpa

마야 문명의 중심지인 온두라스는 1502년 콜럼버스에 의해 스페인 식민지가 되었다. 그 후 원주민들은 광산과 농장에서 혹사당하면서 3백여 년간 식민 통치를 받아 왔다. 온두라스는 스페인으로부터 1821년 독립했으나 빈번한 쿠데타로 정국의 불안 상태가 계속되었다. 스페인의 식민 통치와 온두라스 내부의 정치적 혼란은 지금까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원인이다. 1998년 온두라스 정부는 의료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 외곽에 3개의 응급 병원을 지었지만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은 이내 포화 상태에 달했다.

온두라스 정부의 요청으로 KOICA는 2002~2003년까지 38만 달러를 지원해 3개의 응급 병원 의료 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지에는 한국 대사관이나 KOICA 사무소가 없어 전반적으로 사업 수행이 쉽지 않았다. KOICA는 원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온두라스 정부와 장기간 협의를 마친 후 2003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KOICA는 엑스레이 등 필수적인 의료 장비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장비 운용법을 교육하는 한편 관련자 9명을 2주간 국내로 초청해 응급 의료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로써 KOICA는 온두라스 보건 의료 분야 지원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명 온두라스 응급 병원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3년 | **사업 규모** 38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2 HONDURAS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는 것이 시급해요

한 · 온두라스 기술훈련원 1, 2차 지원 사업

Project for the Up-grading of the Korea-Honduras Technical Training Center





온두라스 정부는 산업화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장애 요소를 없애기 위한 측면에서도 기술 인력 양성을 강조해 왔다. 숙련된 기술 인력 부족은 실업률 증가와 청소년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KOICA는 1997~1999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산페드로술라 시San Pedro Sula City에 한 · 온두라스 기술훈련원을 설립한 바 있다. 완공 후 훈련원은 지역의 유수한 기술훈련원으로 자리 잡았고, 숙련된 기술 인력 양성으로 온두라스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2004년 온두라스 정부는 기술훈련원에 자동차 정비 공과를 신설해 달라고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훈련원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 수요에 대비한 것이었다.

KOICA는 온두라스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들여 2005~2006년까지 83만 달러를 투입해 자동차 정비 훈련 센터를 건립하고, 기자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동차 전문가 2명을 2개월간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1, 2차 기술훈련원 지원 사업을 통해 온두라스 정부의 중 · 장기 국가 개발 전략의 하나인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번 사업은 1, 2차로 이어진 연계 사업의 좋은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명 한 · 온두라스 산업 기술 훈련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9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훈련원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관계자 국내 초청 연수, 교재 개발, 현장 관리자 파견

사업명 한 · 온두라스 기술훈련원 2차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83만 달러 | **지원 내역** 2개 공과 개설,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3 HONDURAS

이젠 신생아를 잃게 되는 일이 줄었어요

신생아 사망률 감소 지원 사업

Project for the Neonatal Mortality Reduction in the Newborn Service of the Hospital Escuela

2004년 온두라스는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1천 명당 41명을 기록했다. 그중 상당수는 신생아였는데, 대부분 출생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는 1백 명의 아이들 중 4명이 사망한 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다.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에 있는 에스꾸엘라 병원Hospital Escuela은 최고의 국립대학병원으로 2005년 당시 이 병원에서만 2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중 20~30%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데다가 전국에서 연간 7천 명의 신생아가 치료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었다. 에스꾸엘라 병원의 신생아 수용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른 지 오래였다. 온두라스 정부는 2005년 우리나라에 에스꾸엘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개선 사업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60만 달러를 들여 신생아 중환자실을 리모델링하고 의료 장비를 제공했으며, 소아과 의사 2명을 국내로 초청해 보름간 신생아 중환자 관리 기술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온두라스 수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신생아 중환자 관리에 대한 모든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명 온두라스 신생아 사망률 감소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6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실 리모델링, 기자재 지원, 의료진 국내 초청 연수



JAMAICA

전설의 뮤지션 밥 말리(Robert Nesta Marly)의 고향인 자메이카는 레게음악의 나라다. 1960년 자메이카에서 시작된 레게는 세계의 팝음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쿠바에서 남쪽으로 145km 떨어진 자메이카는 카리브 해 북부 서인도 제도의 섬나라다. 1655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으나 1962년 독립했다. 글 · 이유리

자메이카는 국제적 범죄 조직에 의해 마약 거래와 돈 세탁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남미에서 생산된 마약이 미국으로 반입될 때 경유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갱단 간의 총격전 등 살인사건도 그치지 않고 있다. 2007년 유엔과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자메이카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5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세계에서 가장 살인사건이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극심한 범죄 발생률은 기초적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메이카 정부는 경찰의 화력을 증강시켜 강력 범죄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부정부패가 심한 데다 용의자를 체포, 구속한다고 해도 소송까지 과다한 기간이 걸리는 등 사법 제도에도 문제가 많아 범죄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메이카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 하나는 범죄 확산 방지다. 자메이카 정부는 국가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확산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치안 유지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 의료 개선, 교육과 농업 진흥, 일자리 창출 및 빈곤 퇴치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메이카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국가ACP'나 EU와의 국제 무역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도하 라운드에서는 다른 중진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경제 소국에 유리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명 자메이카(Jamaica) **정체** 입헌군주제 **기후** 열대 해양성 기후 **인구** 2백80만4천3백32명(2008년 기준) **면적** 11,000㎢(한반도의 1/20) **1인당 국민소득** 3천7백10달러(Atlas method by World Bank) **수도** 킹스턴(Kingston) **민족** 흑인(90.9%) **문자 해독률** 84.9% **종교** 개신교 56%, 가톨릭 5%, 기타 39.1% **공용어** 영어



| 자메이카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가 빈곤선에 놓인 인구** 1995년 전 인구의 27.5%에서 2000년 18.7%로 개선 • **5세 미만 영양실조 아동** 1995년 4.0%에서 2000년 3.8%로 소폭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과정 이수율** 1990년 91%에서 2007년 82%로 감소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대학 및 직업 교육을 받은 남성 대비 여성 비율** 1990년 74%에서 2000년 182%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1990년 33%에서 2007년 31%로 소폭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숙련된 산파의 도움을 받는 출산 비율** 1990년 79%에서 2007년 97%로 개선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에서 HIV 발병률** 2000년 1.4%에서 2007년 1.6%로 증가 •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비율** 1995년 94명에서 2007년 73명으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수자원 접근성** 1990년 92%에서 2007년 93%로 소폭 증가

01 JAMAICA 이젠 우리 힘으로 양식장을 만들 수 있어요

새우 양식 지원 사업
Marine Shrimp Farming Project



다양한 새우의 종류 중 열대성 보리새우는 그 맛이 뛰어나기로 이름 높다. 자메이카와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은 열대성 보리새우 양식으로 유명하다. 특히 자메이카 남부 해안 지역은 기후와 수온, 바람 등 보리새우 양식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리새우는 연 1~2회 수확이 가능하지만 남부 해안 지역의 'Tarentum'에서는 연 3회까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메이카 정부는 이곳에 새우 양식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예산과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2년 우리나라에 새우 양식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3~1995년까지 47만 달러를 들여 냉동 창고와 운반 · 통신 장비 등 새우 양식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양식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전문가 2명을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관계자 3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2년 뒤인 1997년, KOICA는 다시 기계와 전기 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냉동 창고를 점검하고, 관리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로 인해 자메이카 정부는 독자적으로 새우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사업명 자메이카 새우 양식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3~1995년 | **사업 규모** 47만 달러(자메이카 20만 달러 부담) | **지원 내역** 장비 제공,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2 JAMAICA 손으로 쓰는 기록에서 전산 기록으로

킹스턴 시 중앙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Strengthening the Health Information System to effectively plan, deliver and achieve optimal health outcomes for all Jamaicans

밥 말리의 고향이기도 한 자메이카는 팝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레게음악의 종주국이다. 쿠바에서 남쪽으로 145km 떨어진 자메이카는 카리브 해 북부 서인도 제도의 섬나라다. 1655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으나 1962년 독립했다.





수도 킹스턴에 있는 킹스턴 공공 병원은 자메이카 최대의 공공 의료 기관으로 5백 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53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공공 병원의 현실은 매우 척박하다. 이곳에서 한 번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길게는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전산 시스템이 없어 일일이 수기로 예약을 관리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대기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도 수기로 이루어져 '기초 통계' 자료는 물론, 최고 책임자조차 병원의 운영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부처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메이카 보건환경부는 4개의 독립적인 보건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매달 말단 의료 기관에서 보내온 종이 문서를 각 프로그램에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료 기관의 이용 실태와 질병과 출산, 사망, 전염병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정보의 질과 활용도는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자메이카 정부는 이에 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4단계 계획(시스템 요구 분석, 인력 교육, 시스템 구현, 관리 교육)을 세우고, 중앙 보건 정보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자메이카 정부가 양질의 보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보건 전략을 수립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명 자메이카 킹스턴 시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3 JAMAICA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와 사회 참여를!

청소년 IT 정보 센터 신축 및 사회 참여 역량 강화

Youth Empowerment and Information Center Establishment

자메이카에서 초등 교육은 무상이지만 의무 교육 제도는 없다. 자메이카의 청소년 실태는 정부가 나서서 외국에 도움을 요청할 만큼 심각하다. 청소년 중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은 절반 이하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 중 20%는 부모 없이 혼자 생활한다.

자메이카 가족계획위원회NFPB의 통계에 의하면, 10대 여성의 출산이 전체 출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25%는 18세에 1명 이상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문제의 심각성도 예외가 아니다. 보고된 에이즈 환자의 25%는 20대이며, 에이즈가 15~24세의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 문제는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2005년 청년 실업은 25.7%로 전체 실업률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자메이카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사회 참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탈선을 방지하고, 노동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 IT 정보센터 신축 및 사회 참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KOICA는 자메이카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2008~2009년까지 120만 달러를 투입해 청소년 정보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청소년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술 습득을 장려해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에 앞장설 계획이다.



사업명 자메이카 청소년 IT 정보 센터 신축 및 사회 참여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120만 달러 **지원 내역** 청소년 정보 센터 건축, 기자재 지원

COLOMBIA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가한 나라다. 1990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유세 중 3명의 대통령 후보가 암살되기도 했으며,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조를 받고 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게릴라군과의 내전으로 인해 2백만 명이 넘는 '자국 내 난민'이 발생했다. 글 · 박숙현

콜롬비아는 1800년대 에스파냐 독립 선언과 함께 '누에바그라다Nueva Granada'란 이름을 거쳐 1886년 콜롬비아공화국이 되었다.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유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다. 이는 두 나라의 우호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콜롬비아에는 교민 6백여 명이 거주한다. 2000년대 초반 콜롬비아는 연간 6%의 성장률, 20%의 빈곤 감소율과 25%의 실업률 감소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무장혁명군FARC과 민족해방군ELN 같은 무장 게릴라군과 정부와의 40년간에 걸친 내전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90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유세 중 3명의 대통령 후보가 암살되기도 했다. 마약과 폭력, 납치 등 불안한 치안 문제는 콜롬비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06년 콜롬비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6.8%에 달했으나 여전히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조를 받고 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게릴라군과의 내전은 2백만 명이 넘는 '자국 내 난민'을 발생시켰고, 잦은 납치와 마약 거래로 불안한 사회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를 침체시키고, 공공 부문의 치안 비용을 증가시켜 콜롬비아의 경제 발전을저해시키고 있다. KOICA는 콜롬비아 개발 계획과 전략을 고려해 지역 및 사회 개발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교육 그리고 의료 보건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명 콜롬비아공화국(Republic of Colombia) **정체** 공화제 **기후** 열대 기후(해안 지방), 온 · 한대 기후(산간 지방) **인구** 4천6백만 명(2009년 기준) **면적** 113만 ㎢ **1인당 국민소득** 6천7백 달러 **수도** 산타페데보고타(Santa Fe de Bogota) **민족** 메스티소(58%), 백인(20%), 물라토(14%), 흑인(4%), 원주민 및 혼혈(3%) **문자 해독률** 92.8% **종교** 가톨릭 **공용어** 에스파냐어



| 콜롬비아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46.2백만 명) 중 빈곤층은 1995년 60%, 1999년 64%였으며, 2003년 15.4%는 극빈층 • 2015년까지 빈곤층을 28.5%까지 감소 목표 • 2015년까지 극빈층을 8.8%까지 감소 목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교육 취학자** 1991년 69.5%에서 2006년 92%로 증가 • **초등학력 이수율** 1991년 76.3%에서 2005년 81.7%로 증가 • **15~24세 문맹률** 1993년 9.5%에서 2005년 2.0%로 감소 • 2015년까지 보편적 기초 교육 취학률 100% 달성 목표 • 초등학력 이수율 100%로 향상 목표 • 15~24세 문맹률 0% 달성 목표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기초 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의 비율** 1991년 102%에서 2006년 99%로 축소.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119%에서 111%로 감소 • **여성의원 수** 1990년 4.5%에서 2008년 8.4%로 확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1990년 신생아 1천 명 중 35명 사망에서 2006년 약 21명 사망으로 축소 • 2015년까지 5세 이하 신생아 사망률을 1천 명 중 17명으로, 1세 이하 신생아 사망률은 14명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
모성 보건 증진	• **산모 10만 명당 사망 수** 2005년 1백30명 • **모자보건 전문 인력 비율** 1990년 93.7%에서 2005년 96.4%로 증가 • 2015년까지 산모 10만 명당 사망 수를 45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성인(15세~24세) 중 HIV 발병률**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0.5%이며, 2007년 0.6%로 증가 • 정부의 목표는 HIV/AIDS의 사망률을 2010~2015년까지 20%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 **결핵 발병률** 10만 명당 1990년 63.5%에서 2006년 45%로 감소되었으며, 사망률 또한 1990년 10명에서 2006년 6.3명으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식수 제공률** 1990년 89%에서 2006년 93%로 증가, 그러나 도시와 농촌지역은 2006년 99%, 77%로 현저한 차이 • 도시 슬럼 지역 인구는 1990년 26%에서 2005년 17.9%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빈곤 계층과 도농 간 소득 및 생활 격차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

01 COLOMBIA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고타 시 중앙재활병원 건립 및 의료 시설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lombia-Korea Integral Rehabilitation Center in Bogota

콜롬비아는 남미 대륙 북단에 위치한다.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국토를 가졌으며 2003년 당시 인구는 4천4백40만 명이다. 동쪽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서쪽은 태평양, 남쪽으로는 에콰도르와 페루, 북서쪽으로는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카리브 해에 면해 있다. 국경에 접해 있는 주변의 여러 국가만큼이나 문화가 다양하여 남미의 대표적 다문화 국가로 꼽힌다.

1950년 발발한 3년간의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는 유엔 연합군으로서 5천 명의 병력을 남한에 파견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5천 명의 참전 군인들은 2006년 1천89명 정도로 줄었고, 참혹한 전쟁의 기억과 신체적 장애 속에 적절한 재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KOICA는 참전 군인들에게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7~2010년까지 400만 달러를 투입해 보고타 시 중심부에 중앙재활병원을 건립하고, 의료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건축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비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중앙재활병원은 한국전 참전 군인들의 신체적 · 심리적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내전과 치안 불안으로 정신적 · 신체적 상해를 입은 콜롬비아 군인과 경찰 및 일반 시민들도 치료하게 될 것이다. KOICA의 재활 병원 건립은 한국전 참전 군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업명 콜롬비아 보고타 시 중앙재활병원 건립 및 의료 시설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7~2010년 | **사업 규모** 40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02 COLOMBIA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의 IT 기술을 만나다

정보통신 실행 계획 수립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supporting the execution of the ICT national plan

2007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백31개 국가 중 학교 내 인터넷 접근 4위,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위, 인터넷 사용자 수 6위, 정보통신 관련 법령 7위 등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고의 IT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콜롬비아도 그중 하나다.

콜롬비아 정부는 5개년 국가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제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통신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정보통신 발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콜롬비아 정부의 각 분야별 ICT 자문 및 연구를 비롯해 현지 교육, 단계별 초청 연수 및 워크숍 개최,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KOICA는 4가지 집중과제에 대한 집행 계획- 정보 문화의 창출 · 중소기업의 정보화 확산 · 정보통신 육성 · 정보통신 교육 수준 향상- 을 수립하고, 교육 · 보건 · 사법 · 행정 분야에도 이 같은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명 콜롬비아 정보통신 실행 계획 수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사업 관리, 국내 초청 연수, 워크숍 개최





Middle East







지구촌의 절망에서 희망을 꽃피운다

Yemen

Jordan

I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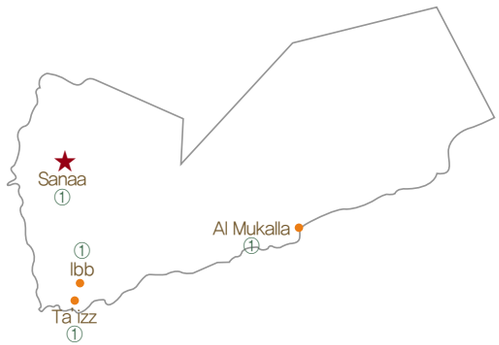
Palestine

YEMEN

예멘은 커피의 원산지로 18세기에는 세계의 커피 공급을 독점했다. 최대의 커피 수출항인 'Al-Makha(Al-Mocha)'에서 '모카커피'라는 명칭이 유래했다. 눈부신 건축물에서 볼 수 있듯 화려한 이슬람 문화를 꽃피운 나라가 예멘이다. **글 · 백승화**

예멘은 해발고도 2,300m에 있는 나라로 외세의 지배로 인한 후유증과 이념 대립으로 분단을 강요받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닮았다. 하지만 분단이 고착화된 한반도와 달리 예멘은 1980년대 중반 남북 예멘의 국경 지대에서 발견된 유전 공동 개발을 계기로 1990년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 후 북예멘 수도 사나는 정치적 수도로, 남예멘 수도 아덴은 경제적 수도로 자리 잡았다. 예멘은 통일 후 수차례의 경제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자체적인 외채 상환이 가능한 국가로 분류되어 2005년 '과다 채무빈국'에서 제외되었으며, 2004년 이후 국제 고유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예멘은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이 1천 달러로 아랍권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 통일 후 정치적으로 커다란 후유증을 겪으면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었고, 전반적인 빈곤 지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예멘의 국가 경제는 기본적으로 석유와 가스에 의존한다. 석유 수출이 예멘 총 수출의 85%, GDP의 33%, 정부 수입의 70%를 차지할 정도다. 이로 인해 국가의 경제 상황이 유가 변동에 달려 있을 만큼 매우 취약하다. 최근 원유 가격의 상승은 원유 산업의 성장과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나 석유 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어 앞으로 10년 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예멘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비석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국명 예멘공화국(Republic of Yemen) **정체** 대통령 중심제 **기후** 사막 기후(해안 저지대), 온난성 기후(고온 산악 지대) **인구** 2천2백23만 명 **면적** 528,000㎢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2006년 기준) **수도** 사나(Sanaa) **민족** 아랍인 86%, 아프로-아랍인, 남아시아인, 유럽인 **문자 해독률** 46% **종교** 이슬람(수니파 56%, 시아파 44%) **공용어** 아랍어



| 예멘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빈곤율** 1998년 40.1%에서 2005년 약 34.8%로 감소하였으며, 절대 빈곤층도 1998년 17.6%에서 2006년 12.5%로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빈곤층 인구는 지난 10년간 큰 변동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교육 취학자** 1999년 56.3%에서 2007년 75%로 증가하였으며, 초등교육 이수 비율은 2000년 59%에서 2007년 60%로 소폭 증가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초등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1년 35%에서 2007년 74%로 증가하였으나 중등교육은 2007년 49%에 불과 • **비농업 분야 임금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2000년 7.0%로 집계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아동 사망률** 1990년 1천 명당 1백27명에서 2007년 7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영아(0~1세) 사망률 역시 1천 명당 90명에서 55명으로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산모 사망률** 2007년 10만 명당 4백30명으로 추산되며, 2007년 36%의 산모가 전문 산파의 도움을 받아 출산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성인의 HIV/AIDS 발병률** 2001년 0.1%에서 2007년 0.2%로 증가하였고,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1천 명에서 4천3백 명으로 증가 • **결핵 감염률** 10만 명당 1990년 1백33명에서 2007년 76명으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안전한 식수 접근 인구** 1995년 72%에서 2007년 66%로 감소 • **기초 위생 서비스 접근률** 1995년 34%에서 2007년 46%로 증가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 구축	• **인구 1인당 원조 제공** 1990년 32달러에서 2007년 10달러로 감소 • **부채 비율** 2007년 3%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country data 참조

01 YEMEN 취약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경제 발전 가로막아

통신망 정보화 사업 타당성 조사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Modernization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



예멘은 커피의 원산지로 18세기에는 세계의 커피 공급을 독점했다. 최대의 커피 수출항인 'Al-Makha'에서 '모카커피'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그러나 커피 묘목이 밀수출되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예멘의 독점적인 커피 무역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아랍 세계가 대부분 유목민 사회인 데 반해 예멘은 농사를 짓는 정주국가라는 점도 특이하다. 남자들은 여전히 허리에 전통 단검인 잠비아를 휴대하고 다니며, 눈부신 건축물에서 볼 수 있듯 화려한 이슬람 문화를 꽃피운 나라가 예멘이다.

예멘 정부는 취약한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이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996~2000년)'에서부터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2000년까지 4개 도시에 30만 개의 유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국가 현대화 통신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중 10만 개 회선은 우리나라 기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해 시행하기로 양해 각서를 체결한 상태였다.

KOICA는 1998~2000년까지 20만 달러를 들여 '통신망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예멘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통신 환경을 갖고 있는 데다 이제 막 성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단계이므로 사전 조사는 앞으로 통신 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중요 사업이었다. KOICA는 통신망 수요가 큰 사나 · 이브 · 타이즈 · 무할라 4개 지역의 통신 가입자 현황과 잠재 수요 분석, 통신 기반 시설을 조사해 포괄적인 네트워크 계획을 세우고, 예멘에 적합한 통신망 기술 제시와 소요 비용을 산정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 30년 이상의 수요를 전제로 하여 저비용의 무선 통신망을 개통하고, 장기적인 통신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KOICA는 IT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예멘의 협조 체제를 강화시키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우리나라 기업이 예멘의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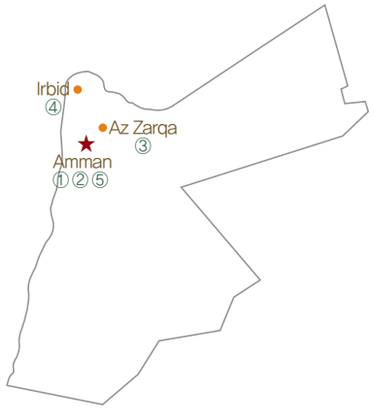
사업명 예멘 통신망 정보화 사업 타당성 조사 | **사업 기간** 1998~2000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JORDAN

성경의 무대이자 9천 년 역사를 지닌 땅, 요르단에는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는 페트라를 비롯해 고고학 유적지가 수없이 많다. 요르단은 중동 평화협상, 그리고 종교와 문명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글 · 김준모

요르단은 한반도 절반 크기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 시리아 · 이라크 ·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요르단 곳곳에 펄럭이는 초대형 국기는 국가의 통합과 안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온건 이슬람교 국가이자 친 서방국인 요르단의 개발은 중동 지역에 적잖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요르단을 중동의 평화와 번영의 매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테러의 온상이 '빈곤'이라고 인식한 서방 세계는 요르단을 중동의 경제 개발 모델로 육성하고자 연간 6억 달러 이상의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온건 이슬람교 국가인 요르단은 중동의 안전지대로서 과격한 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일선 국가라는 상징성이 크다. 때문에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등 선진국은 요르단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라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상호 의존성이 강화된 국제 사회에서 한 나라의 붕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동 지역의 위태로운 평화는 국제 정치의 혼돈으로 이어져 요르단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위험성도 안고 있다.



국명 요르단 하심 왕국(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정체** 입헌군주제 **기후** 반 건조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인구** 5백80만 명(2007년 기준) **면적** 89,000㎢(West Bank 제외) **1인당 국민소득** 2천5백 달러(2006년 기준) **수도** 암만(Amman) **민족** 아랍인, 팔레스타인, 베두인 **종교** 이슬람교(90%), 기독교(10%) **문자 해독률** 73%(2007년 기준) **공용어** 아랍어

| 요르단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5세 이하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수 1990년 4.8%에서 2000년 3.6%로 감소 • 15세 이상 노동 활동 인구 비율 2000년 38%에서 2007년 39%로 증가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교육 취학자 2000년 96%에서 2007년 94%로 감소 • 15세~24세 문자 해독률 2007년 여성 및 남성 99% 수준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 초등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2000년 100%에서 2007년 102%로 상승 • 농업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고용된 여성 비율 2000년 23.4%에서 2007년 25.9%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인구 1천 명당) 2000년 30명에서 2007년 24명으로 감소 • 12~23개월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률 2000년 94%에서 2007년 95%로 상승
모성 보건 증진	• 모자 사망 인구(인구 10만 명당) 2007년 62명 수준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2000년 100%에서 2007년 99%로 감소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결핵 인구(10만 명당) 1990년 17명, 1995년 13명, 2000년 9명, 2007년 7명으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깨끗한 식수 사용 가능한 인구 2000년 97%에서 2007년 98%로 개선 •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0년 3.2톤에서 2007년 3.8톤으로 상승
상승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당 원조 제공 비율 2000년 115달러에서 2007년 88달러로 감소 • 인터넷 사용자 수(1백 명당) 2000년 2.7명에서 19.7명으로 대폭 증가

01 JORDAN

KOICA 보건소, 하루에만 8백 명 진료

보건소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health care centers in Jordan

인구 2백 만의 요르단 수도 암만에는 고급 승용차와 최신 휴대폰, 호화로운 주택과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이 같은 모습만으로는 요르단의 1인당 국민소득이 2천5백 달러라는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요르단은 무역 수지 적자와 함께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백만 명이 넘는 이라크 난민과 급격한 물가 상승 및 지역과 계층 간의 빈부 격차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2004년 요르단 정부는 국가 개혁 과제의 하나인 기본적인 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보건소 건립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6년까지 380만 달러를 투입해 수도 암만과 'Ramtha Mafraq' 지역에 3개의 종합 보건소를 세우고, 'Moatha Bin Jabal' 병원에 외래 클리닉을 개설해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보건소 운영을 위한 필수 의료 기기와 주민 보건 교육을 위한 교육용 기자재를 제공해 종합 보건소의 역량을 갖추게 했다. 현재 암만 보건소에서만 하루 8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KOICA는 요르단 주요 지역의 기본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역량을 강화시켰다. 이 같은 인도적인 의료 보건 사업은 아랍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업명 요르단 보건소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6년 | **사업 규모** 38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종합 보건소 및 외래 클리닉), 기자재 지원

02 JORDAN

행정 업무 전산화로 전자정부 실현에 기여

2개 부처 정보화 사업

The Project for the Computerization of the Ministry of Political Development
The Project for the Modernization of IT System of the Ministry of Transport

최근 요르단은 중동의 평화협상 및 종교와 문명의 중재자라는 역할이 부각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요르단이 중동의 별로 떠오르게 된 데는 국가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 중인 압둘라 국왕의 역할이 크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 등 정치적 불안으로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대외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견실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84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는 국민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높은 재정 적자와 실업률 그리고 만성적인 빈곤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 사회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자국의 지리적 강점과 우수한 인적 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해 IT 산업 육성을 국가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부처의 전산화 · 정보화를 위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KOICA는 2004년 중동지역 특별협력사업 계획에 따라 90만 달러를 들여 요르단 2개 부처의 정보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요르단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을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아랍권의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KOICA는 정치개발부 전산화 사업과 교통부 IT 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부처별 관리자와 실무자 8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이 끝난 후에도 요르단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OICA는 정치개발부의 행정 업무를 정보화시키고, 교통부의 전산 장비 현대화를 통해 교통 관련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요르단 정부가 행정 업무 전산화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 또한 한 단계 향상될 것이다.

사업명 사업명 요르단 2개 부처 정보화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9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및 시스템 개발 · 설치,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3 JORDAN

직업훈련원이 2년제 학위 과정으로 변모

자르카 직업훈련원 증축 및 역량 강화 사업

Institution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





온건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이슬람 왕국인 요르단은 지리적으로 중동과 아랍의 중심에 놓여 있어 주변 국가 간의 교량 및 종교 분쟁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중동 국가들과 달리 요르단은 원유 같은 부존자원이 없는 데다 산업 기반 자체가 빈약해 만성적인 무역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요르단 정부는 '사회경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국가 원조 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중소기업 활성화, 직업훈련 확대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해 사회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6년 8월 요르단 노동부는 직업 훈련 확대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던 중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요르단의 직업 훈련 기관을 운영하고, 기관 설립을 전담하는 '직업훈련청VTC, Vocational Training Corporation'은 2006년 당시 전국의 45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낙후된 시설과 교육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수도 암만으로부터 22km 떨어진 자르카 직업훈련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 · 정보통신 · 응용 소프트웨어 · 자동제어 분야 등의 공과를 신설하고, 실습동을 건립했다. 또한 교육 훈련 장비를 제공하고,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요르단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공과의 개설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한국산 자동차 정비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KOICA의 지원을 받은 자르카 직업훈련원은 최근 알발카 대학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자르카 직업훈련원은 4개 신설 교육 과정을 2년제 학사 학위 과정으로 운영하는 요르단 최초의 직업훈련원이 되었다.

사업명 요르단 자르카 직업훈련원 증축 및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설계,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4 JORDAN 혈액은행이 제 역할 하지 못해 환자 사망

이르비드 혈액은행 개선 사업

Project for improvement of blood bank in Irbid

요르단 인구의 28%인 1백50만 명이 거주하는 북부 지역에는 22개 병원과 2백 22개 보건소가 있다. 하지만 의료 장비를 갖춘 소형 혈액 보관소는 일부 병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그마저 매우 영세한 수준이어서 대형 사고가 나거나 큰 수술을 할 경우에는 100km 정도 떨어진 암만의 국립혈액원에서 혈액을 구해와 충당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동식 헌혈 차량이 없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환자가 제때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생명을 잃고 있다. 더욱이 북부 지역에는 상시 수혈이 필요한 지중해성 빈혈과 혈우병 환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어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르단 정부는 북부 지역에 있는 이르비드 혈액은행의 개선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31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이르비드에 헌혈 차량 및 현대식 의료 장비를 갖춘 국립 혈액은행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3년간 2,000㎡ 규모의 혈액은행을 건축하고, 운영에 필요한 헌혈 차량과 혈액 보관 냉장고 등 31종의 의료 기자재를 제공해 제대로 된 혈액은행의 면모를 갖추게 할 계획이다. KOICA는 2010년까지 최신 시설의 혈액은행을 완공하고 요르단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 체계를 구축해, 응급 환자 등 수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업명 요르단 이르비드 혈액은행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310만 달러 | **지원 내역** 혈액은행 신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5 JORDAN 물은 귀하고 지하수 오염도 심각

수질 통제 및 관리 시스템 수립 사업

Establishment of 350 water quality monitoring and supply measuring equipment

요르단은 세계 10대 수자원 희소 국가 중 하나다. 국토의 80%가 사막 및 사막에 준하는 지역으로 연평균 강수량은 281mm에 불과하다. 그러나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물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중동 지역의 분쟁을 피해 몰려드는 난민들로 인해 무분별한 지하수 관정과 수자원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요르단 정부는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자원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확립하고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350만 달러를 투입해 수질 모니터링 센터와 네 곳의 측정소를 건립함과 동시에 수질 실험 장비와 시약, 전산 정비 등 기자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요르단의 수질 환경 개선 역량을 강화하고자 수자원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자문을 실시하고, 요르단 환경공무원 및 기술 인력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KOICA는 2010년까지 요르단 실정에 적합한 수질 관리용 표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과학적인 수자원 관리 및 수질 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질 통제 및 관리 시스템은 요르단 환경 기술 개발의 모델로서 앞으로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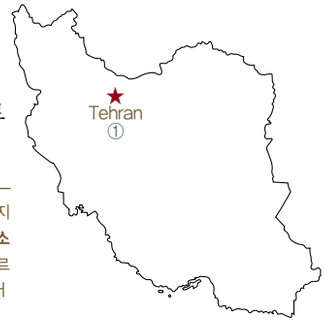
사업명 요르단 수질 통제 및 관리 시스템 수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35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IRAN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란은 도시 전체가 박물관을 연상케 할 만큼 찬란한 유적을 자랑한다. 오늘날 이란은 번성했던 옛 도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 방대한 인구와 국토, 높은 교육 수준은 이란의 성장 가능성을 말해준다. 글 · 백승화

이란은 이슬람교 혁명과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1990년대 초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1990년대 말부터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사회와의 비우호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의 지속으로 2000년 이후 평균 4~5%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지표의 개선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삶이 넉넉해진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은 매년 2배 이상 올랐고, 식품 및 원자재 가격도 급등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고는 여전하다.

이란 정부의 주요 개발 목표는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 시장 경제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란은 이제까지 원유 수출에 의한 수입과 막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가 경제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실업률의 증가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비대해진 공공 부문은 커다란 자원 낭비와 분배 왜곡을 초래했다. 이에 이란 정부는 경제 개방과 개혁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비석유 분야의 수출 진흥과 정부 보조금의 축소 및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시장 경제의 육성은 이란의 실업 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란의 공식 실업률은 10%라고 하지만 실제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젊은층과 고학력층의 실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란은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30세 이하라는 특이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어 앞으로 실업 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란 정부는 실업 문제를 이슬람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경제 및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2010년까지 실업 인구를 1백40만까지 감소시킬 계획이다. 현재 이란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산업화 달성을 위한 경제 구조 개혁과 기업 경영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란 정부의 강한 개발 의지와 공업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 등이 계획 달성을 위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국명 이란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 **정체** 이슬람공화국 **기후** 동부 : 지중해성 기후, 서부 : 온대 습윤 기후 **인구** 7천50만 명 **면적** 1,650,000㎢ **1인당 국민소득** 2천7백71달러(2005년 기준) **수도** 테헤란(Tehran) **민족** 페르시아인 51% 외 아제르바이잔, 쿠르드족, 아랍족 **문자 해독률** 87.7% **종교** 이슬람교(98%) **공용어** 페르시아어

| 이란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1일 소득 1달러 이하의 인구** 1990년 전체 인구의 3.9%에서 2007년 2.0%로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근접 • **영양실조 인구** 1990년 5%, 2007년 5%로 동일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취학자** 1999년 82.0%에서 2007년 94%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이수율은 2007년 94%로 집계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초등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0년 88%에서 2007년 129%로 증가했으며, 15~24세 여성 대 남성 문자 해독률은 2007년 0.99%로 성별로 인한 차이가 점차 감소 • **비농업 분야에 고용된 여성 비율** 2005년 13.6%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의 아동 사망률** 1천 명당 1990년 72명에서 2007년 33명으로 감소, 영아(0~1세) 사망률은 1천 명당 54명에서 29명으로 감소
모성 보건 증진	• **모성 사망률** 2007년 10만 명당 1백40명으로 추산되며, 2007년 90%의 산모가 전문 산파의 도움을 받아 출산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의 HIV/AIDS 발병률** 2001년 0.1%에서 2007년 0.2%로 증가, AIDS로 인한 사망자 역시 1천 명에서 4천3백 명으로 증가 • **결핵 감염률** 1990년 10만 명당 36명에서 2007년 22명으로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안전 식수 접근이 가능한 인구** 2000년 전체 인구의 94%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도심은 99%, 농촌 지역은 84%가 안전 식수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구 1인당 원조 제공 비율** 1달러(2007년 기준) • **부채 비율** 9%(2006년 기준)

01 IRAN

낮은 교육 수준이 높은 실업률 발생시켜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The Project to Establish Auto-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2007년 8월 테헤란의 위성도시 카라지에서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기공식에는 이란 노동부 장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작 이 사업에 착수하기까지는 많은 사정이 있었다. 2004년 우리나라는 중동 특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4백만 달러 규모의 직업훈련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이란 금수조치 등 현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지연시켜야 했다.

KOICA는 2006년 8월 사업의 방향을 자동차 직업 훈련으로 변경하고, 이란 정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3년여 만에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란은 2003년 기준 연간 1백만 대 규모의 세계 제16위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단순 조립 위주의 생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필요로 하는 인력의 낮은 교육 수준도 문제였다. 이란의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보다는 오히려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높은 실업률이 발생하고 있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400만 달러를 투입해 이란의 자동차 정비에 관한 직업 훈련 제도 구축과 기술 훈련 시스템을 전수하고, 훈련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11,000㎡의 부지에 본관 건물과 전공 분야별 교사실과 공구 재료실을 포함한 4개의 실습동과 각종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교사 교육과 커리큘럼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란의 전체 노동 인구 중 12% 이상이 자동차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KOICA는 이란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인력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란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란의 국민차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 제품과 드라마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힘입어 KOICA는 앞으로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사업명 이란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4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교재 개발 지원









PALESTINE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이래 국가 없는 민족이 되어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이스라엘과의 오랜 분쟁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경제 기반은 거의 붕괴되었다. 현재 팔레스타인 주민의 64%는 2.2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글 · 김준모

팔레스타인은 요르단 강 서안West Bank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남한의 16분의 1 크기의 땅이다. 1948년 건국된 이스라엘이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했고, 현재 팔레스타인 땅으로 볼 수 있는 면적은 지중해 연안 가자 지구(365㎢)와 요르단 강 서안(5,310㎢), 그리고 동예루살렘(345㎢) 3개 지역을 합해 6,000㎢ 정도에 이른다. 팔레스타인 인구는 3백80만 명으로 2백40만 명은 서안 지구, 나머지 1백40만 명은 가자 지구에 거주한다. 이스라엘과의 지속된 분쟁으로 요르단 등 주변 국가에서 난민으로 떠도는 인구가 2백60만 명으로 추정된다. 완전한 독립 국가의 형태를 갖지 못한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 인근 라말라를 임시 수도로 정해 자치정부 청사를 두고 있으며, 1967년 제3차 중동전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예루살렘을 장차 미래의 수도로 삼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2008~2010년까지 '평화와 번영의 팔레스타인 건설'이란 목표를 정했다. 이는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대해 1967년 6월 이전의 국경에 대해 자치권을 가지며,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아랍 독립 국가를 건설해 인권을 존중하고, 시민의 평등과 의무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다는 비전이다.



국명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lestine National Authority) **정체** 이원집정부제 **기후** 지중해성 기후 **인구** 3백80만 명(2004년 기준) **면적** 6,170㎢(서안 지구 : 5,800㎢, 가자 지구 : 365㎢) **1인당 국민소득** 1천1백 달러 **수도** 라말라(Ramallah) **민족** 팔레스타인인 **문자 해독률** 92% **종교** 이슬람교(97%), 기독교(3%) **공용어** 아랍어, 영어

| 팔레스타인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빈곤 격차 비율** 2001년 9.5%에서 2007년 8.6%로 감소 • **5세 이하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수** 2000년 2.5%에서 2006년 2.9%로 상승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기초 교육 취학자** 2000년 91.7%에서 2006년 83.9%로 감소 • **15세~24세 문자 해독률** 2000년 98.3%에서 2007년 99.1%로 상승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초등 교육에서 소년 대 소녀 비율** 2000년 98.7%에서 2007년 98.3%로 정체 •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고용된 여성 비율** 2000년 13.6%에서 2007년 17.1%로 상승 • **입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2005년 5.7%에서 2006년 12.9%로 상승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 1999~2003년 28.3%에서 2005~2006년 28.2%로 정체 • **1세 아동의 홍역 예방 접종률** 2000년 92.7%에서 2006년 96.7%로 상승
모성 보건 증진	• **숙련된 산파의 지원을 받는 출산율** 2000년 96.8%에서 2006년 98.9%로 상승 • **피임 보급률** 2000년 2.8%에서 2006년 3.9%로 상승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위생적인 식수 사용 가능 인구** 2000년 96.2%에서 2006년 93.8%로 감소 • **위생 시설 사용 가능 인구** 2000년 99.6%에서 2006년 99.3%로 정체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터넷 사용자 수(1백 명당)** 2000년 2.5명에서 2006년 5.6명으로 증가

01 PALESTINE KOICA, 중동에 평화를 정착시킨다

행정수반 청사 건립 사업

Construction of Presidential Seat Building in Mablus

2008년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무력으로 점령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팔레스타인 국토의 80% 정도가 사라져버리고, 나머지도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1948년은 최악의 재앙이었다. 이스라엘은 9 · 11 테러 사건을 명분으로 2002년 8월부터 팔레스타인과의 분리 장벽을 쌓고 있다. 높이 8m, 길이 700km의 장벽으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둘러싸겠다는 것이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분리 장벽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이미 60% 완공을 넘어섰다. 이는 팔레스타인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199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국가 출범과 행정 능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행정수반 청사 건립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8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226㎡ 건축 부지에 6개동의 행정수반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의 국가 출범을 지지하고, 중동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또한 KOICA의 지원 사업은 한 · 팔레스타인 우호 협력 관계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기억될 것이다. 현재 행정수반 청사 건물은 팔레스타인 정부의 요청으로 2004년 영재 학교로 사용되다가 2006~2006년 개 · 보수 공사를 거쳐 IT 직업훈련 센터로 쓰고 있다.

사업명 팔레스타인 행정수반 청사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8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청사 건축, 전문가 파견

02 PALESTINE

여자 아이들도 학교에 갈 수 있어

초등학교 증축 사업

Project for Extension of the Al Yamoun Girl's Primary School

"KOICA가 지어준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4백60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매년 80명의 여자 초등학생이 졸업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제닌JENIN 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말이다. 팔레스타인의 경제 기반은 2000년 9월 시작된 제2차 '인티파다Intifada :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저항 운동' 이후 이스라엘과의 분쟁 격화로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그 후 팔레스타인 정부는 재원의 대부분을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구의 70%는 빈곤 상태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와 식수, 식량 그리고 의약품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침체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교육과 보건 의료 등 사회적 인프라 기반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팔레스타인의 만성적인 위기 상황은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자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증축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왔다.

KOICA는 1997~1998년까지 20만 달러를 들여 서안 지역 북부 제닌 시에 있는 초등학교를 증축하고 11개 교실과 컴퓨터실을 포함한 교육 시설을 확충시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게 기초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사업명 팔레스타인 초등학교 증축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8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증축

03 PALESTINE

팔레스타인 국가 기간시설 확충

라말라 시 도로 건설 지원 사업 Rehabilitation of Ramallah Beir Zeit Main Road



팔레스타인Palestine은 '이주인(移住人)'을 의미한다고 한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1948년 이래 국가 없는 민족으로서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다행히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 국가를 위한 여정에 나섰고, 1996년에는 자치정부가 출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오랜 분쟁으로 인한 경제 침체는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은 1994년 시작되어 행정 제도와 교육, IT 분야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인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팔레스타인 지원도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996년 팔레스타인 정부는 도로와 전력 등 국가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면서 우리나라에 라말라Ramallah와 비르자이트Beir zeit 지역의 도로를 개·보수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양국 간 구상서 교환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1996~1998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라말라와 비르자이트 지역을 연결하는 총 4.6km 도로를 개·보수했다. 도로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교통 사고율 저하와 주민 경제 활동 증가 등 생활 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KOICA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기간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사업명 팔레스타인 라말라 시 도로 건설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8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도로 공사



04 PALESTINE 30만 팔레스타인 아이들에게 영양제 보급

교육 시스템 개선 사업
Palestine Education System Improvement Project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오랜 분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및 부족한 재정과 자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에 의한 경제 침체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의 높은 출산율로 전체 인구의 39%는 학교에 가야 하는 5~19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이 같은 인구 구조는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교육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교육 분야의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6년까지 230만 달러를 투입해 제닌 시 근교 2,057㎡ 부지에 중학교를 건축하고, 지역 내 40개 학교에 컴퓨터실을 설치해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팔레스타인 학생들의 빈약한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고자 헤모글로빈 테스트를 통해 팔레스타인 전역 30만 명의 학생들에게 영양제를 보급했다. KOICA는 국가 발전을 위한 팔레스타인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기초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등교육을 마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적 자원 개발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사업명 팔레스타인 교육 시스템 개선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6년 | **사업 규모** 23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컴퓨터실 지원, 영양제 보급, 기술 용역

05 PALESTINE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첨단 IT 교육 실시

IT 직업훈련 센터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An-Najah IT Institute of Excellence

팔레스타인은 인터넷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더욱이 빈약한 통신 인프라마저 주로 도시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 경우 통신 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지역 간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국영 통신업체인 '팔텔PALTEL'의 인터넷 서비스를 전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소득세 중 ICT 교육 훈련 비용을 공제하는 등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4년 6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IT 교육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IT 직업훈련 센터의 건립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7년까지 160만 달러를 투입해 기존 팔레스타인 행정수반 청사 건물을 IT 직업훈련 센터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3,600㎡ 규모의 시설을 증축했다. 아울러 컴퓨터와 서버,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고, 전자 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과 IT 훈련원 운영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팔레스타인 현지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입출국의 어려움을 감안해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소를 통해 시설 증축과 기자재를 제공하는 방법을 택했다.

2007년 4월 개원한 IT 직업훈련원은 팔레스타인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첨단 IT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훈련원을 정보화 교육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 교육 센터로 육성한다는 중 ·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사업명 팔레스타인 IT 직업훈련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7년 | **사업 규모** 16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설 개 · 보수,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6 PALESTINE

팔레스타인의 기술교육 기반 마련

제닌 시 기술고등학교 건립 사업

Construction of Jenin Industrial School in Palestine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팔레스타인의 경제 · 사회 기반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2005년 기준 실업률은 22.7%에 달하며 전체 인구 중 50%는 빈곤층, 그중에서도 3분의 2는 극빈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높은 실업율과 빈곤은 팔레스타인의 부족한 산업 기반 시설, 낮은 교육 성취도 그리고 이스라엘에 예속된 경제 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은 현재 연간 3.3%에 달하는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5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한다. 빈곤 감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인적 자원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2007년 초 제니 기술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250만 달러를 투입해 두 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거쳐 5개 학과- 자동차 기관 · 자동차 전기 · 일반 전기 · 배관 및 중앙난방 · 냉방 및 냉동- 를 개설한 기술고등학교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기술을 전수하고,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원활한 학교 운영과 효과적인 실습 장비 운용을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도 개최했다. 기술고등학교 인근의 제닌 시 산업단지에는 여러 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 대대적인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맞춰 기술고등학교 건립은 산업 단지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기술고등학교 입장에서도

주변에 산업 단지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졸업 후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고 있은 것과 마찬가지다. 팔레스타인의 열악한 산업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사회 진출의 장이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KOICA는 팔레스타인의 기술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과 교사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명 팔레스타인 제닌 시 기술고등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7 PALESTINE

팔레스타인 건국 이후를 대비한다

팔레스타인 경제정책 연구소 건립 사업

Construction of the Palestine Economic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경제정책 연구소는 팔레스타인에서 유일하게 경제와 사회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1994년 설립된 이래 총리와 기획부 장관을 비롯해 유수의 대학 총장을 배출한 연구소는 팔레스타인의 정치 · 경제 · 사회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이스라엘 저항 운동 이후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원조가 식량 같은 인도적 지원에 집중되면서 연구소 운영은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2007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연구소의 신축과 기자재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팔레스타인은 현재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재원의 대부분을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고갈은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내야 하는 연구소 본연의 목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KOICA는 2007~2009년까지 250만 달러를 투입해 2,300㎡ 부지에 연구소 본부 건물을 신축하고, 연구소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는 등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구소의 기능이 일정 부분 정상화되어 팔레스타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생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OICA는 중동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아랍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여 가고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 경제 개발 계획 수립의 온상인 경제정책 연구소를 지원해 팔레스타인 건국 이후를 대비하는 한 · 팔레스타인 협력 사업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사업명 팔레스타인 경제정책 연구소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9년 | **사업 규모** 250만 달러 | **지원 내역** 연구소 건축,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CIS

Azerbaijan

Ukraine

지구촌의 절망에서 희망을 꽃피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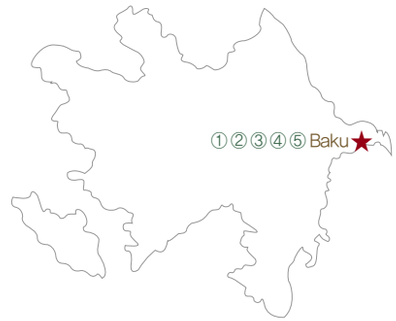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이란 국명은 페르시아어 '아자르(Adhar, 불)'와 아랍어 '바이잔(Beyqan, 나라)'에서 유래되었는데 '불의 나라'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대부터 천연가스가 풍부해 국토의 곳곳에서 가스가 분출돼 불이 솟구쳤다고 하며, 불을 숭상하는 조로아스터교가 성행했다. **글 · 전영은**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에서 내전이 발발해 현재까지 58만 명에 달하는 국내 피난민이 생겨났다.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터키,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아제르바이잔은 2006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고, 2007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경제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자원과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개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아제르바이잔 발전의 원동력을 석유와 가스에서 인적 자원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국제기구와 원조 기관이 기술 및 지식 전수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는 비석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국내 총생산의 40% 이상을 석유 관련 산업에서 얻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는 거버넌스 강화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립,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자유로운 정보 이용, 그리고 정부의 신뢰성 확대와 사법 체제 강화, 공정한 선거 과정 확립 등이 요구된다. 특히 전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부패 문제는 아제르바이잔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명 아제르바이잔공화국(Republic of Azerbaijan) **정체** 대통령제(임기 5년, 연임으로 횟수 제한 없음) **기후** 건조 기후(중서부) · 아열대 기후(남부) · 대륙성 기후(북부) **인구** 8백63만명(2008년 기준) **면적** 86,600㎢(한반도의 5분의 2 정도) **1인당 국민소득** 6천8백88달러(2008년 기준) **수도** 바쿠(Baku) **민족** 아제르바이잔족 90.6%, 다게스탄인 2.2%, 러시아인 1.8%, 아르메니아족 1.5%, 기타 3.9%(2006년 기준) **문자 해독률** 99.3% **종교** 이슬람교 95.2%(시아파 75%, 수니파 25%), 러시아정교(2.5%), 아르메니아정교(2.3%) **공용어** 아제르바이잔어(공용어), 러시아어



| 아제르바이잔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 중 빈곤층** 1995년 15.6%, 2005년 2% • **영양 불균형 비율** 2000년 14%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2008년 기준, 초등 교육 등록률(양성)은 85.4%,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 등록하는 비율은 97.3%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2008년 기준, 기초 교육 관련 등록 비율은 남성과 여성 거의 동등, 국회의 여성 진출 비율은 11.3% • 대학 및 직업 교육을 받는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이 1990년 67%에서 2007년 94%로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1990년 1천 명당 1백5명에서 2008년 88명으로 감소 • **1세 아동 홍역 접종률** 96%
모성 보건 증진	• **2008년 기준, 모성 사망률** 10만 명당 82명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49세 인구에서 HIV 발병률** 2007년 0.2% •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병률** 1995년 50명에서 2008년 77명으로 증가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식수 접근성** 1990년 68%에서 2007년 78%로 증가 • **전 국토의 녹지 비율** 2008년 기준, 11.3% • **이산화 탄소 배출량** 1992년 6.7(metric tons)에서 2008년 3.8(metric tons)로 감소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인터넷 사용자 비율** 1997년 0.03%에서 2007년 9.8%로 증가

01 AZERBAIJAN 6개 하천이 흐르지만 관리를 하지 못해

북부 하천 취수 시설 건설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사업

The Feasibility Study and Detailed Design for Upgrading Water Intake Structures at Northern Rivers

아제르바이잔 북부 지역에는 6개 하천Gusarchay, Guruchay, Gudiyalchay, Agchay, Garachay, Velvelichay이 흐르고 있어 농업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관개용수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건조한 토질로 인해 토지 활용률과 수확량이 떨어져 휴경지의 비율이 34%에 이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13년까지 압세론 반도 내 용수 공급 체계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07년까지 사무르 강의 취수 시설 건설 사업에 4천7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현재는 3천9백만 달러를 들여 아제르바이잔 남부 지역의 관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북부 지역의 하천 취수 시설을 개선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170만 달러를 투입해 북부 지역의 물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6개 하천의 취수 시설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KOICA는 총 10개 분야, 관개 · 수리학 · 수문학 · 농업토목 · 지역 개발 등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조사를 실시하고, 아제르바이잔 관개수로청 담당자 11명을 국내로 초청해 관개 시스템과 농업용수 개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KOICA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효과가 증폭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수 시설이 완성되면 압세론 반도 주민들에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명 아제르바이잔 북부 하천 취수 시설 건설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17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2 AZERBAIJAN 압세론 수로 건설로 식수 확보

압세론 수로 개 · 보수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사업

The Feasibility Study and Detailed Design for Improvement of Absheron Main Canal for Irrigation

아제르바이잔은 건조 아열대 기후에서 산지 툰드라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로 인해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건조한 토질 때문에 반도의 일부 지역은 충분한 생활용수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압세론 반도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 시설은 구소련 시절 건설되어 매우 노후화된 상태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170만 달러를 투입해 총 73km에 달하는 압세론 주수로 개 · 보수 공사의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북부 하천에서 취수한 물을 압세론 반도 남부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KOICA는 관개 · 수리학 · 수문학 · 토목 · 농공 · 전기 · 수질 환경 · 농촌 지역 개발 · 건축 등 총 10개 분야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타당성 분석과 현장 조사를 비롯하여 측량과 실시 설계를 하고, 아제르바이잔 관개수로청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관개 시스템 및 농업용수 개발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압세론 수로 개 · 보수 사업은, 아제르바이잔의 지속 가능한 개발 10개년 계획 및 2006~2010년 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령으로 추진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KOICA의 지원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극심한 용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압세론 반도 남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어 농업 생산량이 증대될 것이다. 더불어 수도인 바쿠 인근의 식수 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명 아제르바이잔 압세론 수로 개 · 보수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17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3 AZERBAIJAN 경제특구 개발로 석유를 대체할 산업 모색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

The Project for Developing Special Economic Zones(SEZs) and Industrial Parks(IPs)

'바쿠 유전' 으로 유명한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 성장은 2011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유 분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비석유 부문의 산업 발전을 국가의 주요 전략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아제르바이잔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은 계획 단계부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로 3가지 연구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첫째는 산업 정책과 제도 개발, 둘째는 법규 체제 정비와 보강, 셋째는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관 및 인적 역량 강화다.

KOICA는 이 3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경험과 기술의 일방적 전수가 아닌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사업의 성과를 지속시킬 계획이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경제개발부 기업개발정책국의 고위 정책자와 중견 관리자를 국내로 초청해 정책 수립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시점에는 이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 사업' 과 연계해 최종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KOICA의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분야에 대

한 지나친 의존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축적된 오일 머니를 활용해 산업의 다각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비롯한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원 외교의 강화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업명 아제르바이잔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공동 연구, 연수생 초청, 워크숍

04 AZERBAIJAN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로 다각적인 산업 개발 지원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 사업

The Project for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러시아 · 이란 · 터키 등 경제 강국 사이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2005년 국내 총생산 125달러의 54% 이상이 원유와 가스 분야에 편중되어 다각적인 산업 개발과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FDI'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5가지 주제-'FDI'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전략 개발 · 법령 및 규정의 정비 · 기관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도 방안 · 'FDI' 매뉴얼 및 홍보 자료 작성 등- 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전문가와 함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아제르바이잔 경제개발부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FDI' 정책 및 전략 개발 분야에는 산업 및 투자 정책과 전략 · 시장 개방 계획 · 외국인 투자 금액 제한 완화 · 'FDI' 홍보 전략 ·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외국인 근무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FDI' 매뉴얼 발간 경험을 토대로 아제르바이잔의 매뉴얼 발간도 추진했는데, 여기에는 'FDI' 정책과 투자 동향 및 통계 · 관련 법령 및 규정 · 투자 기본 여건 · 인허가 절차 및 기관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KOICA는 아제르바이잔 경제개발부의 고위 정책자와 중견 관리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최종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FDI'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제언을 전달할 계획이다.

사업명 아제르바이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5 AZERBAIJAN

토지를 등록한 소유자는 10%에 불과

지적(地籍) 시범 사업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Land Cadastral System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토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등록과 활용이 필요하다. 과거 소련 시절 토지의 사유권 개념이 없던 아제르바이잔은 1996년 토지 개혁을 통해 토지를 무상 분배했으나 분배 후 토지를 등록한 소유자는 10%에 불과했다. 이는 아제르바이잔의 토지 등록 시스템이 분배된 토지에 한하여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되는 소극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적도 및 지형도 등의 기본 자료 작성에서부터 선진화된 지적(地籍) 측량 및 지적 시스템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이미 2007년 3개월간 전문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우리나라의 지적 시스템을 소개한 바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지적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150만 달러를 투입해 아제르바이잔에 적합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토지 등록법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수도 바쿠에서 차량으로 2시간 30분이 걸리는 쿠르다밀Kurdamir 지역이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KOICA는 현재 토지 등록 방안을 적용해 그 결과로 얻은 측량 성과 및 속성 정보를 탑재한 토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하여 지적 컨설턴트, 측지 및 지적 측량 전문가, 항측 및 시스템 개발 전문가 등 총 11명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지적 업무에 대한 연구 능력이 부족한 아제르바이잔 '토지지도제작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16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 등록 지적 자료 생성을 위하여 '위성항법장치GPS' 등 측량 장비와 지적 정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해 항공 측량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구축된 정확한 토지 정보 시스템 및 도형 자료는 기간산업을 위한 국토 개발과 관리는 물론 효과적으로 토지에 관련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소유권 보호와 토지 및 자연자원 관리 지원, 신도시 개발 등 국가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KOICA의 지원 사업은 토지 등록 및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디지털 지적 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행정 정보화와 토지 관련 분야 전반의 제도와 산업 발전에 폭넓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아제르바이잔 지적(地籍) 시범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1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Cənab
Qərib Şamil oğlu
MƏMMƏDOV
Mr. Lew
Kwang-Chul



UKRAINE

온화한 대륙성 기후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대륙 중앙부에 있다. 철광석과 망간 매장량 세계 제1위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다. 미국과 독일로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받는 가운데 매년 10%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보이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정치 · 경제적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다. 글 · 문상원

우크라이나

에 얽힌 에피소드다. 신(神)이 여러 민족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모든 민족에게 땅을 고루 분배했는데, 우크라이나 민족 대표가 뒤늦게 와서 "저희에게도 땅을 달라"며 간청했다. 신은 "더 이상 내줄 땅이 없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대표가 계속 애원을 하자 자비로운 신은 "좋다. 그럼 내가 쓰려고 남겨둔 땅을 주겠다!" 하면서 내준 땅이 바로 지금의 우크라이나라고 한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형성된 중화학 공업에 기반을 두고 철강과 조선 등 전략 산업과 군수 산업이 발달했으며, 특히 우주 항공 산업은 세계 5위 규모를 자랑한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후 시장 경제 체제로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나라들의 경제 회복에 힘입어 매년 10%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부의 재분배는 빈곤층의 비율을 2000년 31.5%에서 2005년 8%로 급속히 감소시켰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초 보건 분야에 국내 총생산의 6.5%, 초 · 중등교육 분야에 6.39%의 예산을 할당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기초적인 사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낮은 인구 증가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 인구 노령화와 실업률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는 우크라이나 발전의 저해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동 생산성 증대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직면한 문제다.

국명우크라이나(Ukraine) **정체** 중앙집권 공화제, 다당제, 단원제 **기후** 온화한 대륙성 기후 **인구** 4천6백38만 명 **면적** 603,628㎢ **1인당 국민소득** 2천5백50달러(2007년 기준) **수도** 키예프(Kiev) **민족** 우크라이나인 78%, 러시아인 17%, 기타 소수 민족(폴란드인, 몰도바인, 벨라루시아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타타르인 등) 5% **문자 해독률** 100% **종교** 우크라이나 정교 73%, 가톨릭 15%, 개신교 3.2% 등 **공용어** 우크라이나어(공용어), 러시아어(통용)



| 우크라이나 새천년 개발 목표 |

구 분	진 행 상 황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국민 중 빈곤층** 31.5% •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근본적 빈곤 해결을 위한 감세 방안이 추진 중이며 농촌 지역의 노동 시장 독점 방지, 중소기업 활성화, 빈곤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 소유 관련 법률 개정, 연금 법안 개정 추진 및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선 등을 모색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초등학교 취학률** 2000년 84%에서 2007년 91%로 상승, 초등학교 이수율 역시 2000년 92%에서 2007년 105%로 상승 • 자녀 부양가족 지원법 채택으로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취학 전 교육비 지원, 미취학 아동 교육법 채택으로 취학 전 아동들이 가정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1996년 이후 중등교육까지 의무화 헌법 보장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 **초등 교육에서 소녀 대 소년 비율** 1990년 99%에서 2006년 100%로 증가. 그러나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다소 감소 • **여성 의원 비율** 2000년 8%에서 2007년 9%로 증가 **비농업 분야에 고용된 여성 비율** 2000년 52.9%에서 2007년 54.9%로 증가 • 2015년까지 입법 · 사법부 내의 양성 간 직원 수의 점진적 균형 목표,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지도적 · 전문가 지위의 양성 간 비율 정상화, 노동 시장 내에서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 2015년까지 양성 간 격차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소 • 성적 고정 관념 타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양성 평등 문제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중 매체 참여 유도, 경제적 침체기에 여성 노동자의 이권 침해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업 운영 여성에 대한 특별 대출 지원 시스템 개발, 고학력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계획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이하 사망률** 2000년 1천 명당 23명에서 2007년 24명, 신생아 사망률은 2000년 1천 명당 19명에서 2007년 20명으로 미세하게 증가 • 2015년까지 5세 이하 사망률 1천 명당 17명 목표
모성 보건 증진	• **산모 사망률** 2007년 10만 명당 18명 • 2001~2015년 사이 임신, 출산, 산후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를 17%까지 감소 목표 • 모유 수유 장려 프로그램 지원, 가족계획, 청소년 대상 산부인과 설립 계획, 여성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계획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15~24세 HIV 발병률** 2000년 0.8%였으나 2007년 1.6%로 지속적으로 확산. 정부는 HIV/AIDS의 전염 수준을 13% 감소 목표 • **인구 10만 명당 결핵 감염률** 2000년 84명에서 2007년 106명으로 증가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AIDS 및 결핵 예방 교육 실시, AIDS 감염 우려 집단의 감염 위험 감소 노력, 산모에서 신생아로의 AIDS 감염 방지 프로그램 실시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식수 제공률** 2007년 97%, 2000년 이산화탄소 1인당 배출량(미터톤) 6.3 • 천연 저수지 및 국립공원을 전체 국토의 10.4%까지 확보 목표, 2011~2015년 사이 차량에 대한 대체 엔진 도입 목표, 산업체에 의한 대기 중 오염물질 방출량 감소 및 통제 • 2001~2015년 사이 안전한 식수원 확보 국민 비율을 12% 향상 목표

01 UKRAINA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Klovsky Lyceum' 학교 내 한국 문화 센터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Reconstruction of Klovsky Lyceum School of Foreign Language

"제 이름은 율리아예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살고 있죠. 저는 한국 드라마를 매우 좋아한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는데 영어나 불어와는 달리 키예프 시내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혼자서 한국어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다른 구소비에트 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제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국민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국제 사회와의 교류 확대를 앞두고 일반 교육은 물론 국제화와 직접 연계되는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1996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계화와 경제 개혁을 위해 외국어 교육을 진흥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쿠츠마Kuchma 대통령 방한 당시 한국문화센터 건립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7~1999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Klovsky Lyceum' 학교 내에 한국문화 센터를 건립하고 어학 실습실과 컴퓨터 교육실을 설치했으며,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제공했다. 또한 장비 운용법과 교과 과정 및 학교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KOICA 단원을 현지에 파견해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무엇보다 초 · 중등 과정과 대학 과정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적인 한글 교육 시스템을 완성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KOICA으 우크라이나 Klovsky Lyceum 학교 재건 사업은 우크라이나에 한국어 교육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양국의 학술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업명 우크라이나 'Klovsky Lyceum' 학교 내 한국 문화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9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및 국내 초청 연수

02 UKRAINA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배전 손실 감소 및 전기 품질 향상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on Reduction of Power System Loss and Improvement of Power Quality in Donetsk Ukraine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력 부문 기관을 민영화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직 민영화 되지 않은 배전 회사들의 배전 계통 손실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6년까지 78만 달러를 투입해 우크라이나 제1의 공업 도시인 도네츠크 지역의 배전 손실 감소와 전기 품질 향상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했다.

우리나라의 배전 분야 손실률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인 4.4% 정도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15%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후한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손실, 즉 변압기나 배전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관리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비기술적 손실, 즉 수금이나 계기 검침, 도전 등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KOICA는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손실의 주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특히 도전을 방지하고 정확한 요금을 계량하기 위해 원격 검침 시스템AMR, Automatic Meter Reader을 4백77가구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IT 기술 도입에 의한 비기술적 손실 감소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업명 우크라이나 배전 손실 감소 및 전기 품질 향상 타당성 조사 | **사업 기간** 2004~2006년 | **사업 규모** 78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03 UKRAINA

이젠 한 병원에서 종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원격 진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the Creation of the Telemedicine Network of Ukraine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키예프 시립 병원과 암 병원 두 곳 모두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두 병원이 너무 떨어져 있고, 시내 교통 체증이 심해 병원을 가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립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시에 사는 세브첸코 씨의 말이다. 우크라이나의 의료 기관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적절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도인 키예프로 가야 한다. 게다가 병원별로 의료 시스템이 특성화되어 있다는 명목으로 병원 간 협진이 불가능해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 국민에 대한 의료 혜택의 확대를 천명해 온 우크라이나 정부는 병원 간 효율적인 협진과 지방 거주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IT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 진료 네트워크 시스템Telemedicine Network System'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5~2007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키예프 시립병원과 응급 병원, 진단 센터, 암 병원 등 키예프 소재 4개의 대형 병원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고, 협진이 가능하도록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의료 분야를 정보화시키는 첫 번째 시도로써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보급될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별로 이 시스템이 확대 운영된다면 낙후되어 있는 지방 병원의 의료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다. 특히 암 같은 만성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우크라이나 원격 진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7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및 시스템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4 UKRAINA

IT 대학 교육, 학교 밖 담장을 넘어가다

한국 · 우크라이나 IT 교육 센터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he Ukraine-Korea IT Education Center at Kyiv Polytechnic Institute

1991년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연 1%에 그쳤다. 오렌지 혁명으로 집권한 유센코 대통령은 EU와의 통합을 장기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유럽식 제도 도입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대화 정책의 골자는 에너지 절약과 기술 집약적 생산을 가능케 하는 기계 공업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비효율적이며 낙후된 산업을 폐쇄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IT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정규 과정을 통해 IT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IT 협회 주도로 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혁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키예프공과대학KPI 안에 첨단 IT 센터를 설립해 IT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키예프공과대학은 기초 과학 수준은 매우 높으나 응용과학을 비롯한 고급 과정의 기술 교육과 IT 활용 기술이 부족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위주의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KOICA는 2008~2010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키예프공과대학 안에 1,500㎡ 규모의 IT 교육 센터를 건립하고, 센터 내 'IT-SoC'와 그리드 컴퓨팅 분야의 2개 과정을 개설해 연간 2백4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대학이 학교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위주의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OICA는 센터 1층에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최첨단 IT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장을 마련해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이고, 양국 간 산학 기술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명 한국 · 우크라이나 IT 교육 센터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0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IT 교육 센터 신축, 기자재 및 기술 자문, 교과 과정 및 교재 개발



Other Countries

지구촌 곳곳에 미치는 KOICA의 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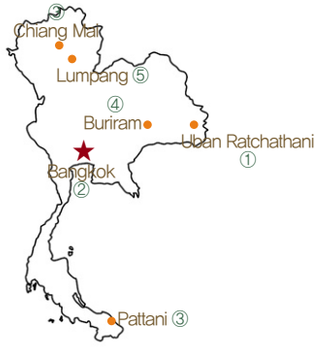




Thailand
South Africa
Rwanda
Chad
Congo
Mexico
Belize
Uruguay
Costa Rica
Panama
Lebanon
Libya
Syria
Solomon Islands
Romania
Bulgaria
Montenegro
Serbia

THAILAND
태국

글 · 손송희



01 THAILAND 태국의 빈민층을 위한 학교를 세우다

'Suksasongkro Amnardchareon Boarding School' 지원 사업

Projec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welfare School Students of Suksasongkro Amnardchareon Boarding School

'Suksasongkro Amnardcharoen Boarding School'은 빈민 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과 숙식을 제공하는 태국의 31개 복지학교 중 하나다. 하지만 직업 훈련 수준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여서 직업 훈련을 시킨다기보다는 극빈 재학생의 급식을 위해 가축을 기르고 채소를 재배하거나, 학교 운영과 재학생 생계 지원을 위해 판매용 수공예품을 제작하는 게 전부였다. 1994년 태국 왕실의 시린돈Sirindhon 공주가 이곳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태국 왕실 사업단과 교육부는 학교의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태국 교육부는 학급을 증설하고 교실과 기숙사를 증축해 학교의 자립 능력을 키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5~1996년까지 35만 달러를 지원해 1,049.4㎡ 규모의 2층짜리 직업 훈련원을 신축하고 컴퓨터 44대, 프린터 38대, 녹음기 30대, 타자기 60대, LCD 프로젝터 5대 등 각종 교육용 기자재와 25인승 마이크로버스 2대를 제공했다. 또한 교사 등 4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컴퓨터 분야 해외 봉사단원을 현지에 파견해 교육을 지원했다. 1997년 1월 31일 개최된 훈련원 개소식에는 시린돈 공주를 비롯하여 수카윗 랑시폰 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도진 등 2천여 명이 참석했고, 시린돈 공주는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을 지원해준 KOICA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Suksasongkro School'은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와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직업 훈련 센터의 면모를 갖추어 빈곤 퇴치와 지역 개발에 기여하게 되었다. KOICA는 현재에 비해 당시 매우 빈약했던 우리나라의 '정부개발원조ODA' 재원을 적절히 활용해 태국의 농촌 복지와 청소년 교육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원조 효과를 극대화시켰고, 3기에 걸쳐 봉사단원을 파견해 사후 관리와 더불어 사업 효과를 제고하였다.

사업명 'Suksasongkro Amnardchareon Boarding School'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6년 | **사업 규모** 35만 달러 **지원 내역** 직업 훈련실 건축, 기자재 제공,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02 THAILAND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 센터 지원 사업(찬드라카셈대, 출라롱콘대)

Establishment of Korean Language Center at Chulalonkorn Univ. & Rajabhat Institute of Chantrekasem

태국하면 관광지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태국은 우리나라와 교역과 투자,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1990년대 초 태국 정부는 한국과 경제 · 문화 · 사회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태국 정부는 출라롱콘 대학Chulaonkorn Univ.과 찬드라카셈 Chantrekasem 사범대학교의 한국어 센터를 지원해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당시 찬드라카셈 사범대학에서는 이미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으나 교육 환경이 부실하고, 출라롱콘 대학교에서는 한국어과 신설이 인가를 받았으나 교수진의 부족으로 개설이 미뤄지고 있었다.

KOICA는 1995년 출라롱콘 대학과 찬드라카셈 사범대학교에 각각 10만 달러씩 총 20만 달러를 들여 기존 강의실을 개조해 한국어 센터로 만들고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했으며, 한국어 강사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내 한국어과 개설을 촉진시켜 양국 간 문화 · 예술 · 정보 교류의 계기를 마련했다. 1999년 KOICA의 지원 사업 종료 후 태국 최고의 명문인 출라롱콘 대학이 한국어를 전공과목으로 채택한 것을 비롯해 그 밖의 7개 대학이 한국어를 선택 · 교양 과목으로 채택했다.

사업명 태국 한국어 센터(찬드라카셈 · 출라롱콘 대학)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5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한국어 센터 개설,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03 THAILAND 태국에 한국어와 한국학을 보급하다

한국어 센터 지원 사업(송클라 · 치앙마이 대학)

Establishment of Korean Language Center at the Prince of Songkhla Univ. & Rajabhat Institute Chiangmai

한국어 과목이 이미 개설된 송클라 대학과 치앙마이 대학은 1996년 11월 한국어를 전공과목으로 격상하고자 했다. 하지만 두 대학에는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데 필요한 어학 실습실이 없었고, 한국어 교수진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태국 정부는 한국어를 전공과목으로 격상하는 데 필요한 어학실과 교수진 양성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당시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무역 액수는 연간 35억 달러,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연간 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은 장기적으로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했다.

KOICA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으로 학생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송클라 대학과 치앙마이 대학에 한국어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1996년 KOICA는 20만 달러를 지원해 어학 실습실을 개설하고, 주 조정기 · 녹음기 · 프로젝터와 스크린 · TV 모니터와 VTR 등 어학 실습 기자재를 제공했으며, 한국어 강사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한국어 센터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 태국 정부 관련자들은 첨단 어학 시설 설치에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KOICA는 태국에서 한국어와 한국학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 · 문화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대학에서의 한국어 전공과목 개설을 추진해 장차 한국학과가 생기는 기초를 다지는 한편,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사업명 태국 한국어 센터(송클라 · 치앙마이 대학)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6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어학 실습실 개설,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봉사단 파견





Thailand

04 THAILAND 한국의 농촌 개발 경험을 전하다

농경지 수원 개발 사업 On-Farm Watershed Resources Development

1995년 당시 태국은 국민 총생산GNP이 2천7백 달러였으나 일부 농촌 지역은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빈농 지역은 대부분 건조한 환경 탓에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농경지 수원 개발' 은 주민들의 자립 자족과 소득 증대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었다. 태국 정부는 수자원이 절대 부족한 동북부 지역에 저수지를 만들어 건기 때에도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저수지 건설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 사업에 우리나라의 농촌 개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OICA는 1996년 10만 달러를 지원해 방콕에서 411km 떨어진 'Lampli Mat' 와 'Chum Phuang' 의 빈농 지역에 소규모 저수지 1백30개를 건설했다. 저수지가 건설되자 벼 · 바나나 · 망고 등 농산물 수확량이 늘어났고, 메기 등 담수어를 양식해 농민들은 1일 100~150바트(약 4~6달러)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돼지를 사육해 단백질 섭취로 영양원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KOICA는 저수지마다 관리자 이름을 표시해 지역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깊이 3m의 저수지를 팔 때는 1m는 주민들이 직접 삽을 가지고 흙을 파도록 하여 '근면 · 자조 · 협동' 이라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업명 태국 농경지 수원 개발 사업 | **사업 기간** 1996년 | **사업 규모** 10만 달러 | **지원 내역** 저수지 건설



05 THAILAND 저수지 건설로 2모작이 가능해졌어요

빈곤 퇴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영농 개발 지원 사업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for Poverty Alleviation

태국은 1990년대 연평균 8~9%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도시 지역에만 발전이 집중되어 도시와 농촌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었다. 태국 정부는 제8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1997~2001년)' 을 수립하면서 주요 개발 정책 사업으로 북부 지역의 빈곤 퇴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태국의 취업 인구 중 농업 인구의 비중은 45%에 달하고 있으며, 2모작이 가능한 기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영농 기술과 관개 기술 부족으로 농업 생산성은 매우 낮다. 태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1989~1993년 사이에 지원한 'Mae Tan' 시범 농장 사업이 성과를 거두자 후속 사업으로 북부 지역의 빈곤 퇴치를 위한 영농 개발 사업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7~1999년까지 40만 달러를 지원해 'Mae Prai · Mae Mai · Mae Than' 등 3개의 소규모 관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저수지 규모가 크지 않은 탓에 건기에 벼 재배가 불가능한 여건을 고려해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밭작물을 도입하고, 소규모 농업 기계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 주체로 농민 조직을 강화했다. 또한 KOICA가 제공한 농기계와 영농 자재를 이용해 마을별 영농 기금을 조성하고, 행정 기관의 감독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작물 재배 외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땅콩 수확 후 처리 기계를 공급해 생산물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버섯 재배를 위한 기술 교육도 실시했다.

사업 종료 후 공무원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한국의 지원이 농촌 개선에 미친 효과에 대해 '대단히 크다' 고 응답한 비율은 100%에 달했고, 가장 큰 호응을 받은 지원 분야는 작물 재배 기술 · 물 관리 · 농기계 운영 및 수리 부문에 관한 기술 전수였다. 이 사업은 KOICA의 일회적 지원이 아닌, 농민 조직의 운영을 통해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명 태국의 빈곤 퇴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영농 개발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9년 | **사업 규모** 40만 달러 | **지원 내역** 영농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06 THAILAND

아시아 횡단 철도의 청사진을 그리다

아세안 5개국 철도 연결 (태국~미얀마)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for the Thailand-Myanmar Railway Link of the Singapore-Kunming Rail Link Project in CLMV



KOICA's final reports handed over to Myanma Railways

YANGON, 5 June— KOICA Myanmar Office handed over the Final Reports on completion of the feasibility study project on the Thailand-Myanmar railway section of the Singapore-Kunming Railway Linkage (SKRL) Project to Myanma Railways, here, today. KOICA also presented Personal Computers and accessories which were used during the project to MR.

Present at the ceremony were Resident Representative of KOICA and the General Manager and officials of MR.

As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s assistance programme for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this project not only contributes to the soc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of Myanmar but also strengthens the prosperity of the railway sectors and accelerate ASEAN economic integration. —*NLM*

A representative of KOICA hands over final reports to an official of Myanma Railways.— H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정치 · 경제 · 사회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국가 간의 인적 · 물적 교류를 용이하게 해주는 교통 인프라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1950년대 유엔에서는 아시아 횡단 철도Trans Asian Railway에 관한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는데, 이는 1995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2002년 '아세안 + 한국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횡단 철도의 태국~미얀마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받았다. 조사 대상은 미얀마 110km, 태국 153km 구간이었다. KOICA는 2004~2007년까지 120만 달러를 투입해 이 구간에 대한 여객 수요와 경제성 분석, 철도 연결 사업 설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현지 전문가와 함께 조사 · 정보 수집 · 분석 활동 등을 추진해 나갔다. 또한 2005년 10월과 2007년 3월에 걸쳐 두 번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최종 보고회에서 태국 철도청 부청장 'Mr. Nakon Chantasorn'과 미얀마 철도청장 'Mr. Min Swe'는, "이번 타당성 조사가 매우 심도 있게 수행된 점 대해 코이카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 연결 사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의 35%는 빈곤층에게 돌아가게 되어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에도 부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업명 아세안 5개국 철도 연결(태국~미얀마 구간) 타당성 조사 | **사업 기간** 2004~2007년 | **사업 규모** 12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글 · 조정명

01 SOUTH AFRICA

기술학교가 이론만 가르치고 있어…

국립 직업기능 검정 센터 지원 사업

Project for Upgrading a National Technical Testing Center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자리 잡고 있다. 북쪽은 나미비아 · 보츠와나 · 짐바브웨, 북동쪽은 모잠비크 · 스와질란드와 국경을 접하며, 남아공 영토 안에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레소토가 있다.

남아공 아이들은 6살에 학교에 들어간다. 학제는 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학년 이후에는 정규 학교 대신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학교는 실기를 교육할 기자재가 전혀 없어 이론만 가르치고 있으며, 교육부와 노동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학 교육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졸업생들이 산업 현장에 취업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게다가 기술학교 졸업 후 대학이나 종합기술 전문대Polytechnical College에 입학하더라도 수준 높은 기술교육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취직 후 산업 현장에서의 재교육은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설립된 '국립 직업기능 검정 센터COTT'는 노동부 산하 남아공 유일의 검정 센터다. 남아공 정부는 열악한 기술교육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기능 검정 체계를 전수받기 위해 직업기능 검정 센터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7~1999년까지 300만 달러를 투입해 직업 훈련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고, 기자재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 또한 직업기능 검정 센터의 고위 관리자를 국내로 초청해 우리나라의 기능 검정 분야를 견학시켰다. KOICA는 남아공 '국가부흥개발계획'의 중점 사업인 교육 향상 프로그램(기술학교, 기술 센터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기술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업명 남아공 국립 직업기능 검정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9년 | **사업 규모** 3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공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RWANDA
르완다



글 · 조정명

01 RWANDA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나바롱고 강 식수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Feasibility Study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Nyabarongo River

르완다는 아프리카 중동부 내륙에 위치한 나라다. 서쪽에는 콩고민주공화국과 키부 호(湖), 북쪽에는 우간다, 동쪽에는 탄자니아, 남쪽에는 부룬디가 인접해 있다. 르완다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나일과 콩고 분수계의 일부를 이룬다. 르완다의 연간 강우량은 1,212mm로 비교적 풍부하지만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1인당 사용 가능한 수자원 양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54%에 그치며, 농촌 지역의 경우는 44%에 불과하다. 2020년 예상되는 전체 용수 수요는 1,016백만㎥로 지하수를 포함하는 르완다의 전체 수자원 양 27,920백만㎥을 고려할 때 충분한 편이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수자원 개발과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자원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르완다 정부는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2005~2011년까지 '국가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르완다 나바롱고 강 유역에 식수를 포함한 수자원 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나바롱고Nyabarongo 강은 르완다 전 국토의 3분의 2에 달하는 면적으로 수도인 키갈리Kigali를 관통하며, 키갈리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이다. 그러나 나바롱고 강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잦은 고갈과 홍수로 인한 범람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이고 안전한 용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KOICA는 나바롱고 강 유역의 종합적인 수자원 개발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바롱고 강 유역의 다목적 용수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홍수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강구하고, 댐의 건설과 관련한 기초적인 환경영향 평가 등을 실시해 르완다의 자체 수자원 개발 및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사업명 르완다 나바롱고 강 식수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나바롱고 강 유역 수자원 개발 계획 수립, 기자재 지원, 인적 자원 개발

02 RWANDA 장기간 전문가를 파견해 르완다의 정책 개발 능력 향상시켜

국가개발전략 수립 능력 배양 사업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in National Planning and Research Mobiliz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2000년 르완다 정부는 국가 발전 계획인 'Vision 2020'을 제시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해 '경제 발전 및 빈곤감소전략EDPRS 2008~2012'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서비스 및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국가 개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르완다 정부는 2008년 당시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공무원의 역량 부족으로 판단했다. 르완다는 대통령 · 장관 · 국장급 등 고위층의 리더십과 능력은 우수하지만 실무급 공무원의 경험과 능력 부족으로 국가 개발 과제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르완다 정부는 국가 개발 계획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의 기획 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르완다는 우리나라를 자국의 경제 발전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경험이 르완다의 실정에 맞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45만 달러를 들여 5개 분야 – 산업개발전략 · 투자 및 수출진흥전략 · 인적자원개발전략 · 농업개발전략 · 에너지전략 – 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교육을 진행 중이다. 당초 KOICA는 전문가 5명 파견, 국내 초청 연수자 20명, 기자재 제공을 계획했으나 르완다 정부는 전문가 파견을 통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원 예산의 전부를 전문가 파견에 투입해줄 것을 요청해 왔고, 이를 받아들여 장기간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다. KOICA의 지원으로 르완다는 산업과 투자 및 수출 진흥, 인적 자원을 비롯한 농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개발 기획 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명 르완다 국가개발전략 수립 능력 배양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45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03 RWANDA 내전으로 파괴된 대학을 재건

르완다 국립대학 ICT 공학부 건립 사업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of ICT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Rwanda(Butare)

20세기 민족 간의 참혹한 내전을 그린 영화 〈호텔 르완다〉로 잘 알려진 르완다는 아프리카 중동부의 작은 내륙 국가다. 8백44만 인구를 가진 르완다는 '천 개의 언덕을 가진 땅' 이라고 불리는 비옥하지만 험한 지형을 갖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조밀한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 르완다 전체 인구의 90%는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은 국내 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한다. 하지만 좁은 국토와 항만이 없어 농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르완다 정부는 정보와 지식 기반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ICT 산업을 국가개발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르완다 정부는 ICT 장기 발전 전략으로 2001년부터 20년간 '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2020' 을 수립하고, 현재 2단계(2006~2010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NICI' 의 주된 목표는 2020년까지 농업 분야를 'GDP' 의 35% 이하로 낮추고, IT 분야의 비중을 65%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르완다의 ICT 역량 강화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르완다 국립대학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르완다 국립대학은 ICT 교육 인프라가 미흡한 데다 1994년 내전으로 학교 시설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교수와 학생 2천여 명이 희생되는 비극을 겪었다.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 국립대학의 정보통신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해 ICT 센터를 건립하고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11년까지 600만 달러를 투입해 르완다 국립대학의 ICT 공학부 건립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ICT 교육 센터를 건축하고,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을 위한 기본 장비와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KOICA의 지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ICT 교육 센터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단기 교육 과정과 석사 등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e-Learning',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의 연구 시설 및 대학교 전산 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사업명 르완다 국립대학 ICT 공학부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8~2011년 | **사업 규모** 6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제공,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CHAD 차드

글 · 권새봄

01 CHAD 금광을 찾아 차드의 경제 발전에 기여

마요케비 광물 탐사 사업

Geological Exploration for Mineral Resource in the Mayo-Kebbi Area

중북부 아프리카 내륙에 자리 잡은 차드Chad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광산 개발은 전무한 상태다. 1998년 차드 정부는 '차드 2000년 비전' 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광업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 외국 원조 기관과 해외 자원개발 업체의 참여를 유도했다. 차드는 취약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세계 최빈국이었다. 장기간의 내전과 1980년대 이후 계속된 'Sahel' 지역의 가뭄과 주요 수출품인 면화 생산 감소 및 'CFA' 프랑 평가 절하 등이 그 원인이다. 1992년부터 차드 정부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의 지원으로 4년간 금광 탐사 활동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중 가장 유망한 지역을 선정해 금광 개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8~2001년까지 39만 달러를 들여 금광 분포지인 마요케비 지역에서 3단계 사업을 실시했다. 1단계인 1998~1999년까지는 팔라Pala 지역에서 정밀 탐사 지역 선정을 위한 예비 조사를 하고, 2단계인 1999~2000년까지는 정밀 지구화학 탐사 및 광상 부존 조사를 통해 1단계에서 선정된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3단계인 2000~2001년까지는 유망 광화대를 발굴하고 개발 경제성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해 광물 탐사 분야의 선진 기술을 전수했다. KOICA는 차드의 광업 개발을 촉진시켜 자원 수급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한 · 차드 간 자원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드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2003년 마침내 석유 생산이 시작되면서 차드의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기 시작했다.

사업명 차드 마요케비 광물 탐사 사업 | **사업 기간** 1998~2001년 | **사업 규모** 39만 달러 | **지원 내역** 사업지 탐사, 정밀 조사 및 연구 용역

CONGO
콩고



글 · 권새봄

01 CONGO 외교관이 공부할 어학 실습실도 없어

외교부 어학 능력 향상 지원 사업 Project for Enhancing the Foreign Language Skills

우리나라는 2006년 아프리카 개발 원조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까지 원조 규모를 2005년의 3배인 1억5백만 달러로 확대한다는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특히 기초 교육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콩고 정부는 자국 외교관들의 어학 능력을 향상시켜 국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에 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2006년 당시 콩고 외교부에는 4백 명의 외교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교부에는 자체적인 외국어 교육 시스템이 없었고, 외교관들은 사설 학원에서 외국어 공부를 해야만 했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20만 달러를 들여 외교부 신청사 내 어학 실습실과 도서실에 컴퓨터와 어학 실습 소프트웨어 등 장비를 제공하고, 3개월간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어학 실습실 관리와 장비 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콩고에 우리나라 공관과 KOICA 사무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KOICA는 우리나라 교육 정보화 전문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PMC :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기관으로 선정하고, 'PMC' 관리자가 2회의 현지 출장을 통해 기자재 입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KOICA는 콩고 외교관들이 체계적인 어학 교육 시스템 속에서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사업명 콩고 외교부 어학 능력 향상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2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공여, 전문가 파견

02 CONGO 교사들도 처음 받아본 컴퓨터 교육

중등학교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Integrating ICT in Secondary Education



아프리카 교육부 장관 협의체인 '아프리카 교육발전연합ADEA'은 2004년 7월 나이지리아에서 회의를 갖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과 지식 정보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ICT를 활용한 교육 정보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한반도의 11배에 달하는 광대한 국토를 가진 콩고는 1980년대 석유 수출로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루며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장기간에 걸친 세 차례의 내전과 예산 및 교사 부족, 도농 간의 교육 수준 격차가 심해지고, 개도국 평균치를 밑도는 높은 문맹률 등의 문제로 교육 분야는 급격히 황폐화되었다. 하지만 콩고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 2004년 '빈곤감소전략'을 수립했다. 양질의 교육 기회 확대를 제1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교사 역량 강화 및 과학 기술 장비 확충, ICT를 활용한 교육 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콩고 정부는 자국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 ICT 활용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교육 정보화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수도인 브라자빌에 위치한 국립 사범대학과 8개 중학교의 교육 정보화 자료실을 개 · 보수하고 장비를 제공했다. 또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교육부 당국자에게 교육 정보화 정책과 컴퓨터 교육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ICT 활용법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콩고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학교에서부터 교육 정보화 사업을 시작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KOICA는 학교를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고, 컴퓨터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편 이 사업은 KOICA가 콩고에 지원한 첫 번째 기술 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명 콩고 중등학교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실습실 개 · 보수, 기자재 공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MEXICO
멕시코



글 · 이유리

01 MEXICO 멕시코 한인 후예들에게 보여준 모국의 관심

멕시코 유카탄 주 의료 센터 건립 지원 사업
Project for Construction of Medical Center in Yucatan, Mexico

멕시코 남부 유카탄 주. 이름은 낯설지만 사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다. 1905년 유카탄 반도 메리다의 에네켄 농장에 1천33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이주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착한 지 1백 년이 지난 현재 이곳의 한인 후예들은 3만 명에 이른다. 2005년 당시 유카탄 주의 공공 의료 시설은 수요에 비해 의료 서비스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의료 장비와 진료 시설은 노후한 상태였다. 유카탄 주 정부는 공공 의료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100만 달러를 지원해 총면적 1,420㎡ 규모의 의료 센터를 건축하고 의료 장비를 제공했으며, 4명의 관련자를 2주간 국내로 초청해 병원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멕시코 정부는 병원 설계와 감리, 주변 시설의 정비를 담당했다. 그 결과 2005년 7월 유카탄 주 의료 센터 개원식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멕시코 한인 이주 110주년과 때를 같이 해 추진된 KOICA의 지원 사업은 멕시코 주민들의 의료 환경을 개선시키고, 멕시코 국적으로 살아가는 한인 후예들에게 모국의 관심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정신적 의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명 멕시코 유카탄 주 의료 센터 건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Mexico







Belize

BELIZE
벨리즈



글 · 이유리

01 BELIZE 우리 학교는 태풍이 오면 대피소로 쓰여요

교육 환경 개선 및 재해 대책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 Disaster Relief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1천 명 이상의 사망자와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 이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사례였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이 자연재해에 이처럼 취약하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미국과 인접한 벨리즈 역시 허리케인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어 왔다. 벨리즈 정부는 허리케인의 피해가 심한 'Yo Creek'과 'Pickstock' 지역의 초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벨리즈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재해 대책 지원 사업을 펼쳤다. KOICA는 초등학교를 신축하면서 허리케인이 닥쳐왔을 때는 대피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긴급 구호 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소규모 기술훈련원을 건립하고,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여 벨리즈의 교육 여건을 개선시키고, 기술 훈련 시설을 지원하면서 지역 주민의 자활 의지를 높였다. 벨리즈 정부는 학교 건물을 추가로 건축해 학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자립 발전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사업명 벨리즈 교육 환경 개선 및 재해 대책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학교 건축, 기자재 제공

URUGUAY
우루과이



글 · 이유리

01 URUGUAY 남미 정보통신 시장을 경험하다

외무부 행정 전산망 지원 사업

Computerization of Uruguay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전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다. KOICA는 정보통신 분야를 한국의 비교 우위로 보고, 무상 원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통신 분야를 7대 중점 분야의 하나로 선정해 지원 중이다.

1996년 우루과이 정부는 외무부 전산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7년까지 30만 달러를 들여 컴퓨터와 프린터를 비롯해 서버와 업그레이드 장비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기자재 설치와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우루과이 외무부 전산실 직원 3명을 국내로 초청해 우리나라의 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 시스템 관리와 운영 체계에 관해 교육했다. KOICA는 우루과이의 외무부 전산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기업이 남미 정보통신 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업명 우루과이 외무부 행정 전산망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3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2 URUGUAY 국제 수산물 시장으로의 진출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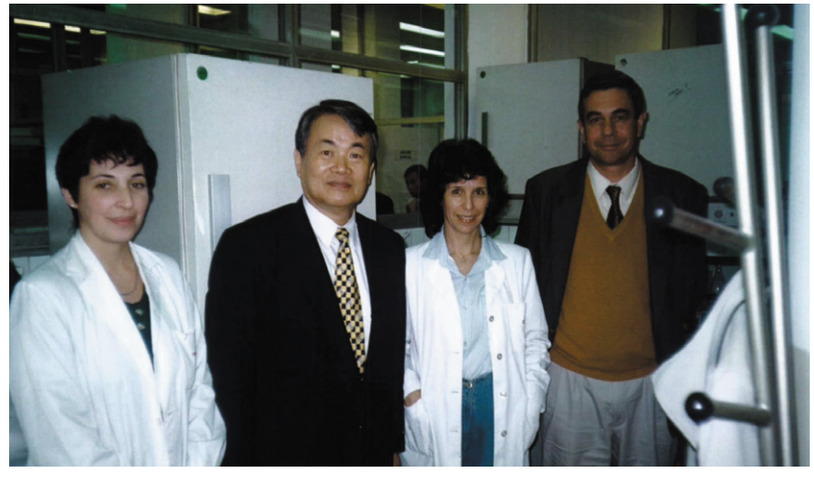
수산청 기능 현대화 지원 사업

Acknowledgement of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f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가 삶의 터전이자 자원의 보고였다. 우루과이도 동쪽과 남쪽이 대서양에 접한 수산 자원 부국으로, 산업 구조는 1차 산업 위주다. 일찍이 우루과이 정부는 어류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인증 체계를 현대화시켜 국제 수산물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꾀해 왔다. 1996년 우루과이 정부는 연구 개발 시설의 확충과 인적 자원 훈련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어업 분야의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7~1998년까지 30만 달러를 들여 중합연쇄 반응기를 비롯하여 가스색층 분석기, 액체색층 분석기 등 기자재를 제공하고 관련자 4명을 국내로 초청해 품질 관리와 인증 체계에 관한 3주간의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초청 연수의 경우 연수 계획 수립 초기부터 KOICA와 연수 실시 기관 및 우루과이 수산청 간에 유기적인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교육 내용이 효과적으로 구성될 수 있었고, 연수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 교육 효과가 더욱 높았다. KOICA의 지원 사업은 우루과이의 수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업명 우루과이 수산청 기능 현대화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7~1998년 | **사업 규모** 3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Uruguay

03 URUGUAY 우루과이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국립 농업연구소 지원 사업

Development of rice physiology research capabilities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in Uruguay

우루과이의 주요 수출 품목은 육류와 곡물이다. 특히 쌀은 1980년대 이래 생산량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세계 6대 쌀 수출국 중의 하나인 우루과이의 쌀 수출량은 총 수출의 9%를 차지한다. 이처럼 농업, 특히 쌀 생산은 우루과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지원이 있었다. 1990년대 말 우루과이 정부는 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국가적인 노력을 쏟고 있었다. 상습적인 냉해로 인한 쌀 생산량의 손실이 15% 이상에 달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 정부는 각종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시설과 기술이 부족한 탓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우리나라에 냉해 방지를 위한 재배 기술의 이전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3년 사전조사를 마치고, 2004년부터 총 30만 달러를 투입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우선 우루과이 국립 농업연구소에 저온 처리실과 유리 온실을 설치하고, 연구원 2명을 국내로 초청해 한 달간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문가를 현지에 8개월간 파견해 시설의 활용 기술과 벼 냉해 저항성을 점검하고, 경감 기술을 이전했다. KOICA의 사업에 크게 만족한 국립 농업연구소는 시험장 로비 중앙에 우리나라에 감사를 전하는 감사패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해 와 사업의 효과를 증명했다. 이는 앞으로도 우루과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사업명 우루과이 국립 농업연구소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30만 달러 | **지원 내역** 온실 설치,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COSTA RICA 코스타리카

글 · 이유리

01 COSTA RICA 낙후된 농촌에 최신 기술훈련원 건립

기술훈련원 건립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he Korea-Costa Rica Technical Training Institute in Guacimo

1998년 5월 새로 출범한 코스타리카 정부는 정부와 사회단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면서, 기술 훈련 교육 시설이 취약한 중동부 'Guacimo' 지역에 기술훈련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을 감안해 건축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훈련 장비는 외국의 원조를 통해 확보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0년 23만 달러를 들여 컴퓨터 · 제빵 · 미용 · 봉제 등 6개 훈련 공과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했다. 또한 교사와 관리자를 2주씩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훈련원 운영과 학생 관리를 위해 전문가 2명을 한 달간 현지에 파견했다.

2002년 2월 7일 마침내 개원식이 열렸다. 아스트리드 피셀Astrid Fischel 제1부통령은 개원식 치사에서,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농촌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KOICA의 지원으로 낙후 지역인 이곳에 최신 시설을 갖춘 기술훈련원이 설립되어 인력 개발과 고용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OICA의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업명 코스타리카 기술훈련원 건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0년 | **사업 규모** 23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2 COSTA RICA 코스타리카에서도 IT 개발을 시작해야죠

정보통신 개발 센터 지원 사업

Establishmen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in Costa Rica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정보 격차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미 지역 또한 마찬가지다. 2002년 당시 중미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지만 인터넷 도메인은 고작 1%만 갖고 있었다.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이 1%를 약간 웃도는 국가는 벨리즈(4.3%)와 코스타리카(3.9%), 파나마(1.9%)뿐이었다. 이 중 코스타리카 정부는 IT 인프라 개선과 인력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 개발 센터의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2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3년까지 39만 달러를 들여 알라후엘라Alajuela 시 지역 생산성 센터에 정보통신 개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서버와 컴퓨터, 화상회의 시설 등 21종의 장비를 제공하고, 웹 개발 응용 · 네트워크 운영 · 전자정부 분야 전문가 등 4명을 4주씩 현지에 파견해 기술을 전수했다. 또한 전자정부와 전자 상거래, 네트워크 및 인터넷 보안 분야 교육을 위해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코스타리카 정보통신 개발 센터는 첨단 기자재와 선진 IT 교육을 이수한 강사와 기술진을 갖추게 되어, 교육과 컨설팅 기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지역 생산성 센터를 IT 컨설팅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업명 코스타리카 정보통신 개발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3년 | **사업 규모** 39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3 COSTA RICA 100% 취업률이 보여준 KOICA의 사업 효과

우에타르 노르테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The Improvement of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Huetar-Norte, Costa-Rica

코스타리카는 적절한 교육 수준을 갖춘 양질의 인적 자원을 보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산업 구조 개편과 투자 활성화 그리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으로 오늘날 중미에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코스타리카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의 교육 시설을 지원해 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니카라과 · 과테말라 · 코스타리카 · 온두라스 · 파나마 · 엘살바도르 등 '중미통합체제SICA' 6개국 지원의 일환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코스타리카 북부의 직업훈련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2년간 33만 달러를 들여 우에타르 노르테 직업훈련원에 컴퓨터 수리 · 컴퓨터 교육 · 자동차 정비 공과를 위한 훈련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교사 2명을 국내로 초청해 2개월간 연수를 받게 하는 한편, 전문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한 달간 교육을 실시했다. KOICA는 사업 종료 후 2년이 지난 2007년 사후 평가를 실시했다. 훈련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 공과의 경우 100%, 컴퓨터 수리 공과는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어 KOICA 사업의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업명 코스타리카 우에타르 노르테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33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4 COSTA RICA 위암은 코스타리카에서도 큰 문제다

산카를로스, 리베리아 지역 위암 예방 및 조기 진단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Prevention and Early Diagnosis of Gastric Cancer in San Carlos and Liberia, Costa Rica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 탓에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남미 지역의 위암 발생률도 높은 편인데, 중남미 국가 중 코스타리카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위암에 대처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2002년 5년에 걸친 장기 국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주요 사망 요인 중 하나인 위암 등 악성 종양에 대한 대응책을 천명하고, 우리나라에 위암 예방과 조기 진단 사업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산카를로스 및 리베리아 지역에 위 내시경 등 기자재를 제공하고,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현지에 파견해 위 병리학 전문의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아울러 코스타리카 의료진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위암 진단과 시술 수준은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으며, 위암 수술 후 생존율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위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한 집도의가 우리나라 대학병원 외과 교수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KOICA의 의료 지원 사업은 코스타리카 내과 의사들의 진단 및 치료 능력을 상당 수준 향상시켰다.

사업명 코스타리카 위암 예방 및 조기 진단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05 COSTA RICA 우리나라도 바이오 산업 활성화 필요성 인식

생물자원 공동연구 센터 건립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Costa Rica Biodiversity Center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쥬라기 공원〉의 팬이라면 중남미의 작은 나라인 코스타리카를 친숙하게 여길 것이다. 부유한 사업가가 코스타리카 서해안 어느 섬에 공룡들의 공원을 세우면서 영화가 시작되니 말이다. 쥬라기 공원의 실제 촬영지는 코스타리카가 아니라 미국의 하와이였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론 이 영화를 통해 코스타리카의 높은 생물 다양성이 잘 표현된 듯하다.

코스타리카의 면적은 한반도의 4분의 1에 불과하나 세계에서 대표적인 생물 다양성 자원 부국이다. 코스타리카는 전 국토의 3분의 1 이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생태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다. 2005년 9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코스타리카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과학기술부 장관은 생명공학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KOICA는 2006~2007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생물자원 공동연구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신축과 개 · 보수를 합해 총 면적 720.09㎡ 규모의 2층 건물을 건립하고, 40여 종의 기자재와 채집 차량을 제공했다. 우리나라는 '과학 기술 8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전략 사업의 하나로 바이오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KOICA는 코스타리카와 바이오 기술 산업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의 계획대로 2015년까지 장기간 생명공학 분야의 협력이 가능해졌다.

사업명 코스타리카 생물자원 공동연구 센터 건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7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PANAMA
파나마



글 · 박숙현

01 PANAMA 인구 3만4천 명에 병원은 하나뿐

보건소 건립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Health Center in the District of Chepo Panama

태평양과 카리브 해에 연한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교통 요충지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로 인해 파나마는 국제 해운과 비즈니스, 물류 및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파나마의 의료 시설은 개인 병원 · 국공립 병원 · 연금자 병원으로 분류된다. 국민의 10%만이 개인 병원을 이용하고, 30%는 연금자 병원, 나머지 60%는 국공립 병원을 이용한다. 60% 중에서도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환경은 최하위에 속한다. 파나마 국민의 50%인 128만 명은 빈민층에 속한다. 특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Chepo' 지역은 1995년 당시 3만4천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88개 병상을 가진 병원 한 곳과 보건소 여섯 곳만 운영되고 있어 의료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다. 파나마 정부는 갈린도Galindo 외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Chepo' 지역에 보건소를 건립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1996~1997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치과 및 내과, 수술실을 갖춘 660㎡ 규모의 보건소를 건립하고, 각종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제공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보건 관련 회의를 하고, 교육받을 공간으로 쓰이게 될 76㎡ 규모의 회의실도 만들었다. KOICA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농촌 지역 빈민층에게 보다 나은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의료 환경의 개선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 파나마의 에르네스토 발라다레스Ernesto Balladares 대통령은 보건소 완공식 축사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과 파나마 사이에 진실한 우정이 표현되었습니다"라며 KOICA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사업명 파나마 보건소 건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6~1997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02 PANAMA 인력이 없어 인텔 공장 후보지에서 탈락

국립과학기술혁신청 IT 교육 센터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he ICT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at SENACYT

1990년대 초반 파나마 IT 시장은 공공 부문과 일반 부문을 포괄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 설립과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권 허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급성장했다. 하지만 1996년 미국 최대 컴퓨터 회사인 인텔의 남미 IT 공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보통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하면서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1999년 'Y2K'를 맞으며 파나마 정부는 시스템의 전반적 분석과 전략, 그리고 정보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파나마 정부는 2000년 IT 분야를 핵심 발전 분야로 정하고, 관련 인력의 양성과 기술 개발 장려를 목적으로 '국립과학기술혁신청SENACYT'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파나마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네트워크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았지만 사업의 수행은 원활하지 않았고, 자국의 역량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파나마 정부는 '국립과학기술혁신청'의 IT 교육 센터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2~2003년까지 39만 달러를 들여 통신과 네트워크 기술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관련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초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웹 프로그래밍을 개발했으며 컴퓨터 등 장비를 제공했다. 때마침 파나마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린 센터 개원식에는 바잔Bazan 제2 부통령을 비롯하여 김석현 KOICA 총재, 과학기술원장 및 주요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하여 IT 분야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제 사회 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명 파나마 국립과학기술혁신청 IT 교육 센터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2~2003년 | **사업 규모** 39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

03 PANAMA 9개의 응급 구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긴급 구조 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지원 사업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911 Emergency Management System

파나마에서 불이 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몇 번을 누를까? 103번 또는 104번을 누른다고 한다. 그러면 인근 지역 가까운 소방관 및 경찰관이 사용하는 전화벨이 울리고, 소방관이 출동해야 하는지 경찰관이 출동해야 하는지 결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분일초가 급박하고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는 24시간 대기하는 중앙 긴급 구조 시스템이 절실한데도, 파나마에서는 여전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과거 1970년대 대운하를 건설하던 시절 파나마 정부는 긴급 구조 시스템을 유용하게 사용한 적이 있으나 이후 예산 및 훈련 문제 등의 이유로 통합적인 긴급 구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파나마 정부는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 구조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4~2005년까지 33만 달러를 들여 파나마 긴급 구조 시스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효율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처 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파나마의 '국가긴급프로그램National Emergency Program'을 지원했다. KOICA의 사업을 통해 9개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응급 정보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통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늘고 있는 교통사고와 총기 사고 등의 응급 사건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명 파나마 긴급 구조 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5년 | **사업 규모** 33만 달러 | **지원 내역**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04 PANAMA 타자로 각료 회의록을 작성하다니…

대통령궁 각료 회의실 정보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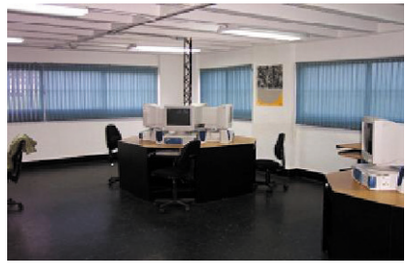
The Project for the Modernization of Presidential Palace Cabin Room

2005년 7월 26일, 무더운 여름 파나마 시티의 대통령궁 각료 회의실에는 대통령과 관료들의 회의가 한창이다. 45분마다 회의장 비서는 회의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가지고 옆방으로 간다. 그곳에서는 8명의 타자수가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을 바쁘게 타이핑한다. 각 테이프에는 1시간 30분의 분량이 녹음되어 있고, 타자수들은 이를 타이핑해 15쪽 분량의 문서로 만든다. 이렇게 작성된 회의록을 다시 회의실로 가져가 검토하고 안건을 토의하는 식으로 각료 회의가 진행된다.

이는 2004년 파나마 정부로부터 대통령궁 정보화 사업에 대한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 실사단이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이다. 2004년 9월 1일 출범한 신정부는 의욕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했지만 최고 행정 기관인 대통령궁의 각료 회의실 인프라가 노후해 주요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고, 비능률적인 행정을 초래하고 있었다.

KOICA는 2005~2006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각료 회의실에 즉석에서 회의록 작성이 가능한 영상기기와 노트북 · 컴퓨터 ·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해 전자투표 시스템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자문을 실시했다. KOICA는 파나마 최고 행정 기관인 대통령궁 각료 회의실에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파나마의 정보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IT 시스템 기술과 장비 등을 선보였다.

사업명 파나마 대통령궁 각료 회의실 정보화 사업 | **사업 기간** 2005~2006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





05 PANAMA 한국은 60점, 파나마는 27점?

전자정부 및 원격 교육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e-Government and e-Learning in the Republic of Panama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지수는 60.3점으로 세계 1위, 파나마는 27점으로 세계 103위다. 2004년 파나마 정부에 신설된 정부혁신위원회는 '디지털 파나마'를 주창하며 정보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세 전자 신고e-tax, 전자 세관e-custom, 전자 조달e-procurement, 자산 전자 신고e-property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하지만 이는 홍보용 수준에 그쳐 디지털 파나마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였다. 정부혁신위원회는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몇 차례 '공개 키 기반 구조PKI : Public Key Infrastructure'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과다한 비용과 기술 부족, 관련 인력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파나마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PKI'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버 등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실무자와 관리자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원격 교육 관련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 KOICA는 파나마 전자정부 구축을 지원하고, 각종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전자 교육 지원을 통해 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또한 파나마 일반 시민들의 정보화에 기여했으며, 우리나라와 파나마의 IT 협력과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명 파나마 전자정부 및 원격 교육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스템 개발, 기자재 공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LEBANON 레바논

글 · 백승화

01 LEBANON 교실에 작은 희망을 심다

학교 건립 사업 The School Construction in Lebanon



지중해의 동쪽 끝에 자리한 레바논은 과거 중동의 무역과 금융 중심지였다. 하지만 오늘날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간 분쟁의 무대이자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로 기억되고 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활동 중심지로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투에서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2006년 8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이후 레바논의 경제 안정과 중동의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조 공여국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결과 우리나라는 500만 달러를 들여 남부 레바논의 테브닌Tebnin과 중부 베카Beqaa 지역의 브리텔Britel 마을에 학교 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테브닌과 브리텔 지역 공립학교들은 시설이 매우 낙후한 데다 학교 자체가 부족해 원거리 통학생들이 많았다. KOICA는 2006~2009년까지 500만 달러를 투입해 테브닌 지역에 공립 유치원과 초 · 중 · 고등학교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2009년 1월에는 브리텔 고등학교의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KOICA는 현대식 학교 건물을 세우고, 특기교육을 위한 과학실 · 컴퓨터실 · 미술실 · 음악실 등의 실습실을 마련해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심어 주었다.

이스라엘과의 분쟁 이전 레바논은 중세부터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교육 수준이 높았고, 아랍 국가 중에선 취학률이 가장 높았다. 테브닌과 브리텔 주민들은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 학교 신축에 대한 기대가 크다. KOICA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대식 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레바논의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업명 레바논 학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6~2009년 | **사업 규모** 500만 달러 | **지원 내역** 테브닌 · 브리텔 학교 건축, 기자재 지원

LIBYA
리비아



글 · 라갑채

01 LIBYA KOICA 지원 후 '한국전력' 수백만 달러 사업 수주

알파타 대학교 과학대 전산화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Computerization and Networking in Science college of the Al-Fateh University

아랍 사람들의 아침 인사는 '앗살라 알라이쿰' 이다. 이는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이란 의미다. 북아프리카 중앙부에 위치한 리비아는 여행객들로부터 '사하라의 진주' 라 불리며 사랑받는 나라다. 유럽 · 중동 ·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조건과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리비아는 IT 분야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1999년 11월 리비아의 최고 지도자 카다피는 알파타 대학교를 방문해 21세기 정보 산업 사회에 대비한 교육 및 첨단 산업 분야 육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리비아 정부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알파타 대학교 과학대 전산화 사업' 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1~2003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알파타 대학교의 IT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컴퓨터 실습실과 중앙전산실, 행정실 등 9개 건물을 개 · 보수했으며 네트워크와 IT 장비를 제공했다. 또한 5개 과정 연수생 11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학사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관련 기술을 전수했다. KOICA는 알파타 대학에 IT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사 관리와 행정 업무를 전산화시켰다. 2002년 리비아 언론은 혁명 33주년을 맞아 KOICA의 지원 사업에 대해, '학술 기관의 과학적 진보를 상징하는 주요 성과' 라고 평가했다. 사업 수행 업체인 '한전 KDN' 은 사업 종료 후 리비아 노동성이 발주한 620만 달러 상당의 정보 연구원 구축 사업을 수주하게 되어 우리나라 기업이 리비아에 진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명 리비아 알파타 대학교 과학대 전산화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1~2003년 | **사업 규모** 20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02 LIBYA KOICA,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Vocational Training Center

리비아는 우리에게 '리비아 대수로 공사' 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83년 동아건설은 32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해 8년이 넘는 공사 기간을 거쳐 대수로를 건설한 바 있다. 2003년 9월 리비아는 유엔의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후 4년간 9%대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리비아 정부는 대외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미국과 EU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합작 법인 설립을 의무화하고, 자국인 고용과 훈련 요건 강화, 외국인 입국 및 거주 규제 조치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수적 경제 정책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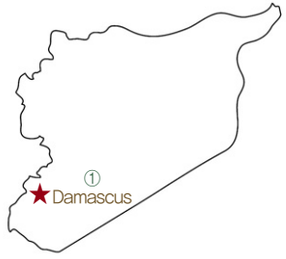
리비아는 세계 제10위의 산유국으로 북아프리카 최대의 자원 부국이자 전략적 요충지다. 또한 2012년까지 600억 달러의 공공 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큰 나라다. 현재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건설 · 플랜트 · 석유 개발 등의 분야에 진출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리비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조치 기간 중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리비아 건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신뢰를 쌓아 왔다.

최근 리비아는 두바이나 싱가포르의 개발 모델을 도입해 '리비아인에 의한 리비아 건설'을 주장하면서 토착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외국 기업은 의무적으로 고용 인원의 50%를 리비아 인으로 채용해야 하고, 고용 인원의 20%에 대해서는 직업 훈련을 실시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 기업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건설 분야의 직업훈련원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오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 한해서 자국인 의무 고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리비아 방문 당시 직업 훈련 분야에 대한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2년에 걸쳐 100만 달러를 투입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시 소재 건설 직업훈련원에 건축 · 전기 · 용접 · 배관 공과를 신설하고, 교육 훈련 기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직업 훈련 시스템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KOICA는 리비아의 기술 교육 환경을 개선시킴은 물론 건설 분야 고용 창출에 기여했으며, 아울러 리비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사업명 리비아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SYRIA
시리아



글 · 백승화

01 SYRIA 시리아에도 인터넷 카페가 등장

IT 플라자 구축 사업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an IT Plaza in Syria

시리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친절에 감동받는다. 시리아 사람들은 스스럼없이 이방인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한다. 이는 낯선 손님이라 해도 극진히 대접하는 시리아 특유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적인 가이드북 『론니 플래닛』은 시리아를 외국인에게 가장 호의적인 나라로 손꼽은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시리아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는 4천 년의 역사와 유적을 간직한 나라, 중동 지역의 오랜 분쟁과 외세의 개입 속에서도 중동의 입장을 대변해온 '중동의 자존심'이라는 정도다. 이는 시리아가 정치적 · 군사적으로 공산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와 정식 외교 관계도 맺지 않은 낯선 나라, 하지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는 우리나라가 지원한 IT 플라자가 있다.

시리아는 여러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 기업의 개혁과 개방이 최근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경제를 주도할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것이 그 이유다.

세계적인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IT 환경조차 매우 열악하다. 2005년 시리아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 분야를 관할하는 ICT 설립 법안을 공포하는 등 일부 개혁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서아시아 분과위의 통신 산업 평가 결과 시리아는 최하 점수를 받았다.

KOICA는 시리아 국민들의 IT 접근성을 높이고, IT 산업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2004~2006년까지 90만 달러를 들여 IT 플라자를 구축했다. IT 플라자는 495㎡ 공간에 인터넷 카페와 IT 강의실 등을 갖추고, 시민들을 위해 영화를 상영하거나 다양한 게임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IT 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마스쿠스 시민들에게 정보 접근의 기회를 넓혀 정보 소외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시리아의 IT 시설 운영은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후에도 KOICA는 IT 콘텐츠 개발, 운영 관리 자문, 추가 기자재 제공 등을 통해 IT 플라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시리아 수출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OICA는 시리아의 IT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양국의 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사업명 시리아 IT 플라자 구축 사업 | **사업 기간** 2004~2006년 | **사업 규모** 9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물 인테리어, 기자재 지원, 국내 초청 연수 등





SOLOMON ISLANDS
솔로몬 제도



글 · 박성백

01 SOLOMON ISLANDS 솔로몬제도와의 우호 관계를 열다

국립 미술관 개 · 보수 사업 National Art Cultural Center Project

한반도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에 54만의 인구를 가진 나라, 솔로몬제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스쿠버다이빙 지역 중 하나로 알려진 곳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이름조차 낯설다. 솔로몬제도라는 국명은 18세기 이곳에 상륙한 스페인 선장 '알바로 더 멘다나'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이 지역을 거대한 남방 대륙이라고 생각한 데서 유래했다. 솔로몬제도는 현재 오세아니아 소속 영연방 국가로서 1978년 이후 입헌군주국이 되었다. 1994년 당시 솔로몬제도 정부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KOICA는 1995~1996년까지 25만 달러를 들여 수도 호니아라에 있는 구총독 관저 건물을 개 · 보수해 연면적 845㎡ 규모의 국립 미술관을 건립했다. 국립 미술관 개관식은 마말로니Mamaloni 수상, 호아메Hoamae 문화부 장관을 비롯하여 문화 · 예술계 인사 및 외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마말로니 수상은 개축 공사가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게 마무리된 데 대해 국민을 대신하여 KOICA에 놀라움과 감사를 표시했다. 국립 미술관의 개관으로 솔로몬제도 국가적 예술품의 안정적 보관과 전시가 가능해졌고, 우리나라와 솔로몬제도 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우호 관계도 증진되었다.

사업명 솔로몬제도 국립 미술관 개 · 보수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6년 | **사업 규모** 25만 달러 | **지원 내역** 국립 미술관 개 · 보수, 사업 관리






Solomon Islands

ROMANIA
루마니아



글 · 이동헌

01 ROMANIA 육로 없는 삼각주 지역에 보건소 건립

'Murighiol' 보건소 건립 지원 사업 Construction of Murighiol Health Center

루마니아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툴체아Tulcea는 다뉴브 강이 흑해와 만나면서 만들어진 삼각주 지역이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육로가 없어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의료 사정 또한 열악하다.

KOICA는 1만5천 명의 다뉴브 삼각주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3만 달러를 지원해 'Murighiol' 보건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1995년 시작된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51㎡ 규모의 보건소를 건립하고, 심전계 등 7만 달러 규모의 기자재를 제공하며 1996년 마무리됐다.

당시 루마니아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했으나 급속한 시장화 조치로 인해 의료 시스템 등 기초 복지 시설이 유명무실해진 상태였다. 때문에 KOICA의 보건소 건립은 다뉴브 지역 주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선물이었다.

1997년 4월 30일, KOICA 총재와 루마니아 보건부장관, 툴체아Tulcea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요인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의 면모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사업명 루마니아 Murighiol 보건소 건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5~1996년 | **사업 규모** 30만 달러 | **지원 내역** 건축, 기자재 지원

Romania

02 ROMANIA KOICA, 루마니아 대학을 업그레이드

클루지나포카 기술대학 1~2차 지원 사업

The Establishment of Korea-Romania Advanced Technology Training Center

2000년 당시 동유럽 저개발 국가인 루마니아의 1인당 국민 총생산GNP은 1천6백96달러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 출범한 신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EU 가입 조건의 충족을 위해 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대비 인건비가 저렴하고 발칸 반도와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 진출하기 수월하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루마니아 정부는 클루지나포카Cluj-Napoca 공과대학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의 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3년 1차 지원에는 실험 기자재를 제공하고 첨단 설계 및 가공 실습실을 구축했다. 2005년 2차에는 실험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1차 사업의 성과인 실습실을 혁신 가공 센터로 통합하는 한편, 공산품 디자인과 가공 분야의 종합 교육을 위한 기반 교육 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2차 지원 때는 공산품 모형 제작을 위한 디자인 프로그래밍, 로봇 및 수치 제어CNC 등 공산품 가공 과정에서 필요한 자동화 관련 장비를 제공해 지역 산업체 근로자와 학생들에게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KOICA는 클루지나포카 공과대학의 연구 및 교육 여건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사업명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기술대학 1~2차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차 2003년, 2차 2005년 | **사업 규모** 1차 22만 달러, 2차 32만 달러 | **지원 내역** 1차 :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2차 :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BULGARIA 불가리아

글 · 문상원

01 BULGARIA 소피아에서 하나뿐인 장애인 복지 센터

장애인 복지 센터 건립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Sofia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KOICA가 지어준 장애인 복지 센터는 소피아에서 유일한 장애인 의료 복지 센터입니다. 매달 2백명 정도의 장애인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장애인 복지 센터 관장의 말이다. 구소련 붕괴 후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 복지 분야의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 이는 주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 삭감으로 가시화되었다. 불가리아에는 특히 장애인을 위한 의료 시설이나 복지 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불가리아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사회 복지 센터를 확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KOICA는 1997~1998년까지 50만 달러를 들여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장애인 복지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990년 우리나라가 불가리아와 수교를 맺은 이래 최초의 지원 사업이었다. KOICA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재활 센터를 건립하고, 재활 장비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불가리아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복지를 증진시켰다. KOICA는 1998년 당시 IMF라는 힘겨운 경제 상황에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불가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장애인 복지 센터는 양국 우호 관계의 상징물이 되었다.

사업명 불가리아 장애인 복지 센터 건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1997년~1998년 | **사업 규모** 50만 달러 | **지원 내역** 센터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02 BULGARIA 소피아대학에는 한국어과가 있어요

소피아대학 한국어 센터 건립 지원 사업
The Construction of Korean studies center at Sofia University

"불가리아에는 한국 사람이 1백50명밖에 살지 않아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 한국인을 만나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하기를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소피아대학 한국어학과 학생 '야니차'의 이야기다. 한국어학과의 교육 환경은 다른 동양어학과인 일본어학과나 중국어학과에 비해 열악하다. 한국어학과는 소피아대학교 동양어학과 중 가장 늦게 개설되어 강의실과 어학 실습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임시 가건물에서 수업을 하는 실정이다. 소피아대학교는 한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한국어학과 강의동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1년 30만 달러를 들여 소피아대학교의 동양어학과 건물을 활용해 건물 내부와 외부 빈 공간에 도서실과 강의실 · 연구실 · 컴퓨터실 등을 증 · 개축하고, 어학 실습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어 전공 교수진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한국어학과 출신 학생들은 졸업 후 불가리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불가리아 정부 부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

사업명 불가리아 소피아대학 한국어 센터 건립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1년 | **사업 규모** 30만 달러 | **지원 내역** 센터 증 · 개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MONTENEGRO 몬테네그로

글 · 이동헌

01 MONTENEGRO 티밧 공항에 태극기와 KOICA 로고가 있다고?

티밧 공항 시설 개선 지원 사업 Montenegro Tivat Airport Modernization Program

몬테네그로는 유럽 동남부 아드리아 연안과 세르비아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7분의 1에 지나지 않고 인구는 68만 명 정도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고슬라비아 왕국에 편입되었고, 1946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공화국, 1992년 유고연방공화국, 2003년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국가 연합에 편입되었다가 2006년 몬테네그로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어로 '검은 산'이란 뜻이다.



발칸 반도가 가진 비운의 역사가 몬테네그로라는 국명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 현재 몬테네그로는 관광을 주요 수입원으로 살아간다. 남부 연안은 따뜻한 아드리아 해와 인접해 있어 연간 1백만 명 이상의 유럽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몬테네그로의 관문은 티밧(Tivat) 공항이다. 하지만 시설은 낙후되었고, 여객 수송량은 포화 상태다.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45편의 비행기가 취항하지만 항공기 운항 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이 없어 종종 큰 혼잡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항공운항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7~2008년까지 100만 달러를 투입해 티밧 공항의 시설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KOICA는 티밧 공항의 운항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2007년 10월 16일 개통하고, 입출국 터미널과 수하물 터미널, VIP 라운지 등 주요 장소에 운항 정보 표시용 모니터 34대를 설치했다.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한 몬테네그로 정부는 우리나라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 시각을 표시하는 여객 터미널 시계에 동북아시아 국가를 대표해 서울을 선정했다. 또한 수하물 터미널 안의 눈에 띄는 두 곳에 태극기와 KOICA 로고를 부착해 놓았다. 티밧 공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뿌듯한 감회에 젖게 될 것이다.

사업명 몬테네그로 티밧 공항 시설 개선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7~2008년 | **사업 규모** 100만 달러 | **지원 내역** 운항 정보 시스템, 기자재 지원, 연수생 국내 초청





SERBIA
세르비아

글 · 문상원

01 SERBIA 세르비아에 지원한 최초의 무상 원조

기업 육성 행정 역량 강화 지원 사업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Business Processes of Business Registers Agency in the Republic of Serbia

세르비아 기업등록청은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등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시장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법적 보호 체계 마련 및 공공 분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 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 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IT 신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을 인식한 세르비아 정부는 행정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KOICA는 2008~2009년까지 320만 달러를 투입해 기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숍One Stop Shop'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시스템, 그리고 유관 기관과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축적 가공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 및 방대한 양의 기업 등록 서류를 전산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보안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기자재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지속적인 확장과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

KOICA는 투명하고 신속한 기업 등록을 통해 세르비아의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세르비아에 지원하는 최초의 무상 협력 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경제 교류 등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세르비아가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전자 상거래 등의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명 세르비아 기업 육성 행정 역량 강화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08~2009년 | **사업 규모** 320만 달러 | **지원 내역** 시스템 개발,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국가별 집필자

성명	담당국가
김진오	총괄
고미라	인도네시아
권새봄	수단, 앙골라, 잠비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차드
김소영	베트남
김영경	몽골
김영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김준모	요르단, 이라크, 팔레스타인
김태은	캄보디아, 피지
라갑채	세네갈, 짐바브웨, 이라크, 리비아
문상원	세르비아,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박금옥	스리랑카
박상백	네팔,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박숙현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박준성	필리핀
백승화	이집트, 예멘, 이란, 레바논, 시리아
서동성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손송희	미얀마, 태국
안지희	라오스, 동티모르
유지영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윤지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동현	페루, 루마니아, 몬테네그로
이상백	에티오피아, 이라크, 탄자니아
이유리	멕시코, 벨리즈,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장봉희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전영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조정명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조형래	중국
추경완	몽골, 방글라데시
황재상	베트남